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1091-10



# 통계분석

2021 범죄예방정책

## 발간사

#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의 씨앗이 되기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인을 재범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적응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자원과 환경에서 성공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엄밀한 정책분석과 과학적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데이터 기반 또는 증거 기반 정책을 통해 가능합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하나로 작년에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을 재발간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지도와 감독,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신질환 범죄인의 치료, 범질서 실천 운동과 법무보호복지사업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 두 번째로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2020년의 주요 성과와 현황을 추가하였고, 특히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제도의 도입,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범위의 확대 등 새롭게 시행된 정책의 결과를 포함하였으며, 발간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소소한 변화도 시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혼란과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택트(Untact)’ 또는 ‘온택트(Ontact)’ 상황으로 범죄예방 현장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였고, 범죄예방의 ‘뉴노멀(New Normal)’로의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은 단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커다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돕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께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至難)한 범죄예방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구성원들, 적극적으로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지원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9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우강



## 일러두기

### 01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행한 정책실무의 결과이며, 증거기반의 범죄예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02

본 통계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보호관찰 정보시스템(보호관찰,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통합지원시스템(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소년보호 교육종합관리시스템(소년보호, 청소년비행 예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치료감호)을 토대로,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분석하였습니다.

### 03

본 통계분석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소관 업무에 따라 총 9장으로 구성하였고,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범죄예방정책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개관으로, 보호관찰·소년보호·청소년비행예방·치료감호 등의 개요와 민간자원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부터 제9장은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등의 업무를 세분하여, **제2장**은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조사 등의 업무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은 보호관찰기관의 전자감독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을, **제4장**은 보호관찰기관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 집행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5장**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교육·사회정착지원·분류심사 등 소년보호 업무를, **제6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청소년비행 예방교육과 비행 진단 업무를, **제7장**은 정신질환 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주요 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8장**과 **제9장**은 범죄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갱생보호사업과 시민 대상의 다양한 법교육 현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 04

본 통계분석의 각 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년간의 통계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몇몇 지표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간의 통계 또는 2020년의 통계가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7

본 통계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의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재범률의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각 지표의 백분율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나, 총계가 100이 되지 않는 경우 일부 반올림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통계표의 부호 '-'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05

본 통계의 단위는 지표 유형에 따라 '건'(사건) 또는 '명'(인원)입니다.

## 08

본 통계분석은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



## 06

본 통계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각 지표의 작성기준, 산출공식 등은 지표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제1장 범죄예방정책 개관	제1절 보호관찰 개요	24
	1. 접수사건 현황	24
	2. 기관별 접수사건 현황	27
	3. 실시사건 현황	29
	4. 기관별 실시사건 현황	31
	5.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33
	6. 종료 현황	34
	제2절 소년보호 개요	36
	1. 신수용 현황	36
	2. 기관별 신수용 현황	39
	3. 일일 평균 수용 현황	40
	4. 보호소년 출원 현황	42
	5. 기관별 출원 현황	44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45
	1. 비행예방교육	45
	2. 비행진단	47
	제4절 치료감호 개요	49
	1. 입소 현황	49
	2. 수용 현황	51
	3. 연평균 수용 현황	53
	4. 출소 현황	54
	5.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총원율	56

<b>제5절 민간 자원</b>	<b>58</b>
1. 보호관찰위원 현황	58
1) 위촉 현황	58
2) 활동 현황	59
2. 소년보호위원 현황	60
1) 위촉 현황	60
2) 기관별 위촉 현황	62
3. 법무보호위원 현황	62
1) 위촉 현황	62
2) 활동 현황	63
■ 참고 :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65

제2장  
**보호관찰**

<b>제1절 보호관찰</b>	<b>80</b>
1. 접수사건 현황	80
1) 사범별 현황	80
2) 근거 법률별 현황	82
3) 처분유형별 현황	84
4) 연령별 현황	86
5) 성별 현황	88

# 목 차

---

6) 성별에 따른 연령별 현황	89
7)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	91
8) 내외국인 현황	94
9) 외출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 부과 현황	95
2. 실시사건 현황	100
1) 사범별 현황	100
2) 근거 법률별 현황	102
3) 처분유형별 현황	103
4) 소년 보호관찰 사건의 학생 현황	104
3. 현재원 현황	106
1) 연령별 현황	106
2) 사범별 현황	106
4. 제재	109
1) 서면경고 현황	109
2) 지명수배 활용 현황	109
3) 구인 및 유치 현황	110
4)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	111
5)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인용 현황	112
6)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현황	114
5.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115
1) 소년 보호관찰사건	115
2) 성인 보호관찰사건	117

<b>제2절 치료명령</b>	<b>119</b>
1. 접수사건 현황	120
1) 개요	120
2) 문제유형별 현황	121
3) 사범별 현황	123
4) 연령 및 성별 현황	125
5) 치료명령 기간별 현황	126
2. 집행사건 현황	127
1) 치료명령	127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28
3. 현재원 현황	128
1) 문제유형별 현황	128
2) 사범별 현황	129
4. 치료기관 현황	130
<b>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b>	<b>131</b>
1. 집행 현황	132
2. 치료기관 현황	133
<b>제4절 보호관찰조사</b>	<b>135</b>
1. 개요	135
1) 종류별 접수 현황	135
2) 기관별 접수 현황	138

# 목 차

---

2. 판결전조사	140
1) 사범별 접수 현황	140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41
3. 결정전조사	143
1) 종류별 접수 현황	143
2) 사범별 접수 현황	145
3)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46
4)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48
5)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49
6)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51
4. 청구전조사	152
1) 종류별 접수 현황	152
2) 부칙명령 청구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53
5. 검사 결정전조사	155
1) 종류별 접수 현황	155
2) 사범별 접수 현황	155
3)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57
6. 환경조사	158
1) 사범별 접수 현황	158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160

제3장  
전자감독

<b>제1절 전자감독</b>	<b>164</b>
1. 접수 현황	165
1) 범죄유형별 현황	165
2) 처분유형별 현황	167
3)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른 현황	169
4) 전자장치 부착기간별 현황	170
5) 성별 현황	170
6)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 현황	171
7)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 현황	171
2. 실시사건 및 현재원 현황	172
1) 실시사건 현황	172
2) 현재원 현황	174
3)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	174
3. 처우 프로그램 및 원호 현황	176
1)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	176
2) 원호 실시 현황	177
4. 전자감독기간 중 재범	179
1) 특정범죄 재범 현황	179
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재범 현황	179
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	180
<b>제2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b>	<b>181</b>
1.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현황	181
2. 등록사건 유형별 현황	183
3. 신규 등록사건 죄명별 현황	184
4. 재등록사건 현황	185
5. 등록 종료 현황	187

# 목 차

제4장	제1절 사회봉사명령	192
<b>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b>	1. 접수사건 현황	192
	1) 근거 법률별 현황	192
	2) 연령별 현황	195
	3) 사범별 현황	197
	4) 명령시간별 현황	202
	5) 내외국인 현황	207
	2. 실시사건 현황	208
	1) 근거 법률별 현황	208
	2) 연령별 현황	210
	3) 부과 형태별 현황	211
	3. 집행 현황	213
	1) 개요	213
	2) 집행 형태별 현황	214
	3) 집행 분야별 현황	216
	4) 집행 형태별 집행 분야 현황	219
	4. 협력기관 현황	222
	5. 종료 현황	223
	1) 개요	223
	2)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종료 현황	225
	3)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 현황	226
	4)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처분변경 등 세부 현황	227

---

<b>제2절 수강명령</b>	<b>229</b>
1. 접수사건 현황	229
1) 개요	229
2) 처분유형별 현황	231
3) 이수명령의 근거 법률별 현황	234
4) 연령별 현황	235
5) 성별 현황	238
6)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	241
7) 내외국인 현황	245
8) 사범별 현황	246
9) 명령시간별 현황	248
2. 협력기관 현황	251

---

제5장  
**소년보호**

---

<b>제1절 수용 세부 현황</b>	<b>254</b>
1.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	254
2.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256
3.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	257
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	259

# 목 차

---

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	260
6.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262
7.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	263
8.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	265
<b>제2절 출원 세부 현황</b>	<b>266</b>
1. 보호소년 처분별 출원 현황	266
1) 7호 처분	266
2) 8호 처분	268
3) 9호 처분	269
4) 10호 처분	270
2.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	272
3.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	273
<b>제3절 교육 실시 현황</b>	<b>275</b>
1.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275
2. 기관별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277
3.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278
4. 기관별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279
5.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280
6. 기관별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282
7. 보호소년 경시대회 입상 현황	283

<b>제4절 사회정착지원 현황</b>	<b>285</b>
1. 개방처우 현황	285
2.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287
3. 취업 지원 현황	288
4. 자립 지원 현황	290
<b>제5절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현황</b>	<b>292</b>
1. 분류심사 실시 현황	292
2. 기관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	294
3.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295
4.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297
<b>제6절 재입원율 현황</b>	<b>299</b>

제6장  
**청소년비행예방**

<b>제1절 비행예방교육</b>	<b>304</b>
1. 대안교육	304
1) 의뢰기관별 현황	304
2) 교육기간별 현황	306
3) 의뢰기관에 따른 교육기간 현황	307
4) 비행유형별 현황	310
5) 기관별 대안교육 실시 현황	311

# 목 차

---

2. 보호자교육	312
1) 개요	312
2)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	314
3)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315
<b>제2절 비행진단</b>	<b>316</b>
1. 상담조사	316
1) 개요	316
2) 기관별 상담조사 실시 현황	318
2. 청소년 심리상담	319
1)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	319
2) 검사종류별 실시 현황	321
3) 기관별 청소년 심리상담 실시 현황	322
<b>제3절 자립지원기관 현황</b>	<b>323</b>
1. 개요	323
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	324
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324

---

<b>제7장</b> <b>치료감호</b>	<b>제1절 피치료감호자 특성</b>	<b>328</b>
	1. 치료감호 유형별 현황	328
	2. 병명별 현황	330

3. 죄명별 현황	331
4. 범죄 횟수별 현황	333
5. 치료감호 집행기간별 현황	334
6. 연령별 현황	336
7. 학력별 현황	337
8. 직업별 현황	339
9.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물질별 현황	340
<b>제2절 피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b>	<b>342</b>
1.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	342
2. 직업훈련 세부 현황	343
3.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	344
4. 진단검사 현황	346
5. 치료감호 출소자 무상 외래진료 현황	347
<b>제3절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현황</b>	<b>349</b>
1. 치료감호 기간별 현황	349
2. 죄명별 현황	350
3. 병명별 현황	351
<b>제4절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b>	<b>353</b>
1.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 현황	353
2. 출소자의 3년 내 재입소 현황	353
3. 피치료감호 유형별 3년 내 재입소 현황	355

# 목 차

---

4. 죄명별 재입소 현황	356
5. 병명별 재입소 현황	357
6. 감호집행정지 현황	358
<b>제5절 정신감정 유치</b>	<b>360</b>
1. 정신감정 유치자 입·출소 현황	360
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	361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현황	362

---

## 제8장 갱생보호

<b>제1절 개요</b>	<b>366</b>
1. 갱생보호사업 연혁	366
2. 갱생보호의 방법 및 지원 절차	366
<b>제2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b>	<b>367</b>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혁 및 임직원 현황	367
2. 공단 갱생보호사업 개요	368
3. 공단 갱생보호사업 분야별 현황	369
1) 생활지원	369
2) 취업지원	372
3) 가족지원	374
4) 상담지원	377

<b>제3절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b>	<b>378</b>
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개요	378
2. 분야별 현황	379
1) 생활지원	379
2) 취업지원	381
3) 주거지원	382
4) 심리상담	382

제9장  
**법교육**

<b>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b>	<b>386</b>
1. 법교육 개요	386
2. 법교육 프로그램 유형	386
3. 법교육 프로그램 전체 실시 현황	387
4.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	388
5.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	389
6.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	390
7.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	391
8.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	392
9. '모두가 행복한 교실' 및 '학생자치법교육' 실시 현황	393

# 목 차

---

제2절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395
1. 개요	395
2.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395
제3절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실시 현황	397
1. 솔로몬로파크 개요	397
2.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개요	397
3.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398
4.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	399

---

## 부록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 현황	404
2.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406
3.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407



# 통계분석

2021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Chapter 1

# 범죄예방정책 개관

- 제1절 보호관찰 개요
- 제2절 소년보호 개요
-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 제4절 치료감호 개요
- 제5절 민간 자원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보호관찰 개요

## 1 접수사건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보호관찰 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치료명령(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2020년에 접수된 보호관찰 등의 사건은 총 183,390건으로, 보호관찰 45,592건(24.9%), 사회봉사명령 51,043건(27.8%), 수강명령 60,474건(33.0%), 보호관찰조사 23,176건(12.6%), 전자감독 2,527건(1.4%), 치료명령 572건(0.3%)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6건(0.0%)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전체 접수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약 2~15% 증가하여 2017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전년 대비 6.6%와 2.7%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18.1% 증가한 것이다.
- 분야별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증감추이는 전체 사건의 증감 양상과 일치하였으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조사는 2017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자감독은 2020년에 전년보다 204.5% 폭증하였다.
- 또한, 2014년과 2020년의 접수사건을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과 보호관찰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2020년의 접수사건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자감독과 수강명령의 증가폭이 커서 전자감독이 166.0%, 수강명령이 55.9% 증가하였다.

표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4-2020)

연도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2014		154,492	46,110	43,843	38,796	24,782	950	-	11
		100%	29.9%	28.4%	25.1%	16.0%	0.6%	-	0.0%
2015		168,248	47,991	46,707	45,027	27,681	836	-	6
		100%	28.5%	27.8%	26.8%	16.4%	0.5%	-	0.0%
2016		193,133	51,844	49,965	62,702	27,464	1,133	16	9
		100%	26.8%	25.9%	32.5%	14.2%	0.6%	0.0%	0.0%
2017		196,193	53,419	52,668	62,315	26,024	1,154	606	7
		100%	27.2%	26.8%	31.8%	13.3%	0.6%	0.3%	0.0%
2018		183,274	49,073	49,873	56,291	26,528	929	572	8
		100%	26.8%	27.2%	30.7%	14.5%	0.5%	0.3%	0.0%
2019		178,417	48,508	47,692	55,761	24,858	830	750	18
		100%	27.2%	26.7%	31.3%	13.9%	0.5%	0.4%	0.0%
2020		183,390	45,592	51,043	60,474	23,176	2,527	572	6
		100%	24.9%	27.8%	33.0%	12.6%	1.4%	0.3%	0.0%

\* 2016년 12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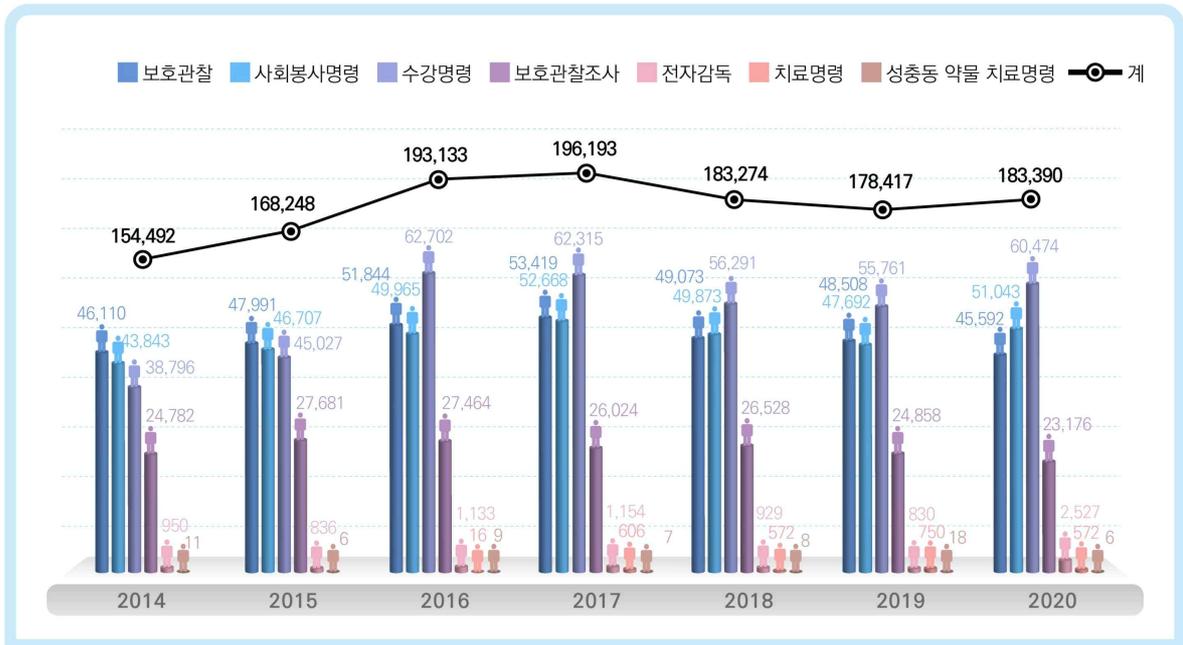


그림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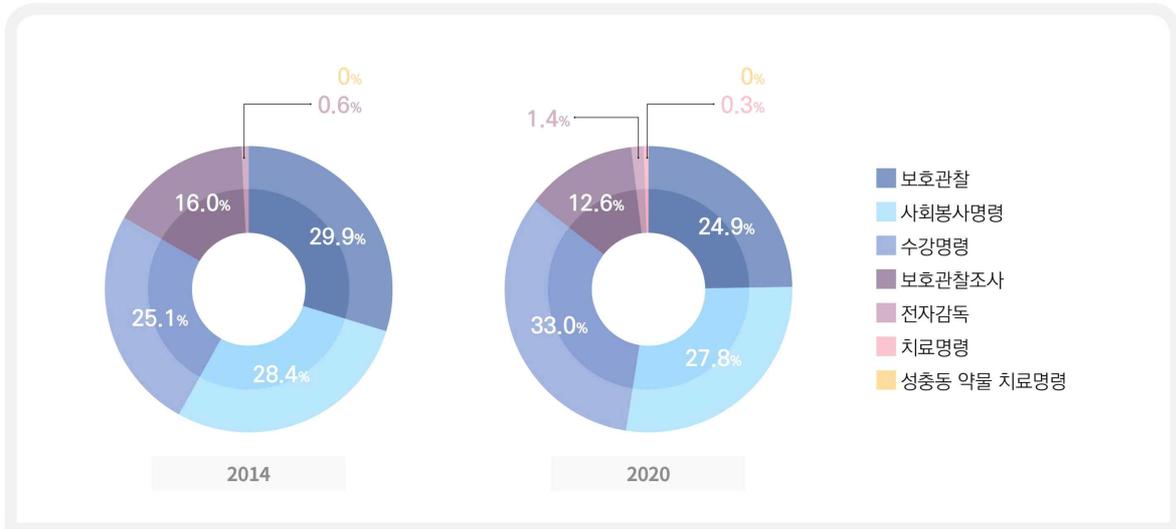


그림 1-1-2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점유율(2014, 2020)

- ➔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의 증감 추이는 검찰의 기소·송치 사건의 추이와 일치하고 있어,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의 증감은 기소·송치 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과 검찰의 기소·송치 사건은 모두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기소·송치 사건 대비 보호관찰 등의 처분율은 2015년 22.5%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9년에는 25.5%를 기록하였다.

[기소·송치 인원 현황 등]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소·송치 사건*	747,722	817,335	845,279	751,132	701,047
기소·송치 사건의 전년 대비 증감률	1.4%	9.3%	3.4%	-11.1%	-6.7%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168,243	193,131	196,191	183,274	178,417
보호관찰 사건의 전년 대비 증감률	8.9%	14.8%	1.5%	-6.6%	2.8%
기소·송치 사건 대비 보호관찰 등 처분율	22.5%	23.6%	23.2%	24.4%	25.5%

\* 구공판(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성매매보호송치, 아동보호송치 사건 등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2 기관별 접수사건 현황

### 개요

- 각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보호관찰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 2020년의 기관별 보호관찰 접수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보호관찰소가 10,0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보호관찰소 8,395건, 의정부보호관찰소 7,598건, 대전보호관찰소 7,361건, 광주보호관찰소 7,060건 등의 순이었다, 그 외 6,000건 이상의 접수 기관은 창원보호관찰소(6,885건), 인천보호관찰소(6,756건), 서울남부보호관찰소(6,441건), 대구보호관찰소(6,366건), 울산보호관찰소(6,097건) 등이었다.

표 1-1-2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 접수사건 현황(2020)

기관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계		180,285	45,592	51,043	60,474	23,176
서울		8,395	2,017	2,306	2,777	1,295
서울동부		4,720	1,050	1,185	1,628	857
서울남부		6,441	1,680	1,723	1,911	1,127
서울북부		4,867	1,110	1,196	1,784	777
서울서부		3,977	910	1,120	1,273	674
의정부		7,598	1,708	2,052	2,834	1,004
고양		5,336	1,237	1,405	1,645	1,049
인천		6,756	1,888	1,894	2,392	582
인천서부		2,807	804	770	1,020	213
부천		4,195	1,027	1,322	1,397	449
수원		10,085	2,171	3,155	3,511	1,248
성남		4,793	1,012	1,270	1,506	1,005
여주		1,574	460	456	549	109
안산		4,912	1,124	1,512	1,775	501
평택		3,174	794	943	1,260	177
안양		2,375	538	816	828	193
춘천		1,575	349	387	671	168
강릉		1,360	409	344	469	138

기관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원주		1,564	413	527	536	88
속초		630	142	218	214	56
영월		650	105	303	224	18
대전		7,361	2,040	2,050	2,229	1,042
홍성		1,205	313	273	384	235
공주		505	164	169	135	37
논산		773	259	187	276	51
서산		1,766	333	353	766	314
천안		3,411	977	982	1,222	230
청주		3,463	910	924	1,134	495
충주		1,163	316	331	337	179
제천		586	165	178	183	60
영동		397	84	105	110	98
대구		6,366	1,970	1,672	2,221	503
대구서부		3,261	836	947	1,162	316
안동		940	227	286	275	152
경주		836	186	305	322	23
포항		2,140	621	560	868	91
구미		2,842	847	732	1,031	232
상주		629	216	181	206	26
영덕		581	149	199	176	57
부산		4,372	1,085	1,247	1,225	815
부산동부		4,134	1,038	1,064	1,295	737
부산서부		3,914	977	1,142	1,133	662
울산		6,097	1,670	1,936	1,965	526
창원		6,885	1,570	2,384	2,050	881
진주		2,674	733	810	850	281
통영		1,638	379	447	559	253
밀양		640	187	164	247	42
거창		618	217	152	162	87
광주		7,060	1,749	1,917	2,570	824
목포		1,787	505	410	442	430
순천		3,540	897	929	1,281	433
해남		758	191	209	201	157
전주		3,654	836	1,075	1,255	488
군산		2,161	593	654	622	292
정읍		921	302	233	247	139
남원		532	156	145	127	104
제주		2,891	946	787	1,002	156

※ 보호관찰과 병과된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등은 하나의 보호관찰 사건으로 산정하였다.

### 3 실시사건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 보호관찰 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치료명령(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2020년에 실시한 보호관찰 등의 사건은 총 265,601건이며, 분야별로는 보호관찰 95,861건(36.1%), 수강명령 74,721건(28.1%), 사회봉사명령 62,009건(23.4%), 보호관찰조사 25,201건(9.5%), 전자감독 6,196건(2.3%), 치료명령 1,580건(0.6%),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33건(0.0%) 등이었다.
- 최근 7년간 보호관찰 등의 실시사건 증감 양상은 접수사건과 동일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3~12% 증가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은 전체 사건의 증감추세와 대체로 일치하였는데, 2020년의 실시사건을 2014년과 비교할 때 사회봉사명령은 21.4%, 수강명령은 49.8%, 전자감독은 90.1% 등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은 0.7% 증가하였고 보호관찰조사는 7년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2014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표 1-1-3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2014~2020)

연도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2014		225,439	95,198	51,058	49,883	26,033	3,260	-	7
		100%	42.2%	22.7%	22.1%	11.6%	1.4%	-	0.0%
2015		243,133	96,419	55,581	58,239	29,288	3,598	-	8
		100%	39.7%	22.9%	23.9%	12.0%	1.5%	-	0.0%
2016		272,911	100,995	58,287	80,819	28,714	4,066	16	14
		100%	37.0%	21.4%	29.6%	10.5%	1.5%	0.0%	0.0%
2017		281,240	105,705	63,050	79,313	28,183	4,350	622	17
		100%	37.6%	22.4%	28.2%	10.0%	1.6%	0.2%	0.0%
2018		270,163	104,850	60,286	70,780	28,476	4,668	1,080	23
		100%	38.8%	22.3%	26.2%	10.6%	1.7%	0.4%	0.0%
2019		262,461	101,089	58,497	69,389	27,357	4,563	1,527	39
		100%	38.5%	22.3%	26.4%	10.4%	1.8%	0.6%	0.0%

분야 연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2020	265,601	95,861	62,009	74,721	25,201	6,196	1,580	33
	100%	36.1%	23.4%	28.1%	9.5%	2.3%	0.6%	0.0%

\* 2016년 12월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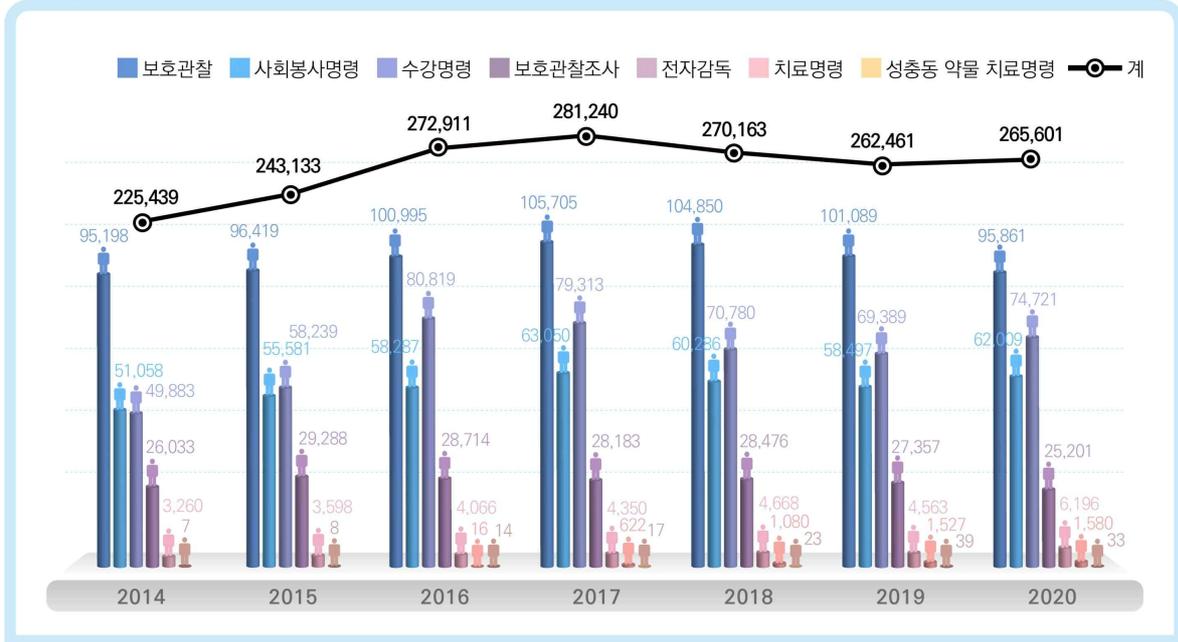


그림 1-1-3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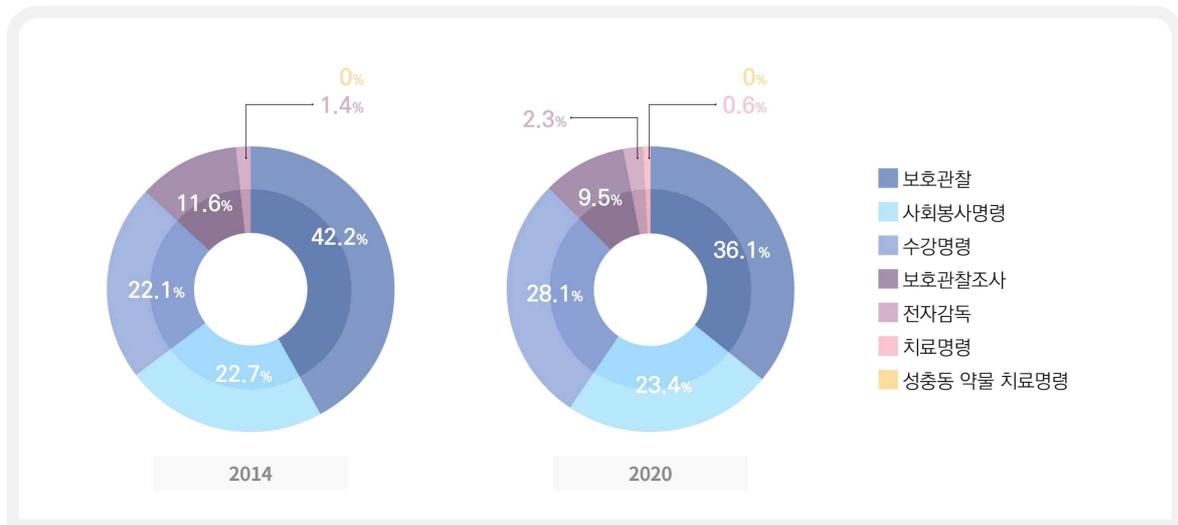


그림 1-1-4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의 분야별 점유율(2014, 2020)

## 4 기관별 실시사건 현황

### 개요

- 각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 보호관찰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 2020년의 기관별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살펴보면 접수사건과 동일하게 수원보호관찰소가 13,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보호관찰소 12,016건, 의정부보호관찰소 10,718건, 대전보호관찰소 10,231건, 광주보호관찰소 10,142건 등의 순이었다.
- 그 외 실시사건이 8,000건 이상인 기관에는 인천보호관찰소(9,906건), 창원보호관찰소(9,276건), 대구보호관찰소(9,191건), 서울남부보호관찰소(9,129건), 울산보호관찰소(8,745건) 등이 있었다.

표 1-1-4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 실시사건 현황(2020)

기관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전국		257,792	95,861	62,009	74,721	25,201
서울		12,016	4,085	2,844	3,650	1,437
서울동부		6,463	2,089	1,415	2,016	943
서울남부		9,129	3,501	1,979	2,423	1,226
서울북부		6,963	2,240	1,448	2,443	832
서울서부		5,558	1,806	1,385	1,634	733
의정부		10,718	3,588	2,496	3,515	1,119
고양		6,922	2,183	1,694	1,914	1,131
인천		9,906	3,965	2,290	2,988	663
인천서부		4,022	1,611	925	1,235	251
부천		6,329	2,211	1,768	1,789	561
수원		13,534	4,303	3,609	4,314	1,308
성남		6,500	1,960	1,534	1,915	1,091
여주		2,279	964	526	672	117
안산		7,130	2,578	1,800	2,209	543
평택		4,652	1,705	1,145	1,598	204
안양		3,470	1,205	1,028	1,034	203
춘천		2,432	935	509	810	178
강릉		2,108	935	421	607	145
원주		2,519	1,049	679	684	107

기관	분야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속초		914	303	249	302	60
영월		992	261	404	305	22
대전		10,231	4,033	2,473	2,559	1166
홍성		1700	654	346	444	256
공주		711	323	191	160	37
논산		1219	602	217	341	59
서산		2,361	704	421	906	330
천안		5,050	2,061	1,260	1,465	264
청주		5,286	2100	1,185	1,470	531
충주		1,615	600	378	431	206
제천		810	307	221	218	64
영동		590	193	131	157	109
대구		9,191	4,017	1,991	2,670	513
대구서부		4,922	1,934	1192	1,454	342
안동		1,430	571	336	339	184
경주		1143	356	360	400	27
포항		3,011	1131	679	1105	96
구미		3,844	1486	917	1188	253
상주		1012	454	249	280	29
영덕		776	248	238	231	59
부산		6,288	2,427	1,470	1,493	898
부산동부		6,057	2,282	1,384	1,566	825
부산서부		5,504	2027	1,414	1343	720
울산		8,745	3,491	2,261	2,423	570
창원		9,276	2,973	2,916	2,477	910
진주		3,757	1498	963	1003	293
통영		2,687	1021	635	769	262
밀양		880	388	177	272	43
거창		851	400	183	180	88
광주		10,142	4,151	2,181	2,939	871
목포		2,651	1144	506	563	438
순천		5,187	2,087	1091	1547	462
해남		1176	474	266	259	177
전주		5,088	1,853	1,215	1,506	514
군산		3,207	1,193	853	856	305
정읍		1394	674	267	303	150
남원		728	296	179	147	106
제주		4,716	2,231	1,115	1,200	170

※ 보호관찰과 병과된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등은 하나의 보호관찰 사건으로 산정하였다.

## 5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 지표정의

- 현재원 : 기준일 현재 보호관찰 집행 중인 사건
- 보호관찰 등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교육 등 포함),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치료명령(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보호관찰 등의 현재원은 총 127,899건으로, 보호관찰 49,560건(38.7%), 수강명령 37,430건(29.3%), 사회봉사명령 33,778건(26.4%), 전자감독 4,052건(3.2%), 보호관찰조사 2,026건(1.6%), 치료명령 1,027건(0.8%),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26건(0.0%) 등이었다.

표 1-1-5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2020)

구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조사	전자감독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현재원	127,899	49,560	33,778	37,430	2,026	4,052	1,027	26
	100%	38.7%	26.4%	29.3%	1.6%	3.2%	0.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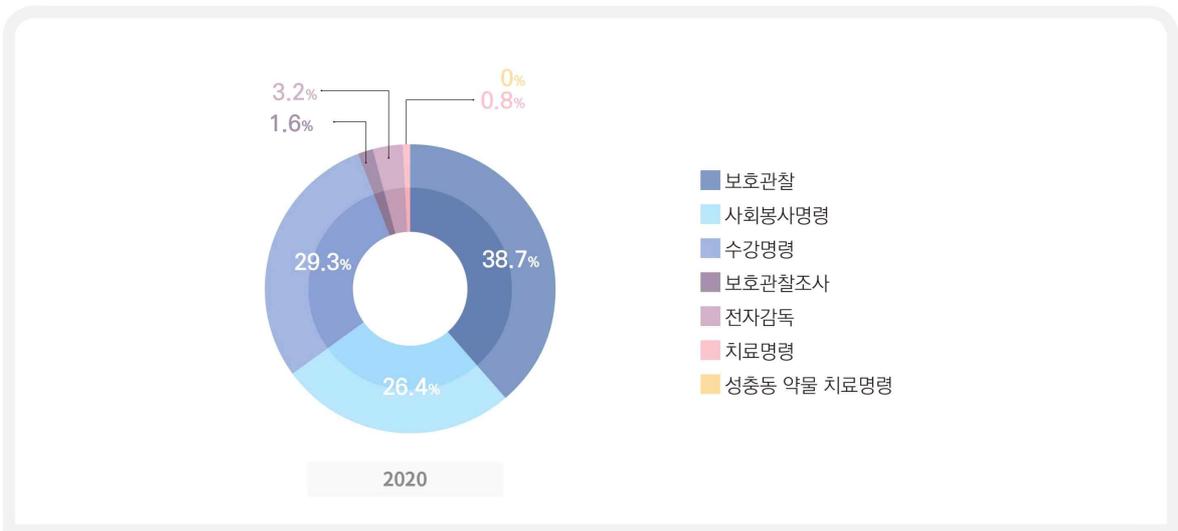


그림 1-1-5 보호관찰 등 현재원의 분야별 점유율(2020)

## 6 종료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사건 종료 현황

### 지표정의

- 종료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료사건 수
- 기간 만료 :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보호처분변경 등 : 보호처분자의 최초 보호처분이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 이송 : 보호관찰 관할기관 변경에 따른 이송

- 2020년의 보호관찰 종료사건은 총 46,301건으로, 그중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가 33,315건(72.0%) 이었고, 기관 간 이송에 의한 종료가 6,670건(14.4%),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가 5,578건(12.0%), 기타 종료가 738건(1.6%)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보호관찰 종료사건 수는 2014년 46,469건을 기록한 후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8%, 2020년에는 전년 대비 8.9% 각각 감소하였다.
- 한편, 종료 유형 중 처분변경 등의 제재 조치 없이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사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31,001건에서 2016년 32,485건, 2017년 34,165건, 2018년 34,924건, 2019년 36,498건이었다. 2020년에는 전체 종료사건의 감소로 인해 기간만료 종료사건이 33,315건으로 감소하였지만, 그 비율은 72.0%로 최근 7년중 가장 높았다.

표 1-1-6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4~2020)

연도	종료유형	계	기간만료	처분변경 등	이송	기타
2014		46,469	31,001	7,318	7,577	573
		100%	66.7%	15.7%	16.3%	1.2%
2015		47,241	31,476	7,674	7,412	679
		100%	66.6%	16.2%	15.7%	1.4%
2016		48,608	32,485	7,735	7,696	692
		100%	66.8%	15.9%	15.8%	1.4%
2017		49,921	34,165	7,244	7,794	718
		100%	68.4%	14.5%	15.6%	1.4%
2018		52,270	34,924	7,785	8,799	762
		100%	66.8%	14.9%	16.8%	1.5%
2019		50,820	36,498	6,394	7,165	763
		100%	71.8%	12.6%	14.1%	1.5%
2020		46,301	33,315	5,578	6,670	738
		100%	72.0%	12.0%	14.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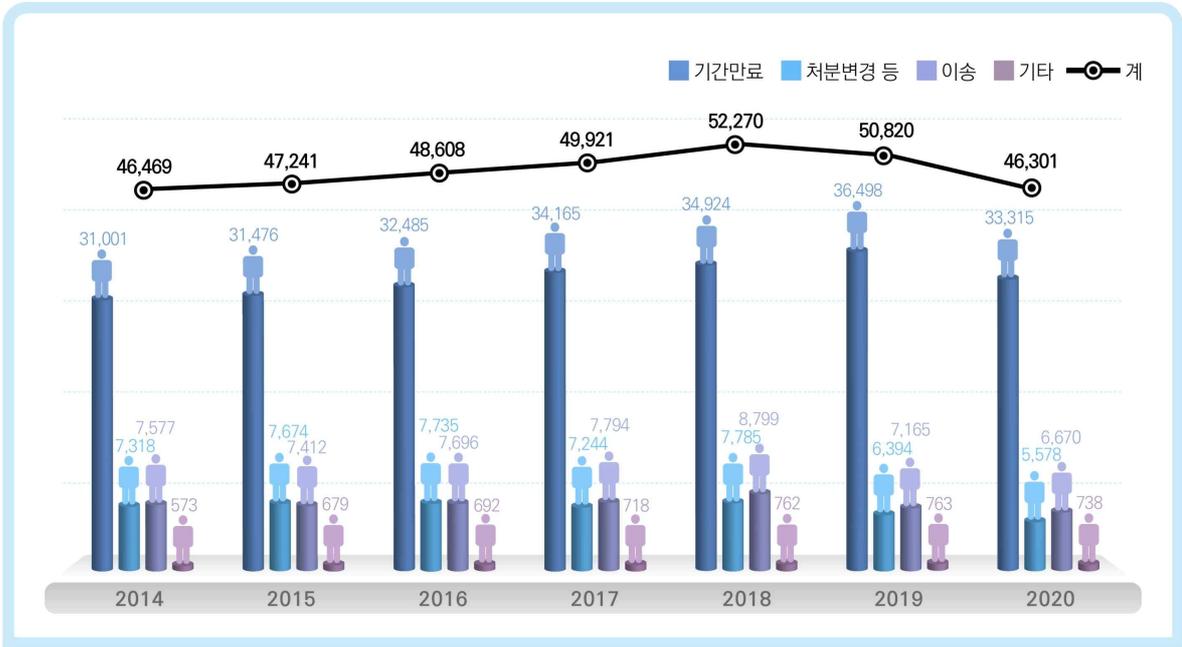


그림 1-1-6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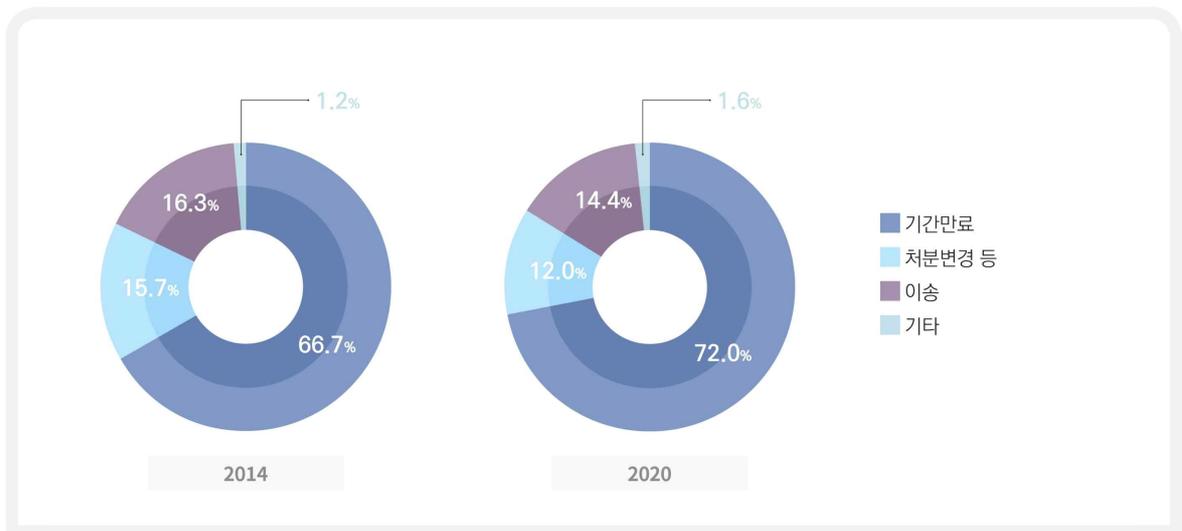


그림 1-1-7 보호관찰 종료사건의 유형별 점유율(2014, 2020)

## 제 2 절

# 소년보호 개요

### 1 신수용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신규로 입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신수용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신규로 입원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

- 최근 7년간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신수용된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8,272명, 2015년 8,466명, 2016년 7,504명, 2017년 8,359명, 2018년 7,902명, 2019년 7,032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는데, 매년 전년 대비 증감폭이 2~12% 수준이었다.
- 2020년의 신수용 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26%가 감소한 5,934명이며, 전체 신수용 인원 중 보호소년이 1,637명(27.6%), 위탁소년이 4,297명(72.4%)이었다.

표 1-2-1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2014		8,272	2,363	5,909
		100%	28.6%	71.4%
2015		8,466	2,288	6,178
		100%	27.0%	73.0%
2016		7,504	2,096	5,408
		100%	27.9%	72.1%
2017		8,359	2,450	5,909
		100%	29.3%	70.7%
2018		7,902	2,199	5,703
		100%	27.8%	72.2%

연도	구분	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2019	7,032	2,077
		100%	29.5%	70.5%
2020		5,934	1,637	4,297
		100%	27.6%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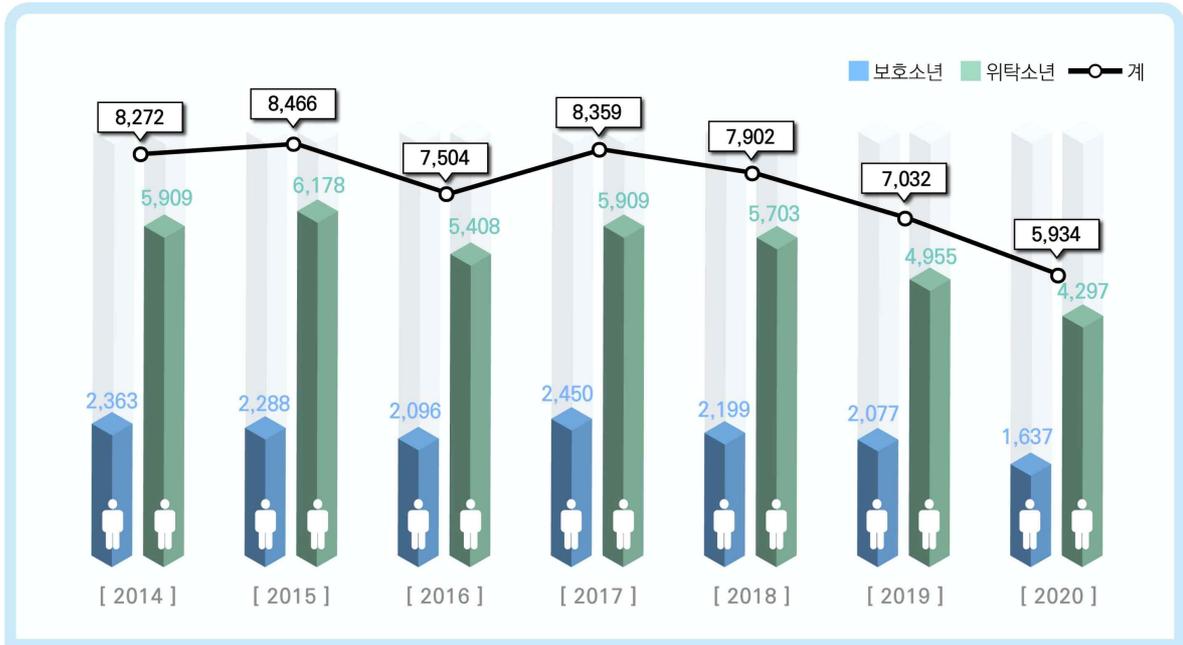


그림 1-2-1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4~2020)

➔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인원 감소는 소년 인구와 소년범죄 발생건수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0~18세 소년 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77,594건, 2015년 71,035건, 2016년 76,000건, 2017년 72,759건, 2018년 66,142건, 2019년 66,247건 등을 기록, 2016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소년인구, 소년범죄 발생건수, 보호처분 인원 등 현황]

연도	구분	소년 인구*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송치***	보호처분****				
					소계	7호	8호	9호	10호
2014		5,387,108	77,594	34,600	3,065	183	1,257	812	813
2015		5,145,484	71,035	35,920	3,122	141	1,321	794	866
2016		4,909,983	76,000	33,142	2,660	105	1,015	770	770
2017		4,727,024	72,759	34,474	3,025	198	1,099	972	756
2018		4,578,719	66,142	34,276	3,054	230	1,203	842	779
2019		4,407,203	66,247	34,890	2,931	269	1,061	821	78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10~18세 기준)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각년도 재구성.

➔ 2020년 신수용 인원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큰데, 특히 월별 신수용 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에 따른 증감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년보호기관은 관할 법원 등에 소년보호기관 위탁, 송치처분, 유치 등의 한시적 중지를 요청하였고, 법원 역시 한시적 심리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신수용 보호소년은 월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6월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이후 확진자의 증감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 또는 완화되면서 신수용 인원도 증가와 감소를 이어갔다.

※ 소년보호기관 보호소년의 월별 신수용 인원(2018~2020)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2,199	197	151	147	125	209	187	204	216	170	204	212	177
2019	2,077	218	161	124	144	131	188	176	179	189	172	200	195
2020	1,637	165	157	92	92	96	187	153	132	159	139	154	111

소년보호기관에 신수용된 위탁소년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에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이었다.

※ 소년보호기관 위탁소년의 월별 신수용인원(2018~2020)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5,703	512	347	433	457	566	491	496	526	379	506	578	412
2019	4,955	526	263	349	454	454	429	466	389	371	457	431	366
2020	4,297	401	255	170	390	445	445	448	311	375	411	362	284

## 2 기관별 신수용 현황

### 개 요

- 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신규로 입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신수용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신규로 입원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

- 2020년의 신수용 인원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2,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산소년원(994명), 대전소년원(584명), 광주소년원(537명), 서울소년원(453명), 전주소년원(350명) 등의 순이었다.

표 1-2-2 소년보호기관별 신수용 현황(2020)

기관	구분	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계		5,934	1,637	4,297
서울소년원		453	453	-
부산소년원		994	209	785
대구소년원		333	76	257
광주소년원		537	160	377
전주소년원		350	350	-
대전소년원		584	163	421
청주소년원		82	82	-
안양소년원		116	116	-
춘천소년원		129	4	125
제주소년원		84	24	60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272	-	2,272

### 3 일일 평균 수용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일일 평균 수용 인원 = 1년간 일일 수용인원의 합 / 각 년에 해당하는 일 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지된 소년

- 2020년 전국 소년보호기관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1,261명으로, 보호소년이 927명(73.5%), 위탁소년이 334명(26.5%)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일일 평균 수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1,500명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9년 1,342명, 2020년 1,261명 등을 기록하였다. 또한,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비율은 매년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대략 71~75%와 25~29%대를 유지하였다.

표 1-2-3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보호소년	위탁소년
2014		1,658	1,236	422
		100%	74.5%	25.5%
2015		1,549	1,112	437
		100%	71.8%	28.2%
2016		1,530	1,132	398
		100%	74.0%	26.0%
2017		1,612	1,168	444
		100%	72.5%	27.5%
2018		1,510	1,079	431
		100%	71.5%	28.5%
2019		1,342	946	396
		100%	70.5%	29.5%
2020		1,261	927	334
		100%	73.5%	26.5%



그림 1-2-2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4~2020)



그림 1-2-3 소년보호기관 일일평균 수용인원의 유형별 점유율(2020)

## 4 보호소년 출원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출원
- 임시퇴원 : 「보호소년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출원
- 기타 :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
- 퇴원 연기 :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확정되었으나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을 연기

- 2020년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은 총 1,675명으로, 퇴원에 의한 출원이 687명(41.0%),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이 859명(51.3%), 처분변경 또는 취소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출원이 129명(7.7%) 등이었다. 한편,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결정되었음에도 검정고시 또는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을 위해 출원을 연기한 보호소년이 7명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출원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60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2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과 2018에는 2,349명과 2,416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 2,058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도 전년 대비 18.6% 감소하였다.
- 또한, 출원 유형 중 퇴원에 의한 출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의 51~57%를 차지하다가 2020년에는 41%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의 40~44%를 차지하다가 2020년에는 전체의 51%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표 1-2-4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퇴원연기
2014		2,608	1,442	1,089	77	17
		100%	55.3%	41.8%	2.9%	
2015		2,242	1,283	889	70	13
		100%	57.2%	39.7%	3.1%	
2016		2,216	1,192	946	78	27
		100%	53.8%	42.7%	3.5%	
2017		2,349	1,329	946	74	13
		100%	56.5%	40.3%	3.2%	
2018		2,416	1,259	1,069	88	33
		100%	52.2%	44.2%	3.6%	

연도	구분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퇴원연기
2019		2,058	1,060	884	114	26
		100%	51.5%	43.0%	5.5%	
2020		1,675	687	859	129	7
		100%	41.0%	51.3%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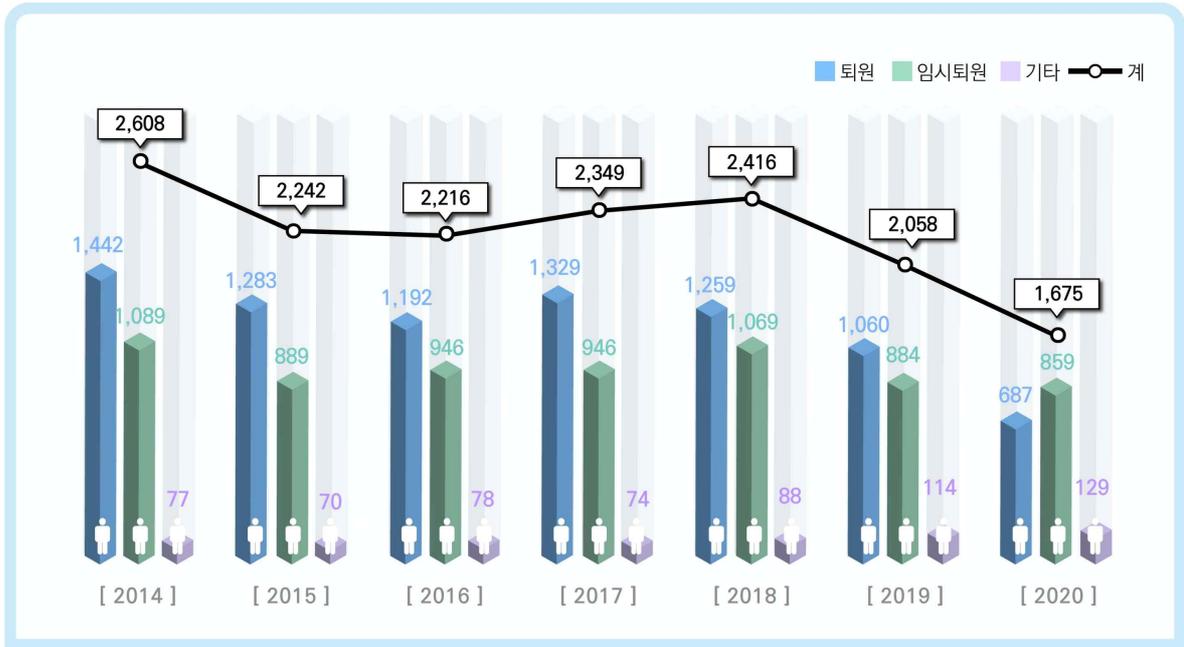


그림 1-2-4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 5 기관별 출원 현황

### 개 요

- 각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
- 임시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보호소년
- 기타 :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한 보호소년
- 퇴원 연기 :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을 연기한 보호소년

- 2020년 기관별 출원인원은 8호 보호소년(남성)을 수용하는 전주소년원이 4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소년원(221명), 청주소년원(173명), 대구소년원(153명), 춘천소년원(152명) 등의 순이었다.

표 1-2-5 소년원별 출원 현황(2020)

기관	구분	출원 유형			퇴원연기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계		1,675	687	859	129	7
서울소년원		221	44	166	11	1
부산소년원		83	1	72	10	3
대구소년원		153	55	86	12	1
광주소년원		142	18	115	9	-
전주소년원		462	356	94	12	-
대전소년원		131	78	0	53	-
청주소년원		173	96	69	8	-
안양소년원		129	20	101	8	2
춘천소년원		152	14	133	5	-
제주소년원		29	5	23	1	-

#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 1 비행예방교육

### 개 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비행예방교육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비행예방교육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의뢰된 대상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의뢰한 대상자 등에게 실시하는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
  - 대안교육 : 학교 부적응 학생,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실시
  - 법교육 : 초·중·고 학생,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모의법정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법교육 실시
  - 법체험 :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다양한 법체험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법무공무원 직업체험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 회복캠프 : 청소년, 보호자, 교사 자원 봉사자 등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소통과 공감의 활동 수행
  - 직무연수 : 초·중·고교 교사, 교육전문직, 청소년시설 지도자 등의 학교폭력예방·대처능력 향상 및 청소년 지도기법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연수 실시
  - 보호자교육 :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훈육·양육 태도 개선 및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 지원

- 2020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비행예방교육 인원은 총 115,270명으로, 법교육이 94,750명(8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법체험 10,724명(9.3%), 대안교육 5,491명(4.8%), 보호자교육 3,341명(2.9%)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비행예방교육 실시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86,778건이 실시된 후 매년 증가하여 2017년 389,58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299,33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321,02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4.1% 감소하였다.
- 2020년의 청소년비행예방교육 분야별 감소 폭은 회복캠프가 92.9%, 직무연수가 71.8%, 법교육이 64.2%, 법체험이 61.7%, 대안교육이 57.8%, 보호자교육 54.4% 등이었다.

표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대안교육	법교육	법체험	회복캠프	직무연수	보호자교육
2014		186,778	9,563	153,956	10,905	2,785	377	9,192
		100%	5.1%	82.4%	5.8%	1.5%	0.2%	4.9%
2015		256,933	9,735	211,331	22,022	4,236	645	8,964
		100%	3.8%	82.3%	8.6%	1.6%	0.3%	3.5%
2016		359,152	11,127	300,370	30,665	6,910	615	9,465
		100%	3.1%	83.6%	8.5%	1.9%	0.2%	2.6%
2017		389,580	13,578	328,584	28,568	10,521	1,352	6,977
		100%	3.5%	84.3%	7.3%	2.7%	0.3%	1.8%
2018		299,338	13,801	241,657	29,065	6,323	1,446	7,046
		100%	4.6%	80.7%	9.7%	2.1%	0.5%	2.4%
2019		321,029	13,002	265,011	28,028	5,695	1,973	7,320
		100%	4.1%	82.6%	8.7%	1.8%	0.6%	2.3%
2020		115,270	5,491	94,750	10,724	407	557	3,341
		100%	4.8%	82.2%	9.3%	0.4%	0.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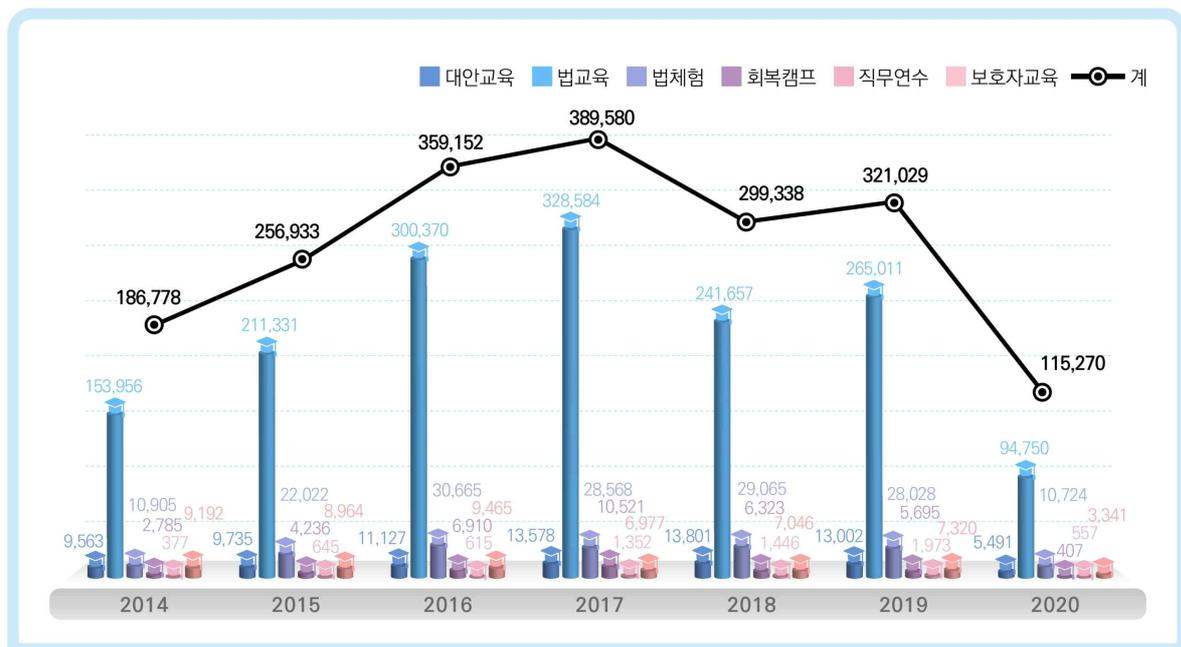


그림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4~2020)

## 2 비행진단

### 개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비행진단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비행진단 : 「소년법」 제12조에 의하여 법원 등에서 의뢰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과 인성교육 및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심리검사, 상담 실시
  - 상담조사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하여 실시하는 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실시
  - 청소년심리상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

- 최근 7년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실시인원은 2014년 14,281명, 2015년 15,165명, 2016년 16,466명, 2017년 17,112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14,092명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14,743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6.2% 감소한 6,460명을 기록하였다.
- 2020년의 비행진단 유형으로는 상담조사가 2,589명(40.1%), 청소년심리상담이 3,871명(59.9%)으로, 청소년심리상담 실시 인원은 전년 대비 68.6% 감소하였으나 상담조사 실시 인원은 6.9% 증가하였다.

표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상담조사	청소년 심리상담
2014		14,281	4,261	10,020
		100%	29.8%	70.2%
2015		15,165	4,119	11,046
		100%	27.2%	72.8%
2016		16,466	3,993	12,473
		100%	24.2%	75.8%
2017		17,112	4,179	12,933
		100%	24.4%	75.6%
2018		14,092	3,224	10,868
		100%	22.9%	77.1%
2019		14,743	2,421	12,322
		100%	16.4%	83.6%
2020		6,460	2,589	3,871
		100%	40.1%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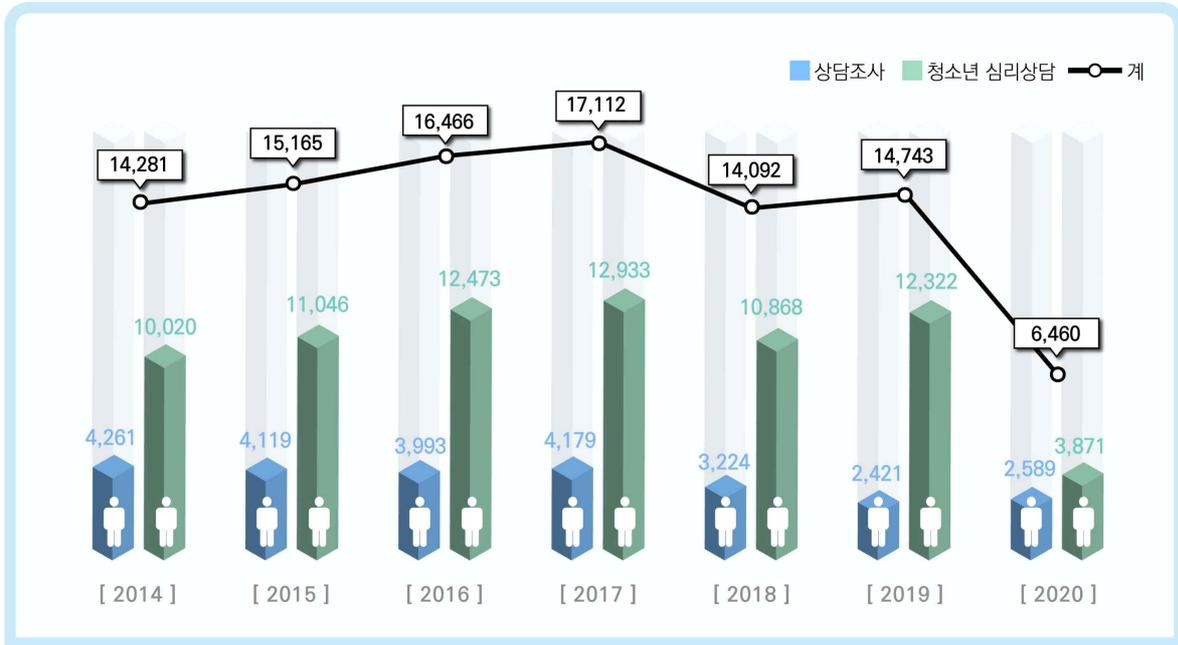


그림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4~2020)

# 치료감호 개요

## 1 입소 현황

### 개 요

- 치료감호소 입소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입소 인원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인원
- 피치료감호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대상자
- 감정유치자 : 법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형사정신감정이 의뢰된 사람
-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
- 치료위탁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가 위탁된 사람
- 보호구금자(미결수용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치료감호영장에 의해 보호구금된 사람
- 기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

- 2020년 치료감호소 입소 인원은 총 321명으로, 피치료감호자가 192명(59.8%), 감정유치자가 129명(40.2%)이었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대상자와 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등은 없었다.
- 최근 7년간 치료감호소 입소인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900명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 849명, 2017년 705명, 2018년 670명, 2019년 600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6.5% 감소하였다.
- 치료감호소 총 입소인원의 증감에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피치료감호자가 전체의 약 30% 수준을, 감정유치자가 약 70% 수준을 차지하였는데, 2020년에는 감정유치자의 감소 폭이 커 피치료감호자가 약 60%, 감정유치자가 약 40% 수준을 나타냈다.

표 1-4-1 치료감호소의 입소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피치로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미결수용자)
2014		918 (89)	311 (25)	604 (64)	3 (0)	0 (0)	0 (0)
		100%	33.9%	65.8%	0.3%	0.0%	0.0%
2015		959 (93)	307 (25)	652 (68)	0 (0)	0 (0)	0 (0)
		100%	32.0%	68.0%	0.0%	0.0%	0.0%
2016		849 (57)	311 (39)	536 (18)	2 (0)	0 (0)	0 (0)
		100%	36.6%	63.1%	0.2%	0.0%	0.0%
2017		705 (18)	240 (18)	464 (0)	1 (0)	0 (0)	0 (0)
		100%	34.0%	65.8%	0.1%	0.0%	0
2018		670 (11)	224 (11)	444 (0)	2 (0)	0 (0)	0 (0)
		100%	33.4%	66.3%	0.3%	0.0%	0.0%
2019		600 (23)	233 (23)	362 (0)	4 (0)	0 (0)	0 (0)
		100%	38.8%	60.3%	0.7%	0.0%	0.0%
2020		321 (22)	192 (22)	129 (0)	0 (0)	0 (0)	0 (0)
		100%	59.8%	40.2%	0.0%	0.0%	0.0%

※ ( )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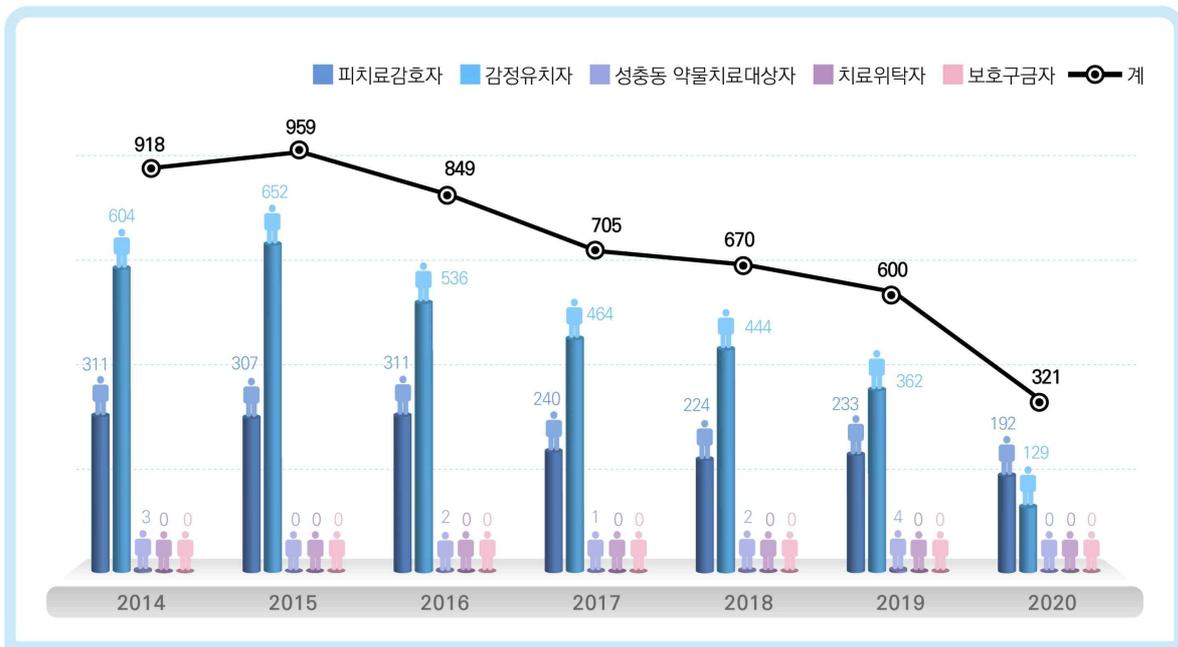


그림 1-4-1 치료감호소의 입소 현황(2014~2020)

### ➔ 치료감호 청구 현황

» 2020년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총 65건으로, 전년 대비 64.7% 감소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사건의 죄명으로는 기타가 22건(33.8%), 살인이 20건(30.8%), 폭력이 13건(20.0%) 등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다. 그 외 절도가 4건, 사기와 방화가 각 3건이었으며, 강도, 강간, 치사 등에 대한 청구사건은 없었다.

[치료감호 청구 죄명별 현황(2014-2020)]

연도	죄명	계	절도	폭력	강도	살인	강간	사기	방화	치사	기타
2014		156	12	43	4	22	6	4	11	2	52
		100%	7.7%	27.6%	2.6%	14.1%	3.8%	2.6%	7.1%	1.3%	33.3%
2015		155	5	33	2	29	4	3	11	3	65
		100%	3.2%	21.3%	1.3%	18.7%	2.6%	1.9%	7.1%	1.9%	42.0%
2016		118	11	17	2	17	4	0	6	1	60
		100%	9.3%	14.4%	1.7%	14.4%	3.4%	0.0%	5.1%	0.8%	50.9%
2017		99	8	12	2	9	1	2	14	0	51
		100%	8.1%	12.1%	2.0%	9.1%	1.0%	2.0%	14.2%	0.0%	51.5%
2018		77	2	8	0	9	2	0	7	2	47
		100%	2.6%	10.4%	0.0%	11.7%	2.6%	0.0%	9.1%	2.6%	61.0%
2019		184	17	39	3	14	2	5	12	2	90
		100%	9.3%	21.2%	1.6%	7.6%	1.1%	2.7%	6.5%	1.1%	48.9%
2020		65	4	13	0	20	0	3	3	0	22
		100%	6.2%	20.0%	0.0%	30.8%	0.0%	4.6%	4.6%	0.0%	33.8%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2 수용 현황

### 개 요

#### ■ 치료감호소 수용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수용 인원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치료감호소의 수용 인원
- 피치료감호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치료감호대상자
- 감정유치자 : 법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형사정신감정이 의뢰된 사람
- 성총동 약물치료대상자 : 「성총동약물치료법」 제2조에 규정된 성총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
- 치료위탁자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가 위탁된 사람
- 보호구금자(미결수용자)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치료감호영장에 의해 보호구금된 사람
- 기타 :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청구인

-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치료감호소 총 수용인원은 1,024명으로, 피치료감호자가 1,016명(99.2%), 감정유치자가 8명(0.8%)이었고 감호위탁자와 치료위탁자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915명(88.4%), 여성이 109명(11.6%)이었다.

- 최근 7년간 전체 수용인원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과 2015년에는 1,200여 명이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1,130여명, 2018년부터는 1,100명 미만이었다. 수용자 유형으로는 입소 유형과 동일하게 피치료감호자가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4-2 치료감호소의 수용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총원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미결수용자)
2014		1,202 (125)	1,152 (121)	50 (4)	0 (0)	0 (0)	0 (0)
		100%	95.8%	4.2%	0.0%	0.0%	0.0%
2015		1,201 (120)	1,182 (120)	19 (0)	0 (0)	0 (0)	0 (0)
		100%	98.4%	1.6%	0.0%	0.0%	0.0%
2016		1,131 (122)	1,094 (122)	37 (0)	0 (0)	0 (0)	0 (0)
		100%	96.7%	3.3%	0.0%	0.0%	0.0%
2017		1,130 (126)	1,096 (126)	33 (0)	1 (0)	0 (0)	0 (0)
		100%	97.0%	2.9%	0.1%	0.0%	0.0%
2018		1,082 (110)	1,038 (110)	43 (0)	1 (0)	0 (0)	0 (0)
		100%	95.9%	4.0%	0.1%	0.0%	0.0%
2019		1,034 (115)	1,012 (115)	22 (0)	0 (0)	0 (0)	0 (0)
		100%	97.9%	2.1%	0.0%	0.0%	0.0%
2020		1,024 (109)	1,016 (109)	8 (0)	0 (0)	0 (0)	0 (0)
		100%	99.2%	0.8%	0.0%	0.0%	0.0%

※ ( ) 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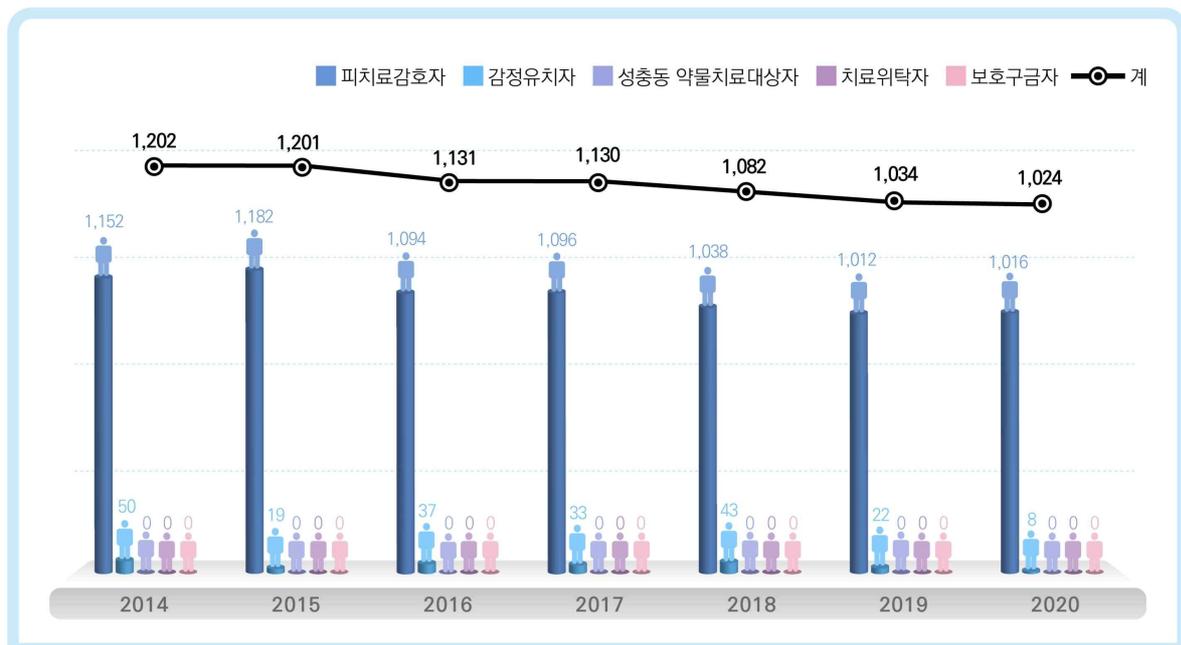


그림 1-4-2 치료감호소의 수용 현황(2014~2020)

### 3 연평균 수용 현황

#### 개 요

- 치료감호소의 연평균 수용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연평균 수용 인원 = 해당연도 일일 수용인원의 합 / 해당연도 일수

- 2020년 치료감호소의 연평균 수용 인원은 1,03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이 926명(89.3%), 여성이 112명(10.7%)으로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유형별로는 피치료감호자가 1,027명(98.9%), 감정유치자가 11명(1.1%)으로 피치료감호자가 대부분이었다.
- 치료감호소의 연평균 수용인원은 2014년 1,188명에서 2015년 1,212명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16년 1,160명, 2017년 1,138명, 2018년 1,087명, 2019년 1,023명 등으로 감소추세를 이어왔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1.6% 증가하였는데, 피치료감호자는 증가하였고 감정유치자는 감소하였다.

표 1-4-3 치료감호소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총원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	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미결수용)
2014		1,188 (133)	1,138 (128)	49 (5)	1 (0)	0 (0)	0 (0)
		100%	95.8%	4.1%	0.1%	0.0%	0.0%
2015		1,212 (126)	1,159 (120)	53 (6)	0 (0)	0 (0)	0 (0)
		100%	95.6%	4.4%	0.0%	0.0%	0.0%
2016		1,160 (119)	1,118 (118)	41 (1)	1 (0)	0 (0)	0 (0)
		100%	96.4%	3.5%	0.1%	0.0%	0.0%
2017		1,138 (124)	1,101 (124)	36 (0)	1 (0)	0 (0)	0 (0)
		100%	96.7%	3.2%	0.1%	0.0%	0.0%
2018		1,087 (117)	1,051 (117)	35 (0)	1 (0)	0 (0)	0 (0)
		100%	96.7%	3.2%	0.1%	0.0%	0.0%
2019		1,023 (108)	992 (108)	30 (0)	1 (0)	0 (0)	0 (0)
		100%	97.0%	2.9%	0.1%	0.0%	0.0%
2020		1,038 (112)	1,027 (112)	11 (0)	0 (0)	0 (0)	0 (0)
		100%	98.9%	1.1%	0.0%	0.0%	0.0%

※ ( )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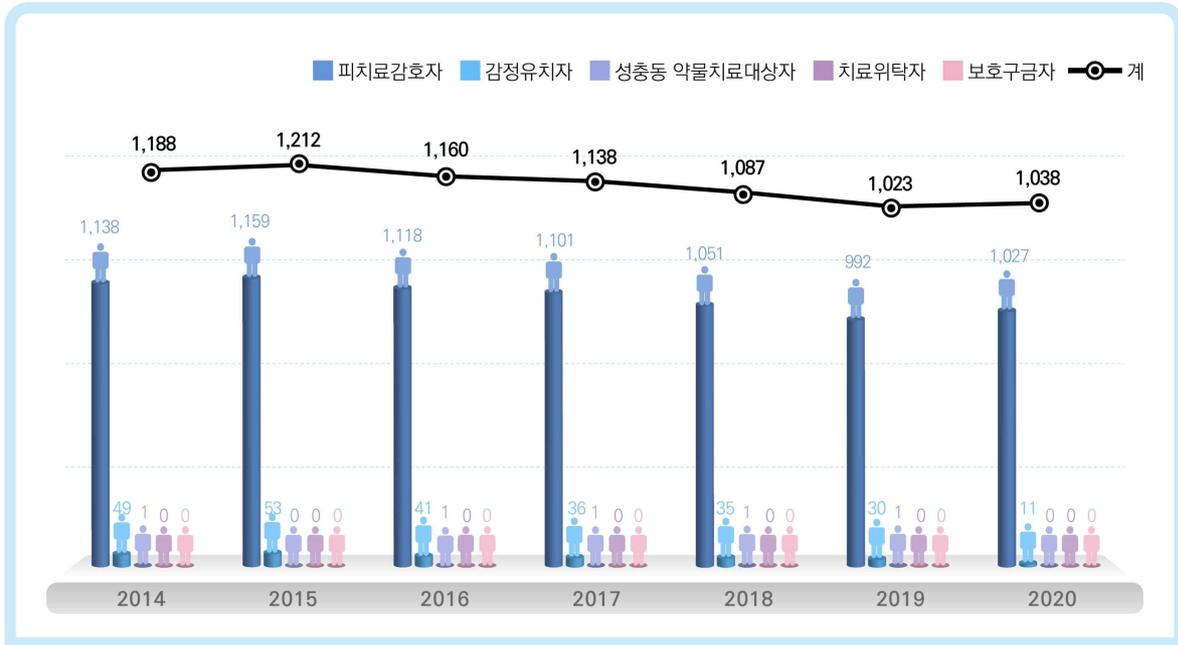


그림 1-4-3 치료감호소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4~2020)

## 4 출소 현황

### 개 요

- 피치료감호자의 연간 출소 인원 추이

### 지표정의

- 종료 :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종료가 결정되어 출소한 인원
- 가종료 :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가 결정되어 출소한 인원
- 집행정지 : 「치료감호법」 제24조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출소한 인원
- 기간만료 : 「치료감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부과된 기간이 만료되어 출소한 인원
- 위탁해제 : 「치료감호법」 제23조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된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해제되어 출소한 인원
- 기타 : 사망 등

- 2020년 치료감호소 출소 인원은 총 188명으로, 가종료로 인한 출소가 172명(91.5%), 치료감호기간 만료로 인한 출소가 13명(6.9%), 기타 사유로 인한 출소가 2명(1.1%), 치료감호 집행정지가 1명(0.5%) 등이었고, 종료와 위탁해제 사례는 없었다.
- 최근 7년간의 치료감호소 출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99명이 출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40~280명의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7.4% 감소하였다.

- 출소 세부 사유로는 가중료로 인한 출소가 매년 전체의 89~98%를 차지하였다. 기간만으로 인한 종료는 2015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2016년에 1명, 2017년에 6명이었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22명, 2020년에는 13명이었다. 집행정지로 인한 출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건 이하가 있었고 2017년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2020년 1명이었다.

표 1-4-4 치료감호소의 출소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종료	가중료	집행정지	기간만료	위탁해제	기타
2014		281	1	275	3	0	0	2
		100%	0.4%	97.8%	1.1%	0.0%	0.0%	0.7%
2015		277	4	267	2	0	0	4
		100%	1.4%	96.5%	0.7%	0.0%	0.0%	1.4%
2016		399	2	393	1	1	0	2
		100%	0.5%	98.4%	0.3%	0.3%	0.0%	0.5%
2017		238	3	226	0	6	0	3
		100%	1.3%	95.0%	0.0%	2.4%	0.0%	1.3%
2018		282	0	252	0	22	0	8
		100%	0.0%	89.4%	0.0%	7.8%	0.0%	2.8%
2019		259	0	235	0	22	0	2
		100%	0.0%	90.7%	0.0%	8.5%	0.0%	0.8%
2020		188	0	172	1	13	0	2
		100%	0.0%	91.5%	0.5%	6.9%	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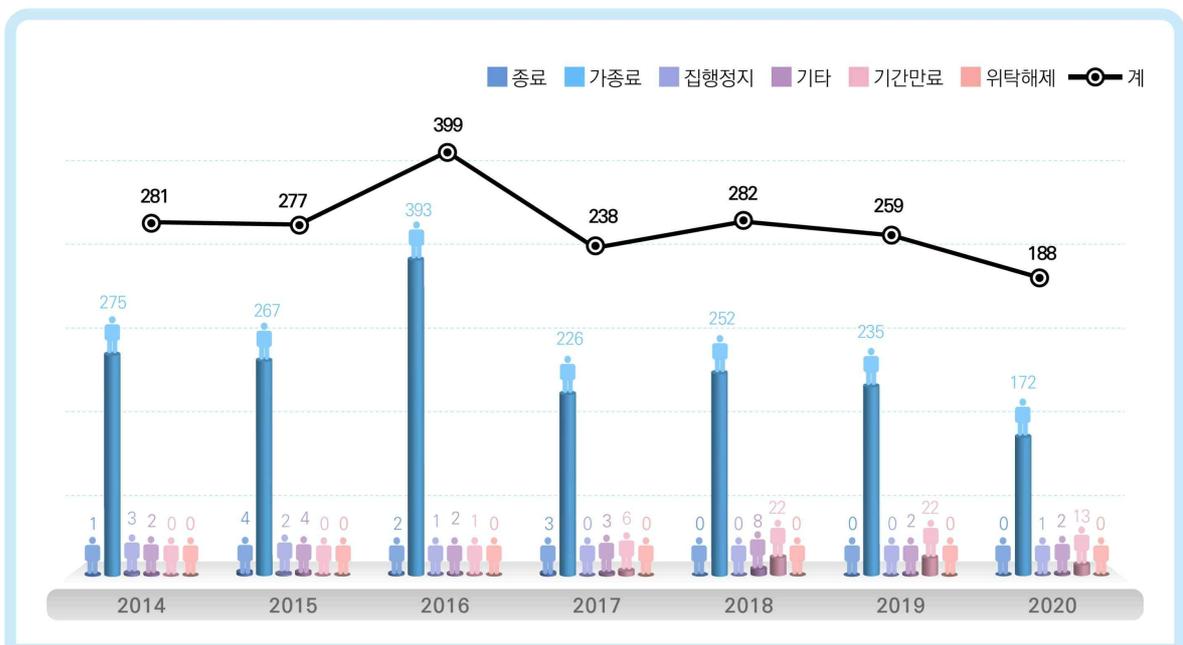


그림 1-4-4 치료감호소의 출소 현황(2014~2020)

## 5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총원율

### 개 요

- 치료감호소 의사(정신건강전문의 포함) 정원 대비 근무 인원 비율 추이

### 지표정의

- 총원율 : 치료감호소 전문의(정신건강전문의 포함) 정원 대비 당해연도 연말 근무 인원(현원 / 정원 × 100)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감호소의 전체 의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1.5명으로, 의사 총원율은 57.5%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8.5명으로 총원율은 56.6%였다.
- 치료감호소 의사 총원율은 2014년과 2015년에 65% 미만에 머무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현원이 늘면서 82.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의사 정원이 17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현원이 전년보다 줄어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다시 현원이 늘면서 55.0%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전년보다 2.5% 상승하였다.
- 치료감호소 의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총원율도 의사 총원율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8.5%와 85.7%를 기록하다가 2018년에는 40%에 머물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현원이 증가하면서 55%를 넘어섰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보다 3.3% 상승하였다.

표 1-4-5 치료감호소 의사 총원율(2014~2020)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정원	17	17	17	17	20	20
의사	현원	11	10.5	14	14	8	11	11.5
	총원율	64.7%	61.7%	82.3%	82.3%	40.0%	55.0%	57.5%
	정원	15	15	14	14	14	15	1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원	8	8.5	11	12	6	8	8.5
	총원율	53.3%	56.7%	78.5%	85.7%	42.9%	53.3%	56.6%

※ 해당연도 연말기준 인원, 0.5는 시간임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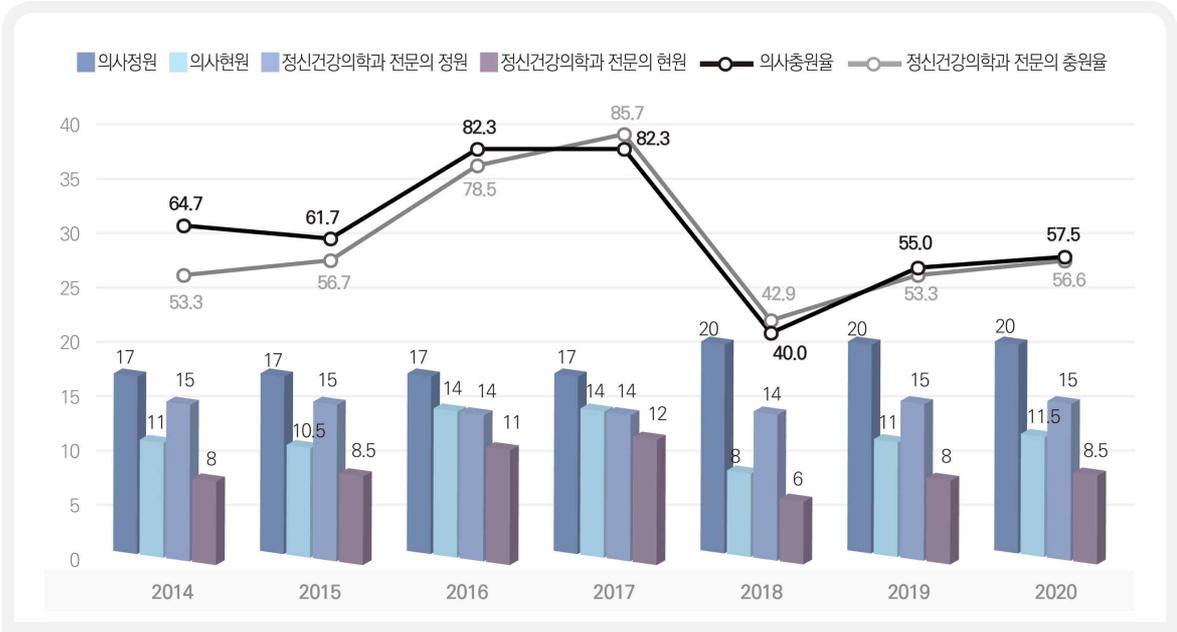


그림 1-4-5 치료감호소 의사 총원율(2014~2020)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적정 환자 부담 비율을 정신건강전문의 1인당 환자 6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87명(전공의 포함시) 또는 122명 수준(전공의 미포함시)

※ 산출식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 = 치료감호소 연평균 수용인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전공의 포함하는 경우 : 2020년 연평균 수용인원(1,038)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2명) = 87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명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명 + 3.5명(전공의 7명 × 0.5)>  
 - 전공의 미포함하는 경우 : 2020년 연평균 수용인원(1,038)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8.5명) = 122명

➔ 주요 국가의 의사 1인당 환자 현황은 일본 14명, 영국 22명, 독일 13명 등이다.

## 제 5 절

# 민간 자원

### 1 보호관찰위원 현황

#### 1) 위촉 현황

- 보호관찰위원제도는 2018년까지 법사랑위원과 통합 운영되었는데,<sup>1)</sup> 법사랑위원 중 보호관찰 활동을 하는 보호관찰위원은 2014년 5,873명에서 2018년 5,420명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법사랑위원 제도가 개편되어 보호관찰위원 조직이 신설, 별도 운영되면서 보호관찰위원 6,769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 2020년 보호관찰위원은 6,418명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된 보호관찰위원 수는 1,485명으로 전년 대비 68.6%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표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4~2020)

연도	위촉 현황	보호관찰위원	대상자 지정 보호관찰위원	대상자 지정 비율
2014		5,873	2,921	49.7%
2015		5,827	1,876	32.2%
2016		5,873	1,979	33.7%
2017		5,441	1,791	32.9%
2018		5,420	1,655	30.5%
2019		6,769	4,735	70.0%
2020		6,418	1,485	23.1%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지역별 보호관찰위원 현황은 수도권이 2,479명(38.6%), 강원권이 282(4.4%), 충청권이 815(12.7%), 경상권이 2,021(31.5%), 전라권이 821(12.8%) 등이었다

1) 지역별 법사랑위원 협의회에 보호관찰분과가 구성된 경우에는 보호관찰분과 위원을 의미하며, 보호관찰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보호관찰 관련 활동 중인 법사랑위원 또는 특별법사랑위원을 의미한다.



그림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4~2020)

## 2) 활동 현황

- 보호관찰위원의 활동 건수는 2014년 23,667건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8년 19,820건을 기록하였다가 2019년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신설과 별도 운영이 시작된 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이 전년 대비 83.6% 증가하였다.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년 대비 32.9% 감소한 24,405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지원이 5,343건으로 전년 대비 74.1% 감소하였고, 원호지원이 676건으로 전년 대비 71.9% 감소한 반면,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경과통보서 작성)은 18,386건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하였다.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이 감소하면서 보호관찰위원의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지원이 급감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원호지원 역시 감소하였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의 경우, 기존의 대면접촉 방식을 비대면 접촉으로 전환, 실시하면서 총 실시건수가 증가하였다.

표 1-5-2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4~2020)

연도	활동내역	계	보호관찰 상담 (경과통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지원	원호 지원
2014		23,667	7,022	16,038	607
2015		21,654	8,547	12,733	374
2016		21,258	7,050	13,188	1,020

연도	활동내역	계	보호관찰 상담 (경과통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지원	원호 지원
2017		19,899	7,049	12,229	621
2018		19,820	5,518	13,066	1,236
2019		36,391	13,317	20,666	2,408
2020		24,405	18,386	5,343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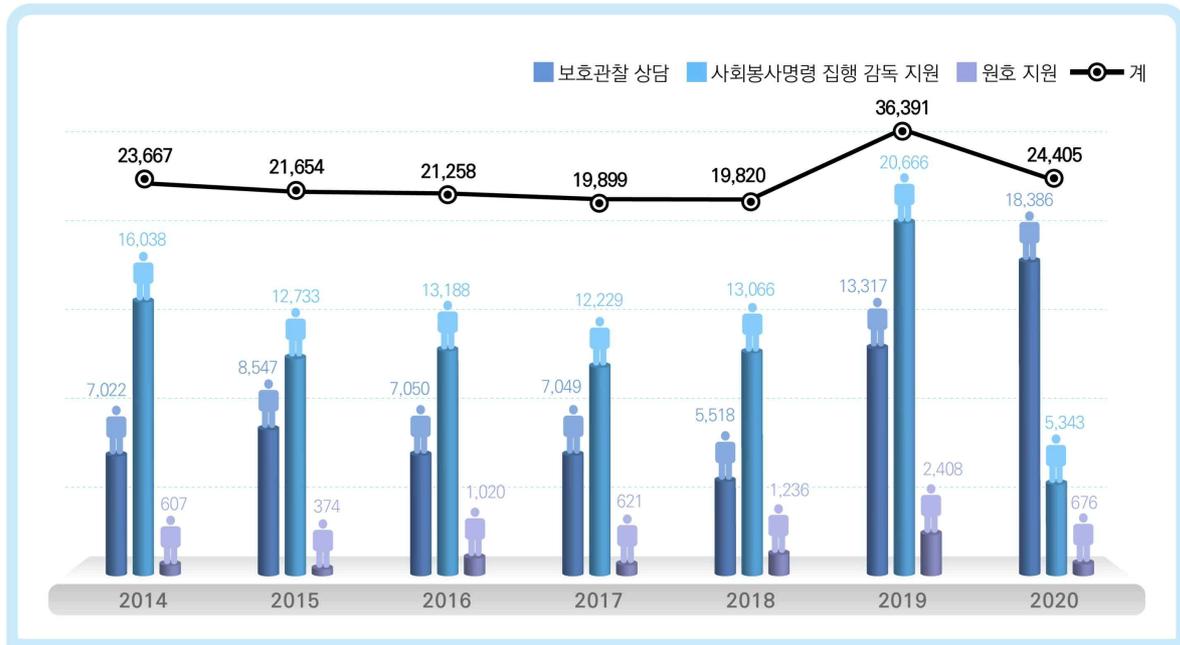


그림 1-5-2 보호관찰위원회 활동 현황(2014~2020)

## 2 소년보호위원 현황

### 1) 위촉 현황

- 2020년 소년보호위원은 총 1,237명이며, 분야별로 교육위원<sup>2)</sup> 655명(53.0%), 종교위원<sup>3)</sup> 309명(25.0%), 어머니위원<sup>4)</sup> 128명(10.3%), 사회정착지원위원<sup>5)</sup> 145명(11.7%)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소년보호위원의 수는 2015년에 1,818명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237명으로 나타났다.

2) 교육위원 : 강연, 상담 등 교육활동 지원

3) 종교위원 : 종교지도 등 종교활동 지원

4) 어머니위원 : 결연 등 소년원생의 심성순화를 도움

5) 사회정착지원위원 : 장학금, 취업, 멘토활동 등 소년원 출원 후 사회정착 지원

- 분야별로 교육위원, 종교위원, 어머니위원 등이 2019년까지 감소추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에 교육위원과 종교위원은 증가하였고 어머니위원은 계속 감소하였다. 사회정착지원위원은 2015년 이후 매년 150명 내외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5-3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교육위원	종교위원	어머니위원	사회정착지원위원*
2014		1,752	925	455	243	129
		100%	52.8%	26.0%	13.9%	7.3%
2015		1,818	923	513	230	152
		100%	50.8%	28.2%	12.6%	8.4%
2016		1,605	784	467	202	152
		100%	48.8%	29.1%	12.6%	9.5%
2017		1,521	740	440	193	148
		100%	48.7%	28.9%	12.7%	9.7%
2018		1,450	724	403	174	149
		100%	49.9%	27.8%	12.0%	10.3%
2019		1,174	586	299	144	145
		100%	49.9%	25.5%	12.3%	12.3%
2020		1,237	655	309	128	145
		100%	53.0%	25.0%	10.3%	11.7%

\* 2009~2013년 : '소년보호교육정책자문단' 위촉 인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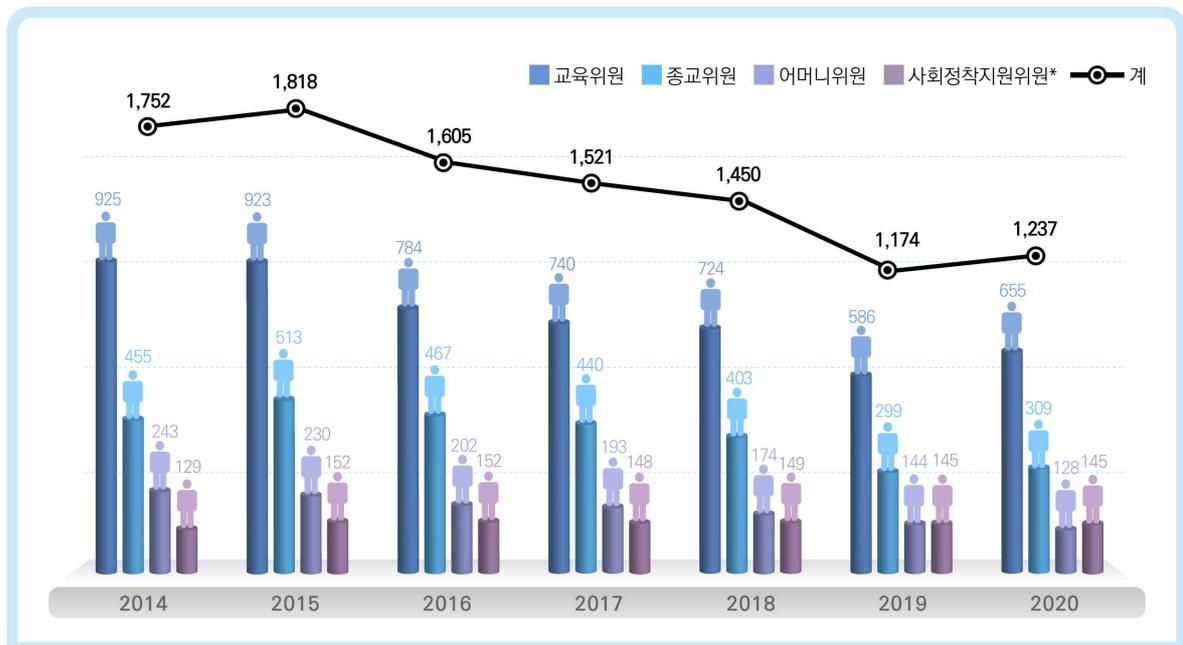


그림 1-5-3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 2) 기관별 위촉 현황

- 2020년의 기관별 소년보호위원 위촉현황은 서울소년원 173명, 대구소년원 143명, 부산소년원 139명, 춘천소년원 136명, 광주소년원 113명 등이었다.

표 1-5-4 소년보호기관별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20)

기관	소년보호위원	계	교육위원	종교위원	어머니위원	사회정착지원위원
총계		1,237	655	309	128	145
서울소년원		173	81	62	25	5
부산소년원		139	103	21	8	7
대구소년원		143	64	57	14	8
광주소년원		113	43	41	12	17
전주소년원		99	36	35	2	26
대전소년원		95	51	30	5	9
청주소년원		72	22	16	15	19
안양소년원		85	30	9	33	13
춘천소년원		136	92	12	6	26
제주소년원		54	23	14	6	1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53	41	12	0	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75	69	0	2	4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은 소년보호기관과 통합 관리

## 3 법무보호위원 현황

### 1) 위촉 현황

-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법무보호위원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주요 활동으로는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2018년까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2019년부터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다.
- 2020년에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은 총 6,616명으로, 그중 운영위원 42명, 취업알선 747명, 재정지원 700명, 주거 지원 543명, 종교교화 174명, 사전상담 549명, 직업훈련·사회성 향상·홍보 등의 기타 3,861명 등이었다. 전년에 비해 전체 법무보호위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재정지원 분야는 20% 늘어났고 운영위원과 취업알선 분야는 각각 55.8%와 7.2% 감소하였다.

표 1-5-5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연도	활동인원	계	운영위원	취업알선	재정 지원	주거 지원	종교교화	사전상담	기타
2014		4,488	236	451	463	145	172	504	2,517
2015		4,533	237	551	513	139	148	554	2,391
2016		4,941	204	663	555	233	112	560	2,614
2017		6,018	270	761	550	388	151	547	3,351
2018		6,198	304	727	527	406	184	481	3,569
2019		6,671	95	805	583	554	195	561	3,878
2020		6,616	42	747	700	543	174	549	3,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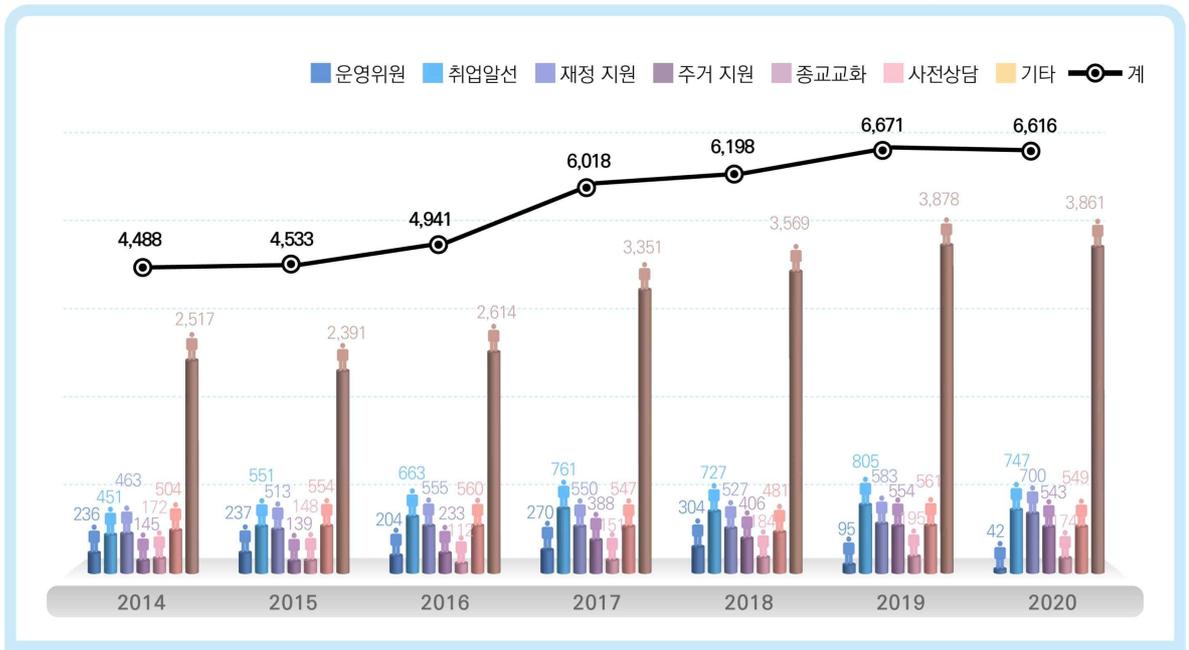


그림 1-5-4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 2) 활동 현황

- 2020년의 법무보호위원 활동건수는 총 30,216건으로, 그중 위원회 자체활동이 14,684건 (4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지원 7,135건(23.6%), 보호사업 참여 6,698건(22.2%), 기타 925건(3.1%), 외부자원 연계 774건(2.5%)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법무보호위원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인원이 증가하고 자원봉사자 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활동 건수가 늘어나 2019년에는 2014년 대비 26,533건(193.5%)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활동 건수가 전년 대비 25.0%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54.6%, 기타 활동이 22.2% 등이 증가한 반면 보호사업 참여는 42.2%, 외부자원 연계는 28.5%, 위원회 자체 활동은 33.8% 등이 감소하였다.

표 1-5-6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4~2020)

연도	활동내역	계	보호사업 참여	경제적 지원	외부자원연계	위원회 자체활동	기타
2014		13,713	2,798	1,874	162	8,866	13
2015		15,968	3,253	1,885	232	10,586	12
2016		23,222	5,610	2,322	330	14,924	36
2017		29,801	8,440	3,097	351	17,880	33
2018		38,037	11,983	4,019	760	20,781	494
2019		40,246	11,596	4,615	1,083	22,195	757
2020		30,216	6,698	7,135	774	14,684	925

\* 위원회 자체활동 : 전문화교육, 회의, 언론홍보, 강연 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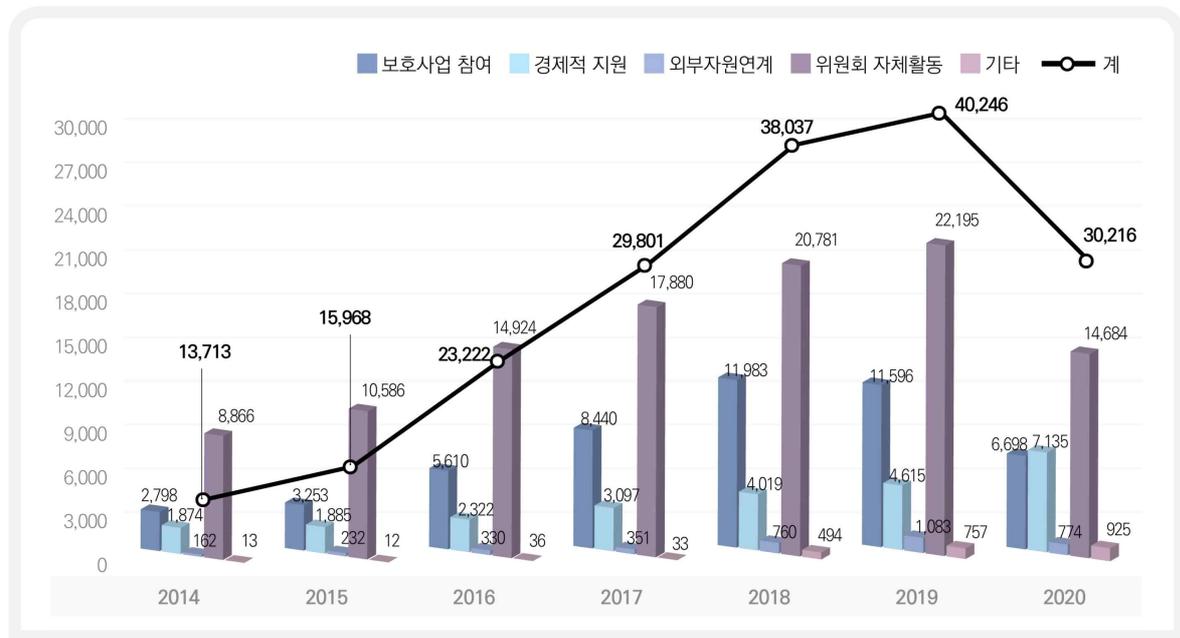


그림 1-5-5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4~2020)

참고 :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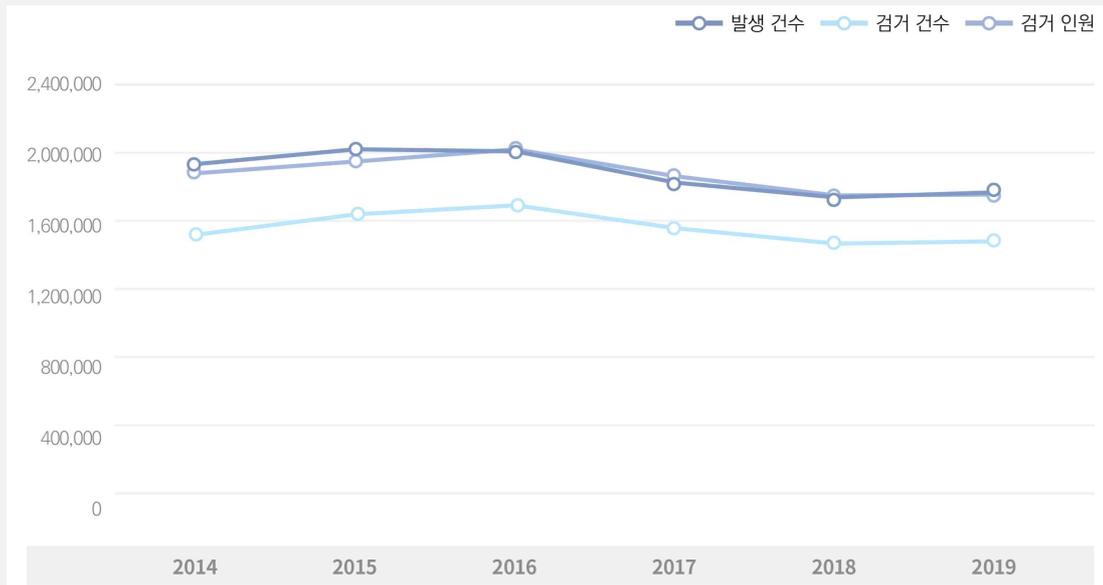
➔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 범죄 발생 건수(검거 인원)는 2014년 1,933,835건(1,879,548명)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020,731건(1,948,966명), 2016년 2,008,290건(2,020,196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1,824,876건(1,861,796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1,750,000건(1,750,000명) 내외를 보였다.
- » 최근 6년간(2014~2019년) 검거된 범죄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성이 78~80%, 여성이 17~20%이었고 매년 여성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93~94%, 소년이 3~4%이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40~45%, 전과가 없는 경우가 20~21%, 미상인 경우가 32~38%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연도	발생		검거 건수	계	검거 인원**					
	건수	발생비*			성별			연령		
					남	여	미상	소년	성인	미상
2014	1,933,835	3,767.6	1,518,792	1,879,548	1,515,159 80.6%	336,748 17.9%	27,641 1.5%	77,594 4.1%	1,773,556 94.4%	28,398 1.5%
2015	2,020,731	3,921.5	1,638,549	1,948,966	1,559,659 80.0%	353,977 18.2%	35,330 1.8%	71,035 3.6%	1,817,924 93.3%	60,007 3.1%
2016	2,008,290	3,884.8	1,691,370	2,020,196	1,621,184 80.2%	368,645 18.2%	30,367 1.5%	76,000 3.8%	1,897,655 93.9%	46,541 2.3%
2017	1,824,876	3,524.4	1,556,963	1,861,796	1,485,212 79.8%	350,251 18.8%	26,333 1.4%	72,759 3.9%	1,745,478 93.8%	43,559 2.3%
2018	1,738,190	3,353.9	1,466,406	1,749,459	1,376,363 78.7%	344,739 19.7%	28,357 1.6%	66,142 3.8%	1,637,944 93.6%	45,373 2.6%
2019	1,767,684	3,409.2	1,479,904	1,754,808	1,365,413 77.8%	362,614 20.7%	26,781 1.5%	66,247 3.8%	1,657,252 94.4%	31,309 1.8%

\*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  
 \*\* 검거 대상 중 법인 제외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소년 범죄자의 연령 현황]

연도 \ 연령	14세 미만	14	15	16	17	18
2014	37	9,712	14,041	16,940	17,517	19,347
2015	64	7	14,387	17,624	18,231	20,722
2016	84	7,530	13,789	17,589	17,607	19,401
2017	93	7,703	12,376	16,391	17,358	18,838
2018	-	8,321	11,595	13,306	15,513	17,407
2019	-	9,053	11,730	13,548	14,338	17,578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성인 범죄자의 연령 현황]

연도 \ 연령	19	20~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70	71 이상
2014	20,742	131,186	154,669	190,948	190,494	247,919	253,608	253,651	164,939	127,282	38,118
2015	24,079	147,730	153,167	190,059	186,159	238,266	257,734	254,352	181,159	140,884	44,335
2016	22,963	160,396	158,537	194,990	198,261	236,612	262,341	256,499	197,955	159,803	49,298
2017	20,882	153,403	144,360	164,623	180,967	203,467	237,828	227,841	196,968	165,006	50,133
2018	19,414	141,051	133,269	140,005	168,897	180,180	220,190	212,241	195,107	173,427	54,163
2019	20,511	139,885	137,049	131,076	169,713	172,082	216,817	210,138	203,731	193,466	62,784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범죄자의 전과 현황]

구분 연도	계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2014	1,879,548	411,192	852,244	195,701	136,751	99,471	74,802	58,337	45,854	35,213	28,799	177,316	616,112
2015	1,948,966	416,301	859,477	195,253	135,757	98,909	75,009	59,094	46,225	36,048	29,271	183,911	673,188
2016	2,020,196	437,154	897,996	202,982	140,792	103,323	78,001	62,230	48,508	37,991	30,401	193,768	685,046
2017	1,861,796	398,684	811,653	182,989	127,597	93,621	70,358	55,108	43,763	33,553	27,214	177,450	651,459
2018	1,749,459	362,702	731,911	162,430	112,024	82,789	62,412	49,327	38,595	31,313	24,314	168,707	654,846
2019	1,754,808	366,305	717,603	157,761	108,353	80,646	60,317	48,576	37,424	30,453	23,862	170,211	670,900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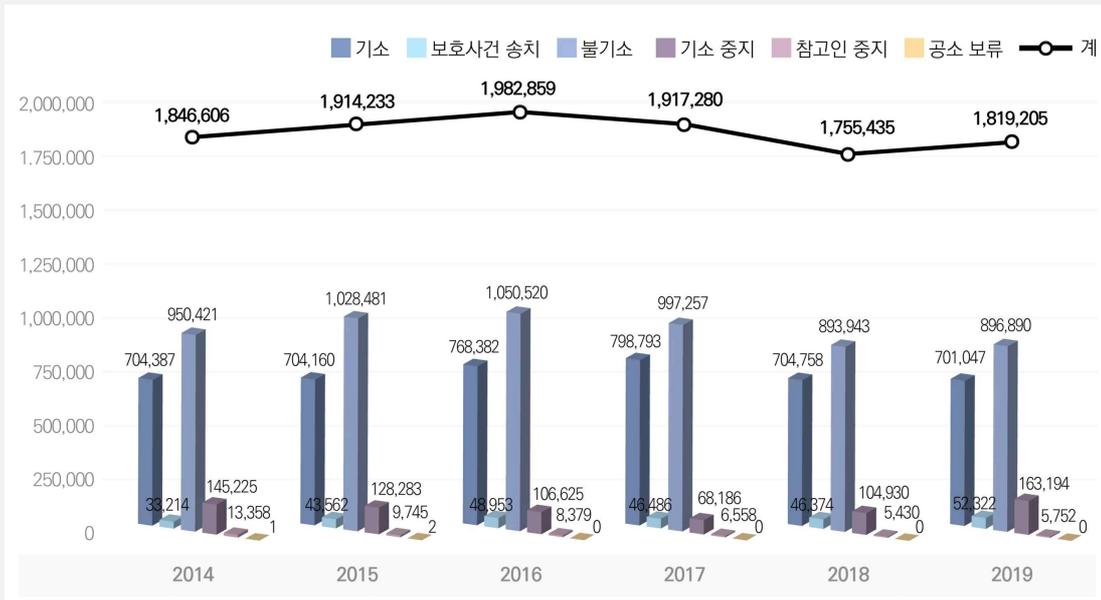
### ➔ 검찰 처분 현황

» 최근 6년간(2014~2019) 검거된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약 36~41%가 기소 처분을, 49~53%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 이내가 보호사건 송치되었으며, 그 외 기소중지가 3~9%이었고, 참고인중지와 공소 보류는 각 1% 미만이었다.

#### [검찰 처분 현황 개요]

연도	구분	계	기소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2014		1,846,606	704,387	33,214	950,421	145,225	13,358	1
		100%	38.1%	1.8%	51.5%	7.9%	0.7%	0.0%
2015		1,914,233	704,160	43,562	1,028,481	128,283	9,745	2
		100%	36.8%	2.2%	53.7%	6.7%	0.5%	0.0%
2016		1,982,859	768,382	48,953	1,050,520	106,625	8,379	0
		100%	38.8%	2.5%	53.0%	5.4%	0.4%	0.0%
2017		1,917,280	798,793	46,486	997,257	68,186	6,558	0
		100%	41.7%	2.4%	52.0%	3.6%	0.3%	0.0%
2018		1,755,435	704,758	46,374	893,943	104,930	5,430	0
		100%	40.1%	2.6%	50.9%	6.0%	0.3%	0.0%
2019		1,819,205	701,047	52,322	896,890	163,194	5,752	0
		100%	38.5%	2.9%	49.3%	9.0%	0.3%	0.0%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기소 및 보호사건 송치 세부 현황]

연도	구분	기소			보호사건 송치				
		계	구공판		구약식	소년보호	가정보호	성매매보호	아동보호
			구속	불구속					
2014		704,387	28,769	135,200	540,418	23,789	9,203	222	-
		38.1%	1.6%	7.3%	29.3%	1.3%	0.5%	0.0%	-
2015		704,160	31,940	132,442	539,778	23,655	19,515	392	-
		36.8%	1.7%	6.9%	28.2%	1.2%	1.0%	0.0%	-
2016		768,382	33,433	156,094	578,855	23,953	21,613	1,343	2,044
		38.8%	1.7%	7.9%	29.2%	1.2%	1.1%	0.1%	0.1%
2017		798,793	30,419	164,174	604,200	24,521	18,609	846	2,510
		41.7%	1.6%	8.6%	31.5%	1.3%	1.0%	0.0%	0.1%
2018		704,758	26,021	160,150	518,587	23,544	19,589	459	2,782
		40.1%	1.5%	9.1%	29.5%	1.3%	1.1%	0.0%	0.2%
2019		701,047	25,845	176,730	498,472	24,728	23,401	257	3,936
		38.5%	1.4%	9.7%	27.4%	1.4%	1.3%	0.0%	0.2%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불기소 세부 현황]

연도	구분	계	불기소 사유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14		950,421	318,686	316,391	3,095	312,249
		51.5%	17.3%	17.1%	0.2%	16.9%
2015		1,028,481	354,805	332,439	2,964	338,273
		53.7%	18.5%	17.4%	0.2%	17.7%
2016		1,050,520	357,185	350,457	3,287	339,591
		53.0%	18.0%	17.7%	0.2%	17.1%
2017		997,257	330,793	326,457	3,440	336,567
		52.0%	17.3%	17.0%	0.2%	17.6%
2018		893,943	268,731	293,558	3,666	327,988
		50.9%	15.3%	16.7%	0.2%	18.7%
2019		896,890	241,923	324,231	3,734	327,002
		49.3%	13.3%	17.8%	0.2%	18.0%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 형사공판사건 처리 현황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개요(1심 기준)]

연도	구분	접수사건	처 리			형소	미제
			계	판 결	결 정		
2014		268,823	267,077	239,960	27,117	92,624	90,278
2015		259,424	257,984	230,559	27,425	94,366	91,819
2016		276,074	268,510	243,781	24,729	104,755	99,449
2017		262,612	266,433	244,489	21,944	100,680	95,747
2018		240,244	237,699	220,123	17,576	92,267	98,419
2019		247,063	235,887	218,510	17,377	93,369	109,628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형사공판사건의 처리결과(1심 판결 기준)]

연도	구분	계	생명형	자유형 (실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100%	0.0%	21.6%	30.7%	0.0%	35.7%	-	1.7%	8.8%	0.2%	0.0%	1.4%	
2015	230,559	0	56,131	77,022	3	78,283	-	3,624	11,858	335	4	3,299	
	100%	0.0%	24.3%	33.4%	0.0%	34.0%	-	1.6%	5.1%	0.1%	0.0%	1.4%	
2016	243,781	0	61,519	86,675	11	79,488	-	3,186	9,080	316	4	3,502	
	100%	0.0%	25.2%	35.6%	0.0%	32.6%	-	1.3%	3.7%	0.1%	0.0%	1.4%	
2017	244,489	0	60,279	89,716	2	78,591	-	3,369	8,916	348	2	3,266	
	100%	0.0%	24.7%	36.7%	0.0%	32.1%	-	1.4%	3.6%	0.1%	0.0%	1.3%	
2018	220,123	5	59,835	80,070	0	65,985	913	2,335	7,496	355	3	3,126	
	100%	0.0%	27.2%	36.4%	0.0%	30.0%	0.4%	1.1%	3.4%	0.2%	0.0%	1.4%	
2019	218,510	3	63,131	81,565	2	59,780	1,695	1,856	6,868	373	4	3,233	
	100%	0.0%	28.9%	37.3%	0.0%	27.4%	0.8%	0.8%	3.1%	0.2%	0.0%	1.5%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형사공판사건의 처리 결과(1심 결정 기준)]

연도	구분	계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기타
	100%	10.0%	7.7%	82.3%	
2015	27,425	2,580	1,981	22,864	
	100%	9.4%	7.2%	83.4%	
2016	24,729	1,929	1,721	21,079	
	100%	7.8%	7.0%	85.2%	
2017	21,944	2,344	1,428	18,172	
	100%	10.7%	6.5%	82.8%	
2018	17,576	2,081	1,419	14,076	
	100%	11.8%	8.1%	80.1%	
2019	17,377	2,168	1,386	13,823	
	100%	12.5%	8.0%	79.5%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 형기별 인원(1심 기준)]

연도	기간	계	무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집행유예	부정기
2014		125,448	31	599	2,119	6,048	22,937	19,405	73,675	634
2015		133,153	42	427	1,987	5,513	25,364	22,168	77,022	630
2016		148,194	43	505	2,272	5,742	27,416	24,844	86,675	697
2017		149,995	32	466	2,247	5,721	26,627	24,684	89,716	502
2018		139,905	29	506	2,227	5,324	27,493	23,630	80,070	626
2019		144,696	16	487	2,148	5,834	30,671	23,263	81,565	712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 현황

- ▶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는 비율이 2014년 57.1%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5년 57.7%, 2016년 60.7%, 2017년 61.8%, 2018년 63.5%이었고, 2019년에는 64.6%를 기록하였다.
- ▶ 보호관찰 단독처분은 2014년 5.3%였다가 2019년 6.4%로 증가하였고, 사회봉사명령 단독 처분은 2014년 21.4%였다가 2019년 19.9%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강명령의 경우, 단독처분은 2014년 8.5%에서 2019년 11.7%로 증가하였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병과처분도 2014년 3.1%에서 2019년 3.9%로 증가하였다.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집행유예		73,675	77,022	86,675	89,716	80,983	83,260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등 처분(계)		42,035	44,477	52,592	55,465	51,341	53,762
		57.1%	57.7%	60.7%	61.8%	63.5%	64.6%
단독 처분	보호관찰	3,933	4,438	5,093	5,439	4,332	5,353
		5.3%	5.8%	5.9%	6.1%	5.3%	6.4%
	사회봉사명령	15,773	15,566	16,566	17,245	16,999	16,540
	21.4%	20.2%	19.1%	19.2%	21.0%	19.9%	
	수강명령	6,277	7,080	8,891	10,208	8,859	9,718
		8.5%	9.2%	10.3%	11.4%	10.9%	11.7%
병과 처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6,743	6,595	7,922	7,428	6,236	6,383
		9.2%	8.6%	9.1%	8.3%	7.7%	7.7%
	보호관찰·수강명령	2,312	2,750	3,711	3,529	2,503	3,287
		3.1%	3.6%	4.3%	3.9%	3.1%	3.9%
	보호관찰·치료명령	-	-	0	0	371	420
		-	-	0%	0%	0.5%	0.5%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4,991	5,530	6,856	7,997	8,625	8,801
		6.8%	7.2%	7.9%	8.9%	10.7%	10.6%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2,006	2,518	3,553	3,619	3,328	3,157
		2.7%	3.3%	4.1%	4.0%	4.1%	3.8%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치료명령	-	-	0	0	39	27	
	-	-	0%	0%	0.1%	0.0%	
보호관찰·수강명령·치료명령	-	-	0	0	47	58	
	-	-	0%	0%	0.1%	0.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치료명령	-	-	0	0	2	18	
	-	-	0%	0%	0.0%	0.0%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연도	구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송치	타소년부에서 이송 등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 (소년법 제4조제3항)
2014		34,165	1,610	24,110	7,104	1,146	195
2015		34,075	1,494	24,527	6,756	989	309
2016		33,738	1,357	24,319	6,788	915	359
2017		34,110	1,124	24,014	7,743	876	353
2018		33,301	954	22,578	8,335	1,027	407
2019		36,576	876	23,511	10,460	1,285	444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 개요]

연도	구분	처리					향고	미제	
		소계	보호처분	심리불개시	불처분	검사에게 송치			기타
2014		34,600	24,529	5,669	2,543	456	1,403	154	9,992
2015		35,920	25,911	5,703	2,763	450	1,093	134	8,190
2016		33,142	23,526	5,547	2,650	313	1,106	143	8,845
2017		34,474	24,383	5,676	2,985	370	1,060	163	8,522
2018		34,276	24,494	5,590	2,805	305	1,082	191	7,576
2019		34,890	24,131	6,556	2,557	351	1,295	224	9,298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19)]

연령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16세 미만	16세 이상~18세 미만	18세 이상~19세 미만
인원	24,131	3,827	7,393	8,917	3,994
	100%	15.9%	30.6%	37.0%	16.5%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0.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24,383 (100)	24,494 (100)	24,131 (100)
1호		2,960 (12.1)	3,771 (14.6)	3,142 (13.4)	3,135 (12.9)	3,104 (12.7)	3,103 (12.9)
1,2호		2,420 (9.9)	2,609 (10.1)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13.0)
1,2,3호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2.4)
1,2,4호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1,2,5호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3,4호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1,2,3,5호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3호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754 (3.1)	759 (3.1)
1,3,4호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4)	958 (3.9)	915 (3.8)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5호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3.5)
1,4호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6.3)
1,5호	742 (3.0)	647 (2.5)	522 (2.2)	505 (2.1)	443 (1.8)	627 (2.6)
2호	70 (0.3)	16 (0.1)	59 (0.3)	159 (0.7)	274 (1.1)	187 (0.8)
3호	92 (0.4)	49 (0.2)	87 (0.4)	67 (0.3)	175 (0.7)	200 (0.8)
4호	63 (0.3)	40 (0.2)	154 (0.7)	270 (1.1)	279 (1.1)	231 (1.0)
4,6호	39 (0.2)	46 (0.2)	33 (0.1)	41 (0.2)	32 (0.1)	52 (0.2)
5호	32 (0.1)	19 (0.1)	27 (0.1)	80 (0.3)	81 (0.3)	109 (0.4)
5,6호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1,229 (5.0)	1,440 (6.0)
5,8호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4.3)
6호	9 (0.0)	2 (0.0)	5 (0.0)	7 (0.0)	5 (0.0)	5 (0.0)
7호	183 (0.7)	141 (0.5)	105 (0.4)	198 (0.8)	230 (0.9)	269 (1.1)
8호	-	5 (0.0)	3 (0.0)	-	9 (0.0)	25 (0.1)
9호	812 (3.3)	794 (3.1)	770 (3.3)	972 (4.0)	842 (3.4)	821 (3.4)
10호	813 (3.3)	866 (3.3)	770 (3.3)	756 (3.1)	779 (3.2)	780 (3.2)
병과처분기타	153 (0.6)	83 (0.3)	855 (3.6)	1,724 (7.1)	1,758 (7.2)	1,492 (6.2)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2호 처분]

연도 \ 구분	계	2호	1-2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1-2-3-5호
2015	10,903	16	2,609	581	3,696	803	1,627	1,571
	42.2%	0.1%	10.1%	2.2%	14.3%	3.1%	6.3%	6.1%
2016	10,119	59	2,554	557	3,255	1,009	1,272	1,413
	43.2%	0.3%	10.9%	2.4%	13.9%	4.3%	5.4%	6.0%
2017	10,296	159	2,504	727	3,025	969	1,393	1,519
	42.3%	0.7%	10.3%	3.0%	12.4%	4.0%	5.7%	6.2%
2018	10,421	274	2,963	776	3,022	886	1,262	1,238
	42.6%	1.1%	12.1%	3.2%	12.3%	3.6%	5.2%	5.1%
2019	9,903	187	3,143	574	2,844	1,048	838	1,269
	41.1%	0.8%	13.0%	2.4%	11.8%	4.3%	3.5%	5.3%

\* %는 각년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3호 처분]

연도	구분	계	3호	1-2-3호	1-2-3-4호	1-2-3-5호	1-3호	1-3-4호	1-3-5호
2015		7,875	49	581	1,627	1,571	1,133	1,832	1,082
		30.4%	0.6%	7.4%	20.7%	19.9%	14.4%	23.3%	13.7%
2016		6,265	87	557	1,272	1,413	851	1,194	891
		26.6%	1.4%	8.9%	20.3%	22.6%	13.6%	19.1%	14.2%
2017		6,445	67	727	1,393	1,519	851	1,086	802
		26.4%	1.0%	11.3%	21.6%	23.6%	13.2%	16.9%	12.4%
2018		5,917	175	776	1,262	1,238	754	958	754
		24.2%	3.0%	13.1%	21.3%	20.9%	12.7%	16.2%	12.7%
2019		5,402	200	574	838	1,269	759	915	847
		22.4%	3.7%	10.6%	15.5%	23.5%	14.1%	16.9%	15.7%

\* %는 각년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4호 처분]

연도	구분	계	4호	1-2-4호	1-2-3-4호	1-3-4호	1-4호	4-6호
2015		9,540	40	3,696	1,627	1,832	2,299	46
		36.8%	0.4%	38.7%	17.1%	19.2%	24.1%	0.5%
2016		7,831	154	3,255	1,272	1,194	1,923	33
		33.3%	2.0%	41.6%	16.2%	15.2%	24.6%	0.4%
2017		7,323	270	3,025	1,393	1,086	1,508	41
		30.0%	3.7%	41.3%	19.0%	14.8%	20.6%	0.6%
2018		7,000	279	3,022	1,262	958	1,447	32
		28.6%	4.0%	43.2%	18.0%	13.7%	20.7%	0.5%
2019		6,397	231	2,844	838	915	1,517	52
		26.5%	3.6%	44.5%	13.1%	14.3%	23.7%	0.8%

\* %는 각년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5호 처분]

연도	구분	계	5호	1-2-5호	1-2-3-5호	1-3-5호	1-5호	5-6호	5-8호
2015		6,321	19	803	1,571	1,082	647	883	1,316
		24.4%	0.3%	12.7%	24.9%	17.1%	10.2%	14.0%	20.8%
2016		5,937	27	1,009	1,413	891	522	1,063	1,012
		25.2%	0.5%	17.0%	23.8%	15.0%	8.8%	17.9%	17.0%
2017		5,960	80	969	1,519	802	505	986	1,099
		24.4%	1.3%	16.3%	25.5%	13.5%	8.5%	16.5%	18.4%
2018		5,825	81	886	1,238	754	443	1,229	1,194
		23.8%	1.4%	15.2%	21.3%	12.9%	7.6%	21.1%	20.5%
2019		6,376	109	1,048	1,269	847	627	1,440	1,036
		26.4%	1.7%	16.4%	19.9%	13.3%	9.8%	22.6%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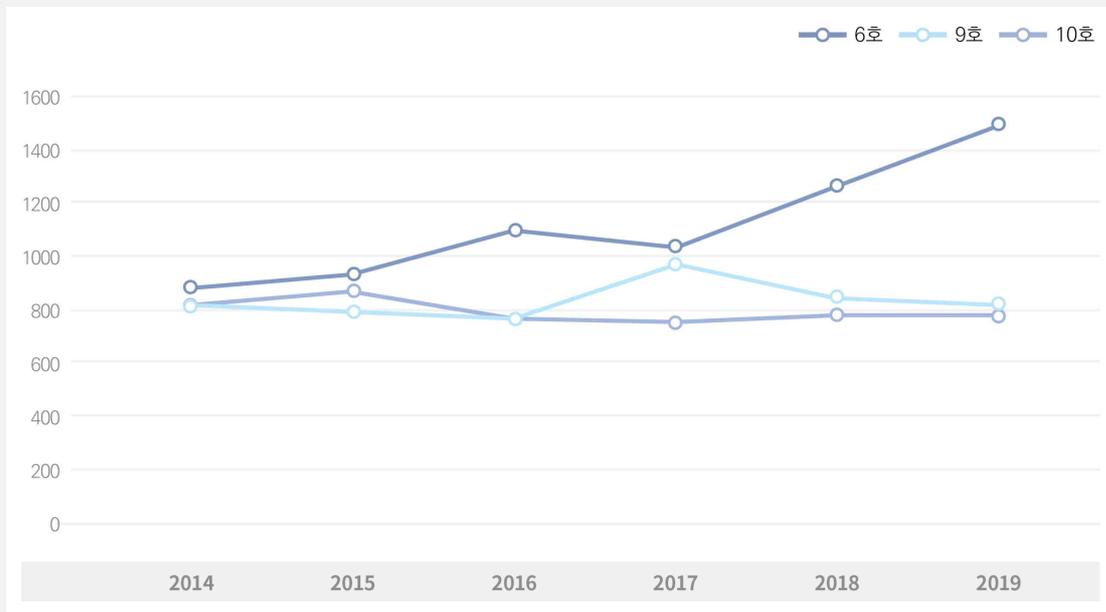
\* %는 각년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6호와 9·10호 처분 비율]

연도	구분	6호			9호 및 10호			
		계	6호	4,6호	5,6호	계	9호	10호
2014		882	9	39	834	1,625	812	813
		3.6%	0.0%	0.2%	3.4%	6.6%	3.3%	3.3%
2015		931	2	46	883	1,660	794	866
		3.6%	0.0%	0.2%	3.4%	6.4%	3.1%	3.3%
2016		1,101	5	33	1,063	1,540	770	770
		4.7%	0.0%	0.1%	4.6%	6.6%	3.3%	3.3%
2017		1,034	7	41	986	1,728	972	756
		4.2%	0.0%	0.2%	4.0%	7.1%	4.0%	3.1%
2018		1,266	5	32	1,229	1,621	842	779
		5.2%	0.0%	0.1%	5.1%	6.6%	3.4%	3.2%
2019		1,497	5	52	1,440	1,601	821	780
		6.2%	0.0%	0.2%	6.0%	6.6%	3.4%	3.2%

\* %는 각년도의 전체 보호처분 중 비율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연도	처분 계	접수			처리					미제
		검사송치	법원송치	타법원에서 이송	소계	보호처분	불처분	타법원으로 이송	기타	
2014	9,489	9,419	46	24	8,586	5,552	2,856	-	178	2,668
2015	20,131	20,007	43	81	16,868	8,917	7,319	-	632	5,929
2016	22,482	22,336	47	99	21,802	11,368	9,792	-	642	6,603
2017	18,971	18,803	28	140	20,622	11,562	8,802	-	258	4,910
2018	19,739	19,566	37	136	18,448	10,936	7,310	-	202	6,196
2019	23,698	23,486	56	156	23,139	13,360	9,578	177	24	6,748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가정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연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5호	3-5호	4-5호	5-8호	기타
2014	55	3	2	887	788	0	34	1,831	54	0	799	400	699
2015	138	2	-	1,366	1,673	1	79	2,705	86	-	1,326	530	1,011
2016	78	2	-	2,614	1,622	-	104	4,393	63	-	1,356	455	681
2017	45	1	-	3,202	1,504	-	78	4,431	44	-	1,273	478	506
2018	37	0	0	2,337	1,117	0	117	4,984	26	-	1,093	537	688
2019	58	3	0	3,056	1,843	0	103	5,751	31	-	1,287	605	623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 성매매보호사건 처분 현황

[성매매보호사건 처분 현황]

연도	처분 계	접수	처리				미제
			소계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	
2014	224	224	197	156	30	11	66
2015	382	382	343	261	35	47	105
2016	1,349	1,349	958	796	72	90	496
2017	1,006	1,006	1,326	992	74	260	176
2018	460	460	561	351	33	177	75
2019	263	263	259	184	21	54	79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성매매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연도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1-2호	1-3호	1-4호	1-2-3호	1-2-4호	1-2-5호	1-2-3-4호	2-3호	2-4호	2-5호	2-3-4호	2-3-5호	3-4호	3-5호
2014	156	3	37	33	-	2	1	5	-	19	-	3	-	46	-	7	-	-	-	-
2015	261	-	79	62	-	1	7	4	-	10	-	-	-	94	-	2	-	1	-	1
2016	796	4	135	395	13	-	4	28	-	1	-	-	-	215	1	-	-	-	-	-
2017	992	-	189	389	25	-	6	10	-	-	1	-	-	343	27	1	-	-	1	-
2018	351	1	53	102	37	-	3	6	1	1	1	-	-	130	16	-	-	-	-	-
2019	184	-	34	70	26	-	-	2	2	-	-	-	-	42	8	-	-	-	-	-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 ➔ 아동보호사건 처분 현황

[아동보호사건 처분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계	검사송치	법원송치	타법원에서 이송	소계	보호처분	불처분	타법원으로 이송	기타	
2014		9,489	9,419	46	24	8,586	5,552	2,856	-	178	2,668
2015		20,131	20,007	43	81	16,868	8,917	7,319	-	632	5,929
2016		22,482	22,336	47	99	21,802	11,368	9,792	-	642	6,603
2017		18,971	18,803	28	140	20,622	11,562	8,802	-	258	4,910
2018		19,739	19,566	37	136	18,448	10,936	7,310	-	202	6,196
2019		23,698	23,486	56	156	23,139	13,360	9,578	177	24	6,748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재구성.

[아동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연도	처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5호	3-5호	4-5호	5-8호	기타
		2014		55	3	2	887	788	0	34	1,831	54	0	799
2015		138	2	-	1,366	1,673	1	79	2,705	86	-	1,326	530	1,011
2016		78	2	-	2,614	1,622	-	104	4,393	63	-	1,356	455	681
2017		45	1	-	3,202	1,504	-	78	4,431	44	-	1,273	478	506
2018		37	0	0	2,337	1,117	0	117	4,984	26	-	1,093	537	688
2019		58	3	0	3,056	1,843	0	103	5,751	31	-	1,287	605	623

※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년도.

## ➔ 가석방 현황

- ▶ 최근 6년간 성인수에 대한 가석방 허가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에 5,361명에서 2016년에 7,126명, 2017년에 8,247명 등이었고, 2018년에는 8,66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8,139명이었다.
- ▶ 성인수 가석방 허가 인원 대비 보호관찰 부과 비율은 2014년(70.3%)과 2015년(69.8%) 이후 증가추세로, 2016년 72.7%, 2017년 75.7%, 2018년 74.8% 등이었고, 2019년에는 95%로 나타났다.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현황]

연도	구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2014		5,361	4,726	635	1,162	1,072	1,504	1,200	423
2015		5,480	4,840	640	1,147	1,094	1,443	1,309	487
2016		7,126	6,322	804	1,347	1,452	1,856	1,827	644
2017		8,247	7,280	967	1,465	1,734	2,130	2,024	894
2018		8,667	7,700	967	1,612	1,791	2,078	2,165	1,021
2019		8,139	7,150	989	1,380	1,701	1,957	2,053	1,048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00.

##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

연도	구분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2014		0	1	432	3,197	1,731
2015		0	2	291	3,075	2,112
2016		0	5	926	3,849	2,346
2017		0	18	1,493	4,795	1,941
2018		50	67	1,496	4,976	2,078
2019		3	74	1,630	4,380	2,052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00.

##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

연도	구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무기
2014		984	2,499	900	530	160	194	94	0
2015		1,045	2,664	834	514	160	175	87	1
2016		1,367	3,420	1,020	564	244	267	242	2
2017		1,810	3,840	1,282	614	238	294	158	11
2018		1,891	3,750	1,430	740	300	315	201	40
2019		1,997	3,415	1,300	672	317	316	108	14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00.

## [가석방 인원과 보호관찰 부과 현황(접수사건 기준)]

연도	구분	가석방 인원	보호관찰 부과 사건			가석방 인원 대비 보호관찰 부과율		
			계	보호관찰	전자감독	계	보호관찰	전자감독
2014		5,361	3,767	3,420	347	70.3%	63.8%	6.5%
2015		5,480	3,827	3,424	403	69.8%	62.5%	7.3%
2016		7,126	5,181	4,587	594	72.7%	64.4%	8.3%
2017		8,247	6,243	5,742	501	75.7%	69.6%	6.1%
2018		8,667	6,486	5,953	533	74.8%	68.7%	6.1%
2019		8,139	7,729	7,347	382	95.0%	90.3%	4.7%

※ 출처 :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2000.



Chapter 2

# 보호관찰

제1절 보호관찰

제2절 치료명령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제4절 보호관찰조사

A photograph of a man in a light blue button-down shirt,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right. He is holding a pen in his right hand and an open notebook in his left. A lanyard with a badge is around his neck. The imag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green filter and two white circles: a solid one and a dotted one. The text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is positioned in the upper right area of the image.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보호관찰

## 1 접수사건 현황

### 1) 사범별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보호관찰 사건의 사범별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사범 :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의 10개로 구분

- 2020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10,396건(2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통사범 9,013건(19.8%), 기타사범 7,394건(16.2%), 사기횡령사범 6,694건(14.7%)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도 성폭력사범 2,785건(6.1%), 풍속사범 1,080건(2.4%), 강력사범 1,220건(2.7%), 경제사범 737건(1.6%)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주요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폭력사범은 매년 전체의 22~27%를 차지하였고 사건수는 2014년에 11,843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0~13,500건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7.7% 감소하였다.
- 교통사범은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사건수가 증가하여 2014년 5,666건에서 2017년 8,499건, 2019년 8,140건, 2020년 9,013건 등이었고, 전체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2014년 12.3%에서 2019년 16.8%, 2020년 19.8% 등이었다.
- 사기횡령사범은 사건수의 증가추세 속에서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하여 2014년에는 9.9%였다가 2019년 이후로는 14% 이상을 기록하였다. 반면 절도사범과 성폭력사범은 사건수와 비율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기타사범은 2017년까지 사건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15~16%대를 유지하고 있다.
- 강력사범은 2017년부터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고, 풍속사범은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두 사범 모두 2%대에 머물렀다.

표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연도\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46,110	11,846	5,666	9,077	4,571	1,602	1,255	1,183	3,968	488	6,454
	100%	25.7%	12.3%	19.7%	9.9%	3.5%	2.7%	2.6%	8.6%	1.0%	14.0%
2015	47,991	13,317	5,846	8,300	4,953	1,435	1,346	1,553	3,776	508	6,957
	100%	27.7%	12.2%	17.3%	10.3%	3.0%	2.8%	3.2%	7.9%	1.1%	14.5%
2016	51,844	13,058	7,566	7,634	5,930	1,780	1,562	1,943	3,568	648	8,155
	100%	25.2%	14.6%	14.7%	11.4%	3.4%	3.0%	3.8%	6.9%	1.3%	15.7%
2017	53,419	13,499	8,499	6,706	6,670	1,559	1,702	2,400	3,353	697	8,334
	100%	25.3%	15.9%	12.5%	12.5%	2.9%	3.2%	4.5%	6.3%	1.3%	15.6%
2018	49,073	12,547	7,714	5,829	6,433	1,531	1,455	1,495	3,427	687	7,955
	100%	25.6%	15.7%	11.9%	13.1%	3.1%	3.0%	3.0%	7.0%	1.4%	16.2%
2019	48,508	12,625	8,140	5,087	6,988	1,315	1,608	1,325	3,108	763	7,549
	100%	26.0%	16.8%	10.5%	14.4%	2.7%	3.3%	2.7%	6.4%	1.6%	15.6%
2020	45,592	10,396	9,013	4,924	6,694	1,220	1,349	1,080	2,785	737	7,394
	100%	22.8%	19.8%	10.8%	14.7%	2.7%	2.9%	2.4%	6.1%	1.6%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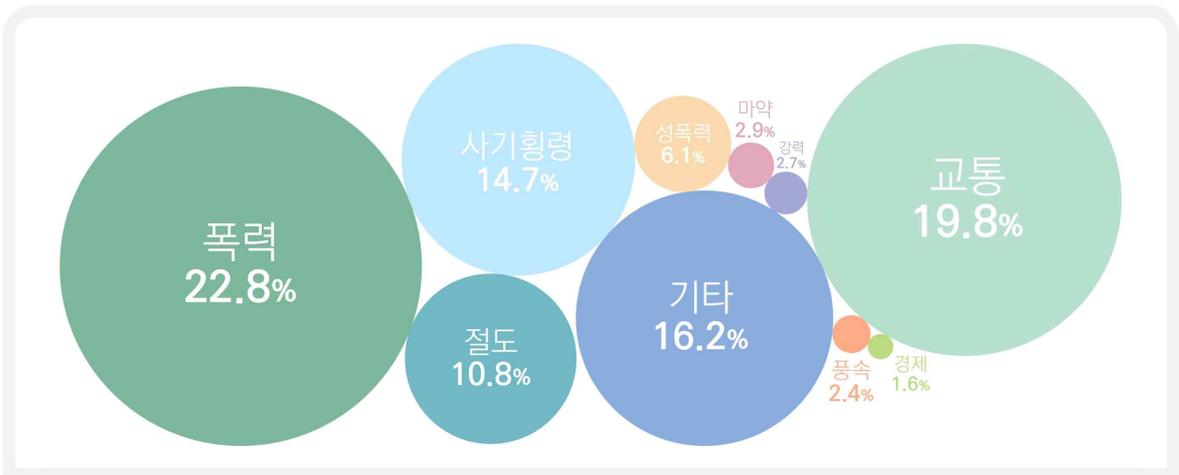


그림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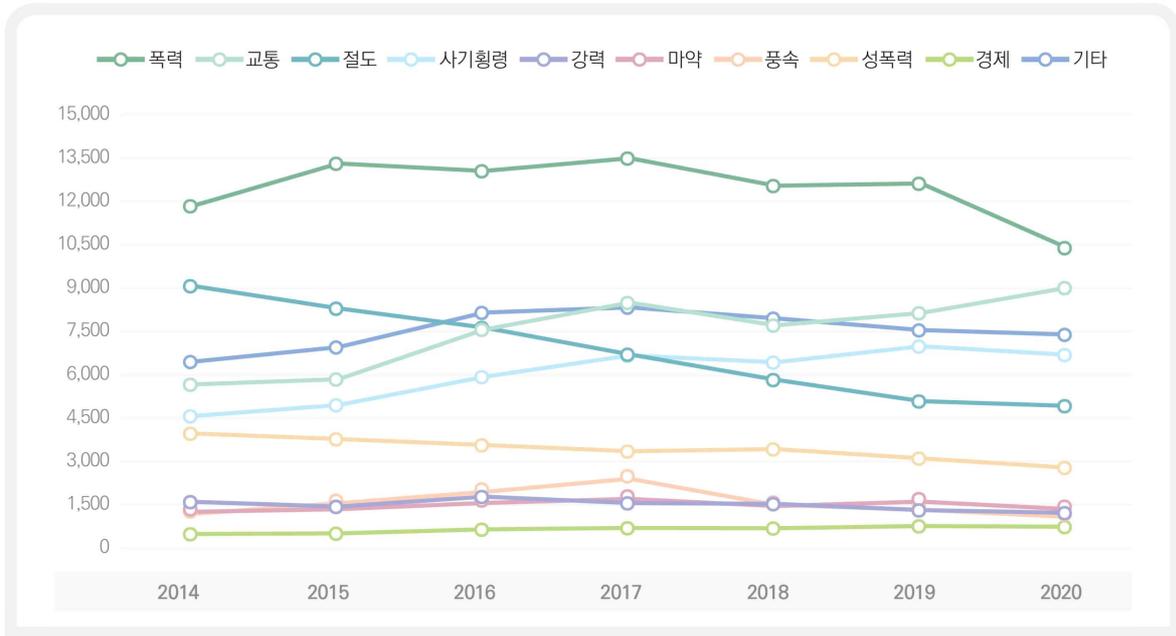


그림 2-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2) 근거 법률별 현황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보호관찰 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근거법률 :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법(임시회원),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 처벌법, 보호관찰 선도위탁규정(선도위탁),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12개로 구분

- 2020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한 결과, 형법이 24,770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년법 11,608건(25.5%), 가정폭력처벌법 3,497건(7.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1,113건(2.4%), 보호관찰법(임시회원) 962건(2.1%)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 주요 법률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사건 수가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상승하였다. 반면 소년법은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도 매년 사건 수와 비율이 감소하였다.

- 보호관찰법에 따른 임시퇴원은 1,000~1,400건 사이에서 매년 사건 수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가정폭력처벌법은 2014년에 2,604건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부터 연간 3,500~4,300건을 유지하였다.

표 2-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근거법률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6,110 100%	47,991 100%	51,845 100%	53,419 100%	49,073 100%	48,508 100%	45,592 100%
형법	19,689 42.7%	20,410 42.5%	24,986 48.2%	26,386 49.4%	24,299 49.5%	25,283 52.1%	24,770 54.3%
소년법	14,810 32.1%	14,761 30.8%	13,659 26.3%	13,621 25.5%	13,516 27.6%	12,074 24.9%	11,608 25.5%
보호관찰법 (임시퇴원)	1,357 2.9%	1,084 2.3%	1,233 2.4%	1,192 2.2%	1,296 2.6%	1,058 2.2%	962 2.1%
치료감호법	531 1.2%	481 1.0%	695 1.3%	944 1.8%	1,044 2.1%	1,044 2.2%	827 1.8%
성폭력처벌법	608 1.3%	740 1.5%	881 1.7%	914 1.7%	898 1.8%	806 1.7%	785 1.7%
가정폭력처벌법	2,604 5.7%	4,364 9.1%	4,129 8.0%	3,930 7.4%	3,523 7.2%	4,355 9.0%	3,497 7.7%
성매매처벌법	376 0.8%	674 1.4%	847 1.6%	1,192 2.2%	539 1.1%	321 0.7%	262 0.6%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4,937 10.7%	4,097 8.5%	3,787 7.3%	3,452 6.5%	2,106 4.3%	1,873 3.9%	1,113 2.4%
청소년성보호법	227 0.5%	245 0.5%	189 0.4%	225 0.4%	221 0.5%	169 0.4%	137 0.3%
아동학대처벌법	0 0.0%	302 0.6%	567 1.1%	768 1.4%	740 1.5%	732 1.5%	810 1.8%
전자장치부착법	971 2.1%	833 1.7%	871 1.7%	795 1.5%	891 1.8%	793 1.6%	821 1.8%
성충동약물치료법	0 0.0%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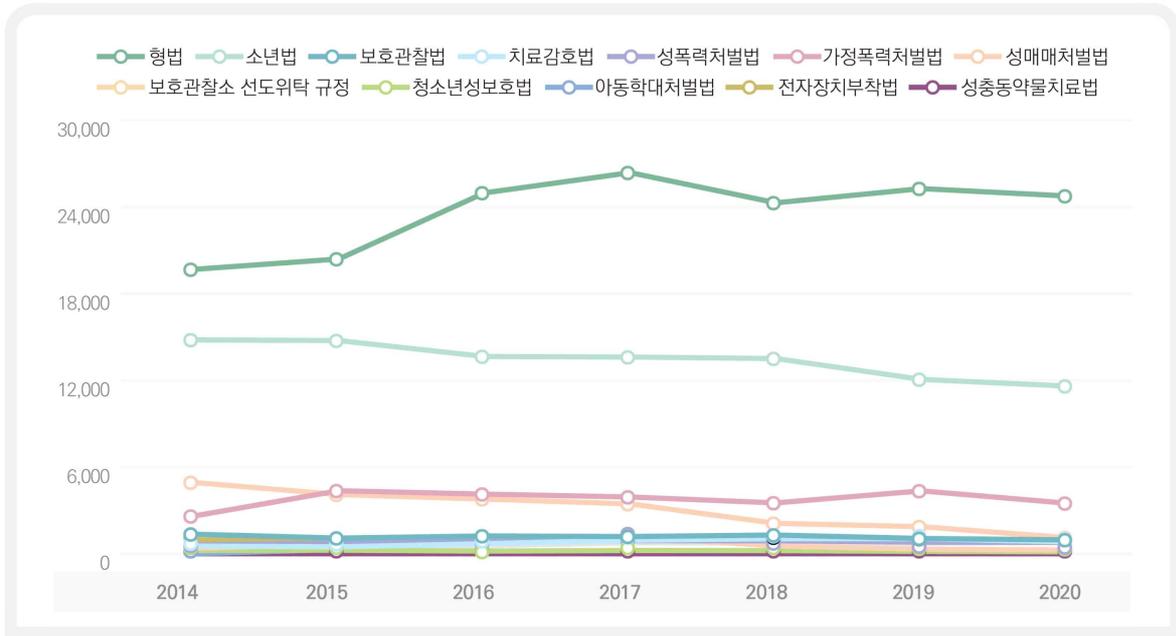


그림 2-1-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 3) 처분유형별 현황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보호관찰 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처분유형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기타의 7개로 구분

- 2020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집행유예 처분이 18,656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년보호처분 11,608건(25.5%), 가석방 7,828건(17.2%), 기타<sup>6)</sup> 6,519건(14.3%)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2014년 16,575건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7년 21,35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8년 이후로는 18,500건 내외에 머물지만 전체 사건 중의 비율은 4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6) 가정보호처분, 아동보호처분, 성보호처분, 선도위탁, 가중료, 가출소,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등이 포함된다.

- 가석방은 2014년 4,189건(9.1%)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2019년 8,441건(17.4%)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타 처분은 2017년 10,418건에서 사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6.4% 감소하였다.

표 2-1-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			기타
							소계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2014		46,110	10	16,575	4,189	1,357	14,810	7,451	7,359	9,169
		100%	0.0%	36.0%	9.1%	2.9%	32.1%	16.2%	16.0%	19.9%
2015		47,991	27	17,700	4,156	1,084	14,761	8,142	6,619	10,263
		100%	0.1%	36.9%	8.7%	2.3%	30.8%	17.0%	13.8%	21.4%
2016		51,844	35	20,856	5,673	1,233	13,659	7,254	6,405	10,388
		100%	0.1%	40.2%	10.9%	2.4%	26.3%	14.0%	12.4%	20.0%
2017		53,419	33	21,359	6,796	1,192	13,621	7,175	6,446	10,418
		100%	0.1%	40.0%	12.7%	2.2%	25.5%	13.4%	12.1%	19.5%
2018		49,073	28	18,603	7,148	1,296	13,516	7,055	6,461	8,482
		100%	0.1%	37.9%	14.6%	2.6%	27.6%	14.4%	13.2%	17.3%
2019		48,508	15	18,065	8,441	1,058	12,074	5,913	6,161	8,855
		100%	0.0%	37.2%	17.4%	2.2%	24.9%	12.2%	12.7%	18.3%
2020		45,592	19	18,656	7,828	962	11,608	5,884	5,724	6,519
		100%	0.0%	40.9%	17.2%	2.1%	25.5%	12.9%	12.6%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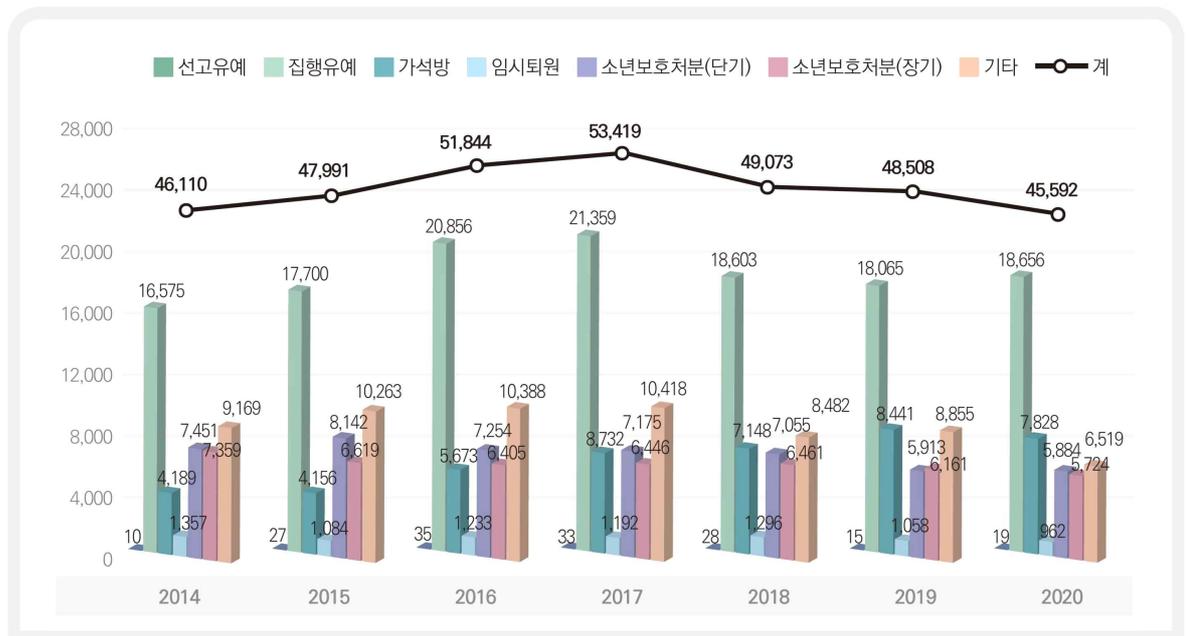


그림 2-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 ➔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건의 보호관찰 기간 현황

2020년에 접수된 보호관찰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 18,656건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초과~2년 이하가 69.6%, 2년 초과~3년 이하가 17.2%, 1년 이하가 10.3%를 차지하였고, 3년 초과~4년 이하가 2.0%, 5년 이하가 0.7% 등이었다.

#### ❖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건의 보호관찰기간 현황(2020)

기간	계	6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사건	18,656	30	1,915	12,980	3,217	380	134
	100%	0.2%	10.3%	69.6%	17.2%	2.0%	0.7%

※ 처분법 :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치료감호법, 성매매처벌법

## 4) 연령별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보호관찰 사건의 연령별 현황

### 지표정의

- 소년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단, 소년법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년으로 분류)
- 성인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

- 2020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소년이 13,489건(29.6%), 성인이 32,103건(70.4%)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인사건의 경우 2014년 25,732건에서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다. 소년사건은 2014년 20,378건에서 매년 감소하여 왔고, 전체 사건 중 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표 2-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령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6,110	47,991	51,844	53,419	49,073	48,508	45,59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년	20,378	19,271	18,218	17,799	16,659	14,439	13,489
	44.2%	40.2%	35.1%	33.3%	33.9%	29.8%	29.6%
성인	25,732	28,720	33,626	35,620	32,414	34,069	32,103
	55.8%	59.8%	64.9%	66.7%	66.1%	70.2%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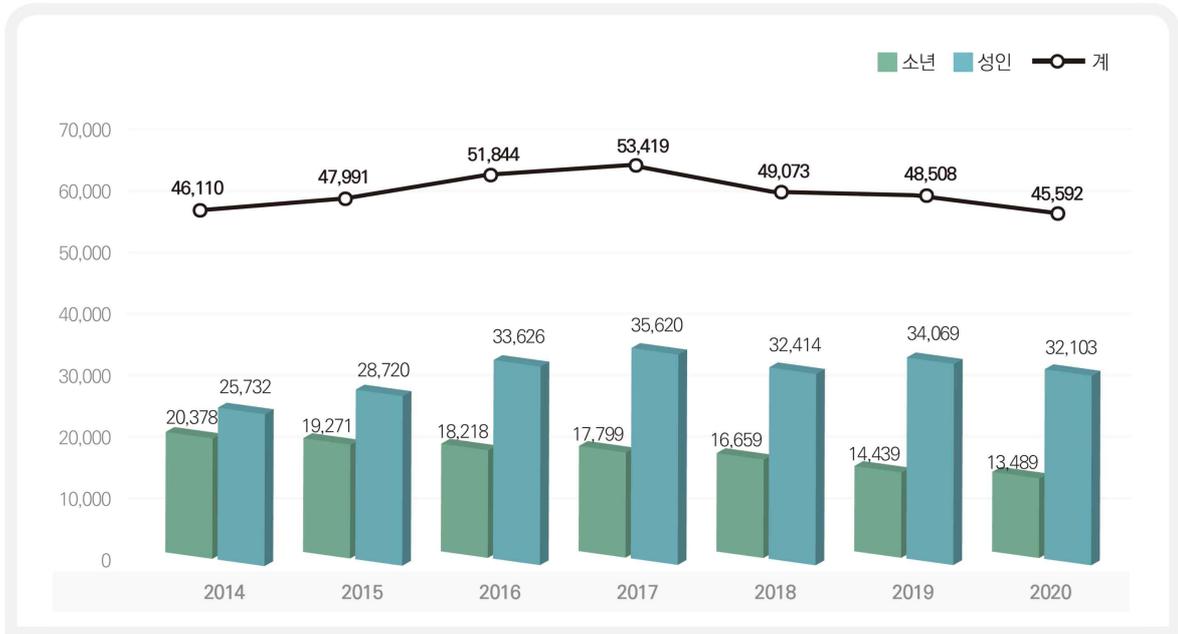


그림 2-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2020년에 접수한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7세인 경우가 3,095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6세 2,769건(20.5%), 18세 2,736건(20.3%), 15세 2,257건(16.7%)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 14세가 1,505건(11.2%), 14세 미만이 704건(5.2%), 19세 이상이 423건(3.1%) 등이었다.

\*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

계	14세 미만	14	15	16	17	18	19세 이상
13,489	704	1,505	2,257	2,769	3,095	2,736	423
100%	5.2%	11.2%	16.7%	20.5%	22.9%	20.3%	3.1%

➔ 2020년에 접수한 성인 보호관찰사건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7,790건(24.3%), 50대가 7,627건(23.8%), 30대가 6,436건(20.0%)으로 30~50대가 전체의 68.1%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20대가 6,003건(18.7%), 60대가 3,429건(10.7%), 70대가 736건(2.3%)이었고, 80대 이상은 82건(0.3%)이었다.

\*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32,103	6,003	6,436	7,790	7,627	3,429	736	82
100%	18.7%	20.0%	24.3%	23.8%	10.7%	2.3%	0.3%

## 5) 성별 현황

- 2020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 중 남성이 38,766건(85.0%), 여성이 6,826건(15.0%)으로 남성사건이 여성사건보다 약 5.7배 많았다.
- 최근 7년간 남성사건이 전체의 80%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여성사건의 비율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2.2%에서 2020년에는 15%로 나타났다.

표 2-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성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6,110	47,991	51,844	53,419	49,073	48,508	45,59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성	40,465	42,289	45,055	45,720	41,852	41,225	38,766
	87.8%	88.1%	86.9%	85.6%	85.3%	85.0%	85.0%
여성	5,645	5,702	6,789	7,699	7,221	7,283	6,826
	12.2%	11.9%	13.1%	14.4%	14.7%	15.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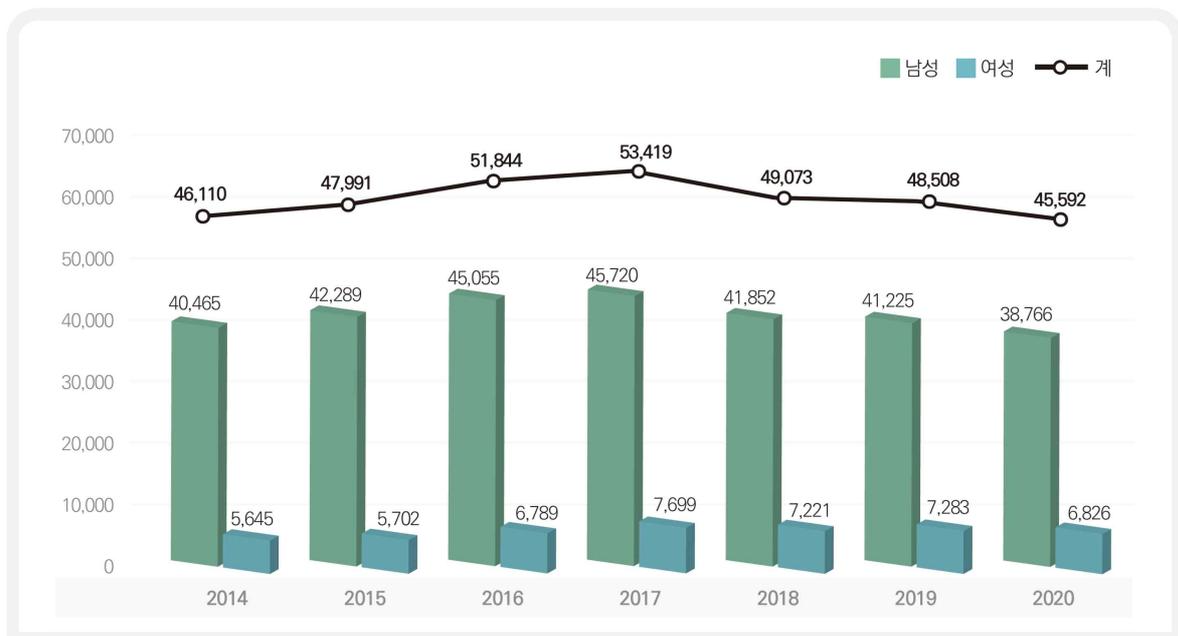


그림 2-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 6) 성별에 따른 연령별 현황

- 2020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을 성별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면, 남성의 경우 전체 38,766건 중 소년이 10,488건(27.1%), 성인이 28,278건(72.9%)이었고, 여성은 전체 6,826건 중 소년이 3,001건(44.0%), 성인이 3,825건(56.0%)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성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남성은 성인과 소년의 비율 차이가 컸으나, 여성은 소년과 성인의 비율 차이가 작았다.
- 최근 7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은 2014년부터 소년보다 성인의 비율이 더 높았고, 성인 접수 건수가 증가하면서 비율의 차가 점점 커졌다. 여성의 경우 2014년에는 소년의 비율이 61.9%로 성인(38.1%)보다 높았으나, 성인 여성 접수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부터 성인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표 2-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도	연령	계			남성			여성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2014		46,110	20,378	25,732	40,465	16,885	23,580	5,645	3,493	2,152
		100%	44.2%	55.8%	100%	41.7%	58.3%	100%	61.9%	38.1%
2015		47,991	19,271	28,720	42,289	16,300	25,989	5,702	2,971	2,731
		100%	40.2%	59.8%	100%	38.5%	61.5%	100%	52.1%	47.9%
2016		51,844	18,218	33,626	45,055	14,980	30,075	6,789	3,238	3,551
		100%	35.1%	64.9%	100%	33.2%	66.8%	100%	47.7%	52.3%
2017		53,419	17,799	35,620	45,720	14,341	31,379	7,699	3,458	4,241
		100%	33.3%	66.7%	100%	31.4%	68.6%	100%	44.9%	55.1%
2018		49,073	16,659	32,414	41,852	13,111	28,741	7,221	3,548	3,673
		100%	33.9%	66.1%	100%	31.3%	68.7%	100%	49.1%	50.9%
2019		48,508	14,439	34,069	41,225	11,118	30,107	7,283	3,321	3,962
		100%	29.8%	70.2%	100%	27.0%	73.0%	100%	45.6%	54.4%
2020		45,592	13,489	32,103	38,766	10,488	28,278	6,826	3,001	3,825
		100%	29.6%	70.4%	100%	27.1%	72.9%	100%	44.0%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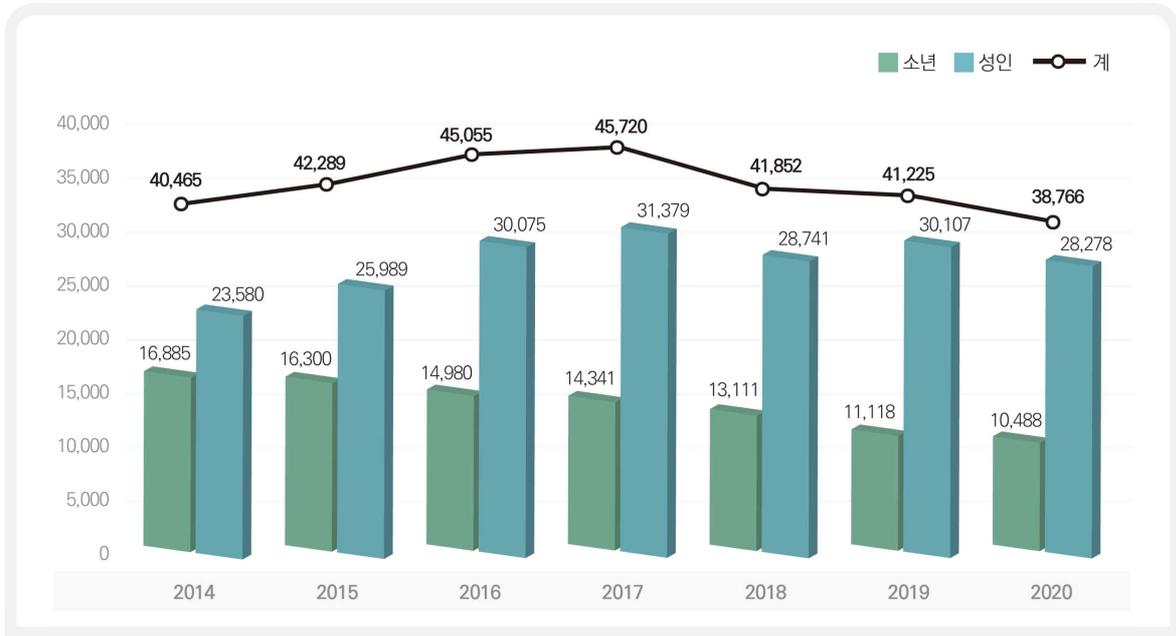


그림 2-1-7 보호관찰(남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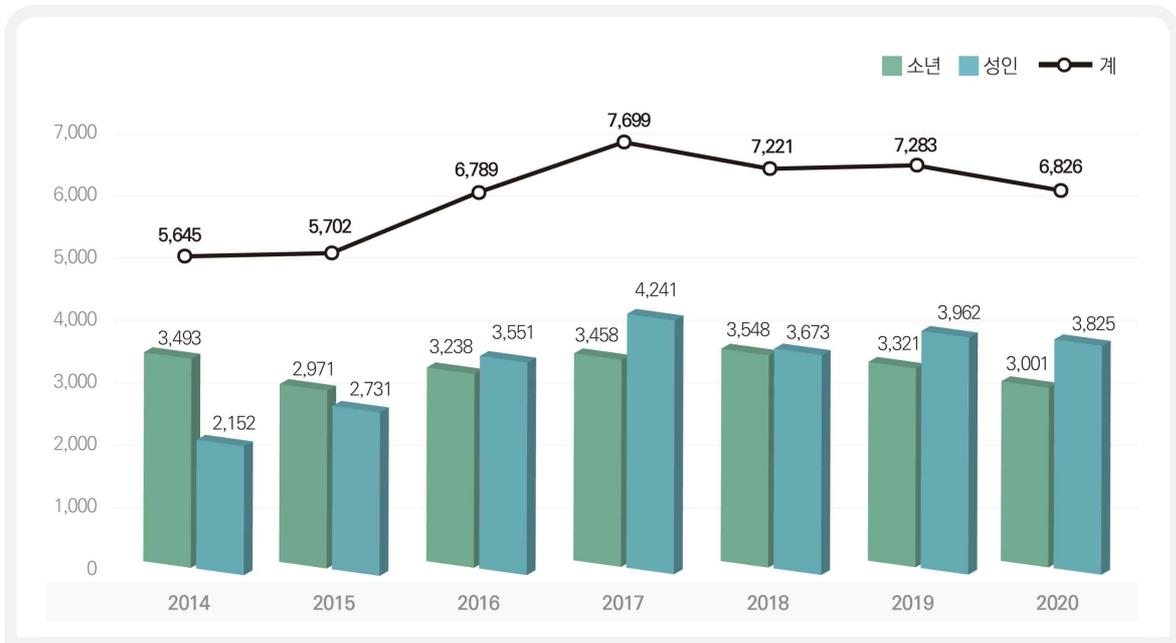


그림 2-1-8 보호관찰(여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7)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

- 2020년 보호관찰 접수사건 총 45,592건의 이전 보호관찰처분 전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사건이 최초 보호관찰처분인 경우가 23,926건(52.5%), 처분전력이 있는 경우가 21,666건(47.5%)이었다. 보호관찰처분 전력자 중 1회가 11,867건(26.0%), 2회가 5,388건(11.8%), 3회가 2,415건(5.3%), 4회 이상이 1,996건(4.4%) 등이었다.
-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보호관찰처분 전력을 살펴보면, 소년사건의 경우 최초 처분자가 6,041건(44.8%), 처분전력자가 7,448건(55.2%)이었고, 성인사건의 경우 최초 처분자가 17,885건(55.7%), 처분전력자가 14,218건(44.3%)으로, 처분전력자의 비율이 성인사건보다 소년사건에서 높았다.

표 2-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연도	처분전력	계		전력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전력 없음					
2014	전체	46,110	25,100	11,671	5,301	2,390	1,648	
		100%	54.4%	25.3%	11.5%	5.2%	3.6%	
	소년	20,383	8,925	5,807	3,169	1,551	931	
		100%	43.8%	28.5%	15.5%	7.6%	4.6%	
	성인	25,727	16,175	5,864	2,132	839	717	
		100%	62.9%	22.8%	8.3%	3.3%	2.8%	
2015	전체	47,991	26,066	11,858	5,640	2,569	1,858	
		100%	54.3%	24.7%	11.8%	5.4%	3.9%	
	소년	19,281	8,347	5,232	3,133	1,557	1,012	
		100%	43.3%	27.1%	16.3%	8.1%	5.2%	
	성인	28,710	17,719	6,626	2,507	1,012	846	
		100%	61.7%	23.1%	8.7%	3.5%	2.9%	
2016	전체	51,844	27,726	13,130	6,079	2,785	2,124	
		100%	53.5%	25.3%	11.7%	5.4%	4.1%	
	소년	18,223	7,656	5,088	2,900	1,520	1,059	
		100%	42.0%	27.9%	15.9%	8.3%	5.8%	
	성인	33,621	20,070	8,042	3,179	1,265	1,065	
		100%	59.7%	23.9%	9.5%	3.8%	3.2%	
2017	전체	53,419	28,651	13,488	6,274	2,807	2,199	
		100%	53.6%	25.2%	11.7%	5.3%	4.1%	
	소년	17,799	7,672	4,912	2,877	1,396	942	
		100%	43.1%	27.6%	16.2%	7.8%	5.3%	
	성인	35,620	20,979	8,576	3,397	1,411	1,257	
		100%	58.9%	24.1%	9.5%	4.0%	3.5%	

연도	처분전력	계		전력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2018	전체	49,071		25,394	12,505	6,184	2,758	2,230
		100%		51.8%	25.5%	12.6%	5.6%	4.5%
	소년	16,659		6,949	4,809	2,779	1,272	850
		100%		41.7%	28.9%	16.7%	7.6%	5.1%
	성인	32,414		18,447	7,696	3,405	1,486	1,380
		100%		56.9%	23.7%	10.5%	4.6%	4.3%
2019	전체	48,508		25,499	12,351	5,866	2,673	2,119
		100%		52.6%	25.5%	12.1%	5.5%	4.4%
	소년	14,439		6,244	4,089	2,285	1,098	723
		100%		43.3%	28.3%	15.8%	7.6%	5.0%
	성인	34,069		19,255	8,262	3,581	1,575	1,396
		100%		56.5%	24.3%	10.5%	4.6%	4.1%
2020	전체	45,592		23,926	11,867	5,388	2,415	1,996
		100%		52.5%	26.0%	11.8%	5.3%	4.4%
	소년	13,489		6,041	3,986	2,020	890	552
		100%		44.8%	29.6%	15.0%	6.6%	4.1%
	성인	32,103		17,885	7,881	3,368	1,525	1,444
		100%		55.7%	24.6%	10.5%	4.8%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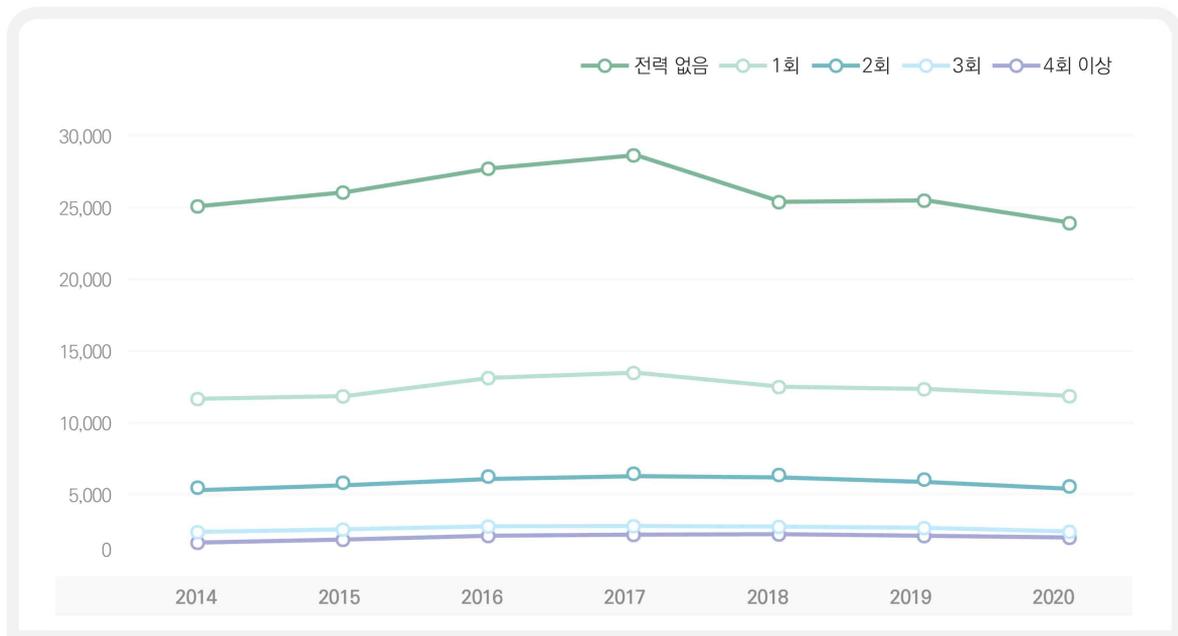


그림 2-1-9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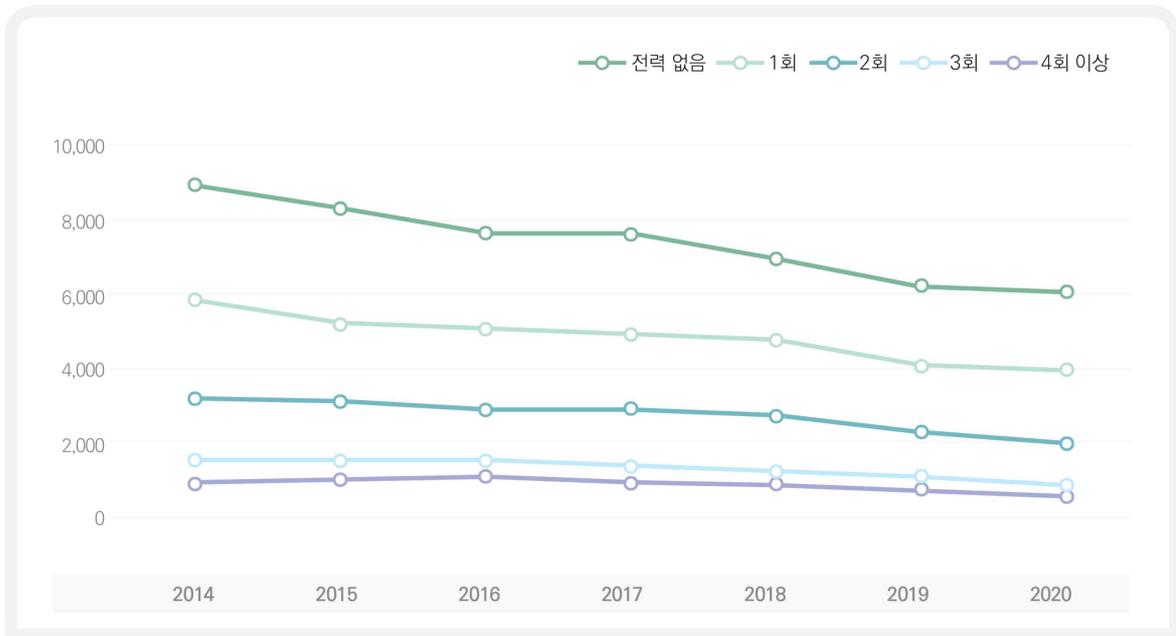


그림 2-1-10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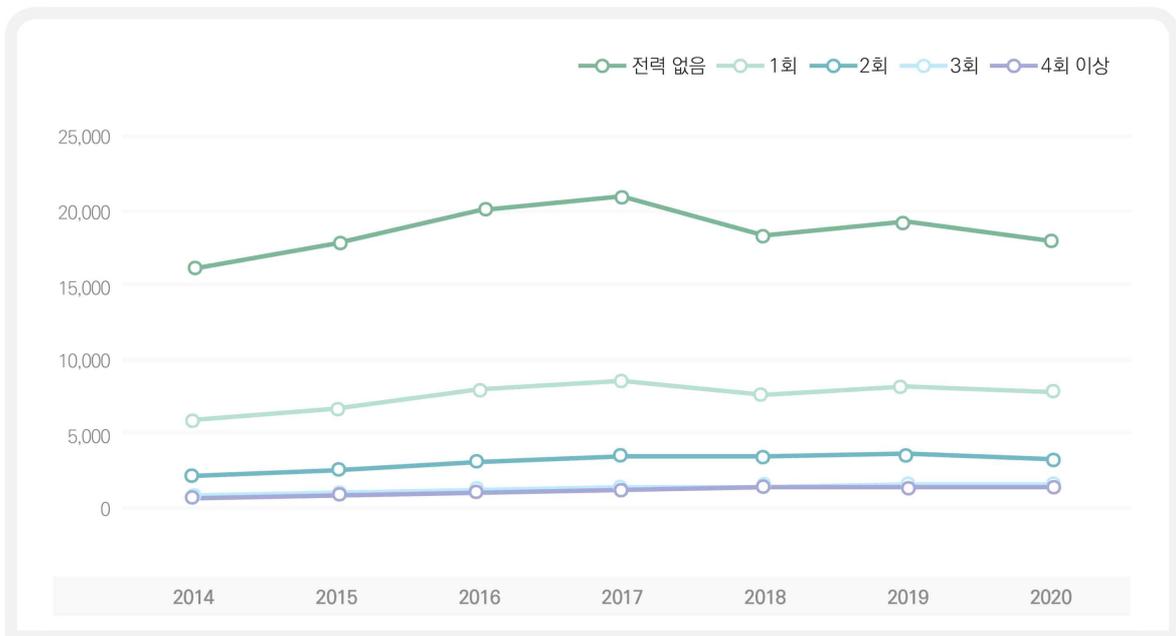


그림 2-1-11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 8) 내외국인 현황

- 2020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 45,592건 중 내국인이 45,257건(99.3%), 외국인이 335건(0.7%)이었다.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내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사건에서는 내국인이 13,419건(99.5%), 외국인이 70건(0.5%)이고, 성인사건에서는 내국인이 31,838건(99.2%), 외국인이 265건(0.8%)으로, 성인과 소년사건에서 내외국인 비율의 차이가 없었다.

표 2-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전체		소년		성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45,257	335	13,419	70	31,838	265
99.3%	0.7%	99.5%	0.5%	99.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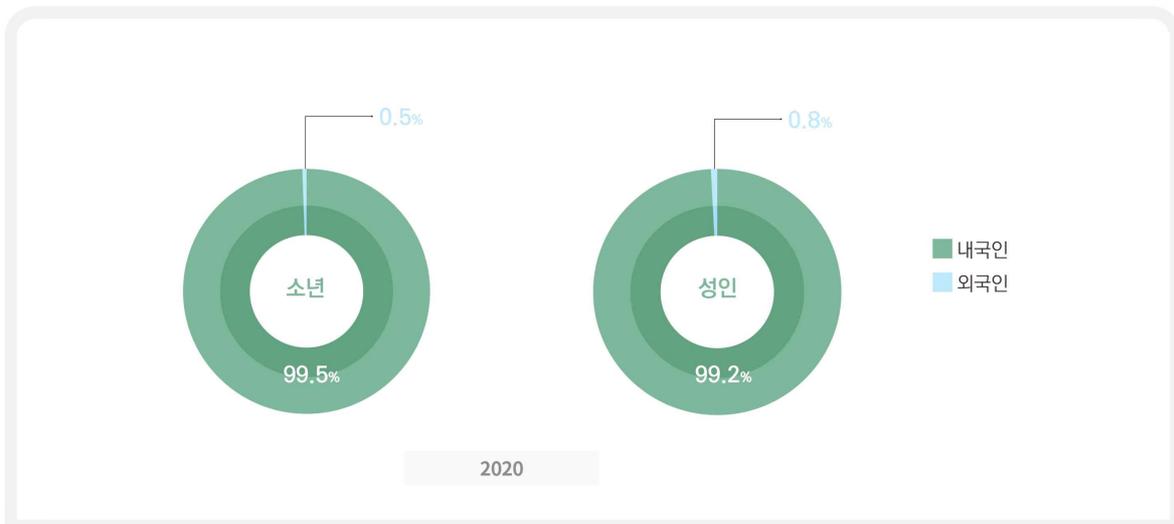


그림 2-1-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 9) 외출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 부과 현황

### (1) 연령 및 성별 부과 현황

<b>개 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접수사건 중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사건 현황</li> </ul>
<b>지표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li> <li>외출제한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제1호의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li> </ul>

- 2020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 45,592건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사건은 7,435건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다. 이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소년 남성이 5,375건(72.3%), 소년 여성이 1,883건(25.3%)으로 소년이 전체의 97.6%를 차지하였고, 성인 남성이 166건(2.3%), 여성이 11건(0.1%)으로 성인은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 최근 7년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건은 2014년 8,671건, 2016년 7,890건, 2017년 8,653건, 2019년 7,425건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매년 소년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소년 여성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최근 2년간 사건 수에서는 27% 이상, 전체 사건 중 비율에서는 8% 이상 증가하였다.

표 2-1-9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전체			소년			성인		
		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14		8,671	7,198	1,473	8,535	7,063	1,472	136	135	1
		100%	83.0%	17.0%	98.4%	81.5%	17.0%	1.6%	1.6%	0.0%
2015		8,241	6,971	1,270	8,096	6,836	1,260	145	135	10
		100%	84.6%	15.4%	98.2%	83.0%	15.3%	1.8%	1.6%	0.1%
2016		7,890	6,370	1,520	7,684	6,176	1,508	206	194	12
		100%	80.7%	19.3%	97.4%	78.3%	19.1%	2.6%	2.5%	0.2%
2017		8,653	6,860	1,793	8,350	6,580	1,770	303	280	23
		100%	79.3%	20.7%	96.5%	76.0%	20.5%	3.5%	3.2%	0.3%
2018		8,319	6,418	1,901	8,095	6,205	1,890	224	213	11
		100%	77.1%	22.9%	97.3%	74.6%	22.7%	2.7%	2.6%	0.1%
2019		7,425	5,540	1,885	7,255	5,383	1,872	170	157	13
		100%	74.6%	25.4%	97.7%	72.5%	25.2%	2.3%	2.1%	0.2%
2020		7,435	5,541	1,894	7,258	5,375	1,883	177	166	11
		100%	74.5%	25.5%	97.6%	72.3%	25.3%	2.4%	2.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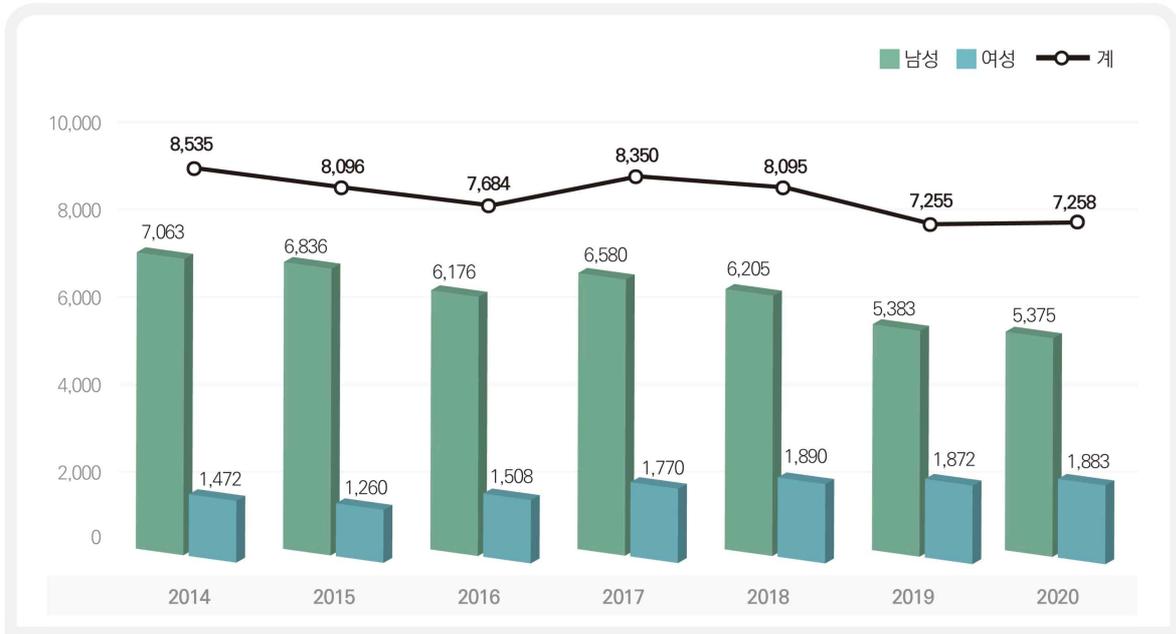


그림 2-1-13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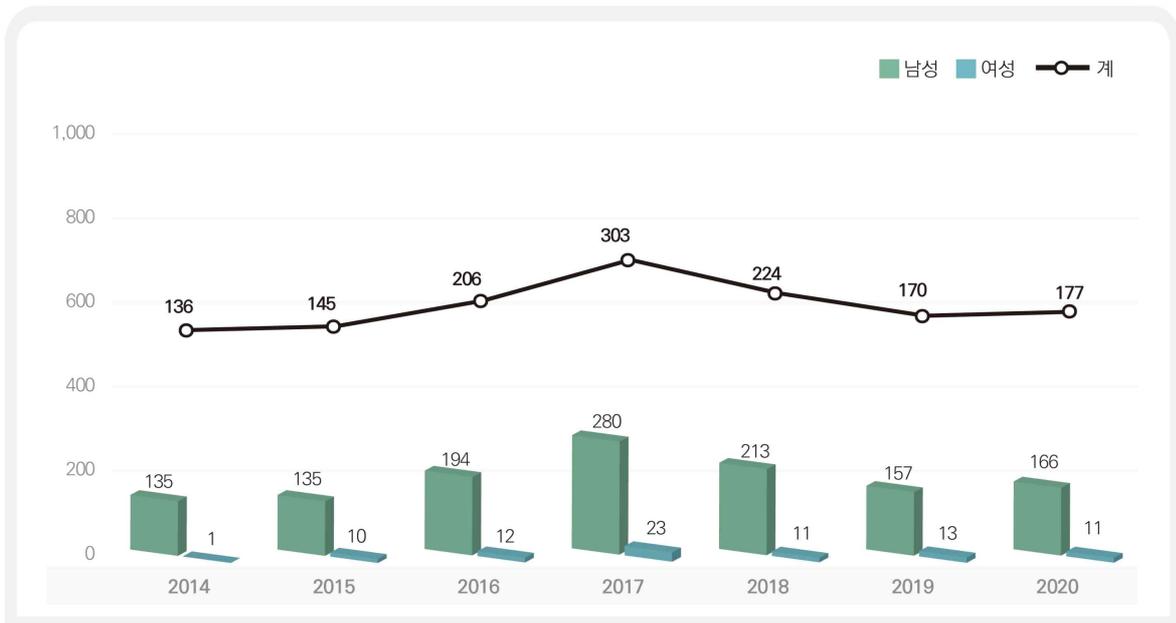


그림 2-1-14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 대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은 2014년 18.8%에서 2017년 16.2%, 2018년 17.0%, 2019년 15.3%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0년에는 16.3%이었다. 소년과 성인사건을 구분하여 접수사건 대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을 살펴보면, 소년사건은 2014년 41.9%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0년에 53.8%를 기록하였고, 성인사건은 매년 1% 미만을 보였다.

표 2-1-10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접수사건	46,110	47,991	51,844	53,419	49,073	48,508	45,592
	부과사건	8,671	8,241	7,890	8,653	8,319	7,425	7,435
	부과율	18.8%	17.2%	15.2%	16.2%	17.0%	15.3%	16.3%
소년	접수사건	20,378	19,271	18,218	17,799	16,659	14,439	13,489
	부과사건	8,535	8,096	7,684	8,350	8,095	7,255	7,258
	부과율	41.9%	42.0%	42.2%	46.9%	48.6%	50.2%	53.8%
성인	접수사건	25,732	28,720	33,626	35,620	32,414	34,069	32,103
	부과사건	136	145	206	303	224	170	177
	부과율	0.5%	0.5%	0.6%	0.9%	0.7%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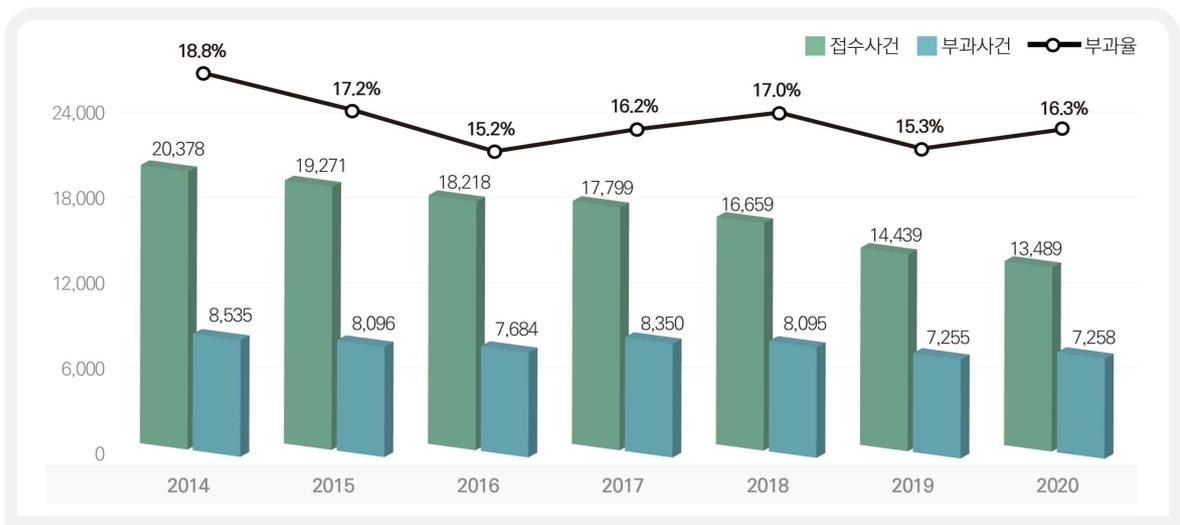


그림 2-1-1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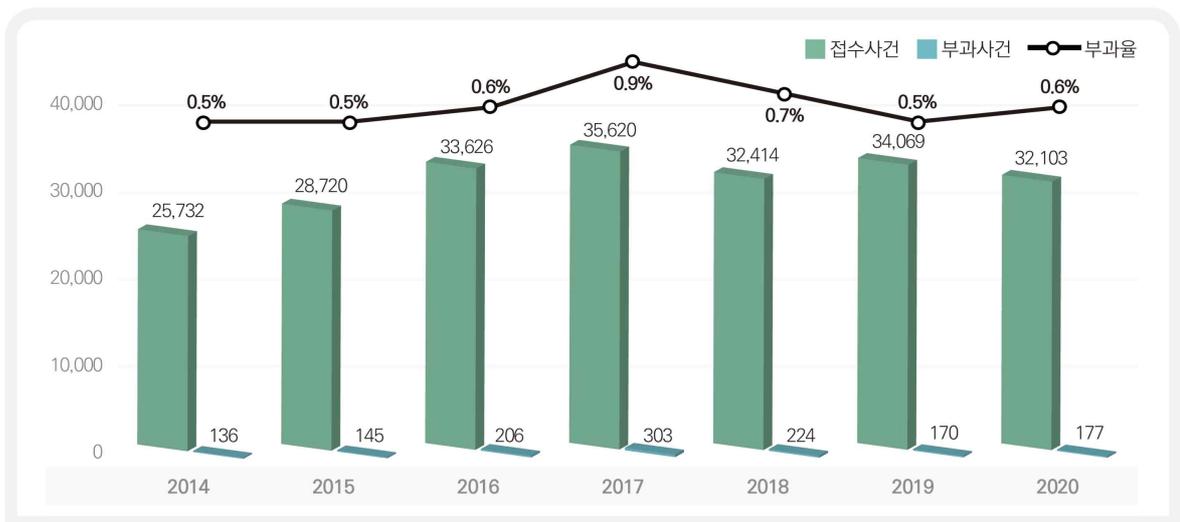


그림 2-1-16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4~2020)

## (2) 사범별 부과 현황

### 개 요

- 당해연도 접수사건 중 특별준수사항(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부과자의 사범별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사범 :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의 10개로 구분

- 2020년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기타사범이 2,323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절도사범 2,016건(27.1%), 폭력사범 1,487건(20.0%), 교통사범 730건(9.8%), 사기횡령사범 459건(6.2%), 성폭력사범 214건(2.9%)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사범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사범은 2014년 23.9%에서 2018년 이후로는 28%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절도사범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1~34%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7년 이후 25~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폭력사범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 내외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4~25%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2014년 수준을 나타냈다. 교통사범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5%에서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하여 8~9%를 보였다.

표 2-1-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8,671	1,753	650	3,022	367	214	61	45	466	23	2,070
	100%	20.2%	7.5%	34.9%	4.2%	2.5%	0.7%	0.5%	5.4%	0.3%	23.9%
2015	8,241	1,698	620	2,829	451	136	37	66	421	21	1,962
	100%	20.6%	7.5%	34.3%	5.5%	1.7%	0.5%	0.8%	5.1%	0.3%	23.8%
2016	7,890	1,506	632	2,459	406	117	45	70	373	26	2,256
	100%	19.1%	8.0%	31.2%	5.2%	1.5%	0.6%	0.9%	4.7%	0.3%	28.6%
2017	8,653	2,069	824	2,275	469	96	69	103	401	19	2,328
	100%	23.9%	9.5%	26.3%	5.4%	1.1%	0.8%	1.2%	4.6%	0.2%	26.9%
2018	8,319	2,076	741	2,130	460	81	44	83	310	25	2,369
	100%	25.0%	8.9%	25.6%	5.5%	1.0%	0.5%	1.0%	3.7%	0.3%	28.5%
2019	7,425	1,834	606	1,944	486	94	32	43	239	30	2,117
	100%	24.7%	8.2%	26.2%	6.6%	1.3%	0.4%	0.6%	3.2%	0.4%	28.5%
2020	7,435	1,487	730	2,016	459	117	14	53	214	22	2,323
	100%	20.0%	9.8%	27.1%	6.2%	1.6%	0.2%	0.7%	2.9%	0.3%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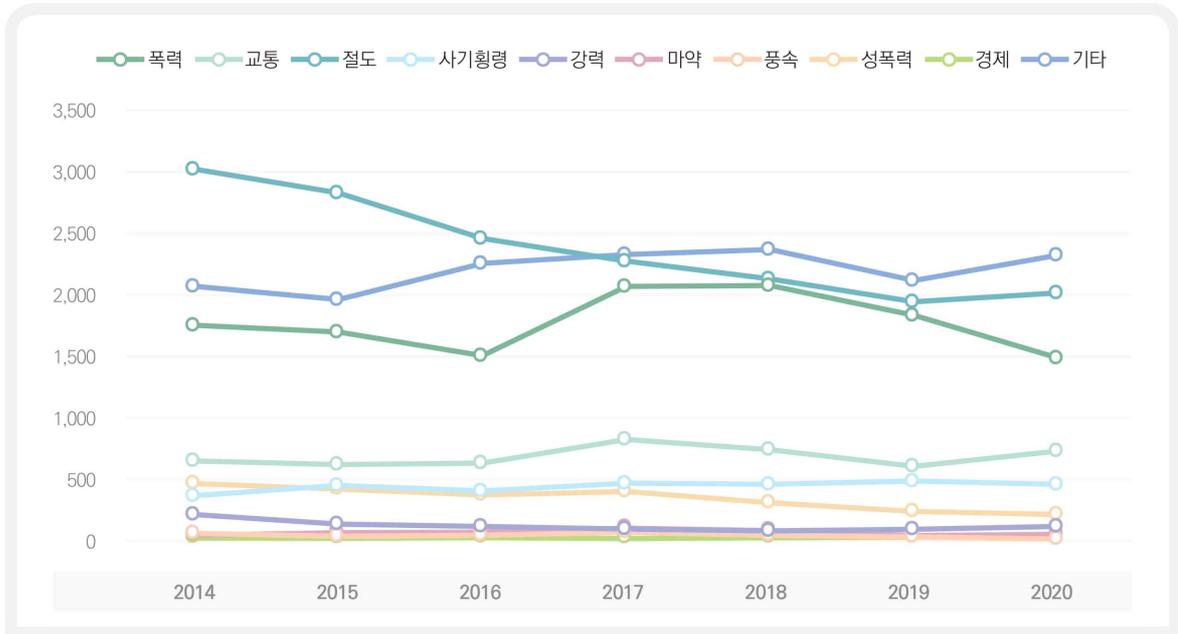


그림 2-1-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 최근 7년간의 사범별 접수사건 수를 반영한 외출제한명령 부과율을 분석한 결과, 절도사범은 2014년에 33.3%를 기록한 이후 연간 32~34%를 유지하다가 2018년 36.5%, 2019년 38.2%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0.9%를 기록하였다. 기타사범은 매년 접수사건의 30% 내외에서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고 있는데 2020년에는 31.4%이었다.
- 폭력사범은 2014년 14.8%, 2015년 12.8%, 2016년 11.5%, 2017년 15.3%, 2018년 16.5%이었고, 2019년에는 14.5%, 2020년에는 14.3%로 나타났다. 강력사범은 2014년 13.4%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8년 5.3%를 기록한 후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9.6%이었다. 교통사범은 2014년 11.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 미만이었었는데, 2020년에는 8.1%이었다.

표 2-1-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현황(2014~2020)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18.8%	14.8%	11.5%	33.3%	8.0%	13.4%	4.9%	3.8%	11.7%	4.7%	32.1%
2015	17.2%	12.8%	10.6%	34.1%	9.1%	9.5%	2.7%	4.2%	11.1%	4.1%	28.2%
2016	15.2%	11.5%	8.4%	32.2%	6.8%	6.6%	2.9%	3.6%	10.5%	4.0%	27.7%
2017	16.2%	15.3%	9.7%	33.9%	7.0%	6.2%	4.1%	4.3%	12.0%	2.7%	27.9%
2018	17.0%	16.5%	9.6%	36.5%	7.2%	5.3%	3.0%	5.6%	9.0%	3.6%	29.8%
2019	15.3%	14.5%	7.4%	38.2%	7.0%	7.1%	2.0%	3.2%	7.7%	3.9%	28.0%
2020	16.3%	14.3%	8.1%	40.9%	6.9%	9.6%	1.0%	4.9%	7.7%	3.0%	31.4%

## 2 실시사건 현황

### 개 요

- 당해연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보호관찰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과 구수(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건)의 총합

### 1) 사범별 현황

- 2020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주요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접수사건과 동일하게 폭력사범이 가장 많아서 22,110건(23.1%)을 기록하였고, 이어서 교통사범 19,015건(19.8%), 기타사범 14,572건(15.2%), 사기횡령사범 11,329건(11.8%), 절도사범 9,671건(10.1%) 등의 순 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실시사건 추이는 접수사건과 동일한 양상이었다. 교통사범의 비율은 2014년 13.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에 육박하였고, 사기횡령사범도 2014년 8.4%에서 2020년에는 11.8%로 증가하였다. 반면, 절도사범은 2014년 19.2%에서 감소하여 2019년 이후 10% 수준을 보였다.

표 2-1-13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95,198	23,431	12,814	18,238	8,020	3,778	3,518	2,509	8,294	996	13,600
	100%	24.6%	13.5%	19.2%	8.4%	4.0%	3.7%	2.6%	8.7%	1.0%	14.3%
2015	96,419	25,208	13,117	16,431	8,441	3,310	3,336	3,328	9,010	1,053	13,185
	100%	26.1%	13.6%	17.0%	8.8%	3.4%	3.5%	3.5%	9.3%	1.1%	13.7%
2016	100,995	25,480	14,926	14,817	9,685	3,460	3,444	3,734	9,069	1,241	15,139
	100%	25.2%	14.8%	14.7%	9.6%	3.4%	3.4%	3.7%	9.0%	1.2%	15.0%
2017	105,705	26,130	17,356	13,312	10,825	3,337	3,871	4,614	9,004	1,350	15,906
	100%	24.7%	16.4%	12.6%	10.2%	3.2%	3.7%	4.4%	8.5%	1.3%	15.0%
2018	104,850	25,371	18,344	11,775	11,186	3,315	3,909	4,119	9,340	1,453	16,038
	100%	24.2%	17.5%	11.2%	10.7%	3.2%	3.7%	3.9%	8.9%	1.4%	15.3%
2019	101,089	24,841	18,175	10,295	11,755	3,069	3,918	3,434	8,897	1,525	15,180
	100%	24.6%	18.0%	10.2%	11.6%	3.0%	3.9%	3.4%	8.8%	1.5%	15.0%
2020	95,861	22,110	19,015	9,671	11,329	2,826	3,591	2,671	8,627	1,449	14,572
	100%	23.1%	19.8%	10.1%	11.8%	2.9%	3.8%	2.8%	9.0%	1.5%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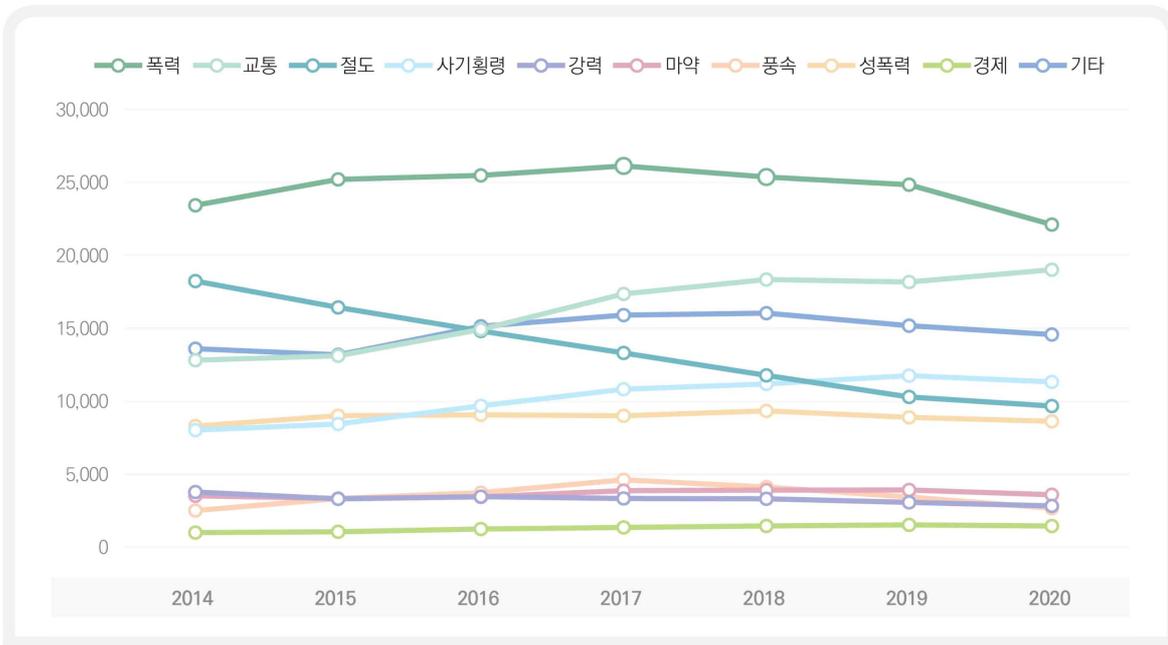


그림 2-1-18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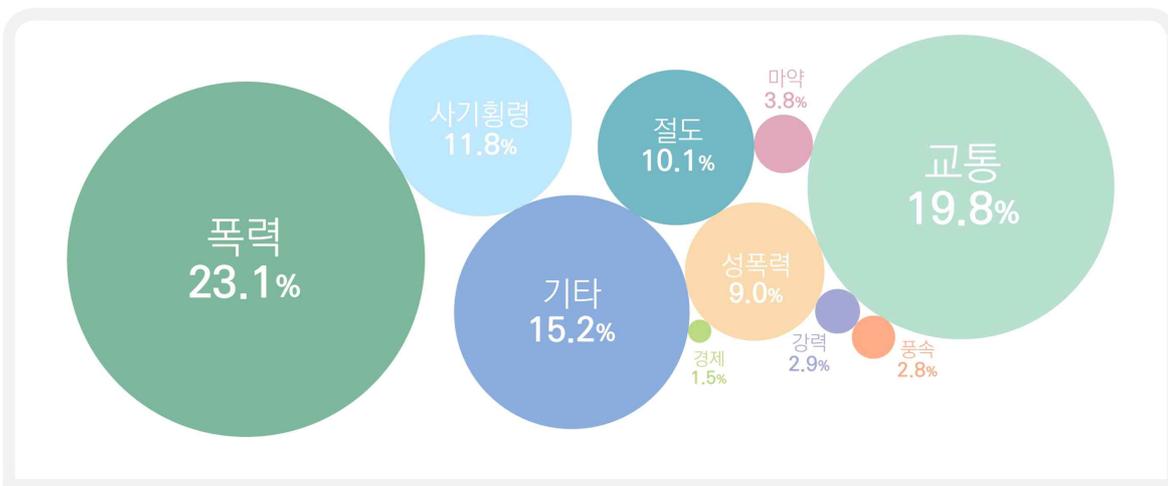


그림 2-1-19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0)

## 2) 근거 법률별 현황

- 2020년의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형법이 53,47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년법이 22,516건(23.5%)이었다. 이외의 근거법률들은 10% 미만의 비율을 보였는데 가정폭력처벌법 5,673건(5.9%), 전자장치부착법 3,319건(3.5%), 성폭력처벌법 2,311건(2.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2,023건(2.1%), 보호관찰법(임시퇴원) 1,582건(1.6%)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주요 법률별 실시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접수사건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만, 전자장치부착법의 경우 접수사건과 달리 실시사건이 매년 증가하였다.

표 2-1-14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근거법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95,198	96,419	100,995	105,705	104,850	101,089	95,86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형법		44,653	45,608	50,737	55,950	56,841	55,323	53,472
		46.9%	47.3%	50.2%	52.9%	54.2%	54.7%	55.8%
소년법		31,596	29,358	27,083	25,713	25,637	23,948	22,516
		33.2%	30.5%	26.8%	24.3%	24.4%	23.7%	23.5%
보호관찰법 (임시퇴원)		2,043	1,732	1,726	1,807	1,963	1,787	1,582
		2.2%	1.8%	1.7%	1.7%	1.9%	1.8%	1.6%
치료감호법		1,179	1,147	1,385	1,814	2,336	2,637	2,493
		1.2%	1.2%	1.4%	1.7%	2.2%	2.6%	2.6%
성폭력처벌법		1,362	1,733	2,092	2,323	2,430	2,309	2,311
		1.4%	1.8%	2.1%	2.2%	2.3%	2.3%	2.4%
가정폭력처벌법		3,629	5,724	6,361	5,956	5,155	6,210	5,673
		3.8%	6.0%	6.3%	5.6%	4.9%	6.1%	5.9%
성매매처벌법		702	1,082	1,508	2,112	1,615	1,056	634
		0.7%	1.1%	1.5%	2.0%	1.5%	1.0%	0.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7,253	6,587	5,875	5,340	3,740	2,796	2,023
		7.6%	6.8%	5.8%	5.1%	3.6%	2.8%	2.1%
청소년성보호법		553	613	588	596	596	551	481
		0.6%	0.6%	0.6%	0.6%	0.6%	0.5%	0.5%
아동학대처벌법		0	303	795	1,186	1,316	1,287	1,356
		0.0%	0.3%	0.8%	1.1%	1.3%	1.3%	1.4%
전자장치부착법		2,228	2,532	2,844	2,907	3,220	3,183	3,319
		2.4%	2.6%	2.8%	2.8%	3.1%	3.2%	3.5%
성충동약물치료법		0	0	1	1	1	2	1
		0.0%	0.0%	0.0%	0.0%	0.0%	0.0%	0.0%

### 3) 처분유형별 현황

- 2020년의 보호관찰 실시사건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집행유예 처분이 48,242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년보호처분 22,516건(23.5%), 가석방 10,172건(10.6%)의 순이었고, 임시퇴원과 선고유예는 1,582건(1.7%)과 34건(0.0%)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처분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는 사건 수의 증감은 있으나 매년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소년보호사건의 비율은 2014년 33.2%에서 2020년 23.5%로 감소한 반면 가석방은 2014년 5.8%에서 증가하여 2019년부터 10%를 넘어섰다.

표 2-1-15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유형 연도	계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소년보호처분			기타
						소계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2014	95,198	23	41,550	5,526	2,043	31,596	14,690	16,906	14,460
	100%	0.0%	43.7%	5.8%	2.1%	33.2%	15.4%	17.8%	15.2%
2015	96,419	36	43,386	5,356	1,732	29,358	14,180	15,178	16,551
	100%	0.0%	45.0%	5.6%	1.8%	30.4%	14.7%	15.7%	17.2%
2016	100,995	59	47,672	6,775	1,726	27,083	13,761	13,322	17,680
	100%	0.1%	47.2%	6.7%	1.7%	26.8%	13.6%	13.2%	17.5%
2017	105,705	58	51,828	8,385	1,807	25,713	12,940	12,773	17,914
	100%	0.1%	49.0%	7.9%	1.7%	24.3%	12.2%	12.1%	17.0%
2018	104,850	58	51,812	9,252	1,963	25,637	12,842	12,795	16,128
	100%	0.1%	49.4%	8.8%	1.9%	24.4%	12.2%	12.2%	15.4%
2019	101,089	36	48,214	10,911	1,787	23,948	11,386	12,562	16,193
	100%	0.0%	47.7%	10.8%	1.8%	23.7%	11.3%	12.4%	16.0%
2020	95,861	34	48,242	10,172	1,582	22,516	10,658	11,858	13,315
	100%	0.0%	50.3%	10.6%	1.7%	23.5%	11.1%	12.4%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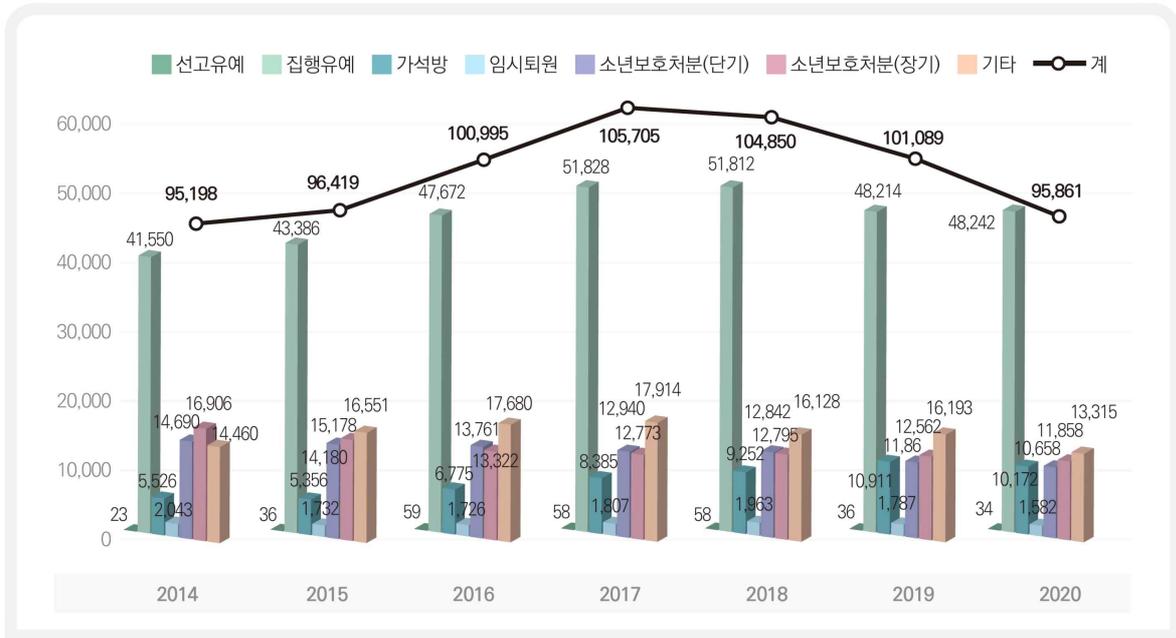


그림 2-1-20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 4) 소년 보호관찰 사건의 학생 현황

- 2020년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학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생이 11,068건(63.5%), 비학생이 6,364건(36.5%)이었고, 비학생인 경우 무직이 5,541건(31.8%), 기타가 516건(2.9%), 근로자가 307건(1.8%)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무직(52.8%)을 포함하여 비학생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학생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생이 과반수 이상이였다. 또한 비학생 중 무직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근로자의 비율이 2014년 0.4%에서 증가하여 2017년 3.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 1.8%로 나타났다.

표 2-1-16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4~2020)

연도	직업	계	학생	무직	근로자	기타
2014		25,162	7,656	13,274	99	4,133
		100%	30.4%	52.8%	0.4%	16.4%
2015		23,330	13,099	9,047	556	628
		100%	56.1%	38.8%	2.4%	2.7%
2016		22,039	12,390	8,214	601	834
		100%	56.2%	37.3%	2.7%	3.8%

연도	직업	계	학생	무직	근로자	기타
2017		21,676	12,444	7,869	805	558
		100%	57.4%	36.3%	3.7%	2.6%
2018		20,319	11,631	7,588	618	482
		100%	57.2%	37.3%	3.0%	2.4%
2019		18,096	10,117	6,762	487	730
		100%	55.9%	37.4%	2.7%	4.0%
2020		17,432	11,068	5,541	307	516
		100%	63.5%	31.8%	1.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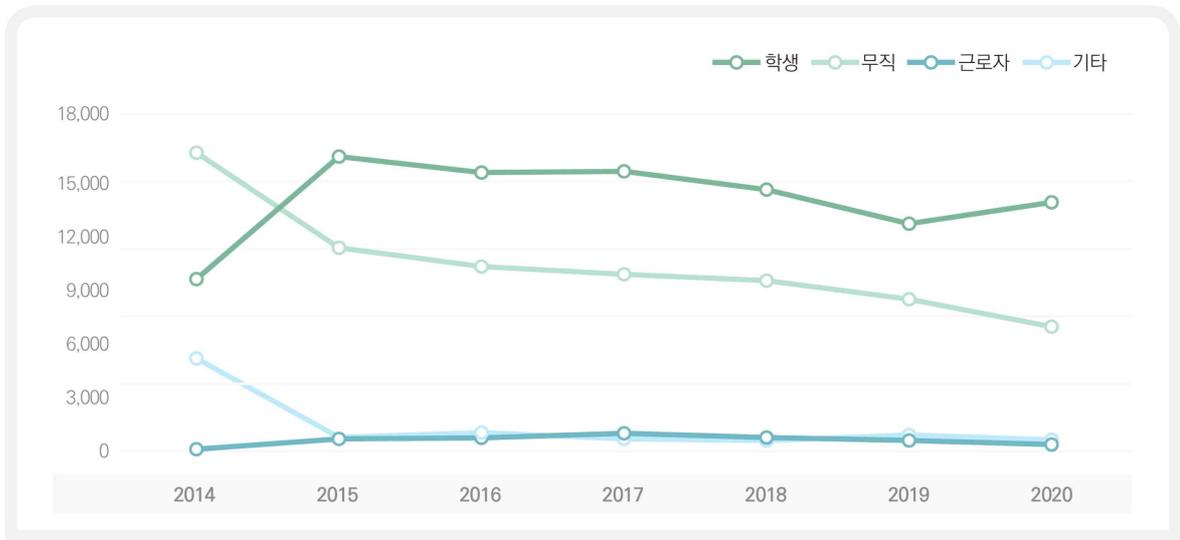


그림 2-1-21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4~2020)

### 3 현재원 현황

#### 개 요

- 2020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연령, 사범, 분류등급에 따른 현황

#### 지표정의

- 현재원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보호관찰 집행 중인 사건

#### 1) 연령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보호관찰 현재원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성인사건이 37,587건(75.8%), 소년사건이 11,973건(24.2%)으로 성인사건이 소년사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표 2-1-17 보호관찰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20)

계	소년	성인
49,560	11,973	37,587
100%	24.2%	75.8%

#### 2) 사범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을 사범별로 구분하면, 교통사범이 11,475건(2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10,156건(20.5%), 기타사범 7,357건(14.8%), 성폭력사범 5,742건(11.6%), 절도사범 4,735건(9.6%), 사기횡령사범 4,316건(8.7%)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마약사범(2,070건, 4.2%), 강력사범(1,580건, 3.2%), 풍속사범(1,441건, 2.9%), 경제사범(688건, 1.4%) 등은 각각 5% 미만을 차지하였다.
-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현재원 중 폭력사범 2,846건(23.8%), 기타사범 2,697건(22.5%), 절도사범 2,660건(22.2%)으로 폭력·절도·기타사범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교통사범이 1,356건(11.3%), 성폭력 999건(8.3%), 사기횡령사범 969건(8.1%) 등이었고, 강력사범(202건 1.7%), 풍속사범(156건, 1.3%), 경제사범(54건, 0.5%), 마약사범(34건, 0.3%) 등은 각각 2% 미만을 차지하였다.
- 성인사건에서는 교통사범이 10,119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사범 7,310건(19.5%), 성폭력사범 4,743건(12.6%), 기타사범 4,660건(12.4%), 사기횡령사범 3,347건(8.9%), 마약사범 2,036건(5.4%) 등의 순이었다. 그외 강력사범, 풍속사범, 경제사범은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소년사건은 성인사건보다 절도와 기타사범의 비율이 높았고, 성인사건은 교통·마약·성폭력·강력 사범의 비율이 높았다.

표 2-1-18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20)

구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전체	49,560	10,156	11,475	4,735	4,316	1,580	2,070	1,441	5,742	688	7,357
	100%	20.5%	23.1%	9.6%	8.7%	3.2%	4.2%	2.9%	11.6%	1.4%	14.8%
소년	11,973	2,846	1,356	2,660	969	202	34	156	999	54	2,697
	100%	23.8%	11.3%	22.2%	8.1%	1.7%	0.3%	1.3%	8.3%	0.5%	22.5%
성인	37,587	7,310	10,119	2,075	3,347	1,378	2,036	1,285	4,743	634	4,660
	100%	19.5%	26.9%	5.5%	8.9%	3.7%	5.4%	3.4%	12.6%	1.7%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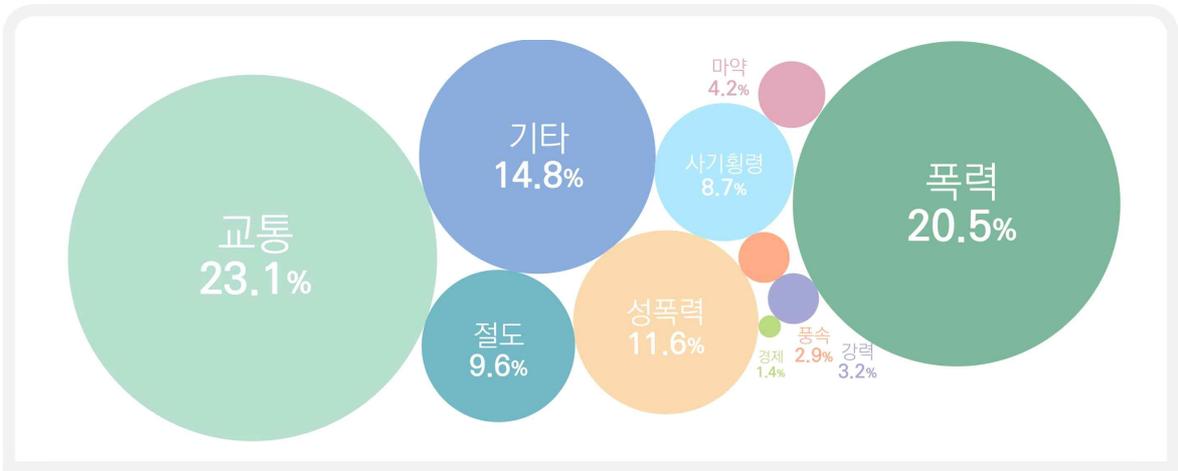


그림 2-1-22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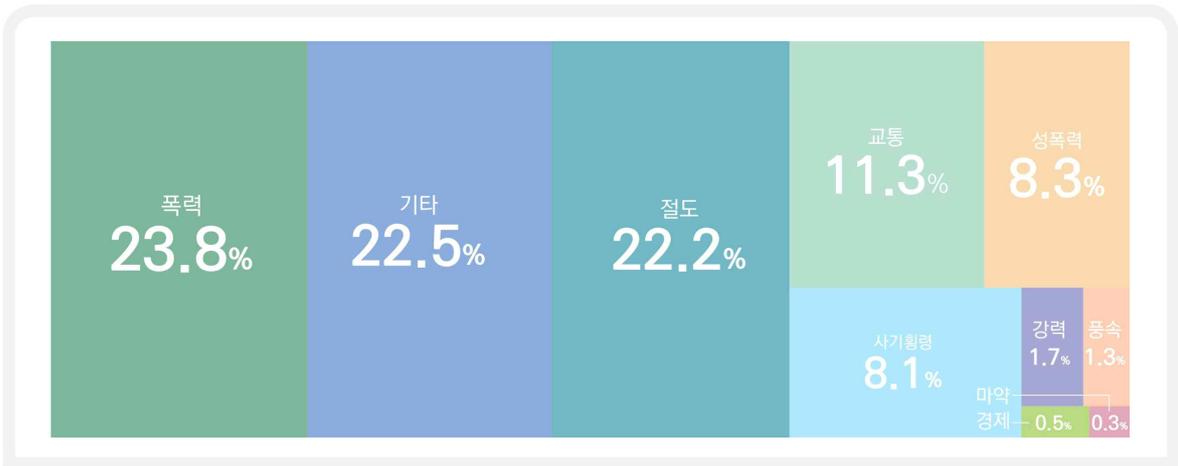


그림 2-1-23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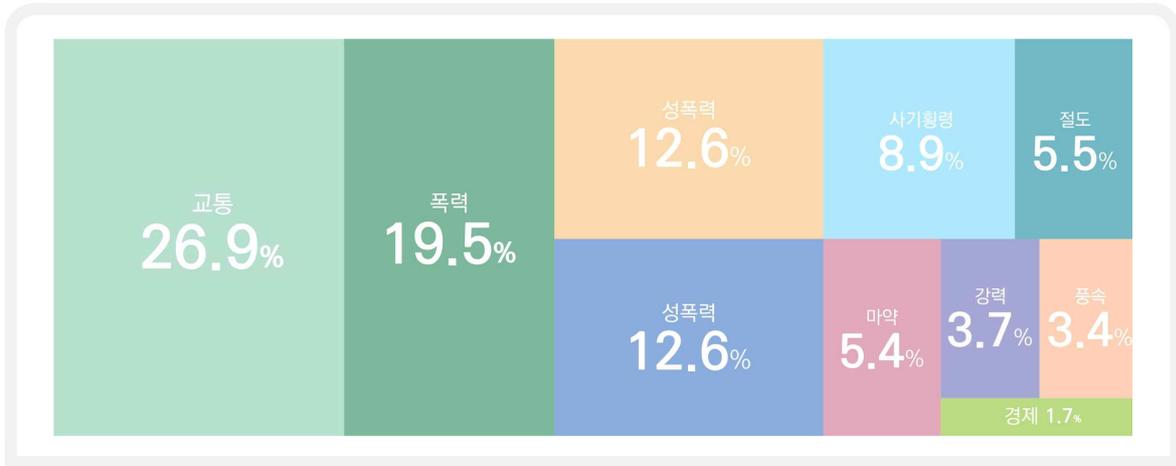


그림 2-1-24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0)

## 4 제재

### 1) 서면경고 현황

<b>개 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사건에 대한 서면경고 현황</li> </ul>
<b>지표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경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li> </ul>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5,000건 내외의 서면경고가 있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8%가 감소한 총 26,413건이 실시되어,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평균 0.1회의 서면경고가 있었다.

표 2-1-19 서면경고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면경고 횟수	36,307	35,514	36,129	38,752	35,479	33,849	26,413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225,439	243,133	272,900	281,046	269,958	262,243	263,988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대비 평균 횟수	0.16	0.15	0.13	0.14	0.13	0.13	0.10

### 2) 지명수배 활용 현황

<b>개 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의뢰한 지명수배 사건 현황</li> </ul>
<b>지표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 해제(검거, 기간만료, 기타), 수배중의 5개의 분류로 구분</li> </ul>

- 2020년 지명수배 의뢰사건은 총 1,968건으로, 보호관찰 실시인원 대비 지명수배 의뢰율은 0.8%이었다. 지명수배 의뢰사건 중 성인이 43.7%, 소년이 56.3%이며, 의뢰사건 중 959건(48.7%)이 검거되었고, 수배 중인 사건은 599건(30.4%)이었다.

표 2-1-20

지명수배 활용 현황(2020)

연령	지명수배 의뢰	해제				수배중
		계	검거	기간만료	기타	
계	1,968	1,369	959	167	243	599
	100%	69.6%	48.7%	8.5%	12.3%	30.4%
소년	1,108	703	409	129	165	405
	100%	63.4%	36.9%	11.6%	14.9%	36.6%
성인	860	666	550	38	78	194
	100%	77.4%	64.0%	4.4%	9.1%	22.6%

### 3) 구인 및 유치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실시사건 중 구인 및 유치 현황

#### 지표정의

- 구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구인
- 긴급구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긴급구인
- 유치 : 성적불량자에 대한 교도소 등 유치

- 보호관찰 실시사건에 대한 구인은 2014년 2,171건에서 2015년 2,020건, 2016년 1,827건, 2018년 1,431건, 2019년 1,240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최근 7년간의 최저치인 970건이었다.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구인율 역시 감소하여 2014년의 1.0%에서 2015년 0.9%, 2017년 0.6%, 2018년 0.5%, 2019년 0.5%, 2020년 0.4% 등을 기록하였다.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건수도 2014년 1,976건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년 1,800건, 2016년 1,695건, 2018년 1,350건, 2019년 1,125건, 2020년 824건 등이었다. 유치건수와 함께 보호관찰 실시사건수 대비 유치율도 감소하여 2014년의 0.9%에서 2020년에는 0.3%이었다.

- ➔ 구인 및 유치 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로는, 첫째 재범 및 제재조치에서의 비중이 높은 소년사건의 감소, 둘째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강화, 셋째 특별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전조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표 2-1-21 보호관찰 사건 구인 및 유치 현황(2014~2020)

연령	구분	구인		실시사건 대비 구인율	유치	실시사건 대비 유치율	
		소계	긴급구인				구인
2014		2,171	43	2,128	1.0%	1,976	0.9%
2015		2,020	40	1,980	0.9%	1,800	0.7%
2016		1,827	31	1,796	0.7%	1,695	0.6%
2017		1,737	24	1,713	0.6%	1,594	0.6%
2018		1,431	14	1,417	0.5%	1,350	0.5%
2019		1,240	9	1,231	0.5%	1,125	0.4%
2020		970	9	961	0.4%	824	0.3%

#### 4)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

#####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실시사건 중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

##### 지표정의

-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가석방 취소, 기간연장, 선도위탁취소, 보호관찰정지, 가정보호가출소취소, 사회봉사허가취소의 9개로 구분

- 보호관찰 준수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4,100명 이상이었던가 2018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2020년에는 최근 7년간의 최저치인 2,859건을 기록하였다.
- 2020년의 처분취소 및 변경 유형에는 보호처분 변경이 33.7%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허가 취소가 27.9%, 집행유예 취소가 17.7%이었다. 그밖에 선도위탁 취소가 7.8%, 가정보호처분 취소 및 가출소 취소가 6.4%, 임시퇴원 취소가 3.0% 등이었다.

표 2-1-22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2014~2020)

유형 연도	계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가석방 취소	기간 연장	선도위탁 취소	보호관찰 정지	가정보호 가출소 취소	사회봉사 허가 취소
	100%	16.5%	45.7%	3.7%	0.6%	1.8%	12.1%	1.9%	1.1%	16.6%
2015	4,168	744	1,812	126	11	79	457	71	128	740
	100%	17.8%	43.5%	3.0%	0.3%	1.9%	11.0%	1.7%	3.1%	17.7%

유형 연도	계	집행유예 취소	보호처분 변경	임시퇴원 취소	가석방 취소	기간 연장	선도위탁 취소	보호관찰 정지	가정보호 가출소 취소	사회봉사 허가 취소
2016	4,197	726	1,780	109	11	40	553	58	149	771
	100%	17.3%	42.4%	2.6%	0.3%	0.9%	13.2%	1.4%	3.5%	18.4%
2017	4,228	791	1,576	118	7	49	535	70	194	888
	100%	18.7%	37.3%	2.8%	0.2%	1.1%	12.6%	1.7%	4.6%	21.0%
2018	3,666	749	1,217	128	14	35	402	76	219	826
	100%	20.4%	33.2%	3.5%	0.4%	0.9%	11.0%	2.1%	6.0%	22.5%
2019	3,190	694	982	122	20	36	280	65	201	790
	100%	21.8%	30.8%	3.8%	0.6%	1.1%	8.8%	2.0%	6.3%	24.8%
2020	2,859	506	965	85	16	25	224	56	184	798
	100%	17.7%	33.7%	3.0%	0.6%	0.9%	7.8%	2.0%	6.4%	27.9%

## 5)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인용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실시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신청 결과 현황

### 지표정의

- 당해연도 실시사건 중 집행유예 취소 신청 사건 수
- 당해연도 실시사건 중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결과 인용 및 기각 사건 수

-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보호관찰 사건(실시사건 기준)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sup>7)</sup> 신청 건수는 2014년 1,287건에서 2015년 1,355건, 2016년 1,342건, 2017년 1,404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1,313건, 2019년 1,206건, 2020년 851건 등으로 감소하였다.
- 실시사건 대비 취소 신청률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 3.1%, 2016년 2.8%, 2017년 2.7% 등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2.5%, 2020년에는 1.8%로 나타났다.

- ➔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통해, 집행유예 취소 이전에 보호관찰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형법 제62조제2항

표 2-1-23 집행유예 취소 신청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집행유예 취소신청	1,287	1,355	1,342	1,404	1,313	1,206	851
집행유예 보호관찰 실시사건	41,550	43,386	47,672	51,828	51,812	48,214	48,242
집행유예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신청률	3.1%	3.1%	2.8%	2.7%	2.5%	2.5%	1.8%

- 2020년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심리 중인 사건이 150건(신청사건의 17.6%), 심리 종결사건이 701건(신청사건의 82.4%)이었다. 심리 종결사건 중 72.2%가 인용되었고, 27.8%가 기각되었다.
- 최근 7년간의 심리 종결사건 중 취소신청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62.0%에서 2016년 63.0%, 2017년 64.8%, 2019년 67.4%, 2020년 72.2%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표 2-1-24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결과 현황(2014~2020)

연도	취소신청 결과	심리 종결			심리 중
		계	인용	기각	
2014		1,068	662	406	219
		100%	62.0%	38.0%	
2015		1,183	745	438	172
		100%	63.0%	37.0%	
2016		1,159	730	429	183
		100%	63.0%	37.0%	
2017		1,226	794	432	178
		100%	64.8%	35.2%	
2018		1,114	751	363	199
		100%	67.4%	32.6%	
2019		1,030	694	336	176
		100%	67.4%	32.6%	
2020		701	506	195	150
		100%	72.2%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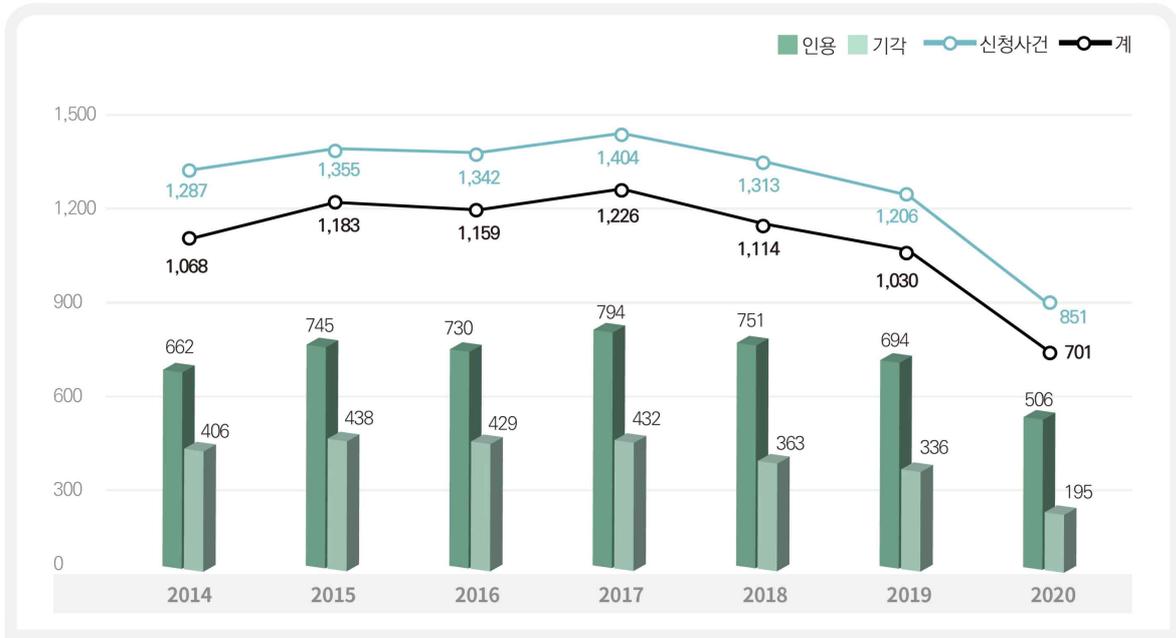


그림 2-1-25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결과 현황(2014~2020)

## 6)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현황

- 2020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중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신청된 경우는 총 1,032건으로, 소년이 674건(65.3%), 성인이 358건(34.7%)이었다.

➡ 2020년의 성인 보호관찰 실시사건(69,987건) 대비 추가·변경 신청률은 0.5%인 반면,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25,874건) 대비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률은 2.6%로, 소년사건에서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률이 높았다.

-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신청사건 중 91.9%인 967건이 인용되었고, 5.1%인 54건이 기각되었다.
- 연령에 따른 인용률과 기각률을 살펴보면, 소년의 경우 신청사건의 95.7%가 인용되었고, 기각률은 2.5%에 불과하였다. 반면, 성인에서는 신청사건의 85.0%가 인용되었고 기각률은 9.9%이었다. 소년은 성인보다 특별준수사항의 추가·변경 신청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신청에 대한 인용률 또한 높았다.

표 2-1-25 특별준수사항의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20)

연령	구분	신청		인용				기각	심리중	
		전년 이월	2020	계	추가	변경	추가변경			삭제
전체		20	1,032	967	847	81	-	39	54	31
		100%		91.9%	80.5%	7.7%	-	3.7%	5.1%	3.0%
소년		4	674	649	607	29	-	13	17	12
		100%		95.7%	89.5%	4.3%	-	1.9%	2.5%	1.8%
성인		16	358	318	240	52	-	26	37	19
		100%		85.0%	64.2%	13.9%	-	6.9%	9.9%	5.1%

## 5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사건 중 재범사건의 비율 추이

### 지표정의

- 재범률 = (해당연도 재범자/해당연도 보호관찰 실시)×100
- 재범판단기준은 구속, 불구속에 상관없이 검사의 중구처분(구공판, 소년부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을 포함하되 불기소 처분 및 구약식 사건은 제외)

### 1) 소년 보호관찰사건

#### (1)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 최근 7년간 소년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2014년 10.6%, 2015년 11.7%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2% 수준을 보였고, 2020년에는 13.5%를 기록하였다.
- 2020년 소년 보호관찰 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을 근거 법률(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보호관찰법(임시퇴원)이 17.1%, 형법이 13.7%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년법(단기 보호관찰)이 11.9%, 소년법(장기 보호관찰)이 15.2%이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1급) 9.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2급) 5.6% 등이었다.

표 2-1-26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20)

근거법률(처분유형)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0.6	11.7	12.3	12.8	12.3	12.8	12.3	12.8	13.5
형법		11.2	14.2	13.4	14.0	13.2	16.0	13.2	16.0	13.7
소년법	소계	11.5	12.7	13.4	13.9	13.1	13.3	13.1	13.3	13.9
	단기보호관찰	9.2	10.1	11.4	12.2	11.2	11.0	11.2	11.0	11.9
	장기보호관찰	13.2	14.9	15.3	15.4	14.7	14.9	14.9	14.9	15.2
보호관찰법(임시퇴원)		13.5	14.6	15.1	15	14.7	16.1	14.7	16.1	17.1
성폭력처벌법		7.2	1.4	1.8	3.4	6.0	3.5	6.0	3.5	0.0
가정폭력처벌법		13.3	9.5	5.6	3.3	8.0	4.9	8.0	4.9	0.0
성매매처벌법		0.0	25.0	-	-	-	14.3	-	14.3	50.0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규정	소계	5.1	5.2	5.3	6.2	5.4	6.1	5.4	6.1	5.8
	선도위탁 1급	11.5	10.1	12.5	13	3.1	5.8	3.1	5.8	9.1
	선도위탁 2급	5.0	5.1	5.1	6.1	5.5	6.1	5.5	6.1	5.6
청소년성보호법		6.1	4.8	1.7	6.2	7.5	3.6	7.5	3.6	13.5

## (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

- 2020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484명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이후 재범 발생 시까지의 경과기간을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전체 재범사건의 36.5%이었고,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25%,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27% 등이었다.

➔ 재범없이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사건은 제외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사건에 한정하여 재범 발생 시까지의 보호관찰 경과 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 그동안 보호관찰 초기에 발생하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개입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음에도 보호관찰 개시 후 3개월 이내의 재범이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관과의 라포 형성, 보호관찰 청소년의 개별 정보 파악 및 상담형 면담 등 보호관찰 처우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 범죄 발생 이후부터 보호관찰이 부과되기 전까지의 기간, 즉 기존의 비행 네트워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간에 대해 신속히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판 전 임시조치'\*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2020년 7월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 중

표 2-1-27 소년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5~2020)

연도	경과기간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15		4,305	228	759	1,182	1,418	688	29	1
		100%	5.3%	17.6%	27.5%	32.9%	16.0%	0.7%	0.0%
2016		4,195	577	1,006	1,063	1,070	469	9	1
		100%	13.8%	24.0%	25.3%	25.5%	11.2%	0.2%	0.0%
2017		4,163	643	994	1,111	1,016	395	3	1
		100%	15.4%	23.9%	26.7%	24.4%	9.5%	0.1%	0.0%
2018		3,830	600	924	897	1,012	391	6	0
		100%	15.7%	24.1%	23.4%	26.4%	10.2%	0.2%	0.0%
2019		3,596	519	881	853	894	445	3	1
		100%	14.4%	24.5%	23.7%	24.9%	12.4%	0.1%	0.0%
2020		3,484	476	796	872	942	392	6	0
		100%	13.7%	22.8%	25.0%	27.0%	11.3%	0.2%	0.0%

## 2) 성인 보호관찰사건

### (1)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

- 성인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2014년 5.1%에서 소폭 상승하여 2015년 5.2%, 2016년 5.6%를 기록하였다가 2018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9년과 2020년에는 5.0%이었다.
- 2020년 성인 보호관찰 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을 근거 법률 및 처분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형법이 4.8%,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각 4.1%와 4.8%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9.1%, 치료감호법 중 가중료 사건은 6.7%, 치료명령 사건은 7.9%이었고, 성충동약물치료법 사건의 재범은 없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형법의 재범률은 2016년 6.0%를 기록하였지만 대부분 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가정폭력처벌법의 재범률은 2014년 2.9%에서 상승추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재범률은 2020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치료감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은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은 2019년과 2020년에 상승하였다.

표 2-1-28 성인 보호관찰 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20)

근거법률(처분유형)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1	5.2	5.6	5.6	5.1	5.0	5.0
형법		5.2	5.5	6.0	5.8	5.2	5.0	4.8
치료감호법(가중료)		9.2	9.4	7.7	9.1	7.6	7.8	6.7
치료감호법(치료명령)		-	-	-	7.6	8.1	7.8	7.9

근거법률(처분유형)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폭력처벌법			4.9	4.1	4.8	5.2	4.0	4.5	4.1
가정폭력처벌법			2.9	3.5	3.6	3.4	3.9	4.2	4.8
성매매처벌법			2.4	2.2	3.0	3.1	2.2	1.7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소계		1.1	1.0	2.0	1.9	1.2	1.0	1.3
	선도위탁 1급		2.6	1.1	0.9	4.4	3.5	0.9	1.1
	선도위탁 2급		1.0	1.0	2.1	1.8	1.0	1.0	1.3
성충동약물치료법			0.0	0.0	0.0	0.0	0.0	0.0	0.0
청소년성보호법			2.8	3.5	6.2	6.2	4.5	6.4	9.1
아동학대처벌법			-	-	-	0.1	0.5	2.8	2.1

## (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

- 2020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3,481명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이후 재범 시까지의 보호관찰 경과기간을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전체 재범사건의 24.2%이었고,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17.4%,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23.5% 등이었다.

➔ 재범없이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사건은 제외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사건에 한정하여 재범 발생 시까지의 보호관찰 경과 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표 2-1-29 성인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5~2020)

연도	경과기간	계	경과기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15		3,063	144	333	547	754	1,024	216	45
		100%	4.7%	10.9%	17.9%	24.6%	33.4%	7.1%	1.5%
2016		3,776	351	532	705	915	995	215	63
		100%	9.3%	14.1%	18.7%	24.2%	26.4%	5.7%	1.7%
2017		4,083	331	613	806	996	1,049	168	120
		100%	8.1%	15.0%	19.7%	24.4%	25.7%	4.1%	2.9%
2018		3,768	353	522	642	928	1,067	133	123
		100%	9.4%	13.9%	17.0%	24.6%	28.3%	3.5%	3.3%
2019		3,671	323	538	625	812	1,069	163	141
		100%	8.8%	14.7%	17.0%	22.1%	29.1%	4.4%	3.8%
2020		3,481	322	521	606	820	921	149	142
		100%	9.2%	15.0%	17.4%	23.5%	26.5%	4.3%	4.1%

# 치료명령

➔ 개요

- » 치료명령제도는 주취·마약·정신질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 » 통원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이내,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내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은 보호관찰관이 약물 투여, 상담 등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다.

➔ 치료명령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 현황

- » 미국은 정신건강법정(Mental Health Court)을 두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선별하고 사회내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여 치료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1997년 플로리다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대부분의 주에서 300여개의 정신건강법정이 운영중에 있다.<sup>8)</sup>
- » 영국은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 2003 Section 177)에 근거하여 12가지 사회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sup>9)</sup>, 정신보건치료(Mental Health Treatment Requirements)는 지역사회명령(Community Order)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정신과의사나 정신치료자의 치료처우와 보호관찰관의 감독이 병행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 » 일본은 2005년부터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행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료관찰법)」에 근거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정을 받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11)</sup>  
2005년 「의료관찰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대상자 총 3,800명 중 강제입원 65.8%(2,501명), 통원결정 13.9%(528명)로 나타났다. 입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후생노동성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통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보호관찰소, 지정 통원의료기관, 정신보건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처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관된 처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sup>12)</sup>

8) 박은영,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보호관찰』 제16권 1호, 2016. 19면.  
 9) 윤웅장,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보호관찰』 제6호, 2006. 45면.  
 10) 박은영,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보호관찰』 제16권 1호, 2016. 24면.  
 11) 박은영, “치료명령제도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보호관찰』 제16권 1호, 2016. 26면.  
 12) 최민영·유진,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 2017. 75-77면.

# 1 접수사건 현황

##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접수사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접수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치료명령 : 「치료감호법」 제2조3에 따라 주취·마약·정신질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
-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대검예규 제873호)에 따라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된 사건

## 1) 개요

- 치료명령 사건은 2016년에 5건이 접수된 이후 2017년 422건, 2018년 451건, 2019년 590건, 2020년 473건이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접수사건은 총 1,941건이었다. 최근 4년간 접수된 사건의 98% 이상이 집행유예 사건이었는데 특히 2020년의 경우 모두 집행유예 사건이었다.
-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은 2016년 11건이 접수된 이후 2017년 184건, 2018년 121건, 2019년 160건, 2020년 99건 등이 접수되었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접수사건은 총 575건이었다.

표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6~2020)

연도	유형	치료명령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계	집행유예	선고유예	
2016		5	5	0	11
2017		422	415	7	184
2018		451	446	5	121
2019		590	584	6	160
2020		473	473	0	99
계		1,941	1,923	18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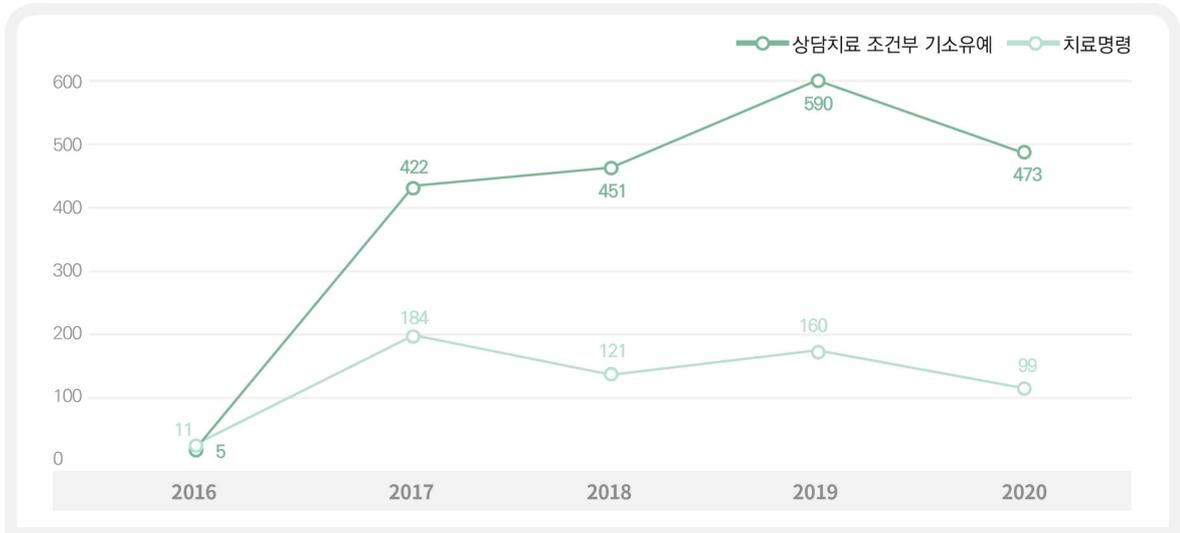


그림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6~2020)

## 2) 문제유형별 현황

### (1) 치료명령

- 2020년의 치료명령 접수사건을 대상자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정신질환이 265건(56.0%), 알코올중독이 133건(28.1%), 마약중독<sup>13)</sup>이 75건(15.9%)이었다.

표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연도	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2016		5	4	0	1	0	-	-
		100%	80.0%	0.0%	20.0%	0.0%	-	-
2017		422	245	7	170	0	-	-
		100%	58.0%	1.7%	40.3%	0.0%	-	-
2018		451	259	4	179	1	8	0
		100%	57.4%	0.9%	39.7%	0.2%	1.8%	0.0%
2019		590	317	6	184	0	83	0
		100%	53.7%	1.0%	31.2%	0.0%	14.1%	0.0%
2020		473	265	0	133	0	75	0
		100%	56.0%	0.0%	28.1%	0.0%	15.9%	0.0%

1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개정되어 2018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마약중독자도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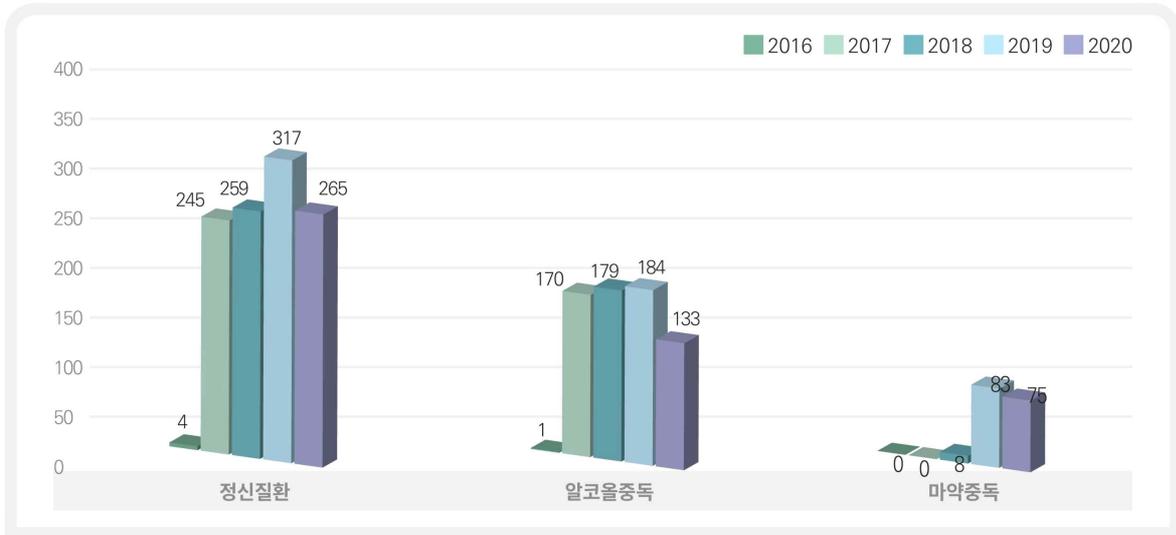


그림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0년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을 대상자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정신질환이 96건(97%), 알코올중독이 3건(3.0%)이었고, 마약중독<sup>14)</sup>은 없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이 전체 사건의 84~90%를 차지하였고, 알코올중독이 9~15%이었다.

표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연도	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2016		11	10	1	-
		100%	90.9%	9.1%	-
2017		184	156	28	-
		100%	84.8%	15.2%	-
2018		121	106	15	-
		100%	87.6%	12.4%	-
2019		160	142	15	3
		100%	88.7%	9.4%	1.9%
2020		99	96	3	0
		100%	97.0%	3.0%	0.0%

14) 2019년부터 마약중독자가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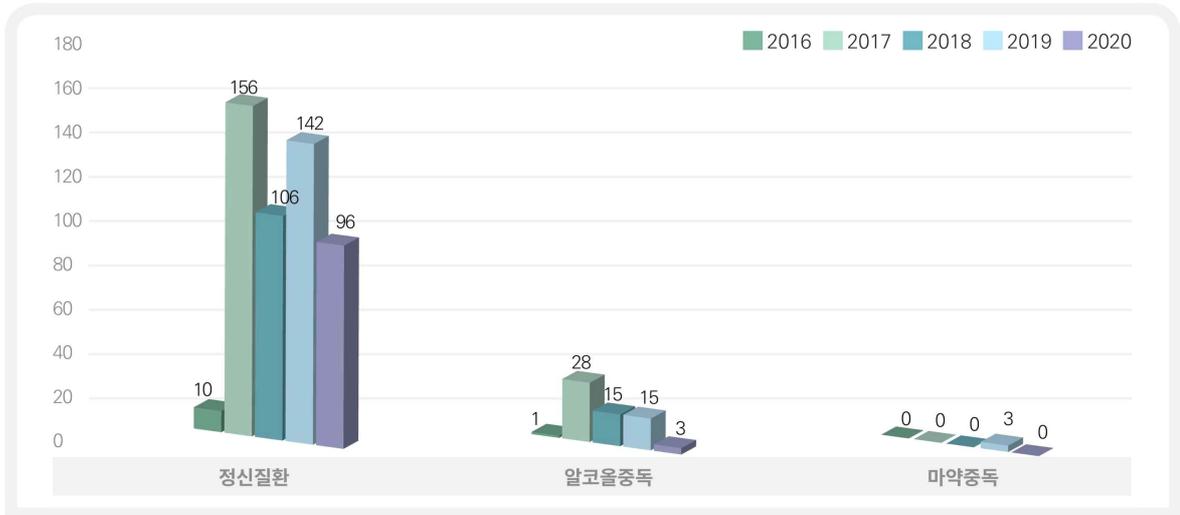


그림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 3) 사범별 현황

#### (1) 치료명령

- 2020년 치료명령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121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 104건(22.0%), 마약사범 76건(16.1%), 절도사범 46건(9.7%), 성폭력사범 43건(9.1%), 강력사범 35건(7.4%) 등의 순이었다.
- 치료명령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7년 이후, 폭력사범이 매년 35% 내외를 차지하다가 2020년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기타사범은 20~28% 수준을, 강력사범이 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된 마약사범은 2019년부터 증가하였다.

표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6~2020)

연도	사범	계	사범별									
			강력	교통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경제	기타**
2016		5	1	0	2	0	1	0	0	0	0	1
		100%	20.0%	0.0%	40.0%	0.0%	20.0%	0.0%	0.0%	0.0%	0.0%	20.0%
2017		422	31	22	150	44	29	16	11	1	0	118
		100%	7.4%	5.2%	35.5%	10.4%	6.9%	3.8%	2.6%	0.2%	0.0%	28.0%
2018		451	29	18	150	26	58	12	22	10	1	125
		100%	6.4%	4.0%	33.2%	5.8%	12.9%	2.7%	4.9%	2.2%	0.2%	27.7%
2019		590	39	9	214	45	50	11	16	84	0	122
		100%	6.6%	1.5%	36.3%	7.6%	8.5%	1.9%	2.7%	14.2%	0.0%	20.7%
2020		473	35	29	121	46	43	6	11	76	2	104
		100%	7.4%	6.1%	25.6%	9.7%	9.1%	1.3%	2.3%	16.1%	0.4%	22.0%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등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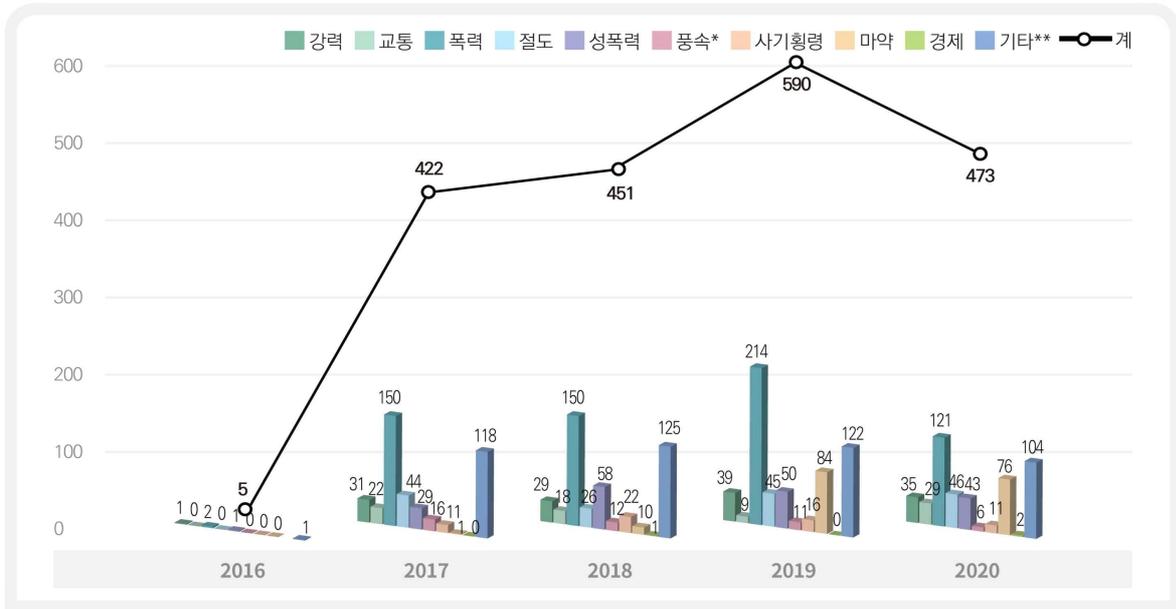


그림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6~2020)

##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0년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기타사범이 39건(39.4%), 폭력사범이 35건(35.4%)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였고, 그 외 절도와 강력사범이 각각 15건(15.2%)과 3건(3.0%) 등이었다.
- 최근 5년간 폭력사범은 매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고, 기타사범은 2019년까지 20~27% 이었다가 2020년에는 40%에 육박하였다. 강력사범은 2019년까지 10% 내외를 보이다가 2020년 3%로 감소하였다.

표 2-2-5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6~2020)

연도	사범	계	강력	교통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경제	기타**
2016	연도	11	1	0	6	1	0	0	0	0	0	3
	비율	100%	9.1%	0.0%	54.5%	9.1%	0.0%	0.0%	0.0%	0.0%	0.0%	27.3%
2017	연도	184	17	0	74	25	16	5	3	0	0	44
	비율	100%	9.2%	0.0%	40.3%	13.6%	8.7%	2.7%	1.6%	0.0%	0.0%	23.9%
2018	연도	121	10	0	49	14	18	5	0	0	0	25
	비율	100%	8.3%	0.0%	40.4%	11.6%	14.9%	4.1%	0.0%	0.0%	0.0%	20.7%
2019	연도	160	19	2	62	19	12	2	1	3	1	39
	비율	100%	11.8%	1.3%	38.8%	11.8%	7.5%	1.3%	0.6%	1.9%	0.6%	24.4%
2020	연도	99	3	0	35	15	1	4	2	0	0	39
	비율	100%	3.0%	0.0%	35.4%	15.2%	1.0%	4.0%	2.0%	0.0%	0.0%	39.4%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 4) 연령 및 성별 현황

##### (1) 치료명령

- 2020년에 접수된 치료명령사건은 모두 성인사건으로, 남성이 357건(75.5%), 여성이 116건(24.5%)이었다.

표 2-2-6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6~2020)

연도	연령	계	소년			성인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6		5	1	1	0	4	2	2
			100%	100%	0.0%	100%	50.0%	50.0%
2017		422	2	2	0	420	335	85
			100%	100%	0.0%	100%	79.8%	20.2%
2018		451	0	0	0	451	362	89
			0.0%	0.0%	0.0%	100%	80.3%	19.7%
2019		590	1	1	0	589	456	133
			100%	100%	0.0%	100%	77.4%	22.6%
2020		473	0	0	0	473	357	116
			0.0%	0.0%	0.0%	100%	75.5%	24.5%

#####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0년의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성인이 98건(98%), 소년이 1건(1.0%)이었고,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성이 79건(79.9%), 여성이 20건(20.1%)이었다

표 2-2-7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6~2020)

연도	연령	전체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6		11	0	11	0	0	0	11	8	3
		100%	0.0%	100%	0.0%	0.0%	0.0%	100%	72.7%	27.3%
2017		184	6	178	6	6	0	178	124	54
		100%	3.3%	96.7%	100%	100%	0.0%	100%	69.7%	30.3%
2018		121	9	112	9	8	1	112	92	20
		100%	7.4%	92.6%	100%	88.9%	11.1%	100%	82.1%	17.9%
2019		160	8	152	8	5	3	152	109	43
		100%	5.0%	95.0%	100%	62.5%	37.5%	100%	71.7%	28.3%
2020		99	1	98	1	1	0	98	78	20
		100%	1.0%	99.0%	100%	100%	0.0%	100%	79.6%	20.4%

## 5) 치료명령 기간별 현황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누적 접수사건을 치료명령 기간에 따라 구분한 결과, 2년 이상~3년 미만이 1,370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이 264건(13.6%), 3년 이상~4년 미만이 261건(13.4%)이었다. 그밖에 4년 이상~5년 미만이 16건(0.8%), 5년 이상이 15건(0.8%), 6월 이하가 14건(0.7%), 6월 초과~1년 미만이 1건(0.1%) 등이었다.

표 2-2-8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기간별 현황(2016~2020)

연도	치료명령기간	기간별 현황							
		계	6월 이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총계		1,941	14	1	264	1,370	261	16	15
		100%	0.7%	0.1%	13.6%	70.6%	13.4%	0.8%	0.8%
2016	계	5	0	0	0	5	0	0	0
	선고유예	0	0	0	0	0	0	0	0
	집행유예	5	0	0	0	5	0	0	0
2017	계	422	9	1	68	305	33	4	2
	선고유예	7	0	0	7	0	0	0	0
	집행유예	415	9	1	61	305	33	4	2
2018	계	451	2	0	62	329	49	5	4
	선고유예	5	0	0	5	0	0	0	0
	집행유예	446	2	0	57	329	49	5	4
2019	계	590	3	0	73	422	85	2	5
	선고유예	6	0	0	6	0	0	0	0
	집행유예	584	3	0	67	422	85	2	5
2020	계	473	0	0	61	309	94	5	4
	선고유예	0	0	0	0	0	0	0	0
	집행유예	473	0	0	61	309	94	5	4

## 2 집행사건 현황

### 개 요

- 치료명령 사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집행 현황

### 지표정의

- 집행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 1) 치료명령

- 2020년의 치료명령 집행사건은 총 1,419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2019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50~100%씩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8.1% 증가하였다.

표 2-2-9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6~2020)

연도	처분유형	계	집행유예	선고유예
2016		5	5	-
		100%	100%	-
2017		427	420	7
		100%	98.4%	1.6%
2018		867	855	12
		100%	98.6%	1.4%
2019		1,313	1,302	11
		100%	99.2%	0.8%
2020		1,419	1,414	5
		100%	99.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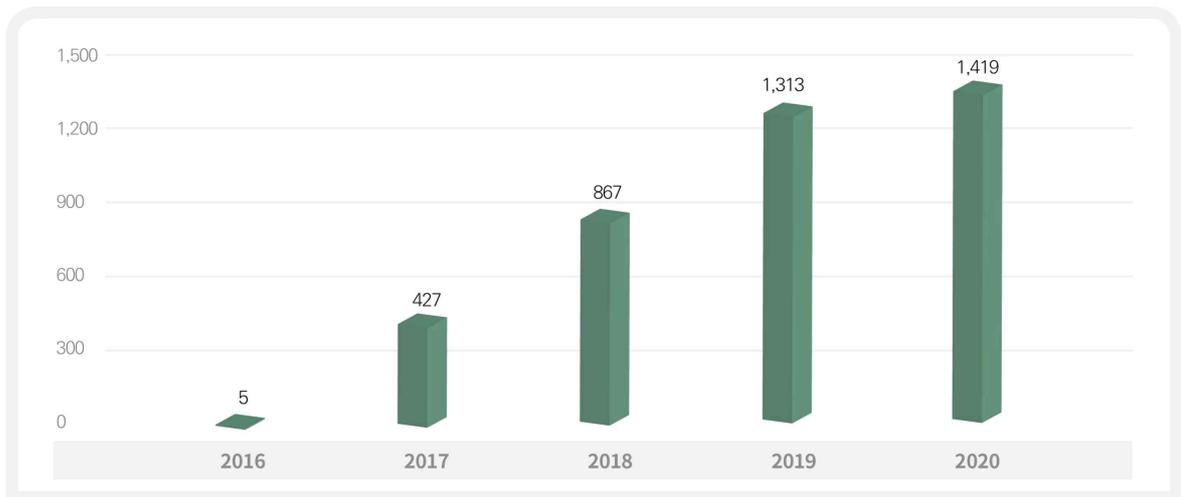


그림 2-2-5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6~2020)

##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0년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사건은 총 176건이었고, 정신질환이 전체의 94.3%를 차지하였다.

표 2-2-10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집행사건 현황(2016~2020)

연도	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2016		11	10	1	-
		100%	90.9%	9.1%	0.0%
2017		195	166	29	-
		100%	85.1%	14.9%	0.0%
2018		214	188	26	-
		100%	87.9%	12.1%	0.0%
2019		215	191	21	3
		100%	88.8%	9.8%	1.4%
2020		176	166	10	0
		100%	94.3%	5.7%	0.0%

## 3 현재원 현황

### 개 요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집행 중인 치료명령 사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현재원 현황

### 지표정의

- 현재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집행 중인 사건 수
- 처분유형 : 치료명령이 부과되는 원처분의 형태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구분
- 문제유형 :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의 원인이 된 문제유형에 따라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으로 구분

### 1) 문제유형별 현황

#### (1) 치료명령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 집행 현재원은 총 978건으로, 정신질환이 543건(55.5%), 알코올중독이 287건(29.4%), 마약중독이 148건(15.1%)이었고, 모두 집행유예 사건이었다.

표 2-2-11 치료명령 현재원의 처분유형 및 문제유형별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처분유형 \ 문제유형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계	978	543	287	148
	100%	55.5%	29.4%	15.1%
집행유예	978	543	287	148
	100%	55.5%	29.4%	15.1%
선고유예	0	0	0	0
	0.0%	0.0%	0.0%	0.0%

##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0년말 기준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현재원은 총 68건으로, 정신질환이 66건(97.1%), 알코올중독이 2건(2.9%)이었고, 마약중독 사건은 없었다.

표 2-2-1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20)

구분	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사건수	68	66	2	0
	100%	97.1%	2.9%	0.0%

## 2) 사범별 현황

### (1) 치료명령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 현재원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291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이 195건(19.9%), 마약사범이 150건(15.3%), 성폭력사범이 104건(10.6%), 강력사범이 83건(8.5%) 등이었다.

표 2-2-13 치료명령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유형 \ 사범	합계	강력	교통	경제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기타**
계	978	83	36	3	291	80	104	15	21	150	195
	100%	8.5%	3.7%	0.3%	29.8%	8.2%	10.6%	1.5%	2.2%	15.3%	19.9%
집행유예	978	83	36	3	291	80	104	15	21	150	195
	100%	8.5%	3.7%	0.3%	29.8%	8.2%	10.6%	1.5%	2.2%	15.3%	19.9%
선고유예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등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 (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원을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기타사범이 28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이 22건(32.4%), 절도사범이 9건(13.2%), 풍속사범 4건(5.9%), 강력사범 2건(2.9%), 성폭력사범 1건(1.5%) 등이었다.

표 2-2-14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20)

사범	계	강력	교통	경제	폭력	절도	성폭력	풍속*	사기횡령	마약	기타**
사건수	68	2	0	0	22	9	1	4	2	0	28
	100%	2.9%	0.0%	0.0%	32.4%	13.2%	1.5%	5.9%	2.9%	0.0%	41.2%

\* 풍속 : 공연음란, 도박

\*\* 기타 :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 4 치료기관 현황

### 개 요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을 위한 치료기관 지정 현황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치료기관은 총 261개로, 정신의료기관이 208개(79.7%), 중독관리통합센터가 24개(9.2%),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개(7.7%) 등이었다.

표 2-2-15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20년)

계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 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	기타
	병원	의원			
261	155	53	20	2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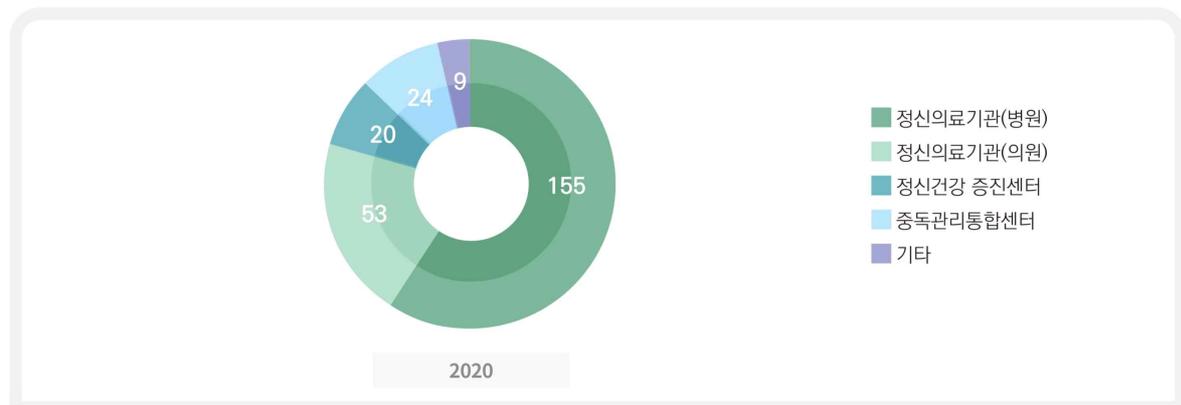


그림 2-2-6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20)

### 제 3 절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 개요

» 성도착증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출소 이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성도착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행동 개선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도소 출소 후인 형 집행 종료 후 단계에서의 치료적 행위를 통해 국가의 성범죄자 관리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 → 집행 방법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심리치료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인지행동치료 등)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또한, 보호관찰관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등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 → 성충동 약물치료 약물[시행 2020. 7. 1.] [법무부고시 제2020-211호, 2020. 6. 22., 일부개정.]

구 분	약 물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텐린 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성폭력범죄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CPA, Cyproterone acetate)

####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외국 입법례 및 운영 현황

» ‘성충동 약물치료’는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 이후 최초 실시되어 1997년 몬타나주, 루이지애나주, 플로리다주, 1998년 아이오와주, 1999년 위스콘신주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조지아주와 오레곤주는 제도를 폐지하였다.<sup>15)</sup>

15) 박성훈·유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14면.

- ▶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 덴마크(1929)를 시작으로 독일(1933), 노르웨이(1934), 핀란드(1935), 에스토니아(1937), 아이슬란드(1938), 라트비아(1938), 스웨덴(1944), 체코(1966) 등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하였다. 스웨덴은 법제를 폐지한 가운데 현재 폴란드(2009), 체코(2009), 몰도바(2012), 마케도니아(2014)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sup>16)</sup>
- ▶ 미국은 주법률에 따라 결정재량권이 다른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이오와 주 등은 초범인 경우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나 재범인 경우 필요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며, 유럽의 경우 폴란드와 체코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치료자의 동의하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sup>17)</sup>

## 1 집행 현황

### 지표정의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집행 및 종료, 대기 중인 사건 수(기관 간 이송 불포함)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 중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은 총 26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집행 종료된 사건(누적)은 23건, 집행 대기 중인 사건은 24건이었다.

표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20)

계	집행 중			집행 종료(누적)			집행 대기		
	소계	형기종료	가종료	소계	형기종료	가종료	소계	형기종료	가종료
73	26	1	25	23	4	19	24	2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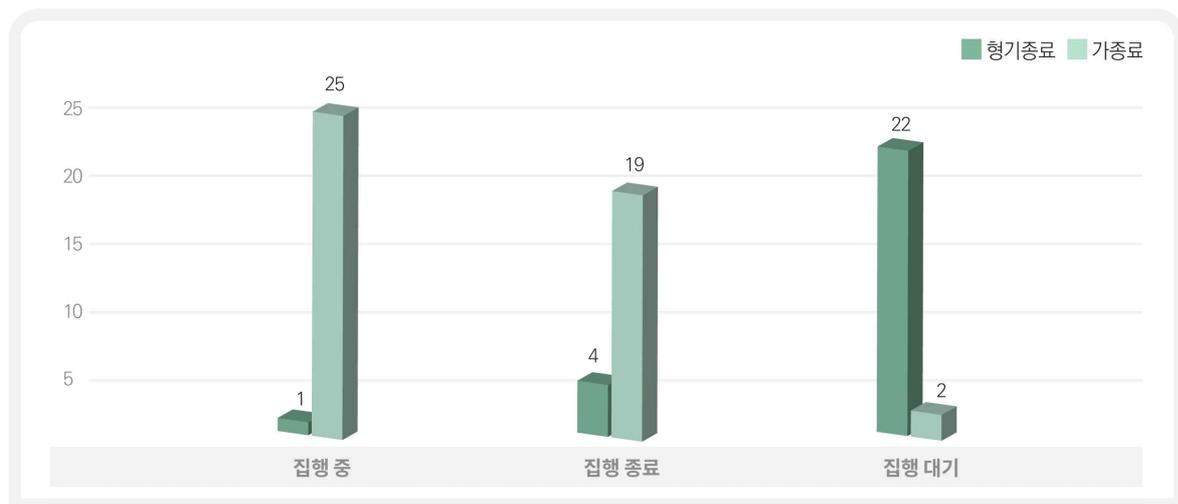


그림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20)

16) 한민경,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EU국 법제 연구”, 『2013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2013. 8-14면.  
 17) 박성훈·유진,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89면.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 현황

최근 7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11건)과 2019년(18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10건 미만이며, 2020년에는 6건(판결 2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4건)이었다. 2014년 이후 누적 선고 건수는 총 65건으로, 법원 판결이 22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 43건이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현황(2014~2020)]

처분기관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법원	6	6	4	1	1	2	2	2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5	0	5	6	7	16	4	43
합계	11	6	9	7	8	18	6	65

## 2 치료기관 현황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총 18개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표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관 수	10	10	11	13	15	1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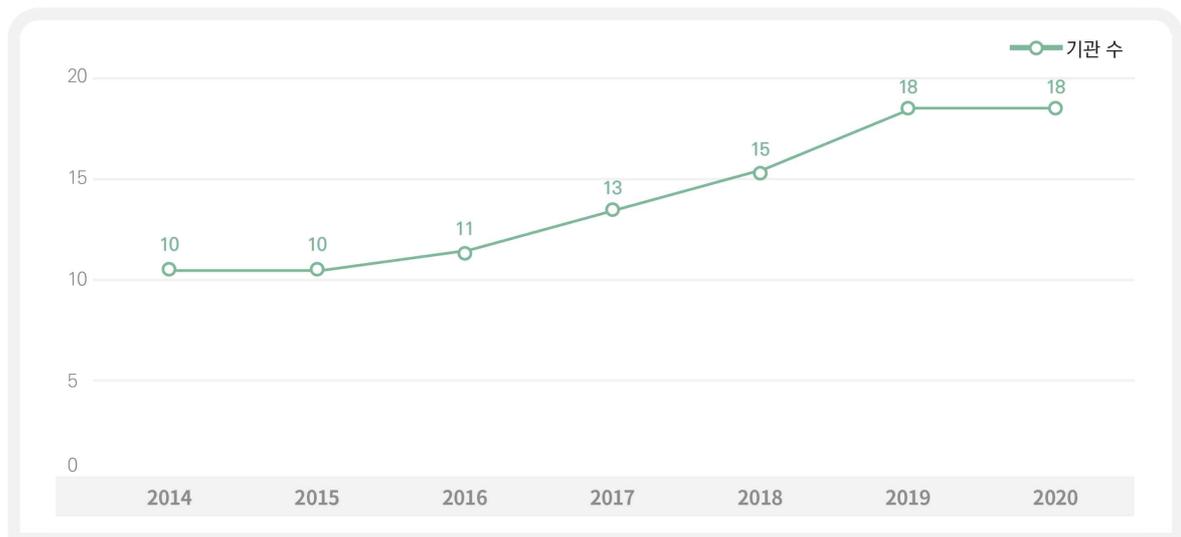


그림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4~2020)

## ➔ 성총동 약물치료명령의 효과성

### ① 재범 예방 효과

성총동 약물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총동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치료대상자와 청구기각자를 비교한 연구결과, 청구기각자의 동종(성범죄) 재범은 50.0%이었던 반면 치료대상자의 동종재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또한, 과거 성범죄전력이 있는 성총동 약물치료명령 대상자의 경우, 치료가 실시되기 전에는 동종재범을 저질렀을 기간에도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등 이전보다 재범까지의 간격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치료적 효과

성총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남성호르몬 수치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일정기준 이하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또한, 성총동 약물치료 이후 성범죄자의 성적환상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 성총동 약물치료는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정신의학적 개입도 필요함을 보여주었다.<sup>20)</sup>

18) 박성훈·유진, 『성총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51면.

19) 박성훈·유진, 『성총동 약물치료의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2018. 59면.

20) 안진형 외, “성총동 약물 치료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제37호, 2013.

# 보호관찰조사

## 1 개요

### 1) 종류별 접수 현황

- 2020년에 접수된 보호관찰조사 총 23,176건 중 결정전조사가 17,813건(7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판결전조사 1,596건(6.9%), 청구전조사 1,493건(6.4%), 환경조사 1,365건(5.9%), 검사 결정전조사 909건(3.9%) 등의 순이었다.
- 전체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은 2015년 27,68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연간 26,0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 보호관찰조사 중 결정전조사의 비율은 매년 상승하여 2019년 이후 전체의 76% 이상을 보이며, 판결전조사는 2014년 9.1%를 기록한 이후 7%대에 머물고 있다. 청구전조사 접수사건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500건을 상회하다가 2017년 이후 감소하여 연간 1,500~1,800건 수준에서 접수되고 있다. 검사 결정전조사는 2014년에는 23.6%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 속에서 2019년부터 3~4%대를 차지하며, 환경조사는 2017년에 7.4%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연간 5~6%를 유지하고 있다.

표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환경조사
2014		24,782	2,257	12,373	5,855	2,703	1,594
		100%	9.1%	49.9%	23.6%	10.9%	6.4%
2015		27,681	2,166	17,678	3,805	2,471	1,561
		100%	7.8%	63.9%	13.7%	8.9%	5.6%
2016		27,464	1,901	16,931	4,379	2,698	1,555
		100%	6.9%	61.6%	15.9%	9.8%	5.7%
2017		26,024	2,003	16,606	3,626	1,869	1,920
		100%	7.7%	63.8%	13.9%	7.2%	7.4%
2018		26,528	2,053	19,662	1,678	1,639	1,496
		100%	7.7%	74.1%	6.3%	6.2%	5.6%

연도	유형	계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환경조사
2019		24,858	1,797	19,007	1,092	1,520	1,442
		100%	7.2%	76.5%	4.4%	6.1%	5.8%
2020		23,176	1,596	17,813	909	1,493	1,365
		100%	6.9%	76.9%	3.9%	6.4%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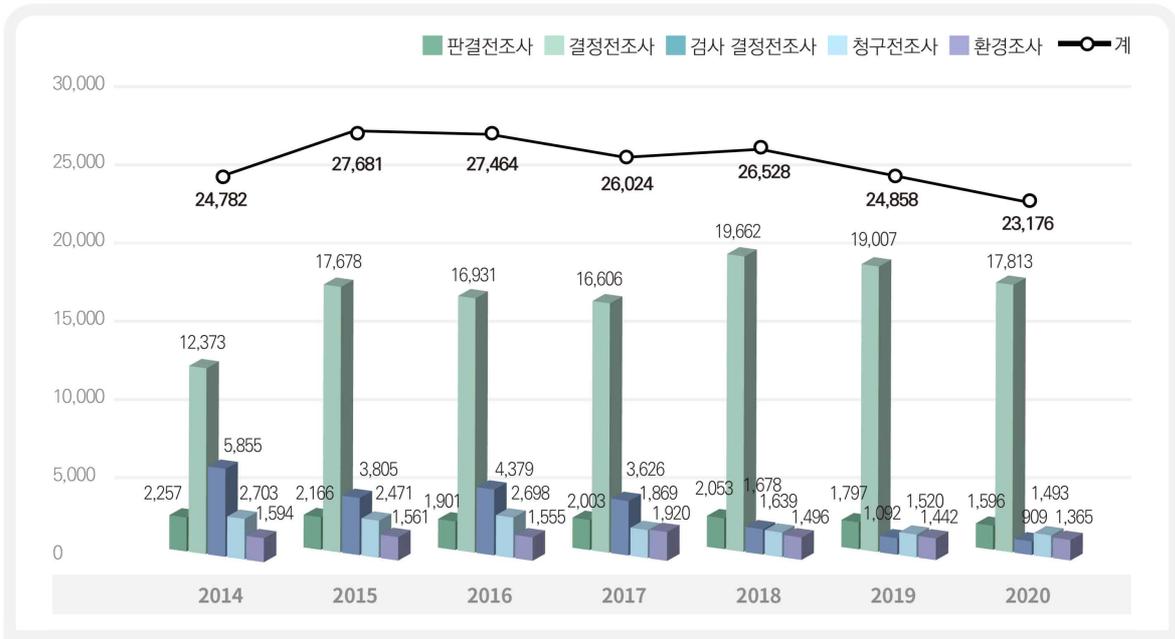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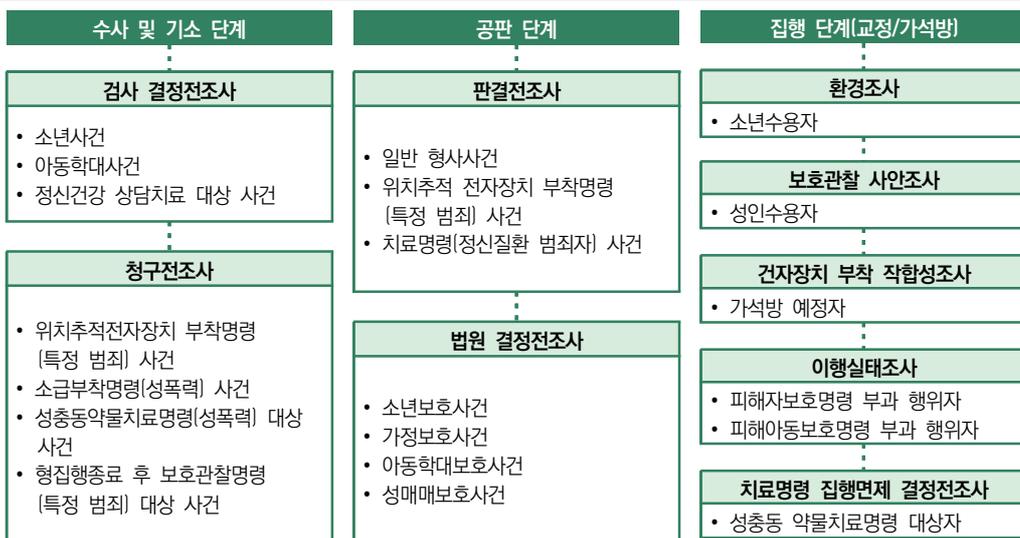


그림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 형사소송단계별 보호관찰조사 종류와 대상



➔ 보호관찰조사 종류별 대상, 목적 및 적용법조

구분	종류	조사대상	목적	적용법조	
수사 및 기소 단계 (검찰)	검사 결정전조사	소년	기소 여부 등	• 「소년법」 제49조의2	
		아동학대 행위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정신질환자	정신질환 여부와 상담·치료 필요성 판단	•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리지침」	
	청구 전 조사	부착 명령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1조의8
		보호관찰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필요성 판단	
	소급 부착	성폭력	재범위험성 등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판단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제9112호)」 부칙 제2조	
	약물치료명령	성폭력 (성도착자)	성도착 여부, 재범위험성 등 성충동 약물치료 필요성 판단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공판 단계 (법원)	판 결 전 조 사	일반	성인, 소년	양형인자 등 조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7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부착명령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집행유예 시 전자장치부착 필요성 판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치료명령	주취, 약물 및 정신장애범죄	정신질환,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판단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결정전조사	소년사건	보호처분(또는 보호명령) 결정자료	소년사건	• 「소년법」 제12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성매매사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5조의7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청구 피고인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 판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집행 단계	환경조사 (소년원등)	소년원 등에 수용된 자	교정교육자료 활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호관찰 사안조사	교도소 등에 수용된 자	석방 후 적응 가능성 등 가석방 심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가석방 예정자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이행실태조사	가정폭력, 아동학대행위자	보호명령의 이행실태 파악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전조사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집행 면제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2) 기관별 접수 현황

- 2020년의 보호관찰조사 접수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보호관찰소가 1,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원보호관찰소(1,248건), 서울남부보호관찰소(1,128건), 고양보호관찰소(1,049건), 대전보호관찰소(1,042건), 성남보호관찰소(1,005건), 의정부보호관찰소(1,004건) 등의 순이었다.

표 2-4-2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 현황(2020)

기관 \ 유형	계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환경조사
전국	23,176	1,596	17,813	909	1,493	1,365
서울	1,294	31	997	54	169	43
서울동부	857	33	782	19	0	23
서울남부	1,128	58	942	14	72	42
서울북부	777	16	736	13	0	12
서울서부	674	5	636	8	0	25
의정부	1,004	23	849	1	58	73
고양	1,049	24	976	2	0	47
인천	582	21	409	7	81	64
인천서부	213	0	188	1	0	24
부천	449	5	408	17	0	19
수원	1,248	33	1,070	4	55	86
성남	1,005	6	940	7	29	23
여주	109	26	71	0	0	12
안산	501	34	319	59	27	62
평택	177	15	132	1	0	29
안양	193	39	88	45	0	21
춘천	168	10	131	4	22	1
강릉	138	1	99	34	2	2
원주	88	5	65	2	13	3
속초	56	11	19	23	0	3
영월	18	0	15	2	0	1
대전	1,042	156	709	23	87	67
홍성	235	23	183	0	20	9
공주	37	2	21	6	0	8
논산	51	9	32	6	0	4
서산	314	3	265	27	0	19
천안	230	11	140	46	0	33
청주	495	83	332	21	31	28

기관	유형	계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환경조사
충주		179	60	110	1	0	8
제천		60	3	53	0	0	4
영동		98	5	71	19	0	3
대구		503	62	280	11	115	35
대구서부		316	34	161	7	91	23
안동		152	2	139	6	0	5
경주		23	3	16	0	0	4
포항		91	4	61	12	0	14
구미		232	12	186	17	0	17
상주		26	4	17	4	0	1
영덕		57	0	57	0	0	0
부산		815	74	567	41	100	33
부산동부		737	23	615	55	0	44
부산서부		662	27	580	11	0	44
울산		526	93	317	21	49	46
창원		881	207	496	23	108	47
진주		281	27	219	21	0	14
통영		253	30	212	1	0	10
밀양		42	3	22	10	0	7
거창		87	3	33	47	0	4
광주		824	54	523	8	181	58
목포		430	42	330	29	0	29
순천		433	44	258	0	112	19
해남		157	24	113	13	0	7
전주		488	4	386	17	54	27
군산		292	29	217	16	0	30
정읍		139	10	97	26	0	6
남원		104	0	72	27	0	5
제주		156	30	51	20	17	38

## 2 판결전조사

### 1) 사범별 접수 현황

- 2020년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한 결과, 폭력사범이 324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폭력사범 271건(17.0%), 절도사범 251건(15.7%), 사기횡령사범 213건(13.3%), 교통사범 148건(9.3%), 강력사범 141건(8.8%), 마약사범 60건(3.8%) 등의 순이었으며, 경제사범과 풍속사범은 50건 미만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폭력사범의 비율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보다 증가하여 2017년 이후 20% 내외를 차지하였다. 성폭력사범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 내외를 보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2017년 이후 14~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절도사범은 단계적인 감소와 정체를 보여, 2014년에는 22.2%, 2015년과 2016년에는 18%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15~16%대를 나타냈다. 강력사범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14%를 기록하다 2017년 이후 8%대를 보였고, 사기횡령사범은 2017년 이후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4-3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2,257	378	162	501	219	303	43	35	437	15	164
	100%	16.7%	7.2%	22.2%	9.7%	13.4%	1.9%	1.6%	19.4%	0.7%	7.3%
2015	2,166	389	116	393	208	320	51	29	472	29	159
	100%	18.0%	5.4%	18.1%	9.6%	14.8%	2.4%	1.3%	21.8%	1.3%	7.3%
2016	1,901	354	177	360	175	216	35	37	374	24	149
	100%	18.6%	9.3%	18.9%	9.2%	11.4%	1.8%	1.9%	19.7%	1.3%	7.8%
2017	2,003	418	246	323	231	177	20	38	270	20	260
	100%	20.9%	12.3%	16.1%	11.5%	8.8%	1.0%	1.9%	13.5%	1.0%	13.0%
2018	2,053	429	180	313	271	172	57	56	297	37	241
	100%	20.9%	8.8%	15.2%	13.2%	8.4%	2.8%	2.7%	14.5%	1.8%	11.7%
2019	1,797	343	179	300	233	151	87	30	289	36	149
	100%	19.1%	10.0%	16.7%	13.0%	8.4%	4.8%	1.7%	16.1%	2.0%	8.3%
2020	1,596	324	148	251	213	141	60	35	271	14	139
	100%	20.3%	9.3%	15.7%	13.3%	8.8%	3.8%	2.2%	17.0%	0.9%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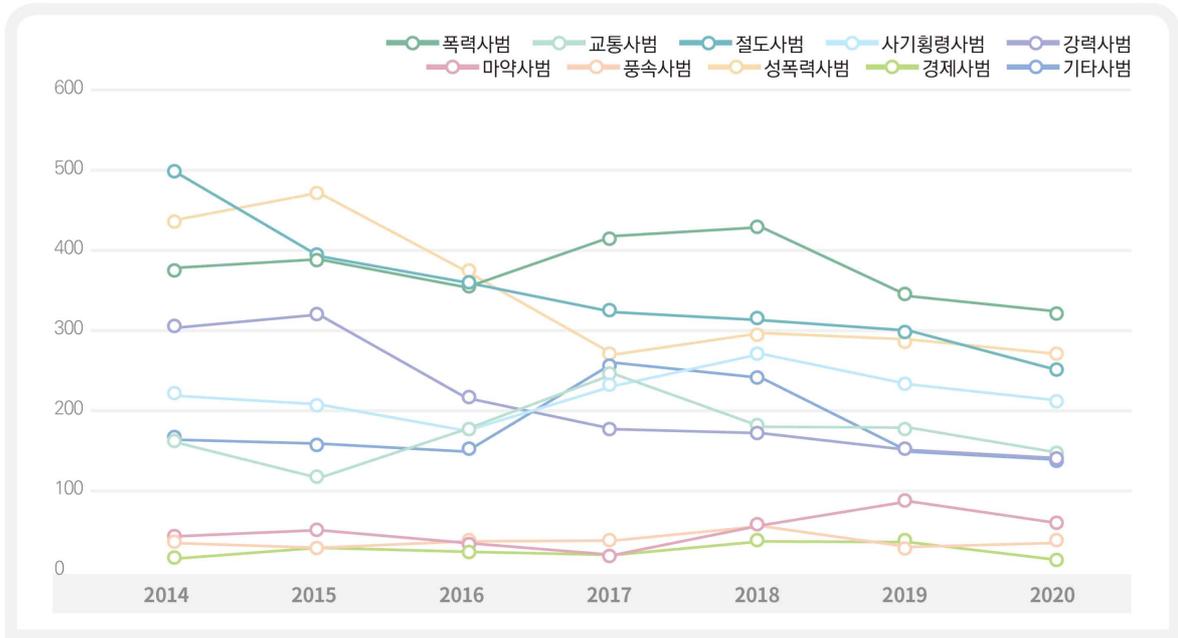


그림 2-4-2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성인이 75.9%, 소년이 24.1%이었다. 최근 7년간의 성인과 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 2020년에는 성인 사건이 75%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그 밖에는 대부분 70% 수준이었다.
- 2020년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을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남성이 88.8%, 여성이 11.2%였다. 최근 7년간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매년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성의 비율이 2014년에는 7.3%이었다가 2016년 이후 10% 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2-4-4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연령별		성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2014	2,257	676	1,581	2,092	165
	100%	30.0%	70.0%	92.7%	7.3%
2015	2,166	698	1,468	1,997	169
	100%	32.2%	67.8%	92.2%	7.8%
2016	1,901	592	1,309	1,727	174
	100%	31.1%	68.9%	90.8%	9.2%

연도	계	연령별		성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2017	2,003	476	1,527	1,753	250
	100%	23.8%	76.2%	87.5%	12.5%
2018	2,053	513	1,540	1,846	207
	100%	25.0%	75.0%	89.9%	10.1%
2019	1,797	557	1,240	1,574	223
	100%	31.0%	69.0%	87.6%	12.4%
2020	1,596	384	1,212	1,418	178
	100%	24.1%	75.9%	88.8%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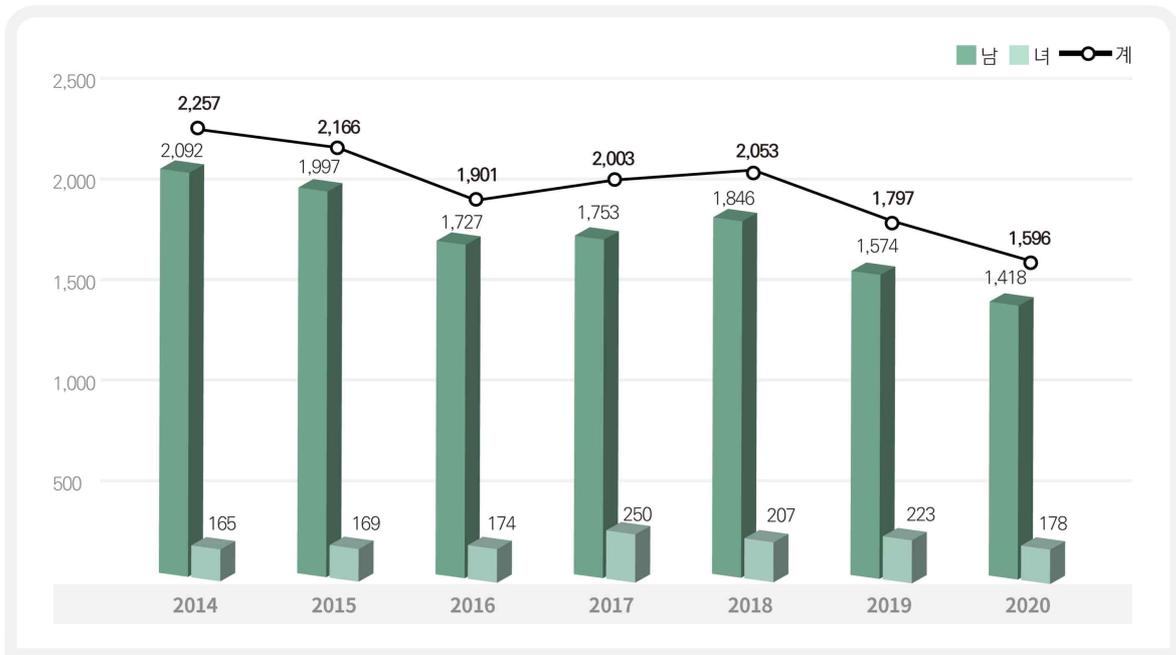


그림 2-4-3 판결전조사 성별 접수 현황(2014~2020)

-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한 후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5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2,257	628	48	1,464	117
	100%	27.8%	2.1%	64.9%	5.2%
2015	2,166	636	62	1,361	107
	100%	29.4%	2.9%	62.8%	4.9%
2016	1,901	561	31	1,167	142
	100%	29.5%	1.6%	61.4%	7.5%
2017	2,003	431	45	1,322	205
	100%	21.5%	2.2%	66.0%	10.2%
2018	2,053	465	48	1,381	159
	100%	22.6%	2.3%	67.3%	7.7%
2019	1,797	510	47	1,065	175
	100%	28.4%	2.6%	59.3%	9.7%
2020	1,596	337	47	1,081	131
	100%	21.1%	2.9%	67.7%	8.2%

### 3 결정전조사

#### 1) 종류별 접수 현황

- 2020년에 접수된 결정전조사 중 가정보호사건<sup>21)</sup>이 8,685건(48.8%), 소년보호사건이 7,644건(42.9%)으로 두 종류의 조사가 전체 결정전조사의 91.7%를 차지하였고, 아동보호사건<sup>22)</sup>이 1,426건(8.0%), 성매매보호사건이 51건(0.3%), 기타가 7건 등이었다.
- 최근 7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결정전조사 접수건수는 2014년 12,373건에서 2020년 17,813건으로 44% 증가하였다. 특히,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2020년 가정보호사건의 접수사건은 2014년보다 2배 이상, 아동보호사건은 54배 이상 증가하였다.
- 소년보호사건은 2015년에 8,84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7,000건~8,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보호사건은 2017년 32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였다.

21)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조사 포함

2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조사 포함

표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 보호사건	기타
2014		12,373	8,154	4,051	26	128	14
		100%	65.9%	32.7%	0.2%	1.0%	0.1%
2015		17,678	8,847	8,298	372	161	0
		100%	50.0%	46.9%	2.1%	0.9%	0.0%
2016		16,931	8,046	8,079	541	261	4
		100%	47.5%	47.7%	3.2%	1.5%	0.0%
2017		16,606	7,795	7,750	733	327	1
		100%	46.9%	46.7%	4.4%	2.0%	0.0%
2018		19,597	8,601	9,842	986	163	5
		100%	43.9%	50.2%	5.1%	0.8%	0.0%
2019		19,007	7,578	10,260	1,115	52	2
		100%	39.9%	54.0%	5.9%	0.3%	0.0%
2020		17,813	7,644	8,685	1,426	51	7
		100%	42.9%	48.8%	8.0%	0.3%	0.0%

※ 기타 : 전자장치부착법,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결정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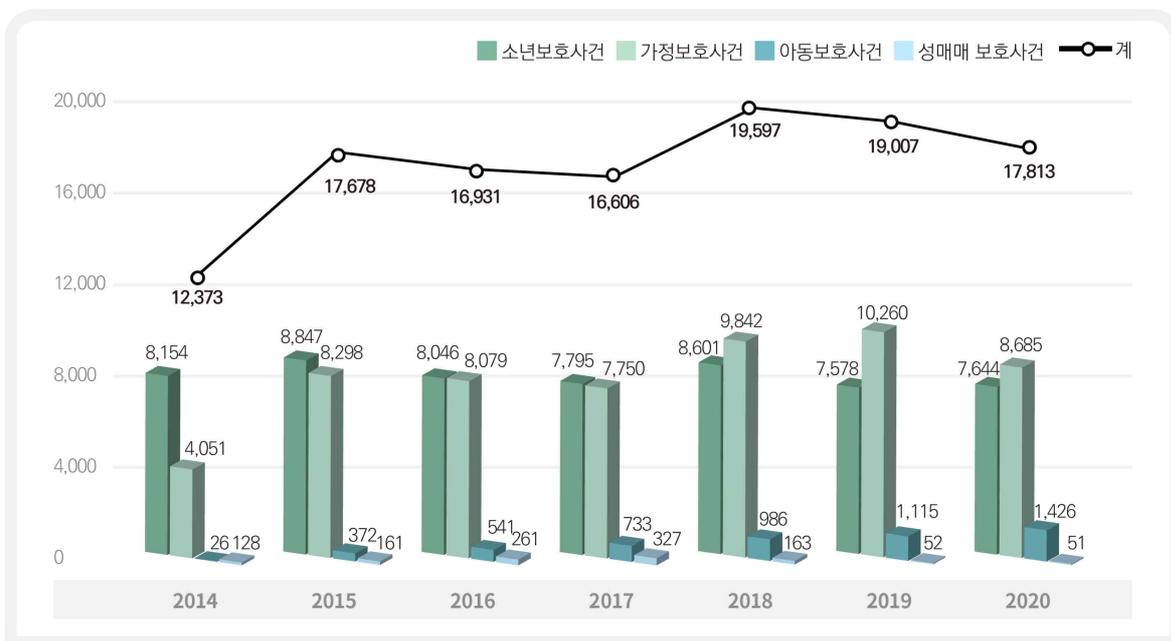


그림 2-4-4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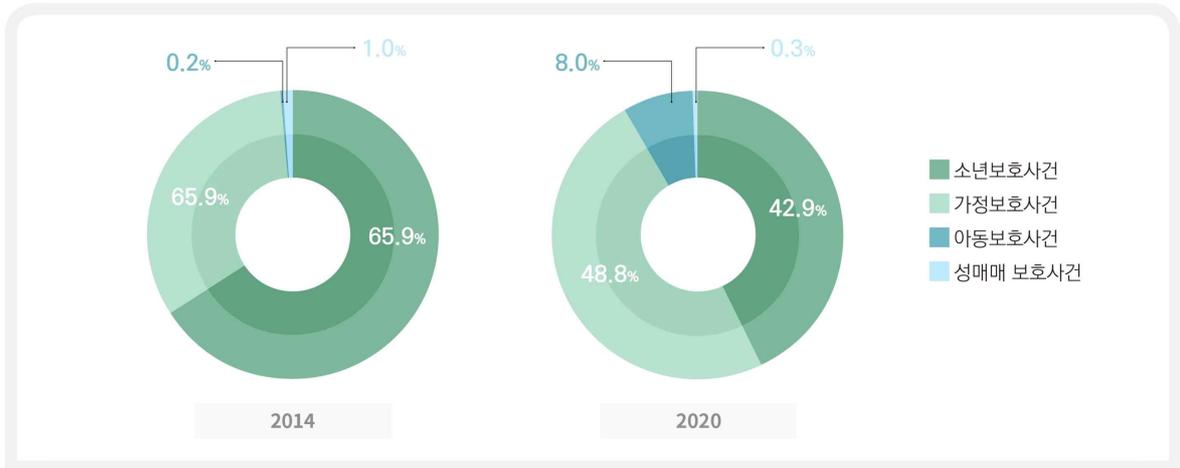


그림 2-4-5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14, 2020)

## 2) 사범별 접수 현황

- 2020년 접수된 결정전조사를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폭력사범이 10,923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사범 2,379건(13.4%), 절도사범 1,964건(11.0%), 교통사범 1,024건(5.8%), 사기횡령사범 662건(3.7%), 성폭력사범 612건(3.4%) 등이었으며, 그 외 사범은 150건 미만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폭력사범은 2014년 6,174건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2014년 대비 76.9% 증가하였다. 기타사범은 2016년 이후 10~13%를 차지하고 있고, 절도사범과 경제사범은 2015년에 각각 3,079건과 75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였고, 강력사범은 매년 1% 미만으로 2014년 0.9%, 2019년과 2020년에는 0.2%와 0.3%를 차지하였다.

표 2-4-7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12,373	6,174	901	2,864	592	117	24	163	580	54	904
	100%	49.9%	7.3%	23.1%	4.8%	0.9%	0.2%	1.3%	4.7%	0.4%	7.3%
2015	17,678	10,460	955	3,079	680	68	35	248	565	75	1,513
	100%	59.2%	5.4%	17.4%	3.8%	0.4%	0.2%	1.4%	3.2%	0.4%	8.6%
2016	16,931	10,073	1,029	2,435	654	103	19	277	563	63	1,715
	100%	59.5%	6.1%	14.4%	3.9%	0.6%	0.1%	1.6%	3.3%	0.4%	10.1%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6,606	9,960	1,096	1,962	567	62	43	382	522	43	1,969
	100%	60.0%	6.6%	11.8%	3.4%	0.4%	0.3%	2.3%	3.1%	0.3%	11.9%
2018	19,662	12,353	1,058	2,194	701	92	26	220	737	48	2,233
	100%	62.8%	5.4%	11.2%	3.6%	0.5%	0.1%	1.1%	3.7%	0.2%	11.4%
2019	19,007	12,613	812	1,771	643	42	11	110	700	39	2,266
	100%	66.4%	4.3%	9.3%	3.4%	0.2%	0.1%	0.6%	3.7%	0.2%	11.9%
2020	17,813	10,923	1,024	1,964	662	55	2	139	612	53	2,379
	100%	61.3%	5.8%	11.0%	3.7%	0.3%	0.0%	0.8%	3.4%	0.3%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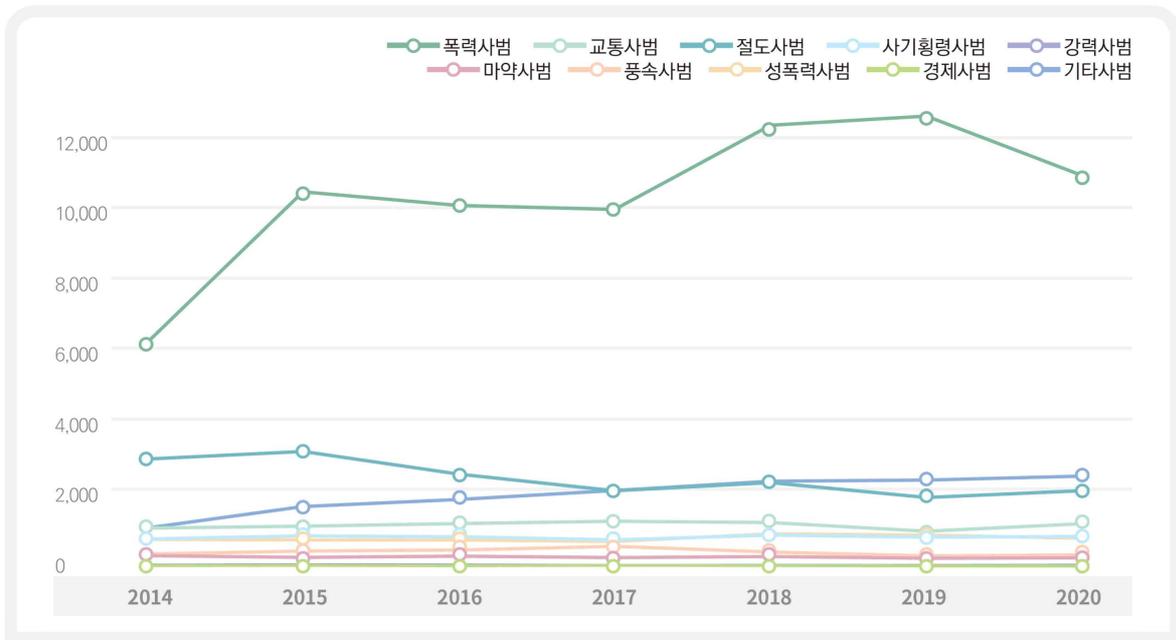


그림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3)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남성이 6,124건(80.1%), 여성이 1,520건(19.9%)이었고, 14세 이상이 7,068건(92.5%), 14세 미만이 576건(7.5%)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사건이 2016년까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부터 여성사건 비율의 증가와 함께 소폭 감소하면서 80~81%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4세 미만 사건은 2014년의 9.3%(760건)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표 2-4-8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4세 미만	14세 이상
2014	8,154	6,890	1,264	760	7,394
	100%	84.5%	15.5%	9.3%	90.7%
2015	8,847	7,575	1,272	627	8,220
	100%	85.6%	14.4%	7.1%	92.9%
2016	8,046	6,877	1,169	494	7,552
	100%	85.5%	14.5%	6.1%	93.9%
2017	7,795	6,371	1,424	473	7,322
	100%	81.7%	18.3%	6.1%	93.9%
2018	8,601	6,983	1,618	647	7,954
	100%	81.2%	18.8%	7.5%	92.5%
2019	7,578	6,061	1,517	640	6,938
	100%	80.0%	20.0%	8.4%	91.6%
2020	7,644	6,124	1,520	576	7,068
	100%	80.1%	19.9%	7.5%	92.5%

-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접수사건을 14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9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8,154	618	142	6,272	1,122
	100%	7.6%	1.7%	76.9%	13.8%
2015	8,847	544	83	7,031	1,189
	100%	6.1%	0.9%	79.5%	13.4%
2016	8,046	429	65	6,449	1,103
	100%	5.3%	0.8%	80.2%	13.7%
2017	7,795	399	74	5,972	1,350
	100%	5.1%	0.9%	76.6%	17.3%
2018	8,601	516	131	6,467	1,487
	100%	6.0%	1.5%	75.2%	17.3%
2019	7,578	512	128	5,549	1,389
	100%	6.8%	1.7%	73.2%	18.3%
2020	7,644	434	142	5,690	1,378
	100%	5.7%	1.9%	74.4%	18.0%

#### 4)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 접수한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남성이 7,236건 (83.3%)으로 여성(1,449건, 16.7%)보다 약 5배 많았고, 대부분 성인(8,635건, 99.4%) 사건으로 소년사건은 50건(0.6%)에 불과하였다.
-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는 2014년 4,051건에서 2020년 8,6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2014년 12.1%에서 2020년 16.7%로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성인사건이 전체의 약 99%를 유지하고 있다.

표 2-4-10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4	4,051	3,560	491	46	4,005
	100%	87.9%	12.1%	1.1%	98.9%
2015	8,298	7,164	1,134	114	8,184
	100%	86.3%	13.7%	1.4%	98.6%
2016	8,079	6,903	1,176	114	7,965
	100%	85.4%	14.6%	1.4%	98.6%
2017	7,750	6,549	1,201	92	7,658
	100%	84.5%	15.5%	1.2%	98.8%
2018	9,842	8,289	1,553	136	9,706
	100%	84.2%	15.8%	1.4%	98.6%
2019	10,260	8,566	1,694	106	10,154
	100%	83.5%	16.5%	1.0%	99.0%
2020	8,685	7,236	1,449	50	8,635
	100%	83.3%	16.7%	0.6%	99.4%

-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을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11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4,051	43	3	3,517	488
	100%	1.1%	0.1%	86.8%	12.0%
2015	8,298	99	15	7,065	1,119
	100%	1.2%	0.2%	85.1%	13.5%
2016	8,079	92	22	6,811	1,154
	100%	1.1%	0.3%	84.3%	14.3%
2017	7,750	75	17	6,474	1,184
	100%	1.0%	0.2%	83.5%	15.3%
2018	9,842	104	32	8,185	1,521
	100%	1.1%	0.3%	83.2%	15.4%
2019	10,260	81	25	8,485	1,669
	100%	0.8%	0.2%	82.7%	16.3%
2020	8,685	43	7	7,193	1,442
	100%	0.5%	0.1%	82.8%	16.6%

### 5)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 접수한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성이 886건(62.1%), 여성이 540건(37.9%)이었고, 성인이 1,423건(99.8%), 소년은 3건(0.2%)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남성이 전체의 62~66%, 성인이 전체의 약 99%를 차지하였다.

표 2-4-12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4	26	14	12	1	25
	100%	53.8%	46.2%	3.8%	96.2%
2015	372	246	126	5	367
	100%	66.1%	33.9%	1.3%	98.7%
2016	541	352	189	4	537
	100%	65.1%	34.9%	0.7%	99.3%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733	457	276	5	728
	100%	62.3%	37.7%	0.7%	99.3%
2018	986	650	336	3	983
	100%	65.9%	34.1%	0.3%	99.7%
2019	1,115	715	400	8	1,107
	100%	64.1%	35.9%	0.7%	99.3%
2020	1,426	886	540	3	1,423
	100%	62.1%	37.9%	0.2%	99.8%

-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13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26	1	-	13	12
	100%	3.8%	-	50.0%	46.2%
2015	372	4	1	242	125
	100%	1.1%	0.3%	65.1%	33.6%
2016	541	2	2	350	187
	100%	0.4%	0.4%	64.7%	34.6%
2017	733	3	2	454	274
	100%	0.4%	0.3%	61.9%	37.4%
2018	986	1	2	649	334
	100%	0.1%	0.2%	65.8%	33.9%
2019	1,115	6	2	709	398
	100%	0.5%	0.2%	63.6%	35.7%
2020	1,426	1	2	885	538
	100%	0.1%	0.1%	62.1%	37.7%

## 6)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 접수한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여성이 45건(88.2%)으로 남성(6건, 11.8%)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50건(98.0%), 소년이 1건(2.0%) 이었다.
-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의 경우, 매년 접수사건의 편차가 큰데, 최근 2년간은 50건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조사 대상은 대부분 성인, 여성이었다.

표 2-4-14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4	128	3	125	13	115
	100%	2.3%	97.7%	10.2%	89.8%
2015	161	4	157	12	149
	100%	2.5%	97.5%	7.5%	92.5%
2016	261	82	179	14	247
	100%	31.4%	68.6%	5.4%	94.6%
2017	327	26	301	27	300
	100%	8.0%	92.0%	8.3%	91.7%
2018	163	11	152	15	148
	100%	6.7%	93.3%	9.2%	90.8%
2019	52	12	40	1	51
	100%	23.1%	76.9%	1.9%	98.1%
2020	51	6	45	1	50
	100%	11.8%	88.2%	2.0%	98.0%

-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15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128	2	11	1	114
	100%	15.4%	84.6%	0.9%	99.1%
2015	161	0	12	4	145
	100%	0.0%	100%	2.7%	97.3%
2016	261	0	14	82	165
	100%	0.0%	100%	33.2%	66.8%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327	2	25	24	276
	100%	7.4%	92.6%	8.0%	92.0%
2018	163	1	14	10	138
	100%	6.7%	93.3%	6.8%	93.2%
2019	52	1	0	11	40
	100%	100%	0.0%	21.6%	78.4%
2020	51	0	1	6	44
	100%	0.0%	100%	12.0%	88.0%

## 4 청구전조사

### 1) 종류별 접수 현황

- 2020년에 접수한 청구전조사는 총 1,493건이며, 종류별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가 1,425건(95.5%),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가 65건(4.3%),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전조사가 3건(0.2%)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는 2016년 2,697건(99.8%)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사건이 없다가 2018년 56건, 2019년 104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7.5% 감소하였다.

표 2-4-16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형집행 종료후 보호관찰명령
			소계	일반	소급		
2014		2,703	2,697	2,494	203	6	0
		100%	99.8%	92.3%	7.5%	0.2%	0.0%
2015		2,471	2,469	2,348	121	2	0
		100%	99.9%	95.0%	4.9%	0.1%	0.0%
2016		2,698	2,697	2,613	84	1	0
		100%	99.9%	96.8%	3.1%	0.1%	0.0%
2017		1,869	1,869	1,783	86	0	0
		100%	100%	95.4%	4.6%	0.0%	0.0%
2018		1,638	1,580	1,543	37	2	56
		100%	96.5%	94.2%	2.3%	0.1%	3.4%

연도	유형	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형집행 종료후 보호관찰명령
			소계	일반	소급		
2019		1,520	1,410	1,362	48	6	104
		100%	92.8%	89.6%	3.2%	0.4%	6.8%
2020		1,493	1,425	1,388	37	3	65
		100%	95.5%	93.0%	2.5%	0.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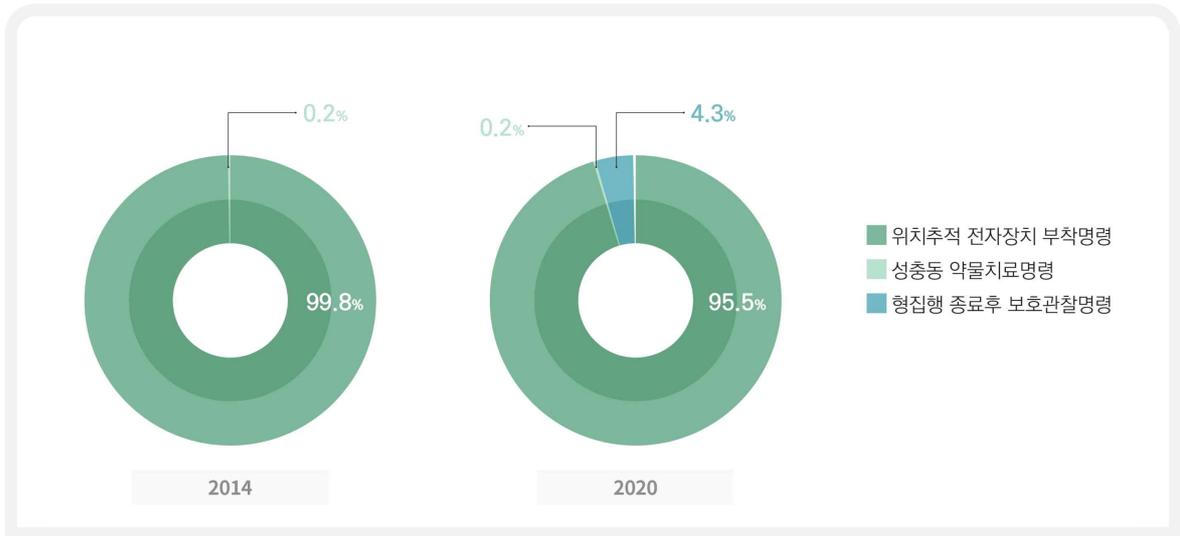


그림 2-4-7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점유율(2014~2020)

## 2)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에 접수된 일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성인이 1,319건(95.0%), 소년이 69건(5.0%)이었고, 남성이 1,355건(97.6%), 여성이 33건(2.4%)이었다.

표 2-4-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20)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4	2,494	2,461	33	228	2,266
	100%	98.7%	1.3%	9.1%	90.9%
2015	2,348	2,314	34	182	2,166
	100%	98.6%	1.4%	7.8%	92.2%
2016	2,613	2,564	49	220	2,393
	100%	98.1%	1.9%	8.4%	91.6%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7	1,783	1,745	38	141	1,642
	100%	97.9%	2.1%	7.9%	92.1%
2018	1,543	1,519	24	67	1,476
	100%	98.4%	1.6%	4.3%	95.7%
2019	1,362	1,337	25	76	1,286
	100%	98.2%	1.8%	5.6%	94.4%
2020	1,388	1,355	33	69	1,319
	100%	97.6%	2.4%	5.0%	95.0%

- 일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1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2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2,494	218	10	2,243	23
	100%	95.6%	4.4%	99.0%	1.0%
2015	2,348	181	1	2,133	33
	100%	99.5%	0.5%	98.5%	1.5%
2016	2,613	218	2	2,346	47
	100%	99.1%	0.9%	98.0%	2.0%
2017	1,783	134	7	1,611	31
	100%	95.0%	5.0%	98.1%	1.9%
2018	1,543	67	0	1,452	24
	100%	100%	0%	98.4%	1.6%
2019	1,362	75	1	1,262	24
	100%	98.7%	1.3%	98.1%	1.9%
2020	1,388	66	3	1,287	32
	100%	95.7%	4.3%	97.6%	2.4%

## 5 검사 결정전조사

### 1) 종류별 접수 현황<sup>23)</sup>

- 2020년 접수된 검사 결정전조사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소년법에 따른 조사가 636건(7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254건(27.9%),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조사가 19건(2.1%) 등이었다.
- 최근 3년간의 조사 종류별 접수 현황은, 2019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조사가 47.8%,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사가 49.4%이었던 반면, 2018년과 2020년에는 소년법에 따른 조사가 70% 이상이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26~27%,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리 지침에 의한 조사가 2% 내외를 차지하였다.

표 2-4-19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8~2020)

연도	실시 근거	계	소년법	아동학대처벌법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처리 지침
2018		1,678	1,216	442	20
		100%	72.5%	26.3%	1.2%
2019		1,092	522	539	31
		100%	47.8%	49.4%	2.8%
2020		909	636	254	19
		100%	70.0%	27.9%	2.1%

### 2) 사범별 접수 현황

- 2020년 검사에 의한 결정전조사 접수현황을 사범별로 구분하면, 폭력사범이 261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사범이 214건(23.5%), 절도사범이 165건(18.1%), 성폭력사범이 145건(16.0%), 교통사범이 69건(7.6%)이었고, 그 외 사범은 5% 미만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주요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폭력사범의 비율은 2014년 26.9%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40.8%가 되었으나, 2020년에는 28.7%로 하락하였다. 기타사범도 2014년 9.3%에서 2019년 34.9%로 계속 상승하다 2020년에는 23.5%로 감소하였다.
- 절도사범은 2014년 40.3%(2,359건)에서 2019년 8.4%(92건)로 급감하였다가 2020년에는 18.1%(165건)를 기록하였고, 교통사범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8% 수준을 보이다가

23) 「소년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는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었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검사 결정전 조사는 2014년 9월 29일,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는 2016년 11월 28일 시행되었으나, 정보화시스템에서의 구분은 2018년부터 반영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4% 내외로 하락하였고 2020년 다시 7%대로 상승하였다. 사기횡령사범은 기존의 8%대에서 2019년 이후 4% 이하가 되었다.

표 2-4-20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5,855	1,577	463	2,359	493	66	30	29	265	28	545
	100%	26.9%	7.9%	40.3%	8.4%	1.1%	0.5%	0.5%	4.5%	0.5%	9.3%
2015	3,805	966	271	1,402	351	29	17	16	214	34	505
	100%	25.4%	7.1%	36.8%	9.2%	0.8%	0.4%	0.4%	5.6%	0.9%	13.3%
2016	4,379	1,364	317	1,323	350	28	8	24	250	21	694
	100%	31.1%	7.2%	30.2%	8.0%	0.6%	0.2%	0.5%	5.7%	0.5%	15.8%
2017	3,626	1,172	294	957	164	42	14	20	183	15	765
	100%	32.3%	8.1%	26.4%	4.5%	1.2%	0.4%	0.6%	5.0%	0.4%	21.1%
2018	1,678	613	72	315	68	21	0	11	148	7	423
	100%	36.5%	4.3%	18.8%	4.1%	1.3%	0.0%	0.7%	8.8%	0.4%	25.2%
2019	1,092	446	40	92	27	1	0	8	92	5	381
	100%	40.8%	3.7%	8.4%	2.5%	0.1%	0.0%	0.7%	8.4%	0.5%	34.9%
2020	909	261	69	165	29	7	1	17	145	1	214
	100%	28.7%	7.6%	18.1%	3.2%	0.8%	0.1%	1.9%	16.0%	0.1%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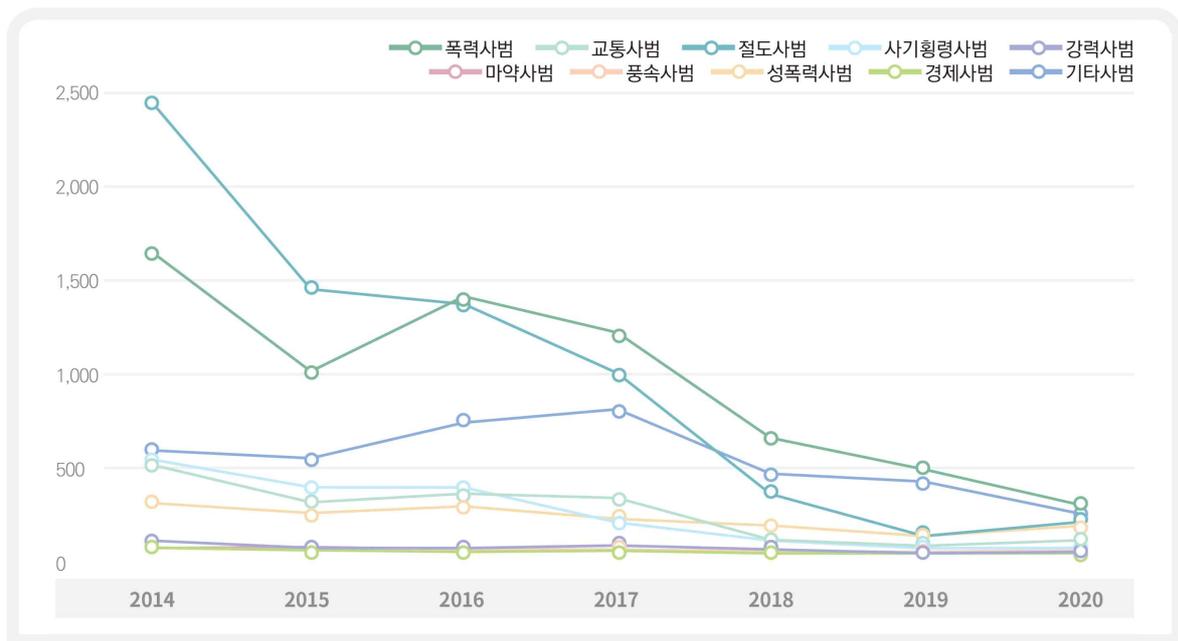


그림 2-4-8 검사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20)

### 3)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 검사에 의한 결정전조사 사건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남성이 717건(78.9%)으로 여성(192건, 21.1%)보다 약 3.7배 이상 많았고, 소년이 642건(70.6%), 성인 267건(29.4%)으로 소년이 2.4배 많았다.
- 최근 7년간의 접수 추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매년 남성이 70%대를 차지하였지만, 여성의 비율이 계속 상승추세를 보여 2014년 16.3%였다가 2019년에는 최고치인 31.6%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성인이 소년보다 많았으나, 그 외에는 소년이 전체의 70%~99.4%를 차지하였다.

표 2-4-21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4	5,855	4,903	952	5,818	37
	100%	83.7%	16.3%	99.4%	0.6%
2015	3,805	3,198	607	3,553	252
	100%	84.0%	16.0%	93.4%	6.6%
2016	4,379	3,493	886	3,761	618
	100%	79.8%	20.2%	85.9%	14.1%
2017	3,626	2,768	858	2,967	659
	100%	76.3%	23.7%	81.8%	18.2%
2018	1,678	1,253	425	1,225	453
	100%	74.7%	25.3%	73.0%	27.0%
2019	1,092	747	345	528	564
	100%	68.4%	31.6%	48.4%	51.6%
2020	909	717	192	642	267
	100%	78.9%	21.1%	70.6%	29.4%

-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4-22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5,855	4,884	934	19	18
	100%	83.9%	16.1%	51.4%	48.6%
2015	3,805	3,038	515	160	92
	100%	85.5%	14.5%	63.5%	36.5%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6	4,379	3,107	654	386	232
	100%	82.6%	17.4%	62.5%	37.5%
2017	3,626	2,387	580	381	278
	100%	80.5%	19.5%	57.8%	42.2%
2018	1,678	972	253	281	172
	100%	79.3%	20.7%	62.0%	38.0%
2019	1,092	422	106	325	239
	100%	79.9%	20.1%	57.6%	42.4%
2020	909	562	80	155	112
	100%	87.5%	12.5%	58.1%	41.9%

## 6 환경조사

### 1) 사범별 접수 현황

- 2020년 환경조사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기타사범이 759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절도사범이 177건(13.0%), 폭력사범이 171건(12.5%), 성폭력사범이 90건(6.6%)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사범의 경우 2014년 38.1%에서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9년부터 전체 환경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절도사범은 2014년 27.8%에서 2018년 이후로는 13% 이하로 감소하였다. 폭력사범은 매년 사건 수의 증감은 있으나 2017년 이후 꾸준히 1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성폭력사범은 매년 1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7% 아래로 하락하였다.

표 2-4-23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1,594	135	50	443	49	111	6	3	184	6	607
	100%	8.5%	3.1%	27.8%	3.1%	7.0%	0.4%	0.2%	11.5%	0.4%	38.1%
2015	1,561	149	36	396	46	79	5	14	165	8	663
	100%	9.5%	2.3%	25.4%	2.9%	5.1%	0.3%	0.9%	10.6%	0.5%	42.5%
2016	1,555	154	66	307	88	98	7	13	140	7	675
	100%	9.9%	4.2%	19.7%	5.7%	6.3%	0.5%	0.8%	9.0%	0.5%	43.4%

사범 연도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7	1,920	193	81	362	97	72	6	12	221	5	871
	100%	10.1%	4.2%	18.9%	5.1%	3.8%	0.3%	0.6%	11.5%	0.3%	45.4%
2018	1,496	170	58	186	101	39	5	3	165	5	764
	100%	11.4%	3.9%	12.4%	6.8%	2.6%	0.3%	0.2%	11.0%	0.3%	51.1%
2019	1,442	149	65	177	74	37	4	2	149	5	780
	100%	10.3%	4.5%	12.3%	5.1%	2.6%	0.3%	0.1%	10.3%	0.3%	54.1%
2020	1,365	171	60	177	65	38	1	1	90	3	759
	100%	12.5%	4.4%	13.0%	4.7%	2.8%	0.1%	0.1%	6.6%	0.2%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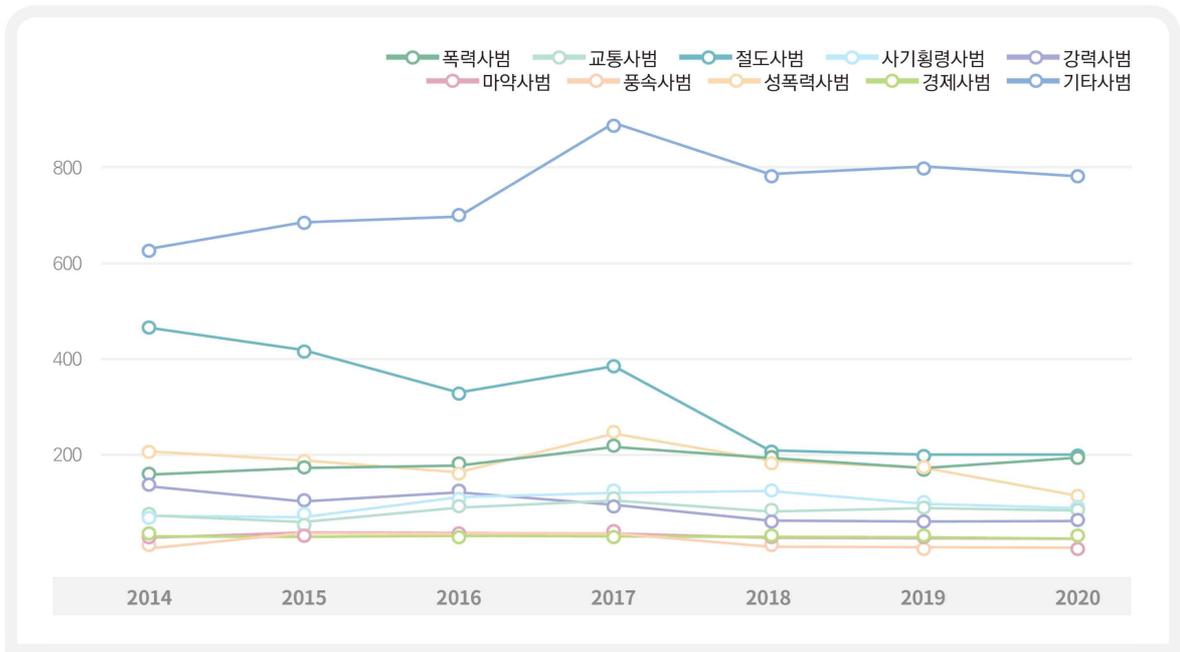


그림 2-4-9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2)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

- 2020년 환경조사 접수사건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남성이 1,117건(81.8%)으로 여성(248건, 18.2%)보다 약 4.5배 많았고, 성인이 14건(1.0%)으로 소년(1,351건, 99.0%)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2017년을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며 여성은 2014년(184건, 11.5%)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소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1,4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된 것에 비해 성인은 2014년 106건(6.6%)에서 2020년 14건(1.0%)으로 감소하였다.

표 2-4-24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소년	성인
2014	1,594	1,410	184	1,488	106
	100%	88.5%	11.5%	93.4%	6.6%
2015	1,561	1,348	213	1,486	75
	100%	86.4%	13.6%	95.2%	4.8%
2016	1,555	1,330	225	1,473	82
	100%	85.5%	14.5%	94.7%	5.3%
2017	1,920	1,670	250	1,851	69
	100%	87.0%	13.0%	96.4%	3.6%
2018	1,496	1,239	257	1,472	24
	100%	82.8%	17.2%	98.4%	1.6%
2019	1,442	1,185	257	1,430	12
	100%	82.2%	17.8%	99.2%	0.8%
2020	1,365	1,117	248	1,351	14
	100%	81.8%	18.2%	99.0%	1.0%

- 환경조사 접수사건을 성인 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4-25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1,594	1,304	184	106	0
	100%	87.6%	12.4%	100%	0.0%
2015	1,561	1,273	213	75	0
	100%	85.7%	14.3%	100%	0.0%

연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6	1,555	1,248	225	82	0
	100%	84.7%	15.3%	100%	0.0%
2017	1,920	1,602	249	68	1
	100%	86.5%	13.5%	98.6%	1.4%
2018	1,496	1,215	257	24	0
	100%	82.5%	17.5%	100%	0.0%
2019	1,442	1,173	257	12	0
	100%	82.0%	18.0%	100%	0.0%
2020	1,365	1,105	246	12	2
	100%	81.8%	18.2%	85.7%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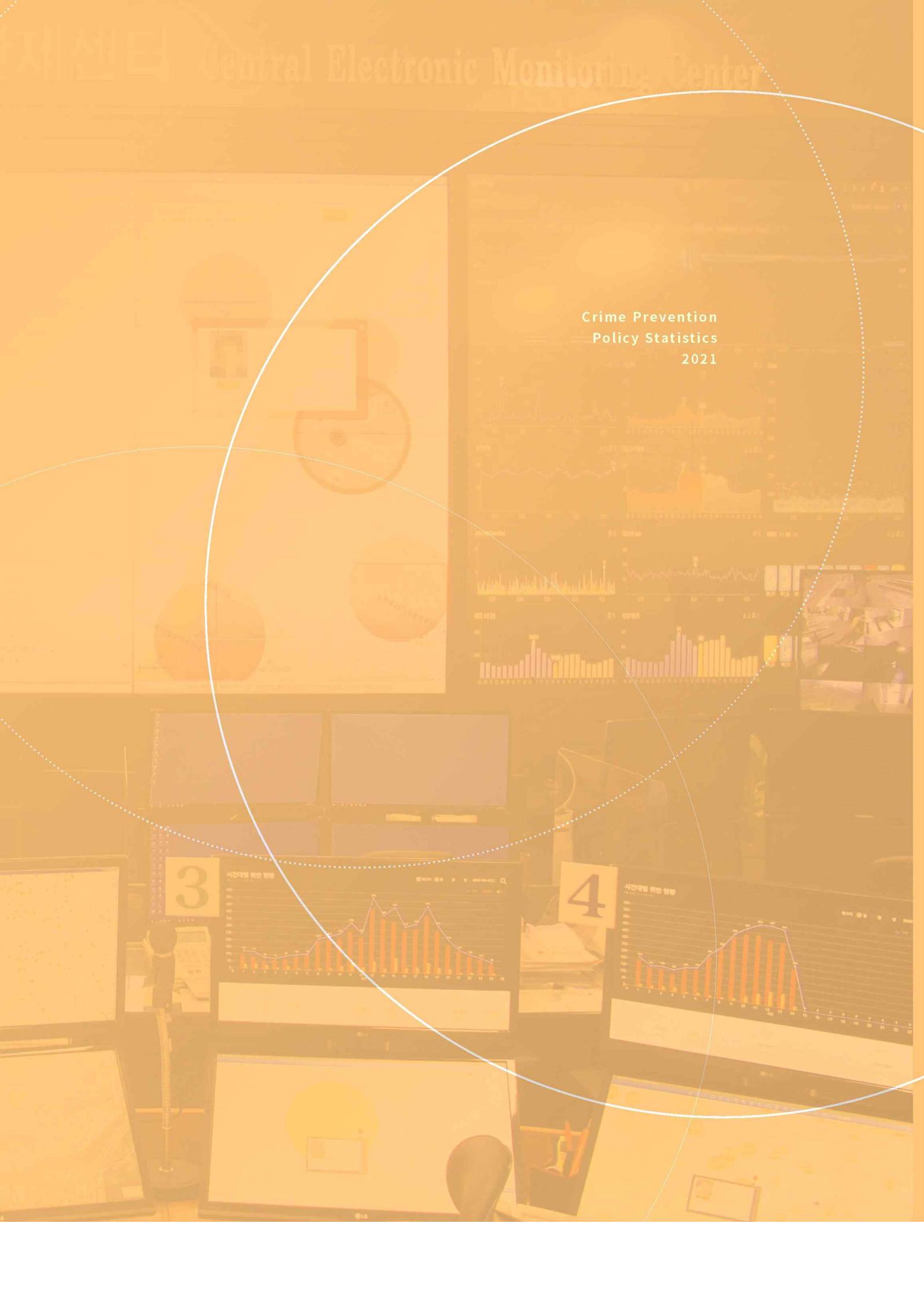
Chapter 3

# 전자감독

제1절 전자감독

제2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전자감독

### ➔ 전자감독제도 개요

- ▶ 전자감독제도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함께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의 위치확인을 병행함으로써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되었다.
- ▶ 1989년 7월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후 30여 년간의 보호관찰 역사에서 대전환을 이룬 계기로, 1997년 1월 「형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전체 형사범에게 확대하여 실시된 것과 함께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이 그만큼 보호관찰제도에서 전자감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
-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범죄는 2008년 제도 도입 초기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었다가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2년 강도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범위가 기존의 특정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고, 형사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제도도 시행되었다.

### ➔ 외국 전자감독제도와의 비교

- ▶ 외국의 전자감독은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및 사회내처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범죄자를 중심으로 가택구금 또는 외출제한명령 감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 ▶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은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형사정책으로 도입되어 점차 그 활용 목적 및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의 중간 단계로서 독립적인 사법 제도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등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제3의 길을 열고 있다.

## 1 접수 현황<sup>24)</sup>

### 1) 범죄유형별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전자감독 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일반범죄 : 특정범죄를 제외한 범죄
- 특정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 2020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범죄가 1,525건(64.0%), 특정범죄가 858건(36.5%)이었고, 특정범죄로는 성폭력범죄 417건(17.5%), 살인범죄 311건(13.0%), 강도범죄 128건(5.4%), 미성년자 유괴범죄 2건(0.1%)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범죄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4년에 전체 접수사건의 60.6%를 차지하다가 2015년 이후 45%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일반범죄가 접수되면서 비율이 감소하였다. 살인범죄는 2015년까지 30% 미만을 보였고 2016년 이후 3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체사건 중 비율이 전년보다 23.4% 감소하였다. 강도범죄도 2019년까지 14~24%의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5%대로 비중이 줄었다.

- ➔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가석방자 전자감독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하다가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 가석방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0년부터 전자감독 접수사건에 일반범죄가 포함되었고, 사건 수도 특정범죄의 총 접수사건을 넘어섰다.

24)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제외

표 3-1-1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4~2020)

연도	범죄유형	계	일반범죄	특정범죄				
				소계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2014		950	-	950	570	2	229	149
		100%	-	100%	60.0%	0.2%	24.1%	15.7%
2015		836	-	836	390	2	244	200
		100%	-	100%	46.7%	0.2%	29.2%	23.9%
2016		1,133	-	1,133	435	2	451	245
		100%	-	100%	38.4%	0.2%	39.8%	21.6%
2017		1,154	-	1,154	504	5	417	228
		100%	-	100%	43.7%	0.4%	36.1%	19.8%
2018		929	-	929	392	2	397	138
		100%	-	100%	42.2%	0.2%	42.7%	14.9%
2019		830	-	830	368	2	302	158
		100%	-	100%	44.3%	0.2%	36.4%	19.1%
2020		2,383	1,525	858	417	2	311	128
		100%	64.0%	36.0%	17.5%	0.1%	13.0%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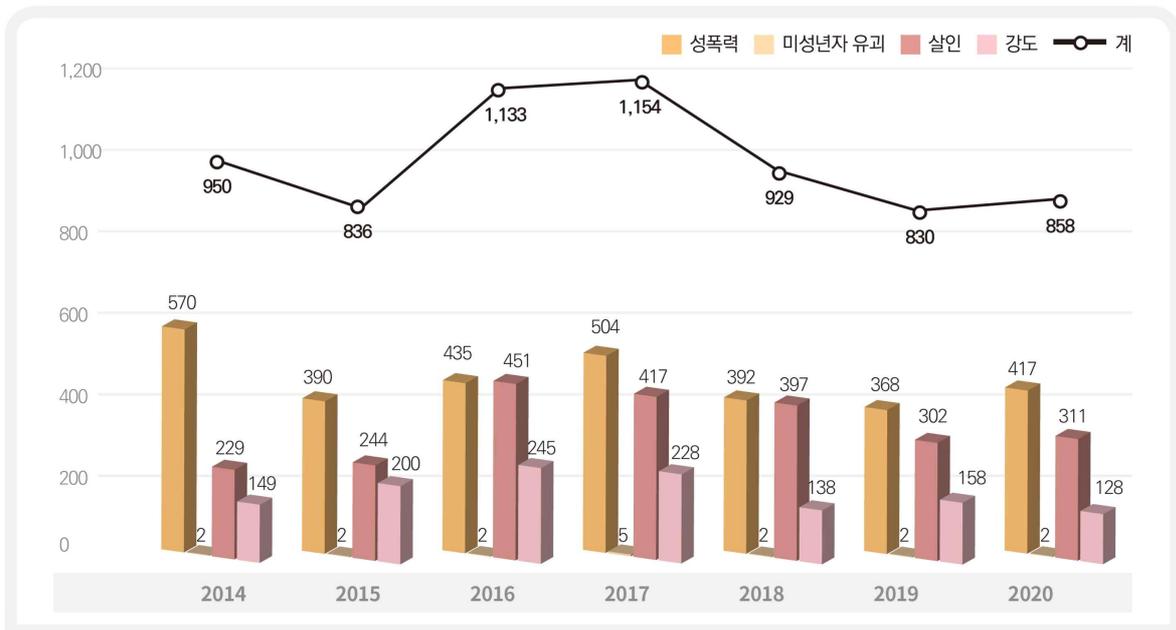


그림 3-1-1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4~2020)

## 2) 처분유형별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전자감독 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

### 지표정의

- 가석방 : 「형집행법」 제122조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석방이 결정되어 출소한 대상자의 사건
- 가중료 :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심의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중료가 결정되어 출소한 대상자의 사건
- 가출소 : 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한 보호감호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출소가 결정되어 출소한 대상자의 사건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및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사건
- 형기종료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 의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사건

- 2020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가석방이 1,895건(7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형기종료 428건(17.9%), 치료감호 가중료 49건(2.1%), 집행유예 6건(0.3%), 가출소 5건(0.2%)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에서, 가석방은 2014년 347건(36.5%)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403건에서 최대 599건을 보이며 전체의 50% 내외를 차지하였다가 가석방 전자감독이 일반범죄로까지 확대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62.2% 급증하였다.
- 형기종료는 2014년 539건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61~461건(35.4~43.9%)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사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가석방 사건의 증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하로 감소하였다.
- 가중료는 매년 접수사건의 편차가 있어, 2014년 24건(2.5%)에서 2016년 100건(8.8%)과 2017년 91건(7.9%)을 기록하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0건(2.1~4.9%)대에 머물고 있다. 가출소는 2014년 23건, 2016년 26건, 2017년 30건 등을 제외하고는 20건 미만이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1-2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연도	처분유형	계	가석방	가중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기종료		
							소계	일반	소급
2014		950	347	24	23	17	539	241	298
		100%	36.5%	2.5%	2.4%	1.8%	56.8%	25.4%	31.4%
2015		836	403	44	17	5	367	263	104
		100%	48.2%	5.3%	2.0%	0.6%	43.9%	31.5%	12.4%
2016		1,133	599	100	26	7	401	333	68
		100%	52.9%	8.8%	2.3%	0.6%	35.4%	29.4%	6.0%
2017		1,154	560	91	30	12	461	382	79
		100%	48.5%	7.9%	2.6%	1.0%	40.0%	33.1%	6.8%
2018		929	535	41	13	9	331	301	30
		100%	57.6%	4.4%	1.4%	1.0%	35.6%	32.4%	3.2%
2019		830	410	41	7	11	361	340	21
		100%	49.4%	4.9%	0.9%	1.3%	43.5%	41.0%	2.5%
2020		2,383	1,895	49	5	6	428	392	36
		100%	79.5%	2.1%	0.2%	0.3%	17.9%	16.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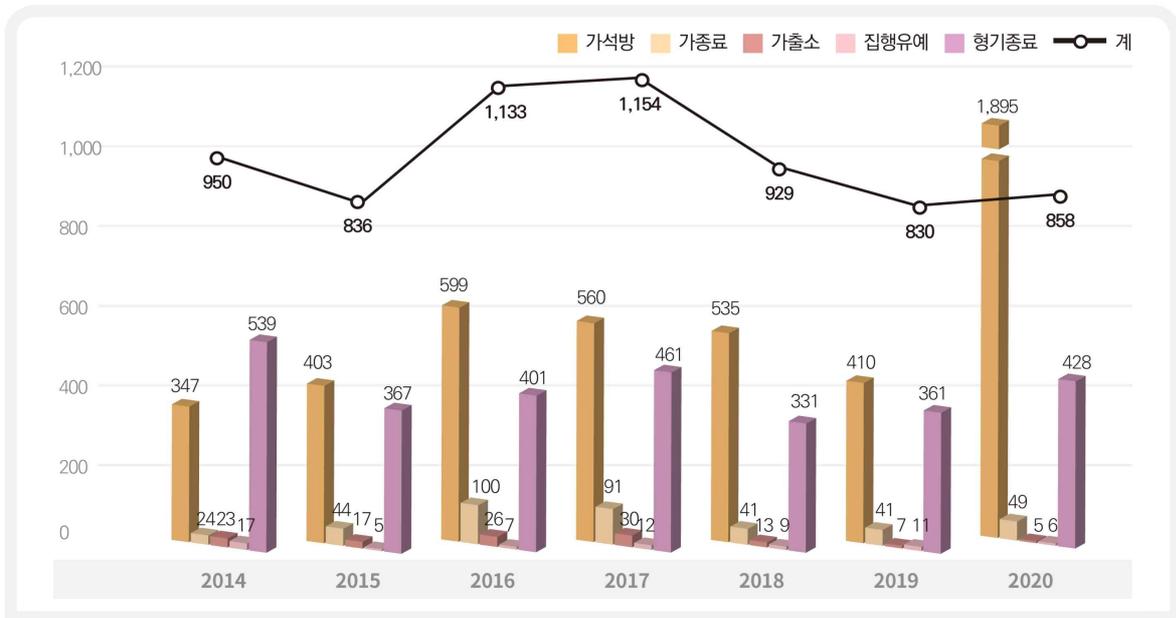


그림 3-1-2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 3)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른 현황

-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3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 현황(2014~2020)

연도	총계	범죄유형	처분유형							
			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기종료		
								소계	일반	소급
2014	950	성폭력	570	0	11	20	17	522	224	298
		미성년자 유괴	2	0	0	0	0	2	2	
		살인	229	202	12	0	0	15	15	
		강도	149	145	1	3	0	0	0	
2015	836	성폭력	390	0	13	11	4	362	258	104
		미성년자 유괴	2	0	0	1	0	1	1	
		살인	244	215	22	3	1	3	3	
		강도	200	188	9	2	0	1	1	
2016	1,133	성폭력	435	0	31	12	7	385	317	68
		미성년자 유괴	2	0	2	0	0	0	0	
		살인	451	377	57	1	0	16	16	
		강도	245	222	10	13	0	0	0	
2017	1,154	성폭력	504	3	37	15	11	438	359	79
		미성년자 유괴	5	1	0	0	0	4	4	
		살인	417	362	38	4	1	12	12	
		강도	228	194	16	11	0	7	7	
2018	929	성폭력	392	46	17	7	7	315	285	30
		미성년자 유괴	2	1	0	0	0	1	1	
		살인	397	359	21	1	2	14	14	
		강도	138	129	3	5	0	1	1	
2019	830	성폭력	368	0	14	2	9	343	322	21
		미성년자 유괴	2	1	0	0	1			
		살인	302	272	15	1	1	13	13	
		강도	158	137	12	4	0	5	5	
2020	2,383	성폭력	417	1	12	1	6	397	361	36
		미성년자 유괴	2	0	0	0	0	2	2	
		살인	311	262	32	0	0	17	17	
		강도	128	107	5	4	0	12	12	
		일반범죄	1,525	1,525	0	0	0	0	0	

#### 4) 전자장치 부착기간별 현황

- 2020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을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3월 미만이 1,137건(47.7%), 3월 이상~6월 미만이 422건(17.7%), 6월 이상~1년 미만과 1년 이상~5년 미만이 각각 218건(9.2%), 5년 이상~10년 미만이 107건(4.5%),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47건(10.4%), 20년 이상~30년 미만이 34건(1.4%) 등이었다.

표 3-1-4 전자장치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14~2020)

기간 연도	접수자	3월 미만	3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2014	950	55	127	93	273	284	113	5	0
	100%	5.8%	13.4%	9.8%	28.7%	29.9%	11.9%	0.5%	0.0%
2015	836	92	198	110	133	167	133	3	0
	100%	11.0%	23.7%	13.2%	15.9%	20.0%	15.9%	0.4%	0.0%
2016	1,133	90	188	237	282	184	141	11	0
	100%	7.9%	16.6%	20.9%	24.9%	16.3%	12.4%	1.0%	0.0%
2017	1,154	84	181	151	345	176	194	23	0
	100%	7.3%	15.7%	13.1%	29.9%	15.2%	16.8%	2.0%	0.0%
2018	929	60	140	159	243	90	216	21	0
	100%	6.5%	15.1%	17.1%	26.2%	9.7%	23.2%	2.2%	0.0%
2019	830	42	93	138	219	133	181	24	0
	100%	5.1%	11.2%	16.6%	26.4%	16.0%	21.8%	2.9%	0.0%
2020	2,383	1,137	422	218	218	107	247	34	0
	100%	47.7%	17.7%	9.1%	9.1%	4.5%	10.4%	1.5%	0%

#### 5) 성별 현황

- 2020년에 접수된 전자감독 사건 중 남성이 2,239건(94.0%), 여성이 144건(6.0%)이었다. 남성사건은 전년 대비 2.8배, 여성은 6배 증가한 것으로, 여성사건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표 3-1-5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8~2020)

연도	성별	계	여성	남성
2018		929	40	889
		100%	4.3%	95.7%
2019		830	24	806
		100%	2.9%	97.1%
2020		2,383	144	2,239
		100%	6.0%	94.0%

## 6)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 현황

- 2020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여성사건의 경우 일반범죄가 70.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살인이 27.1%, 강도가 2.8% 등의 순이었고 성폭력은 없었다. 반면, 남성사건의 경우 일반범죄가 63.6%로 가장 많은 것은 여성사건과 동일하였지만, 성폭력 18.6%, 살인 12.2%, 강도 5.5% 등으로, 성폭력과 강도의 비중이 높았다.

표 3-1-6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현황(2018~2020)

연도	구분	성별	사범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일반범죄
2018	여성		0	0	36	4	-
			0.0%	0.0%	90%	10%	-
	남성		392	2	361	134	-
			44.1%	0.2%	40.6%	15.1%	-
2019	여성		0	0	22	2	-
			0.0%	0.0%	91.7%	8.3%	-
	남성		368	2	280	156	-
			45.7%	0.2%	34.7%	19.4%	-
2020	여성		0	0	39	4	101
			0.0%	0.0%	27.1%	2.8%	70.1%
	남성		417	2	272	124	1,424
			18.6%	0.1%	12.2%	5.5%	63.6%

## 7)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 현황

- 2020년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여성 사건의 경우 가석방이 133건(9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가중료가 10건(6.9%), 형기종료가 1건(0.7%)이었다. 남성사건에서도 가석방이 1,762건(78.7%)으로 가장 많은 것은 여성사건과 동일하였지만, 그 외 형기종료가 427건(19.1%)이었고, 가중료 39건(1.7%), 집행유예 6건(0.3%) 등으로, 형기종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7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별 현황(2018~2020)

연도	구분	성별	가중료	가출소	가석방	형기종료	집행유예
2018	여성		6	0	34	0	0
			15.0%	0.0%	85.0%	0.0%	0.0%
	남성		35	13	456	376	9
			3.9%	1.5%	51.3%	42.3%	1.0%
2019	여성		1	0	23	0	0
			4.2%	0.0%	95.8%	0.0%	0.0%
	남성		40	7	387	361	11
			4.9%	0.9%	48.0%	44.8%	1.4%
2020	여성		10	0	133	1	0
			6.9%	0.0%	92.4%	0.7%	0.0%
	남성		39	5	1,762	427	6
			1.7%	0.2%	78.7%	19.1%	0.3%

## 2 실시사건 및 현재원 현황<sup>25)</sup>

### 1) 실시사건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실시 중인 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 사건)
- 일반범죄 : 특정범죄를 제외한 범죄
- 특정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 2020년 전자감독 실시사건은 총 6,052건으로,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성폭력이 3,23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범죄 1,653건(27.3%), 살인 865건(14.3%), 강도 277건(4.6%), 미성년자 유괴 18건(0.3%) 등의 순 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실시사건은 2015년까지 연간 3,500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4,000건을 넘어 2018년에는 4,668건, 2019년에는 4,563건 등이었고, 2020년에는 일반범죄에 대한 가석방의 도입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다.

25)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 포함

표 3-1-8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2014~2020)

연도	사범	일반범죄	계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2014		-	3,260	2,370	4	705	181
		-	100%	72.7%	0.1%	21.6%	5.6%
2015		-	3,598	2,650	8	585	355
		-	100%	73.6%	0.2%	16.3%	9.9%
2016		-	4,066	2,894	7	761	404
		-	100%	71.2%	0.2%	18.7%	9.9%
2017		-	4,350	3,046	16	925	363
		-	100%	70.0%	0.4%	21.3%	8.3%
2018		-	4,668	3,270	17	1,034	347
		-	100%	70.0%	0.4%	22.2%	7.4%
2019		-	4,563	3,239	18	971	335
		-	100%	71.0%	0.4%	21.3%	7.3%
2020	일반범죄	1,653	6,052	3,239	18	865	277
		27.3%	100%	53.5%	0.3%	14.3%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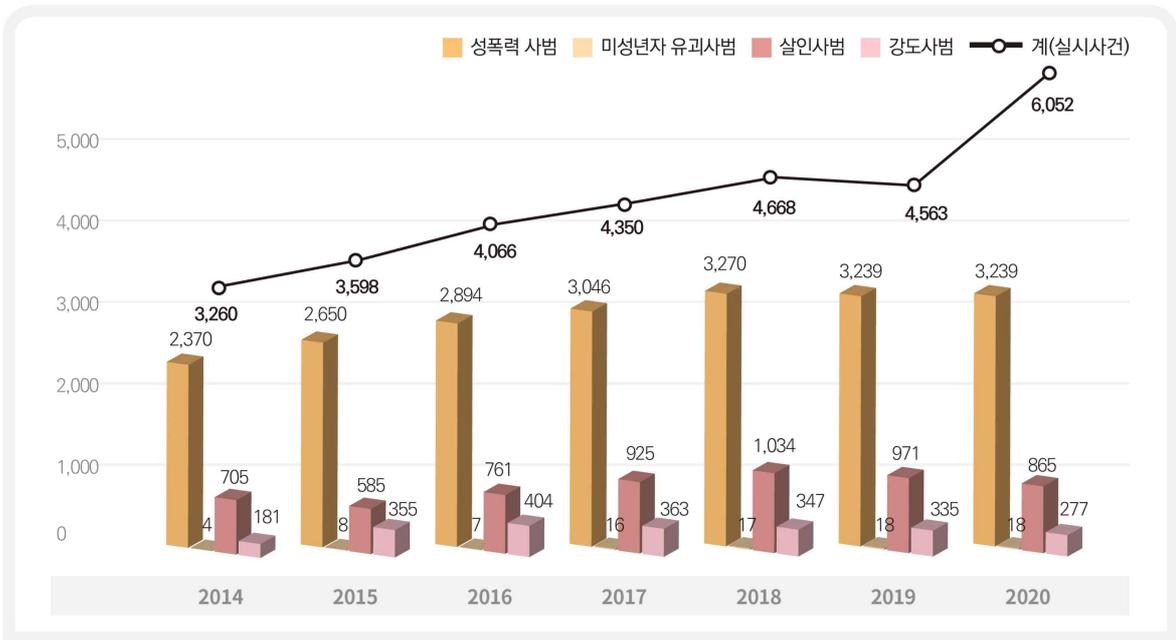


그림 3-1-3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2014~2020)

## 2) 현재원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사건 현황

-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전자감독 현재원은 4,052건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하였다. 전자감독 현재원은 2019년에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4년의 2,129명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표 3-1-9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현재원(명)	2,129	2,313	2,696	2,981	3,126	3,057	4,052
전년 대비 증감률	-	8.6%	16.6%	10.6%	4.9%	2.2%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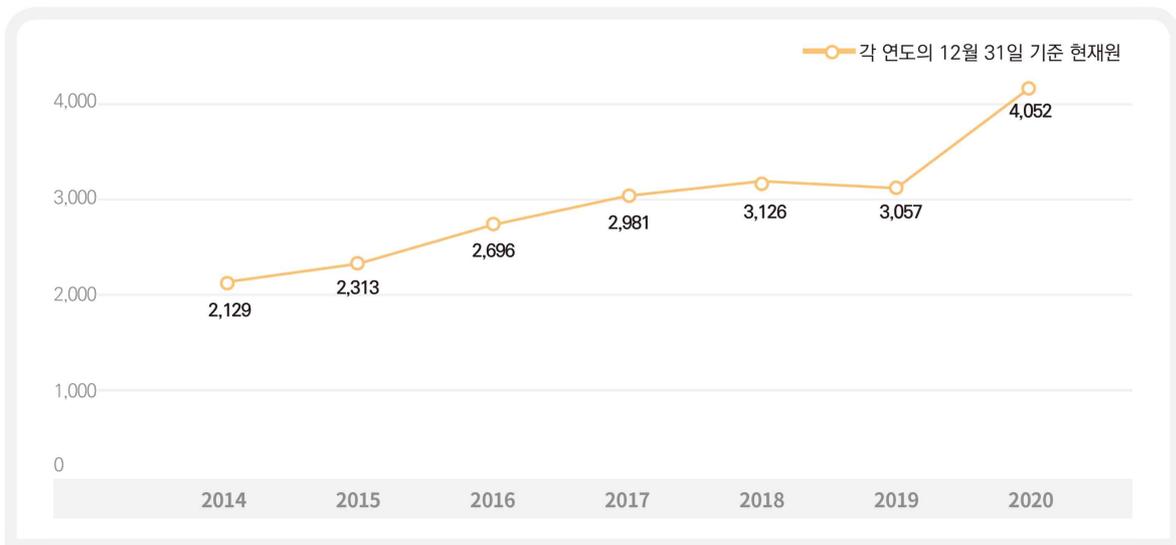


그림 3-1-4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4~2020)

## 3)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

- 2020년 전자감독 현재원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40대가 1,176건(29.0%), 50대가 1,129건(27.9%)으로 40~50대가 전체의 56.9%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30대가 796건(19.6%), 20대가 315건(7.8%)으로 20~30대는 총 27.4%이었으며, 60대가 528건(13.0%), 70대가 94건(2.3%), 80세 이상 14건(0.4%) 등으로 60대 이상이 15.7%를 차지하였다.
- 최근 7년간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비율은 각각 연간 25%와 30%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20대는 2017년까지 12%를 유지하다 2018년부터 7% 내외로 감소하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10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령 연도	연도말 현재원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2014	2,129	19	248	675	660	405	96	21	5
	100%	0.9%	11.7%	31.7%	31.0%	19.0%	4.5%	1.0%	0.2%
2015	2,313	21	285	666	783	435	94	27	2
	100%	0.9%	12.3%	28.8%	33.8%	18.8%	4.1%	1.2%	0.1%
2016	2,696	25	323	748	899	533	132	35	1
	100%	0.9%	12.0%	27.7%	33.4%	19.8%	4.9%	1.3%	0.0%
2017	2,981	22	365	816	976	592	162	42	6
	100%	0.7%	12.3%	27.4%	32.7%	19.9%	5.4%	1.4%	0.2%
2018	3,126	2	212	749	966	853	265	70	9
	100%	0.1%	6.8%	23.9%	30.9%	27.3%	8.5%	2.2%	0.3%
2019	3,057	1	218	759	957	804	252	58	8
	100%	0.0%	7.1%	24.8%	31.3%	26.3%	8.3%	1.9%	0.3%
2020	4,052	0	315	796	1,176	1,129	528	94	14
	100%	0.0%	7.8%	19.6%	29.0%	27.9%	13.0%	2.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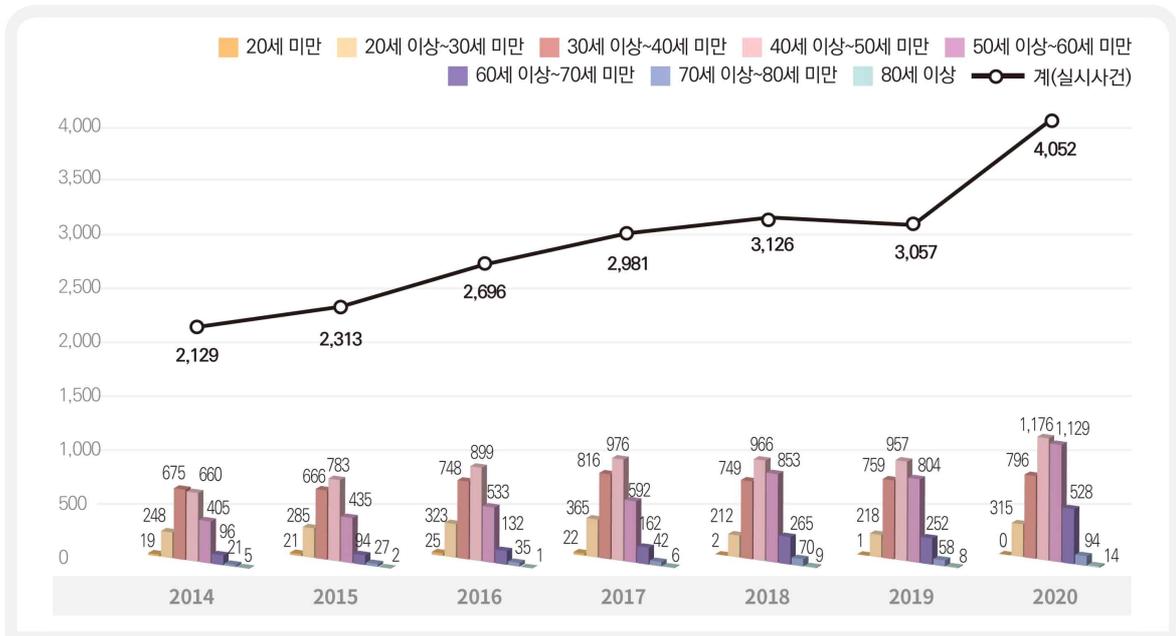


그림 3-1-5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3 처우 프로그램 및 원호 현황

#### 1)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

<b>개 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중인 대상자에게 실시한 재범방지과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프로그램 현황 추이</li> </ul>
<b>지표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치료 프로그램 : 심리치료전문가의 일대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li> <li>■ 체험형 심신안정 프로그램 : 산행 및 숲체험, 영화 및 공연 감상, 스포츠 활동, 가족과 외출, 기념일 챙겨주기 등</li> </ul>

-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과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8,809회가 실시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 총 14,427회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5%가 감소하여 총 9,740회가 실시되었다.
- 프로그램을 처우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매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70~80%를, 체험형 프로그램이 20~30%를 차지하였다

표 3-1-11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6~2020)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809	11,241	13,756	14,427	9,740
	100%	100%	100%	100%	100%
심리치료 프로그램	6,967	9,316	10,620	10,144	6,763
	79.1%	82.9%	77.2%	70.3%	69.4%
체험형 프로그램	1,842	1,925	3,136	4,283	2,977
	20.9%	17.1%	22.8%	29.7%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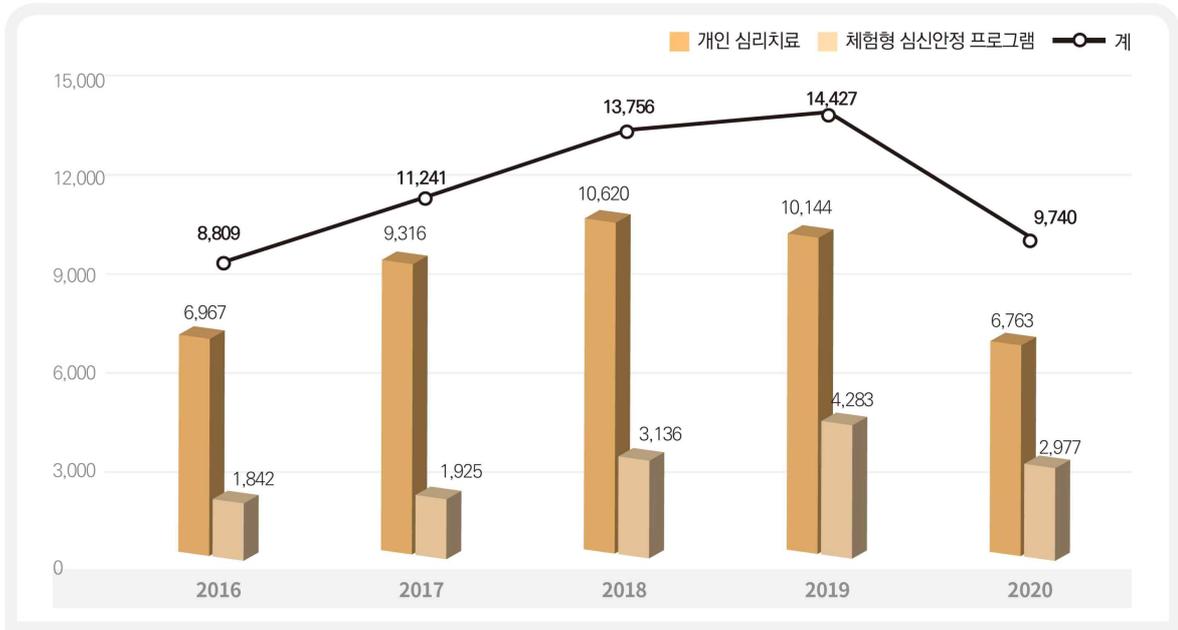


그림 3-1-6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6~2020)

## 2) 원호 실시 현황

###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실시한 자립지원 및 원호 실시 현황 추이

### 지표정의

- 경제구호 : 물품지원 등 경제적 자립 지원
- 숙소알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소연계 등 자립을 위한 숙소알선
- 취업알선 : 직업능력(적성)을 고려한 취업체 알선
- 직업훈련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훈련 및 자격 취득 지원
- 복학주선 : 학업연계를 위한 학교 복학 주선
- 문신제거 : 사회복귀를 위한 문신제거 지원
- 수급권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센터와 연계한 수급권지원
- 기타 : 그 밖에 자립지원 및 원호

- 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위해 총 17,893건의 원호가 실시되었다. 원호의 방법으로 경제구호가 17,320건(694,668,000원)으로 96.9%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기타원호 341건(1.9%), 직업훈련 71건(0.4%), 수급권 지원 61건(0.4%), 숙소알선 60건(0.3%), 취업알선 19건(0.1%), 문신제거 1건(0.0%) 등이 있었다.
- 최근 7년간의 원호 현황을 살펴보면, 원호 건수는 2014년 4,955건에서 매년 전년 대비 15~20%의 증가율을 보여왔고, 특히 2019년(72.6%)과 2020년(36.2%)의 증가 폭이 컸다. 원호 방법 중

경제적 구호의 실시 건수와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숙소 알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표 3-1-12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구분							
			경제구호	숙소알선	취업알선	직업훈련	복학주선	문신제거	수급권지원	기타
2014		4,955	4,341	74	36	64	1	7	94	338
		100%	87.6%	1.5%	0.7%	1.3%	0.0%	0.2%	1.9%	6.8%
2015		5,951	5,353	61	43	53	0	4	72	365
		100%	90.0%	1.0%	0.7%	0.9%	0.0%	0.1%	1.2%	6.1%
2016		5,680	5,009	65	42	61	0	4	84	415
		100%	88.2%	1.1%	0.7%	1.1%	0.0%	0.1%	1.5%	7.3%
2017		6,613	6,079	71	23	49	0	2	90	299
		100%	91.9%	1.1%	0.4%	0.7%	0.0%	0.0%	1.4%	4.5%
2018		7,601	7,062	68	47	128	1	1	83	211
		100%	92.9%	0.9%	0.6%	1.7%	0.0%	0.0%	1.1%	2.8%
2019		13,121	12,582	59	28	99	0	0	99	254
		100%	95.9%	0.4%	0.2%	0.8%	0.0%	0.0%	0.8%	1.9%
2020		17,873	17,320	60	19	71	0	1	61	341
		100%	96.9%	0.3%	0.1%	0.4%	0.0%	0.0%	0.4%	1.9%

표 3-1-13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제구호 금액 현황(2014~2020)

(단위 : 천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구호금액	338,315	403,907	323,422	376,481	515,269	700,963	694,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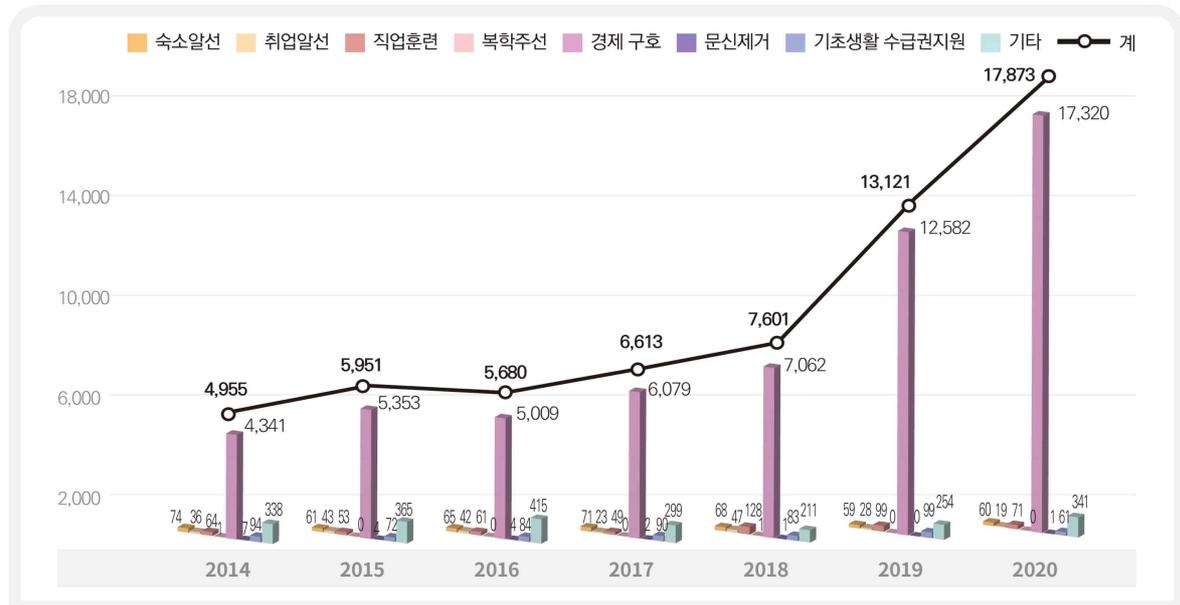


그림 3-1-7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실시 현황(2014~2020)

## 4 전자감독기간 중 재범

### 1) 특정범죄 재범 현황

- 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감독기간 중 특정범죄로 재범한 비율은 1.68%이며, 최근 7년간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감독기간 중 특정범죄 재범률은 2% 이내로 억제되고 있다.

표 3-1-14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률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특정범죄 재범률	1.60%	1.72%	1.70%	1.77%	2.01%	1.97%	1.68%
특정범죄 재범건수	52	62	69	77	94	90	74
전자감독 특정범죄 실시사건	3,260	3,598	4,066	4,350	4,668	4,563	4,399

※ 특정범죄: 성폭력, 미성년자유괴, 살인, 강도범죄

### 2)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재범 현황

-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감독기간 중 동종범죄로 재범한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2.1%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 2.53%를 기록하였지만, 2019년에는 1.70%, 2020년에는 1.2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표 3-1-1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재범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동종 재범률	2.03%	2.00%	2.00%	2.17%	2.53%	1.70%	1.27%
동종재범사건	48	53	58	66	83	55	41
성폭력 실시사건	2,370	2,650	2,894	3,046	3,270	3,239	3,239

## 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

- 2020년에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은 총 144건이 접수되었고 51건이 종료되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원은 총 93건이었다.

➔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 확대, 미결구금 부작용 해소 및 교정시설 과밀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9년 8월부터 시범실시되었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다

표 3-1-16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

구분	접수사건*	실시사건	종료	현재원
사건수	144	144	51	93

\* 2020년 3분기 이전의 시범실시 기간의 33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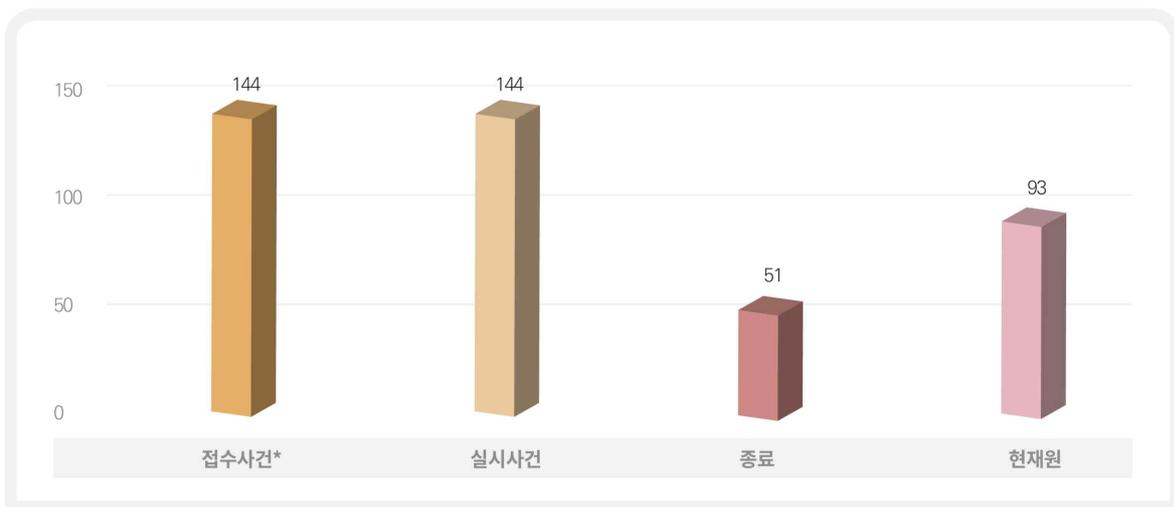


그림 3-1-8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sup>26)</sup>

## 1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현황

## 개 요

- 해당연도 등록되는 신규등록사건 및 종료사건, 연도말 기준 관리 중인 사건, 누적등록사건 등 현황

## 지표정의

- 전년 이월 : 이전연도 12월 31일 기준 관리 사건
- 신규 등록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등록사건 수
- 등록 종료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료사건 수
- 실시 사건 : 해당연도에 관리된 모든 사건(전년 이월+신규 등록)
- 관리 사건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관리 중인 사건
- 누적등록사건 : 제도시행 이후 누적 신규등록사건 수

- 2020년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사건이 13,071건, 등록 종료사건이 1,558건, 전년에서 이월된 등록사건이 82,647건으로, 실시사건이 95,718건, 관리사건이 94,160건, 누적 등록사건이 총 100,935건 등이었다.
- 최근 7년간 실시사건과 관리사건은 매년 10,000건 이상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1.9%,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22~27%, 2019년과 2020년에는 13.9~16.3% 증가하였다. 등록 종료사건은 2014년 172건, 2015년 387건이었다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20% 이상 급증하여 최초로 1,000건 이상을 기록한 이후 2018년부터 전년 대비 12~22% 증가하고 있다.
- 최근 7년간 등록사건 추이를 보면, 2014년 23,875건이던 관리사건이 연평균 11,000여 건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4년에 비해 294.4% 급증하였다.

26)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표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등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전년 이월	신규 등록	등록 종료	실시사건*	관리 사건**	누적등록사건***
2014		13,628	10,419	172	24,047	23,875	24,087
2015		23,875	12,779	387	36,654	36,267	36,866
2016		36,267	11,423	1,275	47,690	46,415	48,289
2017		46,415	12,614	976	59,029	58,053	60,903
2018		58,053	14,053	1,094	72,106	71,012	74,956
2019		71,012	12,908	1,273	83,920	82,647	87,864
2020		82,647	13,071	1,558	95,718	94,160	100,935

\* 실시사건은 전년 이월과 신규 등록의 합  
 \*\* 관리 사건은 연도말 기준 인원으로, 실시사건에서 등록종료 제외  
 \*\*\* 누적등록사건은 관리 사건과 누적 종료 사건의 합(2014년 이전 누적 종료 사건 : 4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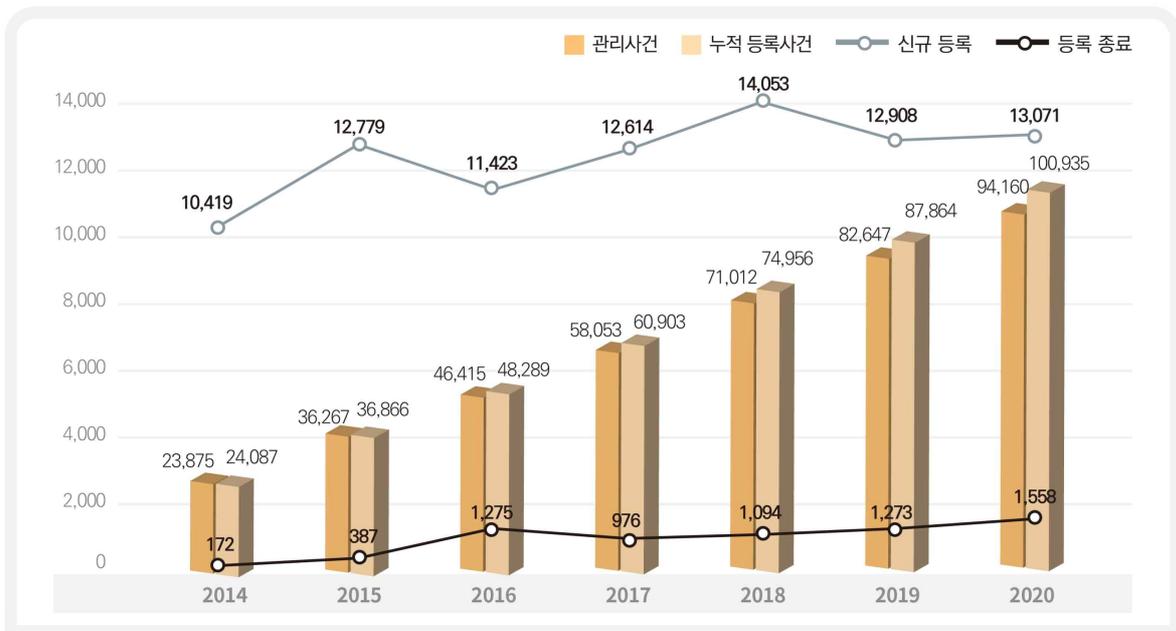


그림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누적 등록사건 등 현황(2014~2020)

## 2 등록사건 유형별 현황

### 개 요

- 해당연도 관리 중인 신상정보 등록사건의 유형 및 현황

### 지표정의

- 등록 : 단독등록사건
- 등록·공개 : 등록 및 공개명령을 받은 사건
- 등록·공개·고지 :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모두 받은 사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사건은 총 94,160건이며, 등록 유형별로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없이 단순등록 사건이 87,083건(92.5%),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사건이 287건(0.3%), 등록·공개·고지 사건이 6,790건(7.2%) 등이었다.  
※ 공개 및 고지는 등록을 전제로 함
- 최근 7년간의 등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사건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개 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공개·고지 사건 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 감소하였다.

표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건의 유형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등록	등록·공개	등록·공개·고지
2014		23,875	15,156	1,711	7,008
		100%	63.5%	7.2%	29.3%
2015		36,267	26,765	1,221	8,281
		100%	73.8%	3.4%	22.8%
2016		46,415	37,343	714	8,358
		100%	80.5%	1.5%	18.0%
2017		58,053	49,568	536	7,949
		100%	85.4%	0.9%	13.7%
2018		71,012	62,935	408	7,669
		100%	88.6%	0.6%	10.8%
2019		82,647	75,048	338	7,261
		100%	90.8%	0.4%	8.8%
2020		94,160	87,083	287	6,790
		100%	92.5%	0.3%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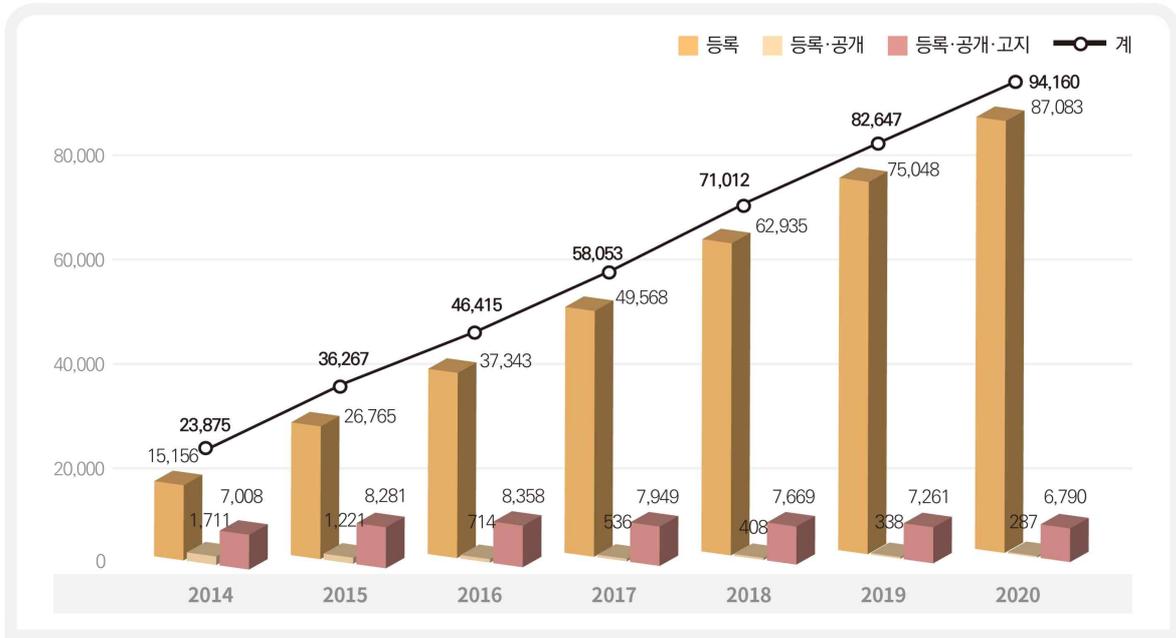


그림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건의 유형별 현황과 추이(2014~2020)

### 3 신규 등록사건 죄명별 현황

#### 개 요

- 해당연도 접수된 신규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

#### 지표정의

-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신규등록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죄명별로 분류

- 2020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을 죄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강제추행이 7,032건으로 53.8%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강간 등이 2,340건(17.9%), 카메라등이용촬영이 2,179건(16.7%), 공중밀집장소추행이 514건(3.9%)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성매수 188건(1.4%), 음란물제작배포가 169건(1.3%), 아동성학대 156건(1.2%), 성적목적침입이 132건(1.0%),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17건(0.9%) 등이었다.

표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2014~2020)

구분 연도	계	강간 등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침입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아동성 학대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성착취물 소지 등
2014	10,419	3,246	4,358	1,187	646	285	138	149	42	18	255	56	39	-
	100%	31.2%	41.8%	11.4%	6.2%	2.7%	1.3%	1.4%	0.4%	0.2%	2.4%	0.5%	0.4%	-
2015	12,779	3,234	5,870	1,593	837	397	220	107	88	30	228	59	116	-
	100%	25.3%	45.9%	12.5%	6.5%	3.1%	1.7%	0.8%	0.7%	0.2%	1.8%	0.5%	0.9%	-
2016	11,423	2,696	5,472	1,670	689	97	180	75	90	50	181	71	152	-
	100%	23.6%	47.9%	14.6%	6.0%	0.8%	1.6%	0.7%	0.8%	0.4%	1.6%	0.6%	1.3%	-
2017	12,614	2,424	6,338	2,067	772	88	50	76	71	105	358	90	175	-
	100%	19.2%	50.2%	16.4%	6.1%	0.7%	0.4%	0.6%	0.6%	0.8%	2.8%	0.7%	1.4%	-
2018	14,053	2,470	7,496	2,388	770	105	58	57	90	113	278	88	140	-
	100%	17.6%	53.3%	17.0%	5.5%	0.7%	0.4%	0.4%	0.6%	0.8%	2.0%	0.6%	1.0%	-
2019	12,908	2,306	6,869	2,252	603	101	104	109	107	132	183	48	94	-
	100%	17.9%	53.2%	17.4%	4.7%	0.8%	0.8%	0.8%	0.8%	1.0%	1.4%	0.4%	0.7%	-
2020	13,071	2,340	7,032	2,179	514	117	132	169	91	156	188	38	111	4
	100%	17.9%	53.8%	16.7%	3.9%	0.9%	1.0%	1.3%	0.7%	1.2%	1.4%	0.3%	0.9%	0.0%

## 4 재등록사건<sup>27)</sup> 현황

### 개 요

- 해당연도 접수된 최초 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최초 등록사건 : 해당연도 신규 등록된 사건 수
- 재등록사건 : 신상정보등록 관리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 수

- 2020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을 최초 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으로 구분하면, 최초 등록사건이 11,808건(90.3%), 재등록사건이 1,263건(9.7%)이었다.
- 최근 7년간 신규 등록사건 중 최초 등록사건은 사건수에서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 98.1%에서 2016년 95.2%, 2018년 93.1%, 2019년 91.5%, 2012년 90.3% 등을 기록하였다. 반면, 재등록 사건은 매년 사건 수의 증가와 함께 전체 신규 등록 사건

27) 재등록사건 : 신상정보등록 관리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 수

중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하여 2014년 1.9%에서 2017년 5.9%, 2019년 8.5%, 2020년 9.7% 이었다.

표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최초 등록사건	재등록사건
2014		10,419	10,222	197
		100%	98.1%	1.9%
2015		12,779	12,430	349
		100%	97.3%	2.7%
2016		11,423	10,873	550
		100%	95.2%	4.8%
2017		12,614	11,876	738
		100%	94.1%	5.9%
2018		14,053	13,086	967
		100%	93.1%	6.9%
2019		12,908	11,814	1,094
		100%	91.5%	8.5%
2020		13,071	11,808	1,263
		100%	90.3%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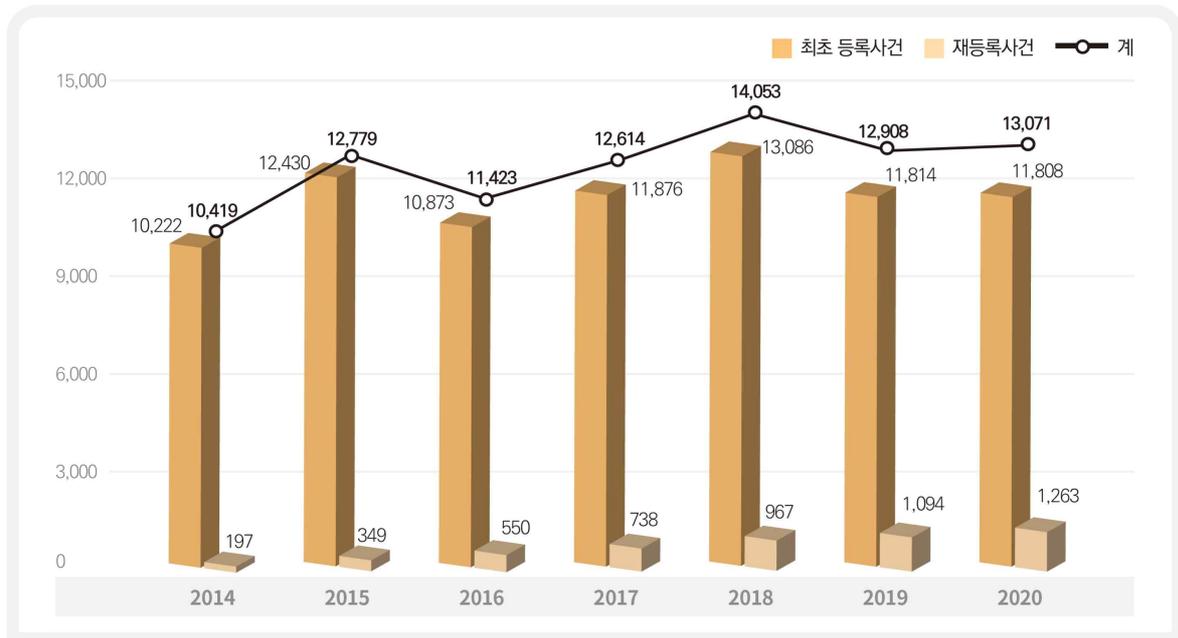


그림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4~2020)

## 5 등록 종료 현황

### 개 요

- 해당연도 종료된 신상정보 등록사건의 세부 현황

### 지표정의

- 등록기간경과 : 해당연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경과하여 종료된 사건
- 등록면제 : 신상정보등록기간 중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면제 요건에 해당하여 대상자의 신청으로 면제종료된 사건
- 사망 : 사망으로 종료된 사건
- 선고유예면소 : 법원 판결 시 선고를 유예하여 2년 경과 후 면소 및 종료된 사건
- 상소권회복 : 상소권이 회복되어 종료된 사건
- 정식재판청구 : 벌금 등의 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되었으나 대상자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종료된 사건

- 2020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종료사건은 총 1,558건이며, 종료 사유로는 사망이 598건 (38.4%), 등록기간경과가 354건(22.7%), 등록면제가 319건(20.5%), 선고유예 면소가 233건(14.9%)이었고, 그 외 정식재판청구가 27건(1.7%), 상소권 회복이 26건(1.7%), 기타 1건(0.1%)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등록 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에는 사망에 의한 종료와 기타 종료가 총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015년부터 선고유예 면소와 등록기간 경과 등에 의한 종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선고유예 면소에 의한 종료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의 45%에 육박하였고, 등록면제 종료까지 더하면 69.4%를 차지하였다. 2018년 이후 사망종료가 전체의 38~41%를 차지하면서 다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지만 선고유예 면소, 등록기간 경과, 등록면제 등에 의한 종료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5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등록기간경과	등록면제	사망	선고유예면소	상소권 회복	정식재판청구	기타
2014		172	2	0	111	0	5	3	51
		100%	1.2%	0.0%	64.5%	0.0%	2.9%	1.7%	29.7%
2015		387	29	1	183	124	15	5	30
		100%	7.5%	0.3%	47.3%	32.0%	3.9%	1.3%	7.8%
2016		1,275	32	0	234	178	19	23	789
		100%	2.5%	0.0%	18.4%	14.0%	1.5%	1.8%	61.9%
2017		976	11	239	262	438	19	5	2
		100%	1.1%	24.5%	26.8%	44.9%	1.9%	0.5%	0.2%
2018		1,094	98	154	439	353	16	33	1
		100%	9.0%	14.1%	40.1%	32.3%	1.5%	3.0%	0.1%

연도	구분	계	등록기간경과	등록면제	사망	선고유예면소	상소권 회복	정식재판청구	기타
		2019	1,273	328	97	477	316	21	31
		100%	25.8%	7.6%	37.5%	24.8%	1.6%	2.4%	0.2%
2020		1,558	354	319	598	233	26	27	1
		100%	22.7%	20.5%	38.4%	14.9%	1.7%	1.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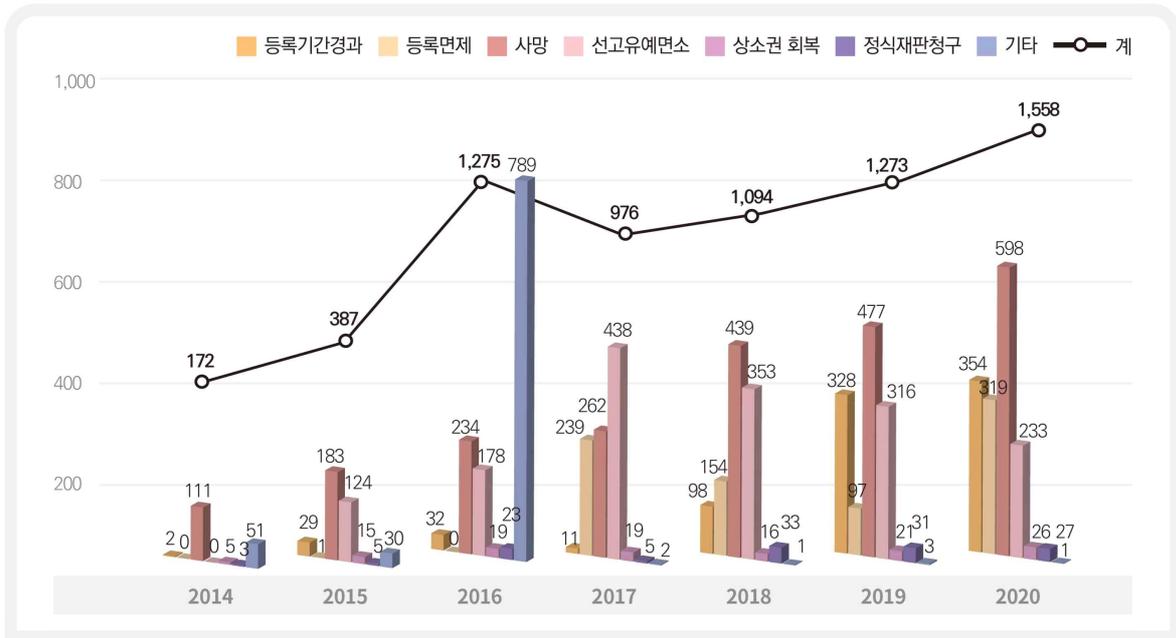


그림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4~2020)



# 통계분석

2021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Chapter 4

#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1절 사회봉사명령

제2절 수강명령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사회봉사명령<sup>28)</sup>

-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 ▶ 1989년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996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1997년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 조건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 벌금미납자도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 보호관찰소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협력 집행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복지 지원, 영세농가 일손 돕기 등 농촌지원, 태풍·폭우·폭설로 인한 재난복구 등 대민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 1 접수사건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1) 근거 법률별 현황

- 2020년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전체 51,043건 중 형법이 34,175건(6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벌금미납자<sup>29)</sup> 9,097건(17.8%), 소년법이 4,746건(9.3%),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기타법률이 2,686건(5.3%) 등이었으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은 339건(0.7%)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형법은 매년 전체 접수사건의 61~67%를 차지하는데, 사건 수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최소 4%에서 최대 13%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과

28)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에 따라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등에 의해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과 「벌금미납자법」에 의한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통칭한다. 따라서 별도 개념 규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명령은 「벌금미납자법」에 의한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포함한다.

29) 2009년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에 한해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 벌금형의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2019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 미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 벌금미납자법은 2015년에 전년 대비 26.6% 증가한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전년 대비 22.7% 증가하였다. 반면, 소년법은 2014년과 2015년에는 6,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 사건의 1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법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건수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3.8%에서 6.2%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나 2018년 접수사건을 회복한 수준이다.

표 4-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연도	처분법	총계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스 선도위탁규정	기타 법률	벌금미납자법
2014		43,843	27,298	6,107	2,016	1,664	6,758
		100%	62.3%	13.9%	4.6%	3.8%	15.4%
2015		46,707	28,420	6,128	1,304	2,301	8,554
		100%	60.9%	13.1%	2.8%	4.9%	18.3%
2016		49,965	32,117	5,459	1,071	2,788	8,530
		100%	64.3%	10.9%	2.1%	5.6%	17.1%
2017		52,668	33,956	5,923	1,237	3,270	8,282
		100%	64.5%	11.3%	2.3%	6.2%	15.7%
2018		49,873	32,964	5,650	973	2,662	7,624
		100%	66.1%	11.3%	2.0%	5.3%	15.3%
2019		47,692	32,288	4,805	733	2,453	7,413
		100%	67.7%	10.1%	1.5%	5.2%	15.5%
2020		51,043	34,175	4,746	339	2,686	9,097
		100%	67.0%	9.3%	0.7%	5.3%	17.8%

※ 기타 :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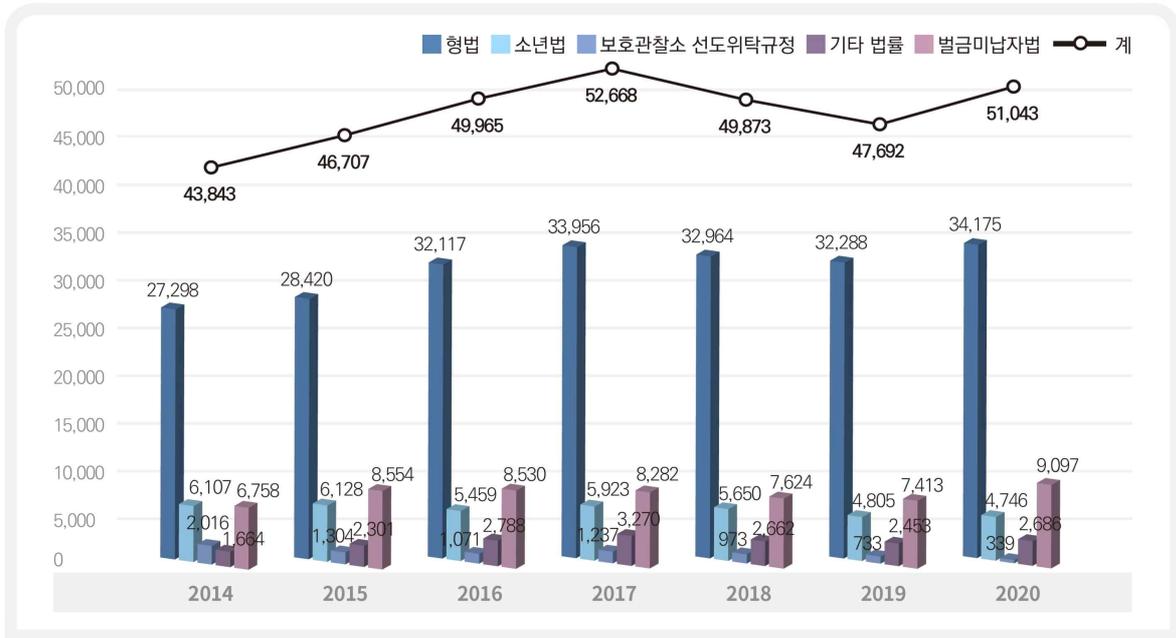


그림 4-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그림 4-1-2 사회봉사명령의 근거 법률별 점유율(2020)

## 2) 연령별 현황

### 지표정의

- 소년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단, 소년법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년으로 분류)
- 성인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

- 2020년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한 결과, 성인이 45,809건(89.7%), 소년이 5,234건(10.3%)으로 성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벌금미납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구분하여 성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제외한 사회봉사명령에서는 87.6%, 벌금미납 사회봉사에서는 99.8%로, 벌금미납 사회봉사에서 성인 비율이 더 높았다.
- 최근 7년간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에서 성인의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14년 81.2%에서 2016년에 86%를 넘겼고, 2019년 이후 88%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1-2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전체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 사회봉사		
		계	소년	성인	소계	소년	성인	소계	소년	성인
2014		43,843	8,257	35,586	37,085	8,182	28,903	6,758	75	6,683
		100%	18.8%	81.2%	100%	22.1%	77.9%	100%	1.1%	98.9%
2015		46,707	7,460	39,247	38,153	7,388	30,765	8,554	72	8,482
		100%	16.0%	84.0%	100%	19.4%	80.6%	100%	0.8%	99.2%
2016		49,965	6,596	43,369	41,435	6,550	34,885	8,530	46	8,484
		100%	13.2%	86.8%	100%	15.8%	84.2%	100%	0.5%	99.5%
2017		52,668	7,159	45,509	44,386	7,102	37,284	8,282	57	8,225
		100%	13.6%	86.4%	100%	16.0%	84.0%	100%	0.7%	99.3%
2018		49,873	6,597	43,276	42,249	6,559	35,690	7,624	38	7,586
		100%	13.2%	86.8%	100%	15.5%	84.5%	100%	0.5%	99.5%
2019		47,692	5,565	42,127	40,279	5,535	34,744	7,413	30	7,383
		100%	11.7%	88.3%	100%	13.7%	86.3%	100%	0.4%	99.6%
2020		51,043	5,234	45,809	41,946	5,213	36,733	9,097	21	9,076
		100%	10.3%	89.7%	100%	12.4%	87.6%	100%	0.2%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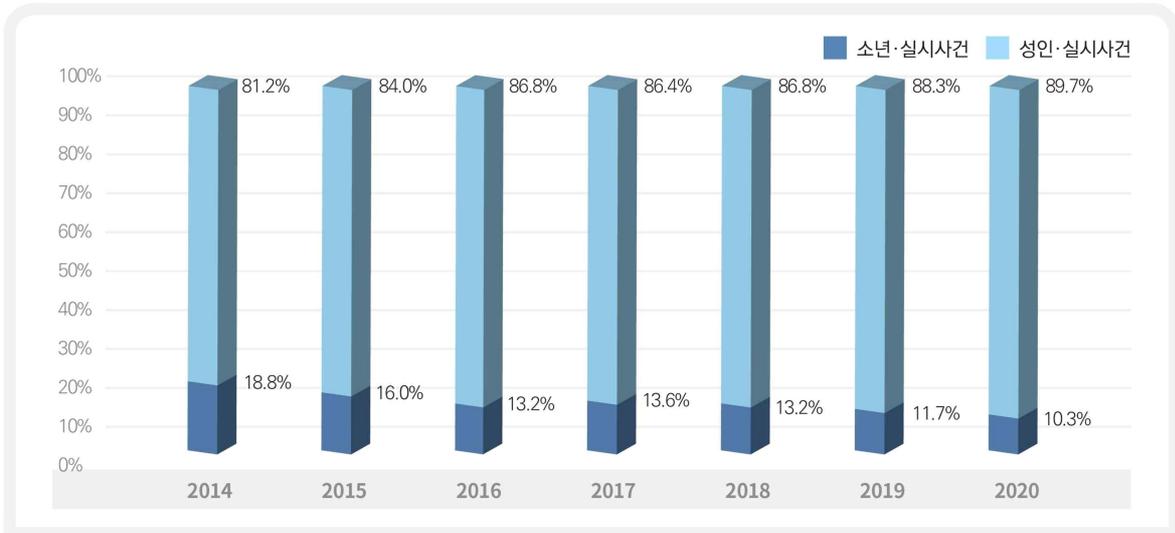


그림 4-1-3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2020년 소년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대를 세분하면, 18세인 경우가 1,629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7세가 1,284건(24.5%), 16세가 1,132건(21.6%), 15세가 727건(13.09%), 14세가 388건(7.4%) 등의 순이었다.

\* 소년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

계	14세 미만	14	15	16	17	18	19세 이상
5,234	0	388	727	1,132	1,284	1,629	74
100%	0.0%	7.4%	13.9%	21.6%	24.5%	31.1%	1.4%

➔ 2020년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대를 세분하면, 50대가 10,767건(23.5%), 40대가 10,670건(23.3%)으로 40~50대가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30대가 9,224건(20.1%), 20대가 9,149건 (20.0%), 60대가 5,144건(11.2%), 70대가 806건(1.8%), 80대 이상이 49건(0.1%) 등이었다.

\* 성인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45,809	9,149	9,224	10,670	10,767	5,144	806	49
100%	20.0%	20.1%	23.3%	23.5%	11.2%	1.8%	0.1%

### 3) 사범별 현황<sup>30)</sup>

#### (1) 사회봉사명령

- 2020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비율을 살펴보면, 교통사범이 39.1%(16,413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15.1%(6,332건), 기타사범 20.5%(8,590건), 사기횡령사범 13.1%(5,191건), 절도사범 5.2%(2,071건) 등의 순이었으며, 풍속사범, 경제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등은 각 5% 미만을 차지하였다.
- 최근 7년간 교통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비율도 매년 상승하였는데 특히 2020년의 상승 폭이 컸다. 폭력사범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건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다가 2017년 일시적으로 사건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사건 수와 비율 모두 다시 감소하였다. 절도사범은 2014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11.1%에서 2020년 4.9%로 줄어들었다.
- 풍속사범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건 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하다가 이후 사건 수가 정체되며 3.4~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사범의 경우 20%대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 2020년의 접수사건 중 교통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결과로 보인다.

표 4-1-3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연도	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4		37,073	8,525	8,745	4,099	5,118	484	452	1,357	856	7,437
		100%	23.0%	23.6%	11.1%	13.8%	1.3%	1.2%	3.6%	2.3%	20.1%
2015		38,151	8,364	8,829	3,754	5,534	439	405	1,773	989	8,064
		100%	21.9%	23.1%	9.8%	14.5%	1.2%	1.1%	4.7%	2.6%	21.1%
2016		41,433	8,058	10,433	3,198	6,075	435	599	2,193	1,243	9,199
		100%	19.5%	25.2%	7.7%	14.7%	1.0%	1.4%	5.3%	3.0%	22.2%
2017		44,384	8,420	12,881	3,017	5,809	337	618	2,436	1,444	9,422
		100%	19.0%	29.0%	6.8%	13.1%	0.8%	1.4%	5.5%	3.2%	21.2%
2018		42,248	7,907	13,390	2,534	5,460	270	433	1,544	1,646	9,064
		100%	18.7%	31.7%	6.0%	12.9%	0.6%	1.0%	3.7%	3.9%	21.5%

30) 사범별 현황은 사회봉사명령과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도 \ 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9	40,279	6,935	12,706	2,192	5,436	339	419	1,490	1,642	9,120
	100%	17.2%	31.6%	5.4%	13.5%	0.8%	1.0%	3.7%	4.1%	22.7%
2020	41,946	6,332	16,413	2,071	5,191	255	400	1,426	1,268	8,590
	100%	15.1%	39.1%	4.9%	12.4%	0.6%	1.0%	3.4%	3.0%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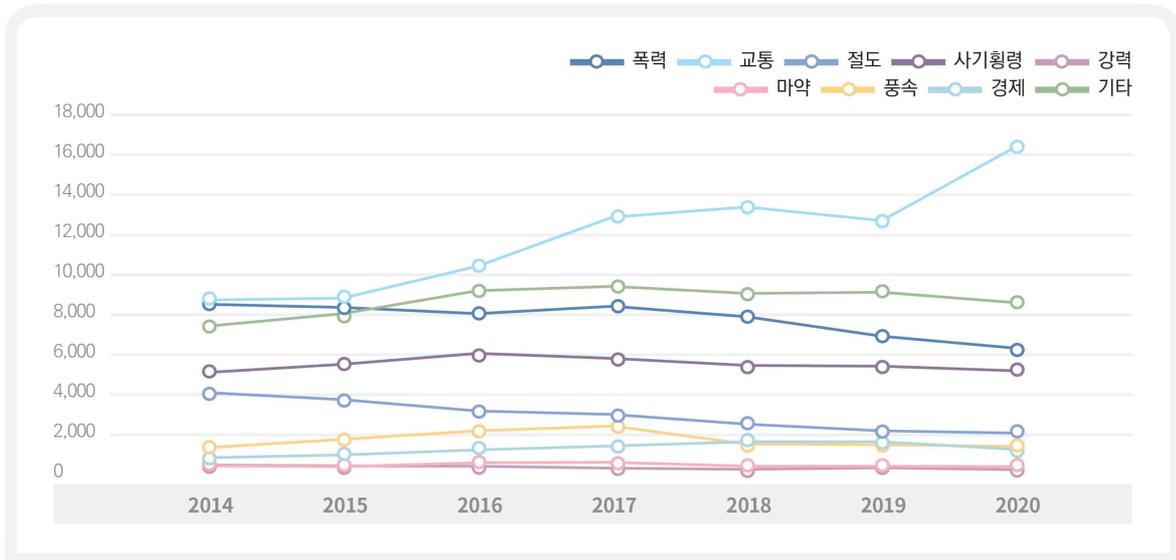


그림 4-1-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2020년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을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폭력사범이 28.2%(1,4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이 24.8%(1,292건), 절도사범이 19.9%(1,038건), 교통사범이 12.6%(656건), 사기횡령사범이 11.5%(600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절도사범이 전체의 3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사건 수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오다, 2017년 폭력사범의 사건 수가 절도사범을 넘어선 이후 2020년까지 폭력사범이 전체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교통사범의 사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거나 꾸준히 11%대를 유지하고, 사기횡령사범은 2016년 이후 500명대 후반의 사건 수를 유지함에도 전체 접수사건의 감소에 따라 그 비율은 10% 미만에서 10% 이상으로 높아졌다.

표 4-1-4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연도	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4		8,182	2,109	837	2,654	640	129	27	31	38	1,717
		100%	25.8%	10.2%	32.4%	7.8%	1.6%	0.3%	0.4%	0.5%	21.0%
2015		7,388	1,920	732	2,330	702	89	17	38	65	1,495
		100%	26.0%	9.9%	31.5%	9.5%	1.2%	0.2%	0.5%	0.9%	20.3%
2016		6,550	1,733	723	1,794	573	95	15	44	60	1,513
		100%	26.5%	11.0%	27.4%	8.7%	1.5%	0.2%	0.7%	0.9%	23.1%
2017		7,102	2,260	813	1,812	563	75	20	58	37	1,464
		100%	31.8%	11.5%	25.5%	7.9%	1.1%	0.3%	0.8%	0.5%	20.6%
2018		6,559	2,226	775	1,403	561	43	21	69	41	1,420
		100%	33.9%	11.8%	21.4%	8.6%	0.7%	0.3%	1.1%	0.6%	21.6%
2019		5,535	1,735	623	1,124	579	70	11	41	42	1,310
		100%	31.3%	11.3%	20.3%	10.5%	1.3%	0.2%	0.7%	0.7%	23.7%
2020		5,213	1,468	656	1,038	600	69	6	56	28	1,292
		100%	28.2%	12.6%	19.9%	11.5%	1.3%	0.1%	1.1%	0.5%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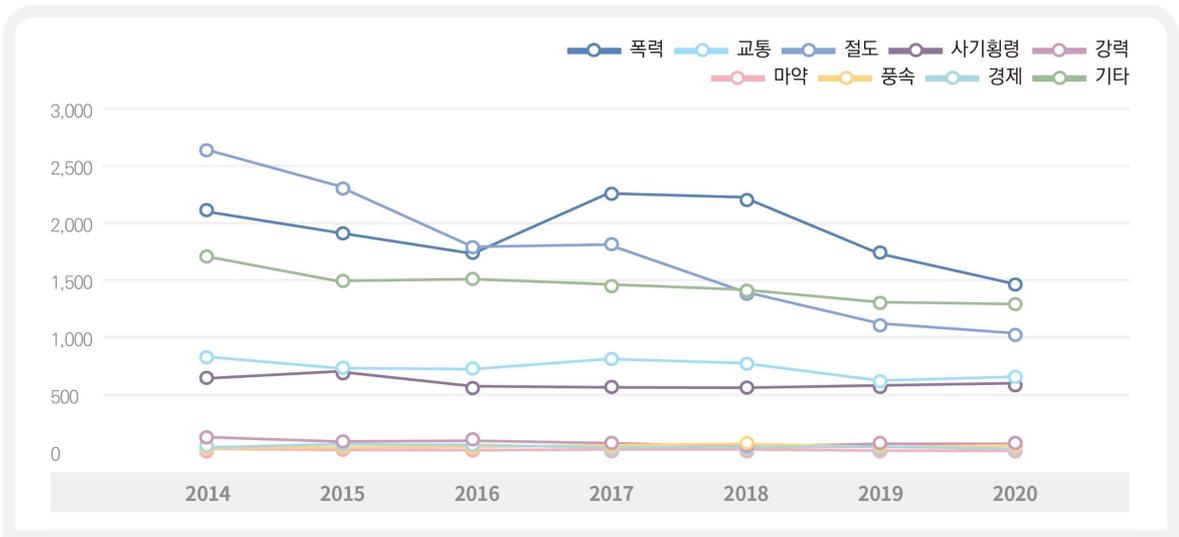


그림 4-1-5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2020년 성인 사건의 경우, 소년과 달리 교통사범이 42.9%(15,75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사범 19.9%(7,298건), 폭력사범 13.2%(4,864건), 사기횡령사범 12.5%(4,591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교통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시에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0년의 증가율은 예년보다 더욱 컸다. 반면 폭력사범과 절도사범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사범은 2019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2020년에는 감소하였다. 기타사범은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의 20%대를 유지하였다.

표 4-1-5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연도	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4		28,891	6,416	7,908	1,445	4,478	355	425	1,326	818	5,720
		100%	22.2%	27.4%	5.0%	15.5%	1.2%	1.5%	4.6%	2.8%	19.8%
2015		30,763	6,444	8,097	1,424	4,832	350	388	1,735	924	6,569
		100%	21.0%	26.3%	4.6%	15.7%	1.1%	1.3%	5.6%	3.0%	21.4%
2016		34,883	6,325	9,710	1,404	5,502	340	584	2,149	1,183	7,686
		100%	18.1%	27.8%	4.0%	15.8%	1.0%	1.7%	6.2%	3.4%	22.0%
2017		37,282	6,160	12,068	1,205	5,246	262	598	2,378	1,407	7,958
		100%	16.5%	32.4%	3.2%	14.1%	0.7%	1.6%	6.4%	3.8%	21.3%
2018		35,689	5,681	12,615	1,131	4,899	227	412	1,475	1,605	7,644
		100%	15.9%	35.4%	3.2%	13.7%	0.6%	1.2%	4.1%	4.5%	21.4%
2019		34,744	5,200	12,083	1,068	4,857	269	408	1,449	1,600	7,810
		100%	14.9%	34.8%	3.0%	14.0%	0.8%	1.2%	4.2%	4.6%	22.5%
2020		36,733	4,864	15,757	1,033	4,591	186	394	1,370	1,240	7,298
		100%	13.2%	42.9%	2.8%	12.5%	0.5%	1.1%	3.7%	3.4%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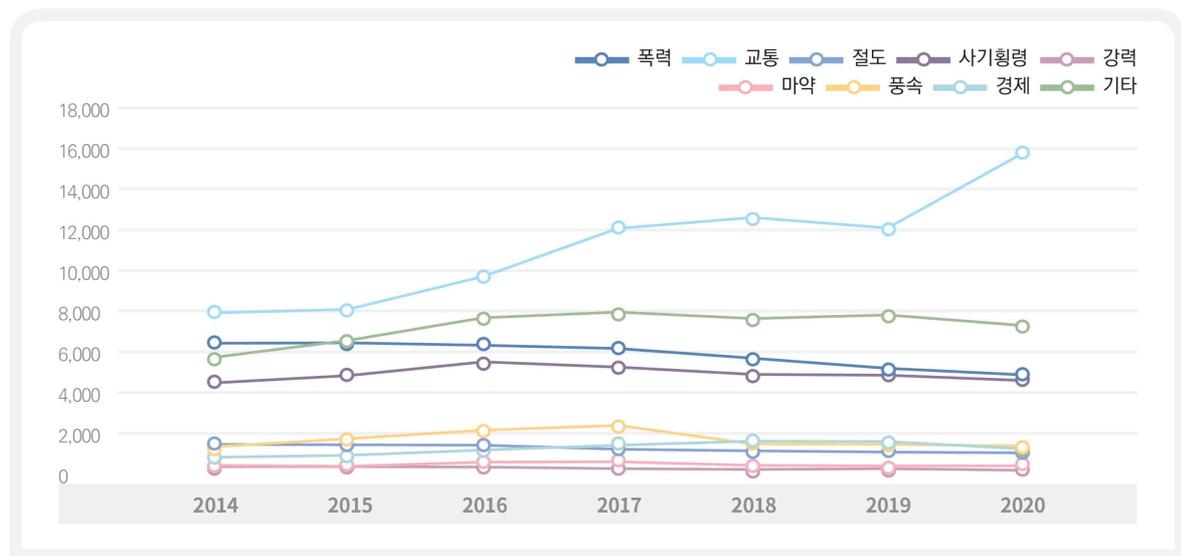


그림 4-1-6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2) 벌금미납 사회봉사

- 2020년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 중 기타사범이 2,848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2,031건(22.3%), 교통사범 1,433건(15.8%), 사기횡령사범 1,204건(13.2%), 경제사범 650건(7.1%)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사범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사범은 매년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교통사범의 비율은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폭력사범과 경제사범은 2018년부터 증가추세를 추세를 보였으며, 사기횡령사범의 사건 수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였고, 전체 사건 중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표 4-1-6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연도	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경제	기타
2014		6,758	1,310	1,922	371	588	5	11	213	318	2,020
		100%	19.4%	28.4%	5.5%	8.7%	0.1%	0.2%	3.1%	4.7%	29.9%
2015		8,554	1,655	2,446	413	758	5	2	310	470	2,495
		100%	19.3%	28.6%	4.8%	8.9%	0.1%	0.0%	3.6%	5.5%	29.2%
2016		8,530	1,617	2,579	456	783	3	3	344	311	2,434
		100%	19.0%	30.2%	5.4%	9.2%	0.0%	0.0%	4.0%	3.7%	28.5%
2017		8,282	1,484	2,378	500	810	1	19	338	374	2,378
		100%	17.9%	28.7%	6.1%	9.8%	0.0%	0.2%	4.1%	4.5%	28.7%
2018		7,624	1,572	1,800	560	761	2	9	251	435	2,234
		100%	20.6%	23.6%	7.4%	10.0%	0.0%	0.1%	3.3%	5.7%	29.3%
2019		7,413	1,636	1,438	580	784	6	8	181	516	2,264
		100%	22.1%	19.4%	7.8%	10.6%	0.1%	0.1%	2.4%	7.0%	30.5%
2020		9,097	2,031	1,433	683	1,204	6	11	231	650	2,848
		100%	22.4%	15.8%	7.5%	13.2%	0.1%	0.1%	2.5%	7.1%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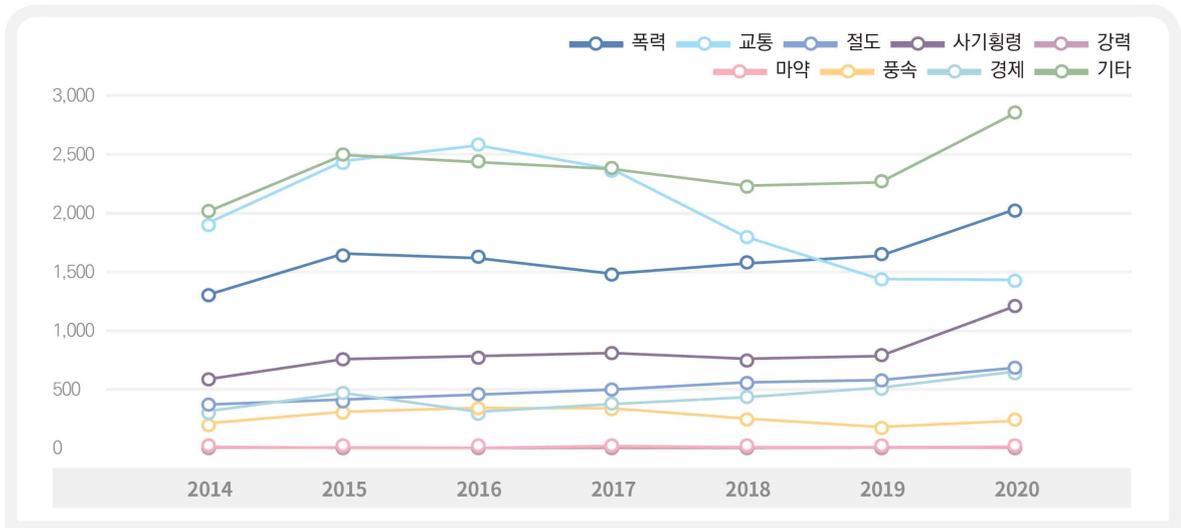


그림 4-1-7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 4) 명령시간별 현황<sup>31)</sup>

##### (1)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 지표정의

- 소년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단, 소년법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년으로 분류)
- 성인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

- 2020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을 명령시간에 따라 구분하면, 101~200시간이 18,234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1~100시간이 15,527건(37.0%), 50시간 이하가 6,893건(16.4%) 등이었으며, 200시간을 초과하는 사건은 3.1%에 그쳤다. 최근 7년간 접수사건의 시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4-1-7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연도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4		37,073	7,518	13,738	15,130	564	112	11
		100%	20.3%	37.1%	40.8%	1.5%	0.3%	0.0%
2015		38,151	8,243	14,462	14,672	658	108	8
		100%	21.6%	37.9%	38.5%	1.7%	0.3%	0.0%
2016		41,433	8,614	16,006	16,026	657	126	4
		100%	20.8%	38.6%	38.7%	1.6%	0.3%	0.0%
2017		44,384	9,259	16,593	17,580	823	124	5
		100%	20.9%	37.4%	39.6%	1.8%	0.3%	0.0%
2018		42,248	7,728	15,418	17,866	1,002	221	13
		100%	18.3%	36.5%	42.3%	2.4%	0.5%	0.0%
2019		40,279	6,198	14,890	18,061	920	189	21
		100%	15.4%	37.0%	44.8%	2.3%	0.5%	0.0%
2020		41,946	6,893	15,527	18,234	1,029	228	35
		100%	16.4%	37.0%	43.5%	2.5%	0.5%	0.1%

31) 명령시간별 현황은 사회봉사명령과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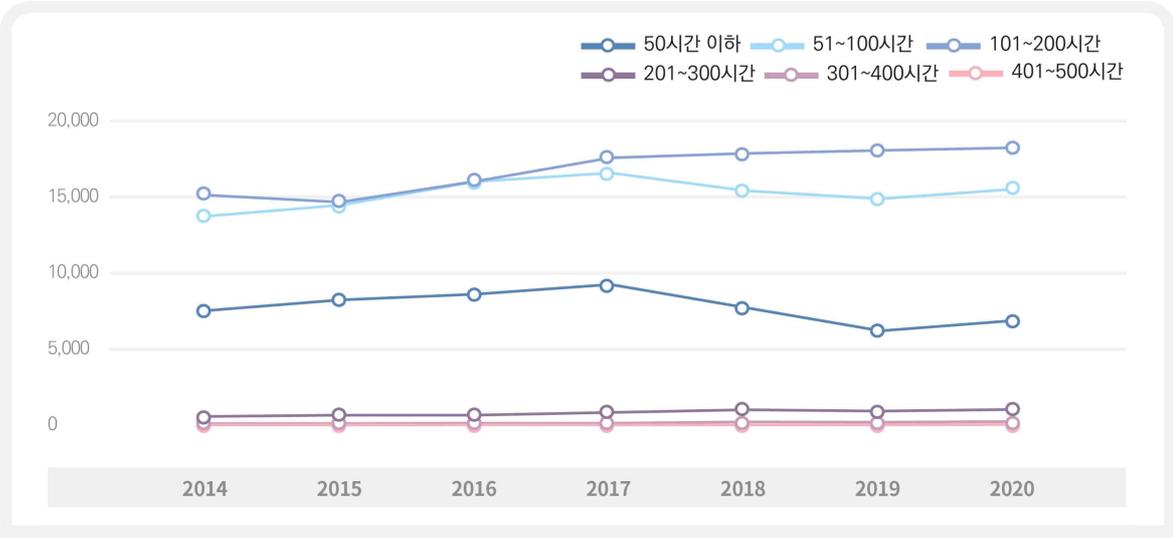


그림 4-1-8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 2020년의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을 명령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50시간 이하가 3,507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1~100시간이 1,407건(27.0%)이었으며, 100시간을 초과하는 사건은 총 299건으로 5.7%에 불과하였다. 최근 7년간 접수사건에서의 시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매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2020년 성인사건의 경우, 101~200시간이 17,945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1~100시간이 14,120건(38.4%), 50시간 이하가 3,386건(9.2%) 등이었으며, 200시간을 초과하는 사건은 모두 합하여 3.5%에 불과하였다. 최근 7년간의 접수사건의 시간별 분포는 큰 변화 없이 매년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종합하면, 소년은 50시간 이하가 전체의 60~68%이고 51~100시간이 24~32%로, 100시간 이하가 전체의 90~94%를 차지한 반면, 성인은 51~100시간이 38~41%, 101~200시간이 44~50%로 51~200시간이 전체의 84~89%를 차지하여, 성인의 부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표 4-1-8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연도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4		8,182	5,030	2,635	509	7	0	1
		100%	61.5%	32.2%	6.2%	0.1%	0.0%	0.0%
2015		7,388	4,768	2,144	474	2	0	0
		100%	64.6%	29.0%	6.4%	0.0%	0.0%	0.0%
2016		6,550	4,481	1,604	457	6	2	0
		100%	68.4%	24.5%	7.0%	0.1%	0.0%	0.0%
2017		7,102	4,554	1,914	629	4	1	0
		100%	64.1%	26.9%	8.9%	0.1%	0.0%	0.0%
2018		6,559	3,941	1,967	638	9	4	0
		100%	60.1%	30.0%	9.7%	0.1%	0.1%	0.0%
2019		5,535	3,366	1,668	494	6	1	0
		100%	60.8%	30.2%	8.9%	0.1%	0.0%	0.0%
2020		5,213	3,507	1,407	289	9	1	0
		100%	67.3%	27.0%	5.5%	0.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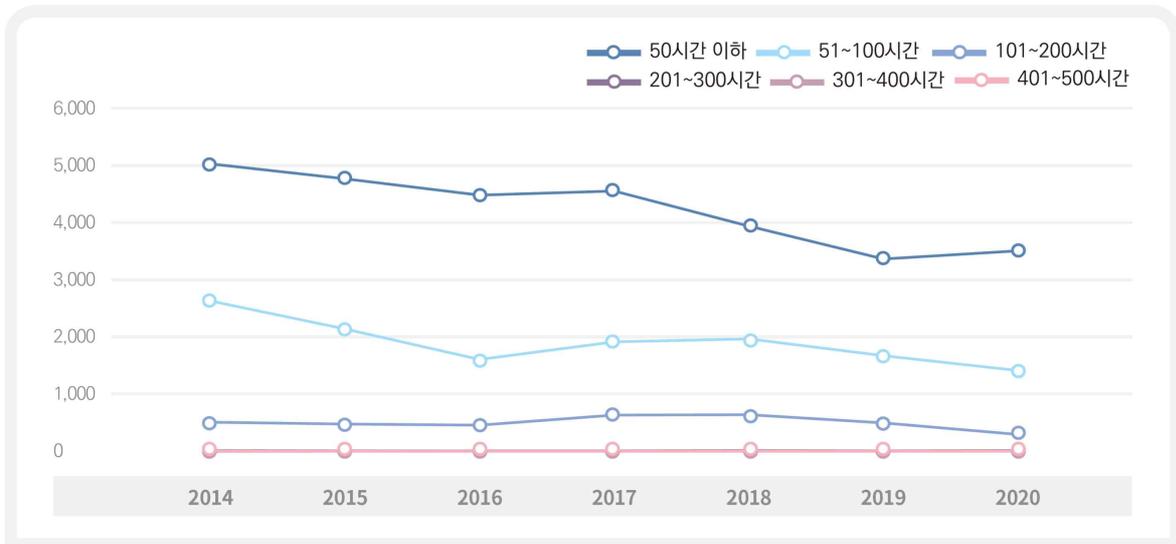


그림 4-1-9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표 4-1-9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연도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4		28,891	2,488	11,103	14,621	557	112	10
		100%	8.6%	38.4%	50.6%	2.0%	0.4%	0.0%
2015		30,763	3,475	12,318	14,198	656	108	8
		100%	11.3%	40.0%	46.2%	2.1%	0.4%	0.0%
2016		34,883	4,133	14,402	15,569	651	124	4
		100%	11.8%	41.3%	44.6%	1.9%	0.4%	0.0%
2017		37,282	4,705	14,679	16,951	819	123	5
		100%	12.6%	39.4%	45.5%	2.2%	0.3%	0.0%
2018		35,689	3,787	13,451	17,228	993	217	13
		100%	10.6%	37.7%	48.3%	2.8%	0.6%	0.0%
2019		34,744	2,832	13,222	17,567	914	188	21
		100%	8.1%	38.1%	50.6%	2.6%	0.5%	0.1%
2020		36,733	3,386	14,120	17,945	1,020	227	35
		100%	9.2%	38.4%	48.9%	2.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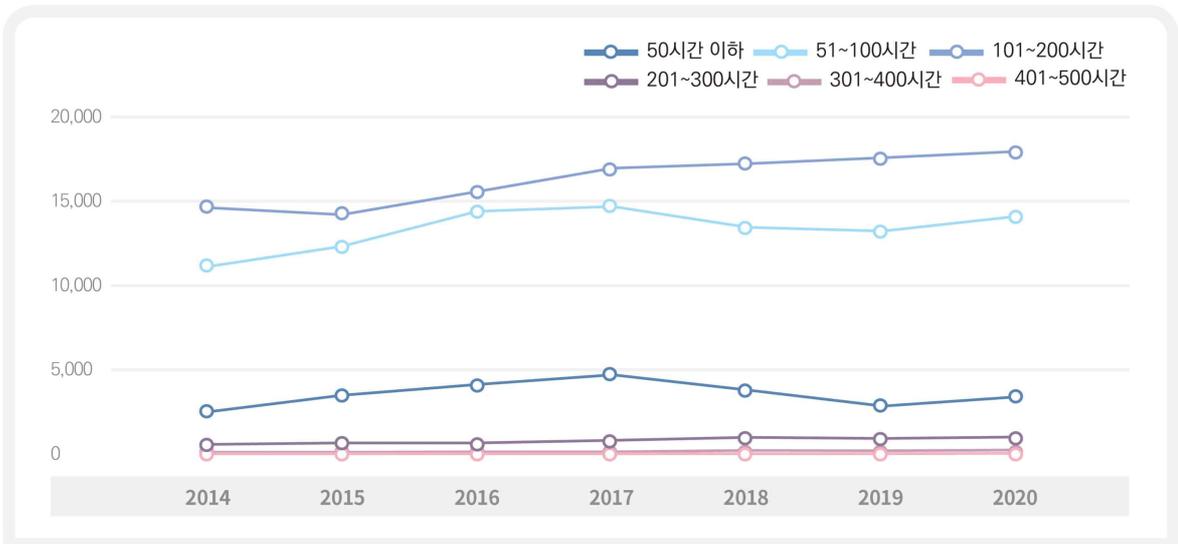


그림 4-1-10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 (2) 벌금미납 사회봉사

-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사회봉사 시간은 벌금 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2020년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1~200시간이 25.4%(2,310건), 51~100시간이 24.1%(2,194건), 201~300시간이 21.4%(1,946건) 등이었고, 50시간 이하가 16.9%(1,539건), 301~400시간이 12.2%(1,107건)이었다. 사회봉사명령 사건과 비교할 때, 201~300시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최근 7년간의 추이에서 특징적인 점은, 300시간을 초과하는 사건이 2014년에 1,258건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다가 2015년에 108건으로 급감하였고 2016년에 13건, 2017년 이후로는 매년 3건 이하에 그쳤으나, 2020년에 전년 대비 1,000% 이상 급증한 것이다.

- ➔ 2015년 이후 300시간 이상 사건이 급감하고 200시간 이하 사건이 증가한 것은, 각 법원에서 벌금환산 기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 ➔ 2020년에 300시간 초과 사건이 급증한 것은 벌금미납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이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4-1-10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연도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401~500시간
2014		6,758	889	1,515	2,040	1,056	659	599
		100%	13.2%	22.4%	30.2%	15.6%	9.8%	8.9%
2015		8,554	1,420	2,422	2,775	1,829	49	59
		100%	16.6%	28.3%	32.4%	21.4%	0.6%	0.7%
2016		8,530	1,433	2,351	2,766	1,967	9	4
		100%	16.8%	27.6%	32.4%	23.1%	0.1%	0.0%
2017		8,282	1,429	2,262	2,556	2,033	1	1
		100%	17.3%	27.3%	30.9%	24.5%	0.0%	0.0%
2018		7,624	1,290	2,126	2,307	1,898	1	2
		100%	16.9%	27.9%	30.3%	24.9%	0.0%	0.0%
2019		7,413	1,388	1,979	2,129	1,916	1	0
		100%	18.7%	26.7%	28.7%	25.8%	0.0%	0.0%
2020		9,097	1,539	2,194	2,310	1,946	1,107	1
		100%	16.9%	24.1%	25.4%	21.4%	12.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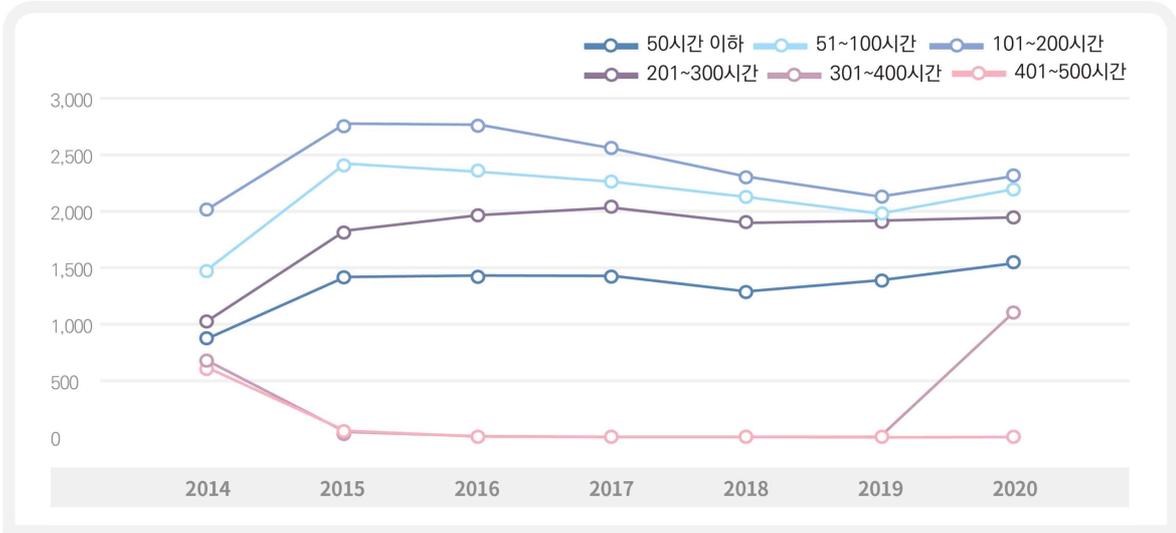


그림 4-1-11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 5) 내외국인 현황

- 2020년의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 중 내국인이 99.4%(50,745건), 외국인이 0.5%(298건) 이었다.

표 4-1-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소년	성인	소계	소년	성인
51,043	50,745	5,207	45,538	298	27	271
100%	99.4%	10.2%	89.2%	0.6%	0.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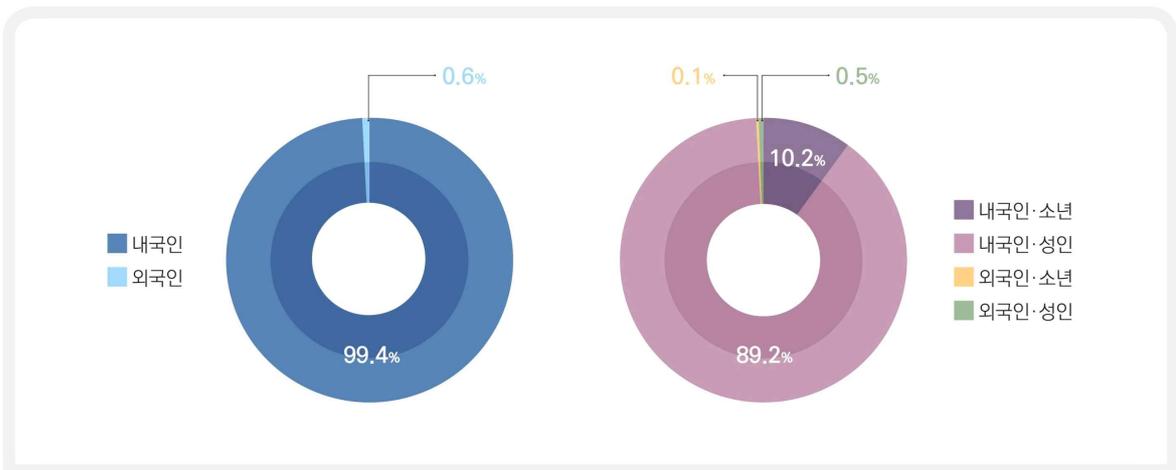


그림 4-1-12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 2 실시사건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실시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

### 1) 근거 법률별 현황

- 2020년의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형법이 42,031건으로 전체의 6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벌금미납자법 10,561건(17.0%), 소년법 5,655건(9.1%), 기타 법률 3,314건(5.4%) 등의 순이었다.

표 4-1-12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연도	처분법	총계	형법	소년법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기타법률	벌금미납자법
2014		51,058	32,116	7,212	2,135	1,830	7,765
		100%	62.9%	14.1%	4.2%	3.6%	15.2%
2015		55,581	34,247	7,170	1,515	2,617	10,032
		100%	61.6%	12.9%	2.7%	4.7%	18.1%
2016		58,287	37,624	6,432	1,140	3,199	9,892
		100%	64.5%	11.0%	2.0%	5.5%	17.0%
2017		63,050	41,097	6,981	1,354	3,799	9,819
		100%	65.2%	11.1%	2.1%	6.0%	15.6%
2018		60,286	40,153	6,714	1,181	3,176	9,062
		100%	66.6%	11.1%	2.0%	5.3%	15.0%
2019		58,497	40,002	5,905	838	3,043	8,709
		100%	68.4%	10.1%	1.4%	5.2%	14.9%
2020		62,009	42,031	5,655	448	3,314	10,561
		100%	67.8%	9.1%	0.7%	5.4%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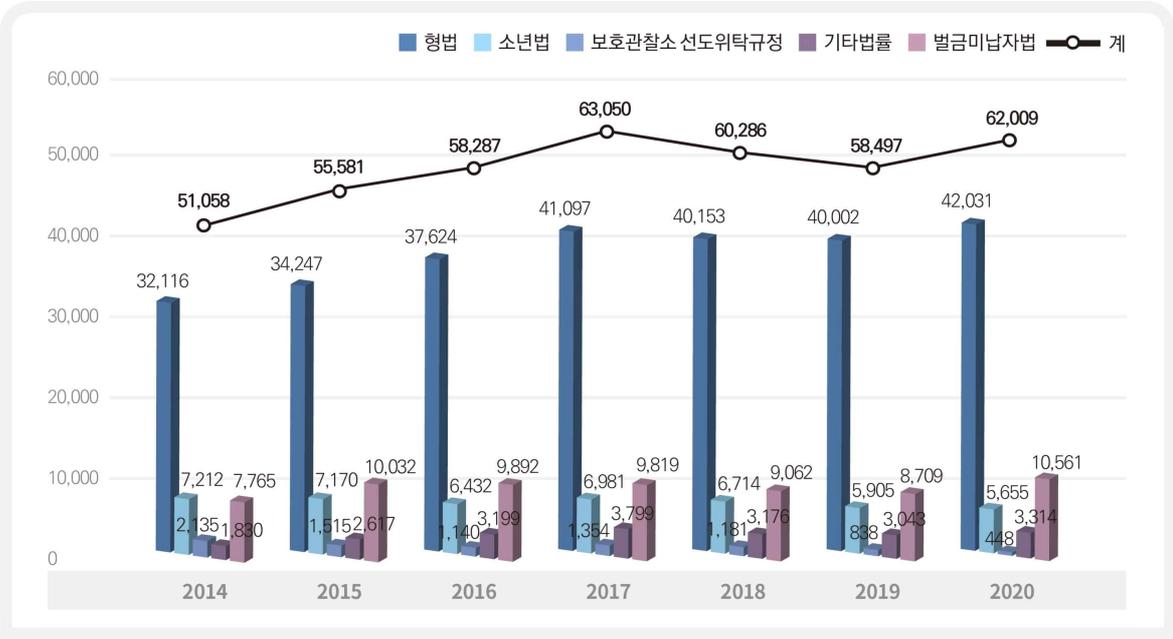


그림 4-1-13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법률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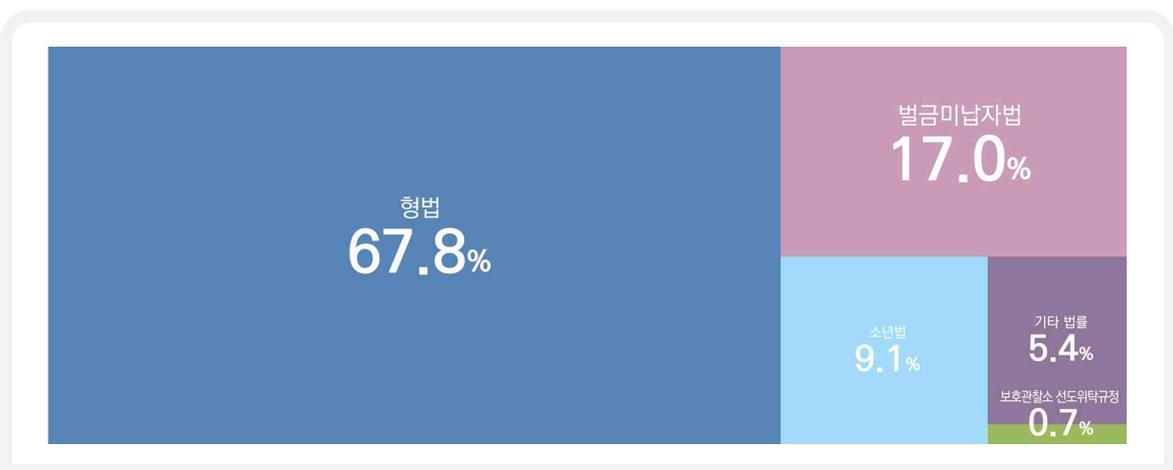


그림 4-1-14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법률별 점유율(2020)

## 2) 연령별 현황

### 지표정의

- 소년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단, 소년법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년으로 분류)
- 성인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

- 2020년의 전체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을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한 결과, 성인이 55,691건(89.8%), 소년이 6,318건(10.2%)으로, 접수사건과 동일하게 성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벌금 미납자법에 따른 사회봉사에서는 성인의 비율이 99.8%로, 전체 사회봉사명령사건보다 성인의 비율이 높았다.
- 최근 7년간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에서 성인이 81~89%를 차지하며, 소년사건 수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전체 실시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표 4-1-13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전체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 사회봉사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계	소년	성인
2014		51,058	9,527	41,531	43,293	9,442	33,851	7,765	85	7,680
		100%	18.7%	81.3%	100%	21.8%	78.2%	100%	1.1%	98.9%
2015		55,581	8,768	46,813	45,549	8,677	36,872	10,032	91	9,941
		100%	15.8%	84.2%	100%	19.0%	81.0%	100%	0.9%	99.1%
2016		58,287	7,683	50,604	48,395	7,616	40,779	9,892	67	9,825
		100%	13.2%	86.8%	100%	15.7%	84.3%	100%	0.7%	99.3%
2017		63,050	8,389	54,661	53,231	8,321	44,910	9,819	68	9,751
		100%	13.3%	86.7%	100%	15.6%	84.4%	100%	0.7%	99.3%
2018		60,286	7,901	52,385	51,224	7,845	43,379	9,062	56	9,006
		100%	13.1%	86.9%	100%	15.3%	84.7%	100%	0.6%	99.4%
2019		58,497	6,824	51,673	49,788	6,787	43,001	8,709	37	8,672
		100%	11.7%	88.3%	100%	13.6%	86.4%	100%	0.4%	99.6%
2020		62,009	6,318	55,691	51,448	6,292	45,156	10,561	26	10,535
		100%	10.2%	89.8%	100%	12.2%	87.8%	100%	0.2%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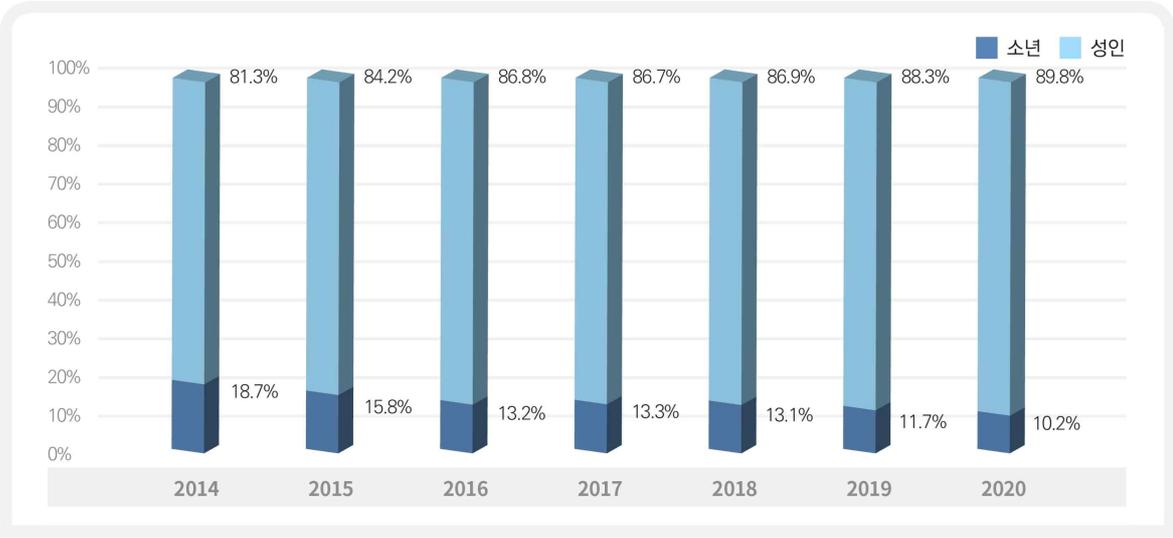


그림 4-1-15 전체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3) 부과 형태별 현황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사회봉사명령의 부과형태별 현황

**지표정의**

- 보호관찰부과 :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병과
- 단독명령 : 사회봉사명령만을 부과

-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을 보호관찰 병과사건과 단독 명령사건으로 구분한 결과, 2020년의 보호관찰 병과사건은 16,238건(31.6%), 단독 명령사건은 35,210건(68.4%)으로 단독 명령사건이 보호관찰 병과사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이러한 양상은 연령에 따라 달라 성인의 경우 단독명령 사건이 2배 이상 많았던 반면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병과사건이 약 2배 많았으며, 이러한 현황은 최근 7년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표 4-1-1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4~2020)

구분 연도	전체			소년			성인		
	계	보호관찰 부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 부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 부과	단독명령
2014	43,293	16,468	26,825	9,442	6,017	3,425	33,851	10,451	23,400
	100%	38.0%	62.0%	100%	63.7%	36.3%	100%	30.9%	69.1%
2015	45,549	16,569	28,980	8,677	5,641	3,036	36,872	10,928	25,944
	100%	36.4%	63.6%	100%	65.0%	35.0%	100%	29.6%	70.4%
2016	48,395	17,969	30,426	7,616	4,973	2,643	40,779	12,996	27,783
	100%	37.1%	62.9%	100%	65.3%	34.7%	100%	31.9%	68.1%
2017	53,231	19,351	33,880	8,321	5,465	2,856	44,910	13,886	31,024
	100%	36.4%	63.6%	100%	65.7%	34.3%	100%	30.9%	69.1%
2018	51,224	17,470	33,754	7,845	5,111	2,734	43,379	12,359	31,020
	100%	34.1%	65.9%	100%	65.1%	34.9%	100%	28.5%	71.5%
2019	49,788	16,133	33,655	6,787	4,359	2,428	43,001	11,774	31,227
	100%	32.4%	67.6%	100%	64.2%	35.8%	100%	27.4%	72.6%
2020	51,448	16,238	35,210	6,292	4,004	2,288	45,156	12,234	32,922
	100%	31.6%	68.4%	100%	63.6%	36.4%	100%	27.1%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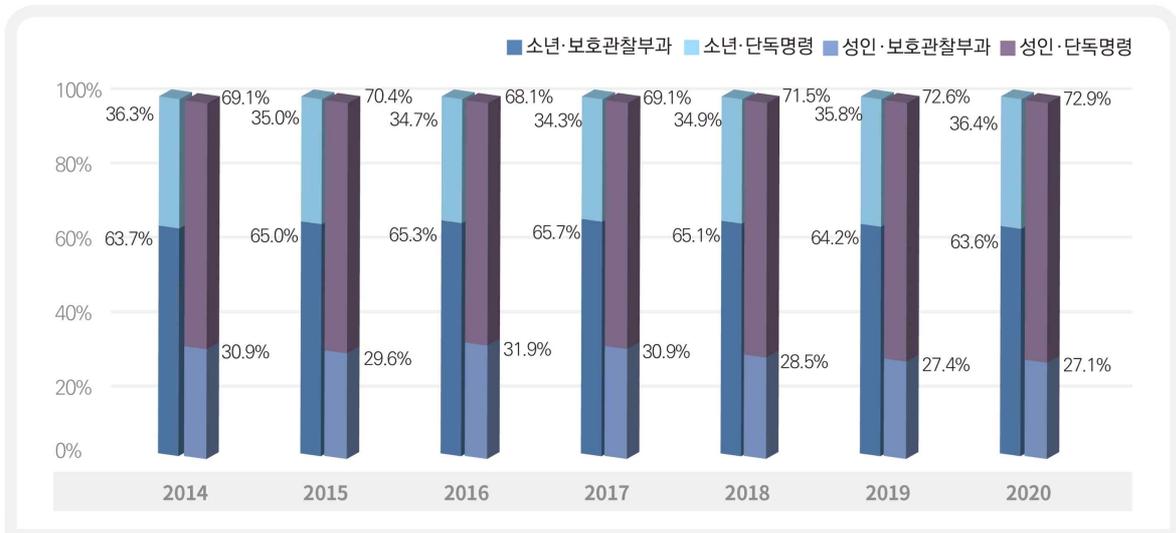


그림 4-1-16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4~2020)

### 3 집행 현황

#### 1) 개요

##### 개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황

##### 지표정의

- 집행사건 :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이행 또는 부분 이행하여 종료된 사건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은 2014년 38,990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48,4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연간 43,000건 이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6.1%가 급감한 23,486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곤란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4-1-1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사회봉사
2014		38,990	33,785	5,205
		100%	86.7%	13.3%
2015		43,825	36,238	7,587
		100%	82.7%	17.3%
2016		44,249	36,994	7,255
		100%	83.6%	16.4%
2017		48,403	41,259	7,144
		100%	85.2%	14.8%
2018		45,475	39,007	6,468
		100%	85.8%	14.2%
2019		43,612	37,453	6,159
		100%	85.9%	14.1%
2020		23,486	18,450	5,036
		100%	78.6%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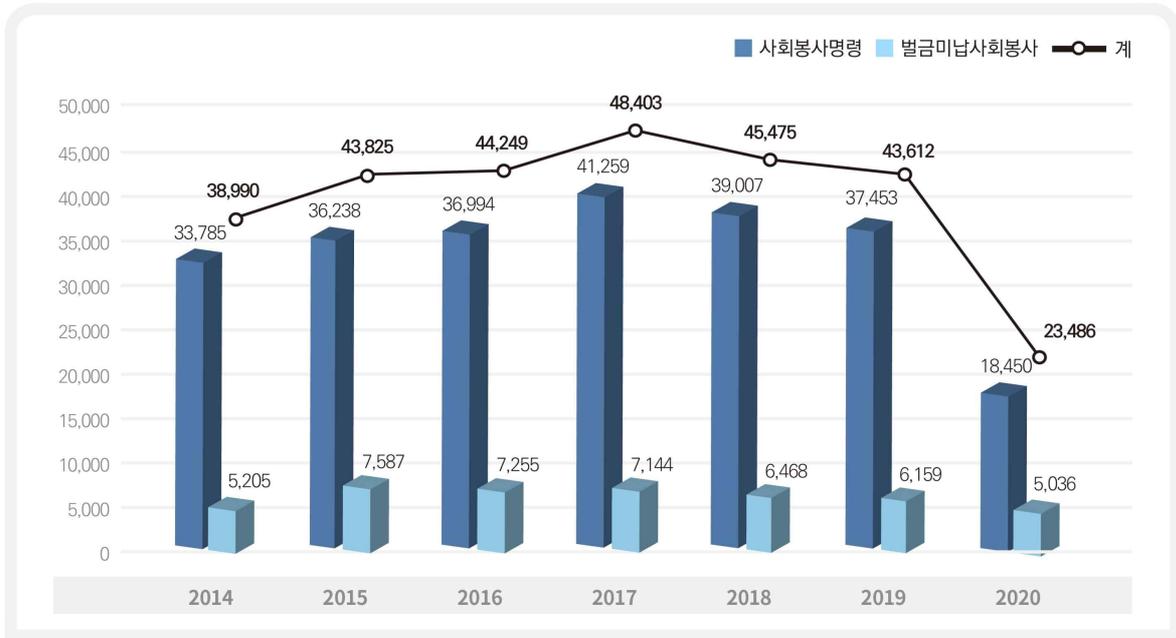


그림 4-1-17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4~2020)

## 2) 집행 형태별 현황

- 사회봉사명령은 집행형태에 따라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봉사명령의 특성상 협력기관을 통한 협력집행 위주로 집행하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협력집행의 비율이 상승하고 직접집행의 비율은 낮아졌다.
- 2020년에도 협력집행이 11,949건(64.8%)이고 직접집행이 6,501건(35.2%)으로, 협력집행한 사건 수가 직접집행보다 많고 그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협력집행한 사건 수가 전년보다 약 60% 감소하여, 협력집행과 직접집행의 차이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 2020년에 직접집행의 비율이 증가하고 협력집행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등으로 전체 집행사건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복지시설 등에서의 협력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접집행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1-16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형태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전체			사회봉사명령			벌금미납사회봉사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2014		38,990	10,680	28,310	33,785	9,131	24,654	5,205	1,549	3,656
		100%	27.4%	72.6%	100%	27.0%	73.0%	100%	29.8%	70.2%
2015		43,825	10,941	32,884	36,238	8,966	27,272	7,587	1,975	5,612
		100%	25.0%	75.0%	100%	24.7%	75.3%	100%	26.0%	74.0%
2016		44,249	11,048	33,201	36,994	9,232	27,762	7,255	1,816	5,439
		100%	25.0%	75.0%	100%	25.0%	75.0%	100%	25.0%	75.0%
2017		48,403	10,123	38,280	41,259	8,500	32,759	7,144	1,623	5,521
		100%	20.9%	79.1%	100%	20.6%	79.4%	100%	22.7%	77.3%
2018		45,475	7,822	37,653	39,007	6,521	32,486	6,468	1,301	5,167
		100%	17.2%	82.8%	100%	16.7%	83.3%	100%	20.1%	79.9%
2019		43,612	7,017	36,595	37,453	5,775	31,678	6,159	1,242	4,917
		100%	16.1%	83.9%	100%	15.4%	84.6%	100%	20.2%	79.8%
2020		23,486	8,779	14,707	18,450	6,501	11,949	5,036	2,278	2,758
		100%	37.4%	62.6%	100%	35.2%	64.8%	100%	45.2%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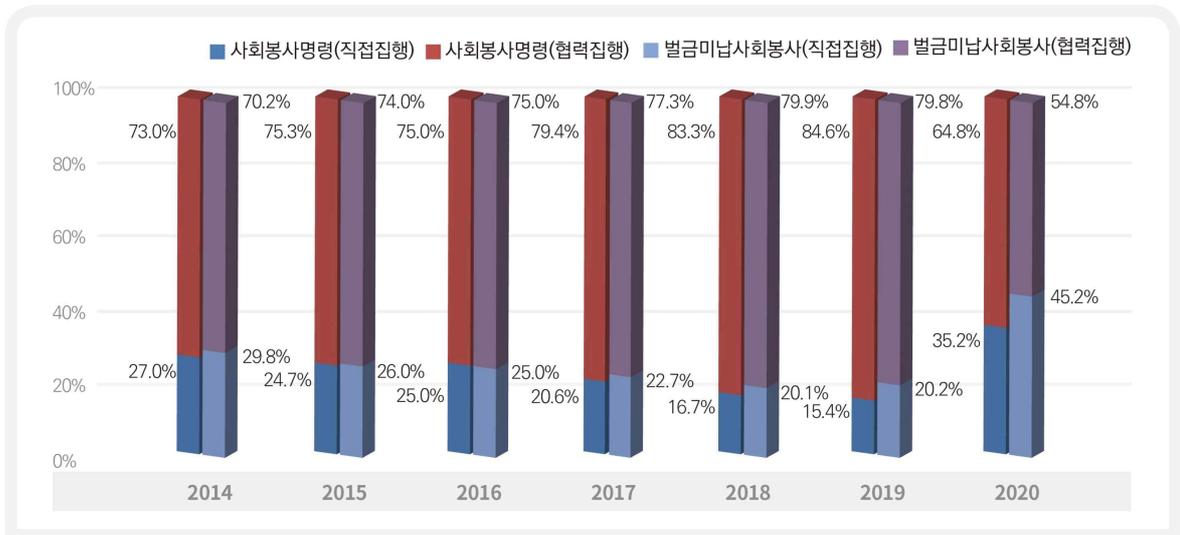


그림 4-1-18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형태별 현황(2014~2020)

### 3) 집행 분야별 현황

#### 지표정의

- 자연보호 : 환경정비 등 자연보호 관련 분야
- 복지 분야 :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등 복지 관련 분야
- 공공시설 : 공공시설에서 업무 수행 등 공공시설 관련 분야
- 대민지원 : 농촌봉사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분야
- 기타 : 기타 사회봉사 집행 분야

- 2020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 분야가 12,74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민지원 분야가 7,255건(30.9%), 기타 분야가 2,209건(9.4%), 공공시설 지원 분야가 1,247건(5.3%)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집행 분야별 현황에서 복지 분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70%를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 비율이 더욱 높아져 2019년에는 8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복지시설에서 집행이 곤란해짐에 따라 사건 수가 전년보다 65.4% 감소하였고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축소되었다.
- 반면, 대민 지원 분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집행사건의 22~24%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이후 해당 분야의 집행사건 수 감소와 함께 복지 분야의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2019년에는 15%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에서의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대민지원 분야가 증가하여 집행사건수가 전년보다 9.8% 증가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약 2배 확대되었다.
- 기타 분야의 집행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였고 2019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1-17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4		38,990	145	27,152	706	8,701	2,286
		100%	0.4%	69.6%	1.8%	22.3%	5.9%
2015		43,825	151	30,577	883	10,515	1,699
		100%	0.3%	69.8%	2.0%	24.0%	3.9%
2016		44,249	100	30,698	841	10,792	1,818
		100%	0.2%	69.4%	1.9%	24.4%	4.1%
2017		48,403	89	36,064	1,113	9,646	1,491
		100%	0.2%	74.5%	2.3%	19.9%	3.1%

연도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8		45,475	59	35,217	1,282	7,682	1,235
		100%	0.1%	77.4%	2.8%	16.9%	2.7%
2019		43,612	59	34,612	1,020	6,610	1,311
		100%	0.1%	79.4%	2.3%	15.2%	3.0%
2020		23,486	26	12,749	1,247	7,255	2,209
		100%	0.1%	54.3%	5.3%	30.9%	9.4%

- 사회봉사명령 사건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과 벌금미납 사회봉사로 구분하여 집행 분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사회봉사명령에서와 동일하게 모두 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민지원, 기타 지원, 공공시설 지원 등의 순이었다,

표 4-1-18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4		33,785	130	23,642	583	7,605	1,825
		100%	0.4%	70.0%	1.7%	22.5%	5.4%
2015		36,238	142	25,369	722	8,787	1,218
		100%	0.4%	70.0%	2.0%	24.2%	3.4%
2016		36,994	94	25,659	686	9,212	1,343
		100%	0.3%	69.4%	1.8%	24.9%	3.6%
2017		41,259	81	30,847	953	8,301	1,077
		100%	0.2%	74.8%	2.3%	20.1%	2.6%
2018		39,007	52	30,391	1,096	6,605	863
		100%	0.2%	77.9%	2.8%	16.9%	2.2%
2019		37,453	56	29,900	899	5,684	914
		100%	0.2%	79.8%	2.4%	15.2%	2.4%
2020		18,450	26	10,337	1,010	5,586	1,491
		100%	0.1%	56.0%	5.5%	30.3%	8.1%



그림 4-1-19 사회봉사명령(별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표 4-1-19 별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4		5,205	15	3,510	123	1,096	461
		100%	0.3%	67.4%	2.4%	21.1%	8.8%
2015		7,587	9	5,208	161	1,728	481
		100%	0.1%	68.7%	2.1%	22.8%	6.3%
2016		7,255	6	5,039	155	1,580	475
		100%	0.1%	69.5%	2.1%	21.8%	6.5%
2017		7,144	8	5,217	160	1,345	414
		100%	0.1%	73.0%	2.3%	18.8%	5.8%
2018		6,468	7	4,826	186	1,077	372
		100%	0.1%	74.6%	2.9%	16.6%	5.8%
2019		6,159	3	4,712	121	926	397
		100%	0.1%	76.5%	2.0%	15.0%	6.4%
2020		5,036	0	2,412	237	1,669	718
		100%	0.0%	47.9%	4.7%	33.1%	14.3%



그림 4-1-20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 4) 집행 형태별 집행 분야 현황

##### (1) 직접집행

- 2020년 직접집행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대민지원이 6,380건(72.7%), 기타 지원이 1,949건(22.2%)으로 두 분야가 전체의 94.9%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복지 분야(406건, 4.6%), 공공시설 지원(25건, 0.3%), 자연보호 분야(19건, 0.2%)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과 벌금미납 사회봉사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 최근 7년간 직접집행이 대민지원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대민지원 사건 수가 전년 대비 미미하게 감소한 반면, 복지 분야와 기타 지원의 증가로 인해 대민 지원이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감소하였다.
- 자연보호, 공공시설 분야는 2019년까지 감소하여 사건이 아예 없거나 3건 이하로 극소수였으나, 2020년엔 각각 19건, 25건으로 증가하였다. 기타 지원의 경우, 2019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집행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면서 전체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다.
- 벌금미납 사회봉사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유사하게 직접집행의 경우 대민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협력집행의 경우 복지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4-1-20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4		10,680	121	1,263	106	7,325	1,865
		100%	1.1%	11.8%	1.0%	68.6%	17.5%
2015		10,941	92	447	77	8,809	1,516
		100%	0.8%	4.1%	0.7%	80.5%	13.9%
2016		11,048	6	239	6	9,220	1,577
		100%	0.1%	2.2%	0.1%	83.5%	14.3%
2017		10,123	2	125	2	8,793	1,201
		100%	0.0%	1.2%	0.0%	86.9%	11.9%
2018		7,822	4	69	9	6,802	938
		100%	0.1%	0.9%	0.1%	87.0%	12.0%
2019		7,017	4	250	0	5,786	977
		100%	0.1%	3.6%	0.0%	82.5%	13.9%
2020		8,779	19	406	25	6,380	1,949
		100%	0.2%	4.6%	0.3%	72.7%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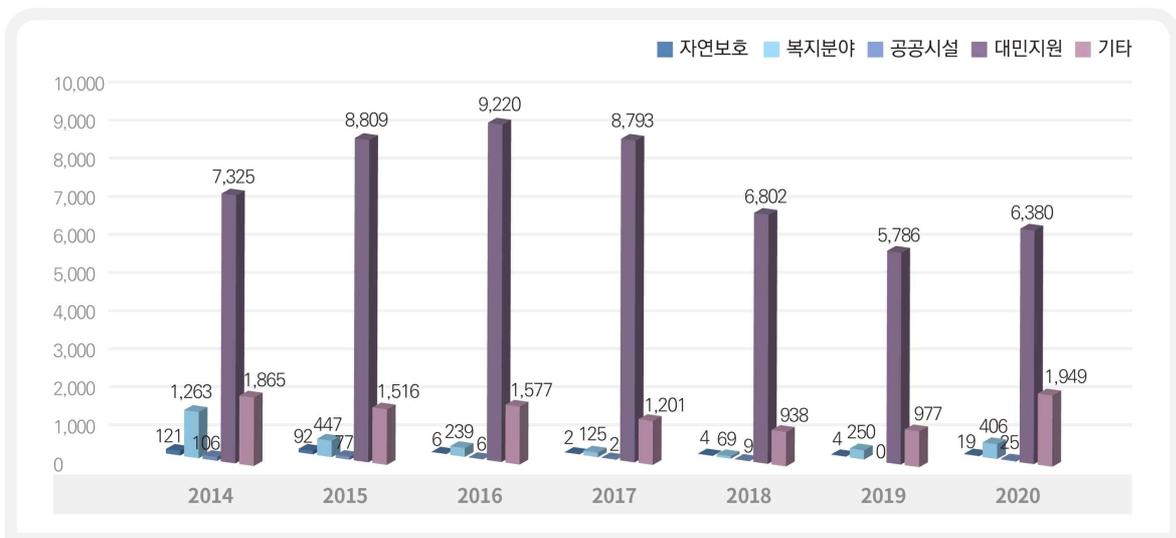


그림 4-1-21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 (2) 협력집행

- 2020년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 중 복지 분야가 12,343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공시설이 1,222건(8.3%), 대민지원 875건(5.9%), 기타 지원 260건(1.8%) 등의 순이었다. 협력집행에서도 직접집행과 같이 복지 분야가 가장 많았지만, 복지 분야의 집중되는 정도가 더욱 컸다. 이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 분야에서 집행이 전체의 92~94%를 차지하다가 2020년에 그 비율이 8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집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표 4-1-21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자연보호	복지 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4		28,310	24	25,889	600	1,376	421
		100%	0.1%	91.4%	2.1%	4.9%	1.5%
2015		32,884	59	30,130	806	1,706	183
		100%	0.2%	91.6%	2.5%	5.2%	0.6%
2016		33,201	94	30,459	835	1,572	241
		100%	0.3%	91.7%	2.5%	4.7%	0.7%
2017		38,280	87	35,939	1111	853	290
		100%	0.2%	93.9%	2.9%	2.2%	0.8%
2018		37,653	55	35,148	1,273	880	297
		100%	0.1%	93.3%	3.4%	2.3%	0.8%
2019		36,595	55	34,362	121	824	334
		98%	0.2%	93.9%	0.3%	2.3%	0.9%
2020		14,707	7	12,343	1,222	875	260
		100%	0.0%	83.9%	8.3%	5.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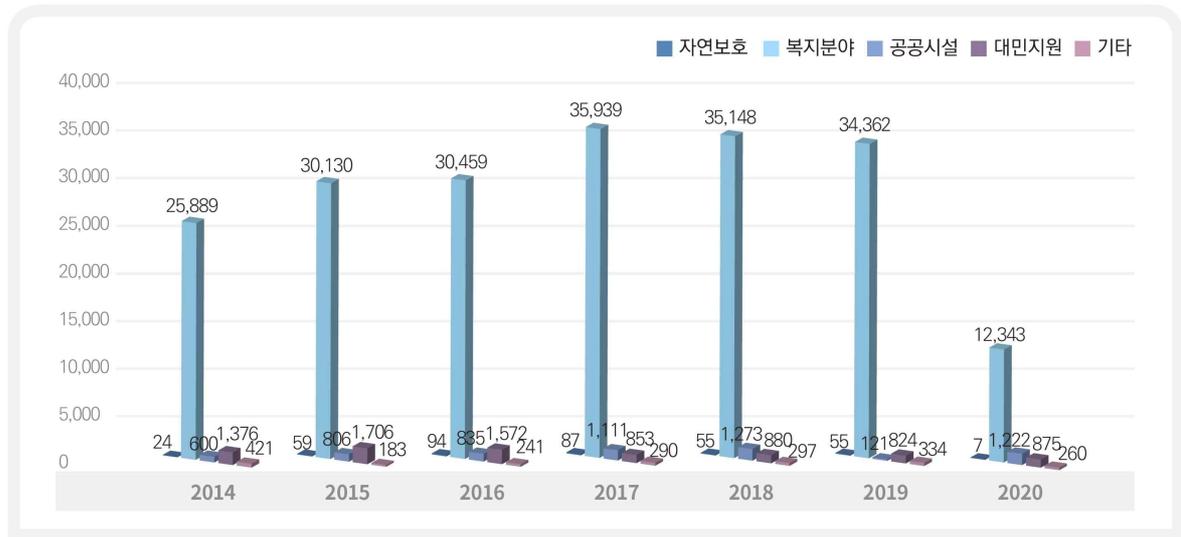


그림 4-1-22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 4 협력기관 현황

### 개 요

-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 기관 현황

### 지표정의

- 복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기관
- 공익 :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의료 : 병원 등 의료기관
- 행정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 기타 : 복지, 공익, 의료, 행정기관 이외의 기타기관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지정한 협력기관은 총 1,265개이며, 그중 복지기관이 1,174개(92.8%), 공익기관이 89개(7.0%), 기타기관이 2개(0.2%) 등이었다.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100개 이상의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지정, 운영되었고, 2018년부터는 그 수가 1,2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최근 7년 중 가장 많은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었다.

표 4-1-22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복지	공익	의료	행정	기타
2014		1,133	1,031	83	3	1	15
2015		1,146	1,054	82	1	1	8
2016		1,179	1,091	79	0	1	8
2017		1,170	1,109	58	0	0	3
2018		1,212	1,142	68	0	0	2
2019		1,208	1,142	64	0	0	2
2020		1,265	1,174	89	0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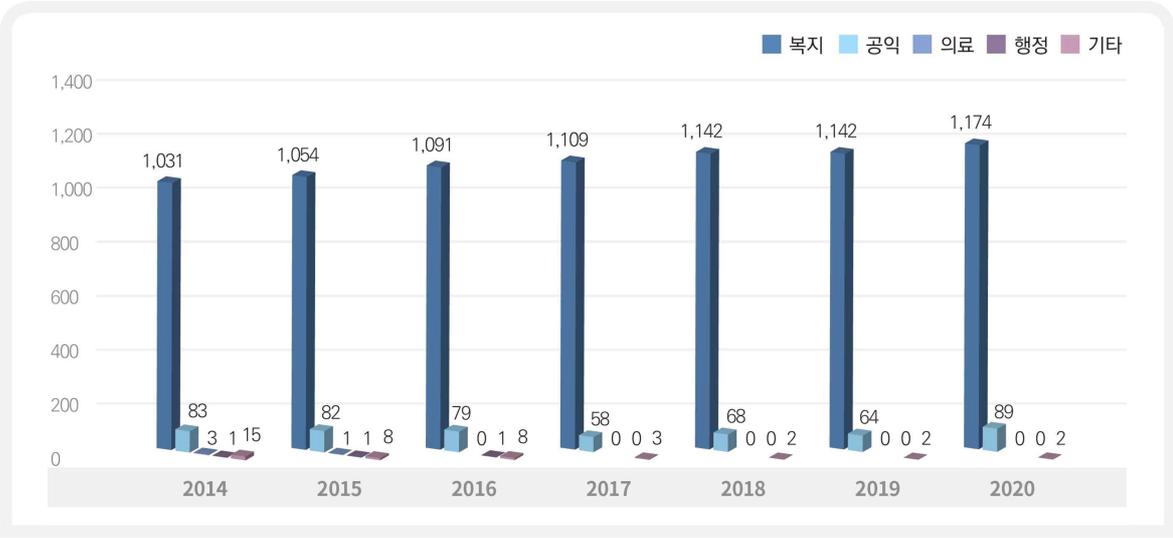


그림 4-1-23 사회봉사명령의 협력기관 현황(2014~2020)

## 5 종료 현황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종료 사건 현황

**지표정의**

- 집행완료 : 부과된 시간을 모두 집행 후 종료
- 부분집행 : 부과된 시간의 일부를 집행 후 종료
- 이송 :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어 종료
- 처분변경 등 기타 : 처분변경 등으로 종료

### 1) 개요

- 사회봉사명령 종료사건은 2014년 42,10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 52,501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과 2019년 다소 감소세를 보였고 2020년에도 전년 대비 40.2% 감소한 28,231건을 나타냈다. 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이며, 주로 집행완료사건의 급감에 따른 결과이다.
- 2020년의 사회봉사명령 종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행완료가 21,400건(75.8%)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대비 48.8%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부분집행과 처분변경에 의한 종료는 2,086건(7.4%)과 2,056건(7.3%)이었는데, 각각 전년 대비 10.1%와 37.8%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부분집행과 처분변경 종료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표 4-1-23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집행완료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14		42,108	37,142	1,868	1,564	1,534
		100%	88.2%	4.4%	3.7%	3.6%
2015		47,185	41,973	1,853	1,722	1,637
		100%	89.0%	3.9%	3.6%	3.5%
2016		47,880	42,404	1,849	1,960	1,667
		100%	88.6%	3.9%	4.1%	3.5%
2017		52,501	46,484	1,957	2,187	1,873
		100%	88.5%	3.7%	4.2%	3.6%
2018		49,560	43,563	1,961	2,197	1,839
		100%	87.9%	4.0%	4.4%	3.7%
2019		47,233	41,790	1,894	2,057	1,492
		100%	88.5%	4.0%	4.4%	3.2%
2020		28,231	21,400	2,086	2,689	2,056
		100%	75.8%	7.4%	9.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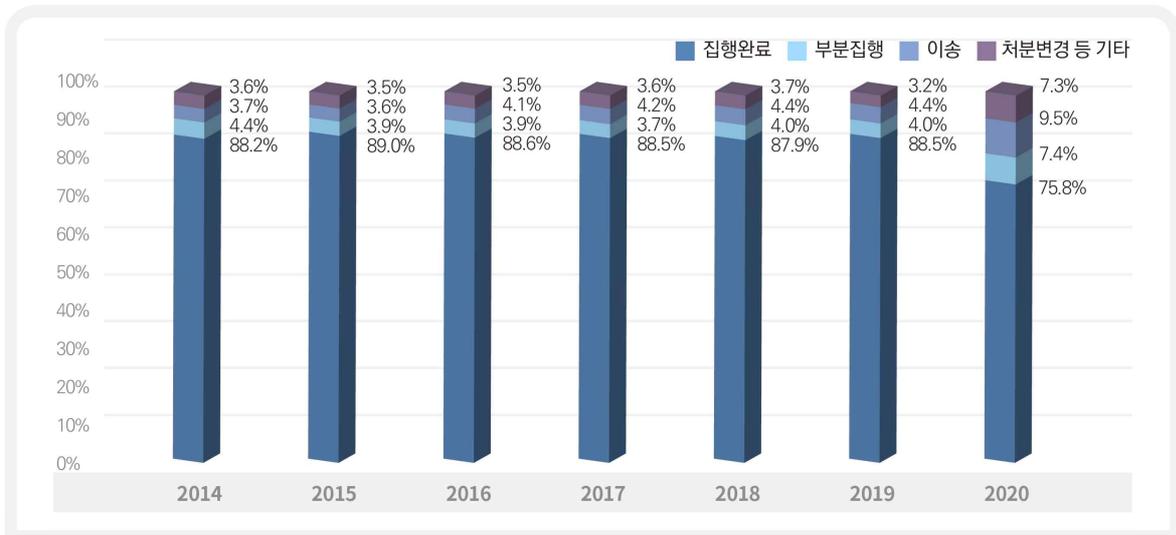


그림 4-1-24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4~2020)

## 2)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종료 현황

- 2020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종료사건은 21,609건으로, 전년 대비 46.0%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건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 종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행완료가 17,821건(82.5%)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에 비해 51.7% 감소하였다. 반면, 부분집행과 처분변경에 의한 종료는 629건(2.9%)과 675건(3.1%)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이송종료는 2,484건으로 전년 대비 28.7% 증가하였다.

표 4-1-24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집행완료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14		35,882	33,279	526	1,475	602
		100%	92.7%	1.5%	4.1%	1.7%
2015		38,554	35,677	562	1,625	690
		100%	92.5%	1.5%	4.2%	1.8%
2016		39,532	36,426	572	1,825	709
		100%	92.1%	1.5%	4.6%	1.8%
2017		44,157	40,653	644	2,061	799
		100%	92.0%	1.5%	4.7%	1.8%
2018		41,853	38,447	609	2,023	774
		100%	91.9%	1.5%	4.8%	1.8%
2019		40,043	36,918	607	1,930	588
		100%	92.2%	1.5%	4.8%	1.5%
2020		21,609	17,821	629	2,484	675
		100%	82.5%	2.9%	11.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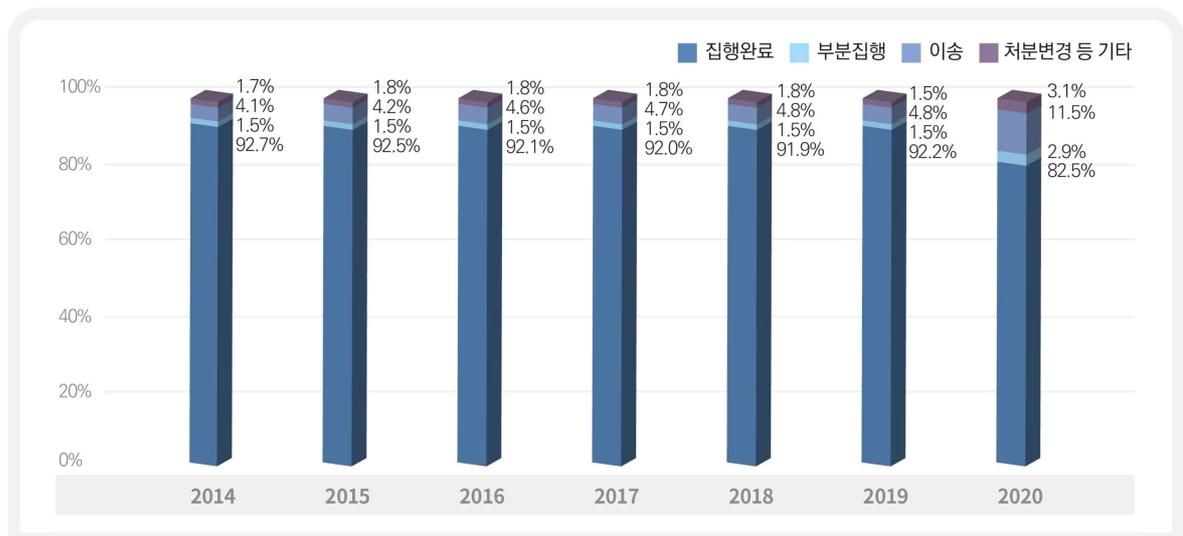


그림 4-1-25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4~2020)

### 3)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 현황

- 2020년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집행완료가 3,579건(54.0%), 부분집행이 1,457건(22.0%),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가 1,381건(20.9%) 등으로, 전체 사회봉사명령에 비해 부분집행 종료와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완료에 의한 종료율이 최저 62%에서 최고 72.9%를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집행완료사건의 비율이 54%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의 집행이 곤란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25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집행완료	부분집행	이송	처분변경 등 기타
2014		6,226	3,863	1,342	89	932
		100%	62.0%	21.6%	1.4%	15.0%
2015		8,631	6,296	1,291	97	947
		100%	72.9%	15.0%	1.1%	11.0%
2016		8,348	5,978	1,277	135	958
		100%	71.6%	15.3%	1.6%	11.5%
2017		8,344	5,831	1,313	126	1,074
		100%	69.9%	15.7%	1.5%	12.9%
2018		7,707	5,116	1,352	174	1,065
		100%	66.4%	17.5%	2.3%	13.8%
2019		7,190	4,872	1,287	127	904
		100%	67.7%	17.9%	1.8%	12.6%
2020		6,622	3,579	1,457	205	1,381
		100%	54.0%	22.0%	3.1%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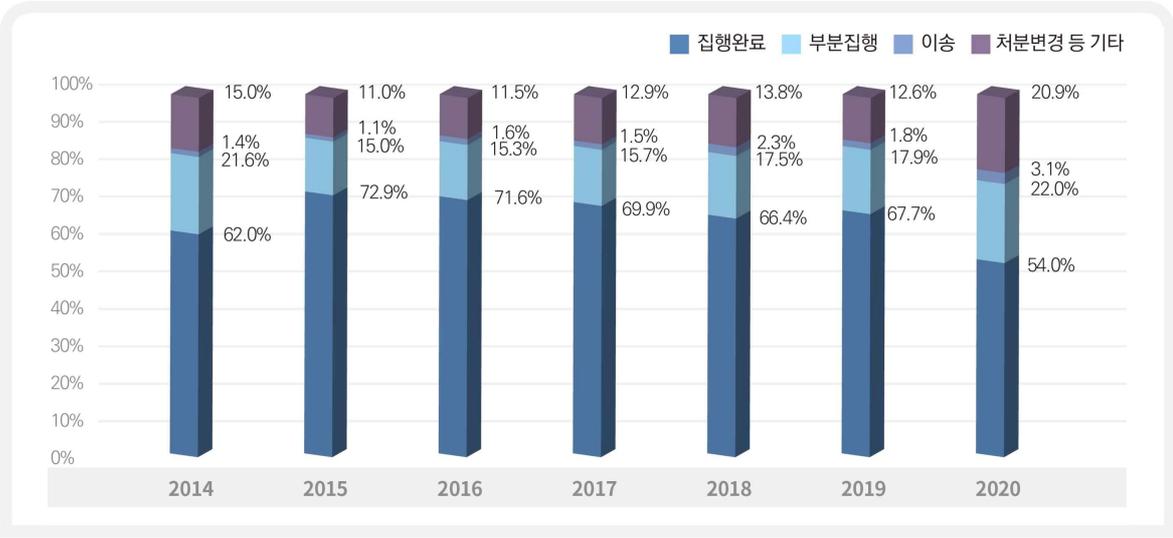


그림 4-1-26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4~2020)

#### 4)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처분변경 등 세부 현황

**개 요**

-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사건 중 부분집행과 처분변경 등에 의한 종료의 세부 현황

**지표정의**

- 벌금완납 : 벌금을 완납하여 종료한 경우
- 사회봉사허가취소 : 미신고, 기간만료, 준수사항위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허가취소되어 종료한 경우
- 기타 : 사망 등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

- 2020년 부분집행 또는 처분변경 종료된 벌금미납 사회봉사 사건 2,838건의 세부 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벌금완납에 따른 종료가 1,181건(41.6%)이었고, 벌금미납 사회봉사 허가취소에 의한 종료가 1,573건(55.4%), 기타 종료가 84건(3.0%) 등이었다.
- 또한,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허가취소 사유로는 준수사항 위반이 786건으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기타 사유 245건, 기간만료가 242건, 미신고가 181건, 구금이 119건 등이었는데, 전년 대비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취소 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벌금완납에 의한 종료는 연간 900~1,200명 안팎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사회봉사허가취소 사건 수는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지만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표 4-1-26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4~2020)

구분 연도	계	벌금 완납	사회봉사허가취소						사망	기타
			소계	미신고	기간 만료	준수사항위반	구금	기타 허가취소		
2014	2,274	1,053	1,134	173	177	655	53	76	9	78
	100%	46.3%	49.9%	7.6%	7.8%	28.8%	2.3%	3.4%	0.4%	3.4%
2015	2,238	891	1,280	187	228	716	55	94	8	59
	100%	39.8%	57.2%	8.4%	10.2%	32.0%	2.4%	4.2%	0.4%	2.6%
2016	2,234	850	1,307	189	208	761	62	87	11	66
	100%	38.0%	58.5%	8.5%	9.3%	34.0%	2.8%	3.9%	0.5%	3.0%
2017	2,387	937	1,391	238	112	882	65	94	13	46
	100%	39.3%	58.3%	10.0%	4.7%	37.0%	2.7%	3.9%	0.5%	1.9%
2018	2,417	931	1,435	235	156	818	69	157	20	31
	100%	38.5%	59.4%	9.7%	6.5%	33.8%	2.9%	6.5%	0.8%	1.3%
2019	2,191	860	1,283	187	77	768	62	189	4	44
	100%	39.3%	58.6%	8.5%	3.5%	35.1%	2.8%	8.6%	0.2%	2.0%
2020	2,838	1,181	1,573	181	242	786	119	245	22	62
	100%	41.6%	55.4%	6.4%	8.5%	27.7%	4.2%	8.6%	0.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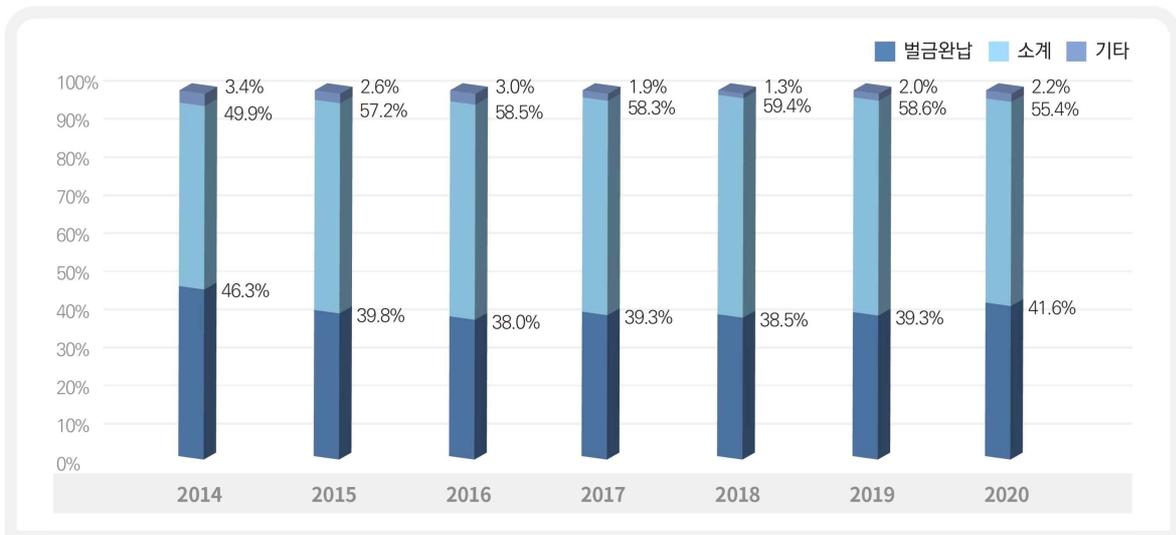


그림 4-1-27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4~2020)

## 제 2 절

# 수강명령

- ➔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교화 개선하고자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치료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 비행성교정과 심성순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의 하나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1995년 12월 형법의 개정과 연이은 특별법들의 제·개정으로 대상이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되어, 현재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범위의 범죄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 ➔ 이수명령은 범죄인의 재범 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도입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최초 시행된 이후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에서 순차적으로 법제화하였다. 기존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특정한 범죄인에게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외에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자특별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의 유형에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가정폭력 재범방지교육,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음란물소지자 재범방지교육, 아동학대 재범방지교육, 인터넷댓글 재범방지교육, 정신건강상담 등이 있다.

## 1 접수사건 현황

### 개 요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접수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사건 현황

### 지표정의

- 접수사건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에서 판결문이 신규 접수된 사건 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호관찰소 간 이송 사건)

### 1) 개요

- 2020년에 접수된 수강명령·이수명령·기소유예 교육 등 총 60,474건 중 수강명령이 41,672건 (6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소유예 교육 등이 12,155건(20.1%), 이수명령이 6,647건 (11.0%)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강명령의 경우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사건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이후 계속 높아져 2016년 51.0%에서

2020년에는 70%에 육박하였다,

- 이수명령의 사건 수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이후의 접수사건이 2014년보다 60% 이상 증가하였다. 기소유예 교육 등은 2016년에 전년 대비 106.8% 증가하면서 최근 7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 2016년 성구매자 교육 및 기타 기소유예 교육 등의 증가로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 성구매자 교육이 전년 대비 50.6% 감소하였으나 수강·이수명령 사건 접수 증가로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2014		38,796	24,879	4,046	9,871
		100%	64.1%	10.4%	25.4%
2015		45,027	27,588	4,548	12,891
		100%	61.3%	10.1%	28.6%
2016		62,702	31,971	4,078	26,653
		100%	51.0%	6.5%	42.5%
2017		62,315	36,657	5,362	20,296
		100%	58.8%	8.6%	32.6%
2018		56,291	33,306	6,578	16,407
		100%	59.2%	11.7%	29.1%
2019		55,761	34,518	6,403	14,840
		100%	61.9%	11.5%	26.6%
2020		60,474	41,672	6,647	12,155
		100%	68.9%	11.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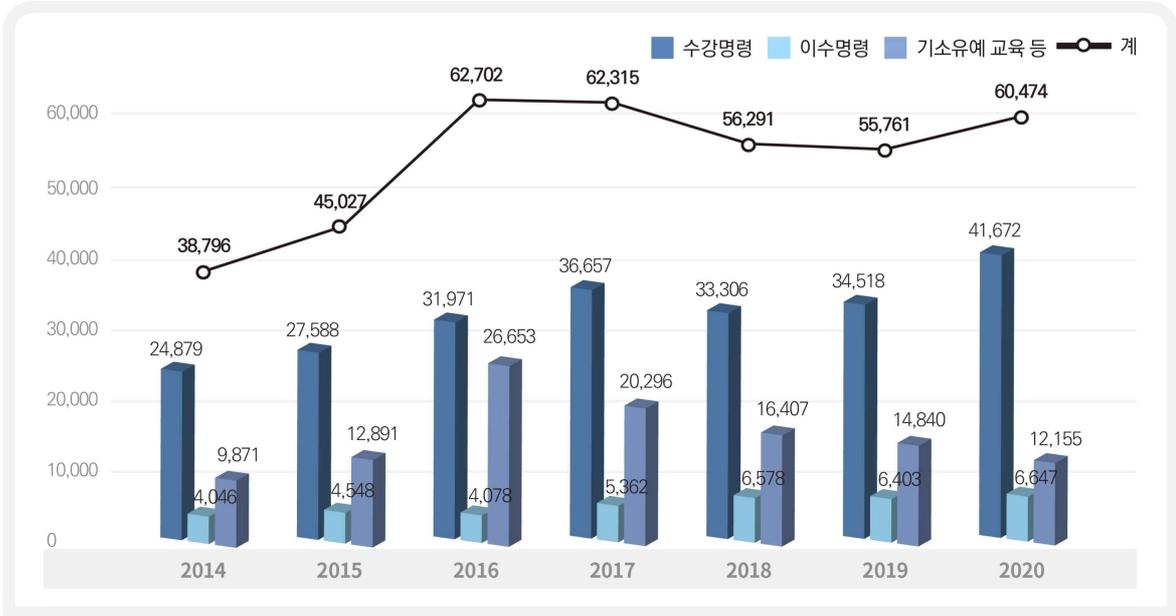


그림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4~2020)

## 2) 처분유형별 현황

### (1) 수강명령

개 요

-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보호관찰 병과, 단독명령) 현황

지표정의

- 보호관찰 병과 : 수강명령이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부과된 경우
- 단독명령 : 보호관찰 처분의 부과 없이 수강명령이 부과된 경우

- 2020년 접수된 수강명령사건을 보호관찰처분 병과사건과 단독 명령사건으로 구분하면, 보호관찰 병과사건은 11,585건(27.8%), 단독 수강명령 사건은 30,087건(72.2%)으로, 단독명령 사건이 보호관찰 병과사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처분유형별 현황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여,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 병과사건이 59.6%인 반면 성인의 경우 단독 명령사건이 77.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처분유형별 현황은 최근 7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표 4-2-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구분 연도	전체			소년			성인		
	계	보호관찰부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부과	단독명령	계	보호관찰부과	단독명령
2014	24,879	9,324	15,555	5,718	3,836	1,882	19,161	5,488	13,673
	100%	37.5%	62.5%	100%	67.1%	32.9%	100%	28.6%	71.4%
2015	27,588	10,374	17,214	4,752	3,338	1,414	22,836	7,036	15,800
	100%	37.6%	62.4%	100%	70.2%	29.8%	100%	30.8%	69.2%
2016	31,971	11,711	20,260	4,462	3,166	1,296	27,509	8,545	18,964
	100%	36.6%	63.4%	100%	71.0%	29.0%	100%	31.1%	68.9%
2017	36,657	12,621	24,036	4,888	3,554	1,334	31,769	9,067	22,702
	100%	34.4%	65.6%	100%	72.7%	27.3%	100%	28.5%	71.5%
2018	33,306	10,586	22,720	4,623	3,160	1,463	28,683	7,426	21,257
	100%	31.8%	68.2%	100%	68.4%	31.6%	100%	25.9%	74.1%
2019	34,518	10,505	24,013	4,125	2,644	1,481	30,393	7,861	22,532
	100%	30.4%	69.6%	100%	64.1%	35.9%	100%	25.9%	74.1%
2020	41,672	11,585	30,087	5,426	3,236	2,190	36,246	8,349	27,897
	100%	27.8%	72.2%	100%	59.6%	40.4%	100%	23.0%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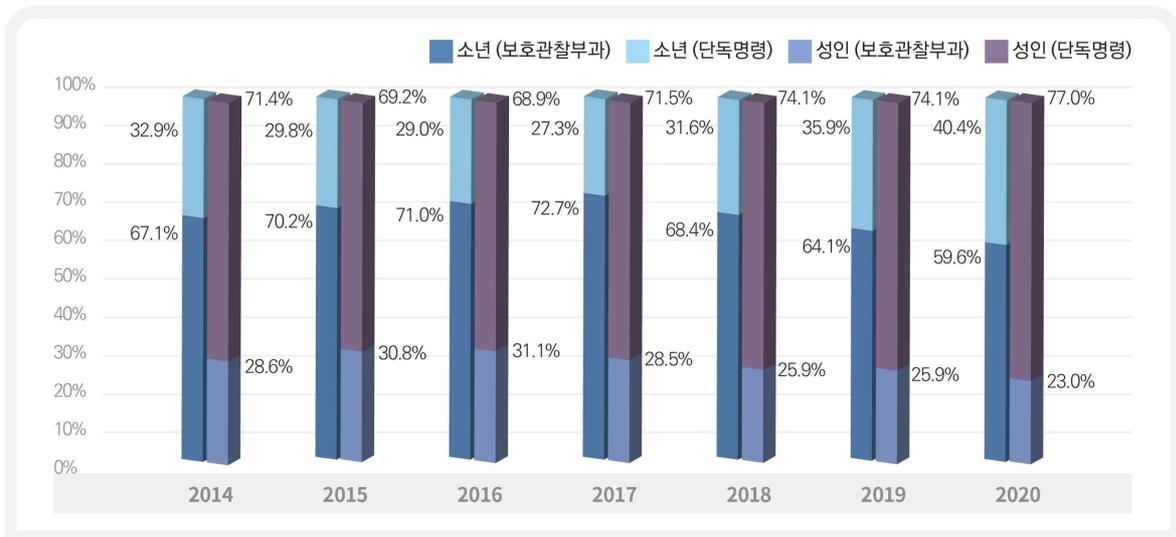


그림 4-2-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 (2) 이수명령

**개 요**

-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

**지표정의**

- 당해연도 이수명령의 접수사건을 처분유형별(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선고유예) 사건으로 구분

- 2020년에 접수된 이수명령 사건을 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벌금형에 병과된 경우가 6,099건(9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징역형 병과가 524건(7.9%), 집행유예 병과가 23건(0.3%), 선고유예 병과가 1건(0.0%)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벌금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사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000건 내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5,038건, 2018년부터는 6,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징역형 병과사건은 2014년 199건에서 증가하여 2017년 299건, 2018년 335건, 2019년 328건 등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9.8% 증가하였다.
- 집행유예 병과사건은 2014년 264건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5년 193건, 2016년 120건 등이었다가 2017년 이후로는 20건 내외를 보이며, 선고유예 병과사건은 매년 5건 미만이 접수되고 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등 집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징역형 병과사건의 접수가 증가하였다.

관련 근거 법률에 따르면, 징역형 이상의 실형에 병과되는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지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표 4-2-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연도	형태	계	벌금형 병과	집행유예 병과	징역형 병과	선고유예 병과
2014		4,046	3,663	264	119	0
		100%	90.5%	6.5%	2.9%	0.0%
2015		4,548	4,189	193	166	0
		100%	92.1%	4.2%	3.6%	0.0%
2016		4,078	3,750	120	202	6
		100%	92.0%	2.9%	5.0%	0.1%
2017		5,362	5,038	22	299	3
		100%	94.0%	0.4%	5.6%	0.1%

연도	형태	계	벌금형 병과	집행유예 병과	징역형 병과	선고유예 병과
2018		6,578	6,226	15	335	2
		100%	94.6%	0.2%	5.1%	0.0%
2019		6,403	6,055	16	328	4
		100%	94.6%	0.2%	5.1%	0.1%
2020		6,647	6,099	23	524	1
		100%	91.8%	0.3%	7.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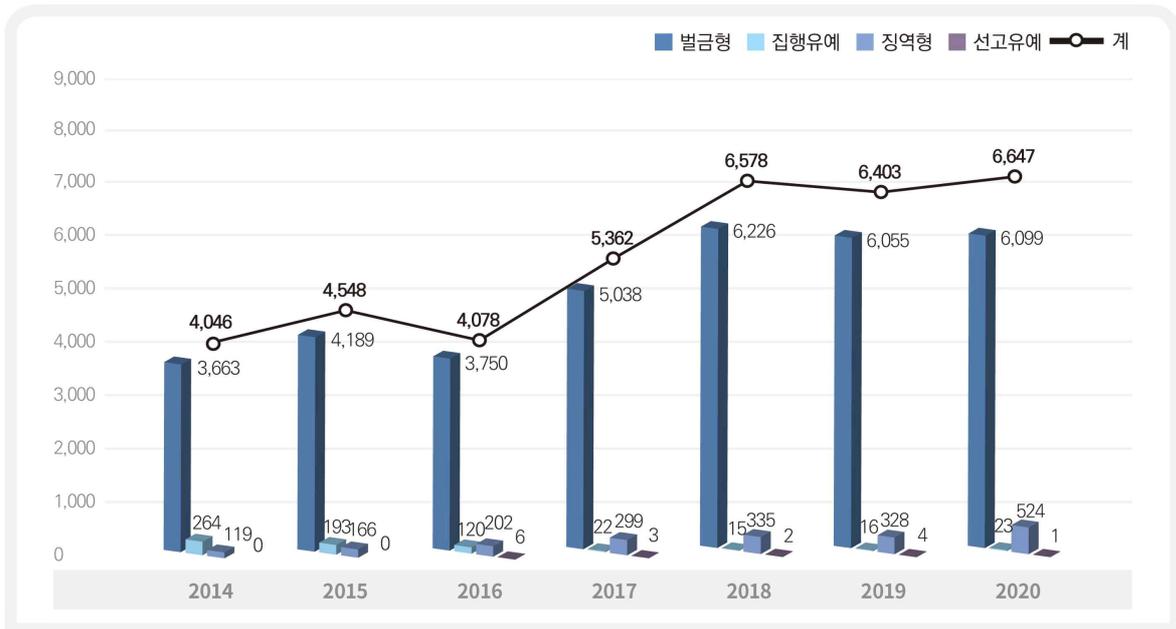


그림 4-2-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 3) 이수명령의 근거 법률별 현황

- 2020년 이수명령 접수사건 6,647건을 근거 법률에 따라 구분하면, 성폭력처벌법이 6,385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하였고, 그 밖에 청소년성보호법 255건(3.8%), 아동학대처벌법 5건(0.1%), 마약류관리법 2건(0.0%) 등이었다.
- 최근 7년간 매년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사건이 전체의 99.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은 10건 미만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마약류관리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향후 접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수명령은 2010년 4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최초 시행되었고, 이후 성폭력처벌법(2011년 10월), 아동학대처벌법(2014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마약류관리법(2020년 12월) 등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는 가정폭력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021년 10월부터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벌과 병과할 수 있다.

표 4-2-4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연도	처분법	총계					
		총계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 처벌법	산업안전 보건법	마약류 관리법
2014		4,046	3,708	334	4	-	-
		100%	91.6%	8.3%	0.1%	-	-
2015		4,548	4,290	251	7	-	-
		100%	94.3%	5.5%	0.2%	-	-
2016		4,078	3,897	173	8	-	-
		100%	95.6%	4.2%	0.2%	-	-
2017		5,362	5,105	253	4	-	-
		100%	95.2%	4.7%	0.1%	-	-
2018		6,578	6,301	272	5	-	-
		100%	95.8%	4.1%	0.1%	-	-
2019		6,403	6,145	256	2	-	-
		100%	96.0%	4.0%	0.0%	-	-
2020		6,647	6,385	255	5	0	2
		100%	96.1%	3.8%	0.1%	0.0%	0.0%

#### 4) 연령별 현황

##### 지표정의

- 소년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미만(단, 소년법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년으로 분류)
- 성인 : 판결정문 접수일 기준, 19세 이상

- 2020년 수강명령 등 전체 접수사건 중 성인이 51,330건(84.9%), 소년이 9,144건(15.1%)이었다. 이를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등으로 구분하면, 수강명령의 경우 소년이 5,426건(13.0%), 성인이 36,246건(87.0%)이었고, 이수명령은 모두 성인 사건이었으며, 기소유예 교육 등은 소년이 3,718건(30.6%), 성인이 8,437건(69.4%)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강명령 등 접수사건에서 성인은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소년의 비율은 감소하여 2014년에 성인이 70%, 소년이 3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소년의 비율이 2015년 22.9%, 2016년 14.9%, 2017년 17.5%, 2018년 18.5%, 2019년에는 14.4% 등이었다.
- 이수명령의 경우, 소년사건이 극히 드물어 2014년, 2016년, 2017년, 2019년 등에 각 2~3건이 접수되었을 뿐이었다.
- 기소유예 교육 중 소년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최소 5,000건에서 최대 6,000건에 육박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4,00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성인 사건은 매년 편차가

커서 2014년의 4,211건에서 2016년에는 21,781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4% 이상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3% 상승하였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다.

표 4-2-5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도	전체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소년	성인	소년	성인	소년	성인	소년	성인
2014	11,639	27,157	5,977	18,902	2	4,044	5,660	4,211
	30.0%	70.0%	24.0%	76.0%	0%	100%	57.3%	42.7%
2015	10,307	34,720	4,877	22,711	0	4,548	5,430	7,461
	22.9%	77.1%	17.7%	82.3%	0%	100%	42.1%	57.9%
2016	9,337	53,365	4,462	27,509	3	4,075	4,872	21,781
	14.9%	85.1%	14.0%	86.0%	0.1%	99.9%	18.3%	81.7%
2017	10,880	51,435	4,888	31,769	2	5,360	5,990	14,306
	17.5%	82.5%	13.3%	86.7%	0%	100%	29.5%	70.5%
2018	10,441	45,850	4,623	28,683	0	6,578	5,818	10,589
	18.5%	81.5%	13.9%	86.1%	0%	100%	35.5%	64.5%
2019	8,032	47,729	4,125	30,393	2	6,401	3,905	10,935
	14.4%	85.6%	12.0%	88.0%	0%	100%	26.3%	73.7%
2020	9,144	51,330	5,426	36,246	0	6,647	3,718	8,437
	15.1%	84.9%	13.0%	87.0%	0%	100%	30.6%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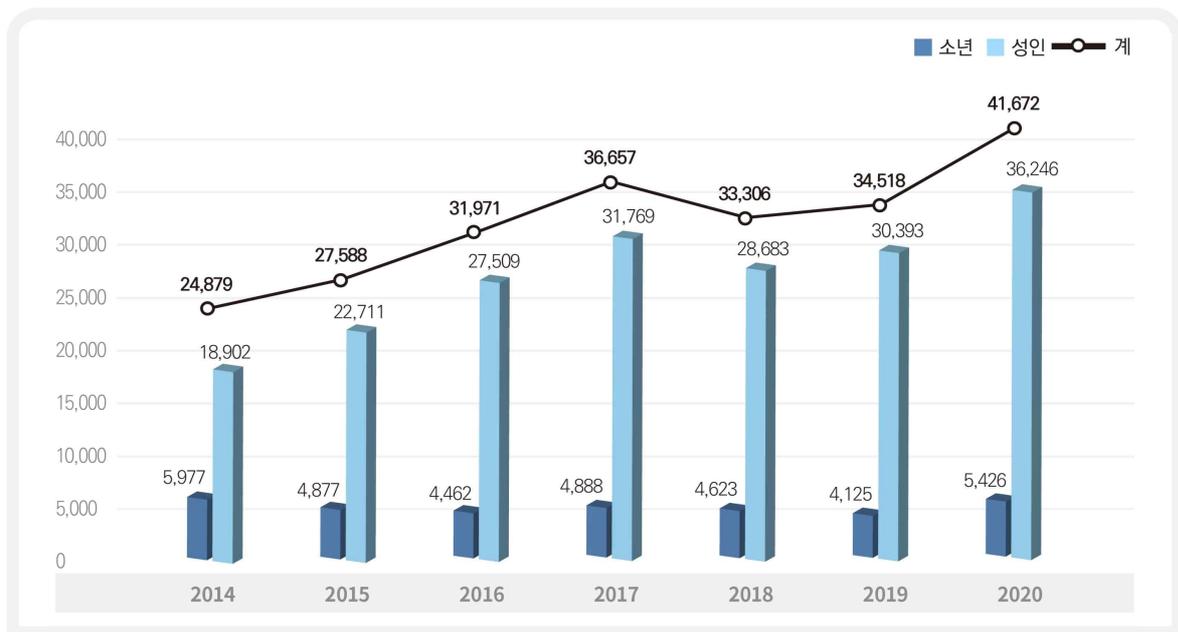


그림 4-2-4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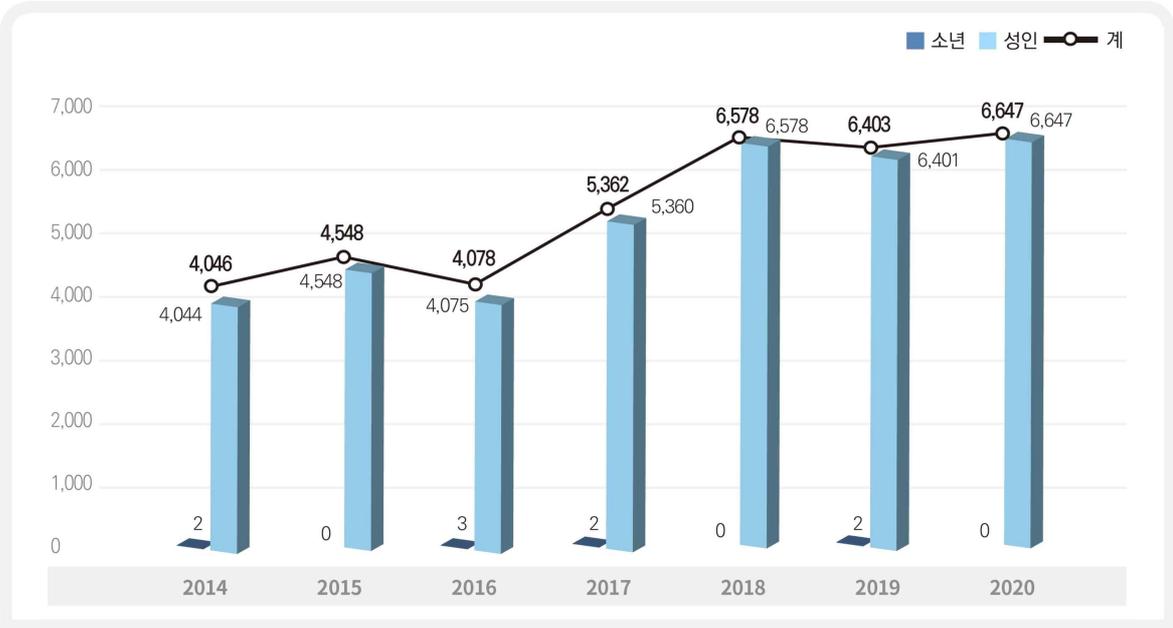


그림 4-2-5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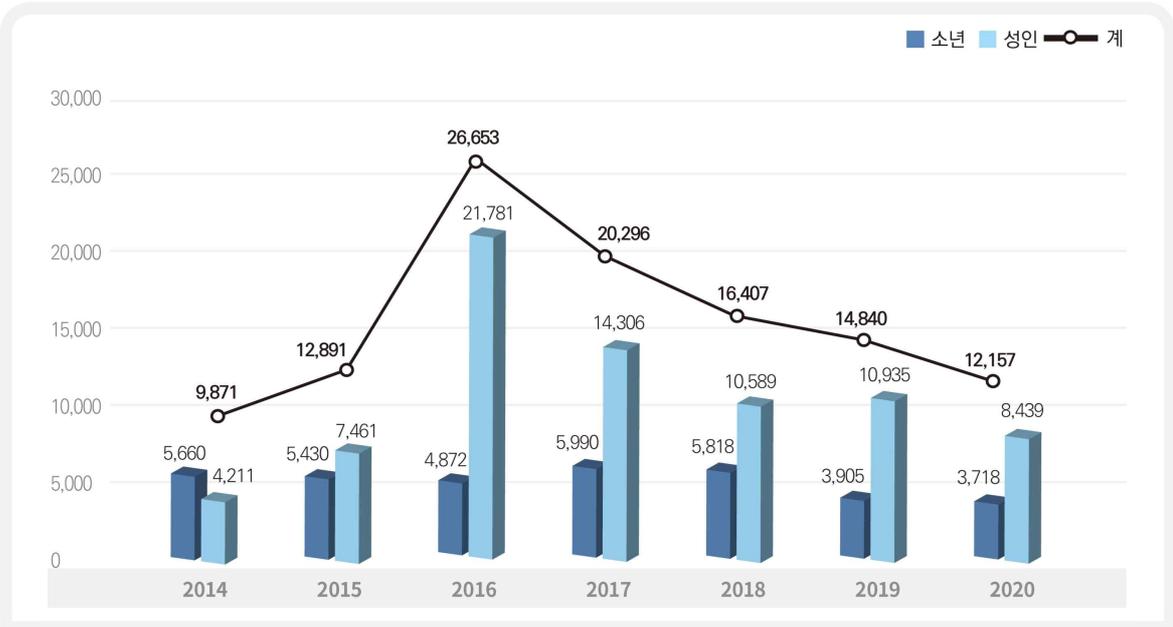


그림 4-2-6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2020년에 접수된 소년 수강명령사건의 연령대를 세분하면, 17세가 2,066건(22.6%), 16세가 1,951건(21.3%), 18세가 1,911건(20.9%), 15세가 1,595건(17.5%) 등으로 15~18세가 82.3%를 차지하였고, 그 외 14세가 1,022건(11.2%), 14세 미만이 534건(5.8%), 19세 이상이 65건(0.7%) 등이었다.

\* 소년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

계	14세 미만	14	15	16	17	18	19세 이상
9,144	534	1,022	1,595	1,951	2,066	1,911	65
100%	5.8%	11.2%	17.5%	21.3%	22.6%	20.9%	0.7%

- 2020년 성인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대를 세분하면, 40대가 12,531건(24.4%), 30대가 11,773건(22.9%), 50대가 11,330건(22.1%)로, 30~50대가 전체의 69.4%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20대가 9,530건(18.6%), 60대가 5,077건(9.9%), 70대가 980건(1.9%), 80대 이상이 112건(0.2%) 등이었다.

\* 성인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20)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51,330	9,530	11,773	12,528	11,330	5,077	980	112
100%	18.6%	22.9%	24.4%	22.1%	9.9%	1.9%	0.2%

## 5) 성별 현황

- 2020년 수강명령 등 전체 접수사건 중 남성이 54,637건(90.3%), 여성이 5,837건(9.7%)이었다. 이를 수강·이수명령과 기소유예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강명령은 남성이 37,717건(90.5%), 여성 3,955건 (9.5%)이었고, 이수명령은 남성이 6,510건(97.9%), 여성이 137건(2.1%)이었으며, 기소유예 교육 등은 남성이 10,410건(85.6%), 여성이 1,745건 (14.4%)으로,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비율이 높았다.
- 최근 7년간, 매년 남성이 전체 사건의 90~95%를 차지하는데, 수강명령의 경우 매년 남성이 9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여성사건의 수가 계속 증가하며 비율도 높아져 2016년까지는 7%대였다가 2019년부터 9.5%로 나타났다.
- 이수명령에서도 수강명령과 마찬가지로, 최근 7년동안 매년 남성이 98%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여성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비율도 높아져 2016년까지 1% 미만이었다가 2019년부터 2%대를 차지하였다.
- 기소유예 교육 등에서도 2016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사건 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사건 수는 증가하여, 여성의 비율이 2014년 9.4%에서 2020년 14.4%이었다.

표 4-2-6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전체		수강명령		이수명령		기소유예 교육 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36,084	2,712	23,101	1,778	4,036	10	8,947	924
		93.0%	7.0%	92.9%	7.1%	99.8%	0.2%	90.6%	9.4%
2015		42,208	2,819	25,614	1,974	4,532	16	12,062	829
		93.7%	6.3%	92.8%	7.2%	99.6%	0.4%	93.6%	6.4%
2016		58,987	3,715	29,522	2,449	4,047	31	25,418	1,235
		94.1%	5.9%	92.3%	7.7%	99.2%	0.8%	95.4%	4.6%
2017		57,509	4,806	33,368	3,289	5,304	58	18,837	1,459
		92.3%	7.7%	91.0%	9.0%	98.9%	1.1%	92.8%	7.2%
2018		51,899	4,392	30,425	2,881	6,492	86	14,982	1,425
		92.2%	7.8%	91.3%	8.7%	98.7%	1.3%	91.3%	8.7%
2019		50,578	5,183	31,230	3,288	6,273	130	13,075	1,765
		90.7%	9.3%	90.5%	9.5%	98.0%	2.0%	88.1%	11.9%
2020		54,637	5,837	37,717	3,955	6,510	137	10,410	1,745
		90.3%	9.7%	90.5%	9.5%	97.9%	2.1%	85.6%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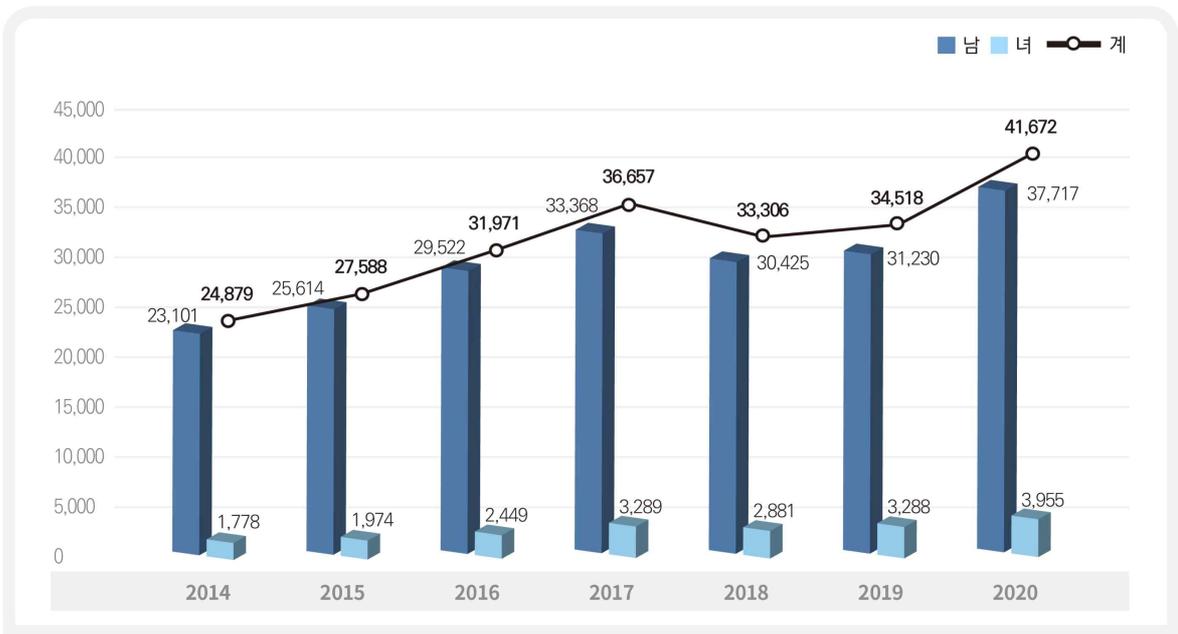


그림 4-2-7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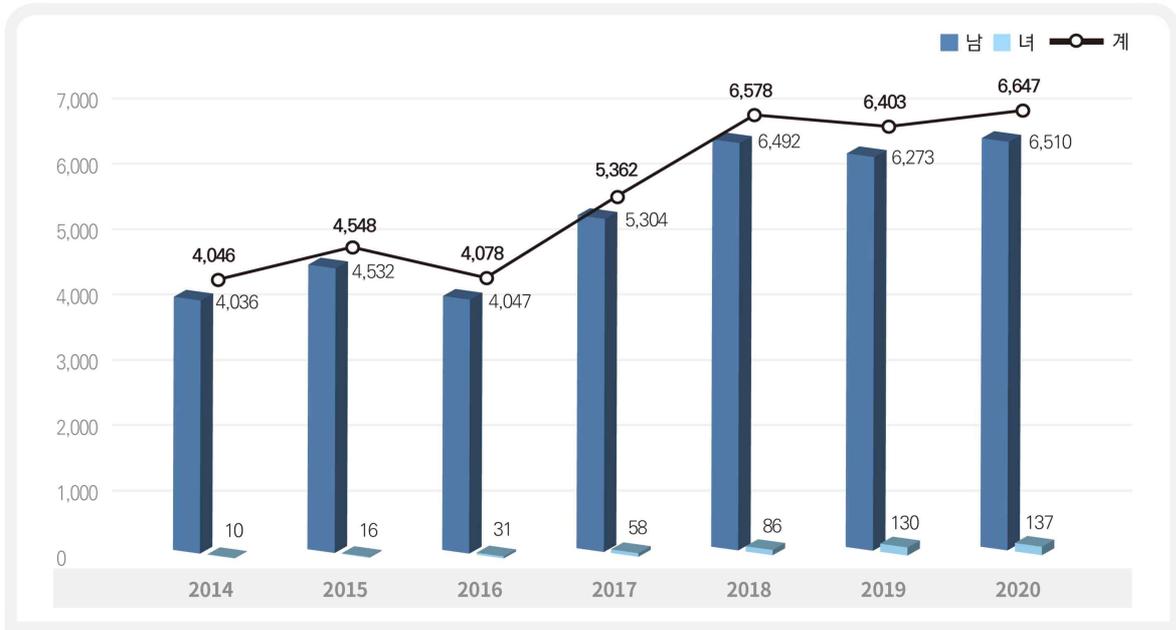


그림 4-2-8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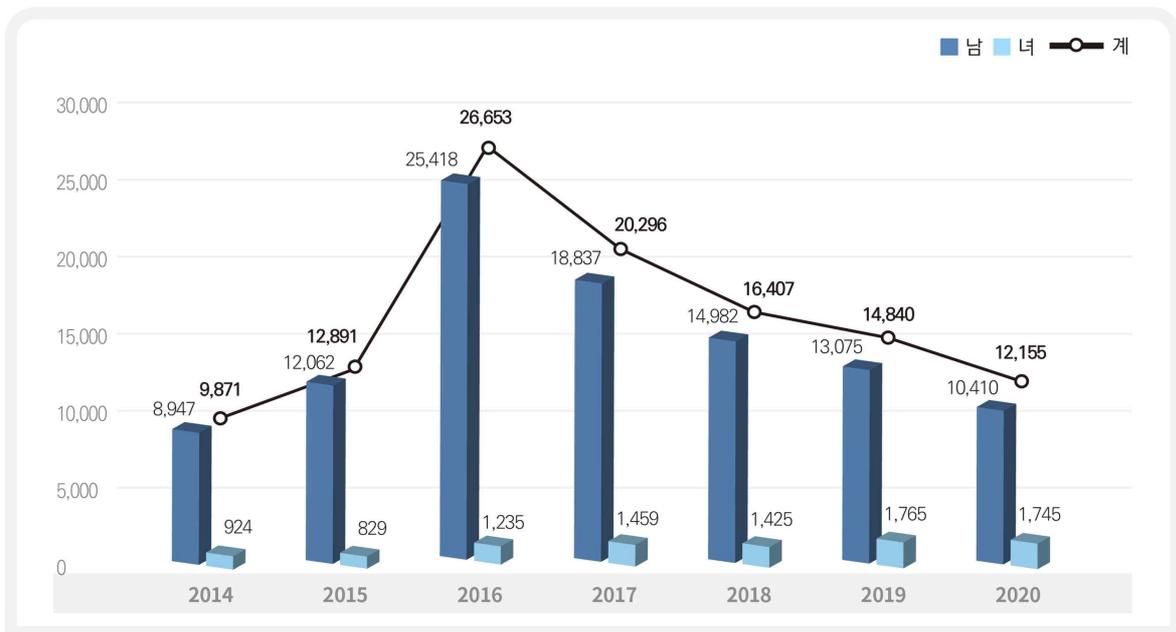


그림 4-2-9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 6)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

### (1) 수강명령

- 2020년에 접수된 수강명령을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남성이 33,118건(7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년 남성이 4,599건(11.0%), 성인 여성이 3,128건(7.5%), 소년 여성이 827건(2.0%) 등이었다. 여성의 비율은 소년(15.2%)인 경우가 성인(8.6%)보다 높았다.

표 4-2-7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사범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24,879	5,179	798	17,922	980
		100%	20.8%	3.2%	72.0%	3.9%
2015		27,588	4,310	567	21,304	1,407
		100%	15.6%	2.1%	77.2%	5.1%
2016		31,971	3,946	516	25,576	1,933
		100%	12.3%	1.6%	80.0%	6.0%
2017		36,657	4,172	716	29,196	2,573
		100%	11.4%	2.0%	79.6%	7.0%
2018		33,306	3,930	693	26,495	2,188
		100%	11.8%	2.1%	79.6%	6.6%
2019		34,518	3,375	750	27,855	2,538
		100%	9.8%	2.2%	80.7%	7.4%
2020		41,672	4,599	827	33,118	3,128
		100%	11.0%	2.0%	79.5%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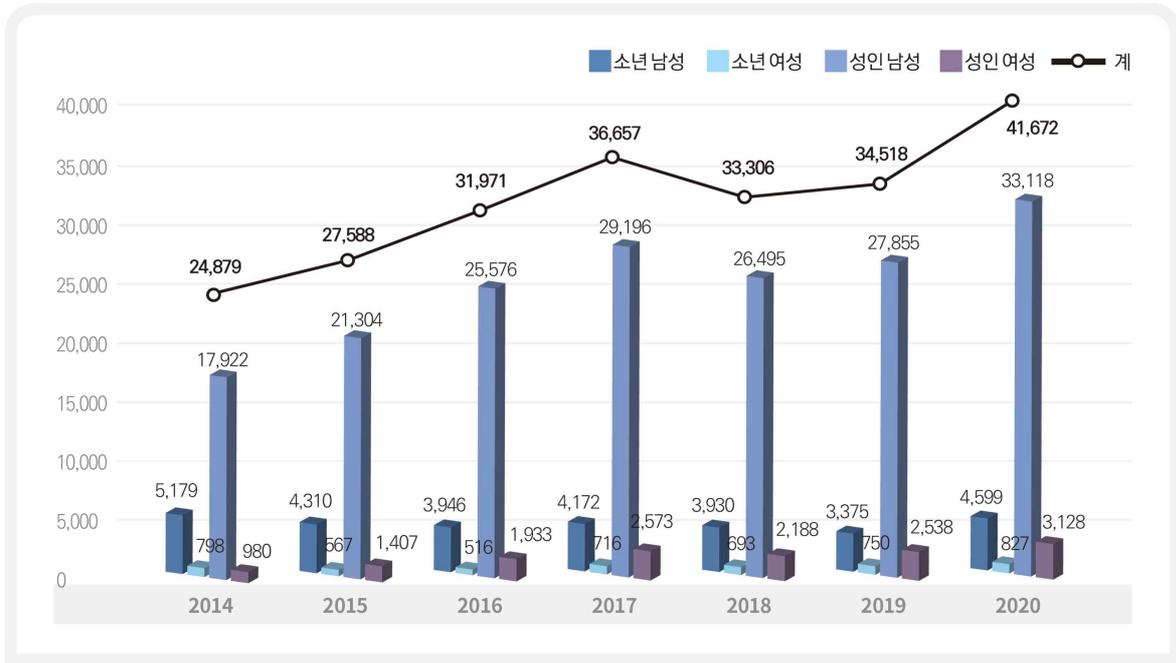


그림 4-2-10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 (2) 이수명령

- 2020년에 접수된 이수명령을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을 구분한 결과, 성인 남성이 6,510건(97.9%), 성인 여성이 137건(2.1%)이었다.
- 최근 7년간 매년 일관되게 성인 남성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였고, 성인 여성의 경우 사건 수는 최대 137건으로 많지 않지만, 꾸준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표 4-2-8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사범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4,046	2	0	4,034	10
		100%	0.0%	0.0%	99.7%	0.2%
2015		4,548	0	0	4,532	16
		100%	0.0%	0.0%	99.6%	0.4%
2016		4,078	2	1	4,045	30
		100%	0.0%	0.0%	99.2%	0.7%
2017		5,362	2	0	5,302	58
		100%	0.0%	0.0%	98.9%	1.1%

연도	사범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8		6,578	0	0	6,492	86
		100%	0.0%	0.0%	98.7%	1.3%
2019		6,403	2	0	6,271	130
		100%	0.0%	0.0%	97.9%	2.0%
2020		6,647	0	0	6,510	137
		100%	0.0%	0.0%	97.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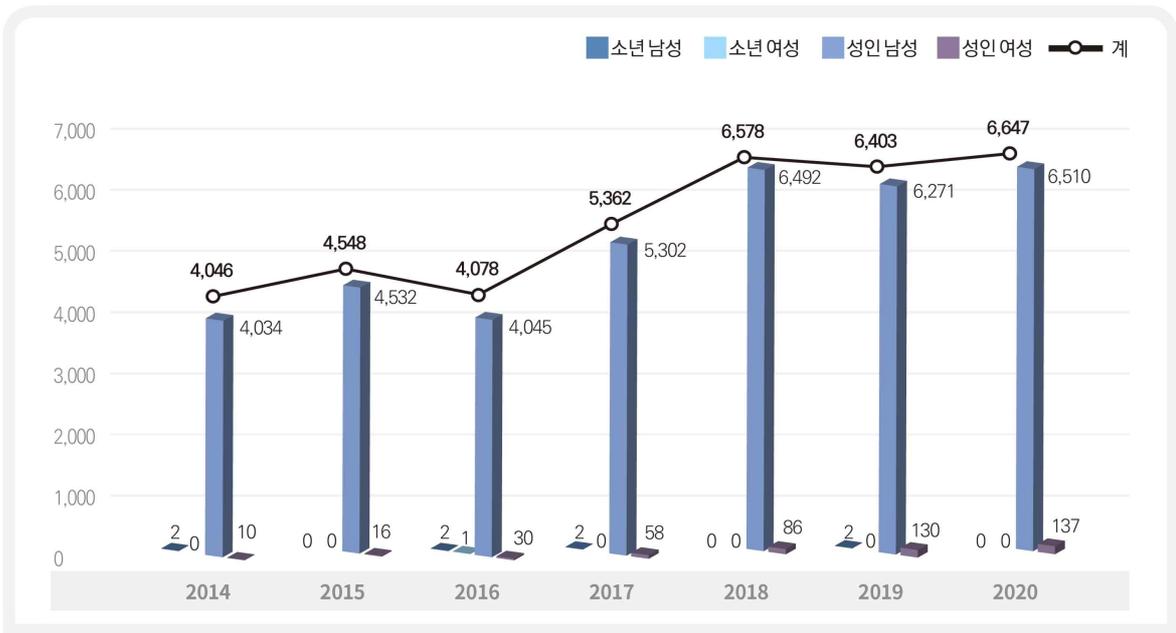


그림 4-2-11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 (3) 기소유예 교육 등

- 2020년에 접수된 기소유예 교육 등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성인 남성이 7,448건(61.3%), 소년 남성이 2,962건(24.4%), 성인 여성이 989건(8.1%), 소년 여성이 756건(6.2%) 등이었다.
- 지난 7년간, 성인의 경우 남성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접수사건 수가 2014년 27건(0.3%)에서 2020년 989건(8.1%)으로 7년간 36배 이상 증가하였다. 소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접수사건 수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9 기소유에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소년		성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9,871	4,763	897	4,184	27
		100%	48.3%	9.1%	42.4%	0.3%
2015		12,891	4,655	775	7,407	54
		100%	36.1%	6.0%	57.5%	0.4%
2016		26,653	4,178	694	21,240	541
		100%	15.7%	2.6%	79.7%	2.0%
2017		20,296	4,982	1,008	13,855	451
		100%	24.5%	5.0%	68.3%	2.2%
2018		16,407	4,863	955	10,119	470
		100%	29.6%	5.8%	61.7%	2.9%
2019		14,840	3,088	817	9,987	948
		100%	20.8%	5.5%	67.3%	6.4%
2020		12,155	2,962	756	7,448	989
		100%	24.4%	6.2%	61.3%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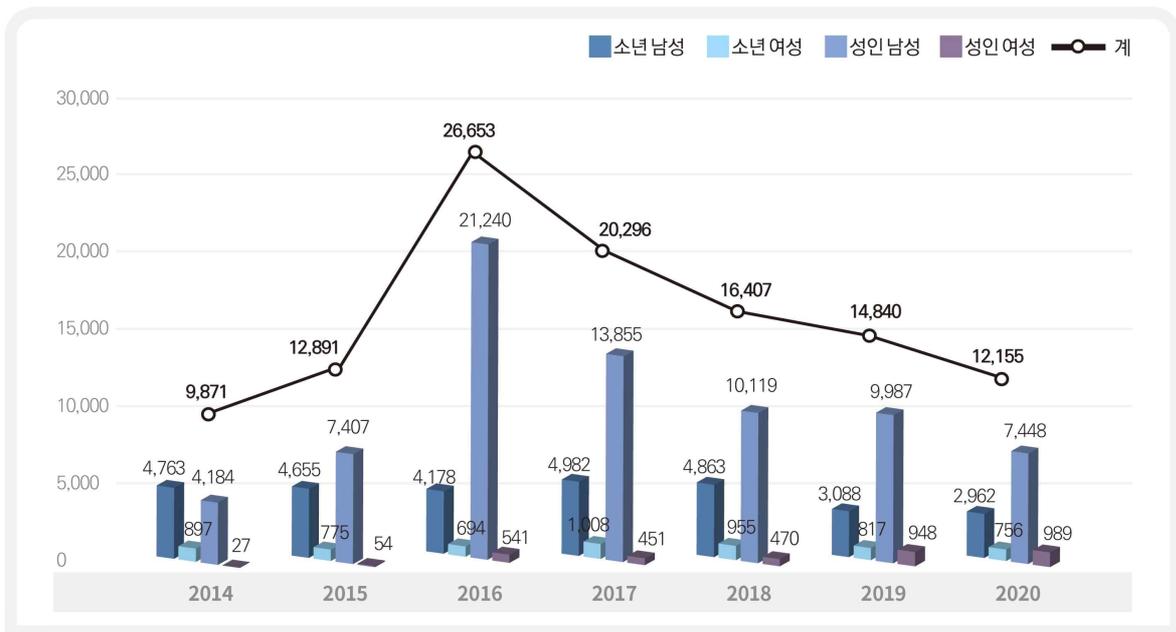


그림 4-2-12 기소유에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 7) 내외국인 현황

- 2020년의 수강명령 접수사건 총 60,474건 중 내국인이 59,953건(99.1%), 외국인이 521건(0.9%)이었다.

표 4-2-10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소년	성인	소계	소년	성인
60,474	59,953	9,118	50,835	521	23	498
100%	99.1%	15.1%	84.1%	0.9%	0.0%	0.8%



그림 4-2-13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 8) 사범별 현황

- 2020년에 접수된 수강명령을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교통사범이 24,211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사범 6,343건(15.2%), 성폭력사범 5,550건(13.3%), 기타사범 2,366건(5.7%), 절도사범 1,288건(3.1%) 등의 순이었으며, 사기횡령사범, 강력사범, 마약사범, 풍속사범, 경제사범 등은 각 2%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7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사범(43~58%)과 폭력사범(20% 내외)의 사건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폭력사범은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도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기타사범은 2015년 이후 5~6%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도사범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표 4-2-11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연도 \ 사범	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2014	24,879	4,777	10,759	1,835	343	135	590	398	4,919	26	1,097
	100%	19.2%	43.2%	7.4%	1.4%	0.5%	2.4%	1.6%	19.8%	0.1%	4.4%
2015	27,588	5,977	12,022	1,356	358	139	621	584	4,789	88	1,654
	100%	21.7%	43.6%	4.9%	1.3%	0.5%	2.2%	2.1%	17.4%	0.3%	6.0%
2016	31,971	6,504	14,995	1,155	338	112	704	1,032	5,182	52	1,897
	100%	20.3%	46.9%	3.6%	1.1%	0.4%	2.2%	3.2%	16.2%	0.2%	5.9%
2017	36,657	7,347	17,940	1,076	379	88	903	1,292	5,524	40	2,068
	100%	20.0%	49.0%	2.9%	1.0%	0.3%	2.5%	3.5%	15.1%	0.1%	5.6%
2018	33,306	6,466	16,620	1,054	347	66	698	772	5,379	36	1,868
	100%	19.4%	49.9%	3.2%	1.0%	0.2%	2.1%	2.3%	16.2%	0.1%	5.6%
2019	34,518	6,970	17,531	934	339	110	623	640	5,371	39	1,961
	100%	20.2%	50.8%	2.7%	1.0%	0.3%	1.8%	1.8%	15.6%	0.1%	5.7%
2020	41,672	6,343	24,211	1,288	467	114	616	683	5,550	34	2,366
	100%	15.2%	58.1%	3.1%	1.1%	0.3%	1.5%	1.6%	13.3%	0.1%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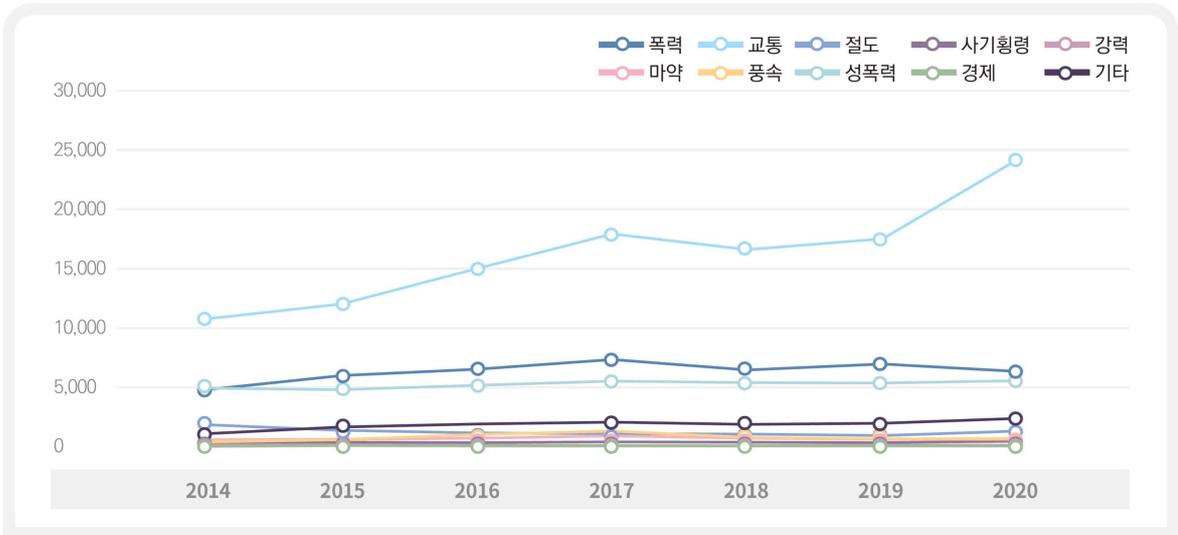


그림 4-2-14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그림 4-2-15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0)

## 9) 명령시간별 현황

### (1) 수강명령

- 2020년에 접수된 수강명령 사건을 부과 시간에 따라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50시간 이하가 40,310건(96.7%)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고, 51~100시간이 1,283건(3.1%), 100시간 초과가 총 73건(0.2%)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50시간 이하 사건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51~100시간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101~200시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일시 증가하였지만, 2019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300시간은 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301~400시간은 2017년까지는 접수되지 않다가 2018년 1건, 2019년에는 2건이 접수되었으나 2020년에는 접수되지 않았다.

표 4-2-1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연도 \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2014	24,879	23,146	1,556	172	5	0
	100%	93.0%	6.3%	0.7%	0.0%	0.0%
2015	27,588	25,731	1,705	152	0	0
	100%	93.3%	6.2%	0.5%	0.0%	0.0%
2016	31,971	29,885	1,955	128	3	0
	100%	93.5%	6.1%	0.4%	0.0%	0.0%
2017	36,657	34,516	2,051	90	0	0
	100%	94.2%	5.6%	0.2%	0.0%	0.0%
2018	33,306	31,418	1,773	114	0	1
	100%	94.3%	5.3%	0.4%	0.0%	0.0%
2019	34,518	33,102	1,318	96	0	2
	100%	95.9%	3.8%	0.3%	0.0%	0.0%
2020	41,672	40,316	1,283	73	0	0
	100%	96.7%	3.1%	0.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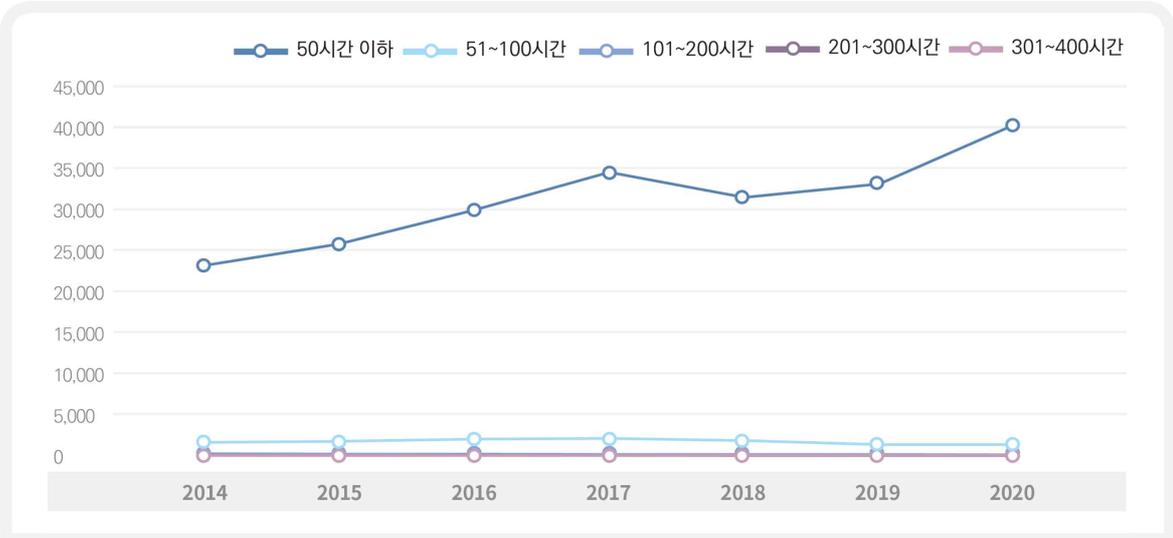


그림 4-2-16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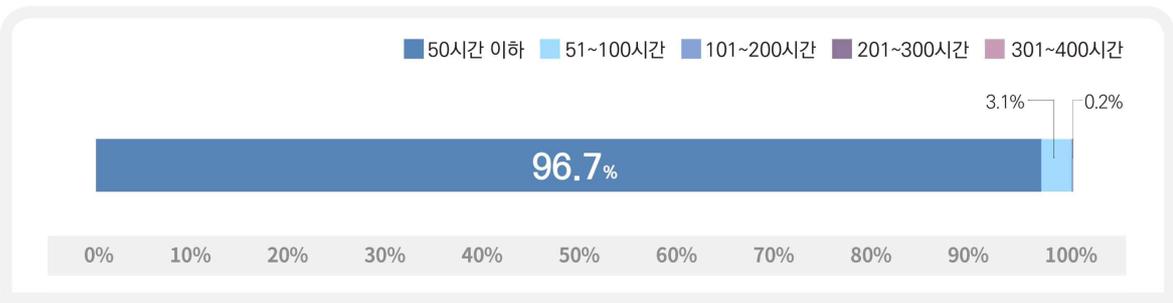


그림 4-2-17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점유율(2020)

(2) 이수명령

- 2020년의 이수명령 접수사건을 부과 시간에 따라 구분하면, 50시간 이하가 6,363건(95.7%)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51~100시간이 261건(4.0%), 100시간 초과가 23건(0.3%)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50시간 이하 사건 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4년 3,797건에서 2019년 6,253건, 2020년 6,363건 등이었고, 전체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93.9%에서 2019년 97.7%, 2020년 95.7% 등으로 나타났다.
- 51~100시간 사건은 2014년 228건에서 2015년 173건, 2017년 122건, 2019년 132건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고, 그 비율도 2.1%에서 4.0%로 증가하였다.

표 4-2-1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연도	시간	계	50시간 이하	51~100시간	101~200시간	201~300시간	301~400시간
2014		4,046	3,797	228	20	1	0
		100%	93.9%	5.6%	0.5%	0.0%	0.0%
2015		4,548	4,349	173	26	0	0
		100%	95.6%	3.8%	0.6%	0.0%	0.0%
2016		4,078	3,888	175	15	0	0
		100%	95.3%	4.3%	0.4%	0.0%	0.0%
2017		5,362	5,226	122	14	0	0
		100%	97.4%	2.3%	0.3%	0.0%	0.0%
2018		6,578	6,423	139	16	0	0
		100%	97.7%	2.1%	0.2%	0.0%	0.0%
2019		6,403	6,253	132	16	2	0
		100%	97.7%	2.1%	0.2%	0.0%	0.0%
2020		6,647	6,363	261	20	2	1
		100%	95.7%	4.0%	0.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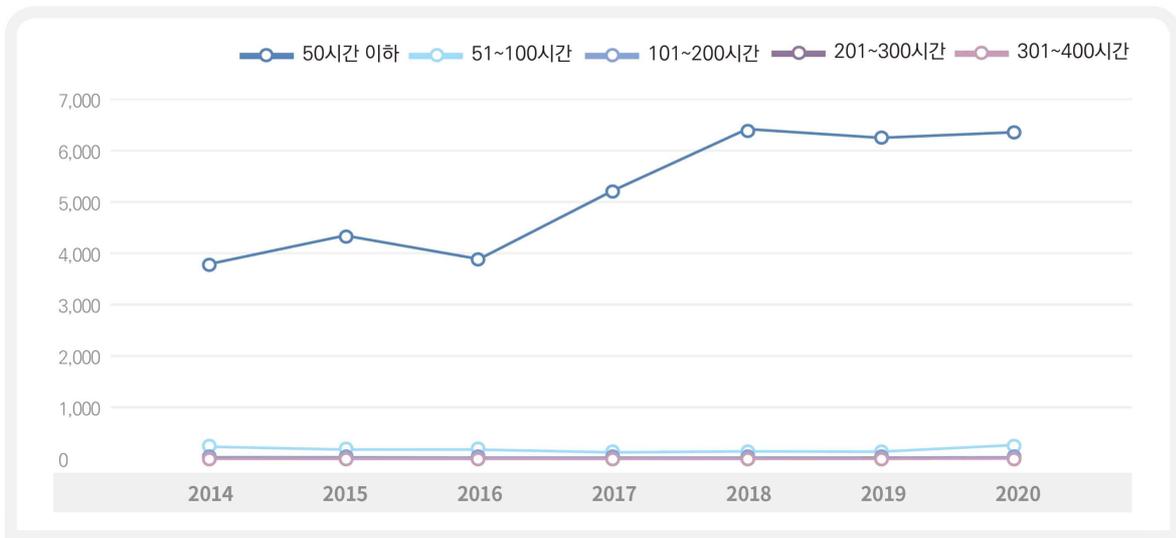


그림 4-2-18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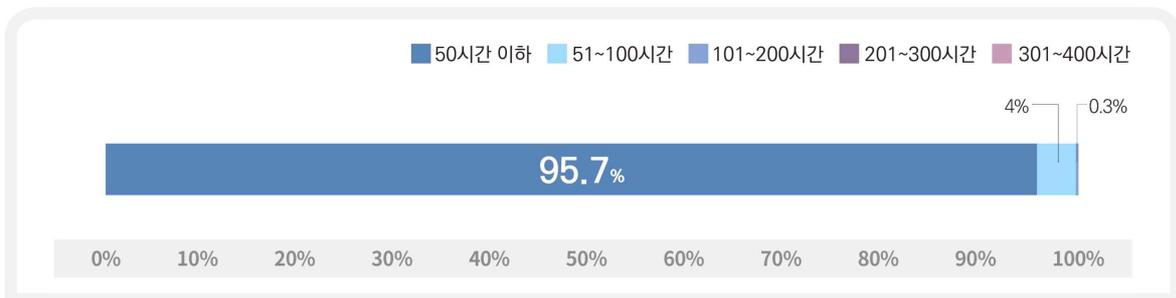


그림 4-2-19 이수명령 시간별 접수사건 점유율(2020)

## 2 협력기관 현황

### 개 요

-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 현황

### 지표정의

- 협력기관 유형 : 수강·이수명령 집행 분야(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로 구분

-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은 2014년 360개에서 매년 소폭의 변화가 있어 2016년 370개, 2017년 351개, 2018년 356개, 2019년 317개 기관이었는데, 2020년에는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97개이었다.
- 이를 집행 분야별로 구분하면, 심리치료 분야가 30% 안팎을 차지하였고, 기타 분야는 2018년까지 25% 미만이었으나 2018년 이후 30%를 차지하였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하여 전체의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기타 분야의 협력기관이 증가한 것은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조정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 센터를 기타 분야의 협력기관으로 지정, 운영한 결과이다.

표 4-2-14 수강·이수명령 협력기관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4		360	28	19	107	61	56	89
		100%	7.8%	5.3%	29.7%	16.9%	15.6%	24.7%
2015		352	25	17	110	59	55	86
		100%	7.1%	4.8%	31.3%	16.8%	15.6%	24.4%
2016		370	26	18	121	62	57	86
		100%	7.0%	4.9%	32.7%	16.8%	15.4%	23.2%
2017		351	23	20	115	60	53	80
		100%	6.5%	5.7%	32.8%	17.1%	15.1%	22.8%
2018		356	22	19	114	55	50	96
		100%	6.2%	5.3%	32.0%	15.5%	14.0%	27.0%
2019		317	19	15	97	47	43	96
		100%	6.0%	4.7%	30.6%	14.8%	13.6%	30.3%
2020		1,197	21	14	98	47	56	961
		100%	1.7%	1.2%	8.2%	3.9%	4.7%	80.3%



## Chapter 5

# 소년보호

- 제1절 수용 세부 현황
- 제2절 출원 세부 현황
- 제3절 교육 실시 현황
- 제4절 사회정착지원 현황
- 제5절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현황
- 제6절 재입원율 현황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수용 세부 현황

### 1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 보호처분으로 신수용된 인원의 처분별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020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을 처분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9호 처분이 622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호 처분 471명(28.8%), 8호 처분 405명(24.7%), 7호 처분 139명(8.5%) 등의 순이었다. 7호 처분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지만 8호 처분은 42.7% 감소하였고, 9호와 10호 처분은 12~13% 감소하였다.
- 최근 7년간의 신수용 보호소년의 처분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8호와 9호 처분이 각각 35% 내외를 차지하고 10호가 25% 내외, 7호가 5% 내외를 차지하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8호 처분 보호소년의 수용인원 감소 폭이 두드러지면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7호, 9호, 10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 ➔ 2020년의 8호 처분소년의 신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된 2020년 3월~5월과 12월에 신수용 인원이 없었다.

표 5-1-1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4~2020)

연도	처분	계	7호	8호	9호	10호
2014		2,363	108	925	768	562
		100%	4.6%	39.1%	32.5%	23.8%
2015		2,288	109	802	766	611
		100%	4.8%	35.0%	33.5%	26.7%
2016		2,096	83	762	713	538
		100%	4.0%	36.3%	34.0%	25.7%
2017		2,450	132	880	857	581
		100%	5.4%	35.9%	35.0%	23.7%
2018		2,199	141	801	741	516
		100%	6.4%	36.4%	33.7%	23.5%
2019		2,077	116	707	716	538
		100%	5.6%	34.0%	34.5%	25.9%
2020		1,637	139	405	622	471
		100%	8.5%	24.7%	38.0%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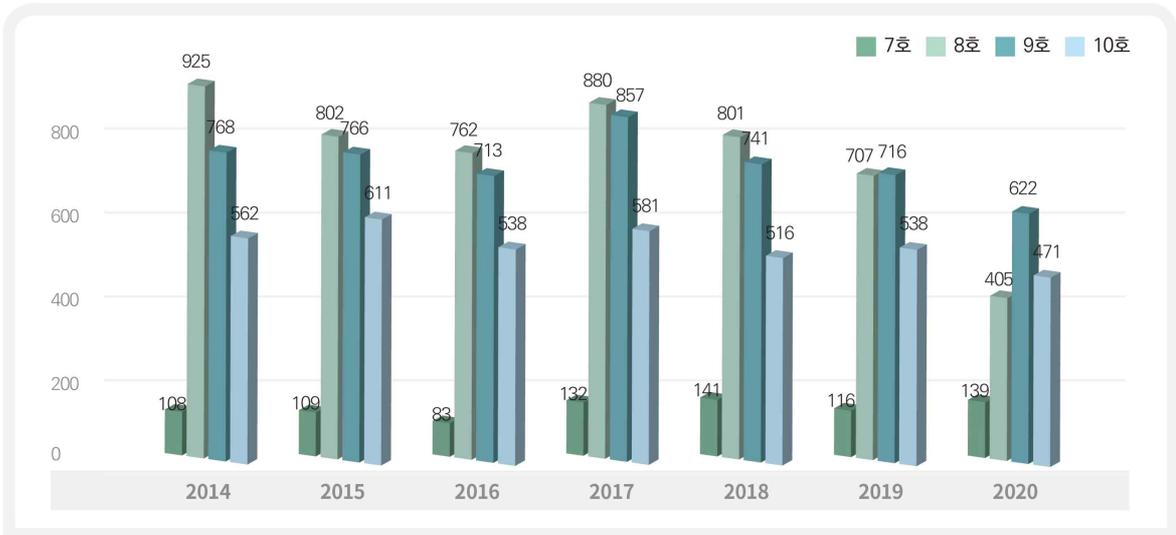


그림 5-1-1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4~2020)

## 2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 신규로 입원한 보호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

### 지표정의

- 강력 : 살인, 상해, 강간, 폭행, 협박공갈 등
-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 우범 : 우범
- 재산 : 사기, 절도 등
- 특별 :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특별법령 등
- 기타 : 소년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2020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을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기타범죄가 708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재산범죄 388명(23.7%), 특별범죄 267명(16.3%), 강력범죄 192명(11.7%), 우범 80명(4.9%), 약물범죄 2명(0.1%)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수용 보호소년의 비행유형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기타범죄가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재산범죄가 25% 내외, 특별범죄가 17% 내외, 강력범죄가 11~13% 등이었다.

표 5-1-2 신수용 보호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강력	기타*	약물	우범	재산	특별
2014		2,363	316	964	8	0	657	418
		100%	13.4%	40.8%	0.3%	0.0%	27.8%	17.7%
2015		2,288	261	1,024	10	0	612	381
		100%	11.4%	44.8%	0.4%	0.0%	26.7%	16.7%
2016		2,096	279	923	13	4	530	347
		100%	13.3%	44.0%	0.6%	0.2%	25.3%	16.6%
2017		2,450	315	1,083	14	16	617	405
		100%	12.9%	44.2%	0.6%	0.6%	25.2%	16.5%
2018		2,199	315	900	6	26	572	380
		100%	14.3%	40.9%	0.3%	1.2%	26.0%	17.3%
2019		2,077	268	866	14	51	508	370
		100%	12.9%	41.7%	0.7%	2.4%	24.5%	17.8%
2020		1,637	192	708	2	80	388	267
		100%	11.7%	43.3%	0.1%	4.9%	23.7%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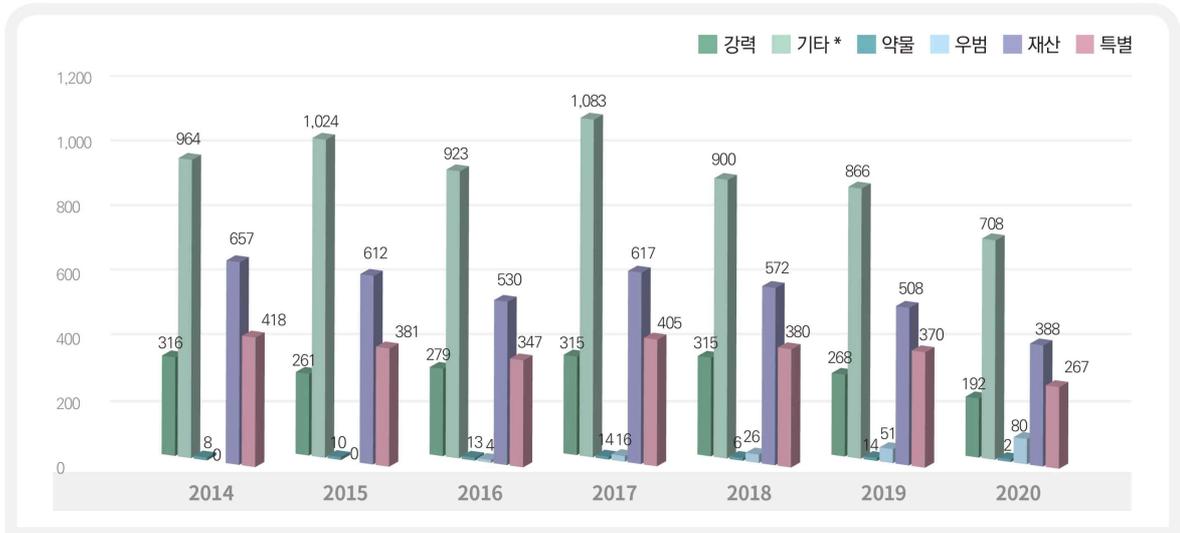


그림 5-1-2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 3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

- 2020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16~17세가 746명으로 45.6%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18세가 373명(22.8%), 14~15세가 310명(18.9%), 19세 이상이 157명(9.6%)이었다.
- 최근 7년간 연령별 비율에서 큰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다만 2019년부터 14세 미만 보호소년의 수가 50명을 넘기면서 전체 신수용 인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기존의 1%대에서 3% 내외로 상승하였다.

표 5-1-3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도	연령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19세 이상
2014		2,363	26	519	1,137	523	158
		100%	1.1%	22.0%	48.1%	22.1%	6.7%
2015		2,288	25	458	1,125	520	160
		100%	1.1%	20.0%	49.2%	22.7%	7.0%
2016		2,096	15	370	1,063	463	185
		100%	0.7%	17.7%	50.7%	22.1%	8.8%
2017		2,450	34	417	1,213	601	185
		100%	1.4%	17.0%	49.5%	24.5%	7.6%

연도	연령	연령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19세 이상
2018		2,199	29	413	998	561	198
		100%	1.3%	18.8%	45.4%	25.5%	9.0%
2019		2,077	59	424	951	474	169
		100%	2.8%	20.4%	45.8%	22.8%	8.2%
2020		1,637	51	310	746	373	157
		100%	3.1%	18.9%	45.6%	22.8%	9.6%



그림 5-1-3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

- 2020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1,343명(82.0%), 여성이 294명(18.0%)이었다. 최근 7년간의 성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여성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5-1-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남성	여성
2014		2,363	2,048	315
		100%	86.7%	13.3%
2015		2,288	1,939	349
		100%	84.7%	15.3%
2016		2,096	1,835	261
		100%	87.5%	12.5%
2017		2,450	2,116	334
		100%	86.4%	13.6%
2018		2,199	1,846	353
		100%	83.9%	16.1%
2019		2,077	1,697	380
		100%	81.7%	18.3%
2020		1,637	1,343	294
		100%	82.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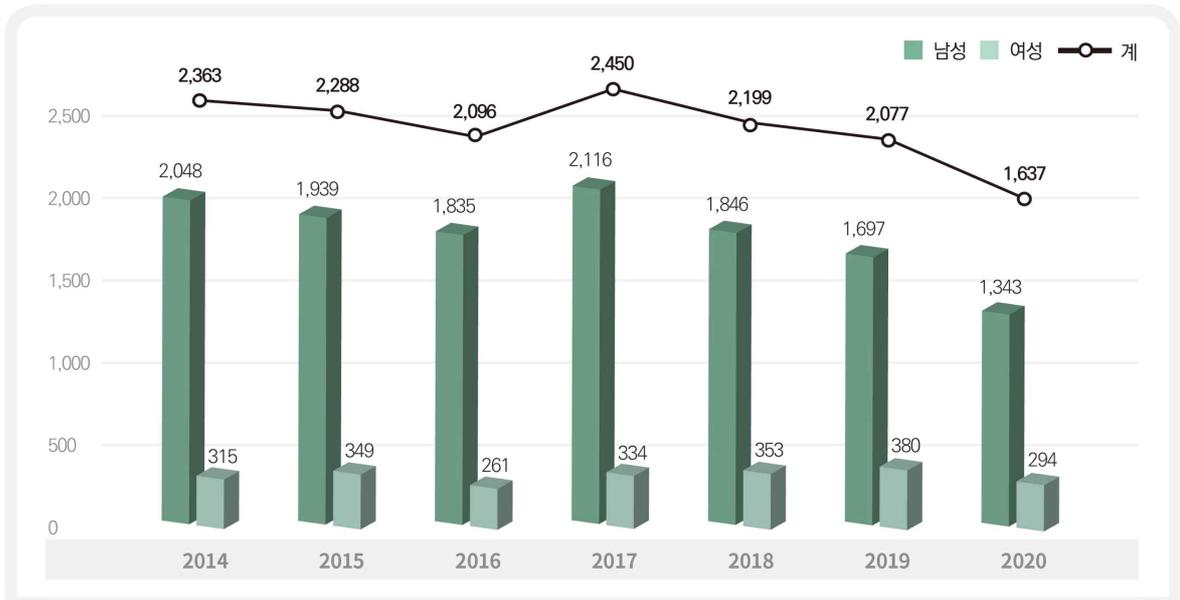


그림 5-1-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0)

## 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 보호처분으로 신수용된 인원의 정신질환자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정신질환자 : 정신과 치료이력이 있거나 정신과 진료 후 정신질환 소견이 있는 소년

- 2020년에 신수용된 보호소년 1,637명 중 정신질환의 문제를 가진 경우는 550명으로, 전체 신수용 보호소년 중 33.6%에 해당하였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수용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2014년 22.2%, 2015년 24.8%, 2016년 28.1%이었고, 2017년 이후 27% 내외를 유지하던 중 2020년에는 전체 신수용 인원이 예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정신질환 소년의 수는 유지되면서 33.6%로 높아졌다.

표 5-1-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신수용 인원	정신질환자	비율
2014		2,363	525	22.2%
2015		2,288	568	24.8%
2016		2,096	590	28.1%
2017		2,450	669	27.3%
2018		2,199	611	27.8%
2019		2,077	548	26.4%
2020		1,637	550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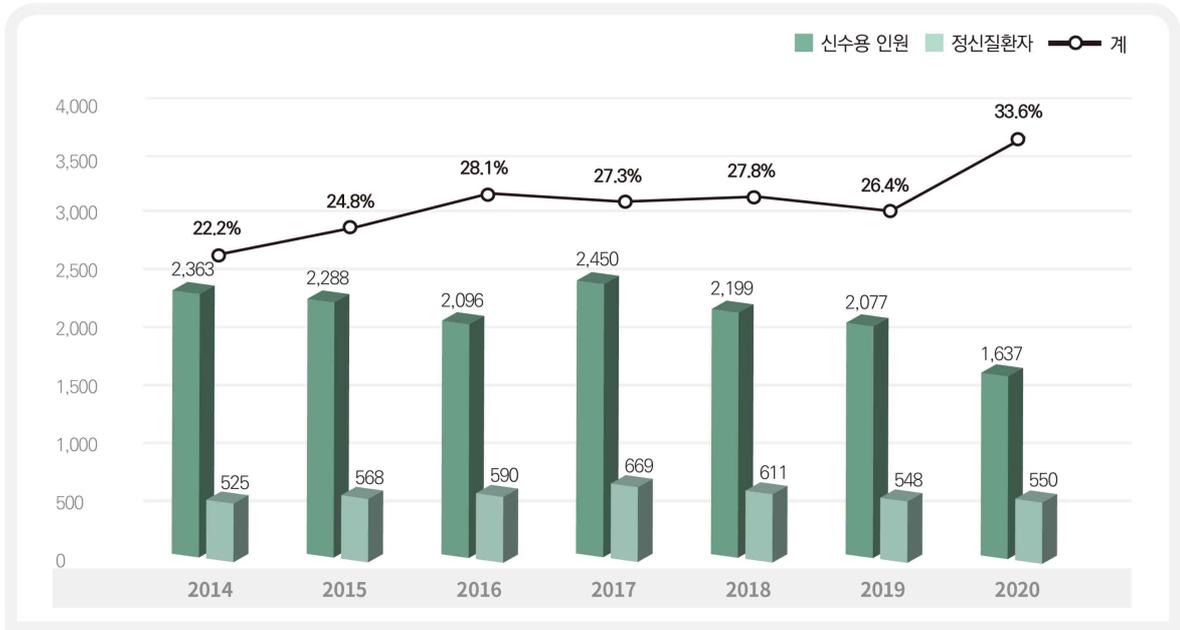


그림 5-1-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20)

➔ 현재 대전소년원에서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의 문제를 가진 소년원생에 대한 맞춤형 치료 및 특수교육을 위하여 전담 의료소년원 시설이 필요하다.

## 6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위탁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

### 지표정의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
- 강력 : 살인, 상해, 강간, 폭행, 협박공갈 등
-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 우범 : 우범
- 재산 : 사기, 절도 등
- 특별 :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특별법령 등
- 기타 : 소년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2020년에 신수용된 위탁소년을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보호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타범죄가 1,306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재산범죄 1,143명(26.6%), 특별범죄 764명(17.8%), 강력범죄 595명(13.8%), 우범 486명(11.3%), 약물범죄 3명(0.1%)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기타범죄는 30%, 약물범죄는 0.5% 수준을 유지하였고 재산범죄는 2016년까지 32% 내외였다가 2017년 이후 27%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범의 경우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5-1-6 신수용 위탁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연도	유형	계	강력	기타	약물	우범	재산	특별
2014		5,909	767	2,008	29	0	1,935	1,170
		100%	13.0%	34.0%	0.5%	0.0%	32.7%	19.8%
2015		6,178	705	2,148	31	1	2,076	1,217
		100%	11.4%	34.8%	0.5%	0.0%	33.6%	19.7%
2016		5,408	699	2,025	23	69	1,676	916
		100%	12.9%	37.5%	0.4%	1.3%	31.0%	16.9%
2017		5,909	899	2,088	32	135	1,591	1,164
		100%	15.2%	35.4%	0.5%	2.3%	26.9%	19.7%
2018		5,703	915	1,703	17	248	1,646	1,174
		100%	16.0%	29.9%	0.3%	4.3%	28.9%	20.6%
2019		4,955	704	1,490	18	435	1,390	918
		100%	14.2%	30.1%	0.4%	8.8%	28.0%	18.5%
2020		4,297	595	1,306	3	486	1,143	764
		100%	13.8%	30.4%	0.1%	11.3%	26.6%	17.8%



그림 5-1-6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 7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

- 2020년에 신수용된 위탁소년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16~17세가 1,781명(41.4%), 14~15세가 1,412명(32.9%)으로 14~17세가 전체의 74.3%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18세가 650명(15.1%), 14세 미만이 304명(7.1%), 19세 이상이 150명(3.5%)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16~17세가 전체의 4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였지만 2019년 이후 40% 초반으로 낮아졌으며, 14~15세는 2014년 30.2%를 기록한 후 2017년까지 26~28%를 보였고 2018년부터 다시 3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을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14세 미만은 2014년 4.4%에서 2019년 이후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7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도	연령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19세 이상
2014		5,909	258	1,784	2,626	991	250
		100%	4.4%	30.2%	44.4%	16.8%	4.2%
2015		6,178	211	1,761	2,843	1,095	268
		100%	3.4%	28.5%	46.0%	17.7%	4.4%
2016		5,408	170	1,402	2,703	860	273
		100%	3.1%	25.9%	50.0%	15.9%	5.1%
2017		5,909	266	1,572	2,817	1,016	238
		100%	4.5%	26.6%	47.7%	17.2%	4.0%
2018		5,703	327	1,729	2,469	957	221
		100%	5.7%	30.3%	43.3%	16.8%	3.9%
2019		4,955	362	1,609	2,052	749	183
		100%	7.3%	32.5%	41.4%	15.1%	3.7%
2020		4,297	304	1,412	1,781	650	150
		100%	7.1%	32.9%	41.4%	15.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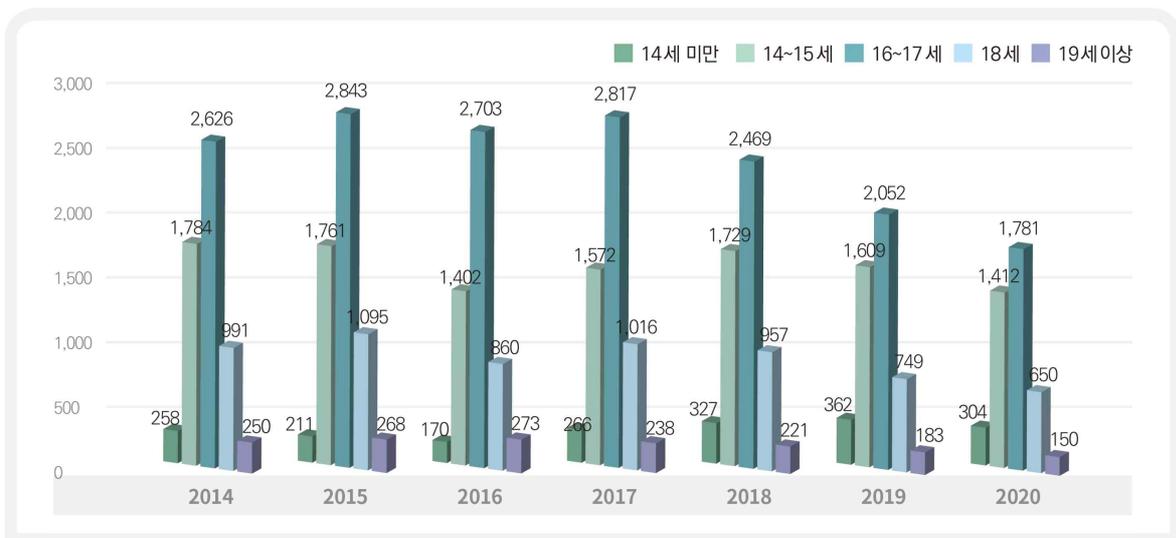


그림 5-1-7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8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

- 2020년에 신수용된 위탁소년은 남성이 3,258명(75.8%), 여성이 1,039명(24.2%)이었다. 최근 7년간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남성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 이후 매년 20% 이상을 나타내었다.

표 5-1-8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남성	여성
2014		5,909	4,889	1,020
		100%	82.7%	17.3%
2015		6,178	5,142	1,036
		100%	83.2%	16.8%
2016		5,408	4,429	979
		100%	81.9%	18.1%
2017		5,909	4,598	1,311
		100%	77.8%	22.2%
2018		5,703	4,407	1,296
		100%	77.3%	22.7%
2019		4,955	3,748	1,207
		100%	75.6%	24.4%
2020		4,297	3,258	1,039
		100%	75.8%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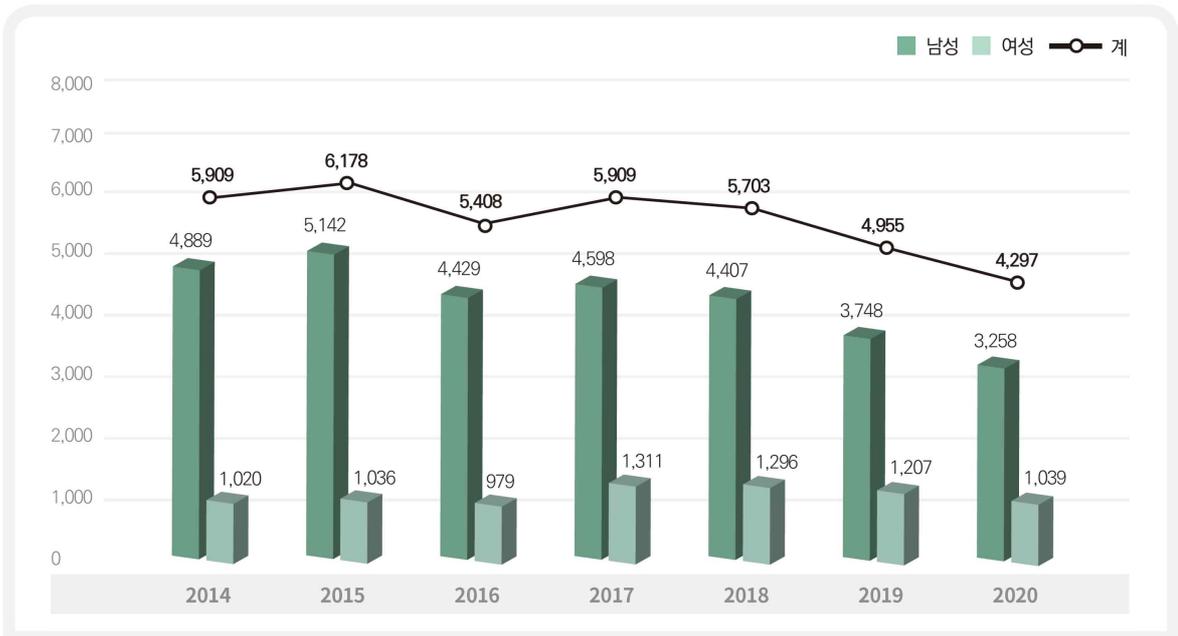


그림 5-1-8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0)

## 제 2 절

# 출원 세부 현황

### 1 보호소년 처분별 출원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인원의 처분별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
- 임시퇴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보호소년
- 기타 : 처분변경, 처분취소, 구속 등으로 출원한 보호소년
- 퇴원 연기 : 검정고시 응시, 직업훈련 자격 응시 등으로 출원을 연기한 보호소년

#### 1) 7호<sup>32)</sup> 처분

- 최근 7년간 7호 처분 보호소년의 총 출원인원은 2014년 99명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여 2015년 112명, 2016년 88명, 2017년 105명, 2018년 123명, 2019년 142명이었고, 2020년에는 130명이었다.
- 출원 인원을 출원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퇴원에 의한 출원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기타 출원이 1~6% 수준을 보였다. 2018년부터 기타 출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2%, 2019년 27.5%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기타 출원이 40%, 퇴원에 의한 출원이 60%로 나타났다.

➔ 7호 보호소년의 '기타 출원'은 '7호 처분의 취소' 또는 '단기 보호관찰로의 처분변경'에 의한 출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기타 출원'이 증가한 것은 의료재활소년원 퇴원 후에도 보호관찰관을 통한 치료적 처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퇴원 전에 단기 보호관찰로 처분변경을 활성화한 결과이다.

32)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7호(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표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퇴원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4	인원	99		93	6
	비율	100%		93.9%	6.1%
2015	인원	112		106	6
	비율	100%		94.6%	5.4%
2016	인원	88		87	1
	비율	100%		98.9%	1.1%
2017	인원	105		99	6
	비율	100%		94.3%	5.7%
2018	인원	123		108	15
	비율	100%		87.8%	12.2%
2019	인원	142		103	39
	비율	100%		72.5%	27.5%
2020	인원	130		78	52
	비율	100%		6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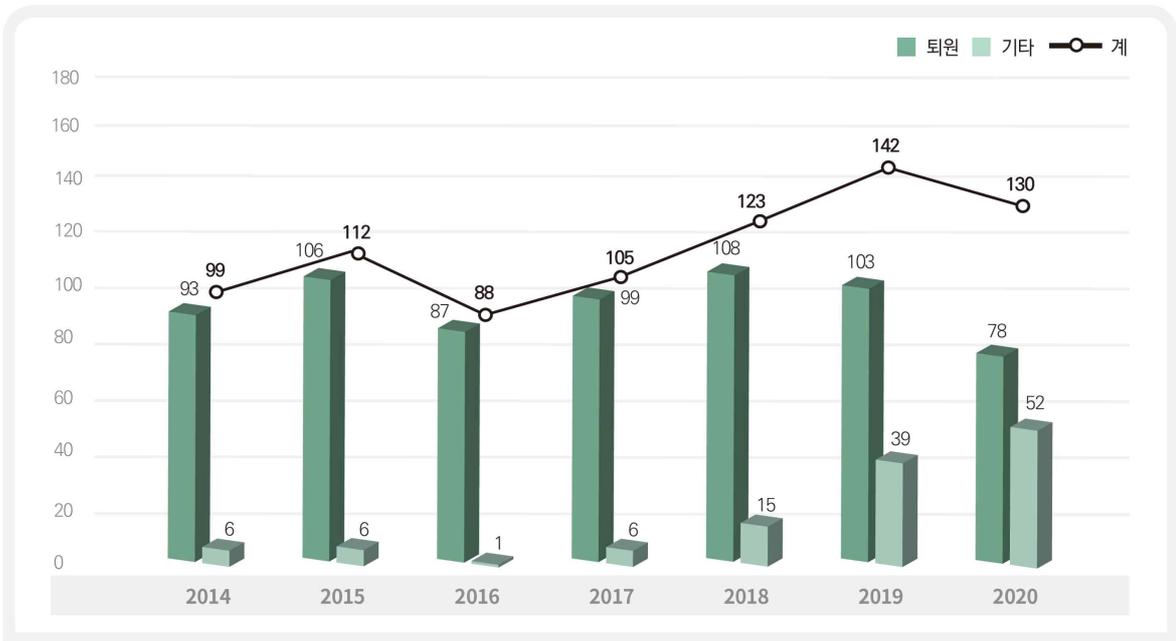


그림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 2) 8호<sup>33)</sup> 처분

- 최근 7년간 8호 처분 보호소년의 총 출원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936명에서 2015년 851명, 2016년 762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88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8년 801명, 2019년 708명, 2020년 405명 등이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의 감소 폭이 컸다.
- 출원 유형에 따라 출원 인원을 구분하면, 임시퇴원이 없는 8호 처분의 특성에 따라 퇴원에 의한 출원이 매년 전체의 97~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퇴원	기타
2014		936	930	6
		100%	99.4%	0.6%
2015		851	847	4
		100%	99.5%	0.5%
2016		762	740	22
		100%	97.1%	2.9%
2017		880	876	4
		100%	99.5%	0.5%
2018		801	799	2
		100%	99.8%	0.2%
2019		708	701	7
		100%	99.0%	1.0%
2020		405	396	9
		100%	97.8%	2.2%

33)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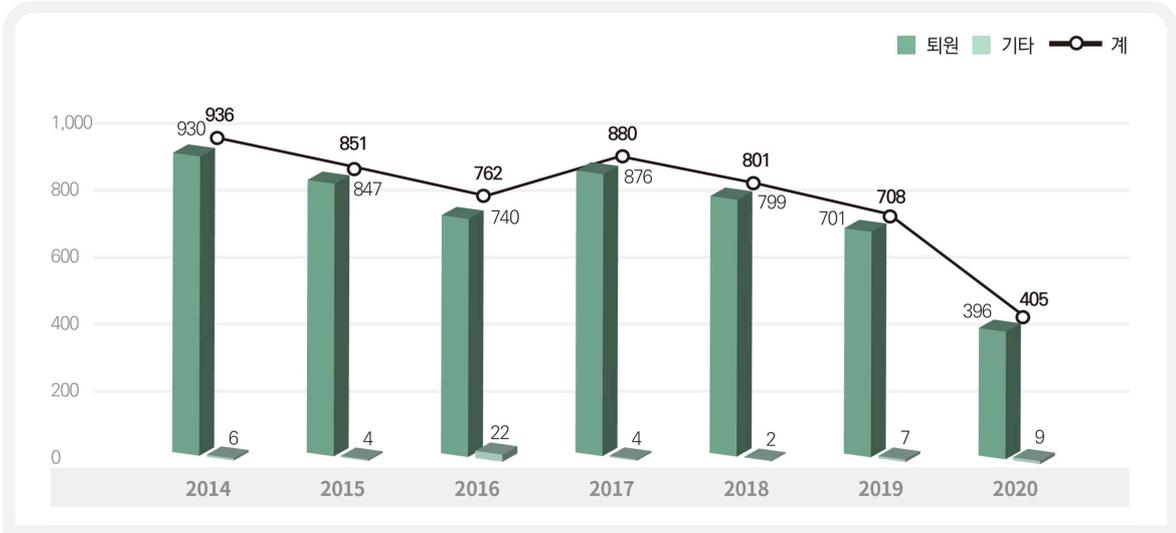


그림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 3) 9호 처분

- 최근 7년간의 총 출원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864명에서 2015년 713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6년 756명, 2017년 834명, 2018년 839명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697명, 2020년 643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 출원 인원을 출원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시퇴원이 전체의 56~62%, 퇴원이 33~40%, 기타 출원이 3% 내외를 차지하였는데, 2019년과 2020년에는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퇴원에 의한 출원은 3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표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2014		864	346	496	22
		100%	40.1%	57.4%	2.5%
2015		713	259	432	22
		100%	36.3%	60.6%	3.1%
2016		756	309	427	20
		100%	40.9%	56.5%	2.6%
2017		834	296	511	27
		100%	35.5%	61.3%	3.2%
2018		839	282	527	30
		100%	33.6%	62.8%	3.6%

연도	구분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2019		697	188	489	20
		100%	27.0%	70.1%	2.9%
2020		643	164	458	21
		100%	25.5%	71.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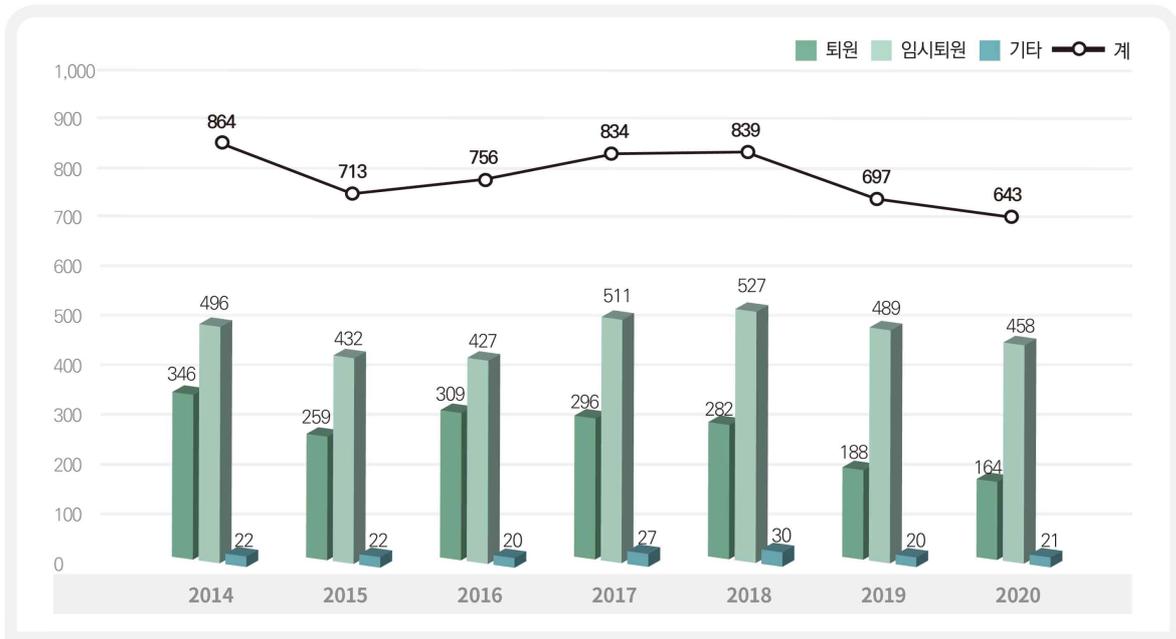


그림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 4) 10호 처분

- 2020년에 출원한 10호 처분 보호소년은 총 493명으로, 그중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이 401명(81.3%)으로 가장 많았고, 퇴원에 의한 출원이 49명(10.0%), 기타 출원이 43명(8.7%)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출원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709명, 2015년 566명, 2016년 610명, 2017년 530명, 2018년 648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출원 유형으로는 임시퇴원에 의한 출원이 대부분으로 2019년에 77.2%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퇴원에 의한 출원이 10% 내외, 기타 출원이 5~9% 수준이었다.

표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퇴원	임시퇴원	기타
2014		709	73	593	43
		100%	10.3%	83.6%	6.1%
2015		566	71	457	38
		100%	12.5%	80.8%	6.7%
2016		610	56	519	35
		100%	9.2%	85.1%	5.7%
2017		530	56	437	37
		100%	10.6%	82.4%	7.0%
2018		648	70	542	36
		100%	10.8%	83.6%	5.6%
2019		501	68	387	46
		100%	13.6%	77.2%	9.2%
2020		493	49	401	43
		100%	10.0%	81.3%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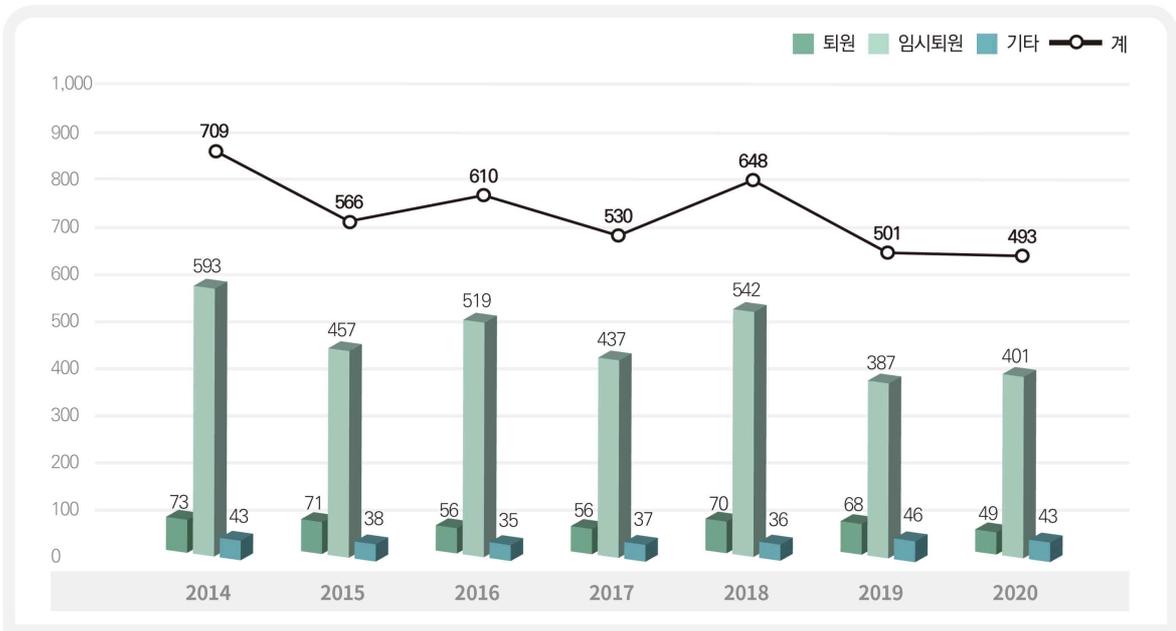


그림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 2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인원의 수용기간별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소년 :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7·8·9·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 2020년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한 보호소년의 퇴원 시까지의 수용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454명(29.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600명(38.8%), 6개월 이상~9개월 미만이 98명(6.3%),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69명(4.5%),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이 304명(19.7%), 18개월 이상이 21명(1.3%) 등이었다.

표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4~2020)

수용기간 연도	계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014	2,531	969	80	769	146	62	198	249	58
	100%	38.3%	3.2%	30.4%	5.7%	2.4%	7.8%	9.9%	2.3%
2015	2,172	884	62	670	134	47	159	172	44
	100%	40.7%	2.9%	30.8%	6.2%	2.2%	7.3%	7.9%	2.0%
2016	2,138	773	62	676	152	37	201	185	52
	100%	36.2%	2.9%	31.6%	7.1%	1.8%	9.4%	8.6%	2.4%
2017	2,275	902	47	777	143	36	155	179	36
	100%	39.6%	2.1%	34.1%	6.4%	1.6%	6.8%	7.9%	1.5%
2018	2,328	830	64	773	151	63	233	177	37
	100%	35.6%	2.7%	33.2%	6.4%	2.8%	10.1%	7.6%	1.6%
2019	1,944	713	74	680	105	80	206	67	19
	100%	36.7%	3.8%	35.0%	5.4%	4.1%	10.6%	3.4%	1.0%
2020	1,546	408	46	600	98	69	227	77	21
	100%	26.4%	3.0%	38.8%	6.3%	4.5%	14.7%	5.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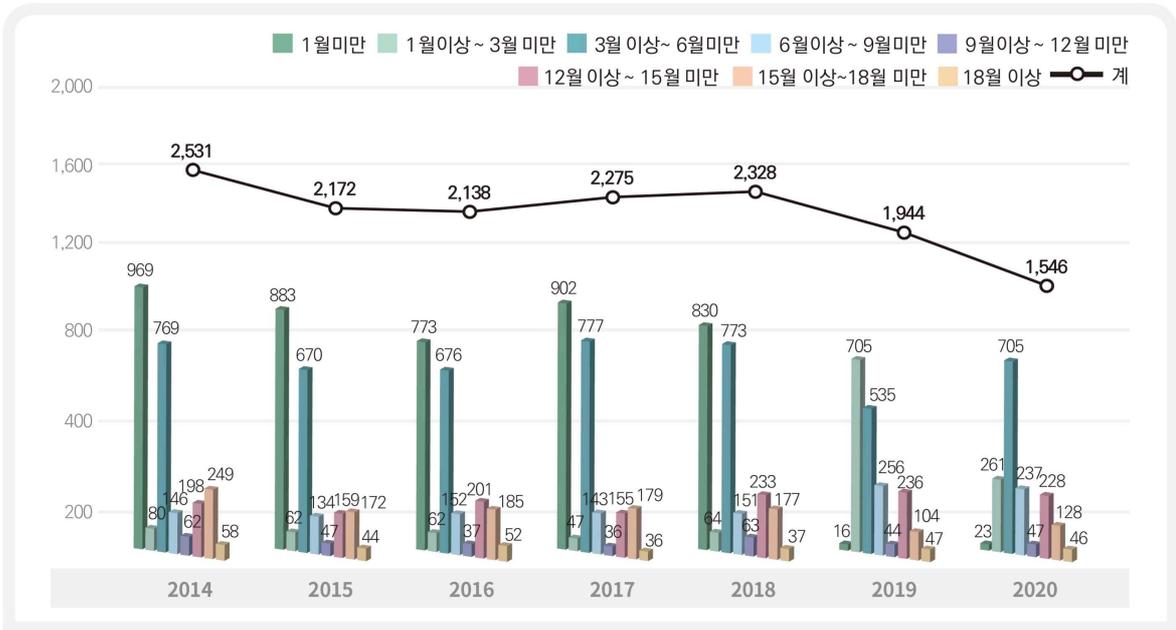


그림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4~2020)

### 3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인원의 수용기간별 현황

**지표정의**

- 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

- 2020년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1~30일이 2,862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1~40일이 812명(18.3%), 10~20일이 393명(8.9%), 41~50일이 242명(5.5%), 51~60일이 59명(1.3%) 등이었다.

표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2014~2020)

연도	기간	계	10일 미만	10~20일	21~30일	31~40일	41~50일	51~60일
2014		5,893	154	754	3,874	877	191	43
		100%	2.6%	12.8%	65.8%	14.9%	3.2%	0.7%
2015		6,187	166	950	3,850	1,014	160	47
		100%	2.7%	15.3%	62.2%	16.4%	2.6%	0.8%
2016		5,437	106	679	3,326	1,018	250	58
		100%	1.9%	12.5%	61.2%	18.7%	4.6%	1.1%
2017		5,863	124	562	3,851	1,032	238	56
		100%	2.1%	9.6%	65.7%	17.6%	4.0%	1.0%
2018		5,739	144	616	3,573	1,001	291	114
		100%	2.5%	10.7%	62.3%	17.4%	5.1%	2.0%
2019		5,000	70	371	3,134	907	400	118
		100%	1.4%	7.4%	62.7%	18.1%	8.0%	2.4%
2020		4,435	67	393	2,862	812	242	59
		100%	1.5%	8.9%	64.5%	18.3%	5.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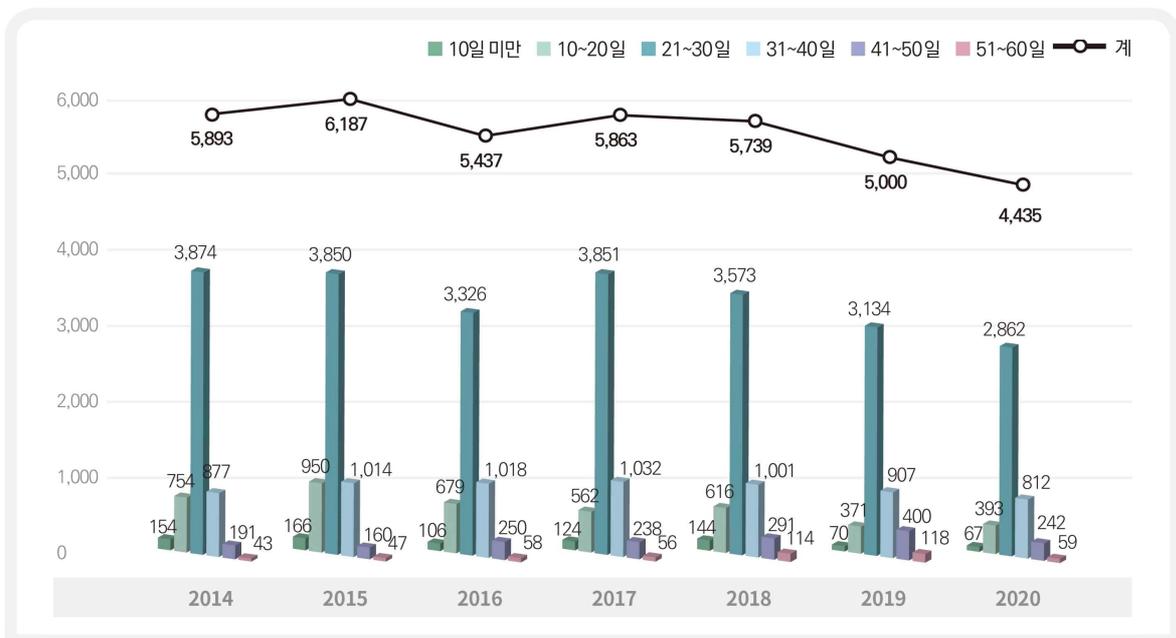


그림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2014~2020)

# 교육 실시 현황

## 1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의 교육과정별 수료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인성교육 : 전체 소년원생 대상의 교육으로,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예체능교육,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 춘천소년원 등 인성교육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교과교육 : 초중고교 졸업장취득,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등을 위한 초·중등 교과교육과정으로, 서울소년원 등 교과교육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총 16개 직종에 대한 직업 훈련과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특수단기 인성교육 : 8호 처분 보호소년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학교폭력·강절도 예방 등의 전문교육, 체험활동, 교양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등 8호 처분 전문 소년원에서 실시
- 의료·재활교육 : 7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치료와 특수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운영

- 2020년 소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보호소년 총 1,536명을 교육과정별로 구분하면, 인성교육이 286명(18.6%), 교과교육이 318명(20.7%), 직업능력개발훈련이 458명(29.8%), 8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특수단기인성교육이 396명(25.8%), 7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재활이 78명(5.1%)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교육 수료인원은 2014년에 최고치인 2,417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연간 2,000명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1,94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도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하였는데, 이는 8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특수단기 인성교육이 전년보다 43.5% 감소한 영향이 컸다.
- 교육 종류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인성교육과 8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특수단기 인성교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2016년부터 교과교육의 인원과 비율 모두 매년 증가하였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역시 500명대의 교육 인원을 보이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교육교육의 확대

- » 기존에는 학업연계 대상을 일반고교 재학 중 소년원에 입원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2013년 12월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모든 일반 정규고교(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학업연계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교과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 » 또한,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안양소년원에서 여성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등 남성 소년원에서만 이루어지던 고등학교 교과교육을 여성 소년원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교과교육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확대

- » 2015년 1월에 9호 처분 보호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전 소년보호기관으로 확대하였고, 2016년 4월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하여 기관 및 지역사회 특성, 학생·교사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 ➔ 2020년의 교육 실시인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강사로 참여하던 유급 강사, 유관 부처 지원 강사, 검정고시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8호 처분 보호소년의 신수용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함에 따른 결과이다.

표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수단기인성교육 (8호 처분)	의료재활 (7호 처분)
2014		2,417	745	139	497	930	106
		100%	30.8%	5.8%	20.6%	38.5%	4.4%
2015		2,078	596	135	392	847	108
		100%	28.7%	6.5%	18.9%	40.8%	5.2%
2016		2,133	599	154	551	740	89
		100%	28.1%	7.2%	25.8%	34.7%	4.2%
2017		2,271	556	187	552	876	100
		100%	24.5%	8.2%	24.3%	38.6%	4.4%
2018		2,326	576	209	633	799	109
		100%	24.8%	9.0%	27.2%	34.4%	4.7%
2019		1,945	356	253	532	701	103
		100%	18.3%	13.0%	27.4%	36.0%	5.3%
2020		1,536	286	318	458	396	78
		100%	18.6%	20.7%	29.8%	25.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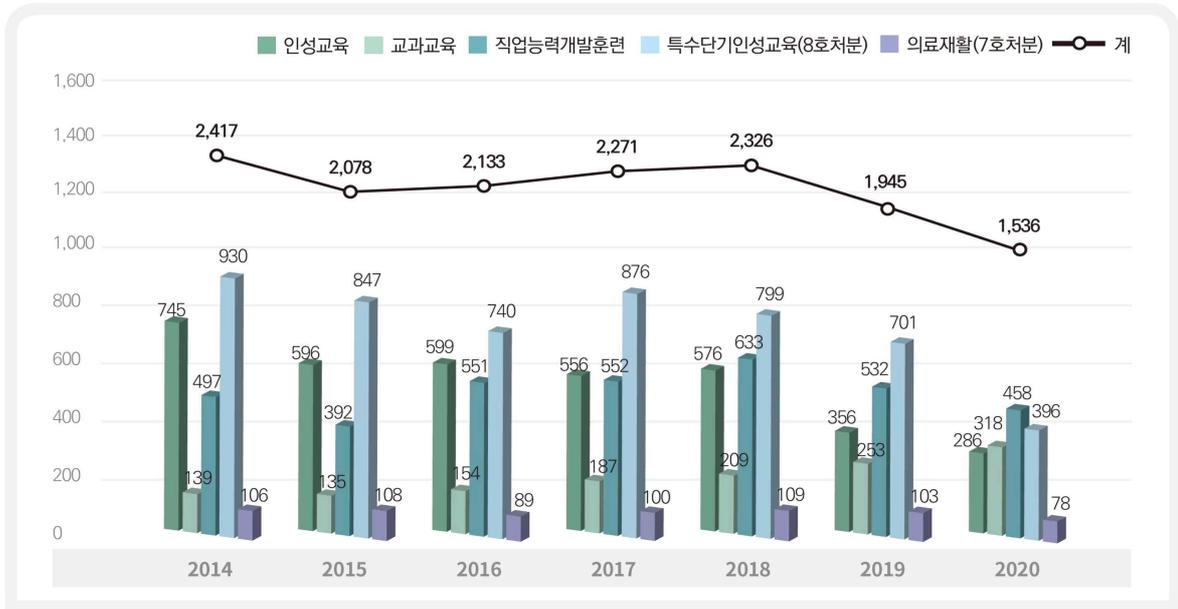


그림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4~2020)

## 2 기관별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 개요

- 각 소년원의 교육과정별 수료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인성교육 : 춘천소년원 등 인성교육 전문 소년원의 인성교육 과정
- 교과교육 : 서울소년원 등 교과교육 전문 소년원의 교과교육 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 광주소년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문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 특수단기 인성교육 : 전주소년원 등 8호처분 전문 소년원의 특수단기 인성교육 과정
- 의료재활 : 의료재활 교육 전문 소년원의 의료재활교육 과정

- 2020년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보호소년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주소년원이 총 8호 처분소년에 대한 특수단기 인성교육 340명을 포함하여 총 4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주소년원(165명), 춘천소년원(147명), 대구소년원(139명), 광주소년원(133명) 등의 순이었다.

표 5-3-2

기관별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2020)

연도	구분	계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수단기인성교육 (8호처분*)	의료재활 (7호처분**)
	총계	1,536	286	318	458	396	78
	서울소년원	206	0	133	73	0	0
	부산소년원	71	0	0	71	0	0
	대구소년원	139	104	0	35	0	0
	광주소녀원	133	0	0	133	0	0
	전주소녀원	449	0	109	0	340	0
	대전소년원	78	0	0	0	0	78
	청주소녀원	165	74	0	35	56	0
	안양소년원	120	0	76	44	0	0
	춘천소년원	147	108	0	39	0	0
	제주소녀원	28	0	0	28	0	0

\* 8호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3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교과교육을 실시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졸업장 취득 : 교과교육소년원에서 교과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인원
- 검정고시 합격 :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초/중/고등학교 졸업 동등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
- 상급학교 진학 : 재원 중 또는 퇴원 후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에 합격한 인원
- 편입학 : 소년원 입원 전 전적학교와의 학업연계를 통해 퇴원 후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인원

- 2020년에 보호소년에게 실시한 교과교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이 409명, 초·중·고교 졸업장 취득이 89명, 일반학교 편·입학이 289명, 상급학교 진학이 130명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검정고시합격이 가장 많았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600~670명 수준이었고 2018년 이후 4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편입학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50명 이하였으나, 2017년에 200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0명에 육박하였다.

표 5-3-3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졸업장취득 (초/중/고)	검정고시합격 (초졸/중졸/고졸)	상급학교진학 (중/고/대학)	편입학 (초/중/고)
2014		71 (0/63/8)	670 (3/224/443)	134 (0/63/71)	137 (0/67/70)
2015		65 (0/57/8)	600 (1/190/409)	154 (0/63/91)	129 (0/43/86)
2016		57 (0/47/10)	676 (0/152/524)	159 (0/66/93)	150 (0/49/101)
2017		73 (0/50/23)	617 (0/141/476)	167 (0/79/88)	200 (0/54/146)
2018		104 (0/66/38)	447 (0/76/371)	165 (0/79/86)	251 (0/69/182)
2019		74 (0/55/19)	420 (0/65/355)	104 (0/49/55)	245 (0/85/160)
2020		89 (0/64/25)	409 (0/45/364)	130 (0/66/64)	289 (1/90/198)

#### 4 기관별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

##### 개요

- 각 소년원의 교과교육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졸업장 취득 : 교과교육소년원에서 교과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인원
- 검정고시 합격 :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초/중/고등학교 졸업 동등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
- 상급학교 진학 : 재원 중 또는 퇴원 후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에 합격한 인원
- 편입학 : 소년원 입원 전 전적학교와의 학업연계를 통해 퇴원 후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인원

- 2020년의 세부 교과교육 실시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소년원이 편입학 119명, 검정고시 합격 67명, 졸업장 취득 40명, 상급학교 진학 35명 등이었고, 전주소년원이 편입학 106명, 졸업장 취득 26명, 상급학교 진학이 21명 등이었다. 또한, 안양소년원이 편입학 64명, 검정고시 합격 26명, 상급학교 진학 21명, 졸업장 취득 20명 등이었고, 광주소년원이 검정고시 합격 70명, 상급학교 진학이 9명 등이었다.

표 5-3-4 소년원별 교과교육 세부 현황(2020)

구분	졸업장 취득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 (초졸/중졸/고졸)	상급학교 진학 (중/고/대학)	편입학 (초/중/고)
총계	89 (0/64/25)	409 (0/45/364)	130 (0/66/64)	289 (1/90/198)
서울소년원	40 (0/26/14)	67 (0/8/59)	35 (0/25/10)	119 (0/33/86)
부산소년원	0	74 (0/8/66)	4 (0/0/4)	0
대구소년원	0	65 (0/4/61)	11 (0/4/7)	0

구분	졸업장 취득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 (초졸/중졸/고졸)	상급학교 진학 (중/고/대학)	편입학 (초/중/고)
광주소녀원	0	70 (0/4/66)	9 (0/0/9)	0
전주소녀원	26 (0/20/6)	0	21 (0/18/3)	106 (0/34/72)
대전소녀원	0	4 (0/0/4)	0	0
청주소녀원	0	38 (0/8/30)	13 (0/5/8)	0
안양소녀원	20 (0/15/5)	26 (0/5/21)	21 (0/8/13)	64 (1/23/40)
춘천소녀원	3 (0/3/0)	51 (0/6/45)	10 (0/5/5)	0
제주소녀원	0	14 (0/2/12)	6 (0/1/5)	0

## 5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 개요

- 각 소년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소년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일반자격 : 외국어, 컴퓨터, 한자 등 직업훈련관련 자격증 이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
- 직업훈련 : 용접기능사, 제과기능사 등 직업훈련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
- 기능대회입상 :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입상한 인원

- 2020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소년 총 3,131명 중 기타(한자 등) 분야가 1,394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직업훈련 838명(26.8%), 컴퓨터 793명(25.3%), 기능대회입상 106명(3.4%) 등이었다.

표 5-3-5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4~2020)

연도 \ 구분	계	컴퓨터	기타(한자 등)	직업훈련	기능대회입상
2014	3,340	1,590	764	947	39
	100%	47.6%	22.9%	28.3%	1.2%
2015	3,122	1,288	826	992	16
	100%	41.2%	26.5%	31.8%	0.5%
2016	3,723	1,415	1,028	1,238	42
	100%	38.0%	27.6%	33.3%	1.1%
2017	4,763	1,524	1,662	1,524	53
	100%	32.0%	34.9%	32.0%	1.1%

연도	구분	계	컴퓨터	기타(한자 등)	직업훈련	기능대회입상
2018		4,876	1,341	1,787	1,634	114
		100%	27.5%	36.5%	33.5%	2.3%
2019		4,321	1,181	1,529	1,478	133
		100%	27.3%	35.4%	34.2%	3.1%
2020		3,131	793	1,394	838	106
		100%	25.3%	44.5%	26.8%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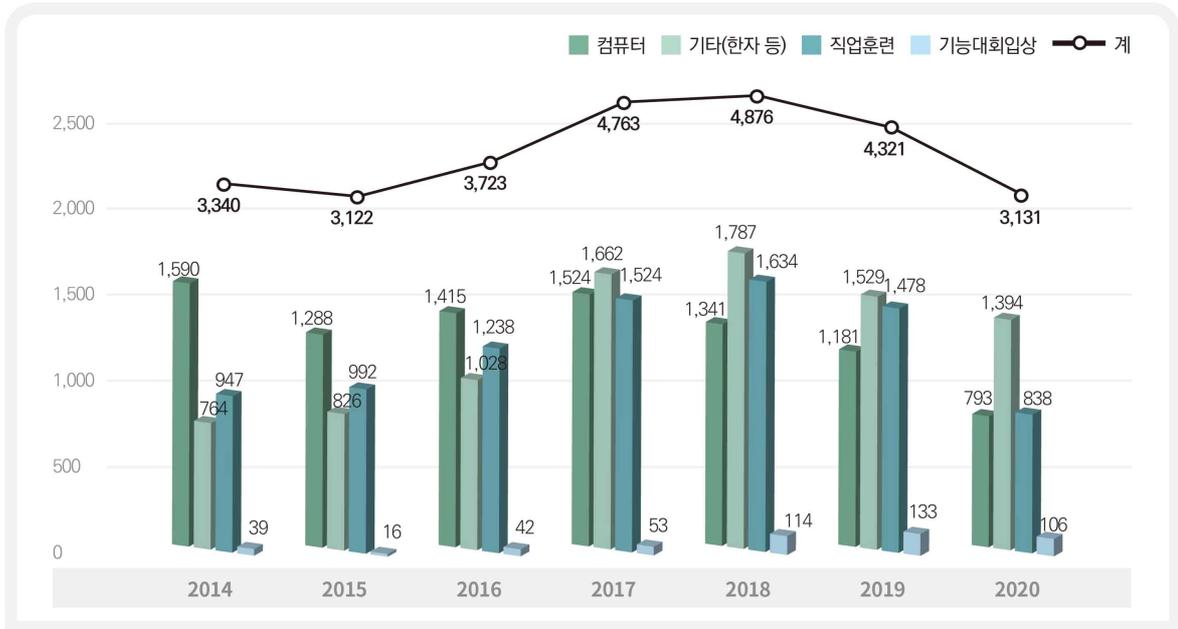


그림 5-3-2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4~2020)

## 6 기관별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 개 요

- 각 소년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소년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일반자격 : 외국어, 컴퓨터, 한자 등 직업훈련관련 자격증 이외의 자격을 취득한 인원
- 직업훈련 : 용접기능사, 제과기능사 등 직업훈련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
- 기능대회입상 :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입상한 인원

- 2020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보호소년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주소년원이 511명, 부산소년원이 402명, 광주소년원이 390명, 서울소년원 361명, 춘천소년원 348명, 대구소년원 317명, 안양소년원 315명, 청주소년원 303명 등이었다.

표 5-3-6 소년원별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20)

구분	계	일반자격		직업훈련	기능대회입상
		컴퓨터	기타(한자 등)		
총계	3,131	793	1,394	838	106
서울소년원	361	22	199	140	0
부산소년원	402	89	84	170	59
대구소년원	317	54	151	112	0
광주소년원	390	60	162	167	1
전주소년원	511	80	431	0	0
대전소년원	50	50	0	0	0
청주소년원	303	144	72	70	17
안양소년원	315	108	115	82	10
춘천소년원	348	151	122	56	19
제주소년원	134	35	58	41	0

## 7 보호소년 경시대회 입상 현황

### 개 요

-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컴퓨터 : 컴퓨터 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 예·체능 : 예·체능 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 기타 : 문예 등 기타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인원

- 2020년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보호소년은 총 77명으로, 예체능 분야 입상이 67명, 기타 분야가 10명이었다.
- 최근 7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91명)과 2018년(138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시대회 입상자는 160~170명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경시대회의 개최 또는 출전 취소 등으로 입상자 수가 감소하여 77명 수준에 머물렀다.

표 5-3-7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컴퓨터	예·체능	기타
2014		91	6	72	13
2015		174	2	104	68
2016		178	0	126	52
2017		178	0	112	66
2018		138	0	127	11
2019		160	0	154	6
2020		77	0	6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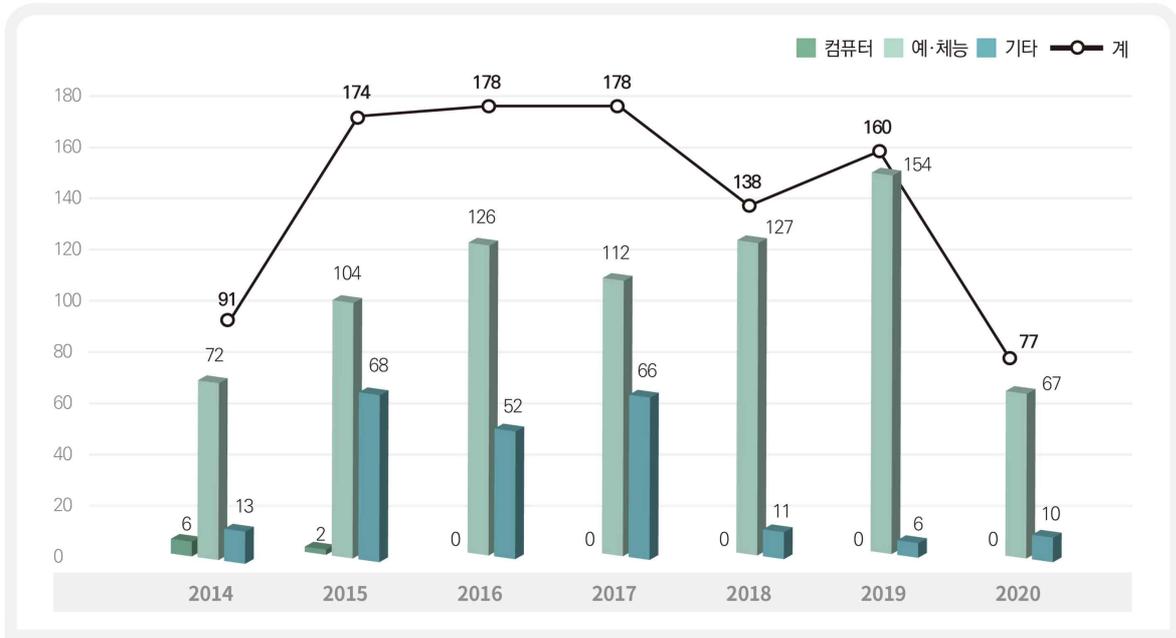


그림 5-3-3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4~2020)

# 사회정착지원 현황

## 1 개방처우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사회정착을 지원을 위해 개방처우를 실시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외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외출을 실시한 인원
- 통학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통학을 실시한 인원
- 통근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통근을 실시한 인원
- 학원수강 : 학원수강을 실시한 인원
- 가정학습 : 가정학습을 실시한 인원
- 체험학습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81조에 의하여 특별활동 또는 봉사활동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한 인원

- 2020년에 실시한 개방처우 인원은 가정학습 6명과 체험학습 39명으로 총 45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96.8% 급감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개방처우 실시가 곤란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 최근 7년간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총 3,4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2,642명과 2,325명에 대해 개방처우를 실시하였으나, 2017년부터 1,500명 내외로 감소하던 중, 2020년 급감하였다.
- 개방처우의 세부 형태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체험학습이 연간 90% 내외를 차지하였고, 2020년에도 86.7%로 나타났다. 외출은 2014년 214명에 대해 실시한 이후 계속 감소하였지만 2018년에 37명에게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실시되지 않았다. 그 외 통학, 통근, 학원 수강 등은 2017년 이후 실시대상이 10명 이내이었다.

표 5-4-1 보호소년의 개방처우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외출	통학	통근	학원수강	가정학습	체험학습
2014		3,466	214	0	27	0	105	3,120
2015		2,642	128	2	24	0	74	2,414
2016		2,325	136	0	29	0	93	2,067
2017		1,419	76	2	0	0	26	1,315
2018		1,571	37	6	0	0	8	1,520
2019		1,403	0	0	2	0	65	1,336
2020		45	0	0	0	0	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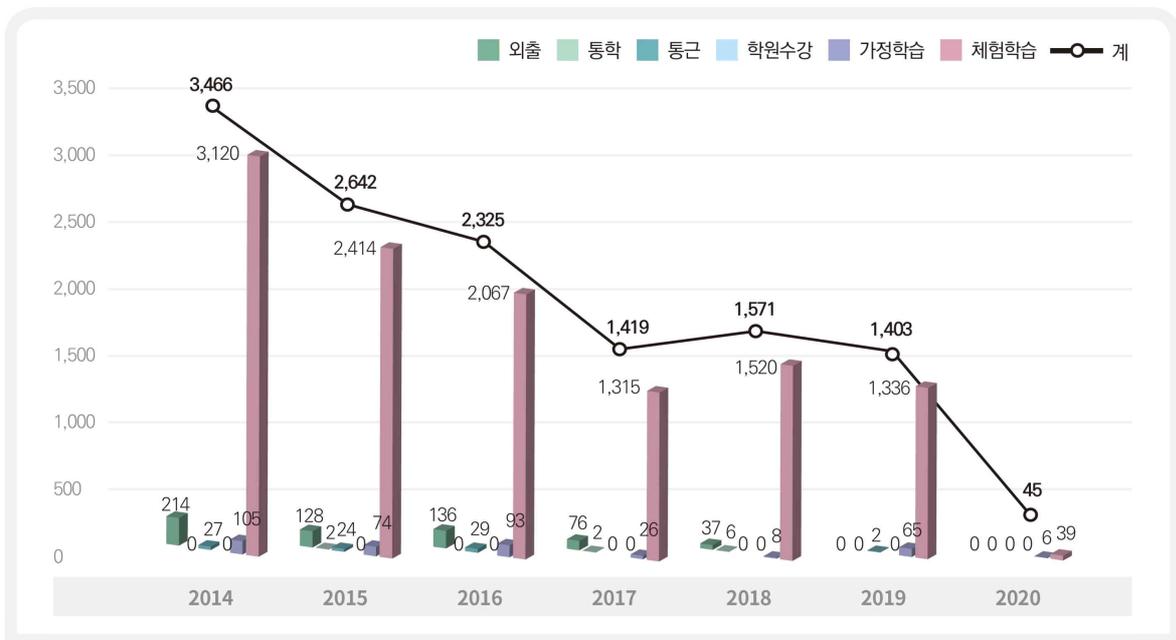


그림 5-4-1 보호소년 개방처우 현황(2014~2020)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감염예방을 위해 소년원생의 외부 활동, 수용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면회 및 종교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대부분의 개방처우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다른 교육 등은 일부 정상화되었으나 개방처우는 정상 재개가 어려웠다.

## 2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

### 개 요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가정관 운영 등으로 사회정착을 지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자좌담회 : 보호자를 대상으로 좌담회를 실시한 인원
- 가정관 운영 : 소년원 내 가정관에서 가족과 보호소년이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운영
- 가족합숙제 : 가정관에서 1박2일을 가족과 보호소년이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 1일생활제 : 가정관에서 가족과 보호소년이 1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
- 가정관면회제 : 기존 면회의 경우 시간적 제약이 많아 기존 면회보다 심층적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관에서 면회를 실시

- 2020년 보호소년에 대한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보호자좌담회가 93명, 가정관 운영을 통한 처우가 83명 등 총 176명이었다. 가정관 운영을 통한 처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일 생활제가 60명, 가정관 면회제가 16명, 가족 합숙제는 7명 등이었다.
- 2020년의 프로그램 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92% 이상 급감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 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상당히 위축되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표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4~2020)

구분 연도	계	보호자좌담회	가정관 운영			
			계	가족합숙제	1일생활제	가정관면회제
2014	4,080	1,854	2,226	169	444	1,613
			100%	7.6%	19.9%	72.5%
2015	3,040	1,054	1,986	66	475	1,445
			100%	3.3%	23.9%	72.8%
2016	3,368	997	2,371	72	568	1,731
			100%	3.0%	24.0%	73.0%
2017	4,411	1,080	3,331	91	1,069	2,171
			100%	2.7%	32.1%	65.2%
2018	3,779	683	3,096	79	1,549	1,468
			100%	2.6%	50.0%	47.4%
2019	2,208	528	1,680	132	859	689
			100%	7.9%	51.1%	41.0%
2020	176	93	83	7	60	16
			100%	8.4%	72.3%	19.3%



그림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3 취업 지원 현황

#### 개 요

-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을 통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취업(알선) : 취업처를 알선하는 등 취업을 직접적으로 지원
- 구인업체 방문 : 구인업체 방문을 통하여 취업처를 모집하여 취업을 지원
- 취업 후견인 : 지도교사 또는 소년보호위원을 취업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취업을 지원
- 산업체 현장실습 :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을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1,000명 이상이었던가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 997명, 2018년에 934명, 2019년에는 771명이었다.
- 이러한 감소추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더욱 두드러져, 취업지원 인원이 총 217명으로 전년보다 71.9% 감소하였다. 특히, 매년 전체의 39~59%를 차지하던 산업체 현장실습이 급감하여 전년의 3.4% 수준에 불과하였고, 취업(알선) 187명(86.2%), 산업체 현장실습 14명(6.5%), 구인업체 방문 12명(5.5%), 취업 후견인 지원 4명(1.8%)이었다.

표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취업(알선)	구인업체방문	취업후견인	산업체현장실습
2014		1,012	327	192	97	396
		100%	32.3%	19.0%	9.6%	39.1%
2015		1,118	234	176	47	661
		100%	20.9%	15.8%	4.2%	59.1%
2016		1,077	423	168	60	426
		100%	39.3%	15.6%	5.6%	39.5%
2017		997	417	130	56	394
		100%	41.8%	13.1%	5.6%	39.5%
2018		934	352	75	74	433
		100%	37.7%	8.0%	7.9%	46.4%
2019		771	303	52	6	410
		100%	39.3%	6.7%	0.8%	53.2%
2020		217	187	12	4	14
		100%	86.2%	5.5%	1.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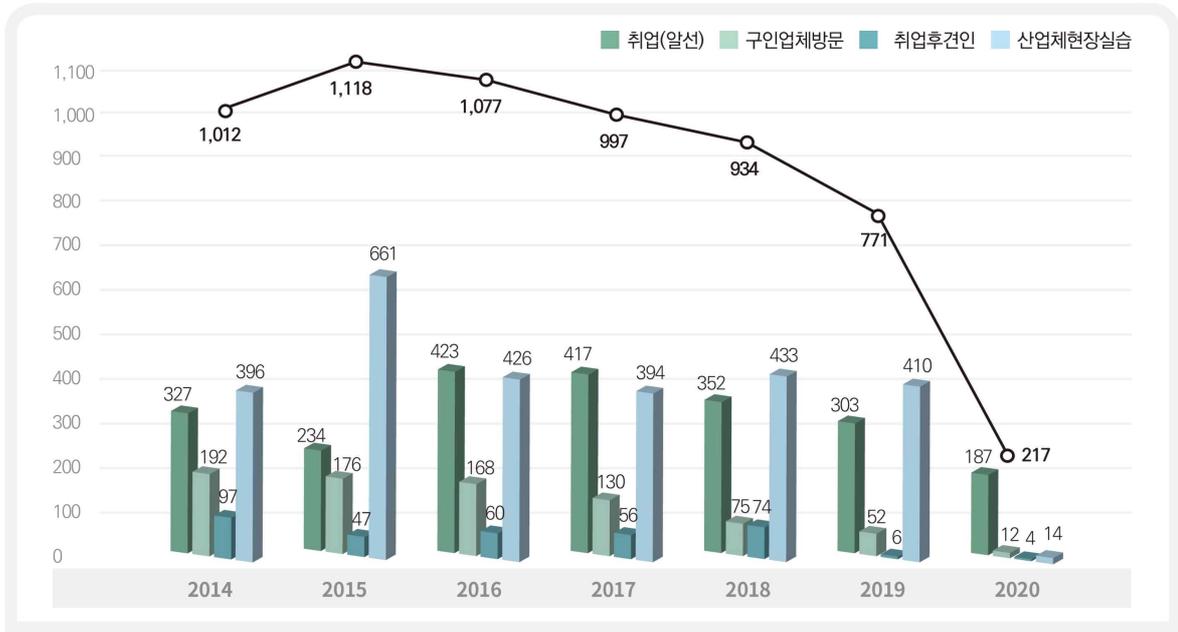


그림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4-2020)

## 4 자립 지원 현황

### 개 요

- 장학금 등 자립 지원을 통하여 사회정착을 지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도움 (2012년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사랑의 리퀘스트 : 사랑의 리퀘스트 연결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
- 장학금 : 상급학교 진학자에게 장학금 지원
- 가족찾기 : 무연고 보호소년 가족찾기로 소년의 단절된 가족관계를 지원
- 멘토결연 : 소년보호위원을 보호소년과 결연하여 취업, 상담 등을 지원

- 자립지원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4년 2,008명, 2015년 2,211명, 2016년 2,806명, 2017년 2,754명, 2018년 3,254명, 2019년 2,581명 등으로, 매년 최소 2,000명 이상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 70%가 감소하여 총 852명을 기록하였다.
- 자립 지원의 형태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멘토 결연이 전체의 73.7~86.3%를 차지하고 장학금 지원이 13.7~24.7%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멘토 결연이 전년 대비 78.4% 급감하여 전체의 55.4%에 그쳤고, 장학금 지원은 전년 대비 4.3% 감소하여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표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멘토 결연	장학금	가족찾기	사랑의리퀘스트
2014		2,008	1,480	496	18	14
2015		2,211	1,735	452	15	9
2016		2,806	2,359	424	23	0
2017		2,754	2,146	608	0	0
2018		3,254	2,808	445	1	0
2019		2,581	2,188	393	0	0
2020		852	472	376	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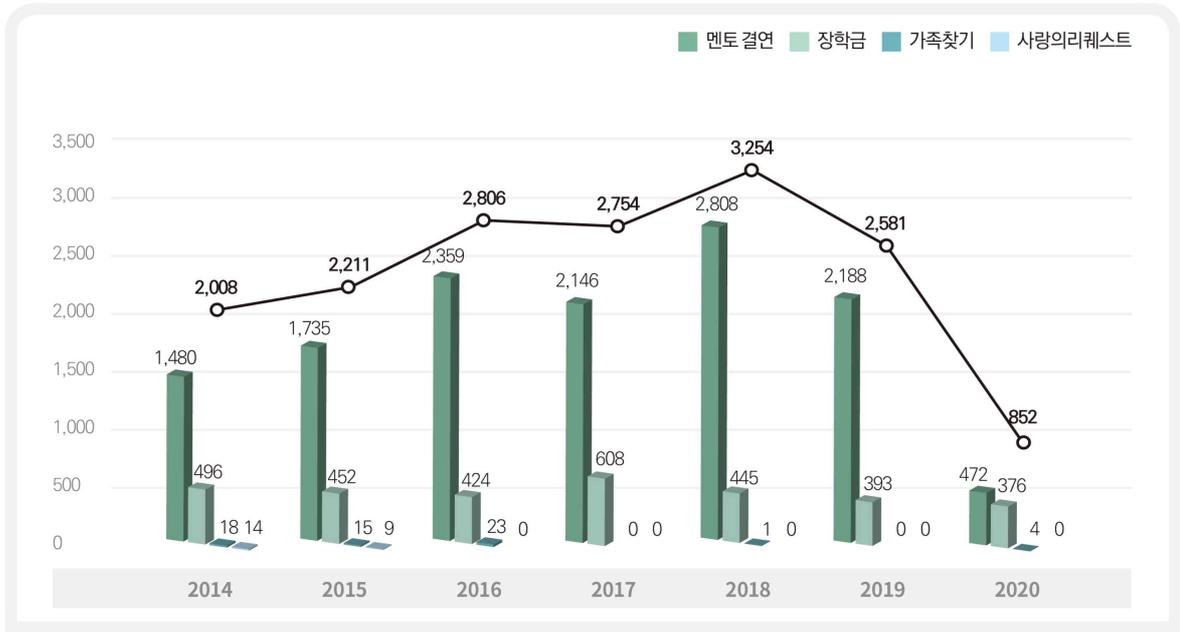


그림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4-2020)

## 제 5 절

#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현황

### 1 분류심사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분류심사 : 「소년법」 제12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위탁소년, 유치소년 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고 법원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도움. 분류심사 기능 대행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
  - 일반분류심사 : 특수를 제외한 분류심사
  - 특수분류심사 : 상습비행자, 성격·행동이상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검사 외의 MMPI, BGT 등의 추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심층적인 분류심사

- 최근 7년간의 분류심사 실시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5,500명 내외이었다가 2019년부터 5,000명 이하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한 4,755명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4,267명을 기록하였다,
- 분류심사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하면, 일반 분류심사는 2016년에 58.0%를, 2018년에 71.6%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70% 수준을 보였는데, 2020년에도 일반 분류심사가 2,853명으로 66.9%를 차지하였고, 특수분류 심사는 1,414명으로 33.1%이었다.

표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일반	특수*
2014		5,543	3,467	2,076
		100%	62.5%	37.5%
2015		5,804	3,477	2,327
		100%	59.9%	40.1%
2016		5,116	2,969	2,147
		100%	58.0%	42.0%
2017		5,614	3,905	1,709
		100%	69.6%	30.4%

연도	구분	계	일반	특수*
2018		5,385	3,853	1,532
		100%	71.6%	28.4%
2019		4,755	3,235	1,520
		100%	68.0%	32.0%
2020		4,267	2,853	1,414
		100%	66.9%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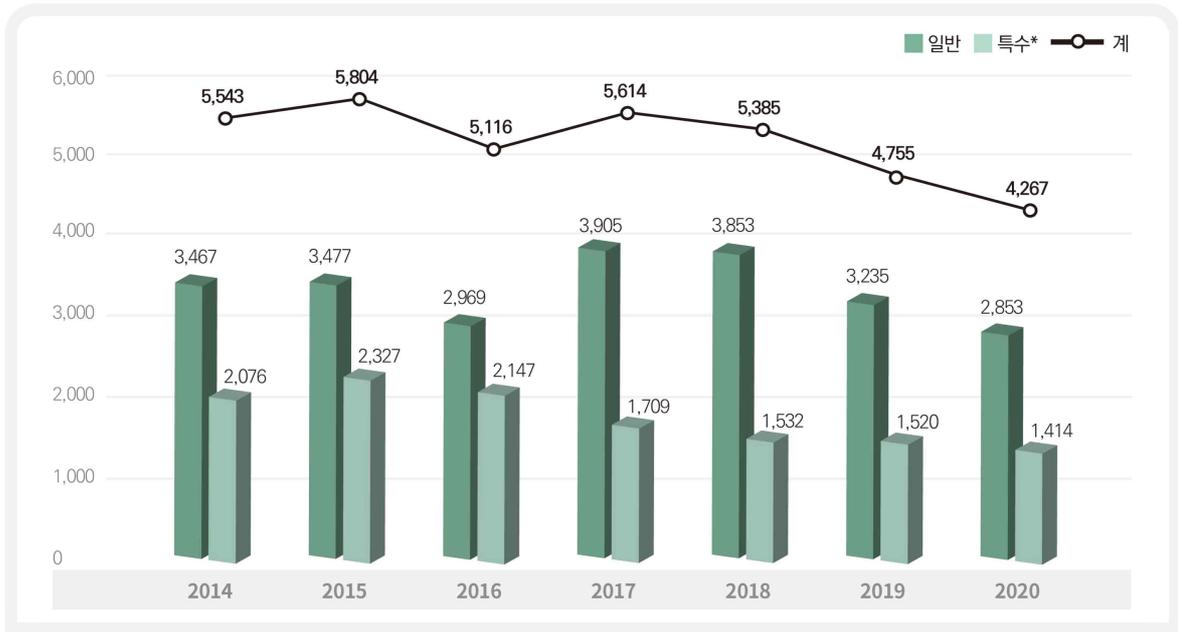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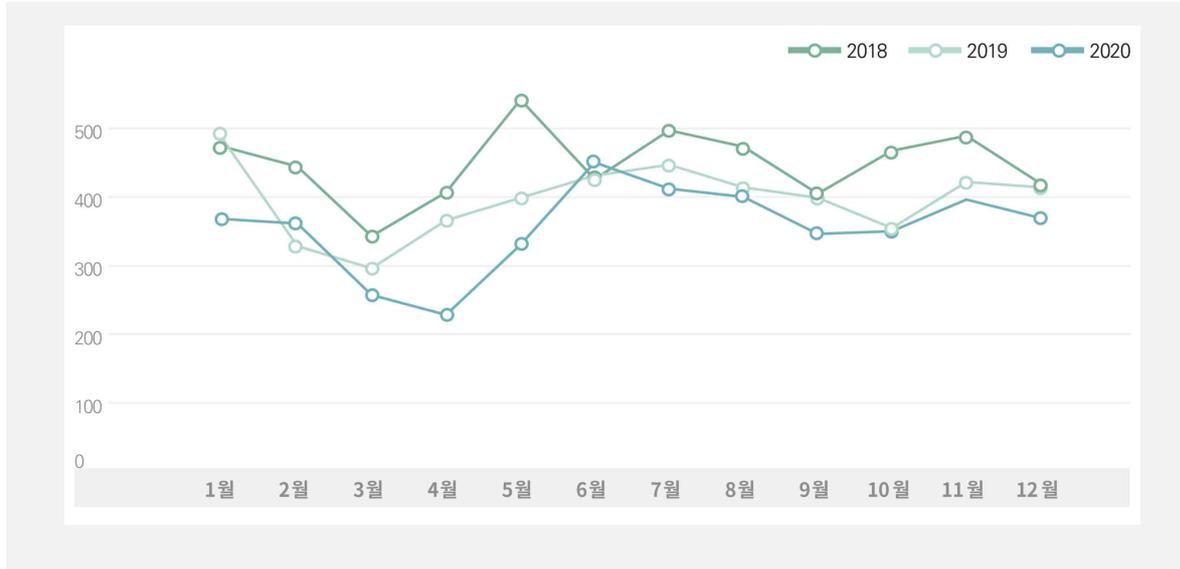
그림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4~2020)

→ 최근 3년간의 월별 분류심사 실시현황을 비교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법원에서 한시적으로 심리를 중지하였던 3~5월, 12월의 실시 인원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 확산한 시기를 감안할 때 1월의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후로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분류심사가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그 외의 월에는 분류심사 실시인원이 2018년 또는 2019년의 동월 수준에 근접하였다.

※ 소년보호기관 분류심사 실시 인원(2018~2020)

월연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5,385	473	444	343	407	542	426	497	473	405	467	489	419
2019	4,755	484	328	296	366	399	431	447	414	399	355	422	414
2020	4,267	368	361	257	228	330	450	412	400	346	350	396	369



## 2 기관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분류심사 : 「소년법」 제12조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위탁소년, 유치소년 등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여 법원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도움
- 일반 : 특수를 제외한 분류심사
- 특수 : 상습비행자, 성격·행동이상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검사 외의 MMPI, BGT 등의 추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층적으로 분류심사를 진행

- 2020년의 분류심사 실시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2,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산소년원(767명), 대전소년원(376명), 광주소년원(360명), 대구소년원(231명) 등의 순이었다.

표 5-5-2 소년보호기관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20)

구분	계	일반	특수*
총계	4,267	2,853	1,414
부산소년원(위탁)	767	497	270
대구소년원(위탁)	231	171	60
광주소녀원(위탁)	360	258	102
대전소년원(위탁)	376	326	50
춘천소년원(위탁)	127	96	31
제주소년원(위탁)	60	53	7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346	1,452	894

### 3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자교육을 실시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자교육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에 의한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
- 자원 :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가 자원으로 보호자교육에 참여한 인원
- 의무(부가처분)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가 보호자교육에 참여한 인원

- 2020년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은 총 703명이었다. 그중 자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458명(65.1%)이었고,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실시한 의무교육이 245명(34.9%)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9,000여 명에 대해 보호자교육이 실시되다가 2017년 6,337명, 2018년 4,978명, 2019년 3,053명 등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77% 급감하였는데, 의무교육 인원의 감소 폭(전년 대비 36.4%)에 비해 자원 보호자교육 인원의 감소 폭(전년 대비 82.8%)이 현저하였다.

- ➔ 2017년 이후 보호자교육 실시인원이 감소한 것은 그동안 합산되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실시인원이 별도 집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 ➔ 2020년 보호자교육 실시인원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교육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즉, 2020년 2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원 보호자교육이 축소되고 의무 보호자교육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일부 재개되었지만 교육 인원은 제한적이었다.

※ 소년보호기관 보호자교육(자원) 운영 인원(2018~2020)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4,289	529	396	326	305	384	455	384	315	325	323	265	282
2019	2,668	303	263	181	289	204	219	257	206	197	199	197	153
2020	458	148	42	35	19	25	25	41	21	25	28	30	19

※ 소년보호기관 보호자교육(의무) 운영 인원(2018~2020)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689	31	47	81	16	51	75	38	54	50	59	102	85
2019	385	68	53	15	70	20	34	40	39	33	0	11	2
2020	245	13	0	0	0	21	86	59	24	8	0	34	0

표 5-5-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자원	의무(부가처분)
2014		9,192	7,955	1,237
		100%	86.5%	13.5%
2015		8,964	7,532	1,432
		100%	84.0%	16.0%
2016		9,465	7,594	1,871
		100%	80.2%	19.8%
2017		6,337	5,614	723
		100%	88.6%	11.4%
2018		4,978	4,289	689
		100%	86.2%	13.8%
2019		3,053	2,668	385
		100%	87.4%	12.6%
2020		703	458	245
		100%	65.1%	34.9%

※ 2017년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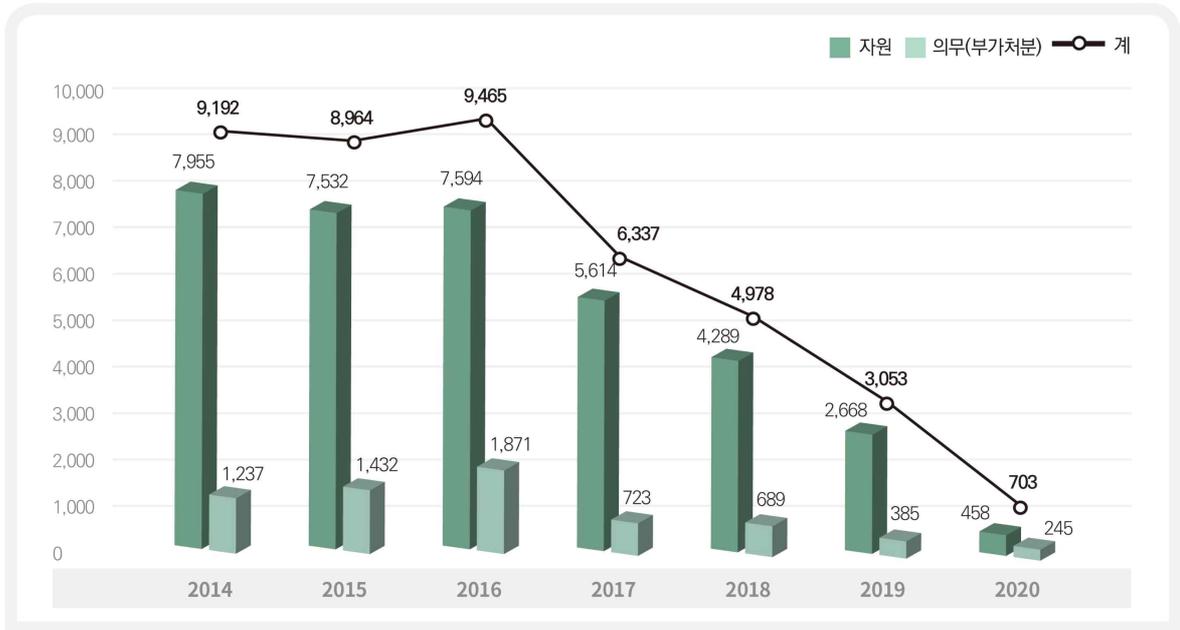


그림 5-5-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4~2020)

## 4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 개요

- 각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자교육을 실시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자교육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에 의한 보호자교육과정을 운영
- 자원 : 보호소년 등의 보호자가 자원으로 보호자교육에 참여한 인원
- 의무(부가처분) :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보호자가 보호자교육에 참여한 인원

- 2020년의 보호자교육 실시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소년원이 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주소년원(124명), 광주소년원(56명), 춘천소년원(55명) 등의 순이었다.

표 5-5-4

소년보호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20)

구분	계	자원	의무(부과처분)
총계	703	458	245
서울소년원	350	208	142
부산소년원	21	0	21
대구소년원	0	0	0
광주소년원	56	32	24
전주소년원	124	108	16
대전소년원	32	13	19
청주소년원	16	0	16
안양소년원	0	0	0
춘천소년원	55	55	0
제주소녀원	18	11	7
서울소년분류심사원	31	31	0

## 제 6 절

# 재입원율 현황

### 개 요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이후 3년 이내 재입원한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재입원 : 전국 소년원에서 퇴원(임시퇴원) 등으로 출원한 이후 3년 이내 다시 보호처분으로 입원한 소년(2회 이상의 재입원생은 중복 처리하였으며, 임시퇴원취소자·처분변경자·처분취소자·재처분자는 재입원생에서 제외함)

-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이 1년 이내에 소년원에 재입원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4.9%, 2012년 11.2%, 2013년 10.1%, 2014년 9.5%, 2015년 12.0%, 2016년 14.0% 등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는 10~15% 범위에 머물렀다. 이후로는 재입원율이 점차 낮아져 2017년 8.3%, 2018년 6.7%, 2019년 6.2%를 기록하였다.
- 출원 후 2년 이내 누적 재입원율은 2011년에 22.7%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17.7%, 2013년에 16.7%, 2014년에 16.2%, 2015년에 19.8%, 2016년에 18.8%, 2017년에 17.0%, 2018년에 15.5% 등이었다.
- 출원 후 3년 이내 누적 재입원율은, 2011년 출원생이 24.3%, 2012년 출원생이 19.5%, 2013년 출원생이 18.6%, 2014년 출원생이 18.4% 등으로 낮아지다가 2015년에는 21.2%, 2016년에는 21.6% 등으로 상승하였고, 2017년 출원생은 19.1%로 다시 낮아졌다.

표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19)

연도	출원 후 기간	출원	1년 이내		1년~2년		2년~3년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2011		2,559	381	14.9%	200	7.8%	40	1.6%
2012		3,212	361	11.2%	208	6.5%	57	1.8%
2013		2,867	289	10.1%	191	6.7%	54	1.9%
2014		2,398	228	9.5%	161	6.7%	52	2.2%
2015		2,037	245	12.0%	158	7.8%	29	1.4%
2016		2,045	287	14.0%	97	4.7%	58	2.8%
2017		2,174	181	8.3%	189	8.7%	46	2.1%

연도	출원 후 기간	출원	1년 이내		1년~2년		2년~3년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2018		2,225	148	6.7%	196	8.8%	-	-
2019		1,832	113	6.2%	-	-	-	-

표 5-6-2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을 현황(2011~2019)

출원 연도	출원 후 기간 (누적)	출원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재입원	비율
2011		2,559	381	14.9%	581	22.7%	621	24.3%
2012		3,212	361	11.2%	569	17.7%	626	19.5%
2013		2,867	289	10.1%	480	16.7%	534	18.6%
2014		2,398	228	9.5%	389	16.2%	441	18.4%
2015		2,037	245	12.0%	403	19.8%	432	21.2%
2016		2,045	287	14.0%	384	18.8%	442	21.6%
2017		2,174	181	8.3%	370	17.0%	416	19.1%
2018		2,225	148	6.7%	344	15.5%	-	-
2019		1,832	113	6.2%	-	-	-	-



그림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19)



# 통계분석

2021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Chapter 6

# 청소년 비행예방

제1절 비행예방교육

제2절 비행진단

제3절 자립지원기관 현황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비행예방교육

- ▶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 위기 청소년과 기소유예자 등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비행예방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7월 부산·창원·광주 등 6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현재 전국 19개(비직제 1개 기관 포함) 기관이 설치되었다.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개발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희망찬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1 대안교육

### 1) 의뢰기관별 현황

#### 개 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현황

#### 지표정의

- 대안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과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 학교 의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학교장 등이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선도처분 특별교육
  - 검찰 의뢰 :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찰이 의뢰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 법원 의뢰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대안교육명령 교육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명령
  - 기타 의뢰 :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 2020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 인원은 총 5,491명으로, 검찰 의뢰가 2,975명(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학교 의뢰가 1,184명(21.6%), 법원 의뢰가 774명(14.1%), 기타기관 의뢰가 558명(10.1%)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대안교육 인원은 2014년 총 9,563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13,801명을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대폭 감소하여 전년의 42.2% 수준에 머물렀다.

- 의뢰기관별로는 학교와 검찰 의뢰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의 95% 내외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법원 의뢰가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82.5%, 2019년 이후 75% 내외를 보였다.

표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2014		9,563	4,026	4,993	278	266
		100%	42.1%	52.2%	2.9%	2.8%
2015		9,735	4,035	5,123	217	360
		100%	41.5%	52.6%	2.2%	3.7%
2016		11,127	4,824	5,757	255	291
		100%	43.4%	51.7%	2.3%	2.6%
2017		13,578	6,623	5,416	193	1,346
		100%	48.8%	39.9%	1.4%	9.9%
2018		13,801	7,028	4,365	1,090	1,318
		100%	50.9%	31.6%	7.9%	9.6%
2019		13,002	4,930	4,608	2,533	931
		100%	37.9%	35.4%	19.5%	7.2%
2020		5,491	1,184	2,975	774	558
		100%	21.6%	54.2%	14.1%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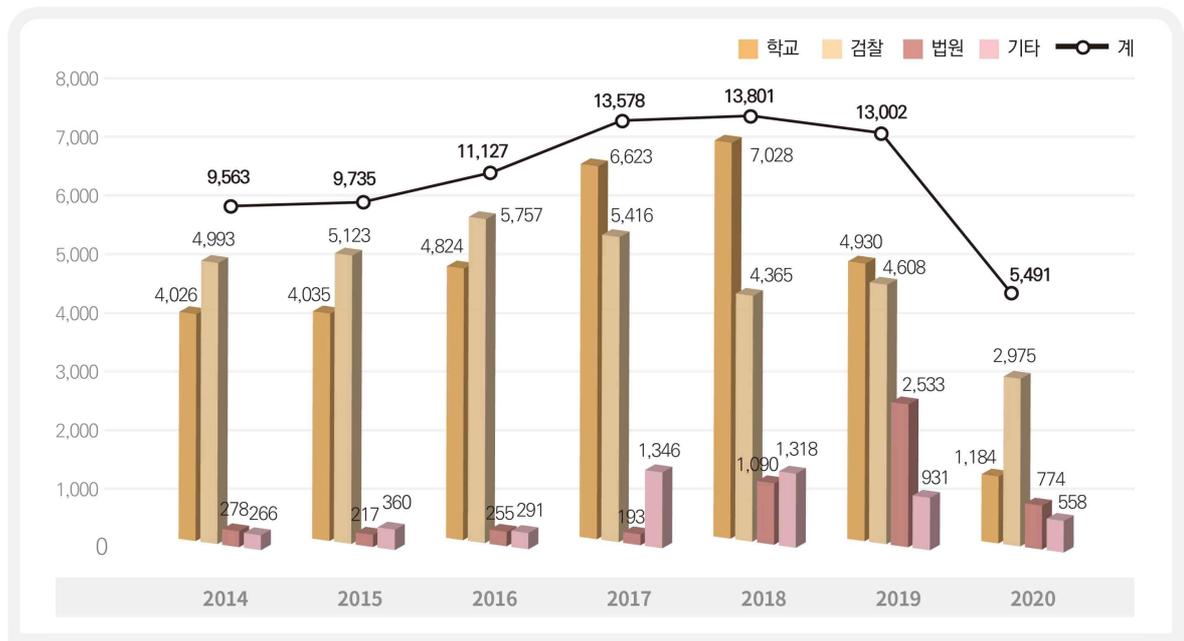


그림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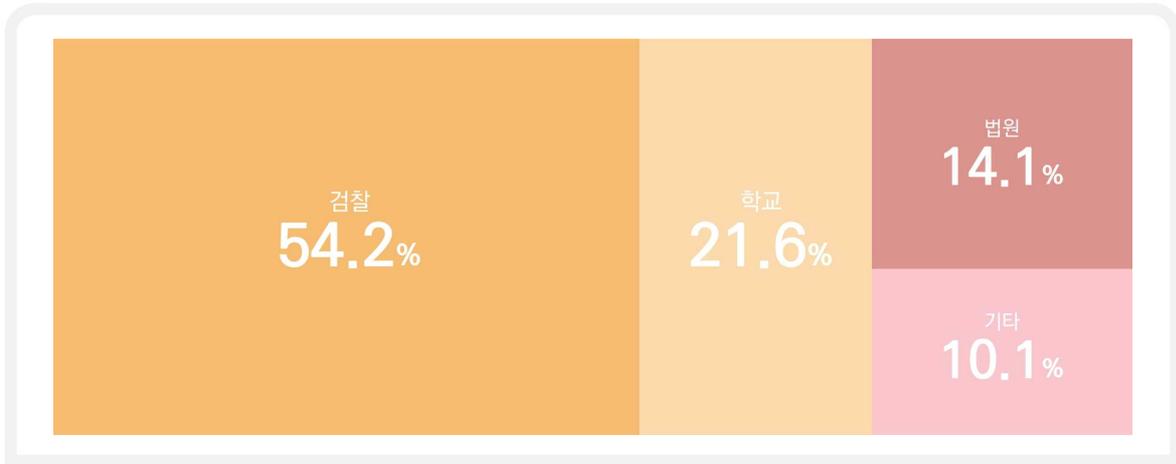


그림 6-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0)

## 2) 교육기간별 현황

### 개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의 기간별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대안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실시

- 2020년에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3일 교육이 1,959명(3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일 교육 1,914명(34.8%), 4시간 교육 687명(12.5%) 등의 순이었다.

표 6-1-2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교육기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4	인원	9,563	-	-	-	3,083	185	5,993	162	140
	비율	100%	-	-	-	32.2%	1.9%	62.7%	1.7%	1.5%
2015	인원	9,735	-	-	-	3,497	184	5,837	62	155
	비율	100%	-	-	-	35.9%	1.9%	60.0%	0.6%	1.6%
2016	인원	11,127	-	-	-	3,715	381	6,876	9	146
	비율	100%	-	-	-	33.4%	3.4%	61.8%	0.1%	1.3%
2017	인원	13,578	1,917	1,160	263	3,585	436	6,177	5	35
	비율	100%	14.1%	8.5%	1.9%	26.4%	3.2%	45.5%	0.1%	0.3%

연도	구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8		13,801	2,243	773	345	4,156	453	5,813	3	15
		100%	16.3%	5.6%	2.5%	30.1%	3.3%	42.1%	0.0%	0.1%
2019		13,002	856	755	320	4,007	496	6,513	0	55
		100%	6.6%	5.8%	2.5%	30.8%	3.8%	50.1%	0.0%	0.4%
2020		5,491	687	485	125	1,959	300	1,914	1	20
		100%	12.5%	8.8%	2.3%	35.7%	5.5%	34.8%	0.0%	0.4%

※ 2017년부터 절도, 학교폭력, 교통안전, 사이버범죄 등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4대 비행유형별 단기전문과정 (4시간, 1일)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시작

### 3) 의뢰기관에 따른 교육기간 현황

**개 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교육기간 현황

**지표정의**

- 대안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실시
- 의뢰기관 : 학교, 검찰, 법원, 기타 기관 의뢰로 구분

#### (1) 학교 의뢰

- 2020년 학교에서 의뢰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5일 교육이 589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일 교육 289명(24.4%), 4시간 교육 115명(9.7%) 등의 순이었다.

표 6-1-3 학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4	4,026	-	-	-	171	83	3,644	101	27
	100%	-	-	-	4.3%	2.1%	90.5%	2.5%	0.6%
2015	4,035	-	-	-	558	51	3,311	47	68
	100%	-	-	-	13.8%	1.3%	82%	1.2%	1.7%
2016	4,824	-	-	-	825	81	3,781	9	128
	100%	-	-	-	17.1%	1.7%	78.4%	0.2%	2.6%
2017	6,623	914	611	172	1,322	46	3,522	4	32
	100%	13.8%	9.2%	2.6%	19.9%	0.7%	53.2%	0.1%	0.5%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8	7,028	1,039	239	291	1,774	77	3,600	3	5
	100%	14.8%	3.4%	4.2%	25.2%	1.1%	51.2%	0.0%	0.1%
2019	4,930	40	200	124	1,315	34	3,171	0	46
	100%	0.8%	4.1%	2.5%	26.7%	0.7%	64.3%	0.0%	0.9%
2020	1,184	115	70	58	289	48	589	0	15
	100%	9.7%	5.9%	4.9%	24.4%	4.1%	49.7%	0.0%	1.3%

## (2) 검찰 의뢰

- 2020년 검찰에서 의뢰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3일 교육이 1,350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일 교육 833명(28.0%), 1일 교육 321명(10.8%), 4일 교육 219명(7.4%), 4시간 교육 218명(7.3%) 등의 순이었다.

표 6-1-4 검찰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4	4,993	-	-	-	2,783	63	2,007	42	98
	100%	-	-	-	55.7%	1.3%	40.2%	0.8%	2.0%
2015	5,123	-	-	-	2,612	105	2,351	15	40
	100%	-	-	-	51.0%	2.0%	45.9%	0.3%	0.8%
2016	5,757	-	-	-	2,616	284	2,856	0	1
	100%	-	-	-	45.5%	4.9%	49.6%	0.0%	0.0%
2017	5,416	189	267	0	2,095	381	2,483	0	1
	100%	3.5%	4.9%	0.0%	38.7%	7.0%	45.9%	0.0%	0.0%
2018	4,365	219	306	4	1,890	359	1,578	0	9
	100%	5.0%	7.0%	0.1%	43.3%	8.2%	36.2%	0.0%	0.2%
2019	4,608	200	273	21	2,083	399	1,631	0	1
	100%	4.3%	5.9%	0.5%	45.2%	8.7%	35.4%	0.0%	0.0%
2020	2,975	218	321	30	1,350	219	833	0	4
	100%	7.3%	10.8%	1.0%	45.4%	7.4%	28.0%	0.0%	0.1%

## (3) 법원 의뢰

- 2020년 법원에서 의뢰한 대안교육을 교육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5일 교육이 456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일 교육 179명(23.1%), 1일 교육 88명(11.4%), 4일 교육 33명(4.3%) 등의 순이었다.

표 6-1-5 법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4	278	-	-	-	18	39	187	19	15
	100%	-	-	-	6.5%	14.0%	67.3%	6.8%	5.4%
2015	217	-	-	-	33	28	149	0	7
	100%	-	-	-	15.2%	12.9%	68.7%	0.0%	3.2%
2016	255	-	-	-	34	15	190	0	16
	100%	-	-	-	13.3%	5.9%	74.5%	0.0%	6.3%
2017	193	3	5	0	22	9	151	1	2
	100%	1.6%	2.6%	0.0%	11.4%	4.7%	78.2%	0.5%	1.0%
2018	1,090	57	112	22	355	17	526	0	1
	100%	5.2%	10.3%	2.0%	32.6%	1.6%	48.2%	0.0%	0.1%
2019	2,533	134	136	38	559	62	1,597	0	7
	100%	5.2%	5.3%	1.5%	22.1%	2.5%	63.1%	0.0%	0.3%
2020	774	1	88	15	179	33	456	1	1
	100%	0.1%	11.4%	2.0%	23.1%	4.3%	58.9%	0.1%	0.1%

(4) 기타 기관 의뢰

- 2020년 기타기관에서 의뢰한 대안교육을 교육시간에 따라 구분하면, 4시간 교육이 353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일 교육이 141명(25.3%), 5일 교육이 36건(6.4%), 2일 교육이 22명(3.9%) 등의 순이었다.

표 6-1-6 기타 기관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계	4시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상	기타
2014	266	-	-	-	111	0	155	0	0
	100%	-	-	-	41.7%	0.0%	58.3%	0.0%	0.0%
2015	360	-	-	-	294	0	26	0	40
	100%	-	-	-	81.7%	0.0%	7.2%	0.0%	11.1%
2016	291	-	-	-	240	1	49	0	1
	100%	-	-	-	82.5%	0.3%	16.9%	0.0%	0.3%
2017	1,346	811	277	91	146	0	21	0	0
	100%	60.2%	20.6%	6.8%	10.8%	0.0%	1.6%	0.0%	0.0%
2018	1,318	928	116	28	137	0	109	0	0
	100%	70.4%	8.8%	2.1%	10.4%	0.0%	8.3%	0.0%	0.0%
2019	931	482	146	137	50	1	114	0	1
	100%	51.8%	15.7%	14.7%	5.4%	0.1%	12.2%	0.0%	0.1%
2020	558	353	6	22	141	-	36	-	-
	100%	63.3%	1.1%	3.9%	25.3%	-	6.4%	-	-

#### 4) 비행유형별 현황

##### 개 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특별교육 대상 소년의 비행유형별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대안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 실시
- 비행유형 : 교칙위반 등, 절도, 폭력, 교통, 성비행, 중독, 사기, 재교육, 기타의 9개로 구분

- 2020년에 실시한 대안교육을 교육 대상의 비행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절도가 1,393명(25.4%), 지시불이행, 흡연, 출결, 학교 교칙 위반 등이 1,166명(21.2%), 교통 관련 비행이 591명(10.8%), 폭력이 486명(8.8%), 성비행이 219명(4.0%), 중독이 20명(0.4%) 등이었고,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의뢰되어 비행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기타)가 1,389명(25.3%)이었다.

표 6-1-7 대안교육의 비행유형별 실시 현황(2016~2020)

연도	구분	계	교칙위반 등*	절도	폭력	교통	성비행	중독	재교육	사기	기타
2016		11,127	2,286	2,715	938	652	212	426	118	0	3,780
		100%	20.5%	24.4%	8.4%	5.9%	1.9%	3.8%	1.1%	0.0%	34%
2017		13,578	2,717	2,483	1,056	795	284	478	145	0	5,620
		100%	20.0%	18.3%	7.8%	5.8%	2.1%	3.5%	1.1%	0.0%	41.4%
2018		13,801	3,578	2,093	1,164	859	323	793	171	0	4,820
		100%	25.8%	15.2%	8.4%	6.2%	2.4%	5.8%	1.2%	0.0%	35%
2019		13,002	3,296	2,601	1,479	1,046	628	431	47	31	3,443
		100%	25.4%	20.0%	11.4%	8.0%	4.8%	3.3%	0.4%	0.2%	26.5%
2020		5,491	1,166	1,393	486	591	219	20	0	227	1,389
		100%	21.2%	25.4%	8.8%	10.8%	4.0%	0.4%	0.0%	4.1%	25.3%

※ 대안교육 범위 : 학교, 검찰, 법원, 기타기관 의뢰 청소년 (2일 이상 교육생)

※ 2016년부터 통계 산출

※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혹은 보호관찰소 의뢰 등 특정 비행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로 처리

## 5) 기관별 대안교육 실시 현황

### 개 요

-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대안교육 인원의 기관별 현황

### 지표정의

- 대안교육 : 학교 부적응 학생,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에서 의뢰한 비행초기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
  - 학교의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학교장 등이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선도처분 특별교육
  - 검찰의뢰 :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찰이 의뢰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 법원의뢰 :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대안교육명령 교육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명령
  - 기타의뢰 :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 2020년의 대안교육 실시현황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로 구분하면,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513명,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505명,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375명,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371명,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336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328명 등의 순이었다.

표 6-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대안교육 현황(2020)

구분	직원 수	총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총계	136	5,491	1,184	2,975	774	558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328	127	101	100	0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259	32	128	99	0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95	94	93	8	0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270	38	180	52	0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297	60	227	10	0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375	65	252	0	58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274	47	65	0	162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267	43	175	49	0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5	181	23	158	0	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31	5	26	0	0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295	11	165	104	15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06	10	96	0	0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	688	193	97	96	302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513	192	250	63	8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505	161	237	94	13

구분	직원 수	총계	학교	검찰	법원	기타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336	66	270	0	0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371	14	283	74	0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55	0	130	25	0
제주소년원**	3	45	3	42	-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로파크 업무 병행)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제주소년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병행)

## 2 보호자교육

### 1) 개요

#### 개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자교육 :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교육

- 2020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은 총 3,341명으로, 이를 의무교육과 자원교육으로 구분하면 의무교육(부가처분)이 1,398명(41.8%), 자원교육이 1,943명(58.2%)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보호자교육 실시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9,192명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 6,97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7,000명 이상에게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전년 대비 54.4% 감소하였다.
- 보호자교육 중 의무교육(부가처분)이 2014년 1,237명(13.5%)에서 2019년 3,455명(47.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9.5% 감소하였고, 자원교육 역시 2014년 7,955명(86.5%)에서 2020년 1,943명(58.2%)으로 감소하였다.

표 6-1-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의무교육	자원교육
2014		9,192	1,237	7,955
		100%	13.5%	86.5%
2015		8,964	1,432	7,532
		100%	16.0%	84.0%
2016		9,465	1,871	7,594
		100%	19.8%	80.2%
2017		6,977	1,388	5,589
		100%	19.9%	80.1%
2018		7,046	2,497	4,549
		100%	35.4%	64.6%
2019		7,320	3,455	3,865
		100%	47.2%	52.8%
2020		3,341	1,398	1,943
		100%	41.8%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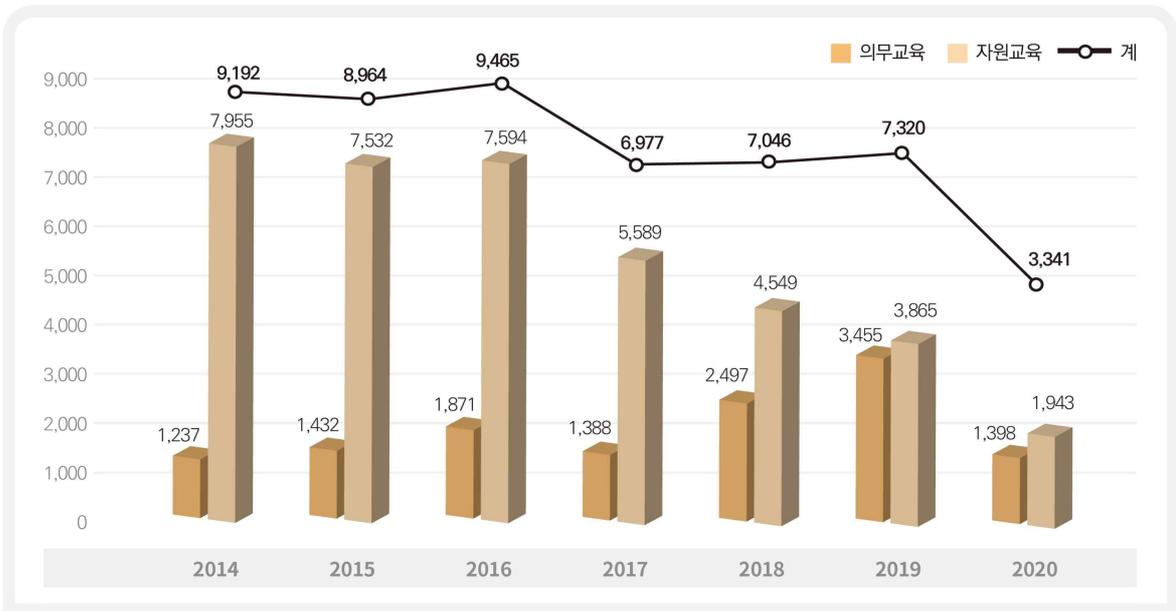


그림 6-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 2)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

### 개 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의무교육) 인원의 교육시간별 현황

### 지표정의

- 보호자교육(의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32조2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법원명령 보호자교육 실시

- 2020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보호자교육(의무교육)을 교육시간별로 구분하면, 5시간 이하가 718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6~10시간이 662명(47.3%), 10시간 초과가 18명(1.3%)이었다.

표 6-1-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5시간 이하	6~10시간	10시간 초과
2014		1,237	920	317	0
		100%	74.4%	25.6%	0.0%
2015		1,432	803	598	31
		100%	56.1%	41.7%	2.2%
2016		1,871	1,019	807	45
		100%	54.5%	43.1%	2.4%
2017		1,388	1,220	151	17
		100%	87.9%	10.9%	1.2%
2018		2,497	1,749	714	34
		100%	70.0%	28.6%	1.4%
2019		3,455	1,910	1,479	66
		100%	55.3%	42.8%	1.9%
2020		1,398	718	662	18
		100%	51.4%	47.3%	1.3%

※ 보호자교육(자원)의 경우 단일과정으로 운영

※ 보호자교육(의무)의 경우 법원 등 의뢰기관에서 정한 의무 교육이수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이수

※ 201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분리

### 3)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 개 요

-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법교육·법체험·보호자교육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법교육 : 초·중·고 학생,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모의법정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법교육 실시
- 법체험 :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아동·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다양한 법체험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법무공무원 직업체험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 보호자교육 : 학교, 법원, 검찰청에서 의뢰한 보호자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 교육

- 2020년의 보호자교육 실시현황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로 구분하면,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306명,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04명,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283명,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76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17명 등의 순이었다.

표 6-1-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20)

구분	직원수	계	보호자교육(의무)	보호자교육(자원)
총계	136	3,341	1,398	1,943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80	115	65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34	62	72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07	20	87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167	104	63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431	18	413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276	209	6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51	9	142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64	107	57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5	192	1	191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7	0	17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126	9	117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144	6	138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	217	184	33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283	8	27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304	256	48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8	142	71	71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7	306	219	87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6	0	0	0
제주소년원**	3	0	0	0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로파크 업무 병행)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수(제주소년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 병행)

## 제 2 절

# 비행진단

### 1 상담조사

#### 1) 개요

##### 개 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조사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상담조사 : 「소년법」 제12조에 의하여 법원 등에서 의뢰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심리검사, 상담 실시
  - 일반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하여 실시하는 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출장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외 기타 장소에서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의뢰하여 실시하는 소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결정전조사 : 「소년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검찰에서 의뢰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검찰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

- 2020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시행한 상담조사 중 97.4%는 일반 상담조사이며, 2.6%가 출장 상담조사이었다.
- 일반 상담조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3,700~4,000명 내외가 실시되다가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출장 상담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300명 내외가 실시되었으나, 201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88명, 2019년 4명, 2020년에는 68명이었다.

표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등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계	일반	출장	
2014		4,261	3,971	290	0
		100%	93.2%	6.8%	
2015		4,119	3,829	290	0
		100%	93.0%	7.0%	

연도	구분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계	일반	출장	
2016		4,018	3,686	307	25
		100%	91.7%	7.6%	0.6%
2017		4,179	4,044	135	0
		100%	96.8%	3.2%	
2018		3,224	3,136	88	0
		100%	97.3%	2.7%	
2019		2,421	2,417	4	0
		100%	99.8%	0.2%	
2020		2,589	2,521	68	0
		100%	97.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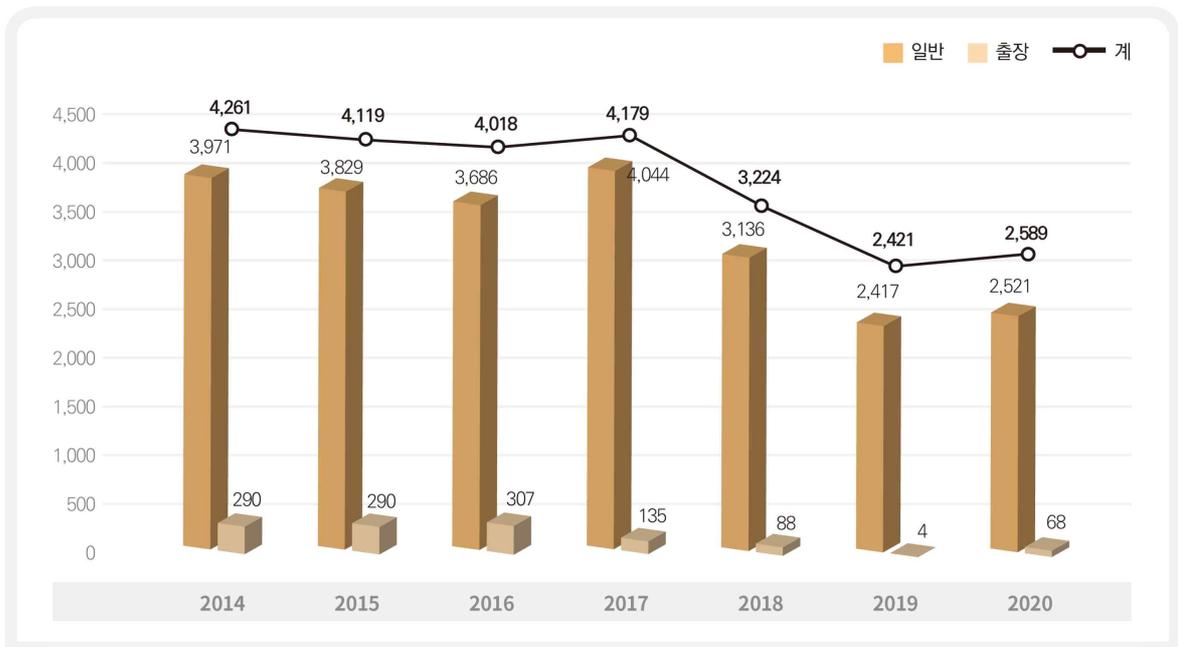


그림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실시 현황(2014~2020)

## 2) 기관별 상담조사 실시 현황

### 개 요

-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상담조사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상담조사 : 「소년법」 제12조에 의하여 법원 등에서 의뢰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심리검사, 상담 실시
- 결정전조사 : 「소년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검찰에서 의뢰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검찰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

- 2020년 법원에 통보한 상담조사(결정전조사 포함) 실시 인원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남부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3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28명, 인천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222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16명 등의 순이었다.

표 6-2-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상담조사(결정전조사 포함) 실시 현황(2020)

구분	완료		
	의뢰	불참	법원통보
총계	2,919	183	2,589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75	2	73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45	1	137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0	14	118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0	9	128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2	5	14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16	6	183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63	5	6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4	20	178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96	6	99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	16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56	50	228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252	19	160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36	10	216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66	10	342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47	4	13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1	17	222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131	4	116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0	0	0
제주소년원	25	1	23

## 2 청소년 심리상담

### 개 요

- 전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심리상담 현황

### 지표정의

- 청소년 심리상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학교, 검찰, 법원, 기타 기관 등에서 의뢰)

### 1)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

- 2020년에 실시된 청소년 심리상담 인원을 의뢰기관에 따라 구분하면, 검찰 의뢰가 1,925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의뢰가 1,020명(26.3%), 법원 의뢰가 533명(13.8%), 기타기관 의뢰가 393명(10.2%) 등이었다.

표 6-2-3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학교의뢰	검찰의뢰	법원의뢰	기타
2014		10,020	4,914	4,049	522	535
		100%	49.1%	40.4%	5.2%	5.3%
2015		11,046	5,492	4,162	299	1,093
		100%	49.7%	37.7%	2.7%	9.9%
2016		12,473	6,891	4,709	314	559
		100%	55.2%	37.8%	2.5%	4.5%
2017		12,933	7,251	4,181	395	1,106
		100%	56.1%	32.3%	3.0%	8.6%
2018		10,868	6,537	2,928	471	932
		100%	60.2%	26.9%	4.3%	8.6%
2019		12,322	6,140	3,711	910	1,561
		100%	49.8%	30.1%	7.4%	12.7%
2020		3,871	1,020	1,925	533	393
		100%	26.3%	49.7%	13.8%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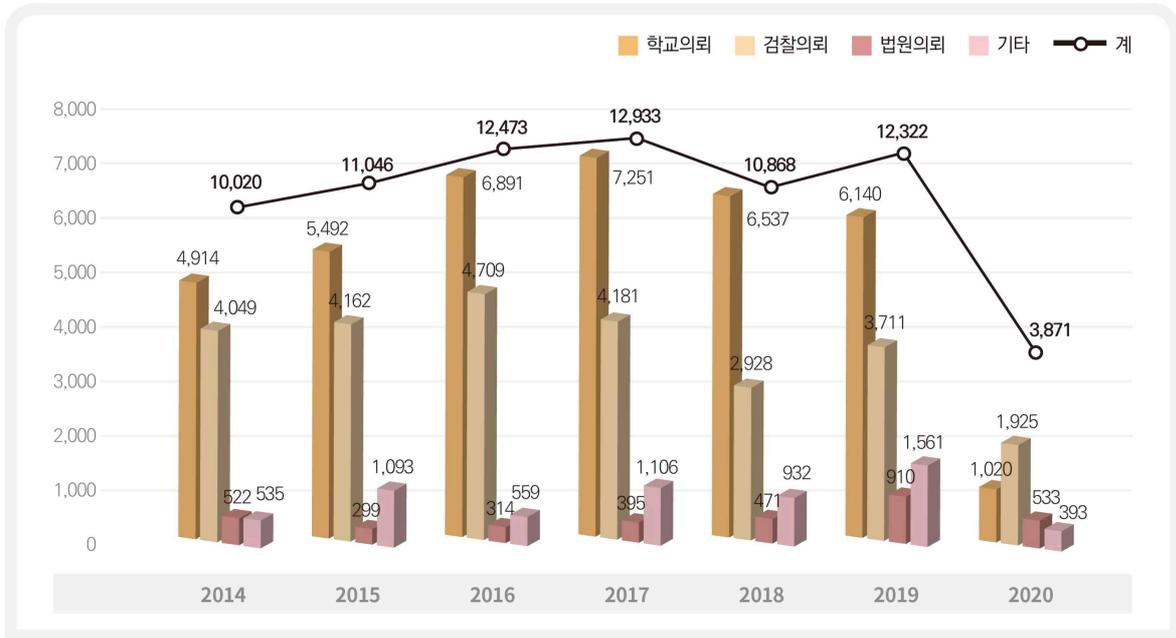


그림 6-2-2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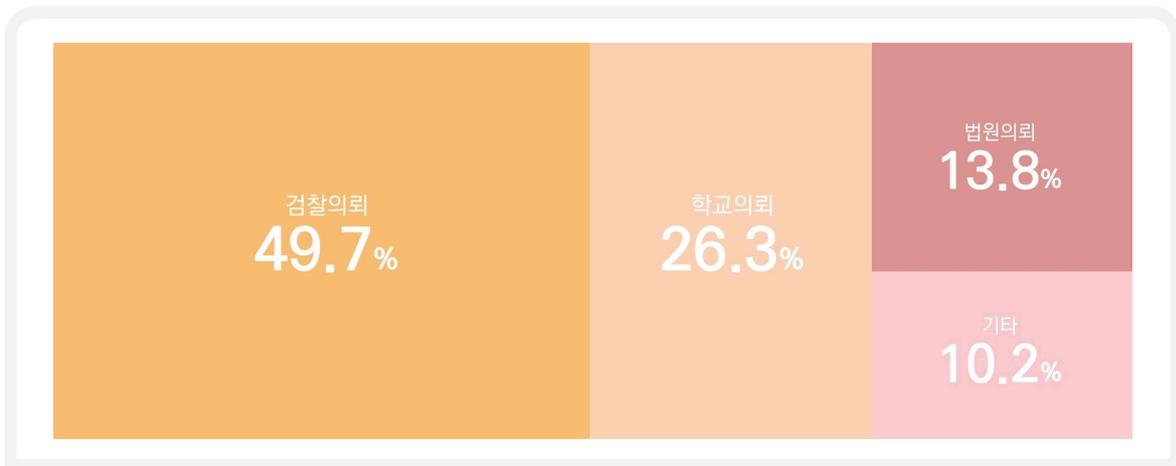


그림 6-2-3 청소년 심리검사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0)

## 2) 검사종류별 실시 현황

- 2020년에 실시한 청소년 심리상담에서 활용한 검사로는 성격검사가 3,266명(84.4%)으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진로검사 293명(7.6%), 종합검사 202명(5.2%), 능력검사 74명(1.9%), 특수검사 36명(0.9%) 등이었다.

표 6-2-4 청소년 심리상담의 검사종류별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능력검사	성격검사	특수검사	종합검사	진로검사
2014		10,020	546	8,275	561	638	0
		100%	5.4%	82.6%	5.6%	6.4%	0.0%
2015		11,046	1,858	8,528	2	658	0
		100%	16.8%	77.2%	0.0%	6.0%	0.0%
2016		12,473	1,700	10,042	314	417	0
		100%	13.6%	80.5%	2.5%	3.4%	0.0%
2017		12,933	1,596	10,365	120	852	0
		100%	12.3%	80.2%	0.9%	6.6%	0.0%
2018		10,868	994	8,554	481	807	32
		100%	9.2%	78.7%	4.4%	7.4%	0.3%
2019		12,322	78	8,471	207	679	2,887
		100%	0.6%	68.8%	1.7%	5.5%	23.4%
2020		3,871	74	3,266	36	202	293
		100%	1.9%	84.4%	0.9%	5.2%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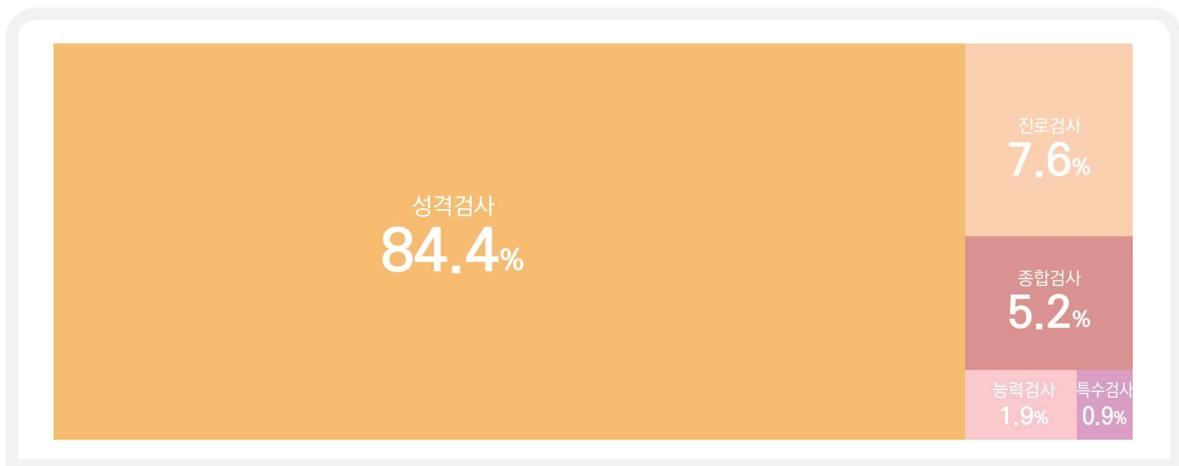


그림 6-2-4 청소년 심리검사의 검사종류별 점유율(2020)

### 3) 기관별 청소년 심리상담 실시 현황

- 2020년에 실시한 청소년 심리상담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4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36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각 309명 등의 순이었다.

표 6-2-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청소년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현황(2020)

구분	총계	능력검사	성격검사	특수검사	진로검사	종합검사
총계	3,871	74	3,266	36	293	202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49	0	140	0	9	0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2	0	51	36	65	0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60	28	232	0	0	0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145	0	145	0	0	0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8	0	145	0	23	0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4	0	88	0	76	0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159	20	68	0	71	0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22	0	222	0	0	0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1	0	33	0	0	78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71	0	71	0	0	0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499	0	462	0	37	0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9	0	0	0	0	119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309	0	297	0	12	0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336	0	336	0	0	0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253	0	253	0	0	0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284	0	284	0	0	0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309	0	309	0	0	0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22	0	122	0	0	0
제주소년원	39	26	8	0	0	5

### 제 3 절

## 자립지원기관 현황

### 1 개요

-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기관에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있다.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경기도 의왕, 안양,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8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자립생활관의 직원 정원은 모두 각 4명이며, 대구와 안양에서 현원이 각 3명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4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전국 자립생활관의 직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다.
-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경기도 화성과 안산에 설치·운영 중으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6-3-1 자립지원기관 개요(2020)

기 관		직원 수	
		정원	현원
자립생활관	의왕	4	4
	대전	4	4
	광주	4	4
	부산	4	4
	대구	4	3
	안양	4	3
	전북	4	4
	강원	4	4
	계	32	30
청소년창업비전센터	화성	20	18
	안산	3	3

## 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

### 개 요

-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의 1일 평균 입주 인원 및 신 입주인원 현황

### 지표정의

- 1일평균 입주 인원 : 연인원을 해당연도 일수로 나눈 비율
- 신 입주인원 : 해당연도 새로 입주한 인원

- 2020년 전국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주 정원은 총 130명이며,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주 인원은 91명이었다. 2020년의 1일 평균 입주 인원은 83명이고 신 입주 인원은 98명으로, 의왕 청소년자립생활관 리모델링공사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각각 전년 대비 10.8%, 12.7% 감소하였다.

표 6-3-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2016~2020)

정원	현원	1일 평균 입주인원					신 입주인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30	91	113	111	108	93	83	133	120	111	110	96

## 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 개 요

- 화성 및 안산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1일평균 입주 인원 및 신 입주인원 현황

### 지표정의

- 1일평균 입주 인원 : 연인원을 해당연도 일수로 나눈 비율
- 신 입주인원 : 해당연도 새로 입주한 인원

- 2020년 기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정원은 40명이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입주 인원은 20명이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입주 인원은 2016년 31명, 2017년 32명, 2017년 27명 등이었다가, 2019년 16명, 2020년 14명 등으로 감소하였다. 신 입주 인원도 최근 감소추세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89명과 82명이었으나, 2018년 72명, 2019년 41명, 2020년 25명 등이었다.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생활시설 내 인원 축소, 학생 홍보의 어려움 등으로 1일평균 입주인원은 2019년 16명에서 2020년 14명으로 12.5% 감소하였고, 신 입주인원은 2019년

41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39.0% 감소하였다.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0년 1월 개소하여 정원 20명이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현재 인원은 12명이었다.

표 6-3-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2016~2020)

구분	정원	현원	1일평균 입주인원					신 입주인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화성	40	20	31	32	27	16	14	89	82	72	41	25
안산	20	12	-	-	-	-	9	-	-	-	-	27



## Chapter 7

# 치료감호

**제1절** 피치료감호자 특성

**제2절** 피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

**제3절**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현황

**제4절**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제5절** 정신감정 유치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피치료감호자 특성

## 1 치료감호 유형별 현황

### 개 요

-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원인 유형별 현황

### 지표정의

- 심신장애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심신장애자로, 수용 기간은 최대 15년
- 약물중독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처분을 받은 사람(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으로, 수용 기간은 최대 2년
- 정신성적장애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처분을 받은 사람(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혹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으로, 수용 기간은 최대 15년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심신장애가 전체의 87~92%를 차지하였고, 약물중독이 4~6%, 정신성적장애가 5~8% 등이었다.
- 이는 2020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1,016명 중 심신장애가 935명(92.0%), 약물중독이 42명(2.5%), 정신성적장애가 56명(5.5%) 등이었다.

표 7-1-1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총 계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
2014		1,149 (121)	997 (120)	68 (1)	84 (0)
		100%	86.8%	5.9%	7.3%
2015		1,180 (120)	1,025 (116)	66 (4)	89 (0)
		100%	86.9%	5.6%	7.5%
2016		1,093 (122)	961 (121)	44 (1)	88 (0)
		100%	87.9%	4.0%	8.1%
2017		1,096 (126)	969 (125)	41 (1)	86 (0)
		100%	88.5%	3.7%	7.8%
2018		1,038 (110)	910 (108)	59 (2)	69 (0)
		100%	87.7%	5.7%	6.6%
2019		1,012 (115)	916 (111)	43 (4)	53 (0)
		100%	90.5%	4.3%	5.2%
2020		1,016 (109)	935 (108)	25 (1)	56 (0)
		100%	92.0%	2.5%	5.5%

※ (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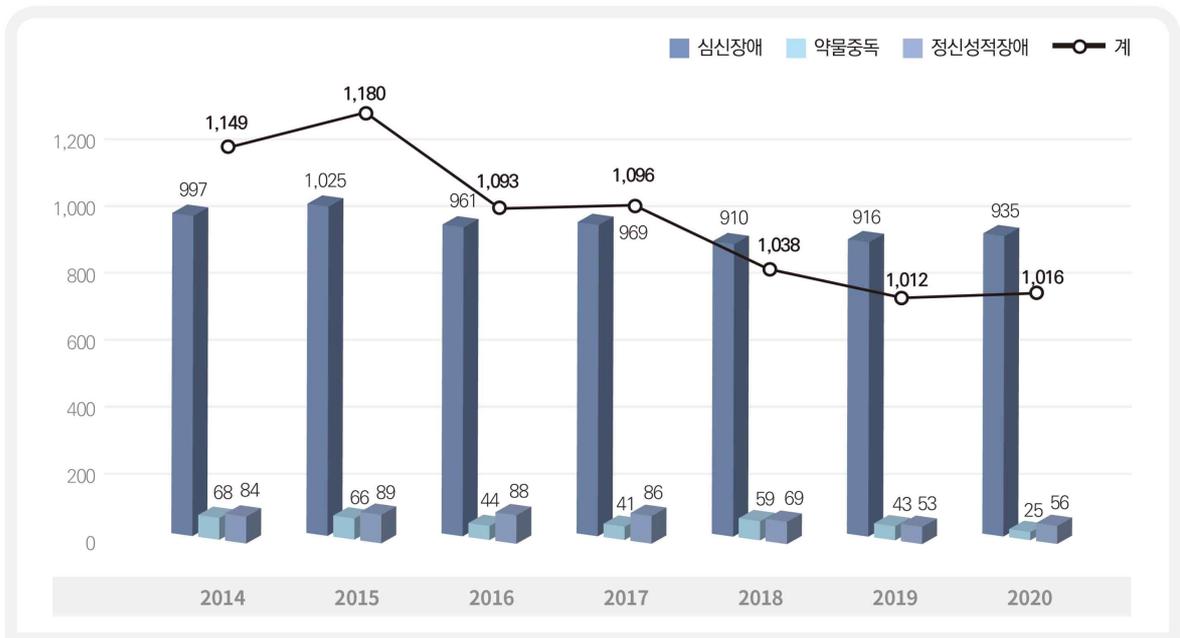


그림 7-1-1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4~2020)

## 2 병명별 현황

### 개 요

#### ■ 수용 중인 피치로감호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로감호자를 병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조현병이 575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지체 84명(8.3%), 조울증 79명(7.8%), 기타 71명(7.0%), 알코올 61명(6.0%) 등의 순이었다.
- 최근 7년간의 병명별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현병이 가장 많은 인원 수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매년 인원과 비율이 증가하여, 2014년 44.3%에서 2019년 53.7%, 2020년 56.6%를 나타냈다.
- 정신지체는 매년 7~9%, 조울증은 6~7%, 기타는 5~7% 수준을 유지하였고, 망상장애는 2014년 4.5%에서 2019년 8.4%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5%대로 다시 감소하였다. 알코올사용장애는 2014년 9.9%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9년과 2020년에 6% 수준을 보였다. 정신성적장애는 2015년과 2016년 110명에 육박하며 전체의 9.5%까지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7-1-2 피치로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4~2020)

병명 연도	계	조현병	성격 장애	정신 지체	조울증	망상	간질	알코올	약물	정신성적 장애	기타
2014	1,149	509	38	104	72	52	20	114	62	98	80
	100%	44.3%	3.3%	9.1%	6.3%	4.5%	1.7%	9.9%	5.4%	8.5%	7.0%
2015	1,180	533	35	102	81	63	14	122	53	107	70
	100%	45.2%	3.0%	8.6%	6.9%	5.3%	1.2%	10.3%	4.5%	9.1%	5.9%
2016	1,093	507	27	97	85	68	12	93	37	104	63
	100%	46.4%	2.5%	8.9%	7.8%	6.2%	1.1%	8.5%	3.4%	9.5%	5.7%
2017	1,096	518	27	92	84	79	10	82	35	92	77
	100%	47.3%	2.5%	8.4%	7.6%	7.2%	0.9%	7.5%	3.2%	8.4%	7.0%
2018	1,038	528	23	84	71	70	10	72	46	76	58
	100%	51.0%	2.2%	8.1%	6.8%	6.7%	0.9%	6.9%	4.4%	7.3%	5.7%
2019	1,012	543	13	77	76	85	9	63	35	53	58
	100%	53.7%	1.3%	7.6%	7.5%	8.4%	0.9%	6.2%	3.5%	5.2%	5.7%
2020	1,016	575	10	84	79	53	10	61	19	54	71
	100%	56.6%	1.0%	8.3%	7.8%	5.2%	1.0%	6.0%	1.9%	5.3%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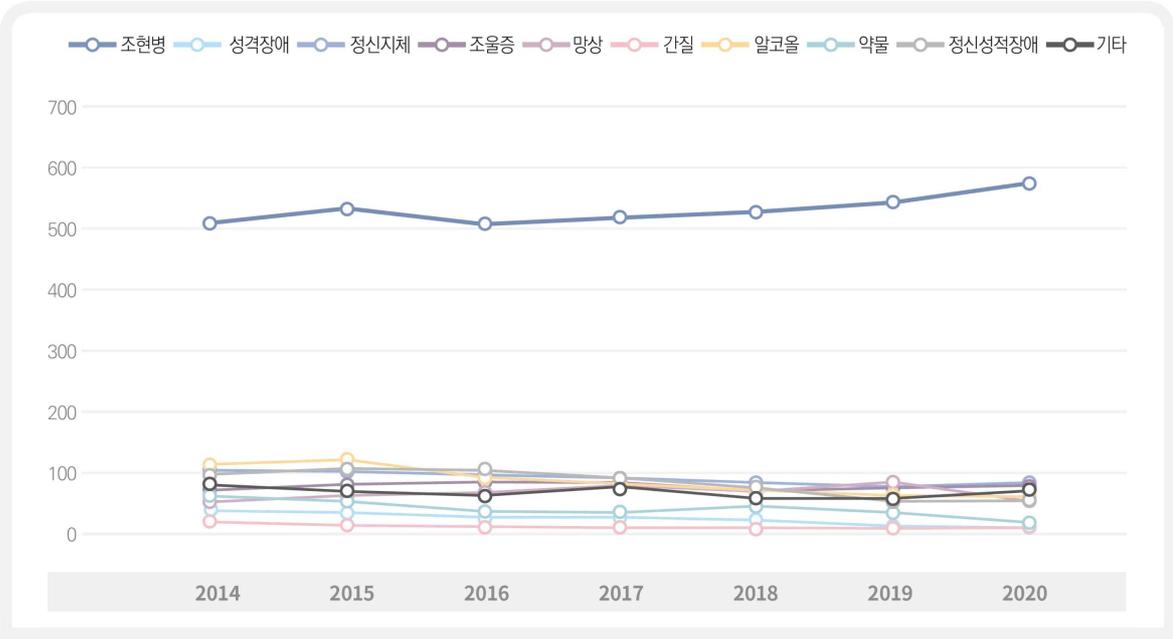


그림 7-1-2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4~2020)

### 3 죄명별 현황

#### 개 요

#####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를 죄명별로 구분한 결과, 살인 321명 (31.6%), 성폭력 184명(18.1%), 폭력 171명(16.8%) 등으로 살인·성폭력·폭력 범죄가 전체의 66.5%를 차지하였다. 그 외 기타 죄명 129명(12.7%), 방화 64명(6.3%), 절도 58명(5.7%), 강도 44명(4.3%), 치사 28명(2.8%), 약물 17명(1.7%)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각 죄명의 인원수와 비율이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살인이 전체의 30~33%를, 성폭력범죄는 20% 내외를, 폭력범죄는 14~17%를 유지하였다. 다만, 기타범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80명 수준으로 전체의 8% 미만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부터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비율도 11% 이상으로 높아졌다.

표 7-1-3 피치로감호자의 죄명별 수용 현황(2014~2020)

연도	죄명	계	살인	폭력	치사	절도	방화	강도	성폭력	약물	기타
2014		1,149	340	195	37	58	71	54	263	56	75
		100%	29.6%	17.0%	3.2%	5.0%	6.2%	4.7%	22.9%	4.9%	6.5%
2015		1,180	372	161	36	68	80	57	279	47	80
		100%	31.5%	13.6%	3.1%	5.8%	6.8%	4.8%	23.6%	4.0%	6.8%
2016		1,093	343	137	34	60	75	52	272	34	86
		100%	31.4%	12.5%	3.1%	5.5%	6.9%	4.7%	24.9%	3.1%	7.9%
2017		1,096	338	156	38	59	80	48	242	35	100
		100%	31.0%	14.1%	3.5%	5.4%	7.3%	4.4%	22.0%	3.2%	9.1%
2018		1,038	328	149	30	58	76	48	208	41	100
		100%	31.6%	14.5%	2.9%	5.6%	7.3%	4.6%	20.0%	3.9%	9.6%
2019		1,012	336	140	30	62	74	44	184	31	111
		100%	33.2%	13.8%	3.0%	6.1%	7.3%	4.3%	18.2%	3.1%	11.0%
2020		1,016	321	171	28	58	64	44	184	17	129
		100%	31.6%	16.8%	2.8%	5.7%	6.3%	4.3%	18.1%	1.7%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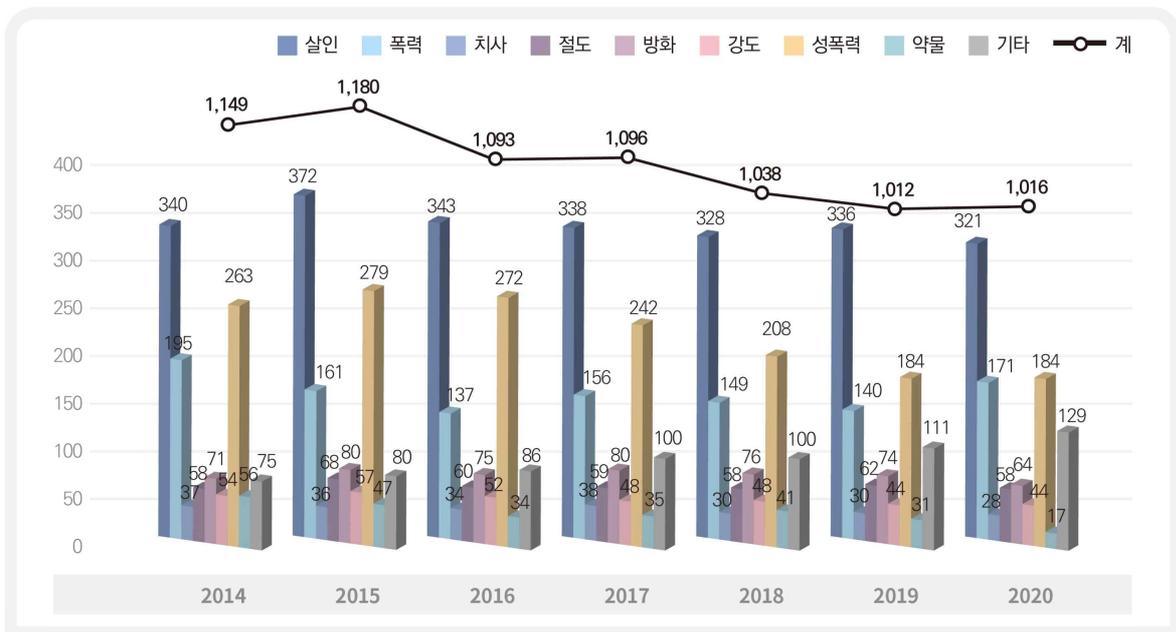


그림 7-1-3 피치로감호자의 죄명 수용 현황(2014~2020)

## 4 범죄 횟수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총 1,016명을 범죄 횟수에 따라 구분한 결과, 초범이 663명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2범이 135명(13.3%), 5범 이상이 122명(12.0%), 3범이 61명(6.0%), 4범이 35명(3.4%) 등이었다.
- 이러한 범죄 횟수별 현황은 최근 7년간 큰 변화가 없어, 매년 초범이 전체의 65% 내외를 차지하였고, 2범과 5범 이상은 각각 10~13%로 나타났다.

표 7-1-4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4~2020)

연도	횟수	계	초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2014		1,149	759	121	70	42	157
		100%	66.0%	10.5%	6.1%	3.7%	13.7%
2015		1,180	769	132	77	40	162
		100%	65.2%	11.2%	6.5%	3.4%	13.7%
2016		1,093	728	133	61	45	126
		100%	66.6%	12.2%	5.6%	4.1%	11.5%
2017		1,096	721	129	65	35	146
		100%	65.8%	11.8%	5.9%	3.2%	13.3%
2018		1,038	671	126	57	38	146
		100%	64.6%	12.1%	5.5%	3.7%	14.1%
2019		1,012	657	132	60	37	126
		100%	64.9%	13.0%	5.9%	3.7%	12.5%
2020		1,016	663	135	61	35	122
		100%	65.3%	13.3%	6.0%	3.4%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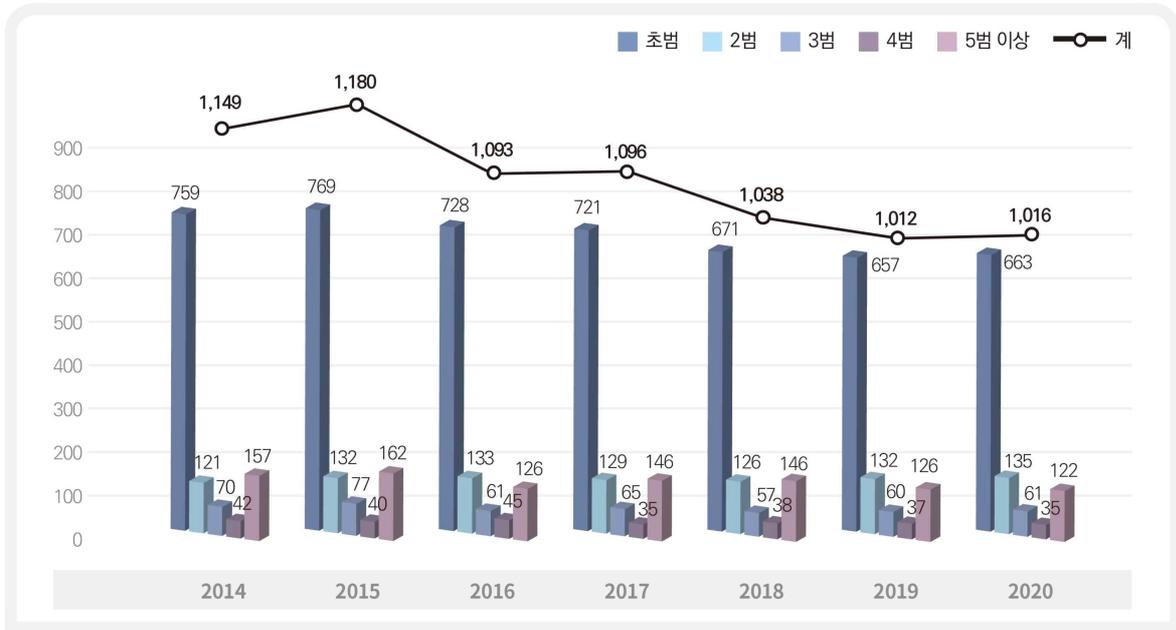


그림 7-1-4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4~2020)

## 5 치료감호 집행기간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 총 1,016명을 치료감호소 입소 이후의 집행 기간에 따라 구분한 결과, 5년 이상~10년 미만이 259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년 미만이 193명(19.0%), 1년 이상~2년 미만이 153명(15.1%), 4년 이상~5년 미만이 122명(12.0%), 2년 이상~3년 미만이 112명(11.0%), 3년 이상~4년 미만이 103명(10.1%), 10년 이상이 74명(7.3%)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집행기간 1년 미만의 피치료감호자가 47.6%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부터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23.7%, 2016년에는 25.9%이었고, 2017년에 20.1%를 기록한 후 20% 내외를 보이고 있다. 반면 5년 이상~10년 미만의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2014년에 9.7%이었다가 2015년 이후 매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전체 피치료감호자를 2년 미만인 경우와 2년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면, 2014년에는 2년 미만이 58.6%, 2년 이상이 41.4%로 2년 미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이러한 양상이 반전되어 2년 미만이 34~42%이었고 2년 이상인 경우가 57~66%이었다.

➔ 치료감호소 입소 이후의 집행기간이 1년 미만인 피치료감호자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수용기간 상한이 2년인 2호 대상자(약물·알코올 중독자)의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1-5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4~2020)

연도	기간	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4		1,149	548	126	115	99	96	111	54
		100%	47.6%	11.0%	10.0%	8.6%	8.4%	9.7%	4.7%
2015		1,180	279	199	173	126	105	239	59
		100%	23.7%	16.7%	14.7%	10.7%	8.9%	20.3%	5.0%
2016		1,093	283	181	133	115	84	239	58
		100%	25.9%	16.6%	12.2%	10.5%	7.7%	21.8%	5.3%
2017		1,096	220	230	156	103	98	231	58
		100%	20.1%	21.0%	14.2%	9.4%	8.9%	21.1%	5.3%
2018		1,038	195	167	178	116	86	247	49
		100%	18.8%	16.1%	17.1%	11.2%	8.3%	23.8%	4.7%
2019		1,012	210	136	123	144	89	246	64
		100%	20.8%	13.4%	12.2%	14.2%	8.8%	24.3%	6.3%
2020		1,016	193	153	112	103	122	259	74
		100%	19.0%	15.1%	11.0%	10.1%	12.0%	25.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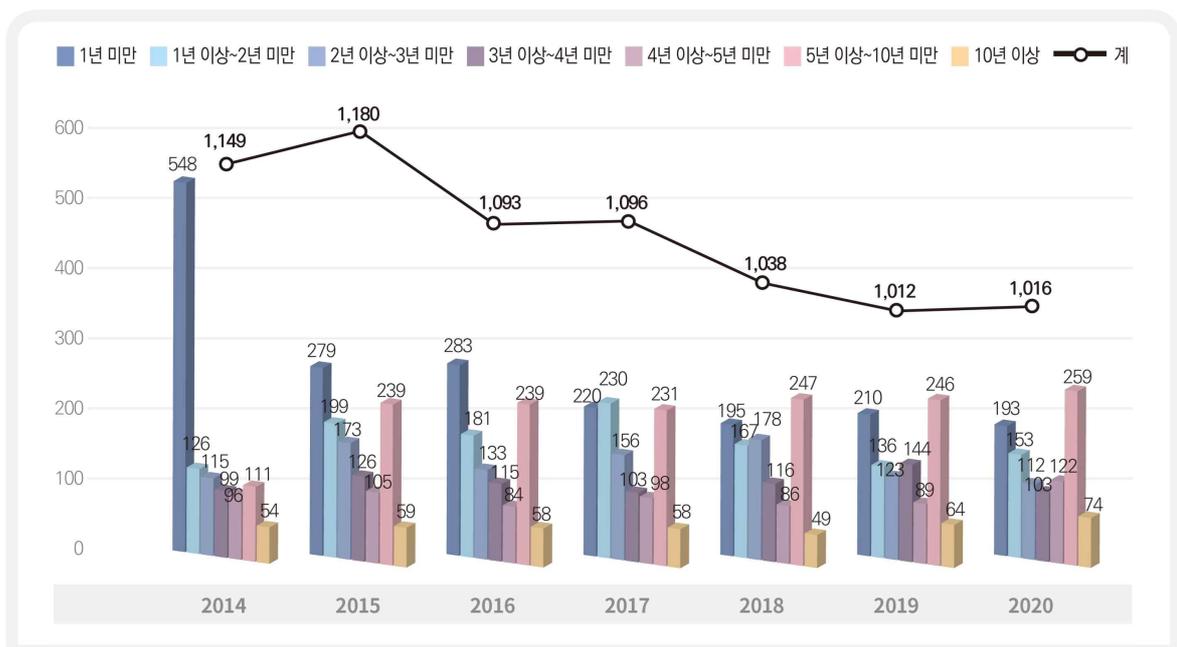


그림 7-1-5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4~2020)

## 6 연령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를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40대 299명(29.4%), 50대 305명(30.0%), 30대 193명(19.0%) 등이었으며, 70세 이상은 63명(6.2%), 20세 미만은 1명(0.1%) 등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매년 30% 내외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 대상자 중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비율이 2014년에는 28.2%이었다가 2015년 32.4%, 2016년 34.2%, 2017년 36.8%, 2018년 38.6%, 2019년 41.9%, 2020년 44.3%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표 7-1-6 피치료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연도 \ 연령	계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2014	1,149	7	120	295	403	250	64	10
	100%	0.6%	10.4%	25.7%	35.1%	21.8%	5.6%	0.8%
2015	1,180	3	133	280	381	291	76	16
	100%	0.3%	11.3%	23.7%	32.3%	24.7%	6.4%	1.3%
2016	1,093	4	109	253	353	275	80	19
	100%	0.4%	10%	23.1%	32.3%	25.2%	7.3%	1.7%
2017	1,096	2	112	235	344	286	94	23
	100%	0.2%	10.2%	21.4%	31.4%	26.1%	8.6%	2.1%
2018	1,038	0	101	215	321	282	98	21
	100%	0.0%	9.7%	20.7%	31.0%	27.2%	9.4%	2.0%
2019	1,012	1	94	194	299	294	110	20
	100%	0.1%	9.3%	19.2%	29.5%	29.1%	10.8%	2.0%
2020	1,016	1	73	193	299	305	82	63
	100%	0.1%	7.2%	19.0%	29.4%	30.0%	8.1%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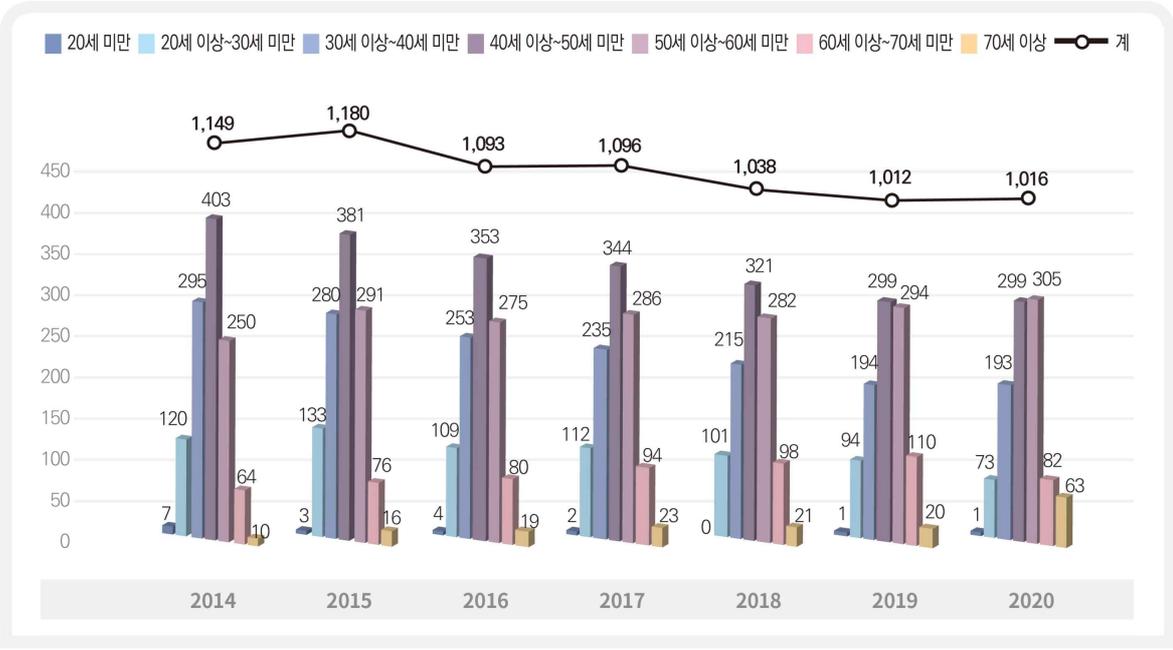


그림 7-1-6 피치로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 7 학력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로감호자의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고졸이 447명(44.0%), 대졸 이상이 270명(26.6%), 중졸이 154명(15.1%), 초졸이 125명(12.3%) 등이었고, 최근 7년간 이와 유사한 비율 분포가 유지되었다.

표 7-1-7 피치로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4~2020)

연도	학력	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4		1,149	41	143	230	494	241
		100%	3.6%	12.4%	20.0%	43.0%	21.0%
2015		1,180	48	141	227	512	252
		100%	4.1%	11.9%	19.2%	43.4%	21.4%
2016		1,093	44	139	202	475	233
		100%	4.0%	12.7%	18.5%	43.5%	21.3%
2017		1,096	73	189	186	478	170
		100%	6.7%	17.2%	17.0%	43.6%	15.5%
2018		1,038	70	163	173	475	157
		100%	6.7%	15.7%	16.7%	45.8%	15.1%

연도	학력	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9		1,012	54	153	156	499	150
		100%	5.3%	15.1%	15.4%	49.4%	14.8%
2020		1,016	20	125	154	447	270
		100%	2.0%	12.3%	15.1%	44.0%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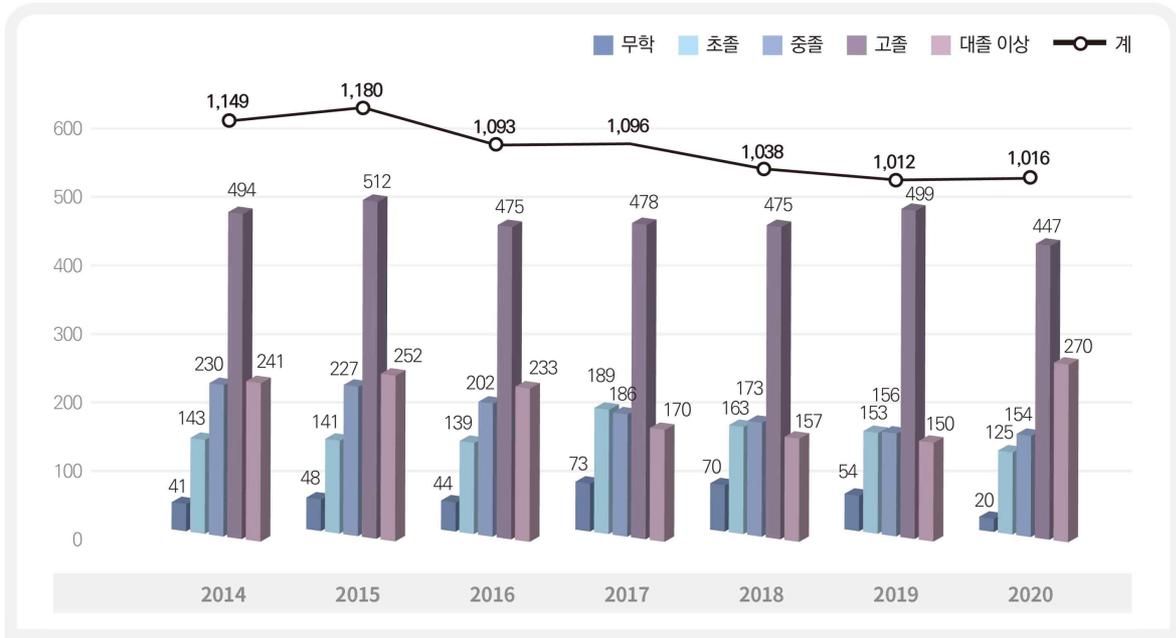


그림 7-1-7 피치료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4~2020)

## 8 직업별 현황

- 2020년 말일 기준,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소 입소 전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692명으로 68.1%를 차지하였고, 기타가 174명(17.1%), 노동이 89명(8.8%), 종업원이 33명(3.2%), 농업이 25명(2.5%) 등이었다. 최근 7년간 무직이 전체의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표 7-1-8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4~2020)

연도	직업	계	노동	종업원	농업	상업	무직	기타
2014		1,149	104	94	28	41	759	123
		100%	9.1%	8.2%	2.4%	3.6%	66.0%	10.7%
2015		1,180	102	67	28	7	745	231
		100%	8.6%	5.7%	2.4%	0.6%	63.1%	19.6%
2016		1,093	85	53	27	40	695	193
		100%	7.8%	4.8%	2.5%	3.7%	63.6%	17.6%
2017		1,096	94	46	27	22	693	214
		100%	8.6%	4.2%	2.5%	2.0%	63.2%	19.5%
2018		1,038	93	40	31	17	658	199
		100%	9.0%	3.9%	3.0%	1.6%	63.3%	19.2%
2019		1,012	81	30	28	4	664	205
		100%	8.0%	3.0%	2.8%	0.4%	65.6%	20.2%
2020		1,016	89	33	25	3	692	174
		100%	8.8%	3.2%	2.5%	0.3%	68.1%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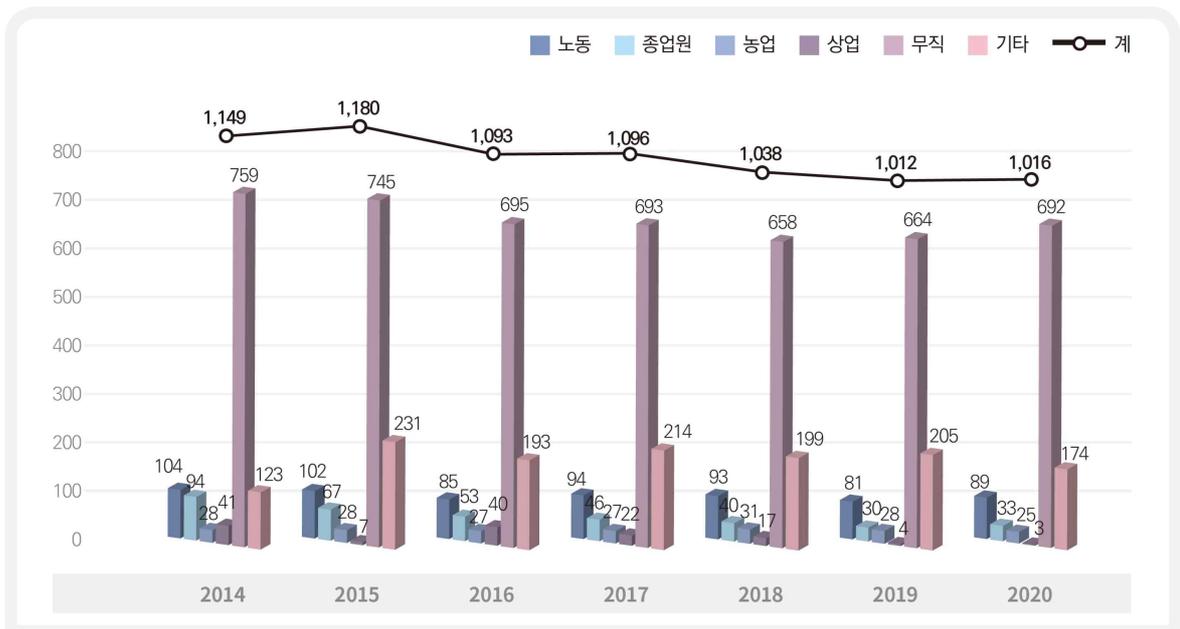


그림 7-1-8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4~2020)

## 9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물질별 현황

### 개 요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의 중독물질별 현황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2호) 26명을 중독물질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필로폰 8명(30.8%), 알코올 10(38.4%), 본드 6명(23.1%), 부탄 2명(7.7%) 등이었다.
- 최근 7년간 피치료감호자(2호) 인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알코올은 2015년 36명을 기록한 이후 20명 미만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에는 최근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필로폰 역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26명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에 최저치를 보였다.
- 본드는 2014년에 30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9년부터 10명 이하이며, 부탄은 2014년과 2015년, 2017년과 2018년에는 6~9명이었으나 그 외에는 연간 2~3명이었다. 그밖에 대마초, 니스, 톨루엔 등은 연간 3명 이하이며, 솔벤트는 최근 7년간 해당 사례가 없었다.

표 7-1-9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4~2020)

연도	물질	계	필로폰	대마초	본드	부탄	니스	솔벤트	톨루엔	알코올
2014		91	24	0	30	6	0	0	1	30
		100%	26.3%	0.0%	33.0%	6.6%	0.0%	0.0%	1.1%	33.0%
2015		88	26	2	11	9	2	0	2	36
		100%	29.5%	2.3%	12.5%	10.2%	2.3%	0.0%	2.3%	40.9%
2016		50	15	0	12	3	1	0	1	18
		100%	30.0%	0.0%	24.0%	6.0%	2.0%	0.0%	2.0%	36.0%
2017		48	13	0	13	6	1	0	1	14
		100%	27.1%	0.0%	27.1%	12.5%	2.1%	0.0%	2.1%	29.1%
2018		62	20	0	12	7	2	0	3	18
		100%	32.3%	0.0%	19.4%	11.3%	3.2%	0.0%	4.8%	29.0%
2019		43	20	0	8	3	0	0	1	11
		100%	46.5%	0.0%	18.6%	7.0%	0.0%	0.0%	2.3%	25.6%
2020		26	8	0	6	2	0	0	0	10
		100%	30.8%	0.0%	23.1%	7.7%	0.0%	0.0%	0.0%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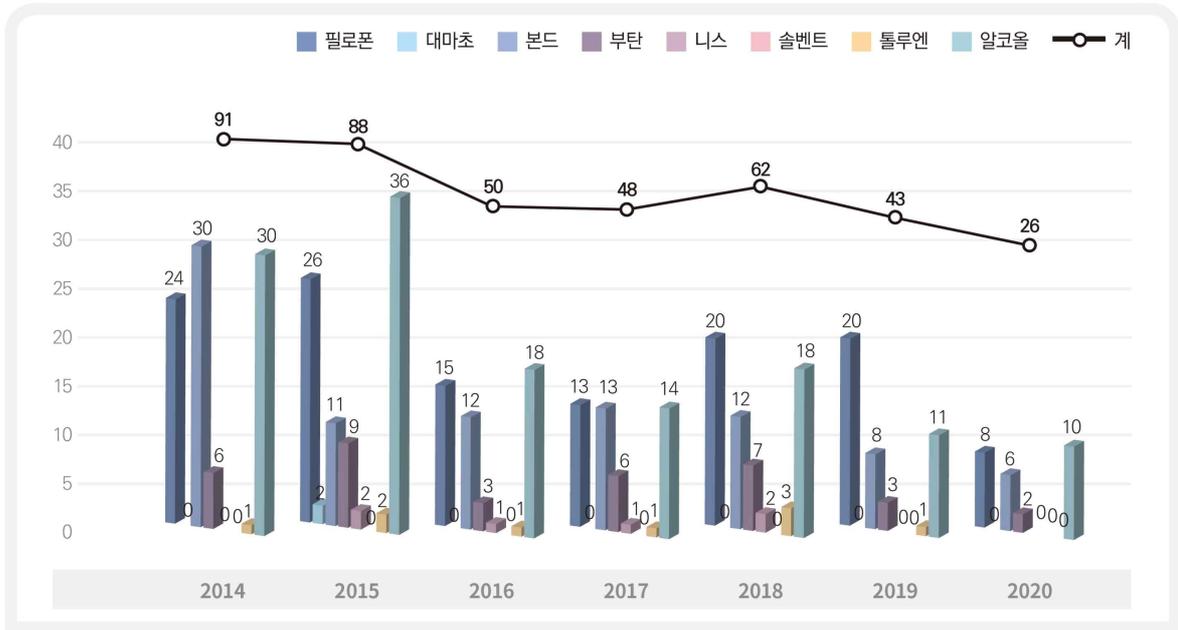


그림 7-1-9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4~2020)

## 제 2 절

# 피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

### 1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

-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치료감호자는 2014년 6,456명, 2015년 4,686명, 2016년 3,348명, 2017년 5,944명, 2018년 4,747명, 2019년 4,141명 등으로 감소와 증가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4.9%가 감소한 2,694명을 기록하였다.
- 2020년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치료감호자 2,694명 중 단주교육이 1,309명(48.6%), 정신건강교육이 585명(21.7%), 직업훈련이 800명(29.7%) 등이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활치료와 교육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교육이 재개된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교육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 인원을 축소하면서 교육 참여 인원이 감소하였다.

표 7-2-1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재활치료		직업훈련
			단주교육	정신건강교육	
2014		6,456	3,351	1,548	1,557
		100%	51.9%	24.0%	24.1%
2015		4,686	1,464	1,479	1,743
		100%	31.2%	31.6%	37.2%
2016		3,348	823	990	1,535
		100%	24.6%	29.6%	45.8%
2017		5,944	2,952	1,530	1,462
		100%	49.7%	25.7%	24.6%
2018		4,747	1,911	1,309	1,527
		100%	40.3%	27.6%	32.2%
2019		4,141	1,675	1,129	1,337
		100%	40.4%	27.3%	32.3%
2020		2,694	1,309	585	800
		100%	48.6%	21.7%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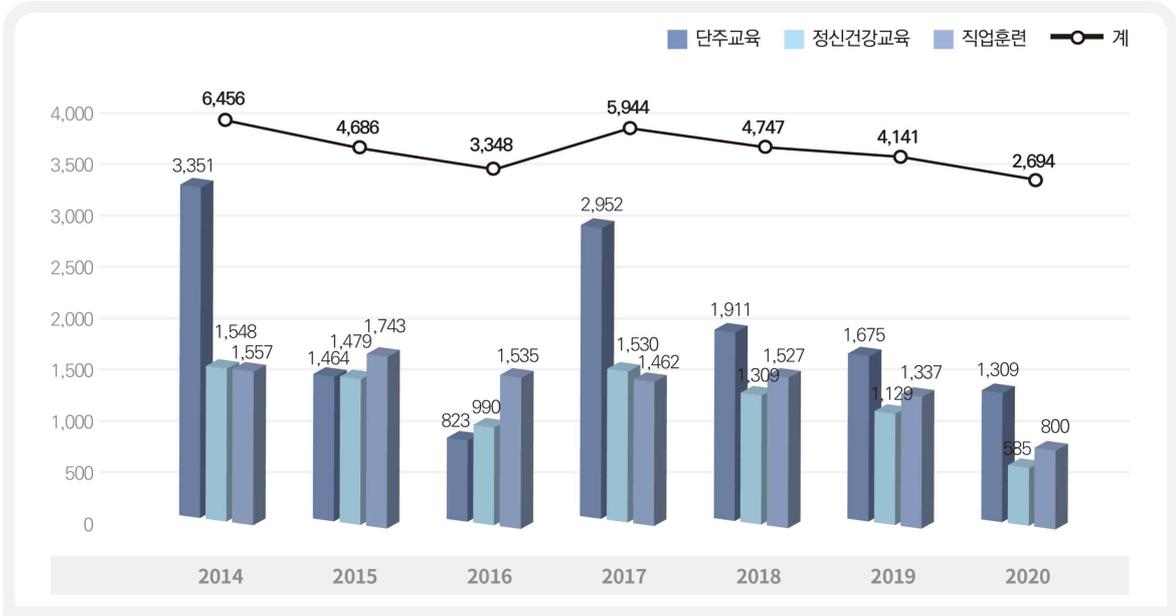


그림 7-2-1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4~2020)

## 2 직업훈련<sup>34)</sup> 세부 현황

- 2020년 피치료감호자의 직업훈련 세부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화 분야가 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제과제빵이 215명, PC 정비가 127명, 건축시공이 10명 등이었으며, 자격증 취득 인원은 없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피치료감호자가 없었다.

표 7-2-2 피치료감호자의 직업훈련 세부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세부 현황									
		계	조적	타일	세탁	건축시공	정보화	PC정비	건축도장	제과-제빵	바리스타
2014	참여	1,548	111	131	112	0	416	147	170	461	-
	수료	488	18	22	74	0	63	23	27	261	-
	자격취득	91	6	11	19	0	0	3	16	36	-
2015	참여	1,479	59	56	34	87	450	211	168	414	-
	수료	281	9	8	34	14	70	45	24	77	-
	자격취득	54	-	-	1	-	-	6	15	32	-

34)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총 8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정보화, PC정비, 제과제빵 등 3개 과정으로 축소하였으나 2020년 바리스타 직업훈련 교육과정 신설 및 건축시공 교육과정 재운영으로 5개 과정으로 확대

연도	구분	계	조적	타일	세탁	건축시공	정보화	PC정비	건축도장	제과·제빵	바리스타
2016	참여	990	-	-	-	135	335	308	185	27	-
	수료	205	-	-	-	20	45	45	27	68	-
	자격취득	80	-	-	-	15	1	14	16	34	-
2017	참여	1,530	-	-	-	133	316	340	167	574	-
	수료	224	-	-	-	20	44	52	23	85	-
	자격취득	89	-	-	-	14	2	20	14	39	-
2018	참여	1,309	-	-	-	98	316	321	64	510	-
	수료	191	-	-	-	11	45	50	10	75	-
	자격취득	45	-	-	-	8	0	14	6	17	-
2019	참여	1,129	-	-	-	-	315	281	-	533	-
	수료	171	-	-	-	-	48	39	-	84	-
	자격취득	80	-	-	-	-	38	18	-	24	-
2020	참여	800	-	-	-	10	336	127	-	215	112
	수료	176	-	-	-	10	83	21	-	38	24
	자격취득	0	-	-	-	-	-	-	-	-	-

\* 2020년 바리스타 직업훈련 교육과정 신설

### 3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치료 프로그램<sup>35)</sup> 현황

#### 개 요

-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신입교육 : 입소 시 치료절차, 교육과정, 주의사항 등 전반적인 수용생활 안내 교육
- 치료교육 : 단약·단주교육으로 주 2회, 6개월 과정
- 재활교육 : 치료교육 이외의 정보화, 직업훈련 교육 등
- 치료재활교육(2017년부터 치료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합하여 치료재활교육으로 운영

- 2020년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치료감호자(2호)는 총 426명으로, 재활치료교육이 392명(92.0%), 신입교육이 34명(8.0%)이었다.

35) 피치료감호자(2호)에 대한 중독치료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신입교육, 치료교육, 재활교육 등으로 운영되다가 2017년부터 치료, 재활교육을 '치료재활교육'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피치료감호자의 초기적응과 재활을 위한 '신입교육'과 치료재활을 위한 '치료재활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7-2-3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신입교육	치료교육	재활교육	치료재활교육
2014		942	82	431	429	-
		100%	8.7%	45.8%	45.5%	-
2015		880	78	391	411	-
		100%	8.9%	44.4%	46.7%	-
2016		655	57	286	312	-
		100%	8.7%	43.7%	47.6%	-
2017		586	57	-	-	529
		100%	9.7%	-	-	90.3%
2018		605	76	-	-	529
		100%	12.6%	-	-	87.4%
2019		544	57	-	-	487
		100%	10.5%	-	-	89.5%
2020		426	34	-	-	392
		100%	8.0%	-	-	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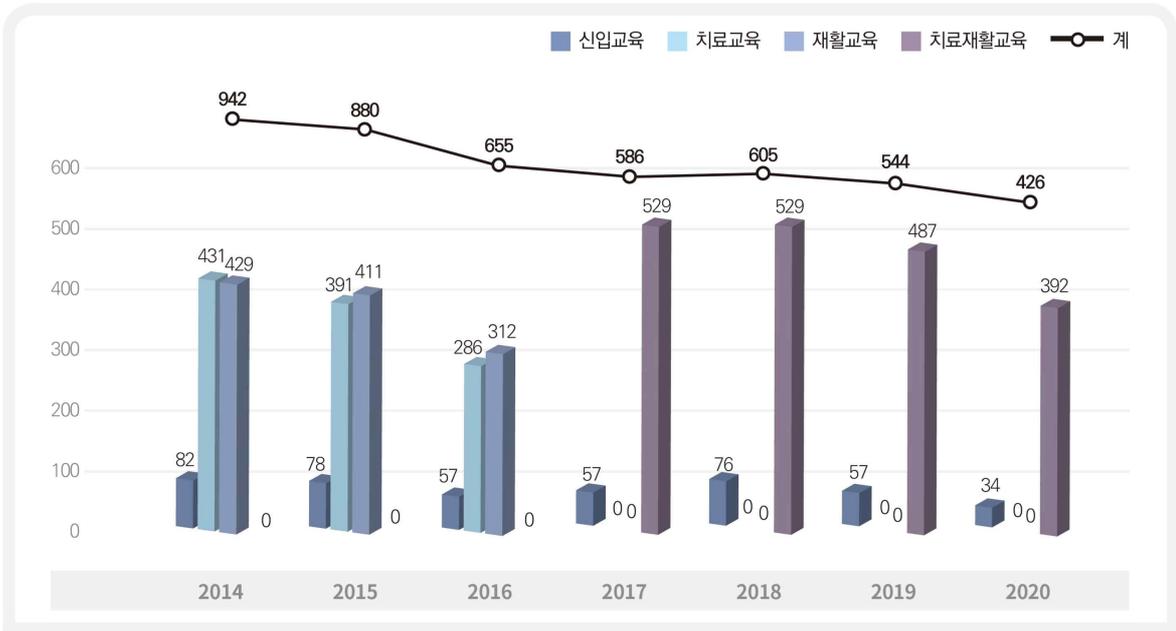


그림 7-2-2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4 진단검사 현황

### 개 요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진단검사(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내·외과처방 뇌파검사) 실시 건수

- 2020년에 피치료감호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는 총 197,912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다. 진단검사 유형으로는 병리검사가 115,650건(58.4%), 방사선검사 22,013건(11.1%), 내·외과처방 58,969건(29.8%), 뇌파검사 1,280건(0.7%) 등이었다.

표 7-2-4 피치료감호자의 진단검사 실시 현황(2014~2020)

(단위: 건)

연도	구분	계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내·외과처방	뇌파검사
2014		212,784	130,609	22,451	56,969	2,755
		100%	61.4%	10.5%	26.8%	1.3%
2015		199,255	136,038	20,534	39,956	2,727
		100%	68.3%	10.3%	20.0%	1.4%
2016		209,235	134,594	21,364	50,896	2,381
		100%	64.3%	10.2%	24.3%	1.2%
2017		203,794	127,618	18,659	56,249	1,268
		100%	62.6%	9.2%	27.6%	0.6%
2018		204,292	121,713	24,564	56,040	1,975
		100%	59.6%	12.0%	27.4%	1.0%
2019		189,256	112,197	22,770	52,493	1,796
		100%	59.3%	12.0%	27.7%	1.0%
2020		197,912	115,650	22,013	58,969	1,280
		100%	58.4%	11.1%	29.8%	0.7%

## 5 치료감호 출소자 무상 외래진료<sup>36)</sup> 현황

### 개 요

-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 제공 현황
- 무상 외래진료 제공 병원 : 치료감호소,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 외래진료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첫해에 1,514명에게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2,329명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2,263명, 2018년 2,098명, 2019년 1,894명이었고, 2020년에는 1,828명에게 실시하였다.
- 또한, 2015년에는 무상 외래진료를 받은 출소자의 95.7%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하였으나, 점차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받는 출소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의 진료받은 출소자의 비율은 증가하여, 2020에는 전체 외래진료자 중 52.7%(964명)가 치료감호소에서, 39.7%(725명)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3.7%(68명)는 국립부곡병원에서 진료받았다,

표 7-2-5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5~2020)

기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514 100%	2,329 100%	2,263 100%	2,098 100%	1,894 100%
치료감호소		1,449 95.7%	1,823 78.3%	1,611 71.2%	1,195 57.0%	1,027 54.2%	964 52.7%
국립정신건강센터		50 3.3%	389 16.7%	491 21.7%	745 35.5%	723 38.2%	725 39.7%
국립부곡병원		15 1.0%	90 3.9%	102 4.5%	115 5.5%	90 4.8%	68 3.7%
국립나주병원		0 0.0%	25 1.1%	42 1.9%	41 2.0%	48 2.5%	60 3.3%
국립춘천병원		0 0.0%	2 0.1%	0 0.0%	0 0.0%	1 0.1%	3 0.2%
국립공주병원		0 0.0%	0 0.0%	17 0.8%	2 0.1%	5 0.3%	8 0.4%

36)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을 위해 2015년 6월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을 법무병원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치료감호소와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감호소 출소자에게 무상으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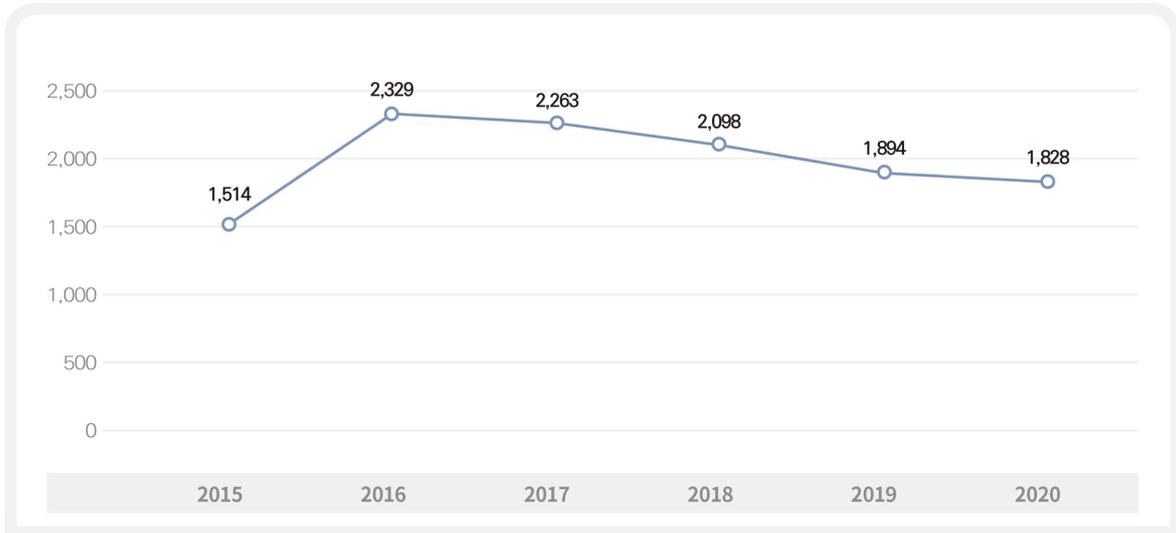


그림 7-2-3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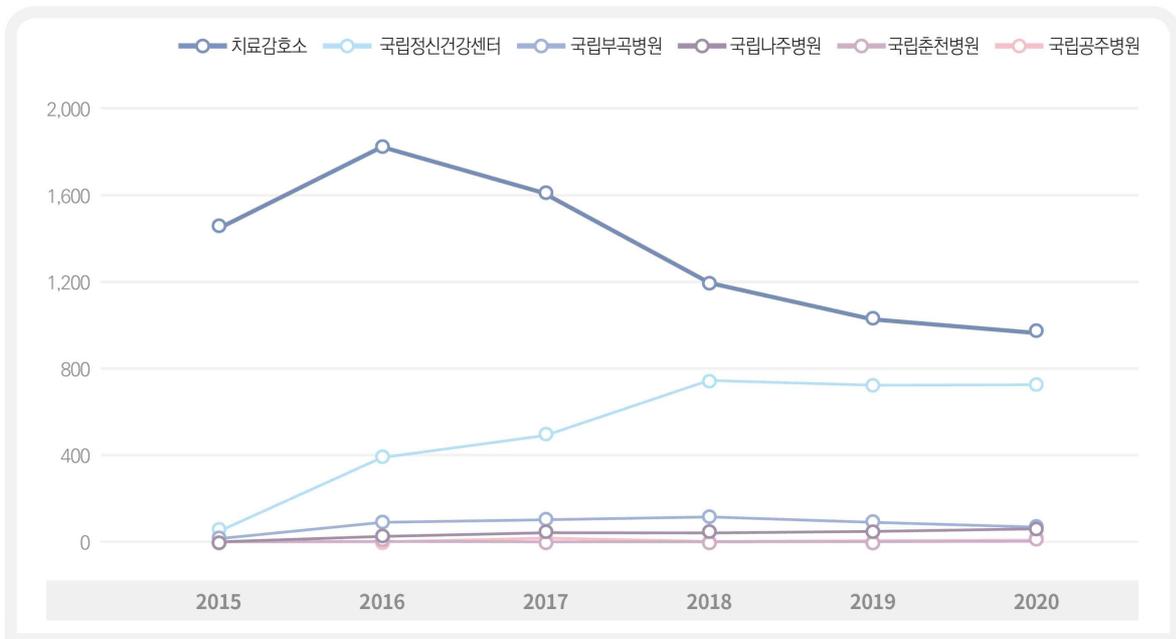


그림 7-2-4 치료기관별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4~2020)

#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현황

## 1 치료감호 기간별 현황

### 개 요

- 종료·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별 현황

- 2020년 치료감호 종료자는 없었고, 가종료자가 총 172명이었다. 가종료자를 치료감호 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3년 이상이 112명(65.1%), 1년 미만이 32명(18.6%), 2년 이상~3년 미만이 16명(9.3%), 1년 이상~2년 미만이 12명(7.0%) 등 이었다.

표 7-3-1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20)

연도	기간	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2014		1	275	1	65	-	94	-	36	-	80
2015		4	266	2	59	2	72	-	41	-	94
2016		2	393	1	68	-	80	-	62	1	183
2017		3	226	-	11	2	51	1	26	-	138
2018		-	252	-	40	-	39	-	41	-	132
2019		-	235	-	55	-	30	-	33	-	117
2020		-	172	-	32	-	12	-	16	-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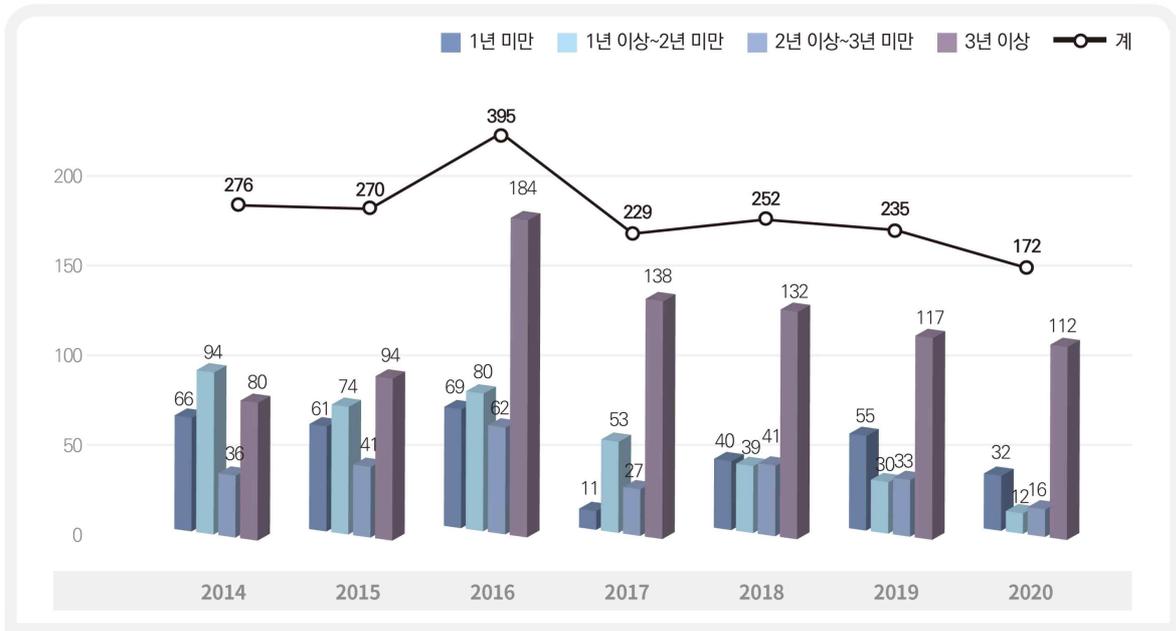


그림 7-3-1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중료 현황(2014~2020)

## 2 죄명별 현황

### 개 요

#### ■ 종료·가중료된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현황

- 2020년의 치료감호 가중료자 172명을 죄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기타범죄가 50명(29.1%), 살인이 44명(25.6%), 강간이 23명(13.4%), 방화·실화가 16명(9.3%), 폭력행위 등이 15명(8.7%), 절도가 14명(8.1%) 등이었다. 그 밖에 강도가 6명(3.5%), 상해(폭행)치사가 4명(2.3%)이었다.

표 7-3-2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중료 현황(2014~2020)

연도	죄명	계		살인		상해(폭행)치사		폭력행위 등		강간		강도		절도		방화·실화		기타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2014	1	275	-	42	-	5	-	39	-	31	-	6	-	24	-	10	1	118	
2015	4	266	-	27	-	6	2	81	1	16	-	13	1	13	-	10	-	100	
2016	2	393	-	77	-	10	-	78	1	50	1	17	-	26	-	32	-	103	
2017	3	226	-	48	-	2	2	26	-	56	-	12	-	16	-	11	1	55	
2018	-	252	-	35	-	8	-	38	-	54	-	7	-	19	-	19	-	72	
2019	-	235	-	23	-	3	-	45	-	50	-	9	-	17	-	16	-	72	
2020	-	172	-	44	-	4	-	15	-	23	-	6	-	14	-	16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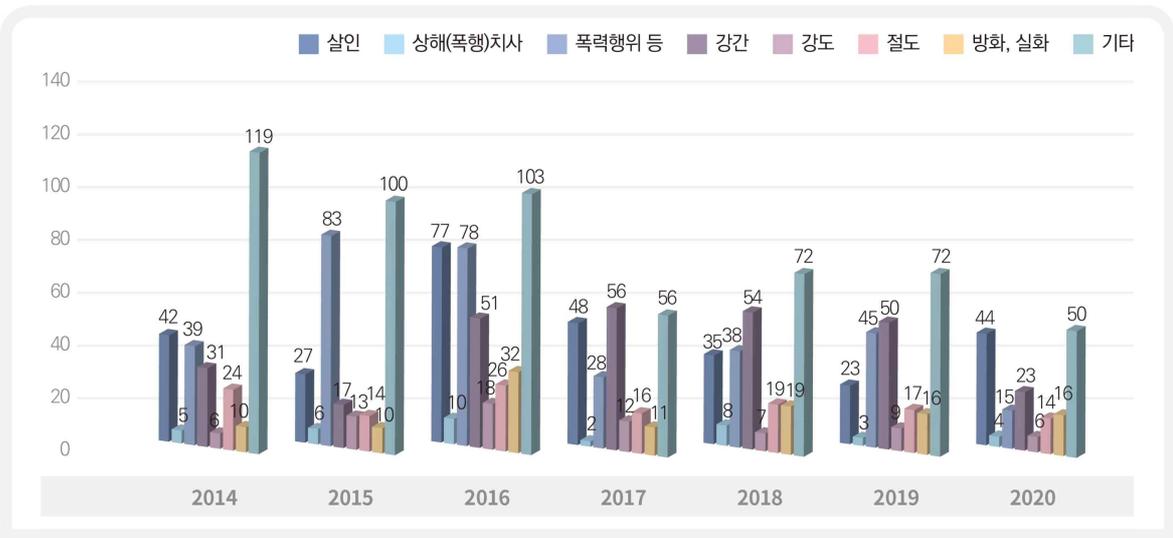


그림 7-3-2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중료 현황(2014~2020)

### 3 병명별 현황

**개 요**

- 종료·가중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현황

- 2020년의 치료감호 가중료자 172명을 병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조현병이 61명(35.5%), 정신지체가 17명(9.9%), 조울증이 10명(5.8%), 성격(인격)장애가 5명(2.9%), 약물중독이 50명(29.1%), 기타 28명(16.3%) 등으로, 조현병과 약물중독이 전체의 64.6%를 차지하였다.

표 7-3-3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중료현황(2014~2020)

연도	계		조현병		정신지체		조울증		성격(인격)장애		간질		약물중독		기타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종료	가중료
2014	1	275	-	65	-	11	-	11	-	8	-	7	1	143	-	30
2015	4	266	2	83	-	16	-	15	-	9	-	7	-	105	2	31
2016	2	393	1	139	-	27	-	24	1	8	-	4	-	138	-	53
2017	3	226	2	80	-	19	-	14	1	1	-	2	-	37	-	73
2018	-	252	-	84	-	16	-	23	-	5	-	-	-	35	-	89
2019	-	235	-	63	-	16	-	16	-	8	-	1	-	41	-	90
2020	-	172	-	61	-	17	-	10	-	5	-	1	-	50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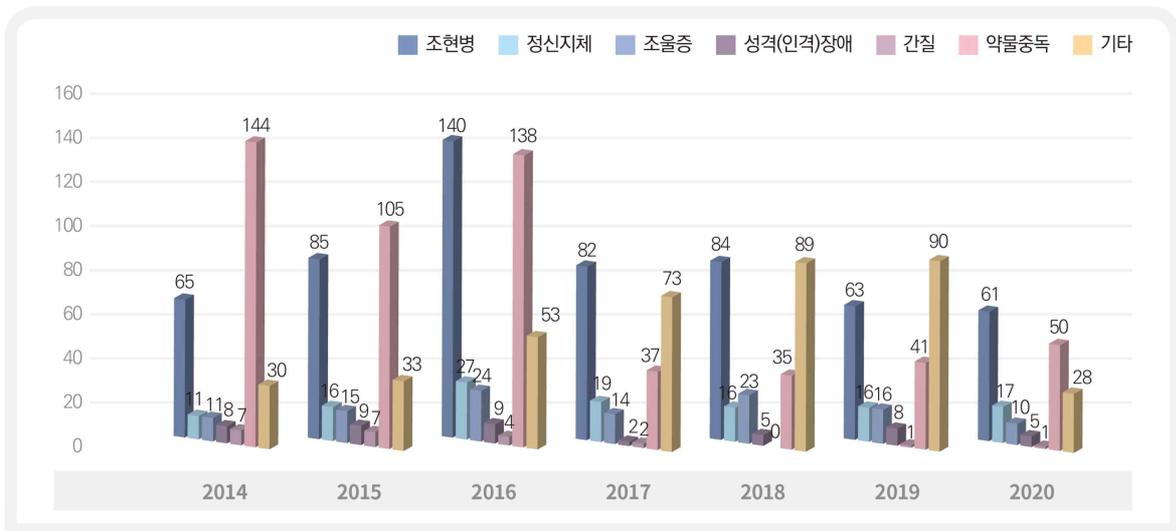


그림 7-3-3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중료현황(2014~2020)

#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 1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 현황

### 개 요

- 1987년 치료감호소 개청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출소자 중 치료감호소 재입소자 현황

### 지표정의

- 재입소율 = 총 재입소자 / 총 출소자 × 100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피치료감호자는 총 7,816명이고 재입소자는 총 1,336명으로,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율은 17.1%이었다.

표 7-4-1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율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총 출소자	총 재입소자	비율
인원	7,816	1,336	17.1%

## 2 출소자의 3년 내 재입소 현황

### 개 요

- 치료감호소 출소 연도로부터 3년 내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는 인원 및 비율

### 지표정의

- 출소자의 3년 내 재입소율 : 해당년도 3년 전 출소자 중 3년 내 재입소자 수 / 해당년도 3년 전 출소자 수 × 100

-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의 3년 내 재입소율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출소자는 11.1%, 2012년 출소자는 14.6%, 2013년 출소자는 8.4%, 2014년 출소자는 9.3% 등을 기록하였다. 이후 출소자의 재입소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2015년 출소자는 6.1%, 2016년 출소자는 3.3%, 2017년 출소자는 2.5% 등 이었다.

- 한편,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된 정신성적 장애인(3호)은 2009년 6명이 최초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총 53명이 출소하였으나 재입소자는 없었다.

표 7-4-2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의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입소율(%)		11.1	14.6	8.4	9.3	6.1	3.3	2.5
출소자 수 (출소 연도)		287 (2011)	246 (2012)	263 (2013)	281 (2014)	277 (2015)	399 (2016)	238 (2017)
출소 연도 이후 3년 내 재입소자 수		32	36	22	26	17	13	6
피치료감호 유형	1호	9	8	6	4	3	6	2
	2호	23	28	16	22	14	7	4
	3호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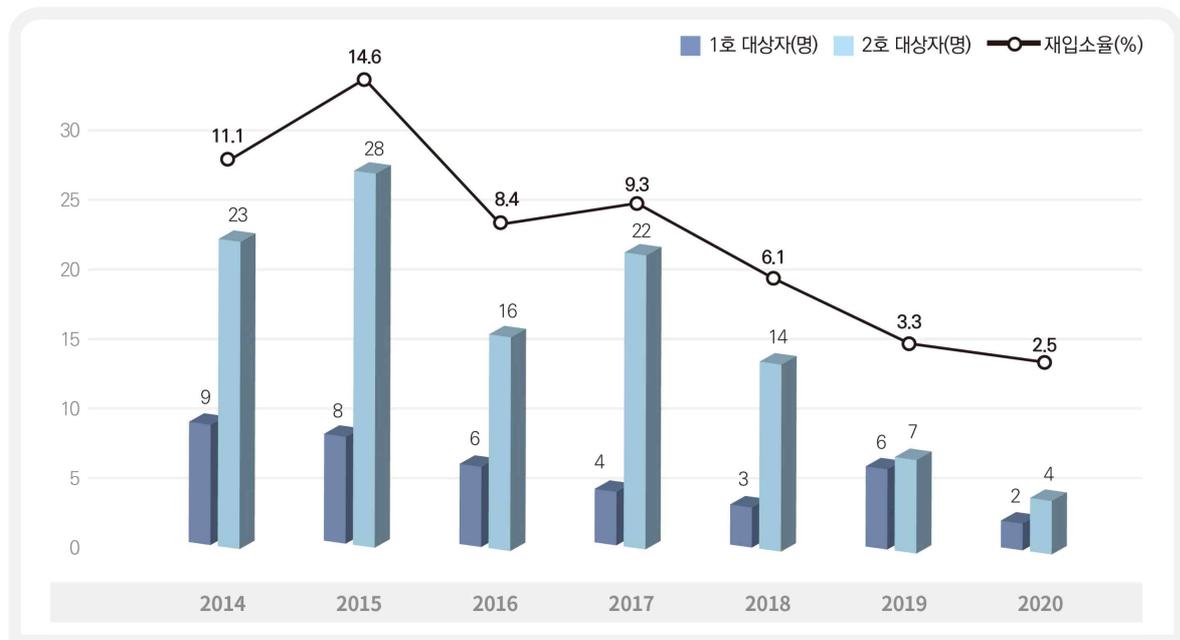


그림 7-4-1 출소자 대비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 3 피치료감호 유형별 3년 내 재입소 현황

#### 개요

- 1호(심신장애자), 2호(마약·알코올 중독자), 3호(정신성적장애자) 출소자가 출소년도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입소하는 현황

#### 지표정의

- 3년 내 재입소율
  -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 감호자 1호)의 3년 내 재입소율 : 해당년도 3년전 1호 출소자 중 3년 내 재입소자 수 / 해당년도 3년전 1호 출소자수×100
  -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 감호자 2호)의 3년 내 재입소율 : 해당년도 3년전 2호 출소자 중 3년 내 재입소자 수 / 해당년도 3년전 2호 출소자수×100

-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3년 내 재입소율을 치료감호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호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2014년 5.5%, 2015년 5.7%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로 2016년 3.8%, 2017년 2.6%, 2018년 1.6%, 2019년 2.0%, 2020년 1.2% 등이었다.

표 7-4-3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 1호)의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입소율(%)	5.5	5.7	3.8	2.6	1.6	2.0	1.2
출소자 수 (출소 연도)	165 (2011)	140 (2012)	158 (2013)	154 (2014)	185 (2015)	299 (2016)	167 (2017)
출소 연도 이후 3년 내 재입소자 수	9	8	6	4	3	6	2

- 2호 피치료감호자의 출소 후 3년내 재입소율은 2014년 18.9%, 2015년 26.4%, 2016년 15.4%, 2017년 17.9%, 2018년 15.7% 등으로 15% 이상을 기록하다가 2019년 이후 10% 미만으로 2019년에는 8.0%, 2020년에는 6.5%로 나타났다.

표 7-4-4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 2호)의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입소율(%)	18.9	26.4	15.4	17.9	15.7	8.0	6.5
출소자 수 (출소 연도)	122 (2011)	106 (2012)	104 (2013)	123 (2014)	89 (2015)	87 (2016)	61 (2017)
출소 연도 이후 3년 내 재입소자 수	23	28	16	22	14	7	4

## 4 죄명별 재입소 현황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치료감호소 재입소자를 죄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재입소자 225명 중 약물이 87(3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폭력 38명(16.9%), 기타 34명(15.1%), 절도 18(8.0%), 살인 16명(7.1%), 성폭력 15(6.7%) 등의 순이었다. 그 외 방화 8명, 강도 8명, 치사 1명 등이었다.

표 7-4-5 해당년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의 죄명별 현황(2014~2020)

연도	죄명	계	살인	폭력	치사	절도	방화	강도	성폭력	약물	기타
2014		50	4	8	0	3	0	2	2	27	4
		100%	8%	16%	0%	6%	0%	4%	4%	54%	8%
2015		43	6	6	0	5	1	2	3	13	7
		100%	14%	14%	0%	11.6%	2.3%	4.6%	6.9%	30.3%	16.3%
2016		39	1	7	0	3	2	1	4	14	7
		100%	2.6%	17.9%	0%	7.7%	5.1%	2.6%	10.3%	35.9%	17.9%
2017		28	3	3	1	2	2	0	1	11	5
		100%	10.7%	10.7%	3.6%	7.1%	7.1%	0%	3.6%	39.3%	17.9%
2018		28	2	3	0	3	2	1	1	11	5
		100%	7.1%	10.7%	-	10.7%	7.1%	3.6%	3.6%	39.3%	17.9%
2019		17	0	5	0	1	1	2	2	3	3
		100%	0%	29.4%	0%	5.9%	5.9%	11.8%	11.8%	17.6%	17.6%
2020		20	0	6	0	1	0	0	2	8	3
		100%	0.0%	30.0%	0.0%	5.0%	0.0%	0.0%	10.0%	40.0%	15.0%
계		225	16	38	1	18	8	8	15	87	34
		100%	7.1%	16.9%	0.4%	8.0%	3.6%	3.6%	6.7%	38.6%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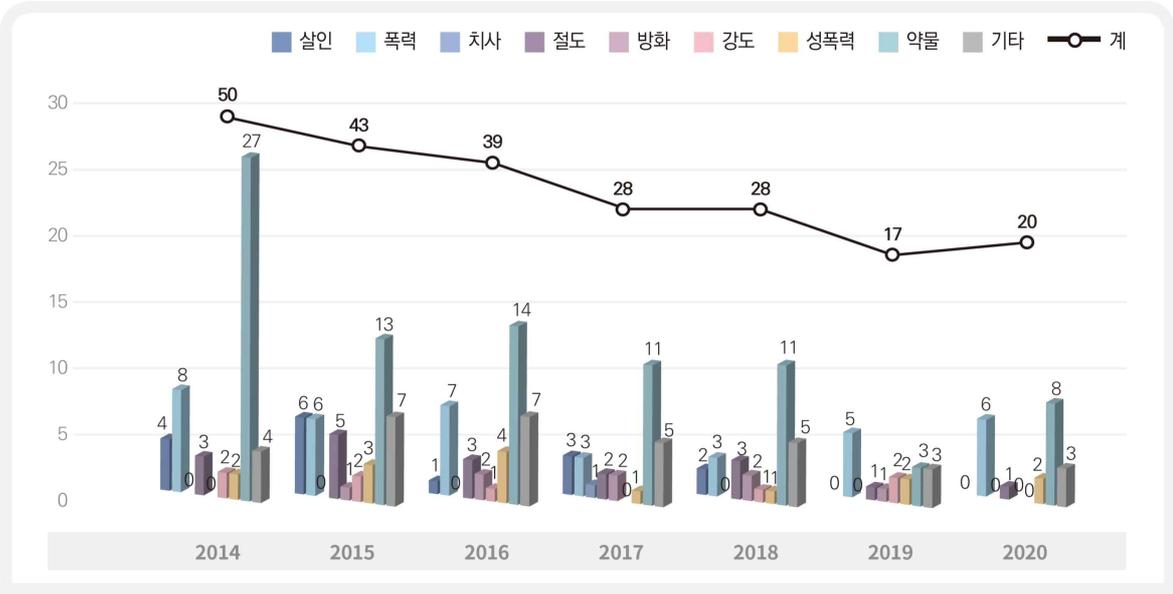


그림 7-4-2 해당년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 죄명별 현황(2014~2020)

## 5 병명별 재입소 현황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치료감호소 재입소자를 병명에 따라 구분한 결과, 재입소자 225명 중 약물중독이 9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조현병 75명(33.3%), 알코올중독 17명(7.6%), 조울증 13명(5.8%) 등의 순이었다.

표 7-4-6 병명별 재입소 현황(2014~2020)

병명	계	조현병	간질	정신지체	성격장애	망상	조울증	알코올	약물	기타
2014	50	9	0	2	1	1	3	4	28	2
	100%	18.0%	0.0%	4.0%	2.0%	2.0%	6.0%	8.0%	56.0%	4.0%
2015	43	16	0	2	1	1	4	3	14	2
	100%	37.2%	0.0%	4.7%	2.3%	2.3%	9.2%	7.0%	32.6%	4.7%
2016	39	16	0	1	0	2	3	1	15	1
	100%	41.0%	0.0%	2.6%	0.0%	5.1%	7.6%	2.6%	38.5%	2.6%
2017	28	12	0	1	0	0	0	2	10	3
	100%	42.9%	0.0%	3.6%	0.0%	0.0%	0.0%	7.1%	35.7%	10.7%
2018	28	8	0	2	0	0	1	4	12	1
	100%	28.6%	0.0%	7.1%	0.0%	0.0%	3.6%	14.2%	42.9%	3.6%

연도	병명	계	조현병	간질	정신지체	성격장애	망상	조울증	알코올	약물	기타
2019		17	9	0	0	0	3	1	1	3	0
		100%	53.0%	0.0%	0.0%	0.0%	17.6%	5.9%	5.9%	17.6%	0.0%
2020		20	5	0	1	0	2	1	2	8	1
		100%	25.0%	0.0%	5.0%	0.0%	10.0%	5.0%	10.0%	40.0%	5.0%
총 계		225	75	0	9	2	9	13	17	90	10
		100%	33.3%	0.0%	4.0%	0.9%	4.0%	5.8%	7.6%	40.0%	4.4%

※ 해당연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에 대한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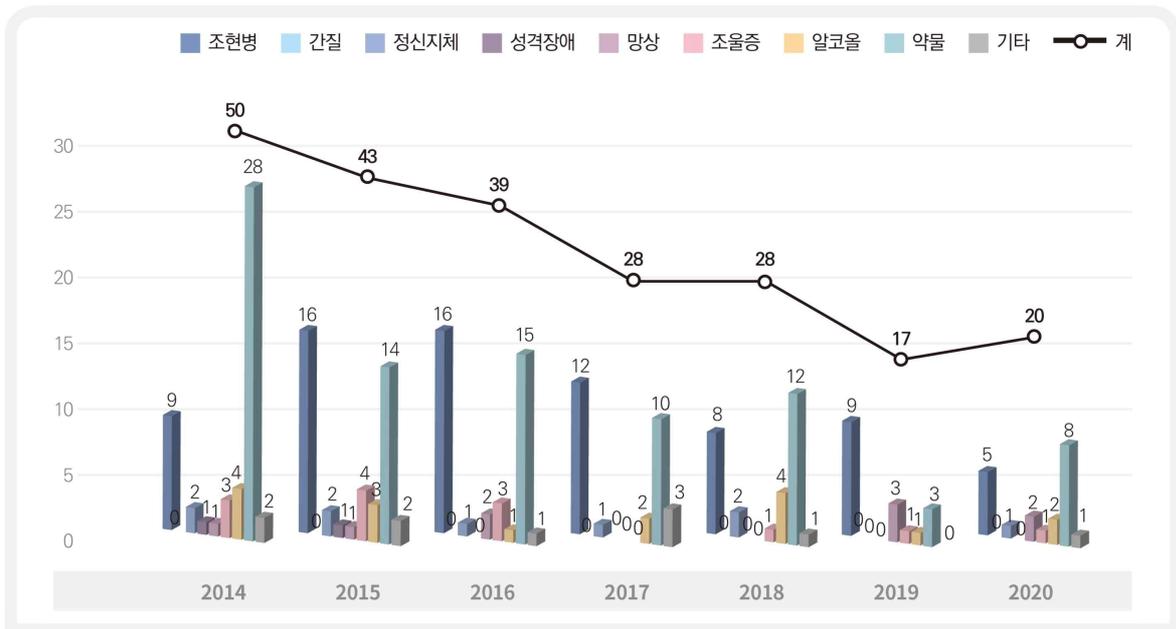


그림 7-4-3 해당연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의 병명별 현황(2014~2020)

## 6 감호집행정지 현황

### 개 요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감호집행이 정지된 인원 현황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집행이 정지된 사례는 2014년 3명, 2015년 2명, 2016년 1명 등이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정지 사례가 없었으며, 2020년에는 1명에 대해 치료감호 집행이 정지되었다.

표 7-4-7 감호집행정지자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감호집행정지자	3	2	1	0	0	0	1

➔ 치료감호법 제24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같은 조에 따라 검사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제1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 5 절

# 정신감정 유치

### 1 정신감정 유치자 입·출소 현황

- 정신감정이 의뢰되어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인원은 2014년 604명에서 2015년 652명으로 증가하였지만, 2016년 536명, 2017년 464명, 2018년 444명, 2019년 362명, 2020년 129명 등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감정유치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입소 인원이 전년의 35.6% 수준에 그쳤다.
- 정신감정 후 출소한 인원은 입소 인원과 연동되어, 2014년에는 613명이었고, 2015년 683명, 2016년 518명, 2017년 468명, 2018년 434명, 2019년 383명, 2020년 143명 등이 정신감정 후 출소하였다.

표 7-5-1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소 현황(2014~2020)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소자	604	652	536	464	444	362	129
출소자	613	683	518	468	434	383	143

※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기간은 평균 30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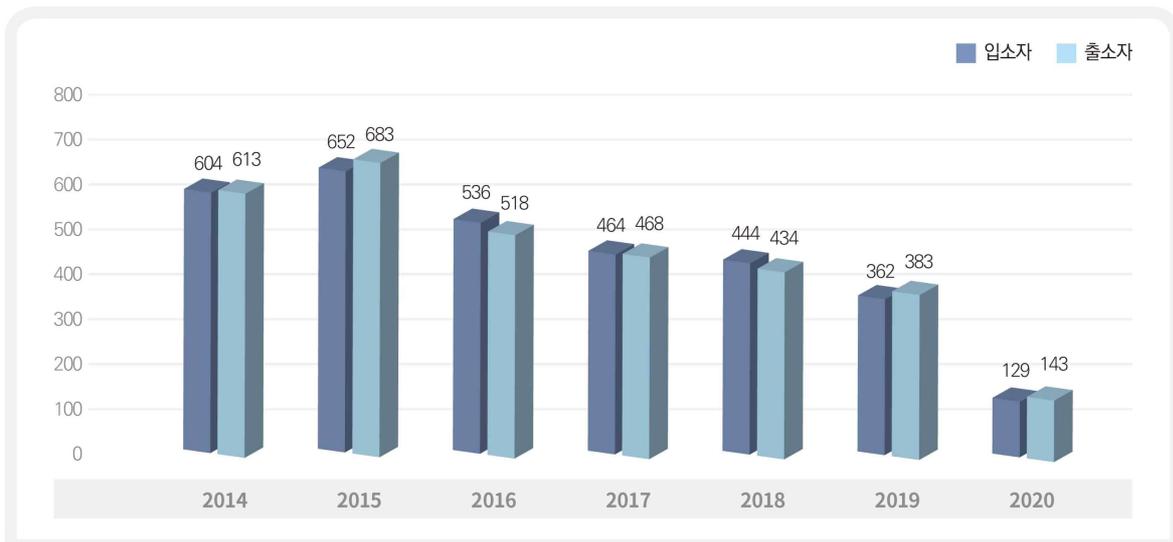


그림 7-5-1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소 현황(2014~2020)

## 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

- 2020년의 피감정유치자를 정신감정 의뢰기관에 따라 구분한 결과, 법원 의뢰가 120명(93.0%), 검찰 의뢰가 8명(6.2%), 경찰 의뢰가 1명(0.8%) 등이었다. 최근 7년간, 법원에서 의뢰한 사례가 매년 전체 피감정유치자의 84~93%를 차지하였다.

표 7-5-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4~2020)

연도	기관	계	법원	검찰	경찰
2014		604	509	68	27
		100%	84.3%	11.2%	4.5%
2015		652	567	63	22
		100%	87.0%	9.7%	3.3%
2016		536	474	46	16
		100%	88.4%	8.6%	3.0%
2017		464	413	42	9
		100%	89.0%	9.1%	1.9%
2018		444	394	28	22
		100%	88.7%	6.3%	5.0%
2019		362	321	28	13
		100%	88.7%	7.7%	3.6%
2020		129	120	8	1
		100%	93.0%	6.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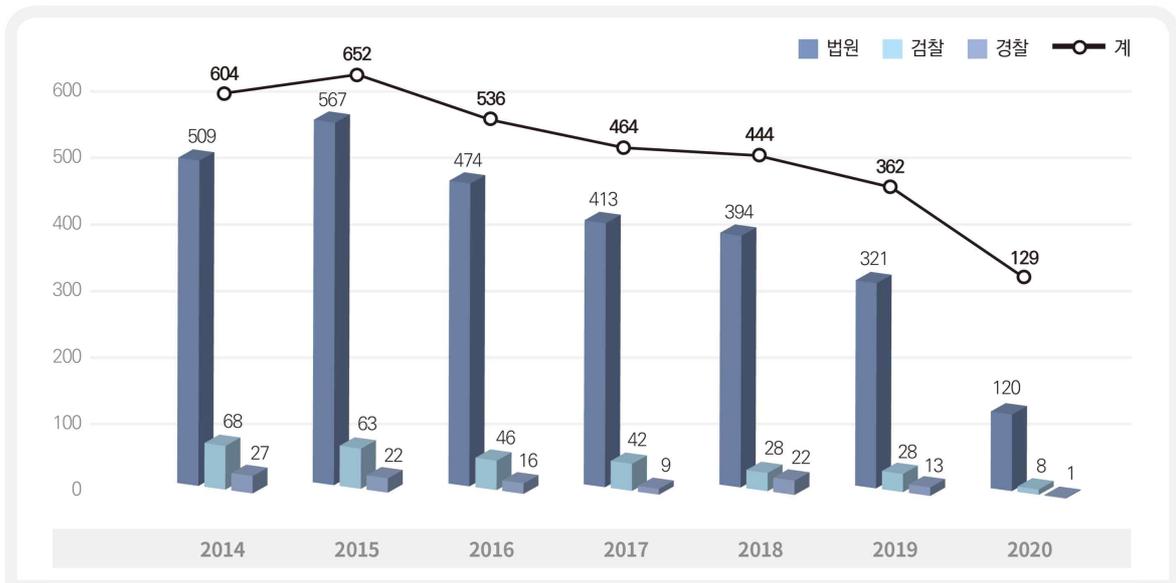


그림 7-5-2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4~2020)

###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현황

#### 개 요

##### ■ 각 기관에서 의뢰된 정신감정 유치자 중 성폭력범죄자 현황

- 전체 피감정유치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폭력 범죄자의 수도 감소하여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34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21명, 2017년에는 92명, 2018년에는 89명, 2019년에는 84명이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더욱 감소한 30명에 그쳤다. 그러나 전체 정신감정 중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매년 20~23%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7년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도 대부분 법원에서 의뢰되어, 전체 피감정유치자의 87~96%를 차지하였다.

표 7-5-3 성폭력 범죄자의 정신감정 의뢰 현황(2014~2020)

연도	기관	계	법원	검찰	경찰
2014		134	117	15	2
		100%	87.3%	11.2%	1.5%
2015		134	124	9	1
		100%	92.5%	6.8%	0.7%
2016		121	112	7	2
		100%	92.6%	5.8%	1.6%
2017		92	88	4	0
		100%	95.7%	4.3%	0%
2018		89	84	5	0
		100%	94.4%	5.6%	0%
2019		84	80	4	0
		100%	95.2%	4.8%	0%
2020		30	29	1	0
		100%	96.7%	3.3%	0.0%

표 7-5-4 정신감정 의뢰자 중 성폭력 범죄자의 비율(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율	22.2%	20.6%	22.6%	19.8%	20.0%	23.2%	23.3%



# 통계분석

2021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Chapter 8

# 갱생보호

**제1절** 개요

**제2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제3절**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개요

### 1 갱생보호사업 연혁

- 갱생보호사업은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 제정(법률 제730호)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어 사법보호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중앙 1곳, 지방 25곳이 개별 법인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별 법인을 단일 특수 공법인으로 개편하여 오늘날의 갱생보호사업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33호)」을 제정함으로써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갱생보호'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를 쇠퇴하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기 위해 2009년 3월 27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민간갱생보호법인 8개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 2 갱생보호의 방법 및 지원 절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보호법인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보호사업을 제공하여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및 멘토링 등의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갱생보호는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이 신청하거나 갱생보호 대상자가 직접 서면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민간갱생보호법인에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각 기관에서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절한 갱생보호 방법을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 제 2 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혁 및 임직원 현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1961년 9월 30일에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중앙갱생보호지도회 및 지방갱생보호회(8개소)를 설립하였으며,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 개정(법률 제1276호)으로 갱생보호회 및 지부(8개지부)를 설립하였다.
- 2012년부터 전국의 8개 기술교육원을 설립하였고, 2016년 3월 21일 공단 본부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인력증원 및 인적 구성 등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표 8-2-1 공단 정원 현황(2014~2020)

연도	계	임원(이사장)	일반직	사무직	기타(취업직 등)
2014	277	1	170	5	101
2015	294	1	178	5	110
2016	276	1	187	5	83
2017	286	1	199	5	81
2018	383	1	218	5	159
2019	402	1	237	5	159
2020	424	1	249	5	169

## 2 공단 갱생보호사업 개요

### 개요

- 전국 공단 갱생보호사업의 이용자 현황

### 지표정의

- 대상자 : 전국 공단에서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갱생보호 지원을 받은 인원

- 공단에서 실시하는 갱생보호사업의 대상자는 2014년 59,717명, 2015년 69,034명, 2016년 81,076명, 2017년 93,459명, 2018년 97,432명, 2019년 105,49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101,663명이었다.

-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전체 대상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갱생보호사업 분야에 따라 대상자 증감 양상이 각기 달랐다.

표 8-2-2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자 수	59,717	69,034	81,076	93,459	97,432	105,490	101,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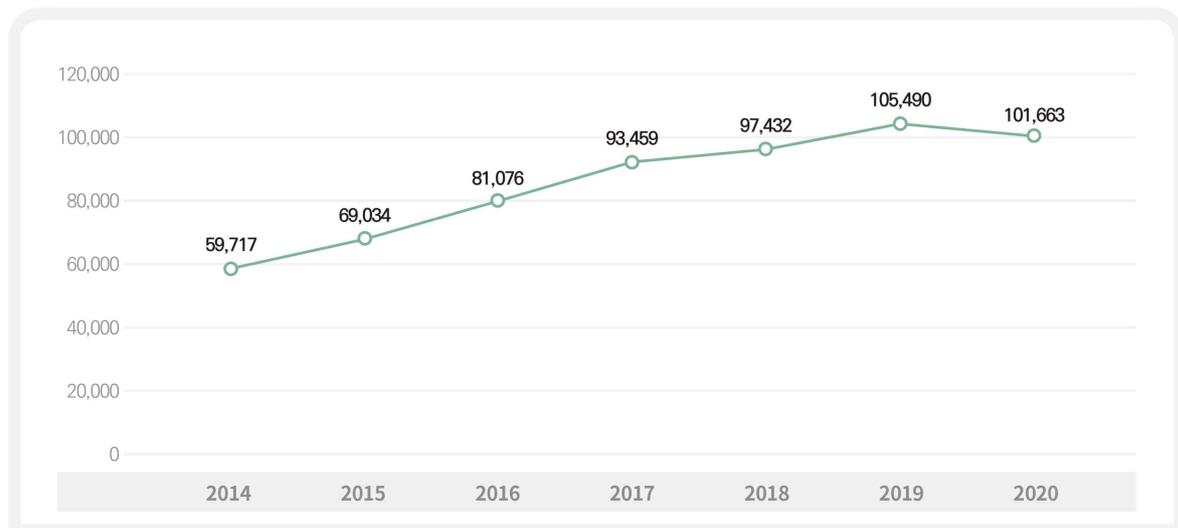


그림 8-2-1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4~2020)

### 3 공단 갱생보호사업 분야별 현황

#### 개요

- 전국 공단 갱생보호사업의 분야별 이용자 현황

#### 1) 생활지원

##### 지표정의

- 생활지원 : 숙식제공, 원호지원, 기타자립 지원 등 연간 갱생보호사업 지원 인원
  - 숙식제공 : 각 지역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 무료제공
  - 원호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금품 지원
  - 기타자립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알선,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입양 및 의료지원 등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 (1) 개요

- 최근 7년간의 전체 생활지원 대상자는 2014년 12,214명에서 2015년 14,230명, 2016년 18,512명, 2017년 20,341명, 2018년 21,243명, 2019년 23,129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전년 대비 14.8% 증가한 26,554명이었다.

➔ 생활지원은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숙식 제공, 원호지원, 기타자립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생활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였고, 생활지원 중 원호지원과 기타자립 지원 대상자도 계속 증가하였으나, 숙식제공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로, 2016년 2,273명, 2017년 2,167명, 2018년 1,846명, 2019년 1,568명, 2020년 1,634명 등이었다.

➔ 2016년 이후 숙식제공 대상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욕구가 높아져 다중 생활보다 개인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최근 '자율형 생활관 제도'<sup>37)</sup> 및 '1인 1실 생활관'<sup>38)</sup> 리모델링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인권개선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37) 자율형 생활관 : 공단직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에서 벗어나 생활관 입소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킴이 역할을 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

38) 1인 1실 생활관 : 시설환경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다인실 생활관에서 1인 1실 생활관으로 전환(서울, 서울동부, 경기남부, 강원, 대전, 충북, 전북 운영 중)

표 8-2-3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숙식제공	원호지원	기타자립 지원
2014		12,214	2,237	3,963	6,014
2015		14,230	2,340	4,708	7,182
2016		18,512	2,273	5,136	11,103
2017		20,341	2,167	5,659	12,515
2018		21,243	1,846	6,139	13,258
2019		23,129	1,568	7,033	14,528
2020		26,554	1,634	7,619	17,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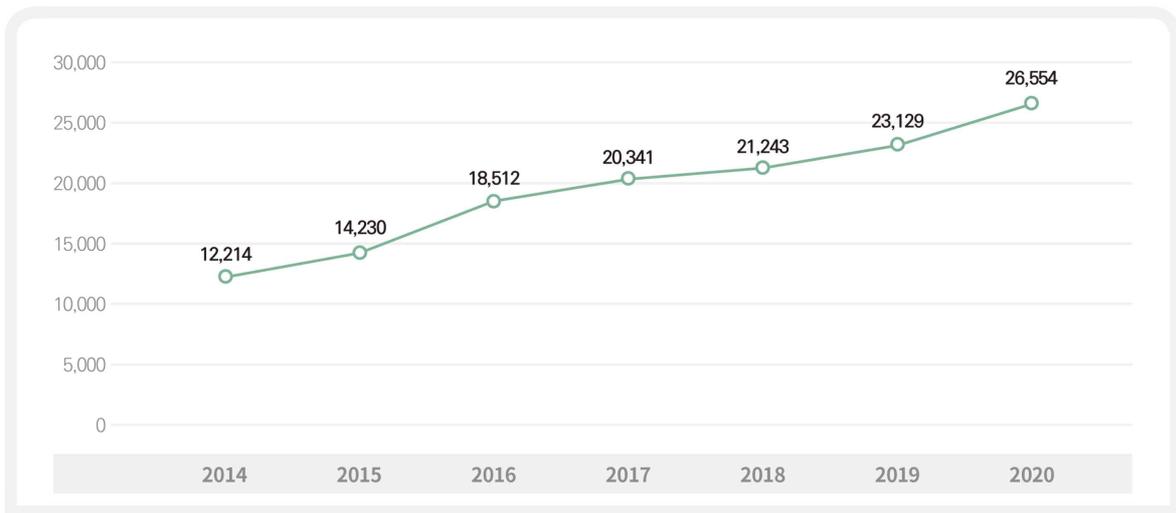


그림 8-2-2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 (2) 숙식제공 개시율 및 평균 숙식 인원

- 숙식제공 대상자의 감소와 함께 평균 숙식 인원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며, 평균 숙식 인원은 2016년 604명에서 2017년 586명, 2018년 548명, 2019년 475명이었고, 2020년에는 464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8-2-4 공단 숙식제공 개시율 및 평균 숙식 인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획인원	개시인원	개시율	평균 숙식 인원
2014		2,826	2,237	79.2	564
2015		2,998	2,340	78.1	577
2016		2,712	2,273	83.8	604
2017		2,618	2,167	82.8	586
2018		2,676	1,846	69.0	548

연도	구분	계획인원	개시인원	개시율	평균 숙식 인원
2019		2,676	1,568	58.6	475
2020		2,412	1,634	67.7	464

※ 개시인원은 전년도 이월 인원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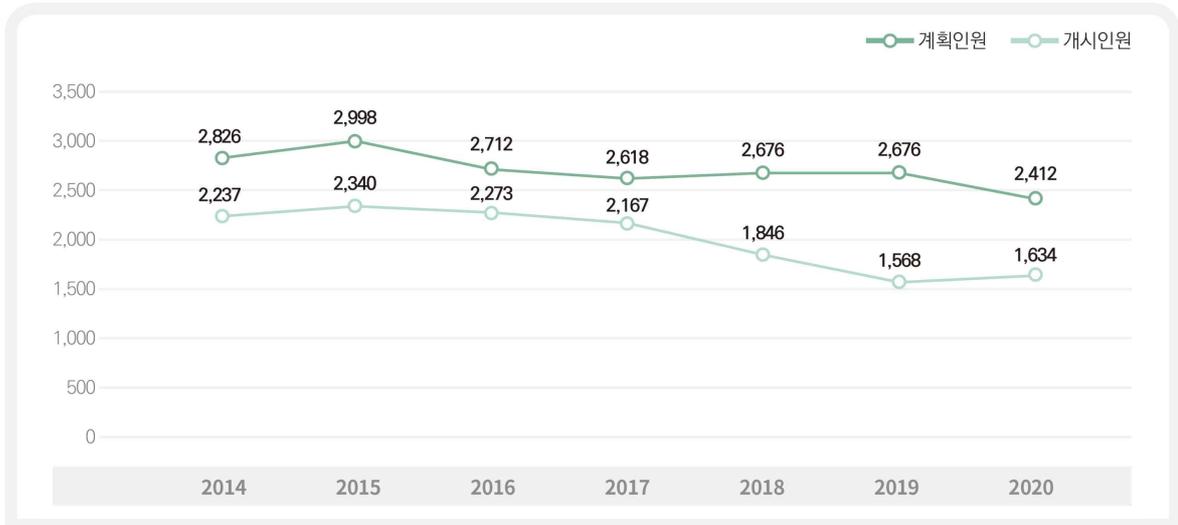


그림 8-2-3 공단 숙식제공 세부 현황(2014~2020)

### (3) 숙식제공 지원기간별 현황

- 2020년의 공단 숙식제공 대상자의 지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09명(27.1%), 1개월 미만이 270명(23.7%), 6개월 미만이 243명(21.3%) 등으로, 전체 숙식제공 대상자의 72.1%가 6개월 미만이였다. 그밖에 9개월 미만이 130명(11.4%), 2년 이하가 111명(9.7%), 1년 이하가 78명(6.8%) 등이였다.

표 8-2-5 공단 숙식제공 지원기간별 현황(2014~2020)

연도	기간	계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9월 미만	1년 이하	2년 이하
2014		1,639	447	416	390	194	92	100
		100%	27.3%	25.4%	23.8%	11.8%	5.6%	6.1%
2015		1,702	469	511	394	154	71	103
		100%	27.6%	30.0%	23.1%	9.0%	4.2%	6.1%
2016		1,624	448	442	370	162	89	113
		100%	27.5%	27.2%	22.8%	10.0%	5.5%	7.0%
2017		1,527	393	402	368	148	91	125
		100%	25.7%	26.3%	24.1%	9.7%	6.0%	8.2%

연도	기간						
	계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	9월 미만	1년 이하	2년 이하
2018	1,318	286	317	330	175	82	128
	100%	21.7%	24.1%	25.0%	13.3%	6.2%	9.7%
2019	1,077	244	237	255	126	90	125
	100%	22.7%	22.0%	23.7%	11.7%	8.3%	11.6%
2020	1,141	270	309	243	130	78	111
	100%	23.7%	27.1%	21.3%	11.4%	6.8%	9.7%

※ 숙식제공 수혜자는 숙식제공 종료자를 기준으로 산정  
 ※ 숙식제공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이고, 6개월 단위로 연장심사 실시

## 2) 취업지원

### 지표정의

- 직업훈련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 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 실시
- 창업지원 :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5천만원)
- 취업알선 : 직업능력(적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 취업이후 필요시 신원보증 실시
- 허그일자리 : 2015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법무부(공단)로 이관 받은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동행면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는 종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즉, 미취업상태에서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취업설계”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성공” ⇒ 4단계 “사후관리”에 이르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

### (1)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

- 최근 7년간 취업지원 대상자는 거의 매년 증가하여, 2014년 9,877명, 2015년 11,706명, 2016년 12,608명, 2017년 13,043명, 2018년 13,018명, 2019년 14,291명, 2020년 15,546명 등이었다.
- 2020년 공단의 취업지원 대상자 15,546명 중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가 6,605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였고, 취업알선이 4,659명(30.0%), 직업훈련이 4,280명(27.5%), 창업지원이 2명 등이었다.

표 8-2-6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허그일자리
2014		9,877	1,757	13	3,779	4,328
2015		11,706	2,505	13	4,174	5,014
2016		12,608	2,882	14	4,715	4,997
2017		13,043	3,003	3	4,382	5,655
2018		13,018	3,602	3	3,687	5,726
2019		14,291	4,305	5	3,864	6,117
2020		15,546	4,280	2	4,659	6,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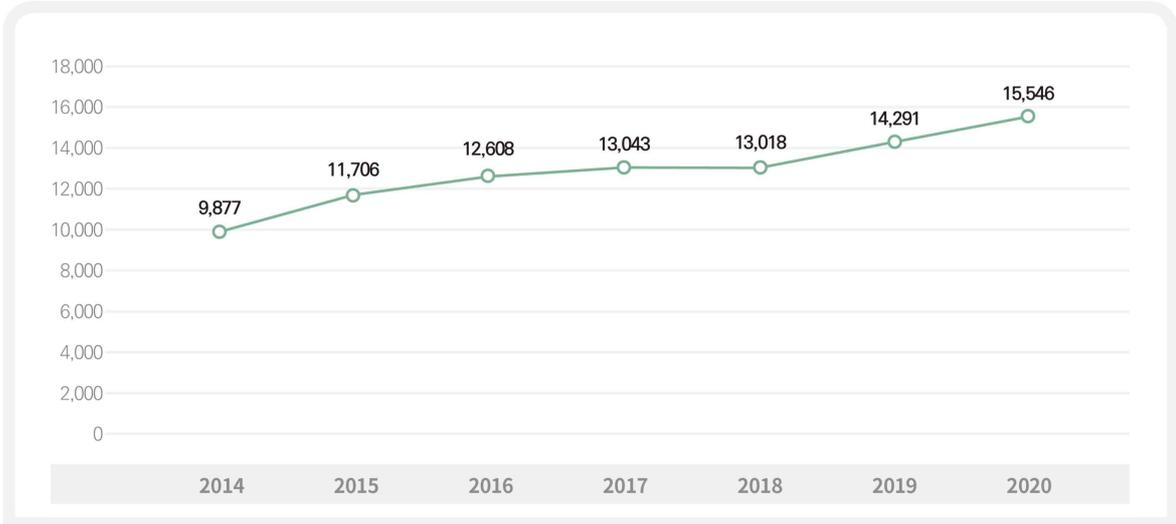


그림 8-2-4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 (2)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수수료 및 취업 등 현황

- 2020년 공단의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수수료자는 총 2,288명으로 수수료율은 34.6%이었다. 또한 취업 인원은 1,905명이며 그중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은 985명으로 3개월 이상 근속률은 51.7%이었다.
- 최근 7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수수료인원은 2014년 3,891명에서 2017년 5,241명으로 증가하였고, 수수료율 역시 2014년 89.9%에서 2017년 92.7%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수수료인원이 4,915명으로 감소하고 수수료율도 85%로 떨어졌으며, 2019년에는 수수료인원 4,887명에 수수료율 79.9%, 2020년에는 전년보다 수수료인원은 53.2%, 수수료율은 45.3% 등이 각각 감소하였다.

➔ 다만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1~2년간 진행되는바, 2018년 참여자 중 일부와 2019년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 진행 중인 상황이다. 향후, 2018년과 2019년 참여자의 수수료인원, 취업인원, 근속인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참여자 6,117명 중 2019년 12월 기준으로 진행 중 인원은 3,186명)

표 8-2-7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수수료 및 취업 등 현황(2014~2020)

구분 연도	참여인원	수수료인원	수수료율	취업인원	고용보험 가입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3개월 이상 근속	3개월 이상 근속률
2014	4,328	3,891	89.9%	2,048	1,188	58.0	1,024	-
2015	5,014	4,504	89.8%	2,727	1,475	54.1	2,027	74.3
2016	4,997	4,619	92.5%	2,797	1,622	58.0	2,138	76.4
2017	5,655	5,241	92.7%	3,021	1,959	64.9	2,397	79.3

연도\구분	참여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인원	고용보험 가입취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3개월 이상 근속	3개월 이상 근속률
2018	5,726	4,915	85.8%	2,629	1,608	61.2	2,065	78.5
2019	6,117	4,887	79.9%	3,130	1,792	57.2	2,402	76.7
2020	6,605	2,288	34.6%	1,905	1,038	54.5	985	51.7

※ 허그일자리 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최장 3년까지 수료인원 및 취업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수료율 = 수료인원 / 참여인원×100

※ 고용보험가입률 = 고용보험가입취업자 / 취업인원×100

※ 3개월 이상 근속률 =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인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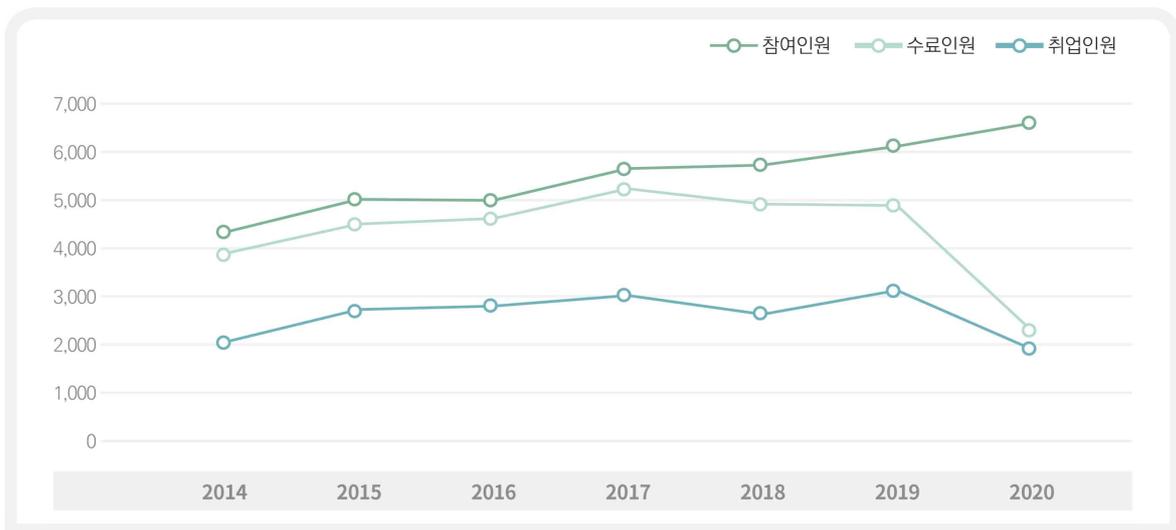


그림 8-2-5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세부 현황(2014~2020)

### 3) 가족지원

#### 지표정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최장 10년 거주), 임차보증금 일정액 지원
- 가족희망 : 보호대상자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학업지원 : 청소년 보호대상자 및 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물품지원(학습교재, 학용품 등)과 학습지도 및 멘토링 실시
- 결혼지원 : 사실혼 관계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무료 결혼식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 (1)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

- 최근 7년간 가족지원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1,455명, 2015년 1,637명, 2016년 1,606명, 2017년 1,860명, 2018년 2,066명, 2019년 2,605명, 2020년 2,774명 등이었다.

- 2020년 가족지원 대상자 2,774명의 세부 유형은 학업지원이 1,651명, 가족희망 프로그램 참여가 788명, 주거지원이 235명, 결혼지원이 100명 등이었다.
- 가족지원 중 주거지원 대상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2명이었다가 2018년부터 200명 이상이 되었다. 가족희망 프로그램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고, 특히 2019년부터 법무보호교육원에서만 실시하던 가족희망 사업을 전국 지부·지소로 확대하며 증가 폭이 커졌다. 학업지원 대상자도 2017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8-2-8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주거지원	가족희망	학업지원	결혼지원 (합동결혼식)
2014		1,455	152	297	919	87
2015		1,637	152	331	1,059	95
2016		1,606	152	386	973	95
2017		1,860	152	437	1,163	108
2018		2,066	220	467	1,280	99
2019		2,605	278	806	1,418	103
2020		2,774	235	788	1,6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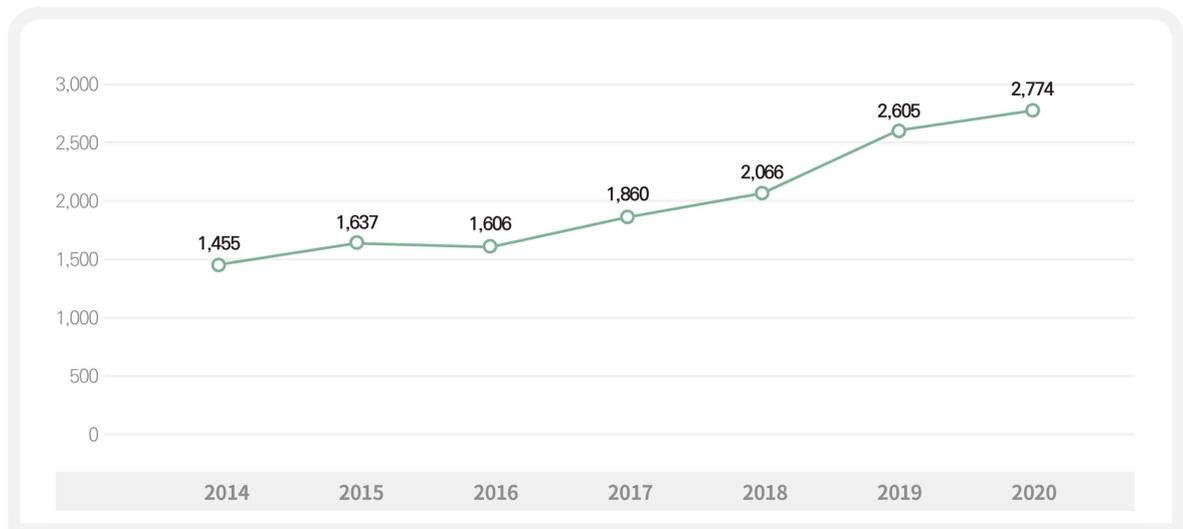


그림 8-2-6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 (2) 주거지원 세부 현황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공단에서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한 주택은 총 2,378호이며 그중 1,715호에 대해 입주 완료되었고, 누적 수혜 인원은 총 3,303명이었다.

표 8-2-9

공단지부별 주거지원 실시 현황(2014~2020)

구분 지부	공급 주택 호수(주택공사)							공급주택 입주현황			누적수혜 인원
	200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입주	미입주	
서울지부	137	14	14	14	17	17	6	219	172	47	364
인천지부	156	13	14	13	27	27	9	259	198	61	446
경기지부	176	17	15	15	29	22	9	281	218	63	412
경기남부	28	6	6	6	7	12	6	73	59	14	95
경기북부	95	13	11	12	14	16	8	169	148	21	241
강원지부	40	7	7	8	9	9	6	86	72	14	119
대전지부	95	14	14	8	15	15	8	169	109	60	268
충남지부	10	0	0	6	5	5	4	30	23	7	33
충북지부	34	6	6	7	7	7	5	72	56	16	64
대구지부	126	13	14	14	17	17	6	206	139	67	291
경북지부	4	0	0	0	5	5	4	19	15	4	18
부산지부	79	9	7	7	10	10	5	128	78	50	165
울산지부	46	9	9	10	13	13	7	107	63	44	126
경남지부	66	11	12	12	12	12	7	131	89	42	165
광주전남	102	11	13	11	14	14	8	173	88	85	196
전북지부	63	6	7	6	7	7	5	101	59	42	128
제주지부	16	3	3	3	3	3	2	33	33	-	39
서울북부	99	0	0	0	9	9	5	122	96	26	133
계	1,372	152	152	152	220	220	110	2,378	1,715	663	3,303

※ 누적수혜인원은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수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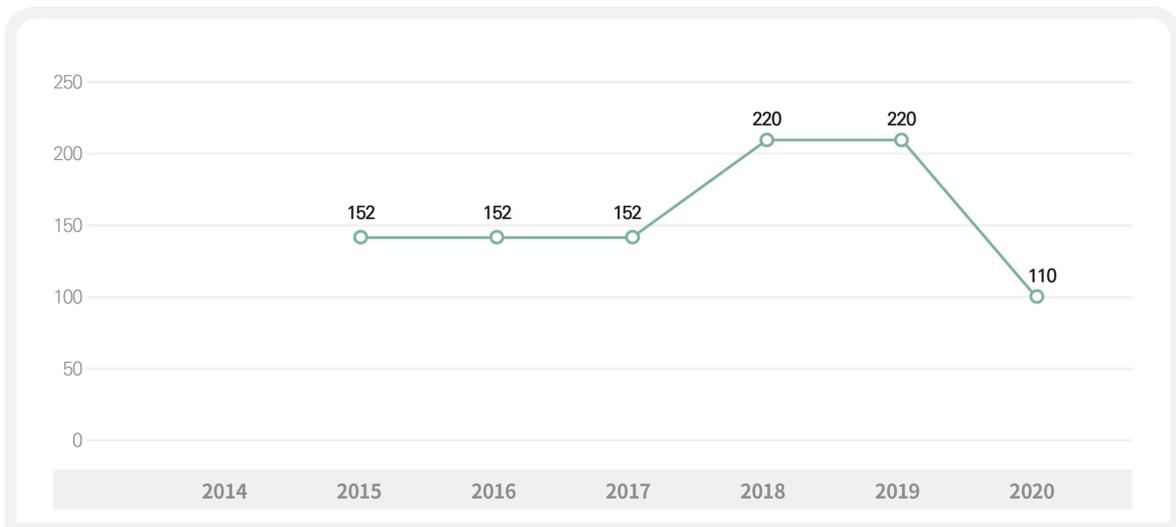


그림 8-2-7

공단 주거지원 - 공급 주택 호수(2014~2020)

## 4) 상담지원

### 지표정의

- 심리상담 :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
- 사전상담 : 출소예정자 등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업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 사회성 향상 : 기초소양, 심리치료, 적성검사,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사후관리 : 보호사업 수혜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지도 및 관리

### (1)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

- 2020년 공단의 상담지원 대상자는 총 56,889명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였다. 심리상담 12,669명, 사전상담 21,332명,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3,716명, 사후관리 19,172명 등으로, 이 중 심리상담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는 전년 수준인데 비해 사후관리는 11.8% 증가하였고, 출소예정자 등에 대한 사전상담은 33.4% 감소하였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출소예정자에 대한 사전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사전상담의 감소폭이 컸다.

표 8-2-10 공단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심리상담	사전상담	사회성향상	사후관리
2014		36,258	3,808	19,213	3,244	9,993
2015		41,556	4,899	22,113	3,551	10,993
2016		48,445	5,103	27,272	3,743	12,327
2017		58,323	9,322	30,795	3,863	14,343
2018		61,204	11,759	30,630	3,671	15,144
2019		65,568	12,694	32,052	3,674	17,148
2020		56,889	12,669	21,332	3,716	19,172

### 제 3 절

##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 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개요

#### 개 요

- 전국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의 이용자 현황

#### 지표정의

- 대상자 : 전국 민간법인에서 생활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갱생보호 지원을 받은 인원

- 민간법인 갱생보호 지원 대상자는 2014년 18,672명, 2015년 18,923명, 2016년 15,825명 이었으나, 2017년에는 9,867명으로 전년 대비 37.6% 감소하였다. 이후 2018년에 10,765명, 2019년에 10,550명 등으로 다소 증가하는 듯 하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5,131명으로 전년 대비 51.4% 감소하였다,

표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자 수	18,672	18,923	15,825	9,867	10,765	10,550	5,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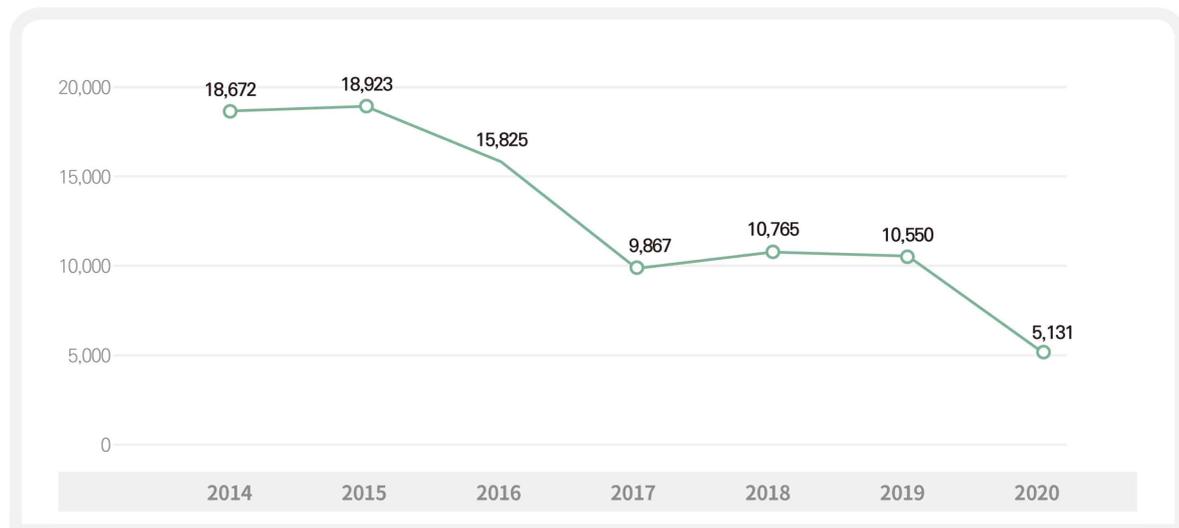


그림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연도별 대상자 현황(2014~2020)

## 2 분야별 현황

### 1) 생활지원

#### 지표정의

- **숙식제공** : 각 지역 생활관에서 최대 2년간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 무료제공
- **원호지원** : 질병,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게 치료비, 교통비, 양곡 등 지원
- **기타자립** :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알선,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입양 및 의료지원 등 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 (1)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

- 2020년 민간법인의 생활지원 대상자는 총 1,564명으로, 숙식제공이 347명, 원호지원이 204명, 기타자립 지원이 1,013명이었다.
- 최근 7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생활지원 대상자는 2014년 2,613명을 보인 후 매년 감소하여 2017년에는 1,485명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1,847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2019년과 2020년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숙식제공	원호지원	기타자립
2014		2,613	477	107	2,029
2015		2,135	477	142	1,516
2016		1,847	406	158	1,283
2017		1,485	406	195	884
2018		1,847	410	285	1,152
2019		1,590	425	233	932
2020		1,564	347	204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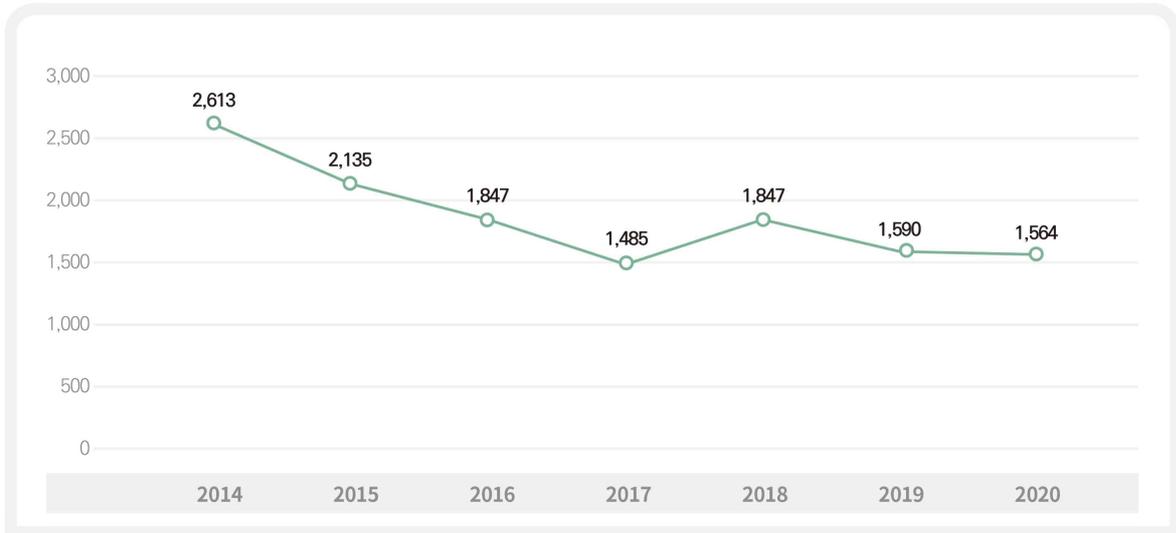


그림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 (2)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대상자 현황

- 2020년 각 민간법인의 숙식제공 대상자는 담안선교회자활원이 215명, 세계교화갱보협회가 33명, 뷰티플라이프와 열린낙원이 각각 27명, 한국교화복지재단이 18명, 양지뜸이 15명, 빠스카교화복지회가 12명 등이었다.

표 8-3-3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법인	계	한국교화 복지재단	세계교화 갱보협회	담안선교회 자활원	빠스카 교화복지회	양지뜸	뷰티플 라이프	열린낙원
2014		477	22	39	274	8	30	43	61
		100%	4.6%	8.2%	57.4%	1.7%	6.3%	9.0%	12.8%
2015		477	23	39	272	15	22	40	66
		100%	4.8%	8.2%	57.0%	3.1%	4.6%	8.4%	13.9%
2016		406	24	30	210	10	24	44	64
		100%	5.9%	7.4%	51.7%	2.5%	5.9%	10.8%	15.8%
2017		406	25	33	238	15	20	35	40
		100%	6.2%	8.1%	58.6%	3.7%	4.9%	8.6%	9.9%
2018		469	10	50	250	15	24	50	70
		100%	2.1%	10.7%	53.3%	3.2%	5.1%	10.7%	14.9%
2019		470	12	55	254	15	24	40	70
		100%	2.6%	11.7%	54.0%	3.2%	5.1%	8.5%	14.9%
2020		347	18	33	215	12	15	27	27
		100%	5.2%	9.5%	61.9%	3.5%	4.3%	7.8%	7.8%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8개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실적 현황

## 2) 취업지원

### 지표정의

- 직업훈련 :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 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 실시
- 창업지원 :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원자재, 도구 등의 물품을 지원
- 취업알선 : 직업능력(적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 취업이후 필요시 신원보증 실시

- 민간법인의 취업지원 대상자는 2014년 716명에서 2015년 585명, 2016년 448명, 2017년 228명, 2018년 174명 등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19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143명으로 다시 줄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훈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감소하면서도 300건 이상이었던데 비해, 2017년부터 100건 이하로 감소하였고, 취업알선 역시 전반적인 감소추세 속에서 2020년에는 68건에 그쳤다.

표 8-3-4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2014		716	578	0	138
2015		585	472	0	113
2016		448	347	5	96
2017		228	98	9	121
2018		174	74	3	97
2019		195	92	4	99
2020		143	73	2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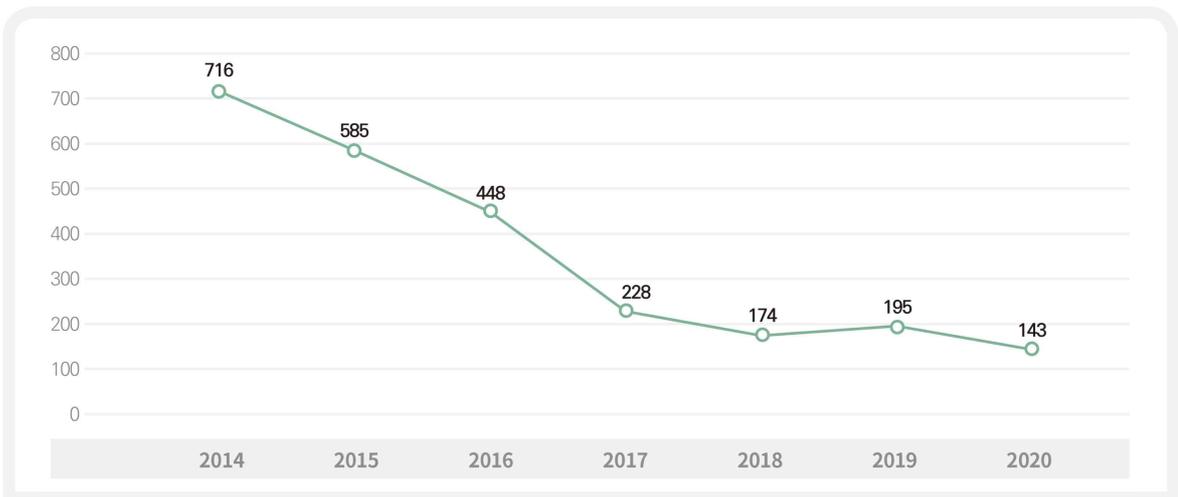


그림 8-3-3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 3) 주거지원

- 민간법인의 주거지원 대상자는 2018년 11명, 2019년 6명, 2020년 5명 등이었다.

표 8-3-5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거지원	-	-	6	8	11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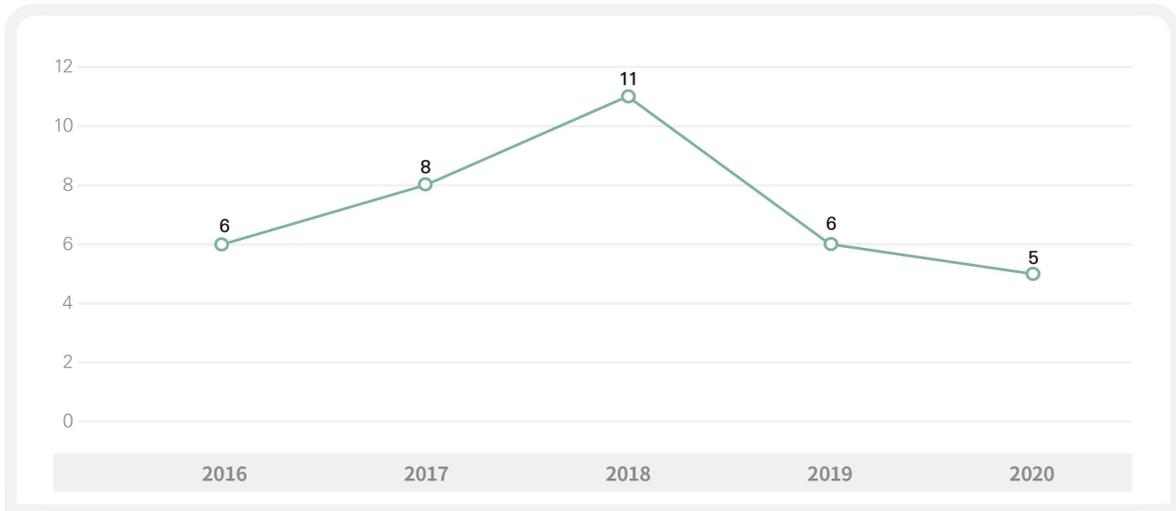


그림 8-3-4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 4) 심리상담

#### 지표정의

- 심리상담 :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
- 사전상담 : 출소예정자 등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업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 사회성 향상 : 기초소양, 심리치료, 적성검사, 문화체험, 봉사활동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사후관리 : 보호사업 수혜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지도 및 관리

- 민간법인의 심리상담 대상자는 2014년 15,343명에서 2015년 16,20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2017년에는 8,163명, 2018년에는 8,733명, 2019년 8,759명이었다.
- 코로나19가 발생·확산한 2020년에는 총 3,419명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한 수치이며, 심리상담 대상자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면 심리상담이 500명, 사전상담이 495명, 사회성향상프로그램이 2,156명, 사후관리가 268명 등이었다.

표 8-3-6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연도	구분	계	심리상담	사전상담	사회성향상	사후관리
2014		15,343	4,580	5,563	4,052	1,148
2015		16,203	5,196	5,445	4,692	870
2016		13,535	3,371	6,816	3,206	142
2017		8,163	1,850	2,893	3,276	144
2018		8,733	1,168	3,718	3,661	186
2019		8,759	1,431	4,054	3,039	235
2020		3,419	500	495	2,156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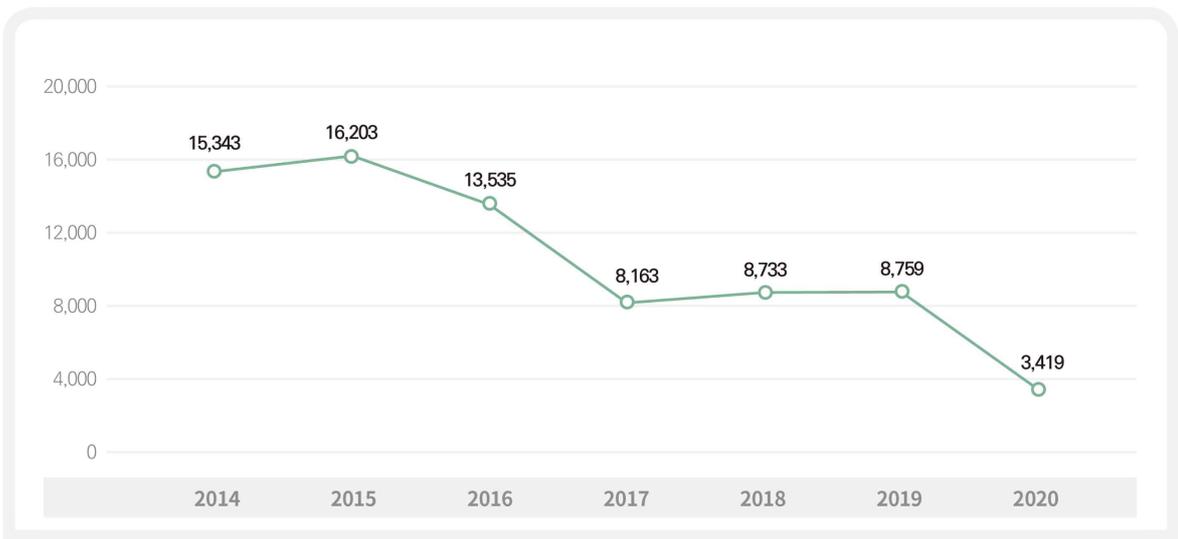


그림 8-3-5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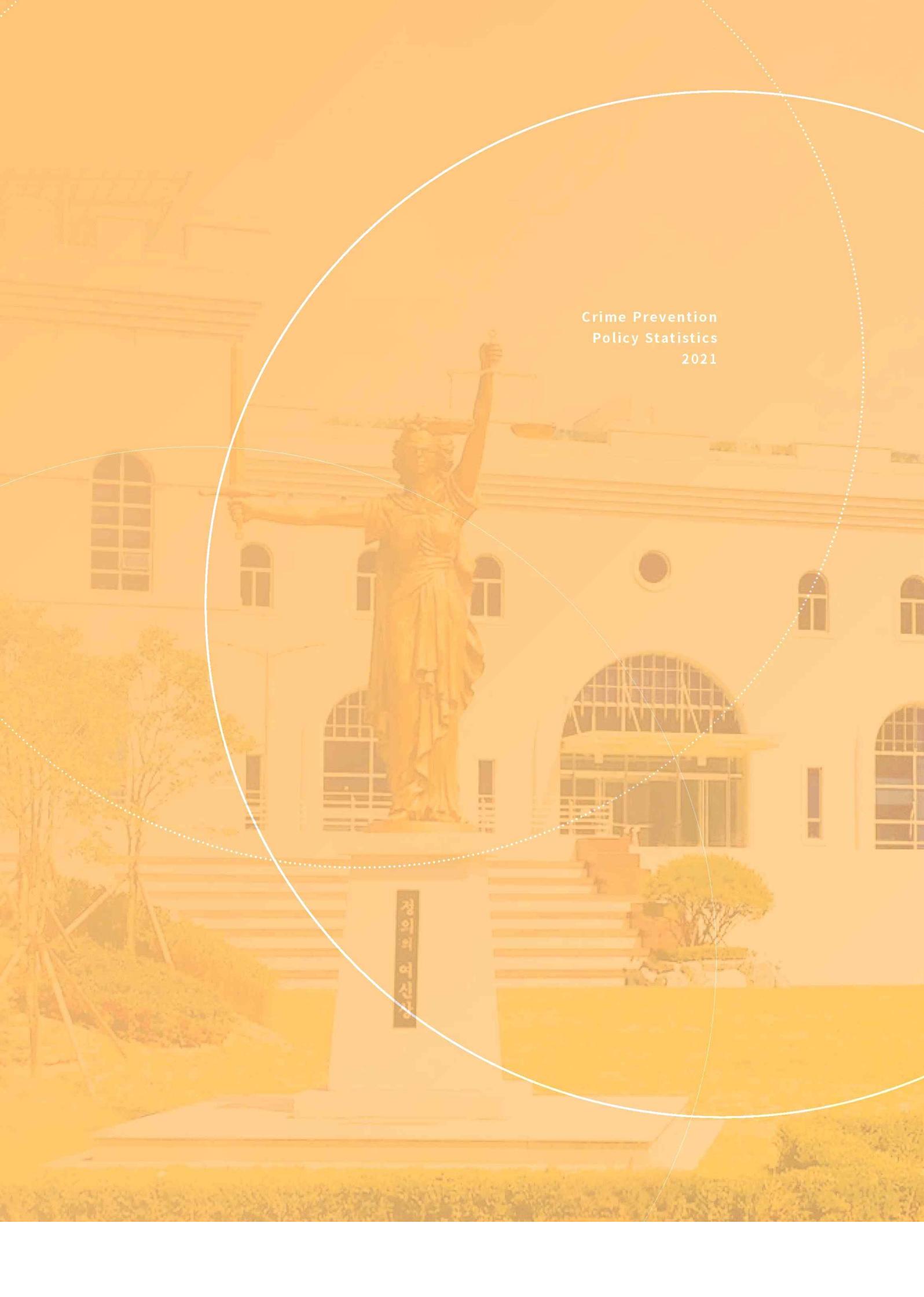
Chapter 9

# 법교육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제2절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제3절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실시 현황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제 1 절

#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 1 법교육 개요

-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에 따르면, 법교육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국민이 실생활에서 유용한 기초적 법률 소양을 키워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법무부에 ‘법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 학교법교육 출장강연 등 일반 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시작하였다.
- 이후 2008년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법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법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등을 통해 더욱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2 법교육 프로그램 유형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법교육은 크게 학교법교육과 사회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법교육은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이전까지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헌법토론대회 등 대회 형식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9년 이후로는 맞춤형 법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법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포함된다.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은 1)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2) 어린이로스쿨, 3) 모두가 행복한 교실, 4) 북한이탈청소년법교육, 5) 학생자치법교육, 6) 시민법교육, 7) 이민자법교육 등이다.

### 3 법교육 프로그램 전체 실시 현황

- 법교육 프로그램의 연간 총 이용 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새로운 법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2014년 8,99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9,386명을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15,104명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하였다가 2019년 16,382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30,951명으로, 전년 대비 88.9%(14,569명) 급증하였다.
- 2020년 법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비율은 ‘시민법교육’ 81.9%(25,345명),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7.5%(2,312명),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5.6%(1,741명), ‘어린이로스쿨’ 3.6%(1,114명), ‘이민자법교육’ 1.4%(439명) 등의 순이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법교육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한 영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이를 확대하면서 전체 법교육 실시 건수가 증가하였다.

표 9-1-1 법교육 프로그램 전체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계	8,990	12,853	16,200	19,386	15,104	16,382	30,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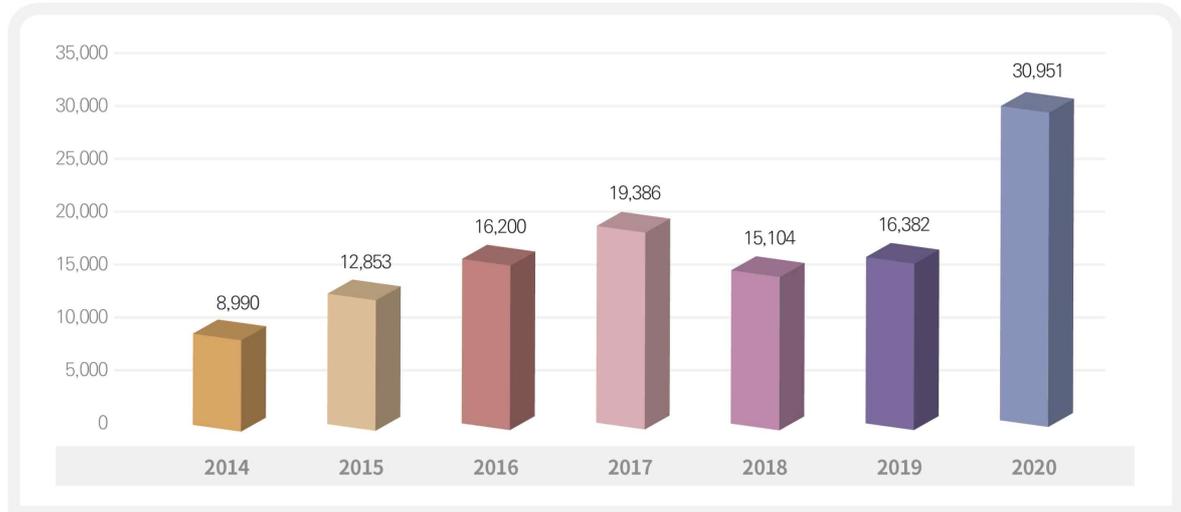


그림 9-1-1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4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 아동양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로 배우는 유아(5~7세) 인성 교육 프로그램

-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은 아동양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로 배우는 유아(5~7세)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6년도부터 실시되었다.
-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은 2016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19년까지 실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실시 인원이 2,312명으로 전년 대비 36.2%(2,279명) 감소하였고, 실시 횟수는 158회로 전년 대비 38.3%(170건) 감소하였다.

표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2016~2020)

실시현황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횟수	59	109	82	252	158
인원	429	733	1,347	3,626	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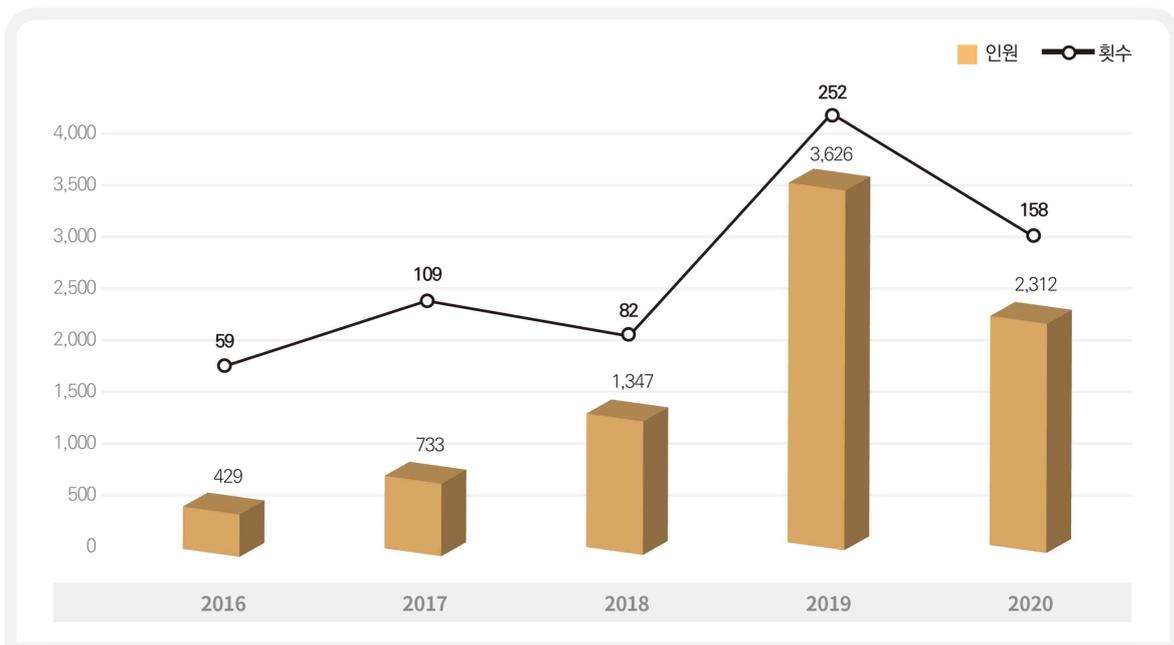


그림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5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어린이로스쿨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 6차시 구성의 어린이 법 탐험 프로그램

- '어린이로스쿨'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 6차시 구성의 어린이 법 탐험 프로그램으로, 2013년도부터 실시되었다.
- '어린이로스쿨' 실시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500명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2,320명, 2016년 1,480명, 2017년 1,561명 등이었고, 2018년에는 81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2019년 1,168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1,114명으로, 전년 대비 4.6%(54명) 감소하였다.

표 9-1-3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수	118	164	109	120	70	70	81
인원	2,500	2,320	1,480	1,561	811	1,168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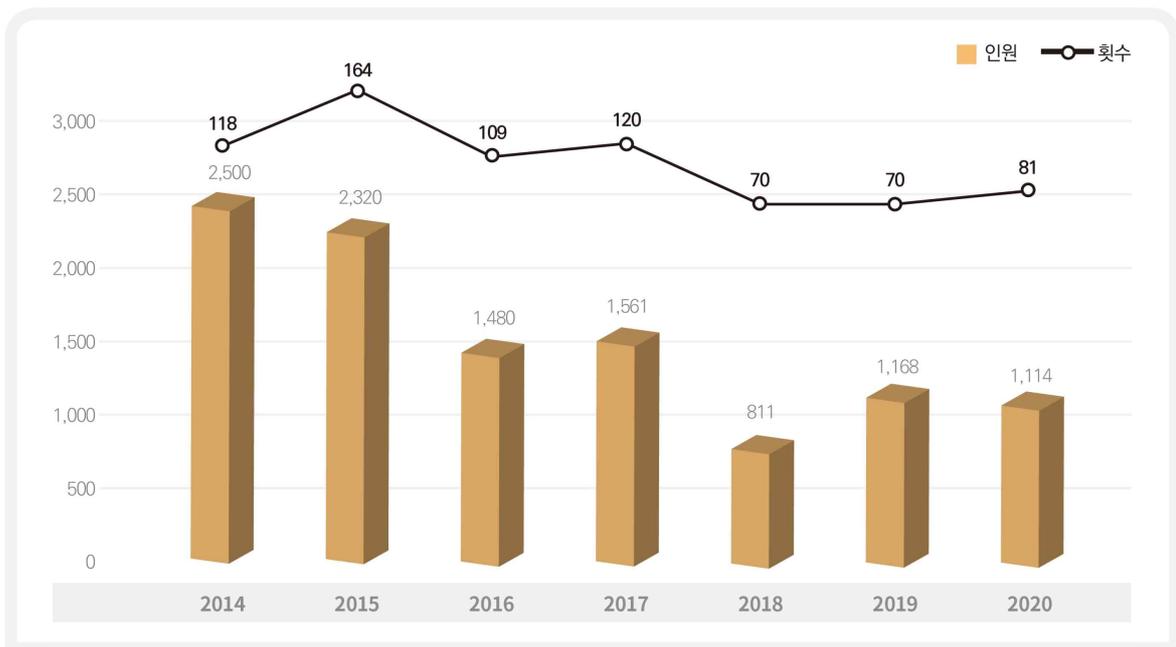


그림 9-1-3 '어린이로스쿨'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6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 정착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헌법(자유·권리·의무 등) 교육, '우리법 바로 알기' 정규 법교육 프로그램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정착을 위한 헌법(자유·권리·의무 등) 교육, '우리법 바로 알기' 정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2006년도부터 실시되었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다.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606명, 2015년 1,730명, 2016년 1,808명, 2017년 2,068명, 2018년 2,103명, 2019년 2,114명 등으로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실시인원이 1,741명, 실시횟수 183회 등으로, 전년 대비 실시 인원은 17.6%(373명), 실시 횟수는 20.8%(48회) 각각 감소하였다.

표 9-1-4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수	151	161	179	244	224	231	183
인원	1,606	1,730	1,808	2,068	2,103	2,114	1,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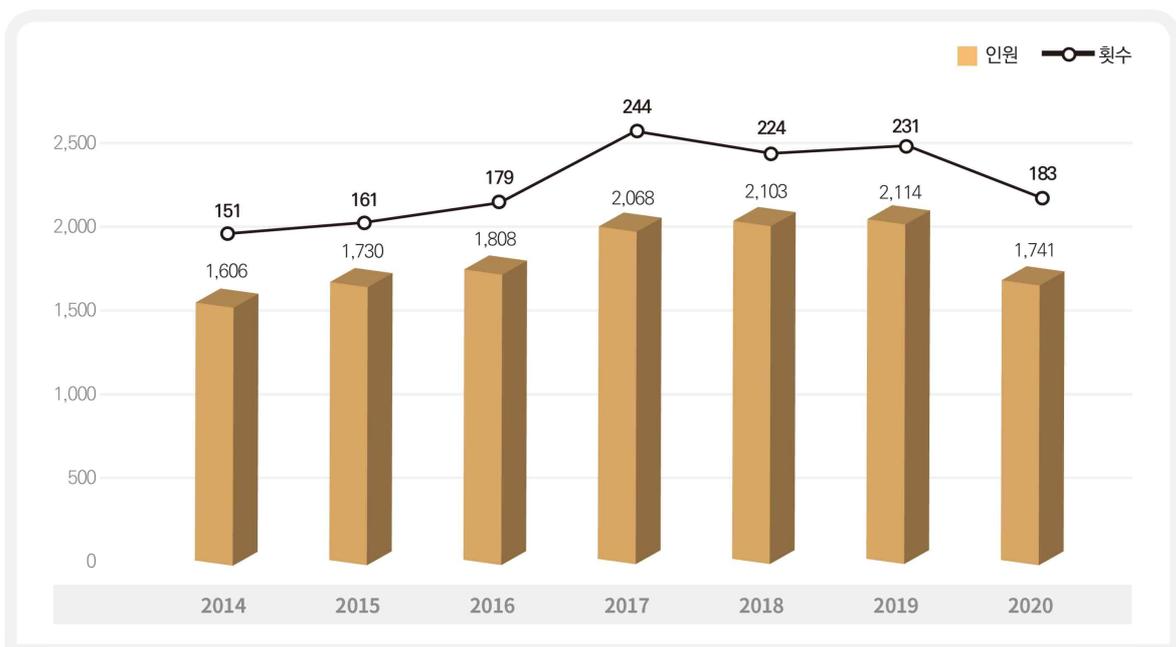


그림 9-1-4 '북한 이탈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7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시민법교육 :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법률 강연 구성,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로스쿨과 시민법률콘서트 형식으로 진행

- '시민법교육'은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법률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연형식의 시민로스쿨과 강연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시민법률콘서트로 구성된다.
- '시민법교육' 실시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10,813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실시인원과 횟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실시인원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영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참여 인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표 9-1-5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2014~2020)

실시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수		182	108	199	317	265	47	60
인원		4,884	4,120	6,926	10,813	9,021	6,080	25,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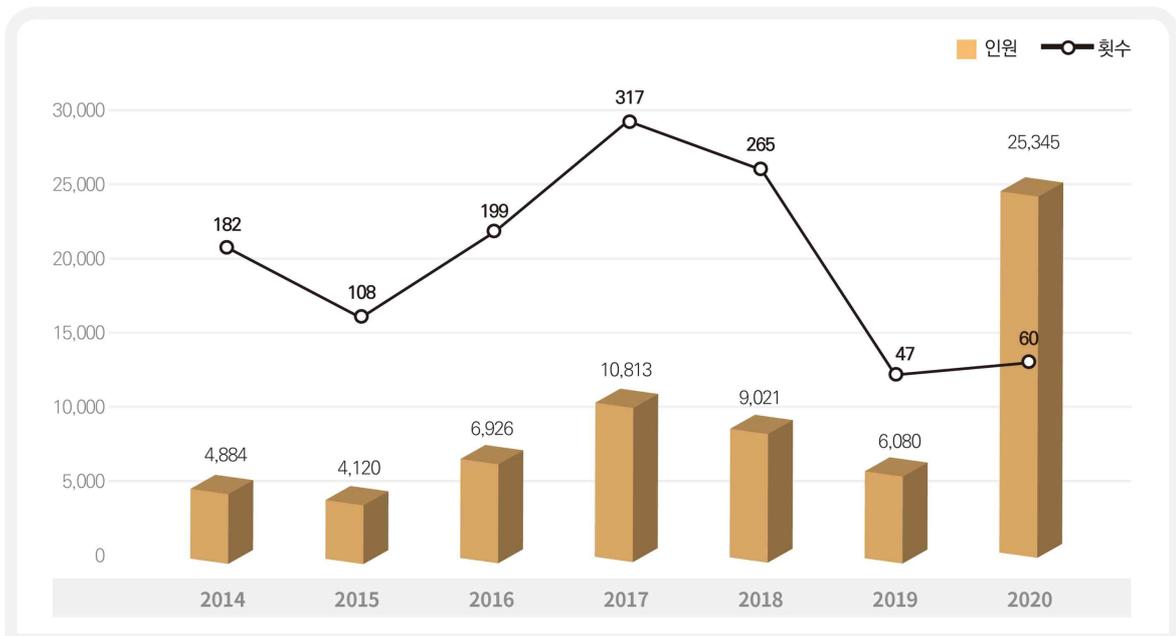


그림 9-1-5 '시민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8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이민자법교육 : 합법체류 외국인(결혼, 취업 이민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기초 생활법률 및 혼인과 법 등을 주제로 한 법교육 프로그램

- 이민자 법교육은 재한 외국인(결혼, 취업 이민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기초 생활법률 및 혼인과 법 등을 주제로 한 법교육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되었다.
- 이민자 법교육의 실시 인원은, 2015년 2,683명에서 2016년 5,55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17년 4,211명, 2018년 1,822명 등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3,394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시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필수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면서 실시 인원이 전년 대비 87.1% 급감한 439명에 그쳤다.

표 9-1-6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2015~2020)

실시현황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수	250	264	224	88	163	29
인원	2,683	5,557	4,211	1,822	3,394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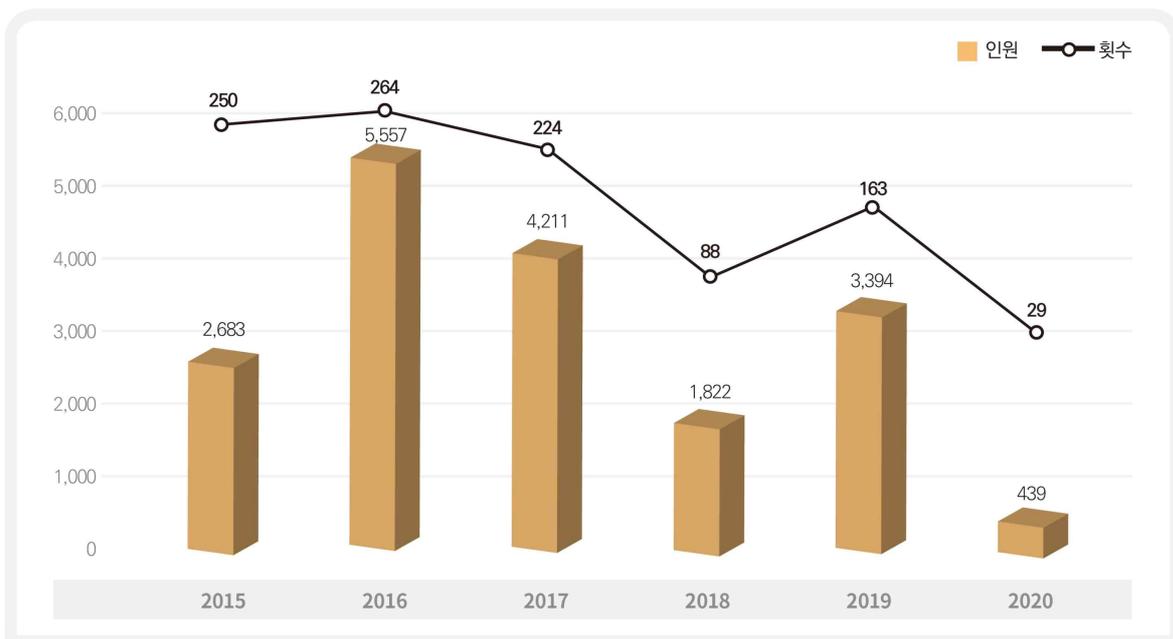


그림 9-1-6 '이민자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9 '모두가 행복한 교실' 및 '학생자치법교육' 실시 현황

### 지표정의

- 모두가 행복한 교실 : 전국 초중학교 중 신청 학교에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 개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준법·인권 등 기초 인성 교육 프로그램
- 학생자치법교육 : 자치규약을 제·개정하고 자치법정을 구성하며,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인권친화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 '모두가 행복한 교실'은 전국 초등·중학교 중 신청 학교에 대해 실시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 개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준법·인권 등 법무부가 개발하고 교육부가 인증한 기초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 '학생자치법교육'은 교내의 자치규약을 제·개정하고 자치법정을 구성하며,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인권친화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 '모두가 행복한 교실'과 '학생자치법교육' 모두 201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오는데, 「학교폭력법」 개정으로 상벌점제 폐지 등 학생자치법정의 비중약화 등이 그 원인으로 해석된다.
- 2020년에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과 '학생자치법교육'은 전년 대비 각각 50.9%와 62.0%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단위 사업 홍보, 학교별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기에 맞춘 조기 수요조사 실시, 학생자치법교육 사업의 학교별 등록제 실시 등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이다.

표 9-1-7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생자치법교육' 현황(2014~2020)

프로그램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교 수)	460	797	282	165	152	118	178
학생자치법교육 (학교 수)	1,580	1,720	1,139	1,030	965	466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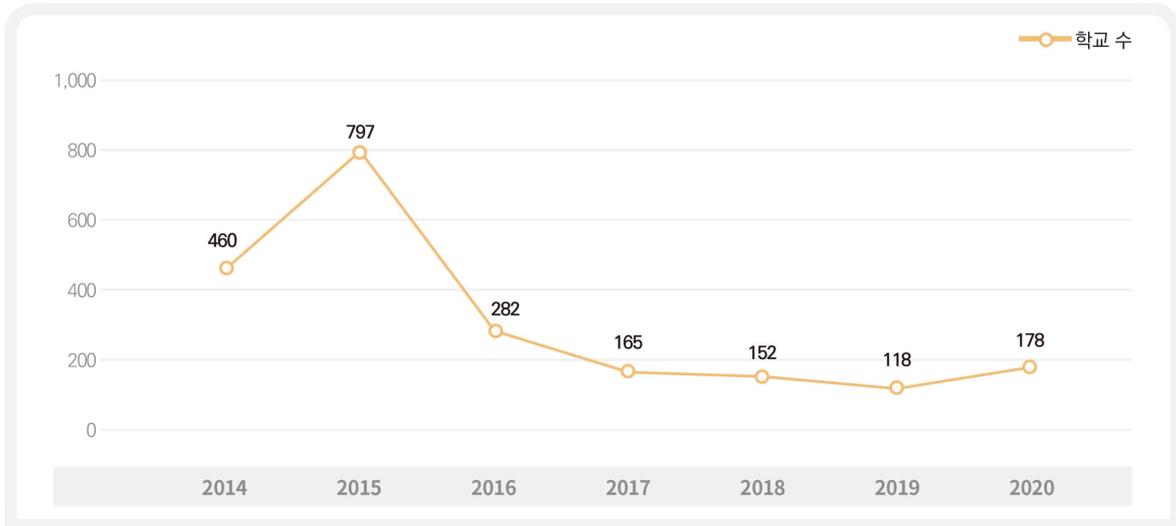


그림 9-1-7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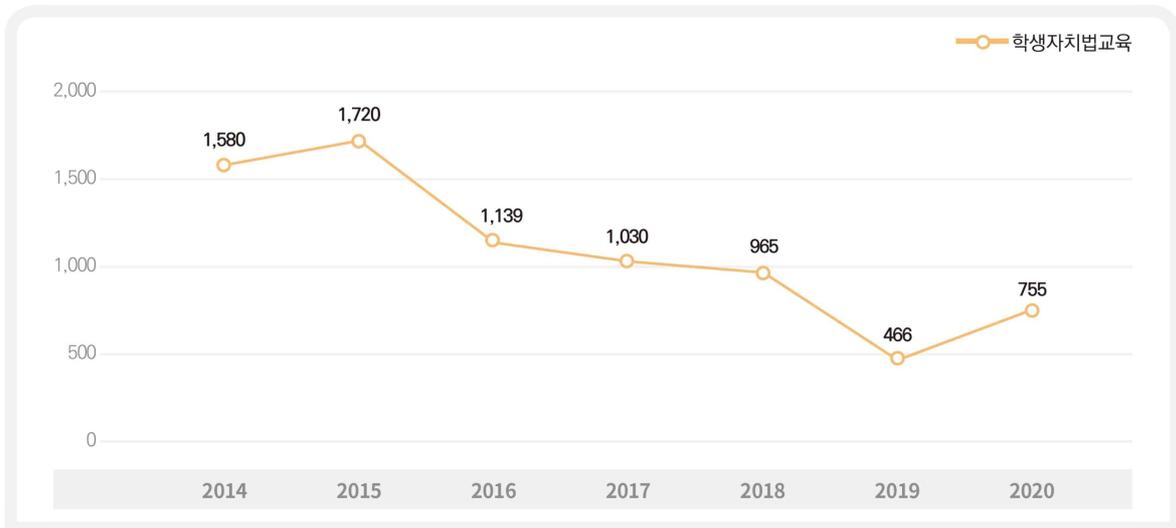


그림 9-1-8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 1 개요

- 법교육 출장강연은 2006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 등 강의를 신청한 현장에 직접 출강하여 학교폭력예방, 아동인권보장, 사이버범죄예방 등의 주제로 강연하는 것이다.
- 법교육 전문강사는 「법교육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라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필기·시연평가를 거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에 의해 위촉되며, 변호사,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교육 출장강연은 그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현장에서 직접 강연한다는 점에서 제1절의 법교육 프로그램과 구분된다.

## 2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 개 요

- 법교육 전문강사가 강의 신청 현장에 직접 출강하여 학교폭력예방, 아동인권보장, 사이버범죄예방 등의 주제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횟수 및 인원 현황

- 법교육 출장강연 인원은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 2017년 10,301회(1,175,705명)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법교육 출장강연 대상인원은 247,377명이며 전년 대비 10.2%(28,248명) 감소한 수치이다.
- 2019년 이후 법교육 출장강연 인원의 감소는 법교육 출장강연 대상을 시민에서 초·중고 학생과 교사 위주로 집중·내실화하고 시민에게는 법률콘서트·시민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강연의 증가로 법교육 출장강연의 수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표 9-2-1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4~2020)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수	2,222	2,988	5,547	10,301	7,362	3,475	2,795
인원	347,180	480,170	777,382	1,175,705	519,257	275,625	247,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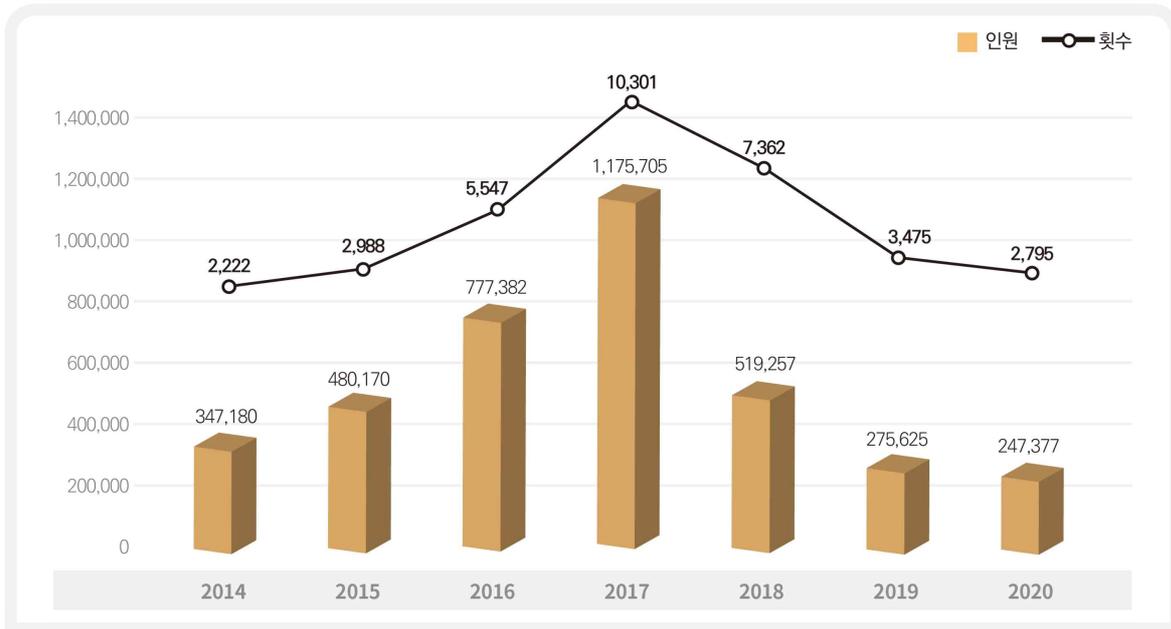


그림 9-2-1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4~2020)

#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실시 현황

## 1 솔로몬로파크 개요

- 솔로몬로파크는 효과적인 법체험과 법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된 법교육 테마파크로 대전(2008년 1월 개관)과 부산(2016년 7월 개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건립 중으로 2022년 개관 예정이다.
- 솔로몬로파크는 법체험관과 법연수관으로 구성된다. 법체험관은 모의법정, 모의국회, 과학수사 등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법연수관은 주부로스쿨, 교사 직무연수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법체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2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개요

- 솔로몬로파크에서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sup>39)</sup>.
  - 1) 교사 직무연수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지도에 의한 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
  - 2) 주부로스쿨 :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상식을 법률전문가가 강연형식으로 전달
  - 3) 어린이 법캠프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의재판 등 다양한 법체험, 법관련 진로 체험, 법 강연 등을 실시
  - 4) 청소년 법캠프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등 다양한 법체험, 법관련 진로 체험, 법 강연 등을 실시

39) 그 외에도 찾아가는 법체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는데, 해당 통계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 예방교육에서 집계하고 있다.

### 3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 개 요

- 솔로몬로파크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횟수 및 인원 현황

#### 지표정의

- 직무연수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지도에 의한 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
- 주부로스쿨 :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상식을 법률전문가가 강연형식으로 전달
- 어린이 법캠프 :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재판 등 다양한 법체험, 법관련 진로 체험, 법 강연 등
- 청소년 법캠프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재판 등 다양한 법체험, 법관련 진로 체험, 법 강연 등

- 2020년 대전솔로몬로파크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인원이 총 175명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1,578명)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결과이며,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무연수가 최소한도로 실시되어 전년 대비 40% 감소한 수치를 보일 뿐 그 외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주부로스쿨 등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다,

표 9-3-1 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연도	연간인원	직무연수		주부로스쿨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4	2,118	9	310	1	92	20	734	27	982
2015	2,185	3	106	4	209	21	849	28	1,021
2016	3,068	4	142	4	121	26	1,070	35	1,735
2017	2,201	4	146	3	117	25	1,012	23	926
2018	1,906	4	140	3	144	24	916	20	706
2019	1,753	6	164	2	82	23	881	18	626
2020	175	3	97	0	0	1	10	2	68

- 2020년 부산솔로몬로파크의 현황 역시 대전솔로몬로파크와 동일하여, 법교육 실시 인원이 전년 대비 86.6% 감소한 158명이었다. 이러한 급감은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직무연수가 128명에 대해 실시되었을 뿐,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주부로스쿨 등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다.

표 9-3-2 부산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7~2020)

연도	연간인원	직무연수		주부로스쿨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7	1,334	8	268	2	42	8	345	19	679
2018	1,439	12	320	1	26	7	230	22	843
2019	1,179	8	203	3	88	12	358	14	530
2020	158	4	128	1	5	1	25	0	0

## 4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

### 개 요

■ 전국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인원 현황

- 2016년 9월 부산솔로몬로파크의 개칭으로 솔로몬로파크 방문객은 2017년 493,751명을 기록하였고 2020년 대전솔로몬로파크는 41.9%(23,005명), 부산솔로몬로파크는 58.1%(31,939명)으로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전과 부산솔로몬로파크의 방문객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여 솔로몬로파크 전체 방문객 수는 전년의 14.6% 수준인 54,944명에 그쳤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방문객은 전년 대비 85.3%(133,524명) 감소하였고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객은 전년 대비 85.4%(186,597명) 감소하였다.

표 9-3-3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2014~2020)

연도	방문객 총계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2014	301,126	301,126	-
	100%	100%	-
2015	261,982	261,982	-
	100%	100%	-
2016	385,537	268,182	117,355
	100%	69.6%	30.4%
2017	493,751	269,573	224,178
	100%	54.6%	45.4%
2018	478,629	254,687	223,942
	100%	53.2%	46.8%

연도	방문객 총계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2019	375,065	156,529	218,536
	100%	41.7%	58.3%
2020	54,944	23,005	31,939
	100%	41.9%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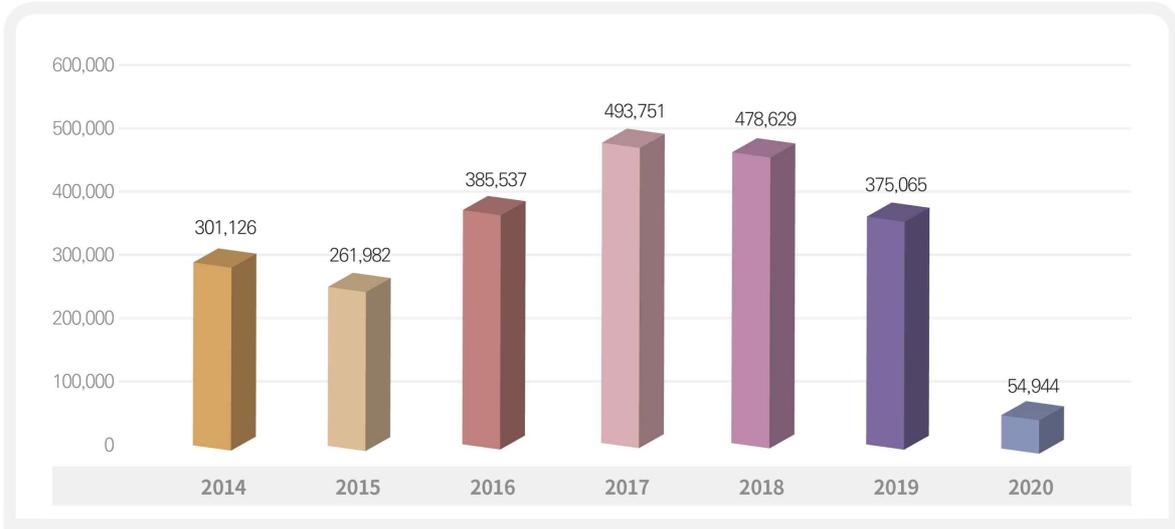


그림 9-3-1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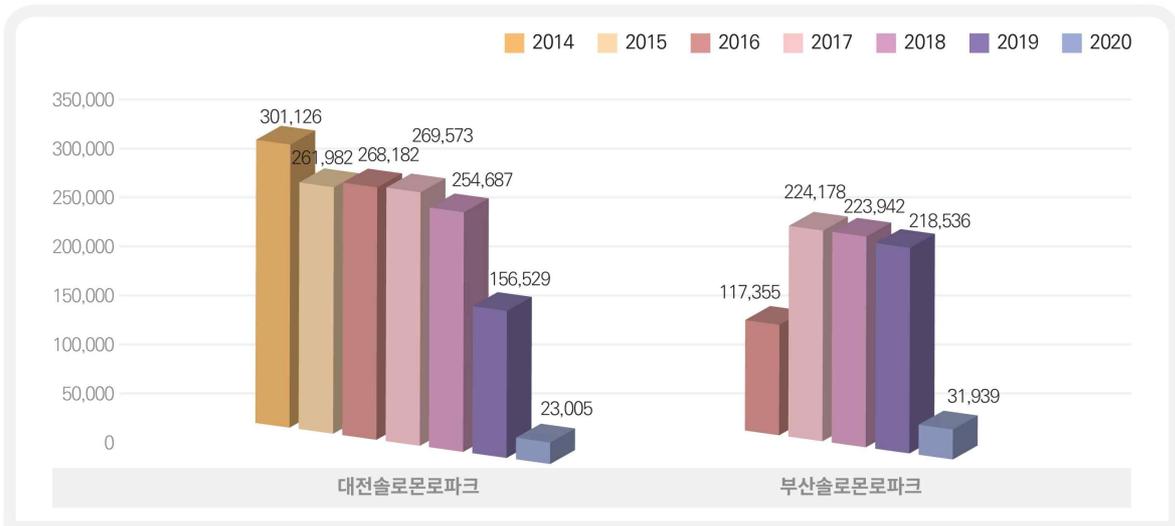


그림 9-3-2 기관별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2014~2020)



# 통계분석

2021 범죄예방정책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부록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 현황
2.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3.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4. 찾아보기 - 표
5. 찾아보기 - 그림



Crime Prevention  
Policy Statistics  
2021

#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 현황

표 부록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현황

연도	기관	계	보호직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전문경력관
2014	보호관찰기관	1,538	1,441	70	27	-
	소년보호기관	801	592	128	61	20
	치료감호소	368	34	288	29	17
	계	2,707	2,067	486	117	37
2015	보호관찰기관	1,537	1,442	74	21	-
	소년보호기관	802	596	137	49	20
	치료감호소	379	37	303	22	17
	계	2,718	2,075	514	92	37
2016	보호관찰기관	1,525	1,431	75	19	-
	소년보호기관	807	602	148	37	20
	치료감호소	389	37	314	21	17
	계	2,721	2,070	537	77	37
2017	보호관찰기관	1,573	1,479	75	19	-
	소년보호기관	822	617	148	37	20
	치료감호소	416	37	341	21	17
	계	2,811	2,133	564	77	37
2018	보호관찰기관	1,579	1,484	76	19	-
	소년보호기관	872	659	154	37	22
	치료감호소	419	37	344	21	17
	계	2,870	2,180	574	77	39
2019	보호관찰기관	1,711	1,615	77	19	-
	소년보호기관	920	688	162	35	35
	치료감호소	419	36	345	21	17
	계	3,050	2,339	584	75	52
2020	보호관찰기관	1,767	1,671	77	19	-
	소년보호기관	974	742	163	34	35
	치료감호소	443	37	368	21	17
	계	3,184	2,450	608	74	52
2021	보호관찰기관	1,955	1,859	77	19	-
	소년보호기관	982	742	171	32	37
	치료감호소	443	37	369	20	17
	계	3,380	2,638	617	71	54

※ <직군, 직렬 구분 참고자료>

1. 기술직군 : 전산, 시설,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공업, 운전, 조리, 간호조무, 방송통신
2. 관리운영직군 : 방호, 관리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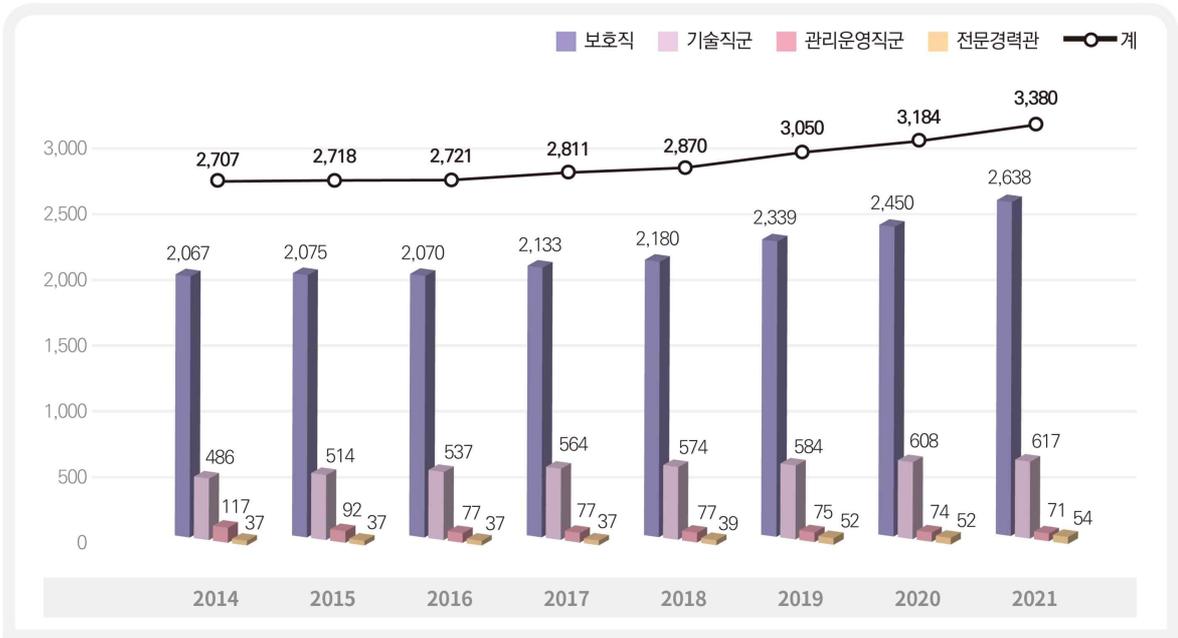


그림 부록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현황(2014~2021)

## 2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표 부록2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연번	제도명	도입 연도	인력증원				비고
			연도	인원	직급	인원	
1	치료명령제도	2016년	2017년	13	7급	13	
2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2018년	2020년	52	6급	10	
					7급	14	
					8급	14	
					9급	14	
3			2018년	38	6급	10	
					7급	10	
					8급	10	
					9급	8	
4	교육수용전담제	2018년	2019년	47	6급	4	
					7급	6	
					8급	10	
					9급	14	
5			2020년	42	전문경력관나군	13	
					6급	6	
					7급	12	
					8급	13	
6	1:1 전자감독 제도	2019년	2021년	101	9급	11	
					6급	19	
					7급	33	
7	전자보석 제도	2020년			8급	32	
	전자감독 가석방 확대				9급	17	

### 3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표 부록3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연번	업 무	정원	비 고
1	전자감독	338	
2	성인보호관찰	398	
3	소년보호관찰	228	
4	사회봉사명령	138	
5	수감명령	117	
6	조사	174	
7	위치추적 관제 업무	70	

## 표

<b>표 1-1-1</b>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4~2020)	25
<b>표 1-1-2</b>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 접수사건 현황(2020)	27
<b>표 1-1-3</b>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2014~2020)	29
<b>표 1-1-4</b>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 실시사건 현황(2020)	31
<b>표 1-1-5</b>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2020)	33
<b>표 1-1-6</b>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4~2020)	34
<b>표 1-2-1</b>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4~2020)	36
<b>표 1-2-2</b>	소년보호기관별 신수용 현황(2020)	39
<b>표 1-2-3</b>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4~2020)	40
<b>표 1-2-4</b>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42
<b>표 1-2-5</b>	소년원별 출원 현황(2020)	44
<b>표 1-3-1</b>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4~2020)	46
<b>표 1-3-2</b>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4~2020)	47
<b>표 1-4-1</b>	치료감호소의 입소 현황(2014~2020)	50
<b>표 1-4-2</b>	치료감호소의 수용 현황(2014~2020)	52
<b>표 1-4-3</b>	치료감호소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4~2020)	53
<b>표 1-4-4</b>	치료감호소의 출소 현황(2014~2020)	55
<b>표 1-4-5</b>	치료감호소 의사 총원율(2014~2020)	56
<b>표 1-5-1</b>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4~2020)	58
<b>표 1-5-2</b>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4~2020)	59
<b>표 1-5-3</b>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61
<b>표 1-5-4</b>	소년보호기관별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20)	62



표 1-5-5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63
표 1-5-6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4~2020)	64
표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81
표 2-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83
표 2-1-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85
표 2-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86
표 2-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88
표 2-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현황(2014~2020)	89
표 2-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91
표 2-1-8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94
표 2-1-9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95
표 2-1-10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4~2020)	97
표 2-1-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98
표 2-1-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율 현황(2014~2020)	99
표 2-1-13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00
표 2-1-14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102
표 2-1-15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103
표 2-1-16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4~2020)	104
표 2-1-17	보호관찰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20)	106
표 2-1-18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20)	107

## 표

표 2-1-19	서면경고 현황(2014~2020)	109
표 2-1-20	지명수배 활용 현황(2020)	110
표 2-1-21	보호관찰 사건 구인 및 유치 현황(2014~2020)	111
표 2-1-22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2014~2020)	111
표 2-1-23	집행유예 취소 신청 현황(2014~2020)	113
표 2-1-24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결과 현황(2014~2020)	113
표 2-1-25	특별준수사항의 추가·변경 신청 및 인용 현황(2020)	115
표 2-1-26	소년 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20)	116
표 2-1-27	소년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5~2020)	117
표 2-1-28	성인 보호관찰 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20)	117
표 2-1-29	성인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5~2020)	118
표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6~2020)	120
표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121
표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122
표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6~2020)	123
표 2-2-5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6~2020)	124
표 2-2-6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6~2020)	125
표 2-2-7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6~2020)	125
표 2-2-8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기간별 현황(2016~2020)	126
표 2-2-9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6~2020)	127
표 2-2-10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집행사건 현황(2016~2020)	128
표 2-2-11	치료명령 현재원의 처분유형 및 문제유형별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129



표 2-2-12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20)	129
표 2-2-13	치료명령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129
표 2-2-14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20)	130
표 2-2-15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20년)	130
표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20)	132
표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4~2020)	133
표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135
표 2-4-2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 현황(2020)	138
표 2-4-3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40
표 2-4-4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41
표 2-4-5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143
표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144
표 2-4-7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45
표 2-4-8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47
표 2-4-9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147
표 2-4-10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48
표 2-4-11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149
표 2-4-12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49
표 2-4-13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150
표 2-4-14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51
표 2-4-15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51
표 2-4-16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152

## 표

<b>표 2-4-17</b>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20)	153
<b>표 2-4-18</b>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의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20)	154
<b>표 2-4-19</b>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8~2020)	155
<b>표 2-4-20</b>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56
<b>표 2-4-21</b>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57
<b>표 2-4-22</b>	검사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157
<b>표 2-4-23</b>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58
<b>표 2-4-24</b>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20)	160
<b>표 2-4-25</b>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160
<b>표 3-1-1</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4~2020)	166
<b>표 3-1-2</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166
<b>표 3-1-3</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 현황(2014~2020)	169
<b>표 3-1-4</b>	전자장치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2014~2020)	170
<b>표 3-1-5</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8~2020)	170
<b>표 3-1-6</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범죄유형별 현황(2018~2020)	171
<b>표 3-1-7</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처분유형별 현황(2018~2020)	172
<b>표 3-1-8</b>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2014~2020)	173
<b>표 3-1-9</b>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4~2020)	174
<b>표 3-1-10</b>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175
<b>표 3-1-11</b>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6~2020)	176
<b>표 3-1-12</b>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현황(2014~2020)	178



표 3-1-13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제구호 금액 현황(2014~2020)	178
표 3-1-14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률 현황(2014~2020)	179
표 3-1-1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재범 현황(2014~2020)	179
표 3-1-16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	180
표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등 현황(2014~2020)	182
표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건의 유형별 현황(2014~2020)	183
표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의 죄명별 현황(2014~2020)	185
표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4~2020)	186
표 3-2-5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4~2020)	187
표 4-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193
표 4-1-2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195
표 4-1-3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97
표 4-1-4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99
표 4-1-5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200
표 4-1-6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201
표 4-1-7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2
표 4-1-8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4
표 4-1-9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5
표 4-1-10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6
표 4-1-11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207
표 4-1-12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208

## 표

<b>표 4-1-13</b>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10
<b>표 4-1-14</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4~2020)	212
<b>표 4-1-15</b>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4~2020)	213
<b>표 4-1-16</b>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형태별 현황(2014~2020)	215
<b>표 4-1-17</b>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16
<b>표 4-1-18</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17
<b>표 4-1-19</b>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18
<b>표 4-1-20</b>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20
<b>표 4-1-21</b>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21
<b>표 4-1-22</b>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황(2014~2020)	222
<b>표 4-1-23</b>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4~2020)	224
<b>표 4-1-24</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4~2020)	225
<b>표 4-1-25</b>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4~2020)	226
<b>표 4-1-26</b>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4~2020)	228
<b>표 4-2-1</b>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4~2020)	230
<b>표 4-2-2</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232
<b>표 4-2-3</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233
<b>표 4-2-4</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235
<b>표 4-2-5</b>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36
<b>표 4-2-6</b>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239
<b>표 4-2-7</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241
<b>표 4-2-8</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242



표 4-2-9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244
표 4-2-10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245
표 4-2-11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246
표 4-2-12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248
표 4-2-13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250
표 4-2-14	수강·이수명령 협력기관 현황(2014~2020)	251
표 5-1-1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4~2020)	255
표 5-1-2	신수용 보호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256
표 5-1-3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14~2020)	257
표 5-1-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0)	259
표 5-1-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20)	260
표 5-1-6	신수용 위탁소년의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262
표 5-1-7	신수용 위탁소년 연령별 현황(2014~2020)	264
표 5-1-8	신수용 위탁소년 성별 현황(2014~2020)	265
표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67
표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68
표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69
표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71
표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4~2020)	272
표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2014~2020)	274
표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4~2020)	276

## 표

표 5-3-2	기관별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2020)	278
표 5-3-3	보호소년 교과교육 세부 현황(2014~2020)	279
표 5-3-4	소년원별 교과교육 세부 현황(2020)	279
표 5-3-5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4~2020)	280
표 5-3-6	소년원별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20)	282
표 5-3-7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4~2020)	283
표 5-4-1	보호소년의 개방처우 현황(2014~2020)	286
표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4~2020)	287
표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4~2020)	289
표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4~2020)	290
표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4~2020)	292
표 5-5-2	소년보호기관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20)	295
표 5-5-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4~2020)	296
표 5-5-4	소년보호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20)	298
표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19)	299
표 5-6-2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19)	300
표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305
표 6-1-2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306
표 6-1-3	학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307
표 6-1-4	검찰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308
표 6-1-5	법원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309



표 6-1-6	기타 기관 의뢰 대안교육의 교육기간별 실시 현황(2014~2020)	309
표 6-1-7	대안교육의 비행유형별 실시 현황(2016~2020)	310
표 6-1-8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대안교육 현황(2020)	311
표 6-1-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313
표 6-1-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2014~2020)	314
표 6-1-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20)	315
표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등 실시 현황(2014~2020)	316
표 6-2-2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상담조사(결정전조사 포함) 실시 현황(2020)	318
표 6-2-3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319
표 6-2-4	청소년 심리상담의 검사종류별 현황(2014~2020)	321
표 6-2-5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별 청소년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현황(2020)	322
표 6-3-1	자립지원기관 개요(2020)	323
표 6-3-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2016~2020)	324
표 6-3-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2016~2020)	325
표 7-1-1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4~2020)	329
표 7-1-2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4~2020)	330
표 7-1-3	피치료감호자의 죄명별 수용 현황(2014~2020)	332
표 7-1-4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4~2020)	333
표 7-1-5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4~2020)	335
표 7-1-6	피치료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336
표 7-1-7	피치료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4~2020)	337

## 표

<b>표 7-1-8</b>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4~2020)	339
<b>표 7-1-9</b>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4~2020)	340
<b>표 7-2-1</b>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4~2020)	342
<b>표 7-2-2</b>	피치료감호자의 직업훈련 세부 현황(2014~2020)	343
<b>표 7-2-3</b>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45
<b>표 7-2-4</b>	피치료감호자의 진단검사 실시 현황(2014~2020)	346
<b>표 7-2-5</b>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5~2020)	347
<b>표 7-3-1</b>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20)	349
<b>표 7-3-2</b>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20)	351
<b>표 7-3-3</b>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종료현황(2014~2020)	352
<b>표 7-4-1</b>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율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353
<b>표 7-4-2</b>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의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354
<b>표 7-4-3</b>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 1호)의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355
<b>표 7-4-4</b>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 2호)의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355
<b>표 7-4-5</b>	해당년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의 죄명별 현황(2014~2020)	356
<b>표 7-4-6</b>	병명별 재입소 현황(2014~2020)	357
<b>표 7-4-7</b>	감호집행정지자 현황(2014~2020)	359
<b>표 7-5-1</b>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소 현황(2014~2020)	360
<b>표 7-5-2</b>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4~2020)	361
<b>표 7-5-3</b>	성폭력 범죄자의 정신감정 의뢰 현황(2014~2020)	362
<b>표 7-5-4</b>	정신감정 의뢰자 중 성폭력 범죄자의 비율(2014~2020)	362



표 8-2-1	공단 정원 현황(2014~2020)	367
표 8-2-2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4~2020)	368
표 8-2-3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0
표 8-2-4	공단 숙식제공 개시율 및 평균 숙식 인원 현황(2014~2020)	370
표 8-2-5	공단 숙식제공 지원기간별 현황(2014~2020)	371
표 8-2-6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2
표 8-2-7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수료율 및 취업 등 현황(2014~2020)	373
표 8-2-8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5
표 8-2-9	공단지부별 주거지원 실시 현황(2014~2020)	376
표 8-2-10	공단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7
표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4~2020)	378
표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9
표 8-3-3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대상자 현황(2014~2020)	380
표 8-3-4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81
표 8-3-5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82
표 8-3-6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83
표 9-1-1	법교육 프로그램 전체 실시 현황(2014~2020)	387
표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2016~2020)	388
표 9-1-3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2014~2020)	389
표 9-1-4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2014~2020)	390
표 9-1-5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2014~2020)	391

## 표

<b>표 9-1-6</b>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2015~2020)	392
<b>표 9-1-7</b>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생자치법교육’ 현황(2014~2020)	393
<b>표 9-2-1</b>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4~2020)	396
<b>표 9-3-1</b>	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98
<b>표 9-3-2</b>	부산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7~2020)	399
<b>표 9-3-3</b>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2014~2020)	399
<b>표 부록1</b>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현황	404
<b>표 부록2</b>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406
<b>표 부록3</b>	보호관찰기관 업무별 보호직 정원 현황	407



그림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4~2020)	25
그림 1-1-2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점유율(2014, 2020)	26
그림 1-1-3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2014~2020)	30
그림 1-1-4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의 분야별 점유율(2014, 2020)	30
그림 1-1-5	보호관찰 등 현재원의 분야별 점유율(2020)	33
그림 1-1-6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4~2020)	35
그림 1-1-7	보호관찰 종료사건의 유형별 점유율(2014, 2020)	35
그림 1-2-1	소년보호기관의 신수용 현황(2014~2020)	37
그림 1-2-2	소년보호기관의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4~2020)	41
그림 1-2-3	소년보호기관 일일평균 수용인원의 유형별 점유율(2020)	41
그림 1-2-4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43
그림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현황(2014~2020)	46
그림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진단 현황(2014~2020)	48
그림 1-4-1	치료감호소의 입소 현황(2014~2020)	50
그림 1-4-2	치료감호소의 수용 현황(2014~2020)	52
그림 1-4-3	치료감호소의 연평균 수용 현황(2014~2020)	54
그림 1-4-4	치료감호소의 출소 현황(2014~2020)	55
그림 1-4-5	치료감호소 의사 총원율(2014~2020)	57
그림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4~2020)	59
그림 1-5-2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4~2020)	60
그림 1-5-3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61
그림 1-5-4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20)	63
그림 1-5-5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4~2020)	64

## 그림

그림 2-1-1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0)	81
그림 2-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82
그림 2-1-3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84
그림 2-1-4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85
그림 2-1-5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87
그림 2-1-6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89
그림 2-1-7	보호관찰(남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90
그림 2-1-8	보호관찰(여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90
그림 2-1-9	전체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92
그림 2-1-10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93
그림 2-1-11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보호관찰처분 전력 현황(2014~2020)	93
그림 2-1-12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94
그림 2-1-13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96
그림 2-1-14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성별에 따른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96
그림 2-1-15	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4~2020)	97
그림 2-1-16	성인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외출제한명령 부과율(2014~2020)	97
그림 2-1-17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사범별 외출제한명령 부과 현황(2014~2020)	99
그림 2-1-18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01
그림 2-1-19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0)	101
그림 2-1-20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104
그림 2-1-21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의 학생 등 현황(2014~2020)	105



그림 2-1-22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0)	107
그림 2-1-23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0)	107
그림 2-1-24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의 사범별 점유율(2020)	108
그림 2-1-25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결과 현황(2014~2020)	114
그림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접수사건 현황(2016~2020)	121
그림 2-2-2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122
그림 2-2-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사건의 문제유형별 현황(2016~2020)	123
그림 2-2-4	치료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6~2020)	124
그림 2-2-5	치료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6~2020)	127
그림 2-2-6	치료명령의 치료기관 현황(2020)	130
그림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등 현황(2020)	132
그림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4~2020)	133
그림 2-4-1	보호관찰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현황(2014~2020)	136
그림 2-4-2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41
그림 2-4-3	판결전조사 성별 접수 현황(2014~2020)	142
그림 2-4-4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44
그림 2-4-5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14, 2020)	145
그림 2-4-6	결정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46
그림 2-4-7	청구전조사 접수사건의 종류별 점유율(2014~2020)	153
그림 2-4-8	검사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20)	156
그림 2-4-9	환경조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59

## 그림

<b>그림 3-1-1</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범죄유형별 현황(2014~2020)	166
<b>그림 3-1-2</b>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168
<b>그림 3-1-3</b>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2014~2020)	173
<b>그림 3-1-4</b>	전자감독 현재원 현황(2014~2020)	174
<b>그림 3-1-5</b>	전자감독 현재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175
<b>그림 3-1-6</b>	전자감독 대상자의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6~2020)	177
<b>그림 3-1-7</b>	전자감독 대상자의 원호 실시 현황(2014~2020)	178
<b>그림 3-1-8</b>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현황(2020)	180
<b>그림 3-2-1</b>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누적 등록사건 등 현황(2014~2020)	182
<b>그림 3-2-2</b>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건의 유형별 현황과 추이(2014~2020)	184
<b>그림 3-2-3</b>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사건 현황(2014~2020)	186
<b>그림 3-2-4</b>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종료 현황(2014~2020)	188
<b>그림 4-1-1</b>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근거 법률별 현황(2014~2020)	194
<b>그림 4-1-2</b>	사회봉사명령의 근거 법률별 점유율(2020)	194
<b>그림 4-1-3</b>	전체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196
<b>그림 4-1-4</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98
<b>그림 4-1-5</b>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199
<b>그림 4-1-6</b>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200
<b>그림 4-1-7</b>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201
<b>그림 4-1-8</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3
<b>그림 4-1-9</b>	소년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4



<b>그림 4-1-10</b>	성인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5
<b>그림 4-1-11</b>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의 명령시간별 현황(2014~2020)	207
<b>그림 4-1-12</b>	사회봉사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207
<b>그림 4-1-13</b>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법률별 현황(2014~2020)	209
<b>그림 4-1-14</b>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근거법률별 점유율(2020)	209
<b>그림 4-1-15</b>	전체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11
<b>그림 4-1-16</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 실시사건의 부과형태별 현황(2014~2020)	212
<b>그림 4-1-17</b>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건 현황(2014~2020)	214
<b>그림 4-1-18</b>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형태별 현황(2014~2020)	215
<b>그림 4-1-19</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18
<b>그림 4-1-20</b>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19
<b>그림 4-1-21</b>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20
<b>그림 4-1-22</b>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의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20)	221
<b>그림 4-1-23</b>	사회봉사명령의 협력기관 현황(2014~2020)	223
<b>그림 4-1-24</b>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4~2020)	224
<b>그림 4-1-25</b>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사회봉사 제외)의 종료 현황(2014~2020)	225
<b>그림 4-1-26</b>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종료 현황(2014~2020)	227
<b>그림 4-1-27</b>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4~2020)	228
<b>그림 4-2-1</b>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의 접수사건 현황(2014~2020)	231
<b>그림 4-2-2</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232

## 그림

<b>그림 4-2-3</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처분유형별 현황(2014~2020)	234
<b>그림 4-2-4</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36
<b>그림 4-2-5</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37
<b>그림 4-2-6</b>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37
<b>그림 4-2-7</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239
<b>그림 4-2-8</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240
<b>그림 4-2-9</b>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성별 현황(2014~2020)	240
<b>그림 4-2-10</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242
<b>그림 4-2-11</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243
<b>그림 4-2-12</b>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사건의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20)	244
<b>그림 4-2-13</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내외국인 현황(2020)	245
<b>그림 4-2-14</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현황(2014~2020)	247
<b>그림 4-2-15</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사범별 점유율(2020)	247
<b>그림 4-2-16</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249
<b>그림 4-2-17</b>	수강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점유율(2020)	249
<b>그림 4-2-18</b>	이수명령 접수사건의 시간별 현황(2014~2020)	250
<b>그림 4-2-19</b>	이수명령 시간별 접수사건 점유율(2020)	250



그림 5-1-1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4~2020)	255
그림 5-1-2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257
그림 5-1-3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58
그림 5-1-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0)	259
그림 5-1-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20)	261
그림 5-1-6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20)	263
그림 5-1-7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14~2020)	264
그림 5-1-8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20)	265
그림 5-2-1	7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67
그림 5-2-2	8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69
그림 5-2-3	9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70
그림 5-2-4	10호 보호소년의 출원 현황(2014~2020)	271
그림 5-2-5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4~2020)	373
그림 5-2-6	위탁소년의 위탁기간별 현황(2014~2020)	274
그림 5-3-1	보호소년의 교육 수료 현황(2014~2020)	277
그림 5-3-2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4~2020)	281
그림 5-3-3	보호소년의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4~2020)	284
그림 5-4-1	보호소년 개방처우 현황(2014~2020)	286
그림 5-4-2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현황(2014~2020)	288
그림 5-4-3	보호소년의 취업 지원 현황(2014~2020)	289
그림 5-4-4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2014~2020)	291
그림 5-5-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4~2020)	293
그림 5-5-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4~2020)	297
그림 5-6-1	보호소년의 출원 이후 누적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19)	300

## 그림

<b>그림 6-1-1</b>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305
<b>그림 6-1-2</b>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0)	306
<b>그림 6-1-3</b>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보호자교육 현황(2014~2020)	313
<b>그림 6-2-1</b>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실시 현황(2014~2020)	317
<b>그림 6-2-2</b>	청소년 심리상담의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20)	320
<b>그림 6-2-3</b>	청소년 심리검사의 의뢰기관별 점유율(2020)	320
<b>그림 6-2-4</b>	청소년 심리검사의 검사종류별 점유율(2020)	321
<b>그림 7-1-1</b>	피치료감호자의 유형별 수용 현황(2014~2020)	329
<b>그림 7-1-2</b>	피치료감호자의 병명별 수용 현황(2014~2020)	331
<b>그림 7-1-3</b>	피치료감호자의 죄명 수용 현황(2014~2020)	332
<b>그림 7-1-4</b>	피치료감호자의 범죄횟수별 현황(2014~2020)	334
<b>그림 7-1-5</b>	피치료감호자의 집행기간별 현황(2014~2020)	335
<b>그림 7-1-6</b>	피치료감호자의 연령별 현황(2014~2020)	337
<b>그림 7-1-7</b>	피치료감호자의 학력별 현황(2014~2020)	338
<b>그림 7-1-8</b>	피치료감호자의 직업별 현황(2014~2020)	339
<b>그림 7-1-9</b>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물질별 현황(2014~2020)	341
<b>그림 7-2-1</b>	피치료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4~2020)	343
<b>그림 7-2-2</b>	피치료감호자(2호)의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45
<b>그림 7-2-3</b>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4~2020)	348
<b>그림 7-2-4</b>	치료기관별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4~2020)	348
<b>그림 7-3-1</b>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중료 현황(2014~2020)	350



<b>그림 7-3-2</b>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20)	351
<b>그림 7-3-3</b>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종료현황(2014~2020)	352
<b>그림 7-4-1</b>	출소자 대비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20)	354
<b>그림 7-4-2</b>	해당년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 죄명별 현황(2014~2020)	357
<b>그림 7-4-3</b>	해당년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의 병명별 현황(2014~2020)	358
<b>그림 7-5-1</b>	정신감정 유치자의 입·출소 현황(2014~2020)	360
<b>그림 7-5-2</b>	정신감정 의뢰기관별 현황(2014~2020)	361
<b>그림 8-2-1</b>	공단 갱생보호사업 대상자 현황(2014~2020)	368
<b>그림 8-2-2</b>	공단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0
<b>그림 8-2-3</b>	공단 숙식제공 세부 현황(2014~2020)	371
<b>그림 8-2-4</b>	공단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3
<b>그림 8-2-5</b>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세부 현황(2014~2020)	374
<b>그림 8-2-6</b>	공단 가족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75
<b>그림 8-2-7</b>	공단 주거지원 - 공급 주택 호수(2014~2020)	376
<b>그림 8-3-1</b>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연도별 대상자 현황(2014~2020)	378
<b>그림 8-3-2</b>	민간법인 생활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80
<b>그림 8-3-3</b>	민간법인 취업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81
<b>그림 8-3-4</b>	민간법인 주거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82
<b>그림 8-3-5</b>	민간법인 상담지원 대상자 현황(2014~2020)	383

## 그림

<b>그림 9-1-1</b>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87
<b>그림 9-1-2</b>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88
<b>그림 9-1-3</b>	'어린이로스쿨'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89
<b>그림 9-1-4</b>	'북한 이탈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90
<b>그림 9-1-5</b>	'시민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91
<b>그림 9-1-6</b>	'이민자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92
<b>그림 9-1-7</b>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94
<b>그림 9-1-8</b>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20)	394
<b>그림 9-2-1</b>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4~2020)	396
<b>그림 9-3-1</b>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2014~2020)	400
<b>그림 9-3-2</b>	기관별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2014~2020)	400
<b>그림 부록1</b>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현황(2014~2021)	405

총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기획	범죄예방기획과장 윤태영
	보호정책과장 정소연
	치료처우과장 송중일
	보호관찰과장 이정민
	소년보호과장 이영호
	전자감독과장 심선옥
	소년범죄예방팀장 양현규
범죄예방데이터과장 이용호	
편집	범죄예방데이터과 정진경 김재덕

# 통계분석

2021 범죄예방정책

발행 2021년 9월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 02-2110-3335  
 디자인·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